

201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7 2019 통일의식조사

2019 통일의식조사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학재·강채연·김범수·김병로·김희정·이성우·최규빈·임경훈·조용신

집필진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김희정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이성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임경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조용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프로젝트 연구원





2019 통일의식조사

김학재·강채연·김범수·김병로·김희정·이성우·임경훈·최규빈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7

2019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20. 2. 28
발 행 2020. 2. 28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발행인 임경훈
저 자 김학재·강채연·김범수·김병로·김희정·이성우
임경훈·최규빈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전 화 02) 880-4052~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편집·제작 (주)다해미디어
가 격 비매품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9

※ 이 보고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사전 서면 허락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

(2019) 통일의식조사 /
저자: 김학재, 강채연, 김범수, 김병로, 김희정, 이성우, 임경훈, 최규빈.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20
p. ; cm.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 47)
ISBN 979-11-966513-4-3 93340 : 비매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학연구 47

2019 통일의식조사



목차

서장	18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112
제1부 기초분석		1. 서론	112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30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114
1. 서론	30	3.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력 인식	118
2.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33	4. 대북정책별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123
3.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44	5. 정부 대북정책의 영향력 인식	131
4.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50	6. 정부의 우선정책방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견해	133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64	7. 소결	140
6. 소결	78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142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84	1. 서론	142
1. 서론	84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44
2.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86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158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93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173
4.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97	5. 소결	181
5.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99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84
6. 북한사회 인지도 및 이질성 인식	104	1. 서론	184
7. 소결	107	2.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186
		3. 다문화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인식	192
		4. 사회경제적 친화성(親和性)	199
		5. 북한이탈주민정책의 효용성(效用性)	209
		6. 소결	217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통일의식	226
1.	서론	226
2.	통일의식조사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변동	230
3.	한국의 사회 갈등 지형 변화와 포스트 지구화 현상	234
4.	한국 사회변동과 통일의식의 분화: 기술적 분석	244
5.	한국 사회변동과 사회적 관용과 포용의 악화 : 기술적 분석	249
6.	통계적 분석	253
7.	소결	259
제7장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 유형화 연구	268
1.	서론	268
2.	통일에 대한 감정	271
3.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와 유형화	273
4.	통일의 감정구조와 통일인식	281
5.	소결	286

결장

2019년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	292
---------------------	-----

부록

부록	302
----	-----

표 목차

〈표 1-1-1〉	통일의 이미지	34	〈표 1-4-2〉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147
〈표 1-1-2〉	통일의 필요성	35	〈표 1-4-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154
〈표 1-1-3〉	통일의 가장 큰 이유	38	〈표 1-4-4〉	연령대별 대북, 대중 위협인식	155
〈표 1-1-4〉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장 큰 이유	41	〈표 1-4-5〉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156
〈표 1-1-5〉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42	〈표 1-4-6〉	정치성향별 대북위협도	157
〈표 1-1-6〉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42	〈표 1-4-7〉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158
〈표 1-1-7〉	통일의 추진 방식	44	〈표 1-4-8〉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161
〈표 1-1-8〉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	47	〈표 1-4-9〉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165
〈표 1-1-9〉	통일의 가능시기	49	〈표 1-4-10〉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169
〈표 1-1-10〉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전체와 개인	53	〈표 1-4-11〉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172
〈표 1-1-1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전체	56	〈표 1-4-12〉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176
〈표 1-1-12〉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개인	57	〈표 1-4-13〉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178
〈표 1-1-13〉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19)	58	〈표 1-4-14〉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179
〈표 1-1-14〉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65	〈표 1-4-15〉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	181
〈표 1-1-15〉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한국의 체제	68	〈표 2-6-1〉	통일의식과 포용관련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255
〈표 1-1-16〉	대북 사안별 시급성(2019)	69	〈표 2-6-2〉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결정 요인에 대한 순위 로짓 분석	255
〈표 1-2-1〉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2019)	88	〈표 2-6-3〉	포용성과 관용의 결정 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256
〈표 1-2-2〉	북한정권과 대화·타협 가능성 여부	94	〈표 2-6-4〉	진보적-보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58
〈표 1-2-3〉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94	〈표 2-7-1〉	통일 감정구조 유형화	278
〈표 1-2-4〉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9)	107	〈표 2-7-2〉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차이	281
〈표 1-3-1〉	정부의 우선정책방향 1순위와 2순위 관계	135	〈표 2-7-3〉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통일인식의 차이	286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146			

그림 목차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36	〈그림 1-1-21〉 대북 사안별 시급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76
〈그림 1-1-2〉 통일의 가장 큰 이유	39	〈그림 1-1-22〉 대북 사안별 시급성: 인도적 대북지원	76
〈그림 1-1-3〉 통일의 추진 방식	46	〈그림 1-1-23〉 대북 사안별 시급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77
〈그림 1-1-4〉 통일의 가능시기	50	〈그림 1-1-24〉 대북 사안별 시급성: 남북한 경제협력	77
〈그림 1-1-5〉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54	〈그림 1-1-25〉 대북 사안별 시급성: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78
〈그림 1-1-6〉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19)	59	〈그림 1-2-1〉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2007-2019)	87
〈그림 1-1-7〉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	61	〈그림 1-2-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2007-2019)	89
〈그림 1-1-8〉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	61	〈그림 1-2-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2015-2019)	90
〈그림 1-1-9〉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62	〈그림 1-2-4〉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2017-2019)	91
〈그림 1-1-10〉 범죄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62	〈그림 1-2-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2009-2019)	95
〈그림 1-1-11〉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63	〈그림 1-2-6〉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8-2019)	100
〈그림 1-1-12〉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63	〈그림 1-2-7〉 지역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19)	101
〈그림 1-1-13〉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66	〈그림 1-2-8〉 북한사회 인지도(2007-2019)	105
〈그림 1-1-14〉 대북 사안별 시급성(2019)	71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15
〈그림 1-1-15〉 대북 사안별 시급성: 북한의 개방과 개혁	72	〈그림 1-3-2〉 2018년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16
〈그림 1-1-16〉 대북 사안별 시급성: 군사적 긴장 완화	73	〈그림 1-3-3〉 2019년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117
〈그림 1-1-17〉 대북 사안별 시급성: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73	〈그림 1-3-4〉 정치성향별 대북정책만족도	118
〈그림 1-1-18〉 대북 사안별 시급성: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74	〈그림 1-3-5〉 대북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	120
〈그림 1-1-19〉 대북 사안별 시급성: 북한의 인권 개선	74	〈그림 1-3-6〉 진보층 대북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인식	121
〈그림 1-1-20〉 대북 사안별 시급성: 북한 비핵화	75	〈그림 1-3-7〉 중도층 대북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인식	122

그림 목차

〈그림 1-3-8〉 보수층 대북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인식	123	〈그림 1-4-5〉 중국의 국가이미지	168
〈그림 1-3-9〉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124	〈그림 1-4-6〉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171
〈그림 1-3-10〉 정치성향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125	〈그림 1-4-7〉 미국 협조 필요성	174
〈그림 1-3-11〉 금강산 재개에 대한 견해	126	〈그림 1-4-8〉 일본 협조 필요성	174
〈그림 1-3-12〉 진보층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127	〈그림 1-4-9〉 중국 협조 필요성	175
〈그림 1-3-13〉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128	〈그림 1-4-10〉 러시아 협조 필요성	175
〈그림 1-3-14〉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견해	129	〈그림 1-5-1〉 한국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188
〈그림 1-3-15〉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견해	130	〈그림 1-5-2〉 북한이탈주민의 민족성·시민성에 대한 인식	190
〈그림 1-3-16〉 보수층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견해	131	〈그림 1-5-3〉 정치성향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91
〈그림 1-3-17〉 남북관계개선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	132	〈그림 1-5-4〉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192
〈그림 1-3-18〉 정부의 우선정책방향	134	〈그림 1-5-5〉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194
〈그림 1-3-19〉 이념성향별 정부의 우선정책방향 인식	136	〈그림 1-5-6〉 지역별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	195
〈그림 1-3-2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 인식	138	〈그림 1-5-7〉 한국사회 포용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196
〈그림 1-3-21〉 정치성향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 인식	139	〈그림 1-5-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197
〈그림 1-4-1〉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148	〈그림 1-5-9〉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인식	198
〈그림 1-4-2〉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49	〈그림 1-5-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2007-2015)	200
〈그림 1-4-3〉 미국의 국가이미지	160	〈그림 1-5-11〉 외국인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2019)	201
〈그림 1-4-4〉 일본의 국가이미지	164	〈그림 1-5-12〉 외국인 대비 친근감 연도별 비교(2017-2019)	202
		〈그림 1-5-13〉 미국인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	203
		〈그림 1-5-14〉 관계유형별 친화성추이: 꺼리지 않음	205

그림 목차

〈그림 1-5-15〉 사업·결혼관계에서 꺼리는 정도	206	〈그림 2-6-10〉 통일 편익의 연도별 변화와 전체·개인 격차	248
〈그림 1-5-16〉 직장동료로서의 관계: 남한주민	208	〈그림 2-6-11〉 남북관계를 협력관계로 보는 진보·보수 인식의 차이	249
〈그림 1-5-17〉 직장동료로서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208	〈그림 2-6-12〉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의 연도별 변화	251
〈그림 1-5-18〉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	210	〈그림 2-6-1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위협한다는 응답의 직업별 차이	252
〈그림 1-5-19〉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212	〈그림 2-7-1〉 연령대별 통일에 대한 감정	273
〈그림 1-5-20〉 지역별 지원정책 증가 인식	213	〈그림 2-7-2〉 통일 감정구조 유형 집단	279
〈그림 1-5-21〉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214		
〈그림 1-5-22〉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216		
〈그림 2-6-1〉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231		
〈그림 2-6-2〉 전체 고용에서 3차산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	232		
〈그림 2-6-3〉 전체 소득중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	233		
〈그림 2-6-4〉 2007년 이후 한국의 진보-중도-보수 정치 지형의 변화	235		
〈그림 2-6-5〉 최근의 새로운 포퓰리즘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분석틀	239		
〈그림 2-6-6〉 한국의 경제적 개방도 (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242		
〈그림 2-6-7〉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245		
〈그림 2-6-8〉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의 이유	246		
〈그림 2-6-9〉 직업별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	247		



서 장



서장

2019년에는 새롭게 재개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다양한 성과와 함께 여러 난제들에도 직면했던 한해였다. 2018년에는 한반도 정세의 대전환이라고 할 만큼 많은 진전과 변화가 이루어졌고, 2019년 초에도 역시 그런 흐름이 이어졌다.

1월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다시 한번 남북합의사항의 이행과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의사를 표명했고,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미 대통령간 친서 외교가 이어지며 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합의가 이루어졌다. 북미 고위급회담과 남북미 실무협의를 거쳐 개최가 확정된 제 2차 북미정상회담은, 2월 27일과 28일 사이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예상밖에 공동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북한은 제제 해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영변 핵시설 외의 핵시설을 포함한 비핵화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노이 협상의 결렬 이후, 약 1년간 이어져 오던 평화프로세스엔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고 북한과 미국은 제제 해제와 비핵화의 수준과 범

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갔다.

하지만 평화 프로세스를 지속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다. 한국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이어가려는 구체적 노력을 시도했고, 이산가족 화상 상봉장에 대한 개보수를 준비했으며,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1일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6월 북유럽 순방중 12일의 오슬로 포럼 기조 연설을 통해 ‘국민을 위한 평화’의 개요를 밝히고, 스웨덴 의회 연설에서는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하노이 이후 오래된 불신과 갈등이 다시 등장하기도 했다. 4월 10일 북한은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통해 ‘자력갱생’의 기치를 재천명했지만, 당시만 해도 제 3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하노이 회담의 결렬 이후 다시 평화 프로세스의 모멘텀을 회복한 것은 6월 이후였다. 6월 29일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했던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DMZ에서 만나 인사하길 바란다”는 언급을 한 후, 6월 30일에는 트럼프 미 대통령이 DMZ과 판문점을 방문하여 최초로 미국 정상이 북한땅을 밟는 남북미 정상 회동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하노이의 결렬을 넘어서 다시 대화와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이 회복되려 했다.

하지만 제제와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간 협상의 동력은 쉽게 회복되지 못했다. 2018년에는 서로 대화의지를 천명하고 군사훈련을 중지 및 유예하고, 정상 회담을 개최한 후 약속의 구체적 이행이 진행되고, 이어지는 대

화와 상호 방문 등으로 선순환이 이어졌지만, 2019년엔 다시 불신과 불만이 표출되었다. 북한은 5월부터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고, 한미 군사훈련이 다시 재개되자 7월, 8월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남북간의 분단이 단지 남북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에 오랫동안 유지된 냉전체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올해엔 남북관계 개선과 동아시아 정세의 평화로운 전개가 동시에 전개되지 못했다. 일본은 하노이 북미 합의 결렬 이후 대북 독자 제재를 재연장했고, 작년부터 진행된 한일 간 식민지 강제징용 배상을 둘러싼 갈등이, G20이후 일본의 대한국 수출금지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무역 보복조치로 이어지자 한국은 GSOMIA 종료를 선언하는 등 한일 관계 갈등이 몇 달간 이어졌다.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미중관계 역시 불안정했다. 2018년 3월 미국과 중국이 수입품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시작된 무역분쟁이 2019년 5월 5일 미국이 20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은 이에 대응해 6월 1일 600억달러 규모 미국산 수입품 관세를 인상했다. 8월 5일 미국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고, 화웨이를 둘러싼 기술과 안보 분쟁 등으로 확산되며 오랫동안 예상해온 중미간의 패권경쟁이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미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자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미국의 전통적 국제주의가 미국 우선주의로 전환되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 한국에도 적용되어 방위비 인상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었다. 올해는 대체로 동북아 주변 국제 정세가 유난히 불안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북미간 실무 협상을 위한 시도는 지속되었다. 9월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대화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10월에는 북미 예비접촉에 이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상호간 행동과 교환의 수준에 대한 기대차가 드러나 북한측은 협상에 불만을 표했고 금강산관광 지구 시설 철거 관련 통지문을 한국에 전달했다.

연말에 진행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의 중단이나 유예를 의제로 북미 협상 재개에 관한 협상이 시도되었으나 북한은 다시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채택 된 것과 관련해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에게 회담을 다시 제안했으나 11월 18일 김계관 외무성 고문은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초대했으나 북측은 불참 입장을 전달했다.

상황은 좀더 악화되어 12월 북한은 미국의 선택에 따라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 될지가 달려있다고 경고하고 12월 7일에는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개 회의를 개최했고,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는 “북한인권결의 컨센서스”를 채택하며 도발에 대비했다.

하지만 다행히 연말의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로 한해가 마무리되었다. 오랫동안 긴장을 강화한 미중 무역분쟁은 12월 12일 미중간 1단계 무역합의안이 승인되며 일단락 되었고, 12월 23-24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것임을 밝히며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한중일 정상은 한반도 평화가 3국의 공동 이익이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와 평화가 진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

다. 이어진 12월 28-31일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 7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는 국방력 강화, 자력갱생과 자력 강화를 강조했지만, “미국의 대북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가변적”이라고 밝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다.

이 글을 마무리 하고 있는 2020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합동 인사 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 장은 다시 생일축하 인사를 건내며 큰 갈등으로 고조되지 않는 차분한 분 위기를 이어갔다. 2019년 한해는 2018년 만큼의 급격한 관계 개선과 성과 가 나오지 못했고 다시 불신과 갈등이 발생한 한편, 동북아 주변의 정세도 긴장이 강화되어 남북, 북미관계마저 경색될 위험에 처했지만 다행히 과 거 같은 지나친 갈등과 불신으로 회귀하지 않고 대화의 여지들을 열어두 었던 한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2019년 안팎으로 급격한 정치적 변화가 진행된 한반도에서 한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서울대학교 통일평화 연구원은 2007년부터 매년 1,200여 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통일 및 북한,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국민들의 변화되는 의식의 시계열적 흐름을 보기 위해 대부분 동일한 문항을 유지 하고 있지만, 이론적 심화와 시의적절한 함의 제공을 위해 해마다 필요한 문항들을 추가 또는 보완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의 구축은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먼 저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매년 유사한 항목으로 측정함으로써 시계 열 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통일학의 기초자료로서 그 활용가치가 매우 높 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통하여 여러 통일에 대한 생각들을 종속변수로, 이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삼음으로써 국민들의 통일의식을 심도있게 분석하고 관련 이론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정책적으로도 통일 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생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에 기초한 통일 및 대북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민의 선호에 기반하지 않은 어떠한 정책적 논의도 그 효용성을 담보하 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자료는 정책을 뒷받침하고 나아가 구성할 수 있는 근거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조사 개요는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크게 기초분석과 심화분석으로 구성 되었다. 기초분석에서는 기본적인 국민의 통일에 대한 생각을 그 주제별 로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통일 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이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 다고 보는지, 통일이 남한사회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 보는지,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등에 대한 질문들이 분석에 포함 되었다.

두 번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이루어졌 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 가능성, 그리고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등에 대한 물 음이 포함되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을 어느 정도 가 지고 있는지,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북한정권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입장 등 이 질문에 포함되었다. 이 외 북한의 현 인권상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질문 이 추가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를 조사하였

다.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등이 설문에 포함되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여부, 금강산 관광의 재개 문제, 대북 진단 살포문제, 북한인권 문제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평가 문항도 이 부문의 주요 조사항목이다. 올해에는 이에 더하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를 묻는 등 최근 일어난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견해를 파악하려 하였다.

네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이 통일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해 국민들의 호감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들이 통일과 한반도의 평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들이 향후 어떠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만의 노력 뿐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란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입장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외교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한국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즉 한국에서의 출생, 한국 국적, 한국어 구사 여부 등이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문항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정치성향별, 지역별 등으로 나누어 다각도에서 살펴본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외국인 대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등 다각도에서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이러한 기초분석에 더하여 올해에는 다음의 두 가지 주제로 심화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통일의식 분석을 통하여 지구화

와 경제통합에 따른 사회변동은 통일의식, 북한인식, 사회적 포용 인식 등에 영향을 주며 반기득권, 반엘리트 정서가 대두되고 있는 현상을 논한다. 이러한 현상에 따라 통일의식의 양적 변화뿐 아니라 질적 분화에 대해 복합적인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통일 감정 유형화 연구를 통하여 통일 감정에 대한 군집분석을 시행하여 낮은 감정, 긍정 감정, 불안 감정, 높은 감정별로 유형화 한 후 각 집단별 특성을 알아본다. 또한 군집분석으로 도출된 네 개의 집단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후 그들의 통일인식 및 북한인식 문항에 대한 응답 차이를 살펴본다.

『2019년 통일의식조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26일 동안 시행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독자적인 행정구역이지만 인구가 적어 충청남도의 권역에 포함하였다. 2015년 조사부터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모집단의 연령을 기존의 65세 이하에서 74세 이하로 확대해 통일의식 형성에서 고령층의 견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유효 표본의 수는 1,200명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 이다.

모집단의 정보는 조사 시점 기준 가장 최신 행정자료인 행정안전부의 월간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표본추출은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을 이용하였다. 모집단의 지역별 인구 분포에 따라 조사지점별 할당이 주어지며, 면접원은 해당 조사지점 내에서 성별/연령별 할당을 고려하여 거주민을 대상으로 조

사를 진행하였다. 인구가 적은 일부 지역(강원, 제주 등)에 표본이 과소포집되거나 누락돼 전국 단위의 분석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2014년부터는 우선 할당 후 비례 배분하는 할당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별 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방식은 모집단의 분포와 표집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분석시 사후보정 가중치를 반영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1 개별면접조사(face to face interview)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지도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시행 한 후,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두 차례에 걸쳐 사전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한 후 문제점을 미리 발견하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 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시도하였다. 면접원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 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에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을 재교육을 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품질진단 보고서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전 예비조사를 실시, 기존 문항뿐 아니라 2019년 신설된 문항에 대한 현장 검증을 통해 조사표 오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응답자 전화 검증을 실시하였다. 전화 검증으

로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다른 면접원으로 교체해 재조사 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 빈도는 이 책의 부록에 수록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 지역, 정치적 성향, 종교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분석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부록에 제시된 통계는 가중치가 적용된 것이다. 통일의식조사의 원자료는 1년 후 한국사회과학 자료원을 통하여 설문지와 코드북이 제공되고 있다.



제1부 기초분석

-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제1장 통일에 대한 인식

| 김범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1. 서론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과 같은 큰 변화를 경험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1년 간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실례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4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자 “그렇게 할 일이 없나”라고 응수하며 김정은 위원장을 비난하였고 2017년 8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한다면 ...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¹ 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그 다음날인 8월 9일 화성-12형 중·장거리 미사일로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 연발적으로 미국의 괌 기지를 포

1) 『한국일보』, “트럼프 vs 김정은, 말 폭탄 점입가경.” 2017년 8월 11일.

위 사격하겠다고 위협하였다.²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로켓맨(rocket man)’은 자신과 그의 정권에 대해 ‘자살임무(a suicide mission)’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더 나아가 2018년 신년사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내 책상에 핵 버튼이 있다고” 위협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2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그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이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알려주겠냐. 내 버튼은 작동도 한다”라고 밝히는 등 2017년 약 1년여 기간 동안 북미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는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악화되었다.³ 이러한 분위기는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급반전하여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1차 남북정상회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북미정상회담, 9월 18일-20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차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이어지며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기대를 한껏 높였다. 그러나 2019년 10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결렬 이후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시한으로 제시한 2019년 12월이 되면서 다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⁴

2) 『news 1』, “김정은, 괌 타격 미사일 발사할까 ... 美와 전면전 가능성.” 2018년 8월 9일.

3) 『연합뉴스』, “[트럼프 1년] ⑥‘화염과 분노·거지소굴’ ... 지구촌 뒤흔든 말폭탄.” 2018년 1월 17일.

4) 본 장은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에 작성되어 이후의 정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본 장은 이처럼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온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⁵ 구체적으로는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통일의 이미지와 필요성, 통일을 원하는 또는 원하지 않는 이유, 통일 추진 방식과 통일 가능 시기, 통일이 한국 사회 전체 또는 응답자 개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통일이 한국의 사회문제 개선에 미치는 영향, 통일 한국의 체제와 통일 정책의 시급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가운데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이유, 통일 추진 방식과 통일 가능 시기, 통일이 한국 사회 전체 또는 개인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통일 한국의 체제 등과 관련한 항목은 2007년 조사부터 매년 조사해온 항목으로 통일과 관련한 국민 인식의 지난 10여년 간의 시계열적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통일에 관한 이미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한 항목은 2018년에 새로 추가한 항목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통일과 관련한 국민 인식을 드러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⁶ 본

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의뢰해 매년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및 태도 등을 조사해 왔다. 2019년 조사는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26일간)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8%이다.

6] 「2019년 통일외식조사」의 통일외식 관련 항목 가운데 통일교육, 통일과 관련한 감정에 대한 분석은 본서 7장 통일 감정 유형화 연구에서 다루고 있어 본 장의 논의에서는 제외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또한 통일의 이미지와 필요성, 통일의 이유, 통일 추진 방식과 가능시기, 통일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 통일 한국의 체제와 통일 정책의 시급성 등에 관한 국민 인식을 연령별, 교육수준별, 지역별, 정치적 성향별로 분석하는 내용은 본서 6장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통일외식”에서 다루고 있어 본 장은 이러한 인식의 지난 10여년 간 전반적 변화 추세와 최근 경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음을 밝혀둔다.

연구는 이러한 통시적, 공시적 분석을 통해 한편으로는 지난 10여년 간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와 지속성을 추적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2018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한 이후 나타난 통일과 관련한 국민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⁷

2. 통일의 이미지,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이미지와 필요성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은 1994년 8월 15일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제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으로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⁸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과 별개로 국민 개개인이 생각하는 통일의 이미지는 개인별로, 또는 세대, 이념별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2019년 통일외식조사」는 국민들이 통일

기 본 장에서 언급하는 통일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은 책이 출판된 시점에서의 국민들의 인식과 일정 정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위의 각주 5]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9년 조사는 6월 30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직후인 7월 1일부터 7월 26일까지 실시된 조사로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직후의 낙관적 분위기를 일정 정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최근 분위기는 판문점 회동 직후의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고 북미회담 진전에 대해 “두고 보자”는 분위기가 강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조사 시점과 분석 시점 사이에 나타날 수 있는 인식의 괴리는 불가피한 것으로 2019년 하반기의 변화는 2020년 조사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8] 통일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https://www.unikorea.go.kr/unikorea/policy/Mplan/Pabout/>

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라고 물었다. <표 1-1-1>은 이 질문에 대한 2018년과 2019년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표 1-1-1> 통일의 이미지

(단위: %)

통일의 이미지	2018	2019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58.1	60.6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	14.8	15.0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19.3	20.0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7.5	4.1
기타	0.3	0.3
합계	100.0	100.0

<표 1-1-1>에 의하면 통일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이 가장 먼저 떠올린 이미지는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으로 그 비중은 2018년 58.1%에서 2019년 60.6%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다수 국민들이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궁극적 목표로 상정하고 있는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즉 남북한이 경제적으로 협력하고 자유롭게 왕래·교류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위 결과는 통일로 나아가는 과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20.0%)”, “남북 간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것(15.0%)”,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4.1%)” 등을 통일로 생각하는 국민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948년 남북 분단 이후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이 궁

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규정해왔음을 고려할 때 약 40%의 응답자들이 이렇게 응답했다는 사실은 통일의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낮아졌음을, 즉 하나의 국가가 아니더라도 2국가 체제 하에서 경제 협력과 인적·물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을 통일로 인식하는 국민들 또한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2> 통일의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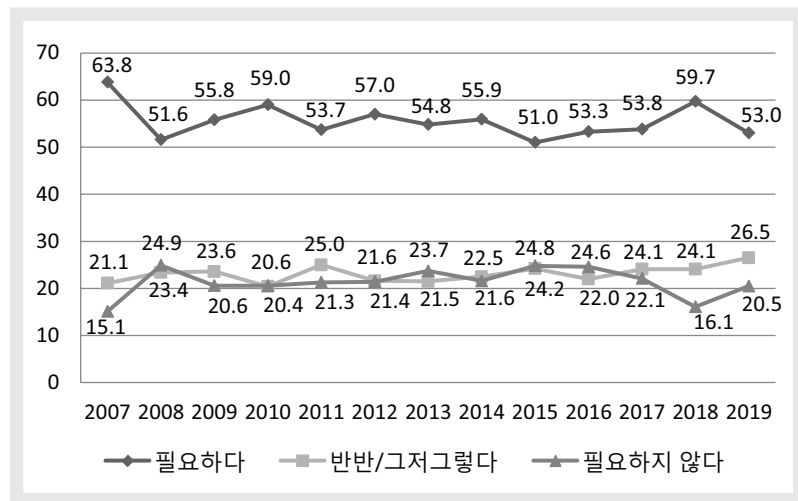
통일의 이미지	2018	2019
매우 필요하다	21.4	20.1
약간 필요하다	38.4	32.9
반반/그저 그렇다	24.1	26.5
별로 필요하지 않다	13.5	15.7
전혀 필요하지 않다	2.6	4.8
합계	100.0	100.0

다음으로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2019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20.1%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32.9%가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하였다. 반면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26.5%이며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각각 15.7%와 4.8%였다.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한 응답자의 비중은 53.0%로 2018년의 59.8%에 비해 상당히 줄어든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를 합한 응답자의 비중은 20.5%로 2018년의 16.1%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고 판문점과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의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신중해진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그림 1-1-1>은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추세를 정리한 것으로 이 그림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예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1> 통일의 필요성

(단위: %)



2) 통일의 이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 결과는 대략 전체의 50-60%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처럼 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일부는 “같은 민족이니까” 등과 같은 민족적 이유로, 일부는 “전쟁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로, 또는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등과 같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또한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다. 「통일인식조사」는 국민들이 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07년 이래 지난 13년간 “OO님은 우리 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또한 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18년부터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OO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3>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응답을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2>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결과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1-1-4>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2018년 조사와 2019년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1-1-3〉 통일의 가장 큰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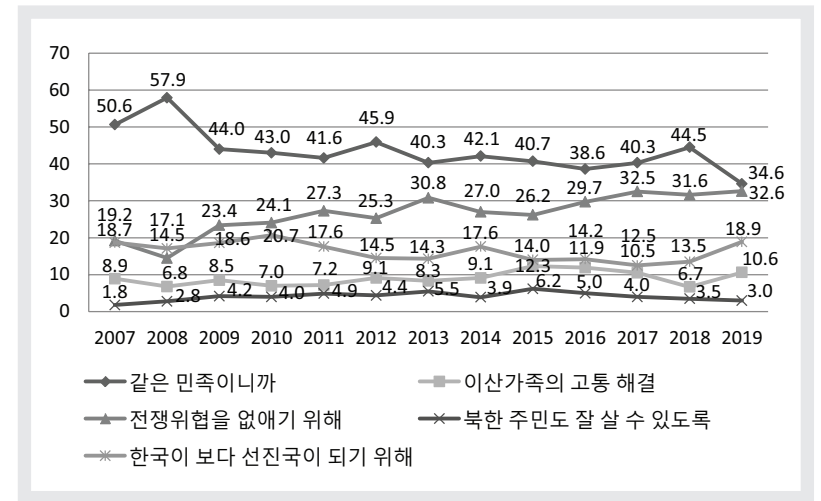
(단위: %)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없다/모름/무응답	합계 (N)
2007	50.6	8.9	19.2	1.8	18.7	0.9	1,200
2008	57.9	6.8	14.5	2.8	17.1	0.9	1,213
2009	44.0	8.5	23.4	4.2	18.6	1.3	1,202
2010	43.0	7.0	24.1	4.0	20.7	1.1	1,200
2011	41.6	7.2	27.3	4.9	17.6	1.4	1,201
2012	45.9	9.1	25.3	4.4	14.5	0.8	1,200
2013	40.3	8.3	30.8	5.5	14.3	0.8	1,200
2014	42.1	9.1	27.0	3.9	17.6	0.3	1,200
2015	40.7	12.3	26.2	6.2	14.0	0.6*	1,200
2016	38.6	11.9	29.7	5.0	14.2	0.7	1,200
2017	40.3	10.5	32.5	4.0	12.5	0.2	1,200
2018	44.5	6.7	31.6	3.5	13.5	0.2	1,200
2019	34.6	10.6	32.6	3.0	18.9	0.3	1,200

* “무역 및 경제 교류에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응답자 0.2% 포함

〈그림 1-1-2〉 통일의 가장 큰 이유

(단위: %)



우선 〈표 1-1-3〉과 〈그림 1-1-2〉에 의하면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는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 이니까”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007년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최고치인 57.9%에서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2019년의 경우 34.6%에 불과하였다.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19년 32.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한편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18.9%로 반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

이 줄어드는 대신 전쟁위협 해소 또는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 서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9년 조사의 경우 전쟁위협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의 합이 과반수가 넘는 51.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민족적 당위의 차원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있음을 시사한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이 계속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1-1-4>는 2019년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일의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통일의 가장 큰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라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표 1-1-4>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장 큰 이유

(단위: %)

통일 필요성 \ 통일 이유	같은 민족이니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 간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 없다 / 모름 / 무응답	합계 (N)
매우 필요	46.7	4.1	24.4	1.6	23.2	0.0	20.5 (246)
약간 필요	39.8	9.1	29.5	2.8	18.9	0.0	33.1 (397)
반반/ 그저 그렇다	29.0	17.4	34.4	3.2	15.5	0.6	26.4 (3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26.6	8.7	40.8	4.3	19.6	0.0	15.3 (18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6.1	5.4	51.8	7.1	14.3	5.4	4.7 (56)
합계(N)	35.3 (423)	10.0 (120)	32.5 (390)	3.1 (37)	18.8 (225)	0.4 (5)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116.57$ $p<0.01$

그렇다면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즉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표 1-1-5>에 의하면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며 다음으로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통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과제임을 시사한다.

〈표 1-1-5〉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단위: %)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2018	2019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19.2	17.9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13.7	12.7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35.2	38.8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26.8	25.4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4.5	4.6
기타	0.2	0.2
무응답	0.5	0.3
합계(N)	1,200	1,200

〈표 1-1-6〉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

(단위: %)

통일 필요성	남북간 정치체제의 차이	남북간 사회 문화적 차이	통일의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사회적 문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기타 / 무응답	합계 (N)
매우 필요	25.2	11.8	33.7	19.5	7.3	2.4	20.5 (246)
약간 필요	20.2	18.4	36.5	21.4	3.5	0.0	33.1 (397)
반반/ 그저 그렇다	14.8	9.5	45.1	28.1	2.2	0.3	26.4 (3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14.1	8.7	35.3	37.0	4.9	0.0	15.3 (18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2.5	5.4	33.9	39.3	8.9	0.0	4.7 (56)
합계(N)	18.5 (222)	12.6 (151)	37.9 (455)	26.0 (312)	4.4 (53)	0.6 (7)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116.57$ $p<0.01$

한편 〈표 1-1-6〉은 2019년 조사에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로 “남북간 정치체제 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남북간 사회문화적 차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라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따른 비용 부담과 통일 이후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을수록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통일의 추진 방식과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방식

통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2019 통일의식조사」 결과는 최근 남북 관계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이 아직은 통일을 급격하게 추진하 기보다는 서서히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7〉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

연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 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합계 (N)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 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2007	10.6		70.6	11.8	7.0	1,200
2008	9.2		65.8	16.3	8.6	1,213
2009	8.6		68.3	15.6	7.5	1,203
2010	10.0		66.9	16.1	6.9	1,200
2011	9.6		66.9	15.3	8.2	1,201
2012	9.6		65.1	18.3	7.0	1,200
2013	11.3		61.8	18.9	8.0	1,200
2014	12.1		61.3	19.6	7.0	1,200
2015	11.7		57.5	21.8	9.0	1,200
2016	13.1		54.2	23.2	9.5	1,200
2017	12.1		54.7	24.7	8.4	1,200
2018	9.7		68.0	16.8	5.5	1,200
2019	4.3	16.7	53.5	19.7	5.8	1,200

* 2019년 조사에서는 이전까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로 되어 있던 응답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와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두 가지 응답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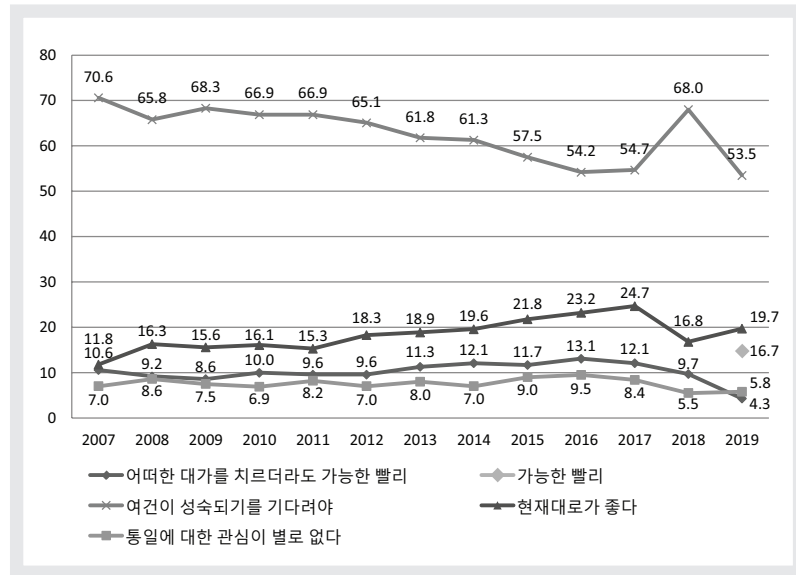
〈표 1-1-7〉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19년 조사의 경우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53.5%에 달하는 반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적극적 통일 지지층의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예년의 경우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라고 응답한 적극적 통일 지지층의 비중이 대체로 10% 내외였으나 2019년 조사부터 이 항목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와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로 구분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적극적 통일 지지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가 16.7%, “현재대로가 좋다”가 19.7%,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가 5.8%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표 1-1-7〉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다수 국민들이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1-1-7〉은 또한 대략 20-30%의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거나 “현재대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즉 남과 북이 사실상 2국가 체제로 존재하는 현재 상황이 좋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007년 11.8%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꾸준히 상승하여 2017년 24.7%까지 증가하였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다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2018년 조사의 경우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16.8%까지 줄어들었다. 그러나 지난 1년간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초기의 낙관 모드에서 점차 신중 모드로 변함에 따라 2019년 조사의 경우 "현재대로가 좋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19.7%로 다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3〉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통일의 추진방식과 관련한 응답 추이를 정리한 것으로, 이 그림에 의하면 통일의 추진방식과 관련하여 남북관계가 급변한 2018년과 응답 항목을 구분한 2019년을 제외할 때 지난 10여 년 간 점진적 통일을 선호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반면 "현재대로가 좋다"라는, 즉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3〉 통일의 추진 방식

(단위: %)



한편 〈표 1-1-8〉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추진 방식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결과로 이 표에 의하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와 "가능한 빨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통일이 "약간 필요하다" 또는 "반반/그저 그렇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여건이 성숙되길 기다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별로"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현재대로가 좋다" 또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체로 통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현상 유지를 선호하거나 또는 통일에 대해 무관심함을 알 수 있다.

〈표 1-1-8〉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추진 방식

(단위: %)

통일 필요성 \ 통일 추진 방식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빨리	여건이 성숙되길 기다리기	현재 대로	통일에 관심이 없다	합계 (N)
매우 필요	13.8	39.4	44.7	1.6	0.4	20.5 (246)
약간 필요	4.3	21.9	67.8	4.5	1.5	33.1 (397)
반반/ 그저 그렇다	0.6	4.7	51.4	24.0	6.3	26.4 (3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0.0	0.0	28.8	59.2	12.0	15.3 (184)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	0.0	10.7	53.6	35.7	4.7 (56)
합계(N)	4.4 (53)	16.6 (199)	53.5 (642)	19.8 (237)	5.8 (69)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679.40$ $p<0.01$

2) 통일의 가능 시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통일을 급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서서히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어떠한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2007년 조사 이래 매년 “OO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1-9>는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4>는 2007년 이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표 1-1-9>에 의하면 통일이 “5년 이내”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201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2-4% 사이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년 이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 또한 200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 대체로 1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년 이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대체로 25-30% 사이로 전반적으로 여타 응답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30년 이내”는 15% 내외, “30년 이상”은 20%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을 단기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라 시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한편 2018년의 경우 통일이 “5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6.3%,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5.7%로 두 범주를 합해 32.0%에 달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2018년 남북관계가 급변하면서 통일에 대한 기대가 한껏 고조되었던 작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19년의 경우 “5년 이내”로 응

답한 비중이 3.6%,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7.9%로 두 범주를 합하여 21.5%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지난 2018년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2019년 들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신중해진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1-1-9>는 또한 통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007년 13.3%에서 2008년 22.3%로 상승한 이후 대체로 20-25% 사이에서 움직이다 2018년의 남북한 간 화해 무드를 반영하여 14.0%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9년 다시 20.0%로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며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국민들이 이 질문에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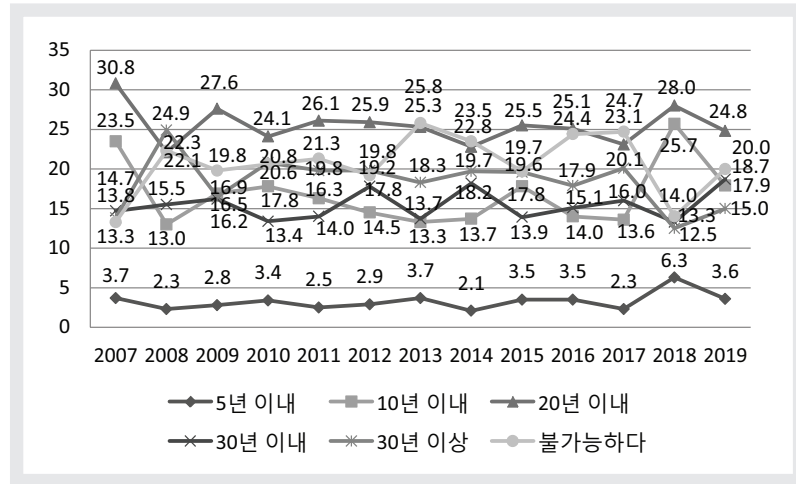
<표 1-1-9> 통일의 가능시기

(단위: %)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모름/ 무응답	합계 (N)
2007	3.7	23.5	30.8	14.7	13.8	13.3	0.2	1,200
2008	2.3	13.0	22.1	15.5	24.9	22.3		1,213
2009	2.8	16.9	27.6	16.2	16.5	19.8	0.1	1,203
2010	3.4	17.8	24.1	13.4	20.8	20.6		1,200
2011	2.5	16.3	26.1	14.0	19.8	21.3		1,201
2012	2.9	14.5	25.9	17.8	19.8	19.2		1,200
2013	3.7	13.3	25.3	13.7	18.3	25.8		1,200
2014	2.1	13.7	22.8	18.2	19.7	23.5		1,200
2015	3.5	17.8	25.5	13.9	19.6	19.7		1,200
2016	3.5	14.0	25.1	15.1	17.9	24.4		1,200
2017	2.3	13.6	23.1	16.0	20.1	24.7	0.1	1,200
2018	6.3	25.7	28.0	13.3	12.5	14.0		1,200
2019	3.6	17.9	24.8	18.7	15.0	20.0		1,200

〈그림 1-1-4〉 통일의 가능시기

(단위: %)



4. 통일의 편익에 대한 기대

1) 통일 이익 기대감: 개인과 공동체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굳이 통일해야 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있는데 한반도가 통일되면 투자가 크게 활성화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소위 “통일대박론”을 주장하였다.⁹ 또한 『조선일보』는 2014년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통일 비

9) 『한국경제신문』, “박 대통령 ‘통일은 대박 ... 한국경제 도약 기회.’ 2014년 1월 6일.

용 공포를 벗어나자”라고 주장하며 “남북통합 땐 대륙과 연결된 6000조원 자원강국”(2014년 1월 2일), “통일비용 겁내지만... 혜택이 배 크다”(2014년 1월 6일자), “통일한국, 20년간 경제 혜택 GDP 증가분만 6300조”(2014년 1월 6일), “북 관광시설 4조 투자하면 年40조 번다”(2014년 1월 14일) 등 통일의 이익을 강조하는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였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은 이러한 “통일대박론” 보다는 통일에 따르는 비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언론에 자주 소개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영국의 자산운용사 유리존 SLJ에서 발표한 보고서는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동독에 지원한 비용을 참고로 향후 10년 간 남북통일 과정에서 1조 7천억유로, 우리 돈으로 약 2천 167조원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고 이 소식은 외신을 통해 국내에 자세히 소개되었다.¹⁰ 『조선일보』는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에서 언급한 「통일이 미래다」라는 기획 기사에서의 논조와는 반대로 대북 지원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¹¹ 이외에 몇몇 언론과 전문가들 또한 “통일 비용”을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경제협력 정책이 결국 한국 경제를 “늪”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분단으로 한국이 지출하는 분단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통일 비용은 그리 크지 않고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을 따지면 통일비용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¹²

10) 『연합뉴스』, “한반도 통일 비용 10년간 2천 167조원 추산.” 2018년 5월 11일.

11) 『조선일보』, “판문점 선언’ 수십조 비용 덮어둔 정부.” 2018년 9월 12일.

12) 『서울신문』, “통일비용 150조 vs 3100조 ... 저성장 한국엔 축복될 수 있다.” 2018년 10월 5일.

이처럼 “통일 비용”과 “통일 이익”에 대한 추정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통일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우려하면서도 동시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중앙일보』가 창간 53주년을 맞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18년 9월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약 62.6%의 응답자가 “남북통일을 위해 개인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통일 비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나 동시에 상당수 국민들이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19-29세 응답자의 경우 42.2%가 “(통일 비용을) 부담하고 싶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도 47.9%가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¹³

그렇다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지난 10여 년간 어떻게 변해 왔는가? 국민들은 통일이 남한에 또는 자신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통일외식조사」는 이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이 남한 전체에 또는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해 왔다. <표 1-1-10>은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이 질문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5>는 “매우 이익이 된다”와 “다소 이익이 된다”라고 응답한 두 범주를 합한 결과의 추세를 보여준다. 우선 2019년 조사 결과는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과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각각 61.8%와 30.9%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평균값에 있어서도 2019년 조

13] 『중앙일보』, “19-29세 열명 중 네명 '통일비용 부담하고 싶지 않다.'” 2018년 10월 1일.

사 결과는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인 2.67과 2.19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제기하고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통일이 가져올 이익을 강조하던 2014년보다 통일 이익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더 높아졌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일정 정도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보여준 것이 국민적 기대감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표 1-1-10>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 전체와 개인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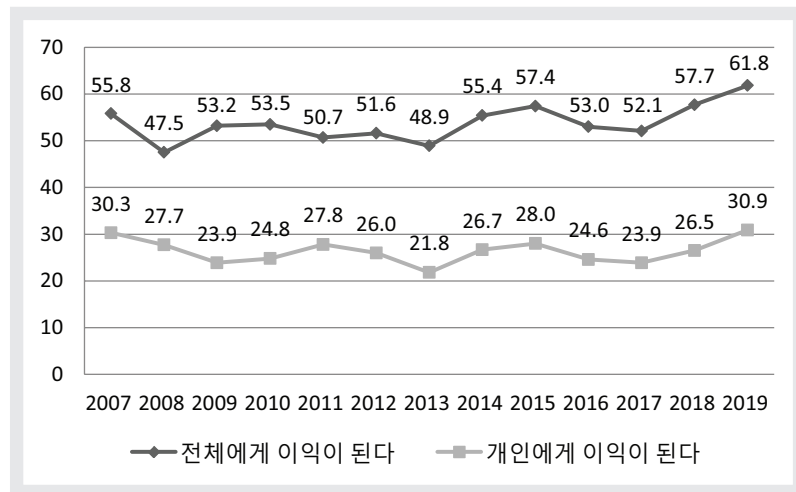
구분		①	②	①	③	④	③	모름/ 무응답	평균*	합계 (N)
		매우 이익	다소 이익	+ ②	별로	전혀	+ ④			
2007	전체	16.8	38.9	55.8	36.4	7.8	44.2	0.1	2.65	1,200
	개인	5.7	24.6	30.3	51.2	18.5	69.7	0.1	2.18	
2008	전체	11.9	35.6	47.5	38.6	13.9	52.5		2.46	1,213
	개인	3.3	24.4	27.7	43.3	29.0	72.3		2.02	
2009	전체	14.0	39.2	53.2	36.9	9.9	46.8		2.57	1,203
	개인	4.1	19.6	23.9	53.4	22.7	76.1		2.05	
2010	전체	14.6	38.9	53.5	38.0	8.5	46.5		2.60	1,200
	개인	3.6	21.2	24.8	55.1	20.1	75.2		2.08	
2011	전체	14.1	36.6	50.7	38.5	10.8	49.3		2.54	1,201
	개인	5.6	22.2	27.8	49.9	22.2	72.2		2.11	
2012	전체	13.1	38.5	51.6	38.5	9.9	48.4		2.55	1,200
	개인	4.2	21.8	26.0	53.5	20.5	74.0		2.10	
2013	전체	11.1	37.8	48.9	42.3	8.7	51.0	0.1	2.51	1,200
	개인	2.9	18.9	21.8	56.3	21.8	78.2		2.03	
2014	전체	12.5	43.0	55.4	38.1	6.4	44.6		2.62	1,200
	개인	3.4	23.3	26.7	56.4	16.9	73.3		2.13	

2015	전체	13.1	44.2	57.4	35.0	7.6	42.6		2.63	1,200
	개인	3.8	24.2	28.0	52.7	19.3	72.0		2.13	
2016	전체	10.8	42.1	53.0	38.2	8.8	47.0		2.55	1,200
	개인	2.7	21.9	24.6	56.3	19.1	75.4		2.08	
2017	전체	8.5	43.6	52.1	40.2	7.6	47.9		2.53	1,200
	개인	3.9	20.0	23.9	57.5	18.6	76.1		2.09	
2018	전체	10.4	47.3	57.7	36.7	5.6	42.3		2.63	1,200
	개인	3.7	22.8	26.5	56.6	16.9	73.5		2.13	
2019	전체	13.5	48.3	61.8	29.9	8.3	38.2		2.67	1,200
	개인	4.4	26.5	30.9	52.6	16.5	69.1		2.19	

* 평균은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4점,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점,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2점,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1점으로 계산. 숫자가 높을수록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크다.

〈그림 1-1-5〉 통일의 이익: 전체와 개인

(단위: %)



또한 <표 1-1-10>과 <그림 1-1-5>는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개인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2019년 조사의 경우 이 차이는 약 30.9%에 달하고 있으며 대체로 지난 10여 년 간 25-30% 내외의 차이가 존재해 왔다. 평균적으로 남한 전체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보다 두 배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전체와 개인에 대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남한 전체의 이익은 추상적인 반면 개인의 이익은 개인의 취업 및 사업 기회, 자산 가치 상승 등과 같이 구체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대 이익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1-1-11>은 201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의 기대 이익에 대한 인식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남한 전체에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반반/그저 그렇다”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이 남한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비슷한 맥락에서 <표 1-1-12>는 2019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통일이 가져다 줄 개인의 기대 이익에 대한 인식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통일이 자신에게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또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통일이 자신에게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표 1-1-11〉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전체 (단위: %)

통일 필요성 \ 통일 이익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매우 필요	40.2	49.2	9.3	1.2	20.5 (246)
약간 필요	13.1	63.2	20.9	2.8	33.1 (397)
반반 / 그저 그렇다	5.0	42.0	46.7	6.3	26.4 (3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2.2	31.5	48.4	17.9	15.3 (18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14.3	28.6	55.4	4.7 (56)
합계(N)	14.3 (172)	47.6 (571)	29.9 (359)	8.2 (98)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506.09$ $p<0.01$

〈표 1-1-12〉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이익: 개인

(단위: %)

통일 필요성 \ 통일 이익	매우 이익	다소 이익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합계 (N)
매우 필요	15.4	43.5	36.2	4.9	20.5 (246)
약간 필요	3.5	35.5	50.4	10.6	33.1 (397)
반반 / 그저 그렇다	0.6	14.8	67.2	17.4	26.4 (3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0.0	10.3	61.4	28.3	15.3 (184)
전혀 필요하지 않다	1.8	3.6	25.0	69.6	4.7 (56)
합계(N)	4.6 (55)	26.3 (316)	52.4 (629)	16.7 (200)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344.93$ $p<0.01$

2) 통일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이 남한 전체에 가져다 줄 이익과 비용은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일외식조사」는 통일이 빈부격차, 부동산투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 환경문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저출산·고령화, 세대갈등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주요 사회문제를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악화시킨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하였다(이 가운데 빈부격차, 부동산투

기, 실업문제, 범죄문제, 지역갈등, 이념갈등과 관련한 인식은 2007년부터 조사해왔으나 나머지 문제에 대한 인식은 2019년 조사에 신규로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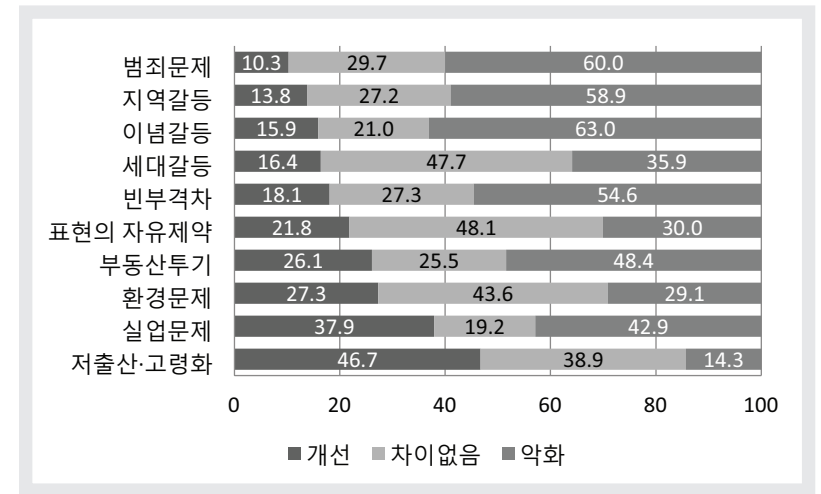
〈표 1-1-13〉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19)

(단위: %)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 + 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 + ⑤	합계
빈부격차	3.2	14.9	18.1	27.3	34.5	20.1	54.6	100.0
부동산 투기	5.2	20.9	26.1	25.5	28.5	19.9	48.4	100.0
실업문제	9.3	28.7	37.9	19.2	30.0	12.9	42.9	100.0
범죄문제	2.5	7.8	10.3	29.7	43.7	16.3	60.0	100.0
지역갈등	2.5	11.3	13.8	27.2	36.9	22.0	58.9	100.0
이념갈등	3.6	12.3	15.9	21.0	38.1	24.9	63.0	100.0
환경문제	3.3	24.0	27.3	43.6	22.0	7.0	29.1	100.0
표현의 자유제한	3.9	18.0	21.8	48.1	23.3	6.7	30.0	100.0
저출산 고령화	8.4	38.3	46.7	38.9	11.0	3.3	14.3	100.0
세대갈등	2.0	14.4	16.4	47.7	29.0	7.0	35.9	100.0

〈그림 1-1-6〉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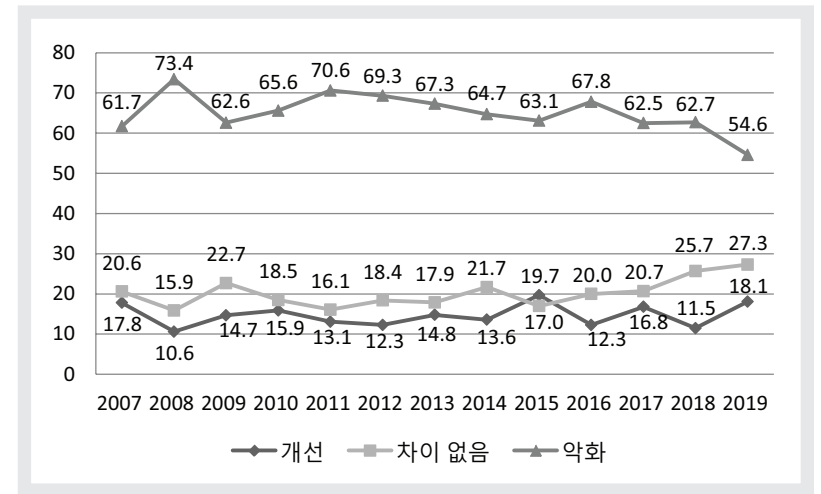
〈표 1-1-13〉은 2019년 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이 표에 의하면 제시한 10가지 사회문제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를 제외한 9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보다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수의 국민이 통일이 되면 저출산·고령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통일 전에 비해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13〉은 특히 국민들이 통일이 범죄문제와 이념갈등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실업문제, 환경문제의 경우는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기는 하나 그 차이가 오차범위(± 2.8%) 안에 있어 이 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중립적임을 보여준다.

한편 〈그림 1-1-7〉에서 〈그림 1-1-12〉는 2007년부터 올해 조사까지

각각의 사회문제에 대한 개선 기대감의 추세를 보여준다. 먼저 <그림 1-1-7>에 의하면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가 대략 지난 10여년 동안 10-2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19년의 경우는 2018년의 11.5%에서 18.1%로 상승하였다. 또한 <그림 1-1-8>은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가 대략 15-2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19년의 경우 2018년의 15.8%에서 26.1%로 상승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9>는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2019년 37.9%로 상승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종전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의 36.5%보다 더 높아진 수치로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고 있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과 북방경제 구상 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10>은 범죄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지난 10여년 간 대략 5-10% 사이에서 움직이는 반면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중은 대략 60-7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그림 1-1-10>은 여타 사회문제와 비교할 때 범죄문제 개선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1-11>은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지난 10여년 간 대략 7-14%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의 경우 13.8%로 2007년 14.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그림 1-1-12>는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대략 8-17%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9년 조사의 경우 15.9%로 2010년 1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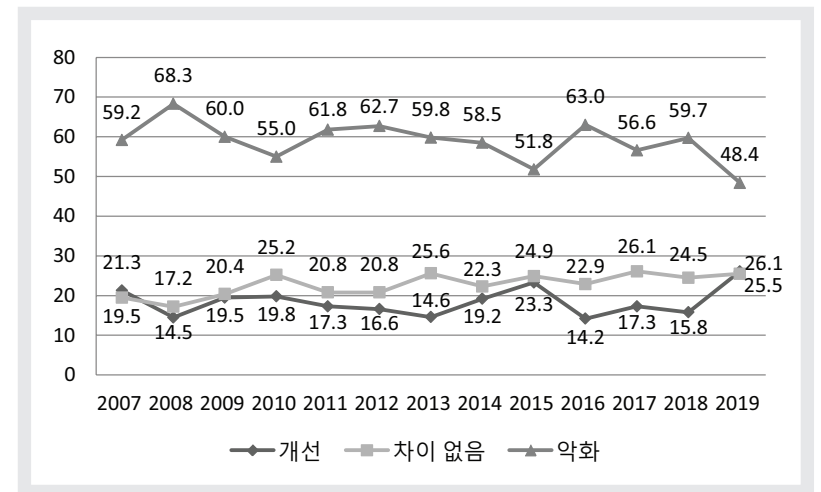
<그림 1-1-7>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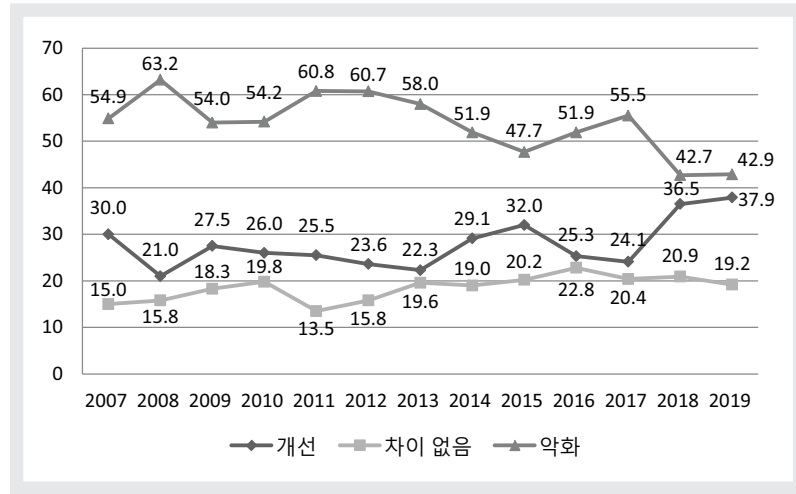
<그림 1-1-8>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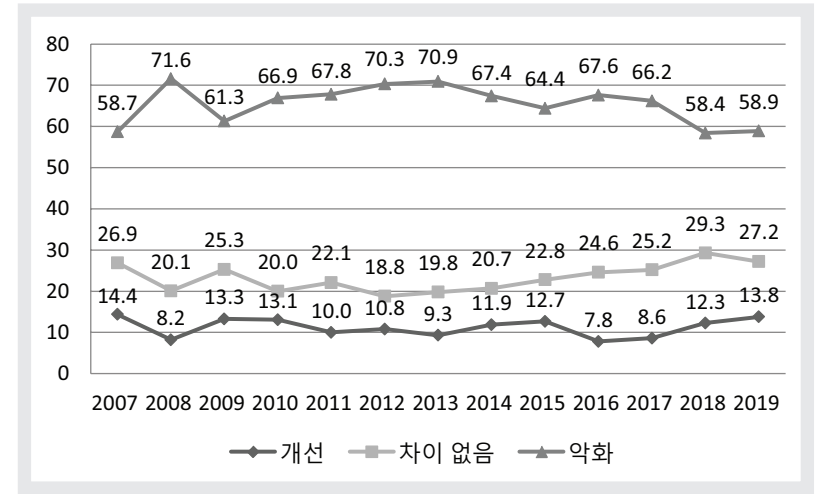
<그림 1-1-9>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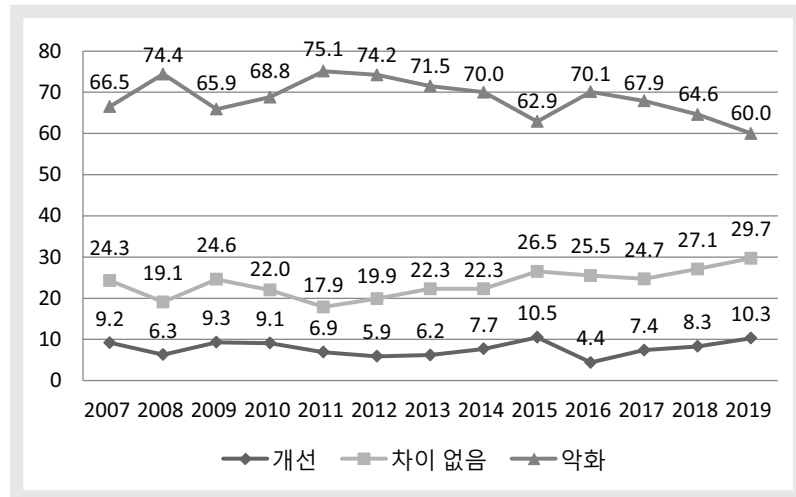
<그림 1-1-11>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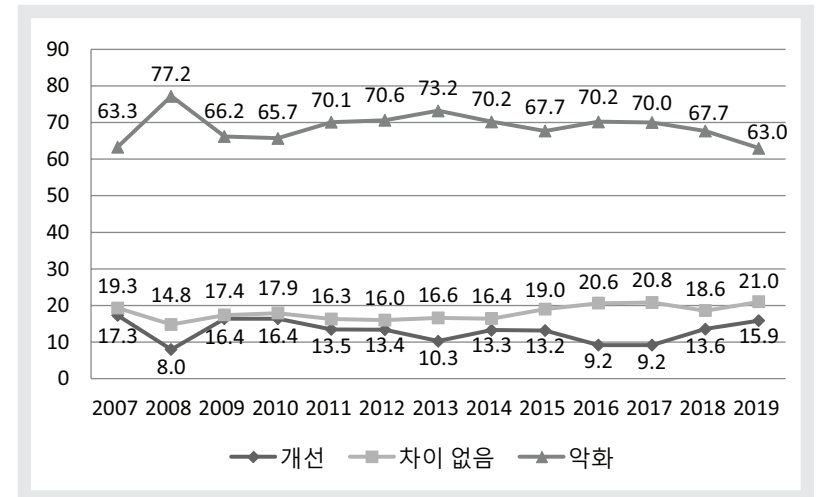
<그림 1-1-10> 범죄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그림 1-1-12>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

(단위: %)



전반적으로 위 결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개선됨에 따라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통일한국의 체제와 통일정책의 시급성

1) 통일한국의 체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의 공식적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고 평화를 정착시킨 후 점진적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궁극적으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처럼 우리 정부의 통일방안이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목표로 상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분단이 70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남한의 현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안을 희망하는가 하면 일부는 통일이 가능하다면 어떤 체제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통일외식조사」는 국민들이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가 무엇인지 살펴 보기 위해 지난 2007년과 2008년은 “OO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이념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2009년부터는 “OO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해왔다.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민주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를 답안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나 2009년부터 현재 제시하고 있는 답안으로 내용을 변경하였다. <표 1-1-14>는 이 질문에 대한 2009년 이후 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이며 <그림 1-1-13>은 추세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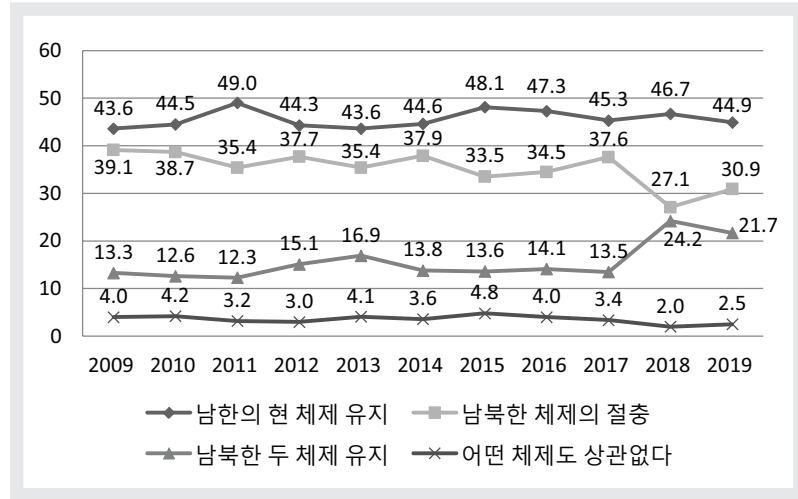
<표 1-1-14>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

년도	남한의 현체제 유지	남북한 체제의 절충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	어떤 체제도 무방	모름/ 무응답	합계 (N)
2009	43.6	39.1	13.3	4.0		1,203
2010	44.5	38.7	12.6	4.2		1,200
2011	49.0	35.4	12.3	3.2	0.1	1,201
2012	44.3	37.7	15.1	3.0		1,200
2013	43.6	35.4	16.9	4.1		1,200
2014	44.6	37.9	13.8	3.6	0.1	1,200
2015	48.1	33.5	13.6	4.8		1,200
2016	47.3	34.5	14.1	4.0		1,200
2017	45.3	37.6	13.5	3.4	0.2	1,200
2018	46.7	27.1	24.2	2.0		1,200
2019	44.9	30.9	21.7	2.5		1,200

〈그림 1-1-13〉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



〈표 1-1-14〉에 의하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이 대체로 43-49%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호하는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알 수 있으며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어떤 체제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5% 미만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지난 10여 년 간 큰 변화 없이 40% 중반대에서 움직인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과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선택한 응답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전자가 감소한 만큼 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된 이후 절충형 모델을 선호하는 응답은 대략 10% 정도 감소한 반면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1-1-15〉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따라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준다. 이 표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상관없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 또는 “약간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호하는 응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통일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 또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는 “남한의 현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통일 한국의 체제에 대해 개방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1-1-15〉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 한국의 체제

(단위: %)

통일 필요성 \ 통일 이익	남한의 현체제 유지	남북한 체제의 절충	남북한 두 체제 유지	어떤 체제도 무방	합계 (N)
매우 필요	43.9	36.2	15.0	4.9	20.5 (246)
약간 필요	40.3	35.3	22.4	2.0	33.1 (397)
반반/ 그저 그렇다	43.8	30.0	23.7	2.5	26.4 (317)
별로 필요하지 않다	51.6	21.2	25.0	2.2	15.3 (184)
전혀 필요하지 않다	64.3	8.9	25.0	1.8	4.7 (56)
합계(N)	44.8 (538)	30.7 (368)	21.8 (261)	2.8 (33)	100.0 (1,200)

카이제곱 검정 $\chi^2=39.96$ $p<0.01$

2) 통일 정책의 시급성

「통일외식조사」는 정부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대북·통일·안보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정책의 시급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OO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

도”를 분석해왔으며 또한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대북 사안별 시급성”을 분석해왔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두 문항을 “대북 사안별 시급성” 문항 하나로 합쳐 “OO님은 통일을 이루기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예로 제시하는 구체적 내용 가운데 “북한의 개방과 개혁”, “군사적 긴장완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한 항목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다만 새롭게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는 정책적 이슈들을 포함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북한 비핵화”,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이 가운데 “평화협정 체결” 항목을 다시 “중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변경하였다.

〈표 1-1-16〉 대북 사안별 시급성(2019)

(단위: %)

	① 매우 시급	② 다소 시급	①+②	③ 별로	④ 전혀	③+④	합계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7.5	56.9	74.5	22.6	2.9	25.5	100.0
군사적 긴장 해소	38.1	44.5	82.5	14.4	3.0	17.5	100.0
미군 철수	7.1	18.8	25.8	46.9	27.2	74.2	100.0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22.3	51.5	73.7	23.7	2.6	26.3	100.0
북한의 개방과 개혁	29.4	50.3	79.7	17.5	2.8	20.3	100.0

북한의 인권 개선	36.4	49.4	85.8	11.7	2.3	14.0	100.0
북한 비핵화	58.0	29.1	87.1	11.2	1.6	12.8	100.0
인도적 대북지원	11.7	43.4	55.1	38.5	6.4	44.9	100.0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17.5	53.8	71.3	24.7	3.9	28.7	100.0
남북한 경제협력	20.2	54.9	75.1	21.6	3.2	24.8	100.0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30.9	45.4	76.2	20.6	3.1	23.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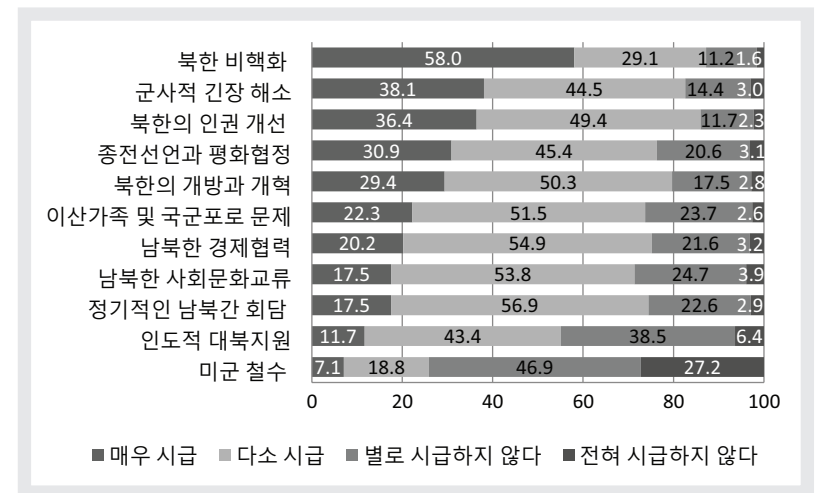
〈표 1-1-16〉과 〈그림 1-1-14〉는 2019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우선 〈그림 1-1-14〉는 국민들이 남북한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 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의 순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조사 결과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순서로,¹⁴ 2018년 이후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수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통일을 이루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의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 1-1-14〉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남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다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국민들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불어 위 결과는 상당수 국민들이 북한의 인권 문제 해

14) 2018년 조사 결과는 사안별 시급성과 관련하여 국민들이 2019년과 마찬가지로 북한 비핵화, 군사적 긴장 해소, 북한의 인권 개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의 순으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준다.

결 또한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상대적으로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제라든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개최,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등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0여년간 핵문제를 비롯하여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인도주의적 문제나 사회문화교류, 경제협력 등의 문제보다는 군사적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1-1-14〉 대북 사안별 시급성(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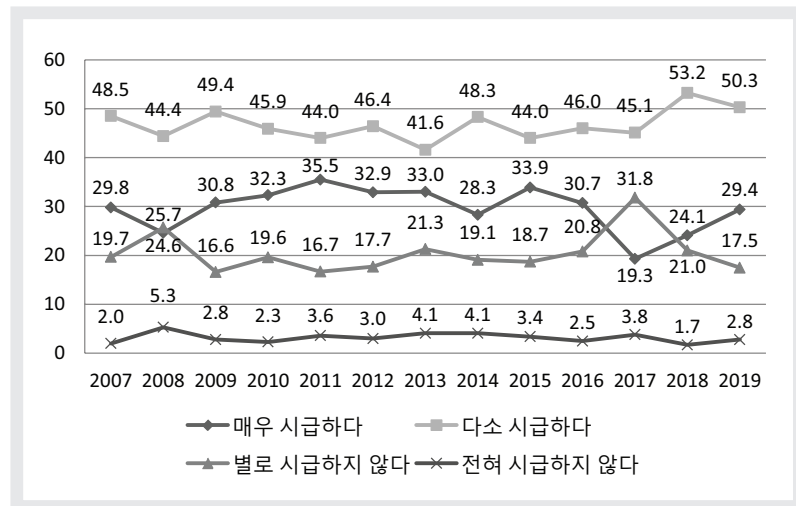


다음으로 〈그림 1-1-15〉에서 〈그림 1-1-18〉은 “북한의 개방과 개혁,” “군사적 긴장 해소,”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지난 2007년 이후 추세를, 〈그림 1-1-19〉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2008년 이후 추세를 정리하여 보여준다. 이 가운데 몇몇 특

징적인 경향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그림 1-1-15>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 이슈와 관련하여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이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은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16>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하여 대략 80-85%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매우” 또는 “약간 시급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별로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0-2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17>은 “남한에서의 미군철수”와 관련하여 “매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이 큰 변동 없이 5%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19>는 “북한의 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매우” 또는 “다소 시급하다”라는 응답이 2017년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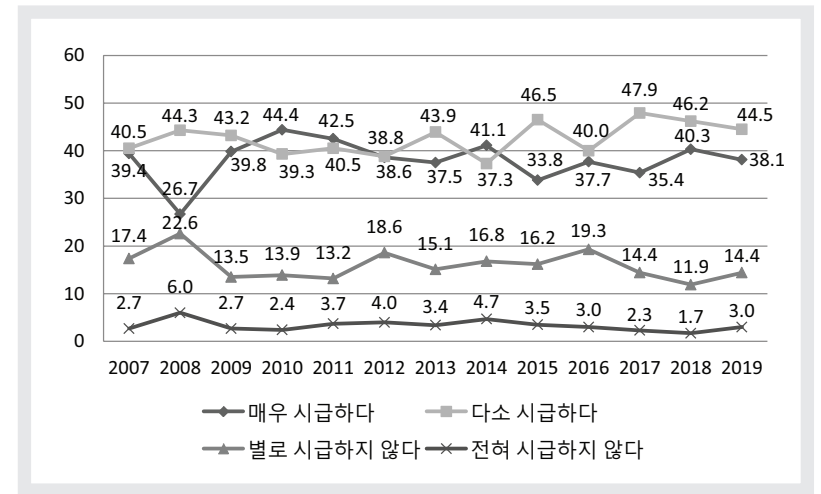
<그림 1-1-15> 대북 사안별 시급성: 북한의 개방과 개혁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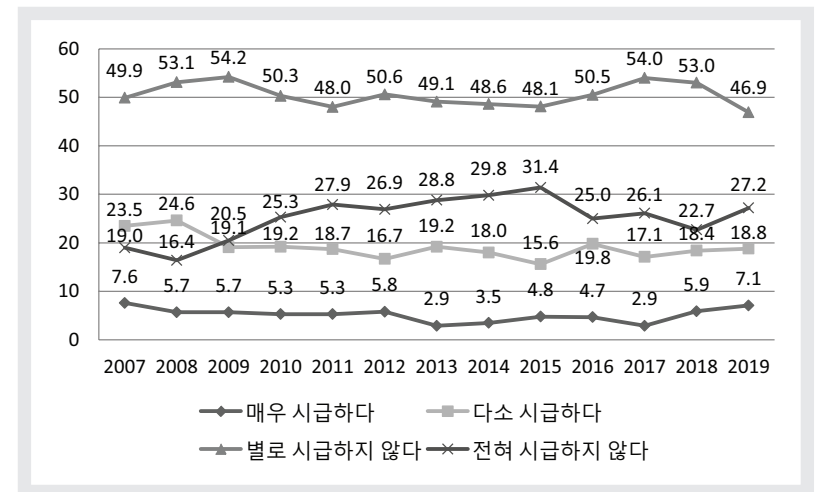
<그림 1-1-16> 대북 사안별 시급성: 군사적 긴장 완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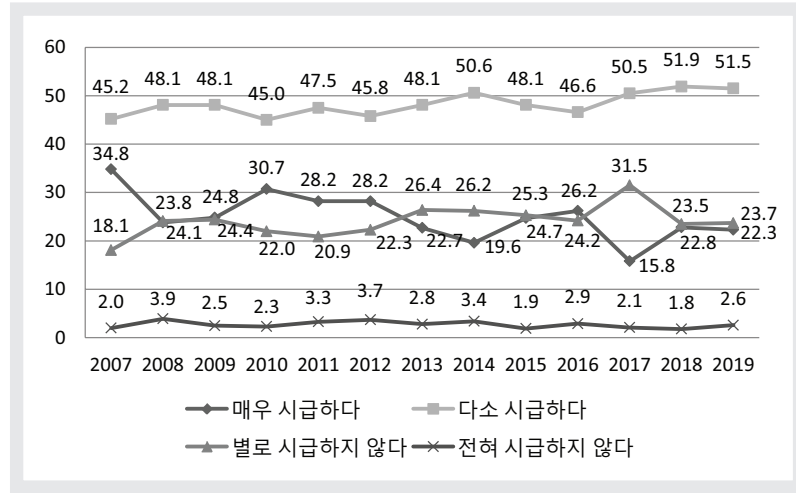


<그림 1-1-17> 대북 사안별 시급성: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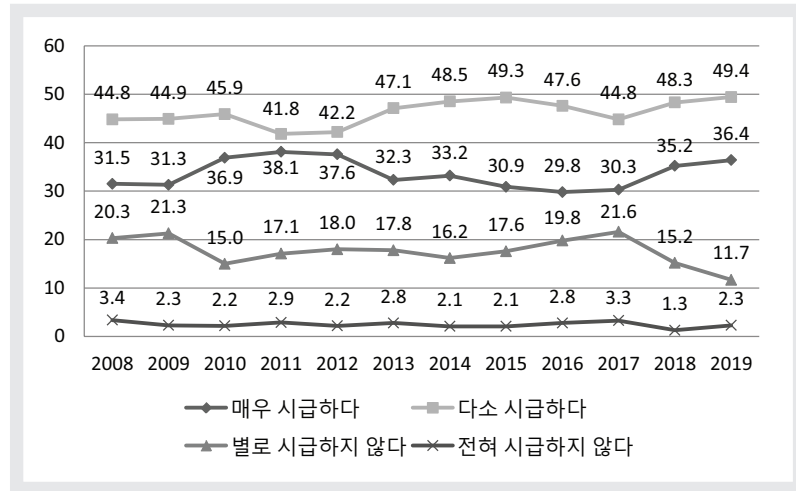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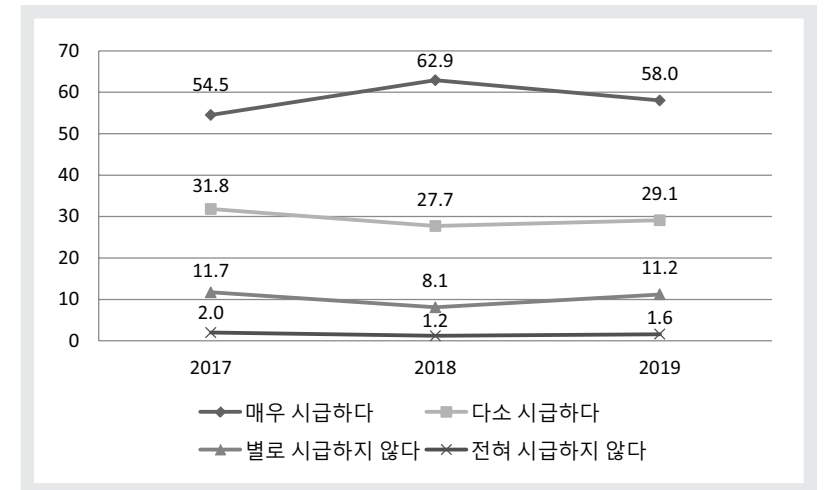
〈그림 1-1-18〉 대북 사안별 시급성: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단위: %)



〈그림 1-1-19〉 대북 사안별 시급성: 북한의 인권 개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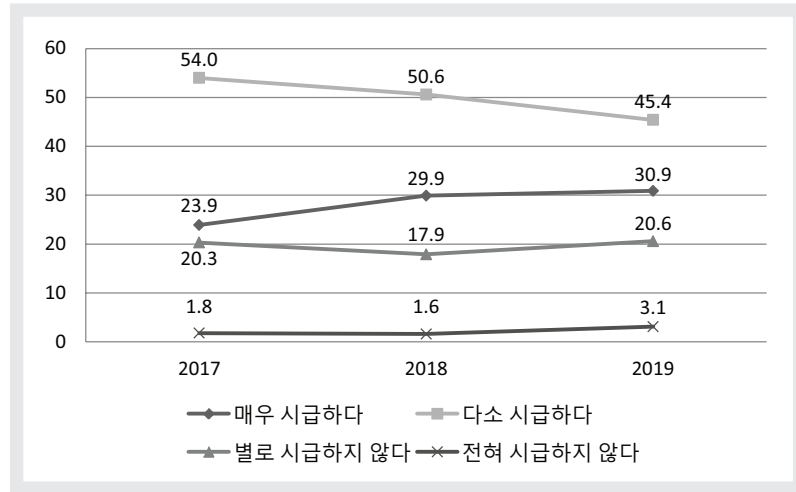
〈그림 1-1-20〉 대북 사안별 시급성: 북한 비핵화 (단위: %)



다음으로 〈그림 1-1-20〉에서 〈그림 1-1-25〉는 “북한 비핵화”, “중전 선언과 평화협정”,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과 관련한 2017년 이후 추세를 그림으로 정리하여 보여준다. 몇몇 특징적인 경향에 대해 언급하자면 우선 〈그림 1-1-22〉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관련하여 “매우 시급하다”와 “다소 시급하다”를 합칠 경우 “시급하다”라는 응답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23〉과 〈그림 1-1-24〉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시급하다”라는 응답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 “시급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감소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대선 이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교류를 지지하는 여론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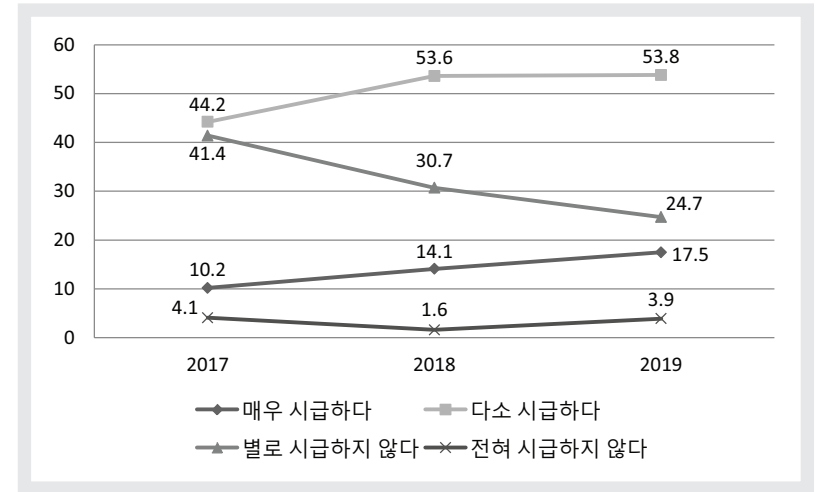
〈그림 1-1-21〉 대북 사안별 시급성: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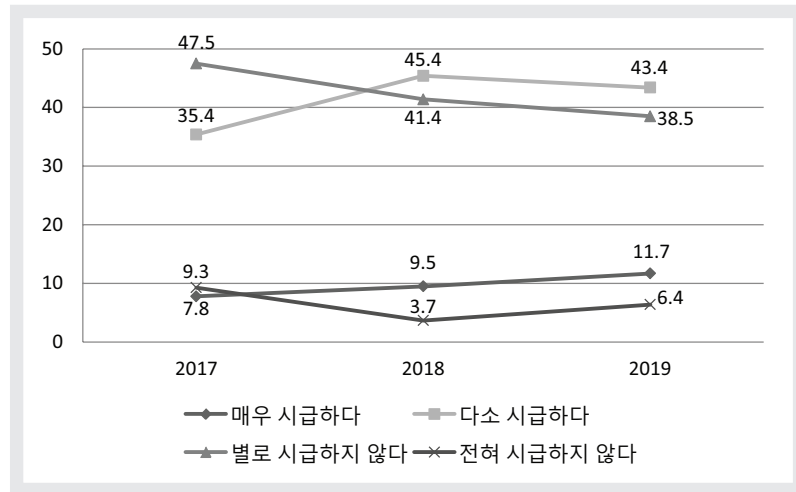
〈그림 1-1-23〉 대북 사안별 시급성: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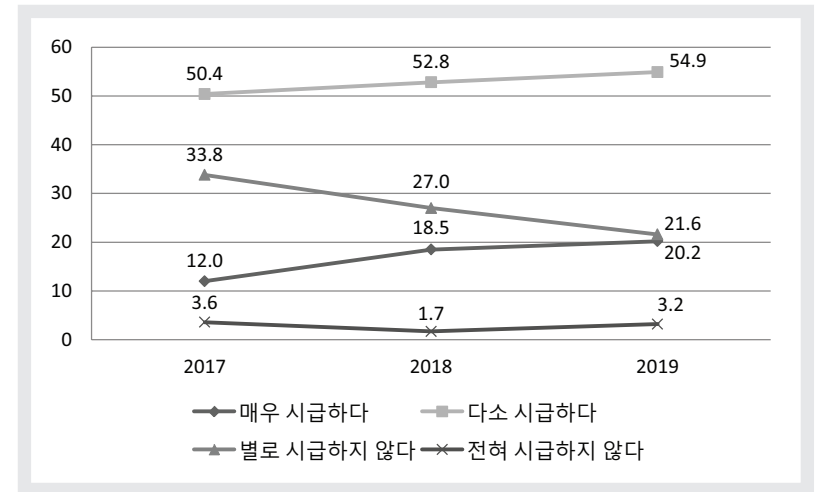
〈그림 1-1-22〉 대북 사안별 시급성: 인도적 대북지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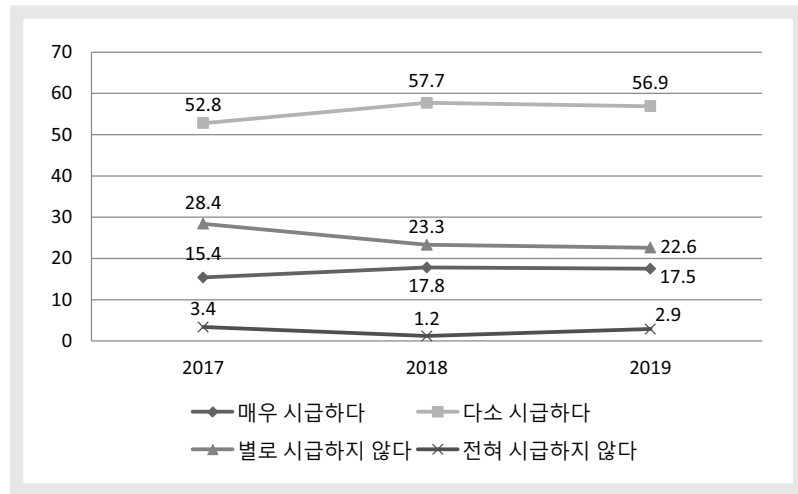


〈그림 1-1-24〉 대북 사안별 시급성: 남북한 경제협력

(단위: %)



〈그림 1-1-25〉 대북 사안별 시급성: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단위: %)



6. 소결

지금까지 본 장에서는 2019년 「통일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통일외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조사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 조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1년여의 시간이 지나며 신중해진 분위기가 여러 항목에서 나타나고 있다. 우선 통일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2018년 조사의 경우 “매우 필요하다”와 “약간 필요하다”를 합해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59.8%에 달하였으나 올해는 53.0%로 예년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현재대로가 좋

다”라는 응답의 비중이 2007년 11.8%에서 2017년 24.7%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의 호전과 함께 16.8%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다시 19.7%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일 가능 시기와 관련하여 2018년의 경우 통일이 “5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6.3%, “10년 이내” 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25.7%로 두 범주를 합해 32.0%에 달하였으나 2019년의 경우 “5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3.6%, “10년 이내”로 응답한 비중이 17.9%로 두 범주를 합하여 21.5%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에 비해 2019년의 경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인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신중해진 분위기가 널리 퍼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19년 조사가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20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해진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으나 동시에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에 이어 계속 상승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이 남한 전체에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이익이 된다”(“매우 이익이 된다”와 “다소 이익이 된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중이 2019년의 경우 각각 61.8%와 30.9%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로 2017년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통일이 한국의 사회문제 개선에 기여할지 여부에 대한 2019년 조사 결과는 지난해에 이어 기대감이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례로 빈부격차 개선에 대한 기대는 2018년 11.5%에서 2019년

18.1%로 상승하였으며, 부동산투기 개선에 대한 기대는 2018년 15.8%에서 2019년 26.1%로 상승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실업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는 2018년 36.5%에서 2019년 37.9%로 상승하여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지역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는 2018년 12.3%에서 2019년 13.8%로 상승하여 2007년 14.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이념갈등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는 2018년 13.6%에서 2019년 15.9%로 상승하여 2010년 16.4%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정세가 호전됨에 따라 통일 이후 사회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019년 조사 결과는 통일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에 나타나는 몇 가지 일관된 흐름이 올해도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통일의 이유와 관련하여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2007년부터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같은 민족이니까”라고 응답한 비중이 2008년 최고치인 57.9%에서 추세적으로 줄어들어 2019년의 경우 34.6%로 줄어든 반면 “남북한 간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2008년 14.5%에서 2019년 32.6%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달리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비중은 지난 몇 년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9년 조사에서는 18.9%로 반등하였다. 이 결과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 전쟁위험 해소라

는 안보문제 해결, 또는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19년 조사의 경우 전쟁위험 해소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두 범주의 합이 과반수가 넘는 51.5%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민족적 당위의 차원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 2019년 조사 결과는 2007년 조사 이래 다수의 국민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택한 응답은 지난 10여년 간 큰 변동 없이 대체로 43-49% 사이에서 움직여 왔다.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을 선택한 응답은 2009년 최고치인 39.1%를 기록한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알 수 있으며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알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지난 10여 년 간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의 비중이 큰 변동 없이 40% 중반대에서 움직인 반면 “남북한 체제의 절충”과 “남북한 두 체제의 유지”를 선택한 응답의 비중은 대체적으로 전자가 감소한 만큼 후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전 시기와 비교할 때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호전된 이후 절충형 모델을 선호하는 응답은 대략 10% 정도 감소한 반면 남북한 두 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응답은 비슷한 정도로 증가하였다.

요컨대 2019년 조사 결과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며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고조되었던 2018년에 비해 신중해진 분위기를 반영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 통일이 가져다줄 이익과 사회문제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통일의 이유와 통일 한국의 체제와 관련하여서는 민족적 당위보다는 실용적 차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경향과 남한의 현체제 유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난 2007년 첫 조사 이래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은 앞으로도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하여 이러한 경향들이 남북관계와 국제정세 변화 속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추적할 계획이다.



제2장

북한에 대한 인식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2019년 한국인의 북한인식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작년 한 해 동안 남북정상회담과 북중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가 지각변동을 겪은 후, 올해는 다소 경색된 국면이 지속되었다. 2019년 1월 신년사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싱가포르 북미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지속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2월 28일 북미 하노이 회담에서 개최된 북미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된 이후 김정은 위원장은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이후 5월 4일과 9일에 발사체를 발사하며 그러한 결의를 과시하였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전격적인 3자회담을 하여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작년 4.27대화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나 실질적인 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은 중국 및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해 나갔다. 2019년 4월 25일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6월 20-21일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여 수교 70주년을 맞는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조하였다. 이후 라오닝성의 천추파(陳求發) 당서기의 방북(11.11)으로 무역·관광·방역 협력을 강화한 것을 보면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간 비핵화 아젠다 외에 경제협력 의제가 긴밀히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대화에서 제재완화를 얻어내지 못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반도 정세가 전반적으로 경색된 가운데 집권 3년차를 맞는 문재인 정부는 국내적으로 보수층으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았다. 집권이후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역사적인 4.27정상회담과 9.19공동선언을 만들어 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 일부 보수층이 극단적인 언술을 동원하여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이념갈등이 지속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역사적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여러 의미 있는 사업을 진행하여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였으나 국내 보수세력의 또 다른 역사해석과 이런 와중에 발생한 일본과의 무역마찰로 이념갈등은 격렬히 고조되었다. 이후 진행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논란은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념행사들과 일본과의 갈등이 국내 정치의식에 영향을 주었고 대북인식도 그러한 국내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한국인의 북한인식 조사는 이와 같이 작년에 한층 고조된 평화분

위기가 가라앉고 다시 경색국면이 조성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따라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및 주변국 정세의 이러한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서 조사 자료를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북한의 실체와 국가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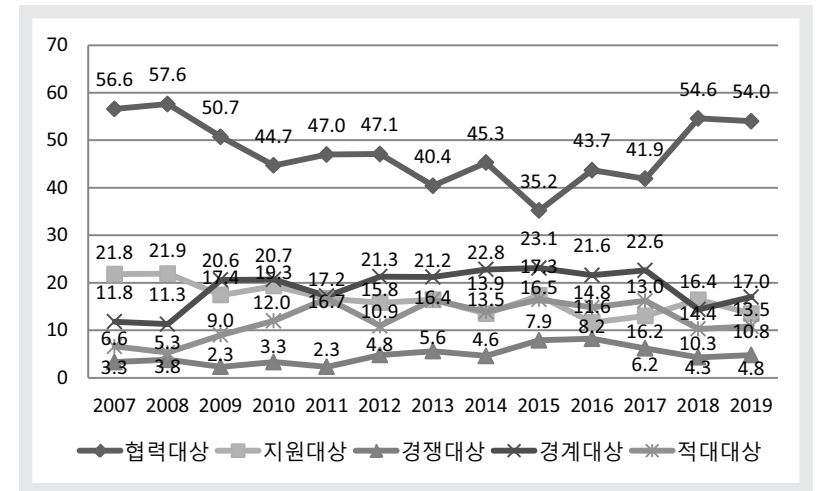
남북한 관계 인식으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는지와 북한의 국가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협력대상),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지원대상),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경쟁대상),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경계대상),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적대대상)의 5개 범주로 나누어 응답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의 54.0%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이 17.0%, '지원대상' 응답은 13.5%, '적대대상' 10.8%, '경쟁대상' 4.8%의 순으로 나왔다.

아래의 <그림 1-2-1>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에 관한 응답은 2018년을 기점으로 이전과는 다른 의식구조로 전환된 후 2019년에는 작년과 비슷한 구조를 유지하였다. '협력대상'의 경우, 지난 2년 사이에 41.9%→54.6%→54.0%로, '적대대상'은 16.2%→10.3%→10.8%로 각각 2018년에 달라진 태도가 올해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협력'과 '적' 의식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경계'와 '지원' 의식에서는 각각 22.6%→14.4%→17.0%, 13.0%→16.4%→13.5%로 약간 영

향을 받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2018년에 전격적으로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크게 작용하였으며 2019년에도 그러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변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1>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2007-2019)

(단위: %)



남북한 관계 인식은 지역, 종교, 교육, 연령, 소득수준, 도시화, 정치성향, 지지정당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역별 인식을 보면 2019년에 충청권 67.1%, 호남권 61.3%, 수도권 54.2%, 영남권 44.6%의 순으로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형성되어 있으며, 통계적으로 $\chi^2=81.928, p=0.000$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1-2-1>). 호남권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영남권은 북한을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1-2-1〉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2019)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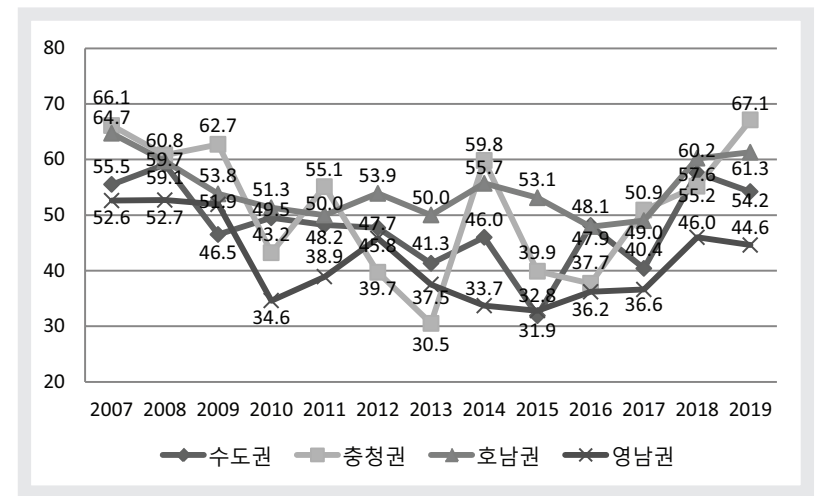
지역 \ 인식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수도권	14.2	54.2	4.1	16.7	10.9
충청권	9.2	67.1	5.4	14.3	4.0
호남권	22.7	61.3	2.8	8.3	4.9
영남권	10.0	44.6	6.5	22.6	16.3
강원	18.6	54.8	2.4	15.2	9.0
제주	9.3	62.0	19.1	9.7	0.0

$\chi^2=81.928, p=0.000$

시계열로 보면, 〈그림 1-2-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난 1년 동안 충청권의 ‘협력대상’ 상승폭이 11.9%로 매우 컸으며, 지난 4년 동안에도 37.7% → 50.9% → 55.2% → 67.1%로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2016년부터 모든 지역에서 상승하기 시작한 북한 ‘협력대상’ 인식이 지난 1년 사이에 지역별로 두드러진 분화 현상을 보였다. 즉 충청권은 급상승하고 호남권은 유지된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은 오히려 하락하였다.

〈그림 1-2-2〉 지역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200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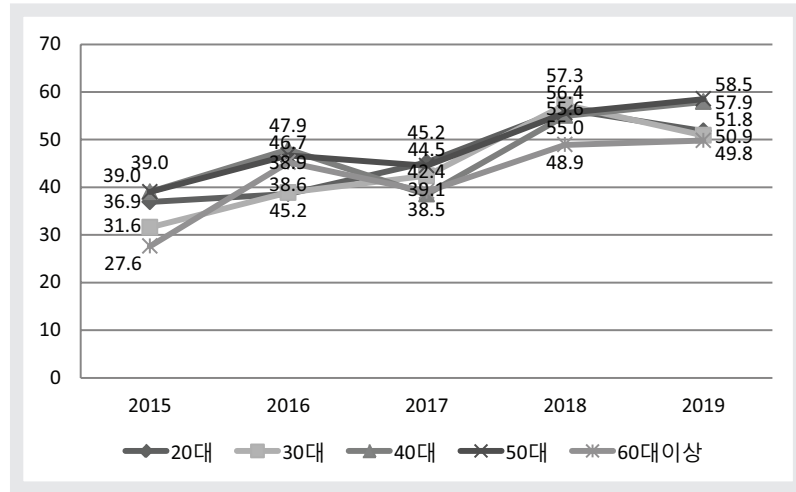
(단위: %)



연령대별 북한인식은 $\chi^2=19.769, p=0.047$ 로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그림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 북한 ‘협력대상’ 인식은 40대(57.9%)와 50대(58.5%)가 위쪽에서 한 곳으로 모여 있고, 20대(51.8%)와 30대(50.9%), 60대이상(49.8%)이 아래쪽에 자리 잡고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즉 북한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은 20·30·60대와 40·50대로 나뉘지며 40·50대가 20·30·60대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2-3〉에서 볼 수 있듯이 2018년에 전 연령층에서 상승한 ‘협력대상’ 인식이 2019년에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30대에서는 5%p 가량 하락하였다. 2019년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20-30대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2-3〉 연령대별 북한 ‘협력대상’ 인식(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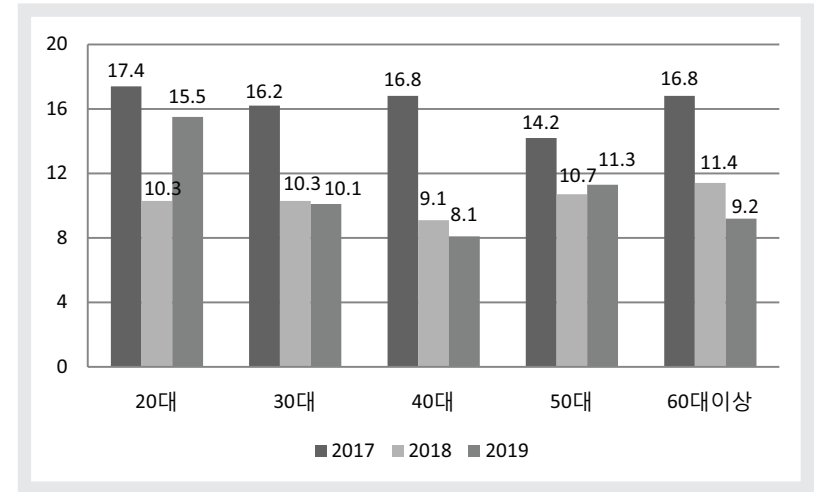
(단위: %)



북한을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인식은 2018년에 전 연령대에서 낮아졌으며 2019년에도 낮아지거나 정체되는 현상이 진행되었는데, 유독 20대 연령층에서만 10.3%→15.5%로 5.2%p 높아졌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2018년에 조성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의 영향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의식이 큰 폭으로 낮아졌으나, 이후 북미 비핵화 대화의 결렬과 남북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20대에서는 다시 대북 적대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20대의 젊은층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2-4〉 연령별 북한 ‘적대대상’ 인식(2017-2019)

(단위: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뚜렷하였다. 진보적 성향의 사람일수록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바라보는 반면 보수일수록 북한을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하였다. 2019년의 경우, 북한 ‘협력대상’ 인식에서 ‘진보’는 63.1%로 높고 ‘보수’는 43.3%로 낮은 반면 ‘중도’는 51.8%로 중간에 위치하였다. 반대로 ‘경계대상’과 ‘적대대상’에서는 ‘진보’가 각각 10.3%, 5.8%로 낮은 반면, ‘보수’는 각각 22.7%, 15.8%로 높았고 ‘중도’는 그 사이에 위치하였다. 또한 올해는 도시화 거주 지역에 따른 대북인식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북한 ‘협력대상’ 인식이 대도시 거주지에서는 47.1%인데 비해 중소도시(60.1%)와 읍/면(56.8%)에서 높았다. 반대로 ‘적대대상’ 인식은 대도시 거주지에서 15.7%로 중소도시(6.7%)나 읍면(5.8%)보다 훨씬 높았고, ‘경계대상’ 인식도 대도시 거주지에서 22.0%로 중소도시(13.0%)나 읍면(11.4%)에 비해 매우 높았다.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으로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을 물었다. 이 질문에 61.2%가 ‘그렇다’고 답했고 29.6%는 ‘반반/그저그렇다’, 9.2%는 ‘아니다’로 답하였다. 한국인의 61%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반면 9%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으며, 약 30%는 평가를 유보하였다. 2017년에는 57.9%가 북한의 국가성에 ‘그렇다’고 응답했고 5.3%는 ‘아니다’로 부정하였으며, 2018년에는 58.8%가 ‘그렇다’, 8.1%가 ‘아니다’로 답했다. 2019년 61.2%는 이전 해에 비해 3.3%p, 2.4%p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차이는 미미하여 기존의 추세를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는 이적 집단 정도로 간주하기보다는 이제 국가적 면모를 가진 실체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을 괴뢰집단으로 보느냐 국가적 실체로 보느냐의 쟁점이 북한과 적대적 대립을 유지했던 냉전시대의 논쟁의 주제였다면, 유엔의 회원국으로 대한민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가입한 탈냉전 시대의 맥락에서는 북한(조선)이 한국과는 ‘다른 나라’인가 아니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같은 민족, 같은 나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북한의 국가성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연령이나 지역, 소득이나 계층, 종교 등 다른 변수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보-중도-보수의 정치적 성향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0.208$ 로 $p=0.01$ 수준에서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국가성에 더 찬성하는 경향이 강했고, 반대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연령에 따른 북한 국가성 인정에 대한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층에 따라 해

석의 차이는 달랐을 가능성은 있다. 즉 50대 이상의 기성세대는 북한의 국가성에 대해 이제는 단순한 반체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국가적 실체를 갖춘 나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고, 20-40대의 젊은 세대는 북한이 대한민국과는 다른 나라라는 맥락에서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정권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가?”(신뢰도)라는 대북 신뢰도 질문에서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작년보다 3.1%p 낮아진 51.6%를 기록했다. 2017년까지는 북한정권과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가능하다는 의견보다 2배 정도 많았는데 2018년부터 가능하다는 의견이 54.7%로 많아졌고 2019년에 약간 감소했으나 작년에 상승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2018년에 진행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대화의 진전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북한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남북 및 주변국과의 관계변화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표 1-2-2〉 북한정권과 대화·타협 가능성 여부

(단위: %)

연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가능하다	40.9	34.9	34.3	39.3	35.8	27.5	28.7	30.5	28.1	54.7	51.6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대북신뢰도는 지역, 도시화수준, 정치성향 및 사회계층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충청권(64.1%)과 호남권(61.4%)에서 높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50.7%), 영남권(42.2%) 등에서 낮게 나타난다. 통계적으로도 대북신뢰도의 지역 간 차이는 $\chi^2=112.310$, $p=0.000$ 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난다. 호남권은 2018년 71.4%로 최고조를 기록한 후 2019년에는 61.4%로 다시 낮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신뢰를 보이고 있다. 충청권과 호남권 및 강원과 제주가 북한정권에 대해 비교적 높은 신뢰를 보여주는 반면, 영남권은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데 무게를 두는 반면, 수도권은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다.

〈표 1-2-3〉 지역별 북한정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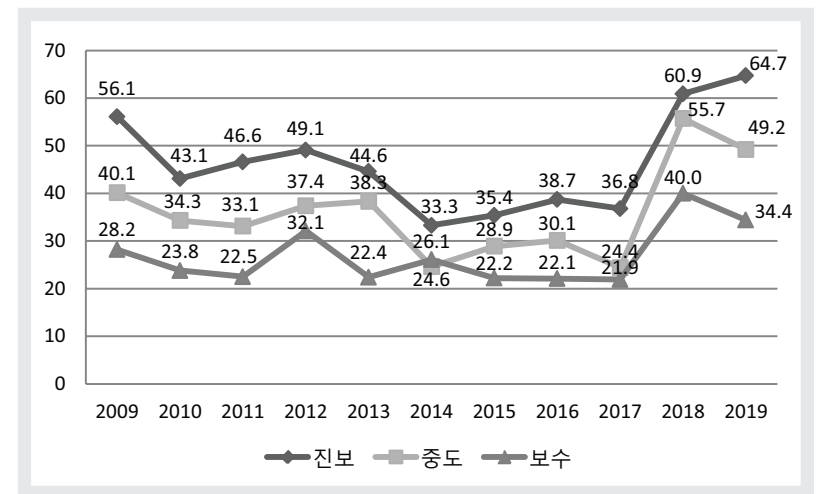
(단위: %)

연도 지역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도권	38.7	36.3	40.6	41.6	36.8	23.2	28.1	24.8	24.8	52.4	50.7
충청권	43.2	40.7	41.0	33.6	44.9	35.2	28.7	34.9	40.9	68.8	64.1
호남권	63.9	51.3	39.7	58.3	44.7	38.7	32.3	32.2	42.3	71.4	61.4
영남권	34.3	25.3	20.0	28.5	26.9	26.7	28.2	37.0	21.9	45.4	42.2
강원	47.2	33.3	17.1	50.0	40.0	45.7	30.7	43.6	47.4	64.5	62.3
제주	61.5	15.4	23.1	46.2	23.1	28.7	35.0	47.5	24.4	64.7	69.6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는 정치적 이념과 매우 높은 관련성을 드러냈다. 2019년의 경우 유의도 0.01 수준에서 0.000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수년 동안 정치적 이념성향에 따라 진보가 높은 대북신뢰도를 보여주었고 그 다음이 중도, 그리고 보수는 북한정권에 대해 강한 불신을 보인 것이 일관된 특징이었다. 〈그림 1-2-5〉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정권 신뢰도는 이념성향과 정확히 일치하는 양상을 유지하였고 2014년과 2017년에 중도가 보수 쪽으로 이동하였으나 올해 다시 중간으로 자리를 잡음으로써 기존의 전형적인 패턴을 유지하였다.

〈그림 1-2-5〉 정치성향별 북한정권 신뢰도(2009-2019)

(단위: %)



지난 10년의 경험적 결과를 바탕으로 보면 한국사회에서 진보-중도-보수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의 한 축이 대북인식이라는 통념이 맞아 떨어진다. 주관적으로 구분한 이념성향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식하는가와 정확히 일치한다.

연령대별 대북신뢰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과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를 파악하는 기준으로 ‘핵무기 포기’를 살펴보았다.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과 북미회담에서 줄곧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 왔고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 5대원칙도 제시하며 미국과 비핵화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2.4%로 절대다수가 북한의 비핵화가 쉽지 않으며 현실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87.4%로 높았던 수치는 2018년 75.1%로 낮아졌으나 2019년에 82.4%로 다시 높아졌다. 2018년에 75.1%로 낮아진 데는 2018년 6월 12일 북미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과 미국이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새로운 관계 개선 의지를 천명한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북미 관계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실패로 난항을 겪으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불신도 다시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4. 북한 변화와 정권 안정성 인식

1)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해 남한주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OO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북한변화)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였다. 결과는 “변하고 있다”는 응답이 70.9%로 많았다. 2017년까지 “변하고 있다”는 응답은 30%대로 낮았으나, 2018년에 77.3%로 높아졌다. 평창동계올림픽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중 및 북미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진행되면서 남한주민들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 같다. 2019년에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다소 소원해지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의 보도가 이어지면서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가 작년보다 다소 낮아졌으나 북한변화에 대한 평가는 70%대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북중 및 북미 정상회담이 꾸준히 진행되었고 미국과의 관계개선 여지도 남아 있어 북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아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변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도시화 수준 및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대도시 거주지에서 37.1%로 높은 반면, 중소도시와 읍면에서는 각각 21.3%, 29.8%로 낮다. 대도시 거주자들이 중소도시와 농촌 거주자들에 비해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진보’는 81.6%가 ‘변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보수’는 58.6%만이 ‘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2) 북한 정권 불안정 예측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인가”(정권안정화)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안정될 것”(31.0%)이라는 응답이 “불안정해질 것”(25.0%)이라는 응답보다 조금 많았다. 2017년까지는 “안정될 것”이라는 응답이 9.7%(2016년), 11.7%(2017년) 등으로 매우 낮은 반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60.0%(2016년), 63.7%(2017년)으로 압도적이었다. 2018년부터 상황이 반전되어 ‘안정’(31.5%) 예측이 ‘불안정’(27.5%) 전망보다 우세하였고, 2019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져 ‘안정’과 ‘불안정’이 31:25로 향후 북한정권을 안정될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북한정권 안정화에 대한 견해는 지역과 도시화 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냈다. 지역별로는 향후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보는 견해에 호남권이 38.7%로 가장 높고 수도권(32.2%)과 충청권(31.9%)이 그 다음으로 높고 영남권은 25.8%로 낮아 지역적 차이가 형성되었다. 또 대도시 거주자(23.4%)는 중소도시(37.6%)나 농촌(36.4%) 거주자에 비해 북한정권의 미래를 불안정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치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은 44.9%가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 반면, 보수적 성향의 사람들은 21.2%만이 향후 북한정권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여 진보-보수 간 현격한 차이를 드러냈다.

5. 북한에 대한 위협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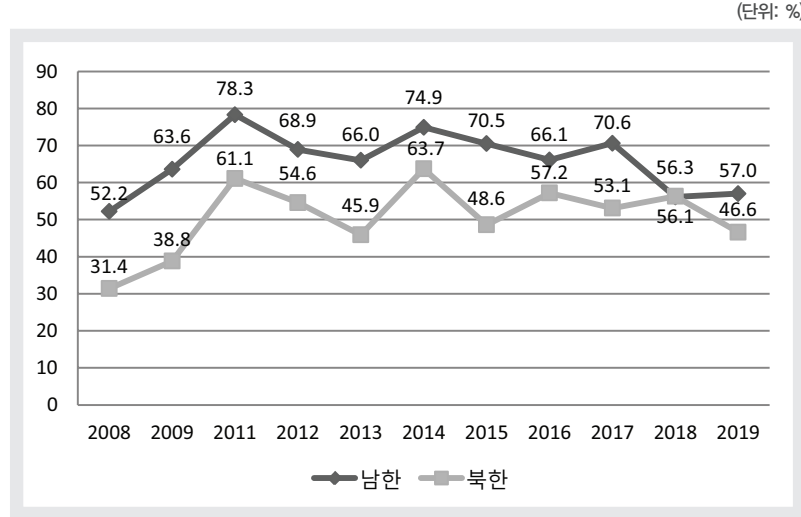
1)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와 불안은 57%로 2018년(56.3%)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북한발 안보불안이 높았던 2017년 70.6%에서 2018년 56.3%로 14.3%p나 대폭 낮아진 상태로 안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상황의 변화로 2018-2019년 56-57%로 북한발 무력도발이라는 안보불안이 대폭 낮아졌으나, 남북관계가 안정되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이 수치도 매우 높은 것이다. 김대중 정부 초기인 1999년에 44.3%를 기록했고, 남북관계가 좋았던 2005년에는 43%로 낮았으며, 김영삼정부 초기인 1993년에도 47.7%로 40%대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과거와 비교하면 2018-2019년의 56-57%는 여전히 높은 수치여서 북한발 안보불안을 더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북한 대남 무력도발 인식은 북한주민들의 인식과 어떻게 다를까? 북한주민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46.6%가 ‘있다’고 응답하여 ‘없다’(53.4%)는 응답보다 적었다. 즉 북한주민들도 남한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우려하는 불안감을 갖고는 있으나, 남한주민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였다. 2018년을 제외하고는 상대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남북주민의 인식은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즉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한쪽에서 고조되면 다른 쪽에서도 고조되고, 한 쪽에서 낮아지면 상대쪽에서도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

고 남북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는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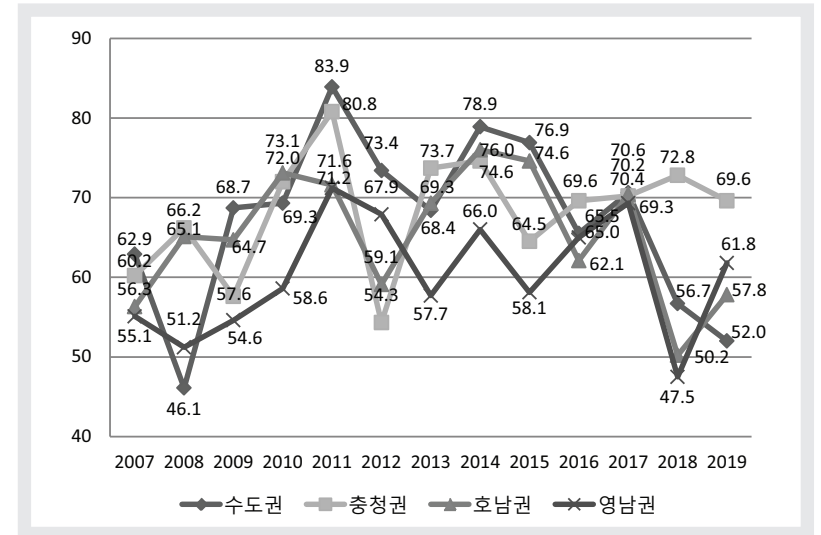
〈그림 1-2-6〉 남북한 상호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8-2019)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따라 통계적 차이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보면 충청권이 69.6%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전망하였으며, 영남권(61.8%), 호남권(57.8%), 수도권(52.0%)로 낮게 전망하였다. 2018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고 남북대화가 진행되어 모든 지역에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이 큰 폭으로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충청권에서만 낮아지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였다. 충청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가장 높게 간주하면서도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우려하는 복합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7〉 지역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07-2019)

(단위: %)



정치적 성향에 따른 차이도 드러난다. ‘진보’는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47.0%로 낮게 예측하는 반면, ‘보수’는 69.5%로 높게 예측하였다. ‘중도’는 58.9%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였다. ‘진보’는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신뢰를 갖고 있으므로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해 ‘보수’보다 낮게 예측하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과거 보수정권 하에서는 ‘진보’와 ‘중도’가 오히려 ‘보수’보다 북한발 무력도발은 더 높게 예측하는 경향이 있었다.¹⁵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는 자기가 지지하지 않은 보수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이 자칫 북한의 무력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불안해하여 무력도발 예측을 높게 하는 반면, ‘보수’는 본인들이 지지한 보수정부의 안보정책을 신뢰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할 것이라는

15] 정근식·김병로·장용석 외, 『2016 통일외식조사』(서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78.

정치적 판단에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진보정권 하에서는 반대로 '진보'가 정권의 대북정책을 신뢰하여 북한이 무력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반면, '보수'는 현 정권의 대북정책을 불안하게 봄으로써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생겨난다.

한편, 연령대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과거에는 20-30대의 젊은층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우려를 높게 하였는데, 2019년에는 연령대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 북한 핵보유 위협 인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4.7%, “다소 위협을 느낀다” 54.5%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9.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작년의 78.6%와 비슷한 수치이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고조되었던 2017년(82.8%)에 비하면 소폭(3.6%p) 낮아진 것이다. 최근 7년간 78.4%(2013)→89.3%(2014)→84.0%(2015)→79.5%(2016)→82.8%(2017)→78.6%(2018)→79.2%(2019)로 전반적으로 북핵위협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나 특히 2014년과 2015년, 2017년에 남한주민들에게 북핵이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였음을 볼 수 있다. 북핵위협이 가장 크게 작용했던 2014년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북한이 3차 핵실험(2013.2)을 단행한 이후 2014년 들어 당시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김부자 동상타격’ 발언이 나오는데 대해 격렬히 반발하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3.26)으로 전쟁돌입을 의미하는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효하였고 전면대결전이 최후단계에 진입했다

는 등의 위협을 가하였다. 이처럼 극도로 고조된 남북갈등 상황에서 많은 남한주민들이 북핵에 대한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북한 핵의 위협은 북한의 1차 핵실험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핵실험이 반복될수록 그 효과는 반감된 것으로 나타난다.¹⁶ 4차 핵실험(2016.1)을 단행했던 2016년에는 2월 개성공단 폐쇄 조치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79.5%로 높게 유지되었다. 2017년에는 5차 핵실험(2016.9) 이후 2017년 들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수차례 감행한데다 국내적으로 사드 포대 배치(4월)로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해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8년에는 2017년 하반기에 화성 13호와 14호 발사 및 6차 핵실험(2017.9)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초부터 조성된 남북화해 무드 속에서 북핵위협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꼈고 이러한 분위기가 2019년 까지 이어지면서 79%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북한 핵무기에 대한 위협의식은 지역과 도시화 수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우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82.6%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반면, 충청권과 영남권은 각각 76.3%, 79.0%로 그 다음으로 위협을 느끼고, 호남권은 69.9%로 그 위협을 가장 적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던 2017년 같은 경우에는 호남권이 88.6%로 가장 심각한 위협을 느낀 반면, 한반도 정세가 안정된 2018년과 2019년에는 수도권에서 81.7%, 82.6% 등으로 북핵위협을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진보 73.3%, 중도 81.0%, 보수 85.1% 등으로 보수가 진보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16) 김병로, "남북관계의 사건이 통일외교에 미치는 효과," 『통일외교』 9집2호(2017), pp. 159-1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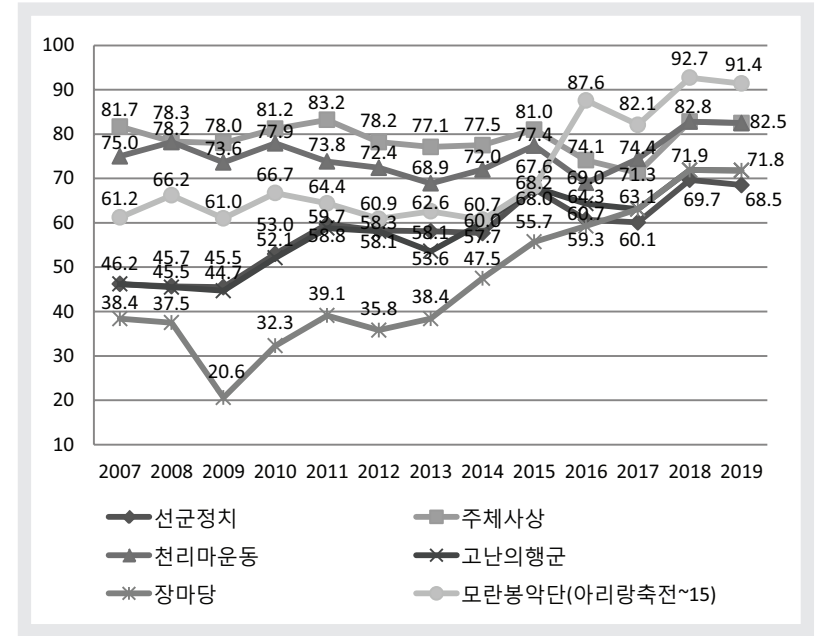
6. 북한사회 인지도 및 이질성 인식

1) 북한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선군정치, 주체사상, 천리마운동, 고난의 행군, 장마당, 모란봉악단 등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모란봉악단에 대한 인지도가 91.4%로 가장 높고, 주체사상(82.5%), 천리마운동(80.4%), 고난의 행군(74.5%), 장마당(71.8%), 선군정치(68.5%)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작년에 인지도가 큰 폭으로 상승한 후 올해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시계열로 보면 주체사상과 천리마운동과 같은 오래된 주제는 지난 12년 동안 인지도에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선군정치와 고난의 행군은 40%대에서 70%대로 꾸준히 상승하였고, 장마당의 인지도는 2009년 20%에서 2019년 71%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6년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된 모란봉악단은 남한주민들 사이에 가장 높은 인지도를 기록하였고 2018-2019년에는 90%의 남한주민들이 모란봉악단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6가지 주제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은 모란봉악단 14.8%, 주체사상 12.2% 정도이며, 선군정치나 고난의 행군, 장마당 등에 대해 ‘잘 안다’는 사람들은 각각 5.6%, 8.2%, 8.9%에 불과하고, 대부분 ‘조금 안다’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정도여서 북한에 관한 지식은 매우 피상적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2-8〉 북한사회 인지도(2007-2019)

(단위: %)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 간 차이

남북관계 개선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등이 단혀 있고 대북지원 활동도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 남한주민들의 북한관련 경험은 활발하지 않았다. 북한이나 금강산·개성공단 등을 방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3.1%에 불과하였고,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본 경험도 1.7%에 불과하였다. 반면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18.1%, 북한 방송이나 영

화·소설 등을 접한 경험은 25.5%로 많았다.

최근 몇 년 동안의 추세를 보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방문경험,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 참여 경험 등에서는 1-2% 선에서 큰 변화가 없었고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 등을 접해본 경험도 20% 대에서 등락을 반복(29.3%→20.6%→25.5%)하였다. 이는 금강산관광이 2008년에 중단되었고 개성공단도 2016년 2월 폐쇄된 데다 대북지원도 중단되어 있어 이 영역에서의 접촉경험이 증가할 수 없는 환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다만, 탈북자를 만나본 경험에서만 13.8%→16.4%→18.1%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근래 국내입국 탈북자가 줄기는 하였으나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탈북자의 국내입국은 2009년 2천9백명에 이르렀으나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2012년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여 2017년 1,127명, 2018년 1,137명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느끼는 이질성은 평균 81-8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선거방식이나 사회복지, 언어사용 등은 90% 이상의 심각한 이질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생활풍습에서는 80-82%로 평균 정도로, 돈중시 및 가족중시 문화에서는 각각 61-63%, 72-76%로 이질감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계열로 보면 지난 10여 년 동안 남한주민들의 남북이질감은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남북주민들이 실제 교류와 접촉이 잦아지면 오히려 차이와 갈등을 더 느끼는 단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는 미디어와 탈북민을 통한 제한적인 교류가 진행되는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질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1-2-4〉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9)

(단위: %)

	남한	북한
선거방식	94.7	96.5
사회복지	95.9	92.2
언어사용	86.4	92.3
생활풍습	80.7	82.8
가족중시	60.8	63.8
돈중시	72.1	76.8
평균	81.8	84.1

7. 소결

2019년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첫째, 작년에 높게 형성된 대북 협력의식과 약화된 적대의식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즉 북한과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한다는 ‘협력’ 인식은 54.6%→54.0%로, ‘적대’ 인식은 10.3%→10.8%로 큰 변화가 없었다. ‘경계’ 인식이 14.4%→17.0%로 조금 높아졌으나 전반적으로 작년에 크게 높아진 대북 협력의식이 올해에도 지속되었다. 2019년에 들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을 다시 감행하고 남북관계나 북미관계가 다소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조성된 한반도 평화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 6월 30일 남북미 정상회담이 대화와 교류의 동력을 지속시킴으로써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들의 협력인식을 지속시켰다.

둘째,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와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도 작년에 높아진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북한도발에 의한 위기의식도 낮아진 작년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다는 평가가 작년(54.7%)과 비슷한 51.6%였고, 북한변화에 대해서도 작년(77.3%)과 비슷한 70%가 '변화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나 북한변화에 대해 작년에 각각 28.1%→54.7%, 31.9%→77.3%로 워낙 큰 폭으로 상승한 터여서 2019년에는 작년보다 약간 낮아졌으나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과 같은 안보불안도 57%로 작년에 70.6%→56.3%로 낮아진 수준을 유지하였다. 북한과의 회담실황과 경제부문에 대한 소식이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면서 북한과 북한정권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젊은층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기존에 보였던 세대 간 의식차이가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작년에 고조된 한반도 평화분위기에 20-30대세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게 상승하였고, 그 결과 기존에 분리되었던 20-30세대와 40-50세대의 의식수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2019년에는 대북의식에서 20-30세대가 40-50세대에서 다시 분리되어 60대이상에 합류하는 기존 패턴으로 회귀하였으나 그 폭은 크지 않았다.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안보불안이 고조될수록 북한관련 세대별 의식차이가 좁혀지는 수렴현상이 진행되었는데, 평화 분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유사하게 세대 간 의식의 수렴현상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넷째,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북한 '협력대상' 인식은 충청권(67.1%)에서 가장 높고 호남권(61.3%), 수도권(54.2%), 영남권(44.6%)로 확연히 분화되어 있다. 작년에는 한반도

상황의 호전으로 대북인식이 개선되어 충청·호남·수도권이 결집되었고 영남권만 분리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이어지면서 지역별 의식분화 현상이 진행되었다. 충청권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대북 협력인식이 다시 급상승하여 정체되거나 하락한 다른 지역과는 대조를 보였다. 2017년 한반도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지역별 의식편차가 완전히 사라지고 완벽한 의식수렴이 이루어졌으며 작년과 올해에는 지역적 분화가 뚜렷이 진행되었다. 또한 거주지역의 도시화 수준에 따라서도 여러 영역에서 의식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중도도시나 농촌 거주자보다 대도시 거주자가 북한을 더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보였다.

다섯째, 대북인식의 모든 부분에서 정치적 성향에 따른 의식의 편차가 확연히 존재하였다. 특히 북한정권 신뢰도는 64.7%(진보), 49.2%(중도), 34.4%(보수)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이로써 지금까지 진보-중도-보수를 구분하는 가장 유력한 기준으로 북한정권 신뢰도는 금년에도 동일하게 작동하였다. 그 외에도 대북협력인식과 북한변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 등 여러 항목에서 정치적 성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시계열로 보면 '중도'는 대체로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2014년과 2015년에는 '보수'로, 평화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된 2018년에는 '진보'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런 점에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평가와 판단이 진보-보수의 정치적 성향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기존 통념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2019년 남한주민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작년에 형성된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별, 세대별, 이념별 분화가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요약된다. 작년의 한반도 평화 분위기 형성으로 대북인식이 크게 호전되었고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북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으나, 금년에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에 들어서면서 남한주민들의 북한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지역과 세대, 이념에 따라 다시 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보와 평화가 급격히 파괴되거나 조성될 때는 대북의식에서 수렴현상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반복되거나 이완기에 접어들면 안보와 평화의 피로감이 작용하여 지역과 세대, 이념에 따른 의식의 분화가 진행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나 한반도 정세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극적인 평화나 안보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대북인식에서 지역과 세대, 이념 간 의식분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3장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

| 이성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 서론

2019년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의 길로 갈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와 점점 줄어드는 희망의 끈을 놓으려 하지 않는 인식이 교차되는 한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8년은 한반도의 긴장이 대폭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희망에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었다. 2018년의 기대와 희망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북미간의 실무협상과 2019년 2월 27-28일 양일간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합의 실패, 6월 30일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협상 재개 불발 등으로 실망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2019년도 신년사가 발표될 때만 해도 기대와 희망은 지속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 및 대남 메시지에서 한 단계 높은 진전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었다. 평화를 통한 경제발전, 경제발전과 평화의 동시 지향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6·12 북미합의

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불변의 확고한 이행 의지를 직접 언급했으며, 남북한 군비통제의 확대, 정전협정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다자 협상 추진, 개성공단 및 금강산 사업 재개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2월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북미간의 협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면서, 남북관계 또한 회담조차 열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협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민들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북미간의 협상에 중재자,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해온 한국 정부의 정책이 많은 찬사를 받았지만, 결국 핵심 사안에 대한 협상이 교착된 상황에서 한국정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정부가 이 상황을 대처하는데 있어서 정책 당국자들은 한국인들이 어떤 인식으로 대북정책과 관련 현안들을 인식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국민들의 동의와 이해를 구하는 속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한다. 본 장에서는 한국 정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한국의 정책방향, 한국의 역할 인식 등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한다. 이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확인 은 향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이 취해야 할 정책과 세부방향 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각기 다른 성향의 응답자들이 보여주는 인식의 차이와 공유와 동의하는 인식요인들을 확인할 수 있고, 기존의 인식과 같이 지속되는 인식과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는 인식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북한과 미국간의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서로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냉정한 사고가 필요한 시점에 대

북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본 챕터의 내용들도 중요한 검토자료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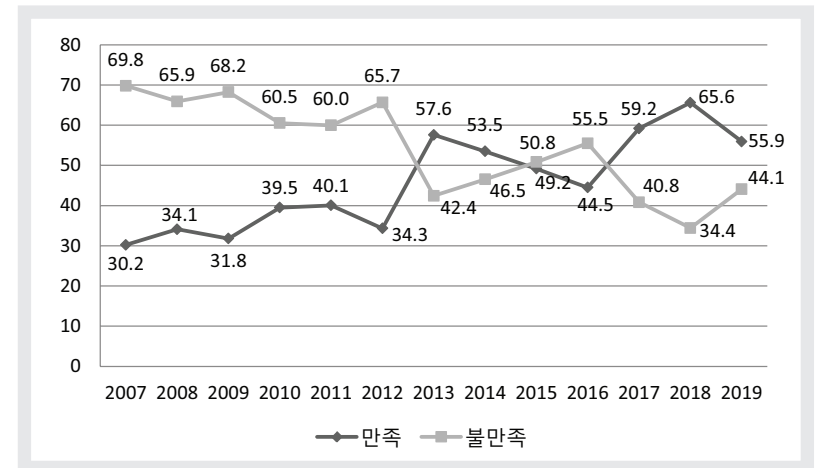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방향은 언제나 한국 정치와 사회의 중요한 이슈였다.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민들간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많은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만족도에 대한 검토를 수반하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상승세로 전환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2018년 65.5%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2019년 상승세가 꺾이고 55.9%로 하락 반전하였다. 이는 2016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8년의 높은 대북정책 만족도는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4.27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등 남북과 북미간 화해 모드로 인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진 결과였다. 하지만, 2019년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었다. 그 이유는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 북미간의 실무협상과 2019년 2월 27-28일 양일간 제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6월 30일 제3차 판문점 북미정상회담 개최 이후 협상 재개 불발 등이며, 이로 인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다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1〉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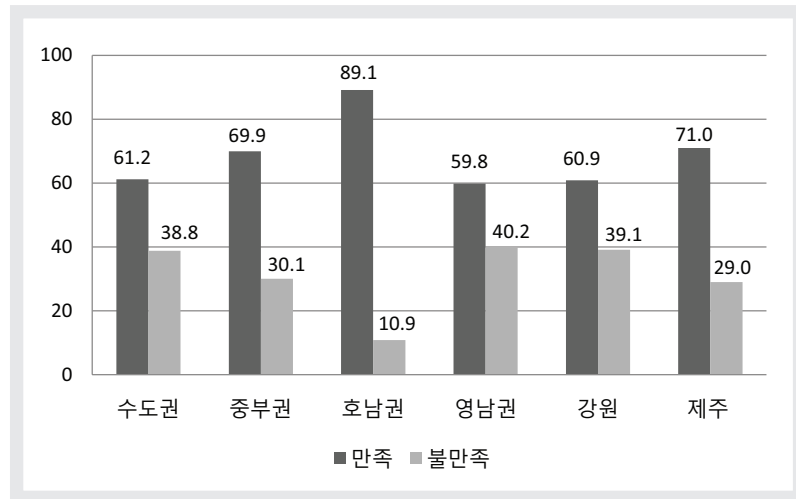


지역별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2018년은 호남권(89.1%), 제주(70.9%), 중부권(69.9%), 수도권(61.1%), 강원권(60.8%), 영남권(59.8%)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호남권(80.4%), 중부권(63.8%), 제주(59.3%), 수도권(56.8%), 강원권(50%), 영남권(39.9%)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에 비해 2019년은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65.5%에서 55.9%로 많이 낮아졌고, 불만족도가 34.4%에서 44%로 10% 정도 상승하였다. 영남권은 유일하게 불만족도가 만족도를 앞서는 결과이며, 강원권은 정확하게 50%대 50%로 나뉘어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추가 협상의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과 방사포 발사를 지속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호남권에서는 만족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보수적이며 정치적 반대세력이 많은 영남권에서는 불만족이

더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북한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한국사회에 중요한 이념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수도권은 생각보다 대북정책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결과이다. 2018년에도 61.1%로 높은 편이 아니었으며, 올해 2019년에도 56.8%로 낮은 지역에 속한다. 수도권이 지속적으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는 것은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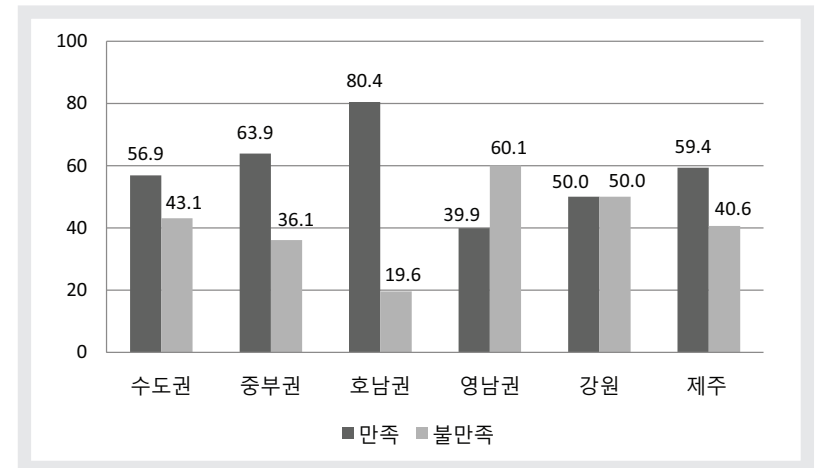
〈그림 1-3-2〉 2018년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그림 1-3-3〉 2019년 지역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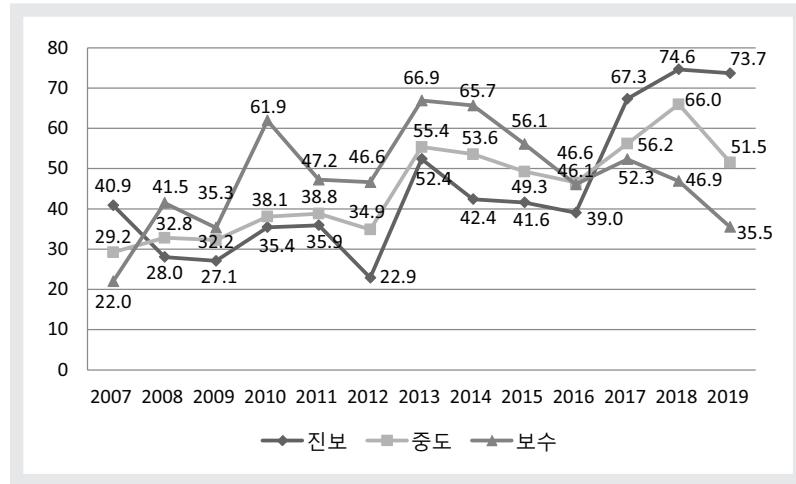
(단위: %)



정치성향별로 대북정책 만족도를 비교해보면, 진보층이 2018년 74.6%에서 2019년 73.6%로 1% 정도로 비슷한 수준에서 하락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진보층에 비해 중도층과 보수층은 그 하락도가 더 크다. 중도층은 2018년 65.9%에서 2019년 51.5%로 10% 가량 만족도가 낮아졌고, 보수층은 2018년 46.8%에서 2019년 35.4%로 11% 가량 만족도가 하락하였다. 진보적 유권자 층은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교류협력을 지지하는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중요 지지기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도층과 보수층은 북한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입장이 기본이다. 그렇다면,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된 현재 상황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진 것은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에 기반한 인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3-4〉 정치성향별 대북정책만족도

(단위: %)



3.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력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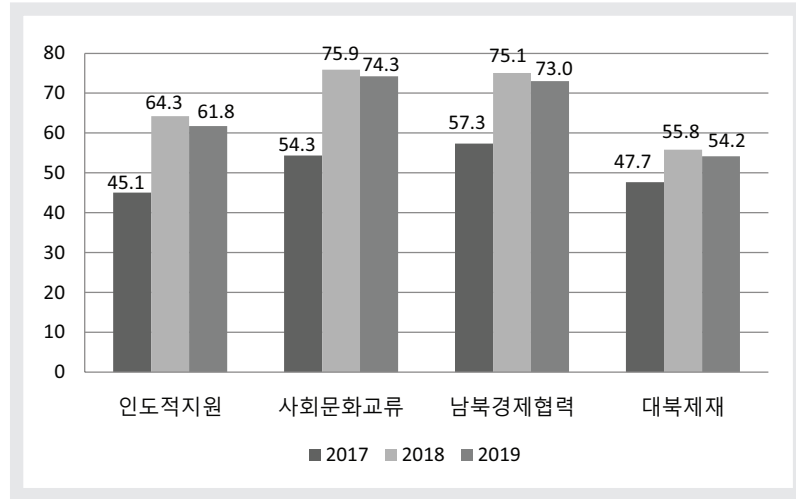
한국의 대북정책은 시대별로 각기 다른 목표를 설정해왔다. 흡수통일이 목표였기도 했고, 공존공영이 목표이기도 했다. 최근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이 가장 구체적인 목표라고 이해할 수 있다. 통일외식조사는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 또는 비핵화를 위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 설문을 해왔다. 구체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사회문화교류, 남북경제협력, 대북제재 각 정책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설문하였다. 아래의 〈그림 1-3-5〉는 각 정책이 북한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연도별로 집계한 결과이다.

네 가지 정책 모두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18년이었다. 인도적 지원이 64.2%, 사회문화교류가 75.9%, 남북경제협력이 75%, 대북제재가 55.8%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인도적 지원이 61.7%, 사회문화교류가 74.2%, 남북경제협력이 73% 대북제재가 54.1%로 2018년에 비해 3% 이내로 하락하였다.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하락한 것은 북미간 핵협상의 진척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책별 효과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된 3년 모두 사회문화교류와 남북경제협력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인도적 지원과 대북제재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북한 사람들이 개혁개방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느끼고, 개혁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낄 것을 전제로 한 인식이 한국인들 사이의 보편적인 인식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개혁개방은 일방적인 지원이나 제재 정책보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경제적 이익 증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림 1-3-5〉 대북 정책별 북한의 개혁개방 효용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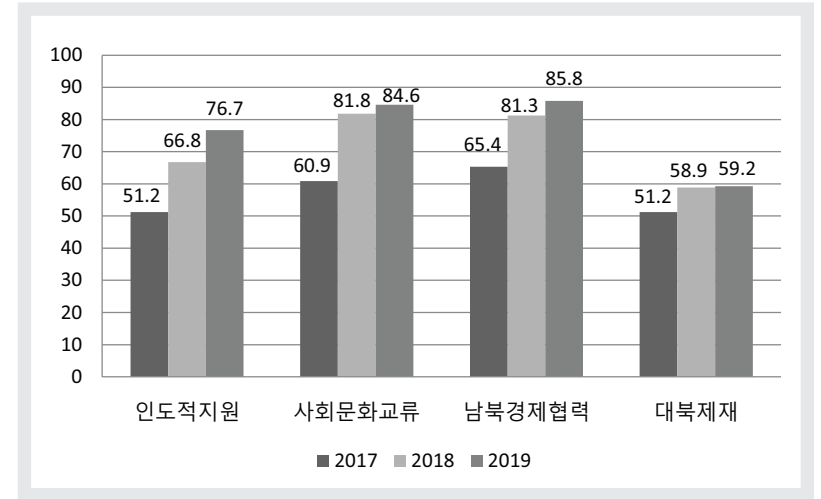
(단위: %)



북한과의 화해와 교류를 찬성하는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은 매해 각 정책별 효용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을 증가시켜왔다. 2018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018년에 비해 조금 더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화해협력 분위기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대북제재에 대한 효용도 감소하지 않고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기본적으로 교류와 협력에 대한 지지의사가 확실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한 경계와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북한에 대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일정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림 1-3-6〉 진보층 대북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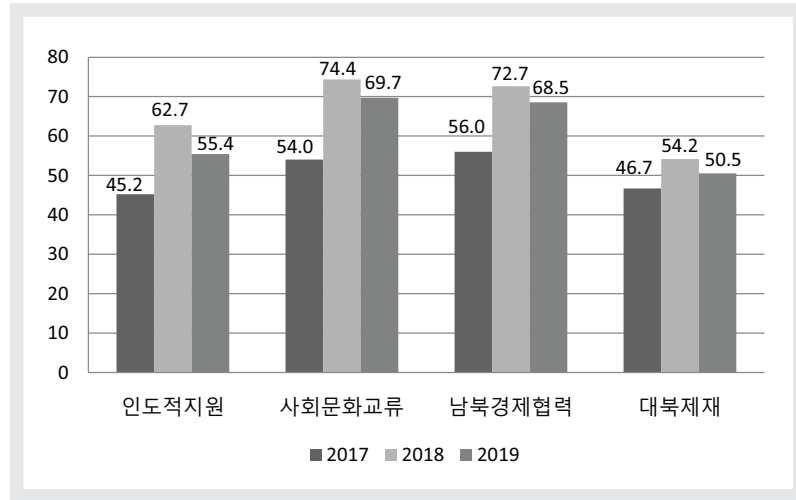
(단위: %)



진보층이 계속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고 있는 반면, 정치적 중도층은 대북정책의 효용에 대하여 크게 의구심을 가진 결과를 보여준다. 중도층은 2018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고, 이후 2019년에는 그 응답이 줄어들었다. 대북제재에 대한 인식도 감소하였다. 이는 진보와 보수층과 또 다른 응답 유형이다.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면서 전반적으로 회의적 시각이 많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3-7〉 중도층 대북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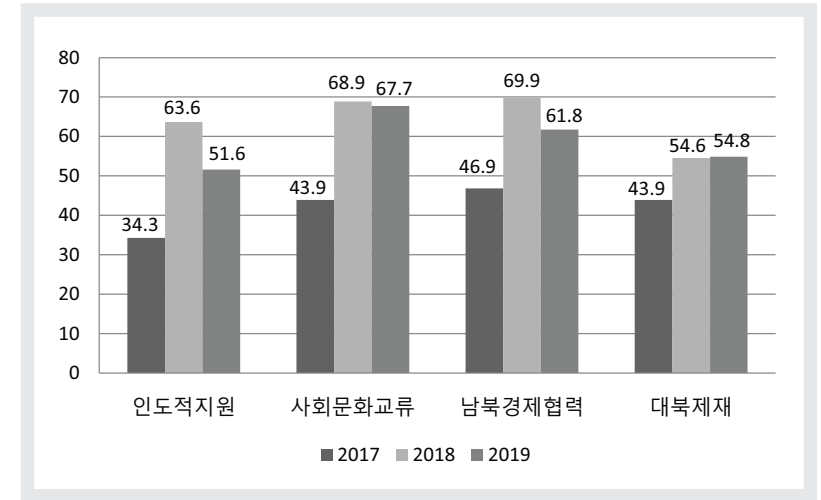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3-8〉에서 보는바와 같이, 보수층도 북한 개혁개방에 각 정책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해는 2018년이였다. 2019년에는 대북제재만 빼고 모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낮아졌다. 대북제재만이 2018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보수층이 인도적 지원, 교류와 협력에 대한 효용 인식이 진보층이나 중도층보다는 낮은편이지만, 60% 후반대까지 긍정적 인식이 나오는 것은 관련 정책의 효용성을 어느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이해해볼 수 있다. 그리고, 대북제재에 대한 효과에 더 긍정적이긴 하지만, 보수층도 대북제재보다는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가 북한 개혁개방에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흥미로운 결과이다.

〈그림 1-3-8〉 보수층 대북개혁개방에 대한 효용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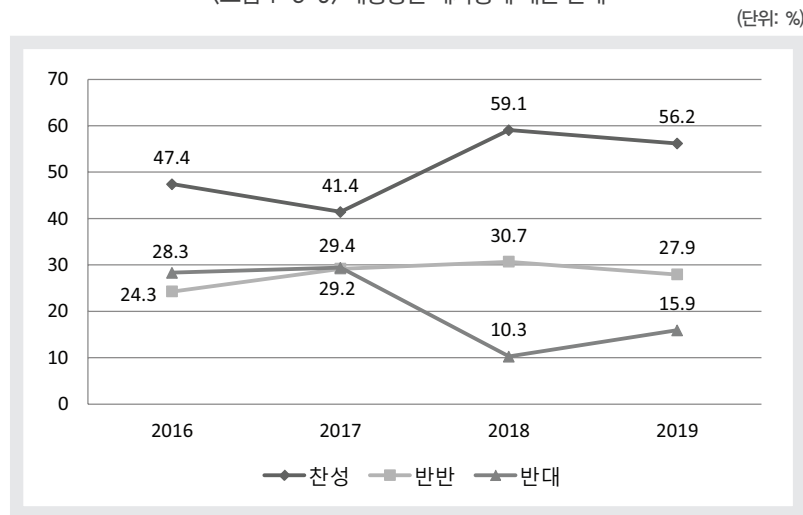


4. 대북정책별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

북한과의 그동안의 교류와 협력 그리고 북한 자체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다. 주요 현안들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3-9〉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를 보여준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이후 통일외식조사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의견을 설문해왔다.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설문하였다. 개성공단 재가동 찬성의견은 2018년이 59%로 가장 높았고, 2019년은 56.1%로 3% 정도 낮아졌다. 미국과 한국이 북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를 했었으

나, 협상 교착으로 인하여 그 기대가 조금 낮아졌다. 그와 동시에 반대의견이 2018년 10.3%였다가 2019년 15.9%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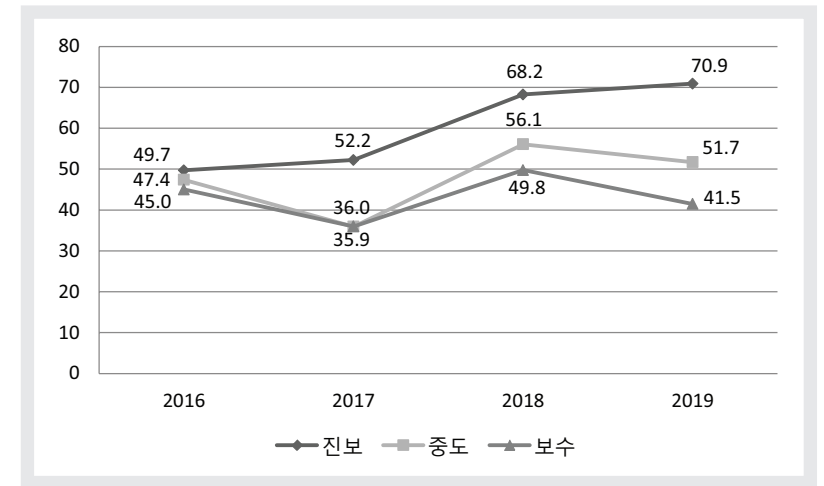
〈그림 1-3-9〉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이 70.89%로 가장 찬성이 높고, 2018년에 비해 상승하였으나, 중도층과 보수층은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중도는 2018년 56%보다 낮아졌다. 보수도 2018년 49.7% 찬성에서 2019년 41.4%로 낮아졌다. 개성공단에 대한 진보층의 인식은 개성공단이 한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강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의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보층은 강하게 재가동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도와 보수는 그만큼 북한에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고, 그 이익으로 핵개발 등 군사적 도발에 지원이 된다는 생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10〉 정치성향별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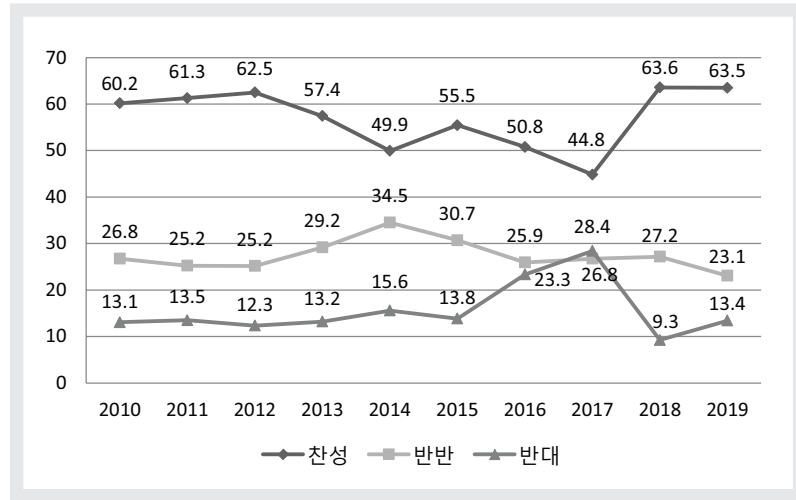
(단위: %)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남북 경협을 중요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의견도 설문해오고 있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되었고, 2010년부터 관련 의견을 설문해오고 있다. 찬성의견이 가장 낮게 나온 2017년 이후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전반적으로 찬성이 높아져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2018년 63.58%로 가장 높은 찬성율을 보였다. 2019년은 63.5%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반대는 2018년 9.3%에서 2019년 13.4%로 증가하였다.

〈그림 1-3-11〉 금강산 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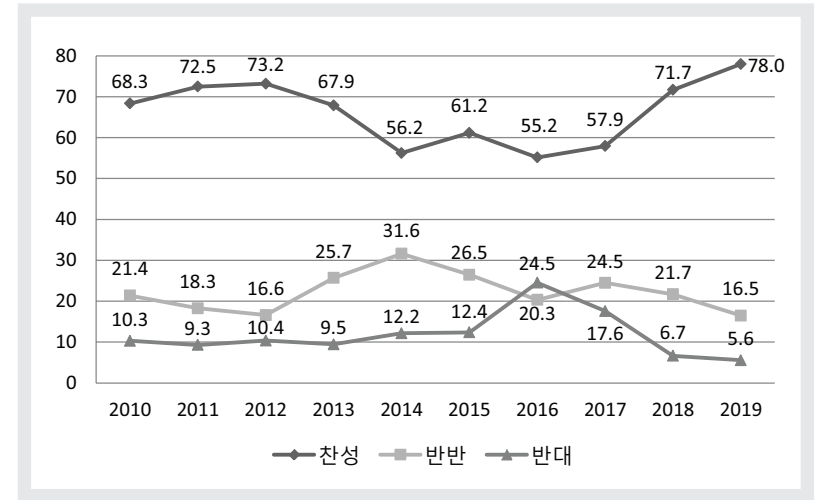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3-12〉을 보면 진보층은 매우 찬성율이 높다. 2018년 71.67%, 2019년 77.97%로 찬성의견이 더 높았으나, 전체 의견의 결과를 보면 중도층과 보수층의 반대의견이 더 높아졌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진보층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지를 지속하는 연장선상에서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도층과 보수층의 북한 비핵화가 잘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강산 관광의 수익이 북한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을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12〉 진보층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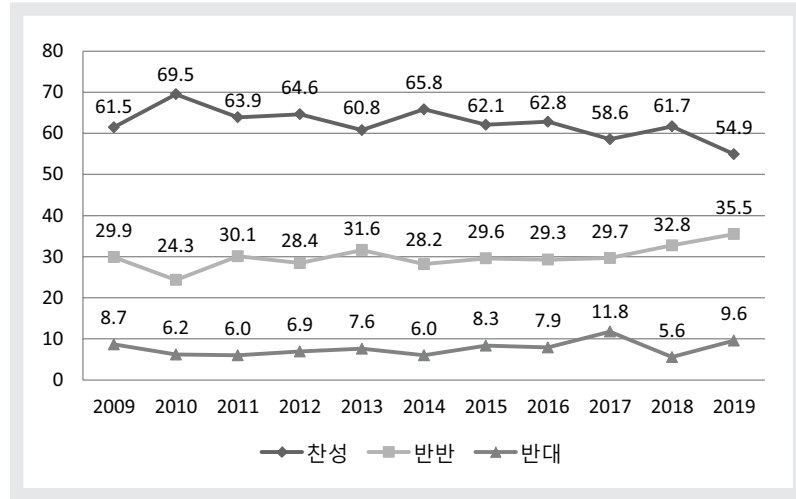
(단위: %)



다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등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관심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행되면서 관련 논의가 많이 축소된 상황이다.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대하여 찬성의견이 2018년 61.67%에 비해 2019년 54.92% 하락하였다. 이 하락추세는 현시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제기가 북한의 극렬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13〉 정부의 북한 인권문제 제기에 대한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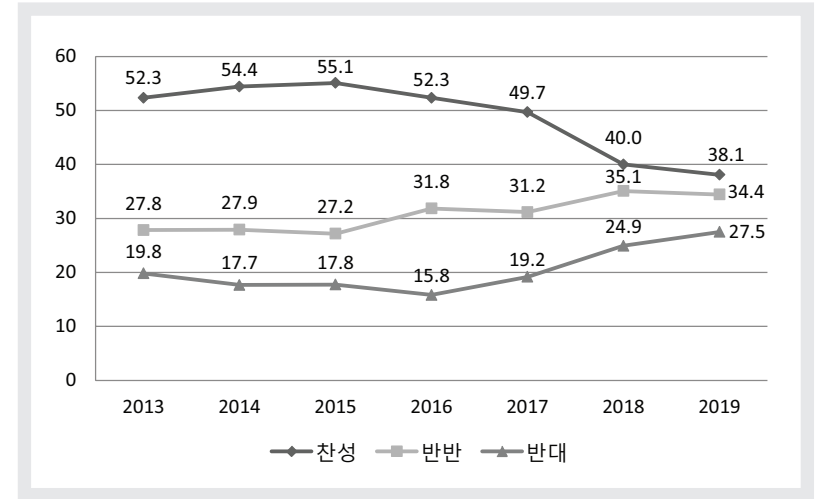
(단위: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요구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설문을 2013년부터 진행해왔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찬성의 견은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 40%로 급감하였고, 2019년 38.08%로 감소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북한과의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어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자들이 많이 줄어든 영향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한 안보위협 속에서 핵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3년 이후 지속해온 본 여론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이 핵무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이유는 여전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남과 북의 관계개선으로 인하여 핵무장 찬성의견이 대폭 감소한 것을 봤을 때 한국민에게 핵무장은 북한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14〉 핵무기 보유에 대한 견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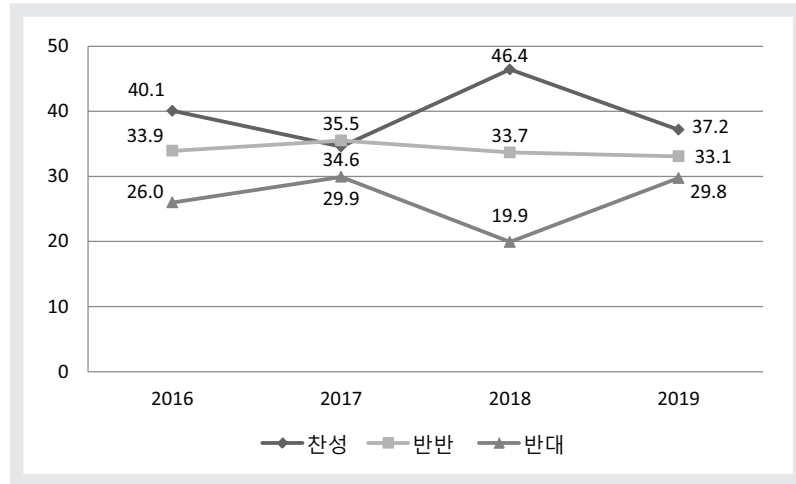


북핵 해결 전 남북교류 중단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문에서 찬성률이 낮아졌다. 북핵 해결 전 남북교류 중단 찬성이 2018년 46.42%에서 2019년 37.17%로 하락하였고, 반대가 19.92%에서 29.75%로 증가하였다.

북핵해결 이전이라도 남북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남북교류문제는 북핵 문제와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한 결과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 대한 찬성의견을 고려할 때 진보층에서 적극적으로 중단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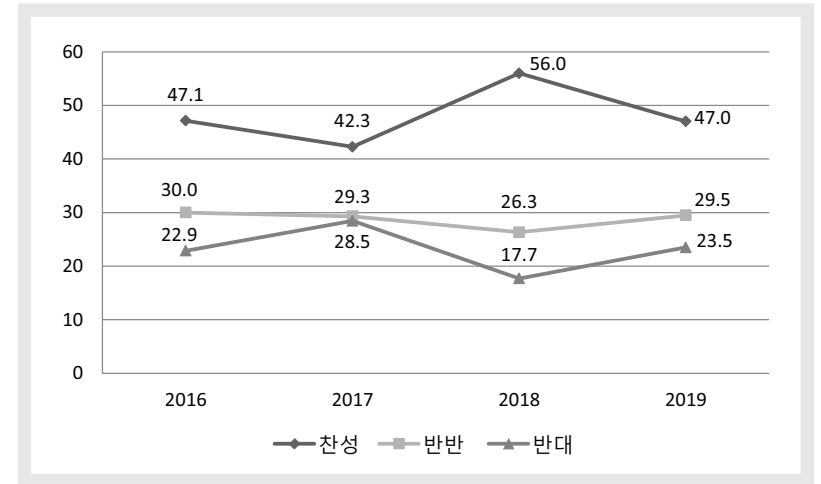
〈그림 1-3-15〉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견해

(단위: %)



〈그림 1-3-16〉 보수층 북핵문제 해결 전 남북교류협력 중단에 대한 견해

(단위: %)



보수층은 모순적인 인식을 보인다. 작년에 찬성의견이 56%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2019년에는 47%로 낮아졌지만, 찬성의견이 더 높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한 강경 정책을 선호하는 보수층도 북한의 핵문제와 별도로 남북교류문제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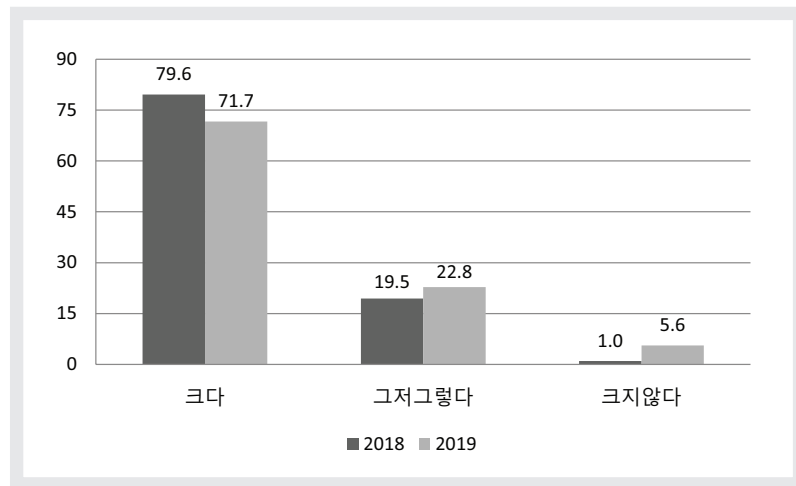
5. 정부 대북정책의 영향력 인식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안보구조에서 한국의 역할은 한정적이다. 세계 4대 강국이 모두 주변에 있고, 주변 강국들의 지정학적 위치와 역량, 그리고 한반도의 남과 북으로의 분단은 현재의 구조에 안정성을 주고 있다. 한국은 이 구조 속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역할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간의 관계개선은 동아시아 안보구조와 연관된 문제로서 한국은 미국과 주변국들의 동의 없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관계개선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고자 한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

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영향력은 일정한 한계를 동반한다. 한국민들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지도 중요한 대북정책과 관련된 인식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2018년 조사에서는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한 비율이 79.6%였다. 그제 그렇다가 19.5%였고, 크지 않다가 1%였다. 작년에는 한국정부의 북한과 미국의 관계 개선을 중재하던 정책이 큰 효과를 발휘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국정부의 정책영향력을 크게 느낄 수 있는 한해였다.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황에 빠진 2019년에는 71.7%가 대북정책 영향력이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8년에 비해 8% 정도 하락 한 수치이며, 그제 그렇다는 22.8%, 크지 않다는 5.6%로 2018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민들은 한국 정부의 영향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3-17〉 남북관계개선관련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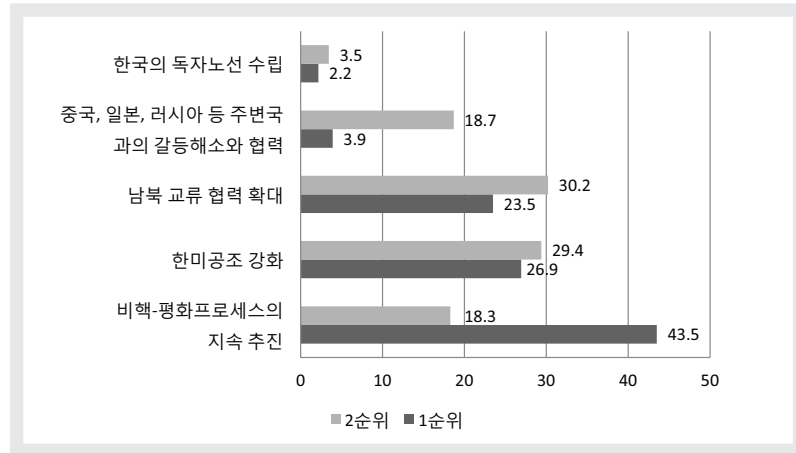


6. 정부의 우선정책방향과 한국의 역할에 대한 견해

대북정책의 여러 사안들 중에서 한국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인가? 한국의 대북정책은 국제적 안보상황이나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한반도 평화정착과 북한 비핵화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현 시점에 한국의 대북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대중들의 의견을 설문 하였다. 1순위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비핵-평화 프로세스 지속추진이 43.5%로 두 번째가 26.92%로 한미공조 강화이다. 세 번째가 23.5%로 남북교류협력확대이다. 2순위로 가장 많이 응한 답은 30.22%로 남북교류협력 확대, 두 번째가 29.38%로 한미공조강화이다. 현재 한국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비핵-평화 프로세스 지속추진이 가장 중요한 우선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대립적인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는 한미공조 강화와 남북교류협력확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중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한미공조강화가 두 번째로 꼽힌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3-18〉 정부의 우선정책방향

(단위: %)



좀 더 정확하게 정책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하여 1순위 선택과 2순위 선택을 비교하였다. 1순위로 비핵-평화프로세스 지속추진을 꼽은 응답자가 2순위에서 가장 많이 뽑은 정책은 45.8%의 한미공조 강화이고, 그 다음이 43.3%의 남북교류협력 확대이다. 1순위로 한미공조강화를 꼽은 응답자들은 35.6%가 2순위에서 남북교류협력확대를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30.2%의 비핵-평화프로세스 지속추진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지만, 남북교류협력확대의 중요성을 간과하지는 않고 있는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순위로 남북교류협력확대를 꼽은 사람들은 2순위에서 38.4%의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지속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이 30.2%의 한미공조 강화이다. 전반적으로 비핵-평화프로세스 지속추진과 한미공조 강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 확대가 중요한 정책의 세가지 축이며, 한국인들이 선후차성의 선호는 일부 있지만, 이 세가지 정책이 상호작용하고 지속추진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1〉 정부의 우선정책방향 1순위와 2순위 관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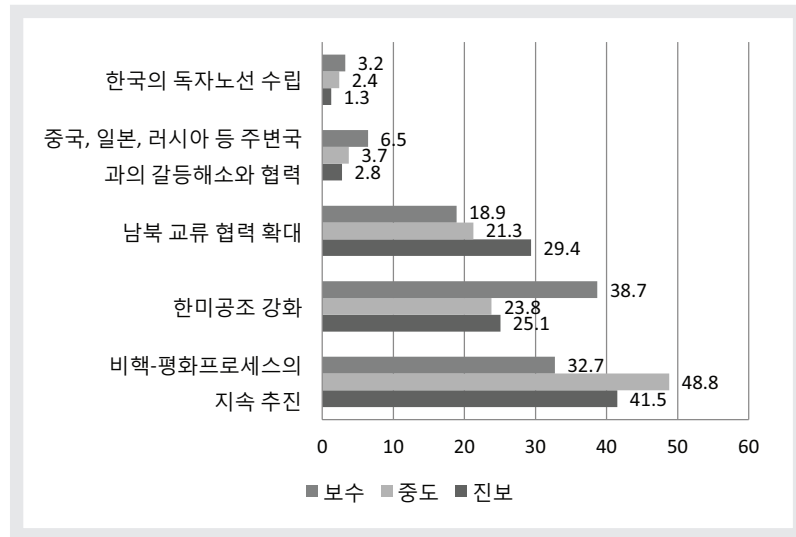
	1순위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한미공조 강화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해소와 협력	한국의 독자 노선 수립	합계	
2 순 위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0.0	30.2	38.4	10.8	34.6	18.2
	한미공조 강화	45.8	0.0	30.2	43.4	23.0	29.3
	남북 교류 협력 확대	43.3	35.6	0.0	32.6	19.2	30.2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해소와 협력	9.4	30.2	25.5	0.0	23.0	18.6
	한국의 독자노선 수립	1.3	3.7	5.7	13.0	0.0	3.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부의 우선정책 방향인식에 대해 이념성향별로 나누어살펴보았다. 보수층은 첫 번째로 꼽은 것이 38.7%로 한미공조 강화, 두 번째가 32.7%로 비핵-평화 프로세스 추진이다. 중도층은 48.8%로 비핵-평화프로세스 지속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두 번째가 23.8%로 한미공조 강화, 세 번째가 21.2%로 남북교류협력확대이다. 마지막으로 진보층은 41.5%로 비핵-평화 프로세스 지속추진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29.3%로 남북교류협력확대, 세 번째가 25%로 한미공조 강화이다. 보수층은 예상대로 한미공조 강화를 우선 정책방향으로 꼽았지만, 두번째로 비핵-평화프로세스

지속 추진을 꼽은 것을 보았을때, 현재 한국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수층 내에서도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도층도 가장 우선한 정책으로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지속추진을 선택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진보층은 예상대로 비핵-평화프로세스 추진과 남북교류를 좀 더 강조하는 입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3-19〉 이념성향별 정부의 우선정책방향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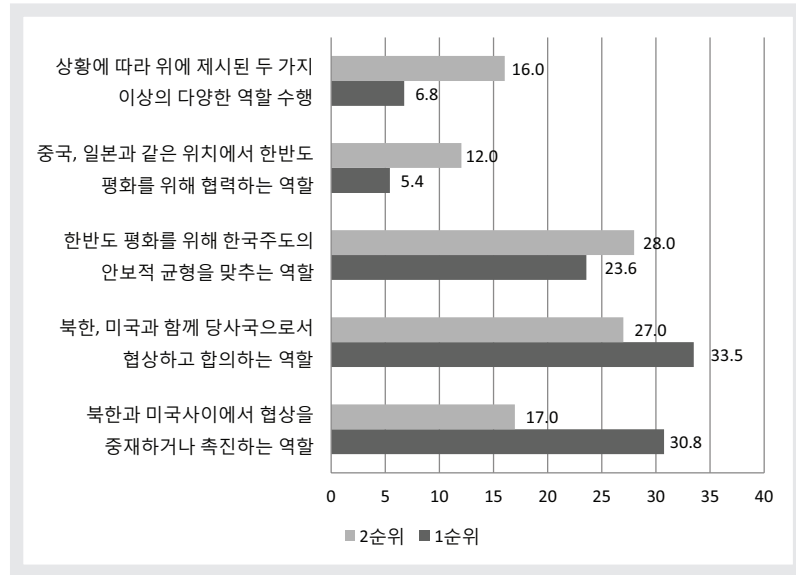
한국은 동아시아 안보구조 내에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면서도 주변 강대국과 북한의 공격적 정책 속에서 한반도 평화 유지와 북한의 비핵화 추진에 있어서 여러가지 한계를 가진다. 안보 구조 속에서 정세에 따라 한국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한국정부의 역할에 대한 여러가

지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서 한국민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이 어떤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문을 하였다. 중재자나 촉진자로서 역할을 충실해야하는지, 당사국으로서의 역할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구하였다.

응답자의 33.5%가 북한, 미국과 함께 당사국으로서 협상과 합의를 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두 번째가 30.7%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자 또는 촉진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가 한국주도의 균형자 역할에 우선해야한다고 23.5%가 응답하였다. 이 응답의 결과는 한국민들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이고, 좀더 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번째로 북한과 미국 사이의 중재자 또는 촉진자 역할을 선택한 것은 동아시아의 안보구조와 북한과 미국의 직접 협상이 진행되는 현실을 인식하고, 그 안에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인식도 많이 존재함으로 보여준다.

〈그림 1-3-20〉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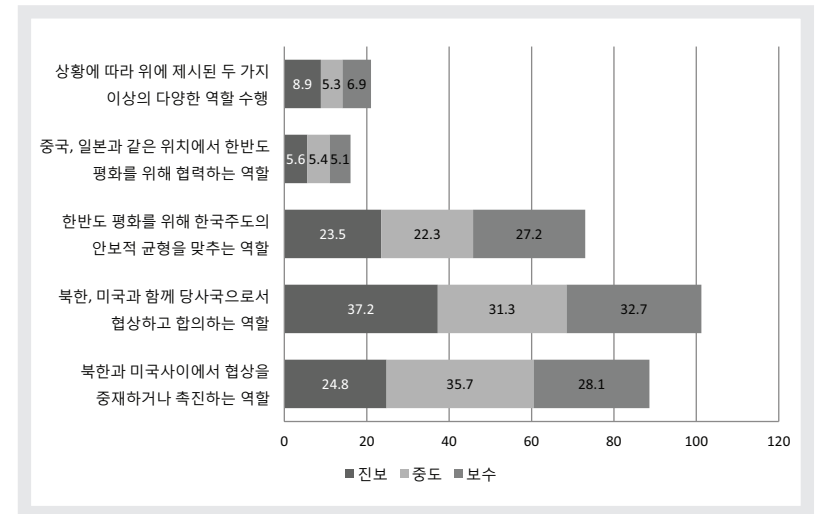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은 32.7%가 북한과 미국과 함께 당사국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그 다음이 28.1%로 중재자 및 촉진자 역할을 선택하였다. 비슷하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27.1%로 선택하였다. 중도층은 35.7%로 중재자나 촉진자 역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두 번째가 31.2%로 당사국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선택하였다. 22.2%는 안보적 균형자 역할을 선택하였다. 진보층은 37.2%가 당사국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두 번째가 24.8%가 중재자 또는 촉진하는 역할을 선택하였으며, 23.5%가 균형자 역할을 선택하였다. 북한에 대한 기본 태도가 다른 보수층과 진보층이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당사국으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였다. 보수와 진보 모두 한국의

좀 더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보다는 오히려 중도층이 그동안의 역사에서 보여준바와 같은 중재자나 촉진자의 역할로서의 한국의 역할이 타당하고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3-21〉 정치성향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 인식

(단위: %)



7. 소결

지금까지 대북정책에 대한 여러 인식들을 살펴보았다. 2018년의 높은 기대와 달리 진척되지 않는 협상,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한국과 미국 정부에 대한 공격적 언사로 인하여 또다시 한반도 평화에 먹구름이 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이 함께하는 2019년이었음을 일정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인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그 희망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좀 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역할과 정책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성향별 차이도 일정하게 확인하였다. 하지만, 과거와 같은 극단적 대립이 아닌 서로 상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일정하게 필요성을 인식하는 응답결과도 보여진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결과이다. 한반도 전체의 안보적 불안정성은 그 어떤 정치성향과 입장을 가지든 모두에게 위협이 되는 것이고, 그 문제 해결에 있어서 서로 상대의 가치와 선택을 이해한 속에서 공동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증진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중재자로서든, 당사국으로서든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관련 활동과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안보적 위협 요인이 사라지고, 한반도 전체에 평화가 정착하기를 바라는 인식을 다시한

번 확인하였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쟁이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내용과 그 실행에 있음을 설문 응답자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관련 심층 연구들도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 담당자들도 관련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잘 확인하고 정책 세부방향을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제4장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 최규빈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2019년 한반도의 주변 환경은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이후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서 개최되었고,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착수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었다. 한반도의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이 커지자 남북한을 비롯한 주변 4개국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하고 ‘개성공단지구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용의 및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기다리며 2018년 9월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 및 ‘판문점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의 이행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대화 의지와 평화분위기에 조응하여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에서 제2차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그렇지만 북한과 미국이 하노이 회담이 합의 도출에 실패하고

상호간의 비핵화 인식, 이행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이견을 노출하면서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은 급격히 약해지게 되었다. 포스트 하노이 시기 미국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재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실무 차원에서는 북한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역시 협상의 틀이 유지 될 수 있게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한반도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주변국과의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갔다. 분명한 사실은 2018년 이후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치열한 외교적 움직임을 보였다. 북한과 중국은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5차례의 정상회담을, 미국과는 2차례의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북러 정상회담은 2011년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졌다. 한국은 북한과 3차례의 정상회담 및 5차례의 고위급회담을 진행하였고, 미국과는 2018년부터 2019년 9월까지 6차례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즉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정세가 변화되면서 관련 당사국들의 전략적 이해와 영향력, 개입의 범위가 급격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남북관계 및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에 오랜 기간 중요한 영향을 미쳐왔고 앞으로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등과 같은 국가 과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위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인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외교전략 마련에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이 주변국들에 대해 갖는 이미지와 통일과 관련된 주요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게 된다. 관련된 설문에 대

한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하며 조사항목에 대한 결과들을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비교하면서 주변국 인식의 특징과 변화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 가장 가까운 주변국, 가장 위협적인 주변국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국인들이 주변국 가운데 가장 친밀하게 인식하는 대상은 미국이었다. “귀하는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에 2019년 응답자의 71.9%가 미국을 선택하였다. <표 1-4-1>에 나타나듯 미국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10년 간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였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도 그 격차는 현저하게 컸다. 미국의 정권 교체 변수가 한국인의 대미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았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우리 국민은 미국에 대한 높은 수준의 호감도를 보이고 있었다. 전통적인 우방국, 동맹국 이라는 인식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최근 북미 대화국면 조성 또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의 성별, 지역별, 교육수준별 호감도 인식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8월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선언을 둘러싼 한미간 입장, 11월 방위비분담금 논란 등은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평가가 내려질 가능성은 존재한다.

미국 다음으로 한국인들이 가깝게 느끼는 대상은 북한이었다. 2018년

대북친밀감이 7.8%p나 상승(11.3%→19.1%)했던 것에 비해 올해 응답률은 19.3%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9년 4월 11일과 6월 30일 한미정상회담을 비롯하여 문재인 정부 들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협조 등은 한국인들의 대미호감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¹⁷⁾ 2018년의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등의 효과로 크게 상승했던 대북친밀감이 2019년에 다소 주춤한 것은 남북관계의 변화나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기대했던 것보다 크지 않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일친밀감은 5.3%로 2018년 4.5%에 비해 0.8%p 상승했다. 일본 정부의 한국의 반도체 3개 핵심소재 수출 규제 발표(2019.7.1.) 등의 부정적 기류가 응답률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올해 경색된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대일친밀감에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다소 의외일 수 있다. 다만 본격적인 한일 간 대립이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이른 시점이라는 것과 대북친밀감 상승의 반작용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해석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9년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의 친밀감은 3.3%로 2018년의 3.7%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대중친밀도는 2014년을 기점으로 대체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올해 응답률은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저치였다. 2016년 이후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2016년 7월 한국의 사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배치 결정과 이로 인한 중국의 경제 보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의 대중친밀감 하락은 미

17) 2019년 9월 23일에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은 본 조사시점(2019년 7월 1일~26일) 이후에 있었음

중간의 무역 전쟁 등의 간접적 효과의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북한에 대한 친밀감 상승에 대한 반작용 있을 것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표 1-4-1〉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53.3	60.7	68.3	70.7	68.8	65.9	76.2	74.9	78.3	73.8	74.1	72.5	71.9
일본	11.6	9.4	8.6	9.5	9.1	6.8	5.1	4.3	3.9	5.2	8.3	4.5	5.3
북한	24.0	20.4	16.0	14.8	16.0	20.6	11.0	8.9	8.1	10.8	11.3	19.1	19.3
중국	10.2	7.8	6.1	4.2	5.3	5.8	7.3	10.3	8.8	9.7	5.0	3.7	3.3
러시아	0.9	1.7	1.0	0.8	0.8	0.9	0.5	1.0	0.9	0.4	1.1	0.1	0.1
합계 (N)	1,188	1,202	1,196	1,196	1,197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미국, 북한, 중국에 대한 친밀도를 연령대와 정치성향별로 살펴보면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연령대 별 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에 대한 20대 인식의 변화가 주목된다. 〈표 1-4-2〉에서 나타나듯이 2019년 20대의 대미친밀감은 59.4%로 작년 74.8%에서 15.4%p 하락하였고 이는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이자 최근 10년간 최저치이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20대의 대미친밀감이 유독 낮은 부분은 트럼프 행정부 집권 이후의 반이민정서, 고립주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등 일방주의 외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일부 작용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2007년에서 2019년으로 갈수록 대미친밀도의 세대별 편차가 점차 줄어들고 세대 간 격차가 대체로 수렴되고 있는 점도 발견된다.

20대의 대북인식의 변화도 관찰된다. 올해 20대의 대북친밀감은 25.3%로 2018년 11.8%에 비해 13.5%p 상승하였다. 2015년 이후 연령별 대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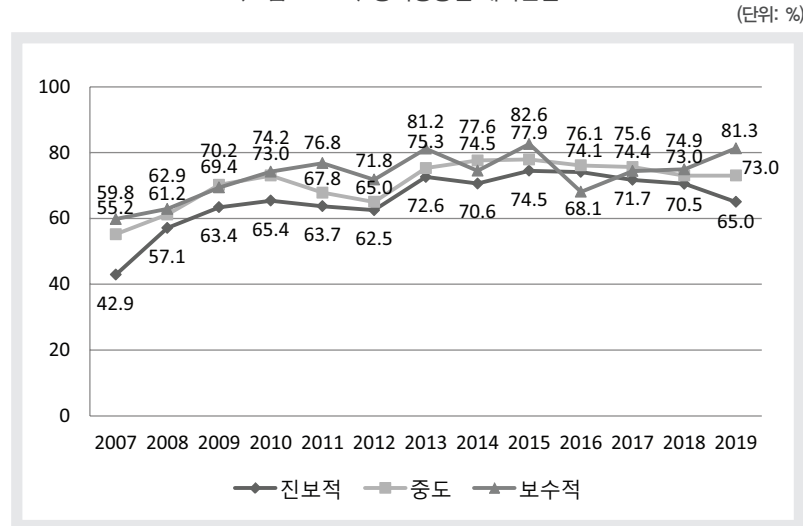
식에서 20대는 가장 낮은 친밀감을 보였고 대북인식이 상당히 호전되었던 2018년에도 20대의 대북친밀감 상승폭은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20대의 대북친밀감은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리더 김정은의 최근 행보나 특히 대미, 대남협력의사에 대한 박하지 않은 평가가 반영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4-2〉 연령대별 주변국 친밀감 (단위: %)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19-29	46.7	57.7	60.5	62.9	62.6	64.6	80.8	77.0	82.5	76.9	71.3	74.8	59.4
30-39	47.4	53.7	67.9	64.7	68.1	61.0	74.5	72.6	76.6	72.2	71.7	71.9	74.4
40-49	52.3	57.8	66.2	73.6	66.4	61.6	69.8	73.8	75.6	74.6	74.6	67.4	73.8
50-59	64.2	72.3	78.1	83.9	73.0	72.8	78.5	74.6	75.5	70.2	76.1	72.5	72.6
60 이상	76.5	78.8	82.6	80.2	85.4	78.9	82.0	80.2	82.5	75.8	76.4	76.3	78.3
북한													
19-29	21.7	14.0	18.6	17.2	15.2	22.4	8.8	8.1	3.5	7.3	9.7	11.8	25.3
30-39	25.0	26.7	17.3	17.9	15.6	22.3	10.2	8.5	7.1	8.9	11.8	20.2	14.3
40-49	30.1	26.5	17.4	12.9	20.2	23.8	16.1	11.1	9.1	11.3	11.3	24.7	18.4
50-59	20.7	13.6	10.4	9.8	14.8	15.3	9.6	9.1	12.3	14.8	9.7	20.0	22.0
60 이상	14.1	10.0	9.3	12.8	9.0	14.7	7.0	5.9	7.8	11.1	14.4	18.1	16.5

정치성향별 미국과 북한 친밀도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4-1>에 나타나는 것처럼 대미친밀도를 한국인들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비추어 살펴보면 대체로 보수적 성향이라 생각하는 응답자들의 대미친밀도는 중도와 진보적 성향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진보와 보수의 격차가 2007년 16.9%p, 2011년 13.1%p, 2015년 8.1%p, 2018년 4.4%p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었으나 2019년의 경우 16.3%로 다시 확대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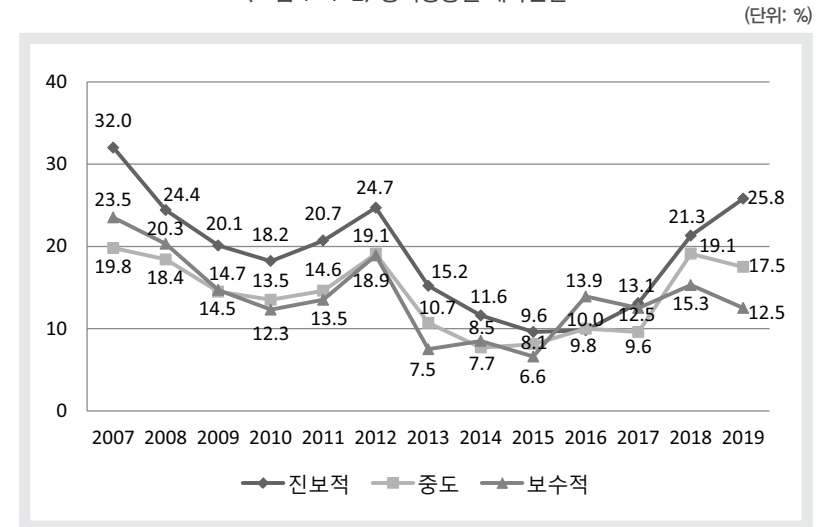
<그림 1-4-1> 정치성향별 대미친밀도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의 대북친밀도는 <그림 1-4-2>에 나타나고 있듯이 2016년을 제외하고 다른 성향의 응답자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3차 핵실험(2013년 2월), 개성공단 잠정 폐쇄(2013년 4월), 장성택 처형(2013년 12월)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및 공포정치가

진행된 2013년 이후 대북 친밀도가 하락한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¹⁸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었던 2017년은 진보적 성향을 제외하고 모두 대북친밀도가 하락한 반면 2018년의 경우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대북친밀도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19년의 경우 진보의 경우 대북친밀감 상승 패턴을 이어갔지만 중도와 보수의 경우 하락 추세로 돌아선 것이 주목된다.

<그림 1-4-2> 정치성향별 대북친밀도



18] 박명규 외, 『2013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3), p.139.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이 정서적 호감도나 가까움에 관한 부분이라면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은 개인과 집단의 안전과 생존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앞서 살펴본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의 변화가 상대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즉 특정 국가를 가깝게 여기는 태도나 판단을 개인이 갖고 있더라도 실제 그 국가를 위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조사에서는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통해 주변국의 실질적 위협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앞선 항목과 같이 단순 응답을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다른 국가의 위협인식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인은 주변국 가운데 중국을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국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응답은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북한이 30.8%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일본 28.3%, 미국 5.5%, 러시아 1.1%가 뒤를 이었다. 통일외교조사에 의하면 상당기간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하는 상대는 북한이었다. 그렇지만 최근 2년간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로 중국을 뽑은 것이다. 2019년 중국에 대한 최대위협국 응답률은 2018년 46.4%에서 12.1%p가 줄어들었고 북한은 2018년 32.8%에서 2.0%p가 줄어들었다. 2018년 1순위인 중국과 2순위인 북한의 격차가 13.6%이었다면 2019년의 경우는 3.5%로 현저히 좁혀졌다.

지난 10년의 추세를 관찰할 때 북한에 대한 남한주민의 위협인식은 남북관계의 전환, 교착, 악화 변화에 상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남북 교류와 협력을 통한 화해 무드가 가장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대북 위협인식은 36.1%였으나 2차 핵실험을 했던 2009년에는 52.9%, 천안함 침몰,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2010년에는 55.6%, 그리고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에는 56.9%로 각각 증가했다. 2015년 8월 북한 DMZ 지뢰도발, 2016년 1월 4차 핵실험, 2016년 2월 북한 장거리미사일(광명성) 발사 등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은 안보 불안을 고조시킴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시키는 직접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2017년 들어 북한이 9월 6차 핵실험 및 11월 화성-15형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이어진 남북한 간의 대화국면은 남북관계를 급진적으로 전환시켰다. 2018년 4월 27일(판문점), 5월 26일(통일각), 9월 18일(평양)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루어지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급속도로 완화되었고 이러한 국면 전환은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완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4.27 판문점 선언’ 및 ‘9.19 평양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개선, 전쟁위협 감소,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담은 결과물이었다.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이 대북위협인식에 미친 영향이 2019년에도 지속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완화의 폭은 제한적이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인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국민들의 평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2월 27-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으며 북한은 3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 5월 단

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는 등 대화와 도발을 병행하는 태도를 보였다.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남한주민이 가장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상대는 중국이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이어진 중국의 반발과 경제 보복 조치는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며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확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미중패권 경쟁이 진행되면서 중국이 보여준 일련의 행보들은 한국 국민들의 대중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¹⁹⁾ 2018년부터 2019년 동안 한중간의 경우 사드 배치와 관련된 경제 보복 조치의 완화 움직임과 함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의식을 공유하는 노력이 생겨났었다면 북중 간에는 비핵화 협상을 둘러싸고 협력을 강화하는 조치들이 있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은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총 5차례 정상회담(1차 2018.3.25-28, 베이징, 2차 2018.5.7-8 다렌, 3차 2018.6.19.-20 베이징, 4차 2019.1.7.-10 베이징, 5차 2019.6.20-21 평양)²⁰⁾을 통해 양국관계를 강화하고 한반도 문제에 긴밀히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올해 대중위협인식이 현저히 하락한 점은 2019년 한국과 중국 간 직접적인 갈등 요인은 없었던 점과 2019년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력 모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중관계의 개선 및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방향에 따라 대중위협인식은 향후에도 달라질 수 있기

19) 대표적으로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밝힌 3불입장(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에 대해 중국이 약속 이행을 요구하였고, 2019년 6월 4-5일 중국이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들에게 미국의 대중압박에 협조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다. 또한 2019년 6월 27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부의 압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언급하였다.

20) 앞선 네 차례의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하는 형태로 진행된 반면 마지막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방북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2019년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 응답률은 28.3%로 최근 10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의 경우 대일위협인식 응답률이 7.1%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2년 만에 약 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 증가는 최근 한일 간 대립 상황과 국내의 반일(反日) 정서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싼 한일 간 대립이 한층 더 격화된 것은 이번 조사 시기 이후인 2019년 8월 부터였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²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일위협인식이 상승한 것은 한일 정부 차원의 갈등과 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8년 12월 방위대강에서 안보협력 대상국을 명기하면서 한국을 미국,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 다음에 놓았으며, 미국의 동맹국으로 기본 가치와 안보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도 삭제 한바 있다.²²⁾ 2018년 12월 20일, 2019년 1월 23일에는 일본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한국의 해군 구축함에 근접하여 위협비행을 하였고 한국 국방부는 이를 도발행위로 간주했다.²³⁾ 심층인식으로 볼 때는 양국 간 역사인식 차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이견, 아베 내각의 우익 성향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된 부분이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처럼 한국인의 미국에 대한 위협인식은 매우

21)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진 한일 간 충돌 일지는 대략 아래와 같다. 2019년 7월 1일 일본 한국 반도체 3개 품목 수출 규제, 8월 7일 일본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서 한국 제외' 시행령 공포, 8월 12일 한국 백색국가 명단에서 일본 제외, 8월 22일 청와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8월 25-26일 한국 독도방어훈련 실시, 11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

22) 『중앙일보』, 2019.1.16.

23) 『조선일보』, 2019.1.23.

낮다. 다시 말해 남한주민은 대다수는 미국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립주의 노선, 미중 무역전쟁, 미러 중거리핵전력조약(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INF Treaty) 탈퇴 선언 등 힘에 기반 한 외교를 지향하고 있으나 남한주민들은 그 자체를 위협요인으로 간주하지 않았다.

〈표 1-4-3〉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국	21.2	16.0	12.5	8.3	8.6	9.5	4.4	5.4	4.7	4.7	4.9	5.2	5.5
일본	25.8	34.5	17.7	10.4	11.6	12.3	16.0	24.6	16.1	10.0	7.1	13.8	28.3
북한	36.1	33.7	52.9	55.6	46.0	47.3	56.9	49.8	54.8	66.7	63.7	32.8	30.8
중국	15.6	14.6	15.8	24.6	33.6	30.5	21.3	17.6	23.3	16.8	22.7	46.4	34.3
러시아	1.3	1.2	1.1	1.2	0.3	0.4	1.3	2.6	1.3	1.7	1.6	1.8	1.1
합계(N)	1,196	1210	1,199	1,197	1,201	1,200	1,200	1,199	1,200	1,200	1,200	1,200	1,200

위협인식을 연령대로 보았을 때 주목되는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대북, 대중위협인식은 하락한 반면 대일위협인식이 증가한 점이다. 대북위협인식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2016년을 기점으로 하락한다. 연령대 별 최고는 30대의 33.4%, 최저는 50대의 27.5%로 인식의 간극이 크지 않았다. 대중위협인식은 모든 연령대에서 2016-2018년까지 증가하지만 2019년에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점은 최근 우리 국민들의 북한과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 수준이 세대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의 경우 2019년 모든 연령대에서 대일위협인식은 증가하였으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위협인식도 높게 형성되었다.

〈표 1-4-4〉 연령대별 대북, 대중 위협인식

(단위: %)

연령대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북한													
19-29	32.9	32.8	51.7	50.7	52.3	44.7	59.2	54.4	57.5	68.8	66.3	32.0	31.8
30-39	34.6	31.8	50.0	51.9	43.0	40.8	58.5	48.1	52.5	65.9	57.4	34.3	33.4
40-49	32.8	34.0	51.8	57.6	35.5	45.6	49.8	43.4	57.5	63.9	63.6	33.5	30.2
50-59	43.5	37.1	58.5	61.7	52.0	51.7	59.6	51.1	53.0	64.3	64.0	30.1	27.5
60 이상	48.2	33.8	58.6	66.3	56.2	67.4	61.0	58.8	52.9	72.0	67.5	34.4	31.9
중국													
19-29	12.0	13.4	9.6	23.2	24.0	28.2	21.6	18.1	24.6	16.6	21.0	45.3	35.2
30-39	13.1	14.6	17.9	25.6	36.4	32.6	20.4	20.7	24.8	16.1	25.2	46.0	34.5
40-49	18.4	14.4	15.4	28.0	39.4	33.9	26.9	18.4	21.5	18.7	25.5	43.5	36.9
50-59	20.2	15.0	21.2	20.7	33.6	30.3	15.6	16.3	25.7	18.7	22.0	47.9	36.3
60 이상	16.5	18.8	19.5	22.1	31.5	20.2	22.0	7.8	19.9	13.2	19.3	49.2	28.6

정치성향별 미국, 북한, 중국 위협인식에서 발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미국에 대해서는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보다 위협인식이 낮았던 반면 북한에 대해서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들이 진보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위협인식이 높았다. 장

기적 추세를 보면 오바마 2기 행정부 당시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별 대미 위협인식 격차가 크지 않았던 반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들어 진보와 보수의 위협도의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는 점도 확인이 된다.

〈표 1-4-5〉 정치성향별 대미위협도

(단위: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오바마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진보	6.1	6.9	3.9	3.9	5.6	6.2	8.4
중도	4.0	5.1	5.9	5.5	5.0	5.3	4.7
보수	3.6	4.4	3.1	3.9	3.2	2.9	2.7

특히 북한의 경우 2018년 대북위협인식은 정치적 성향에 상관없이 하락한 반면 2019년의 경우 진보는 2018년 40.2%에서 2019년 41.9%로 다른 정치적 성향과는 반대로 위협도가 상승하였다. 중도 성향 응답자는 31.8% → 30.2%, 진보 성향은 30.3% → 25.7%로 각각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동된 한반도 비핵평화 프로세스로 남북미 간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이 이루어졌고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및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 하락에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올해의 경우 남북대화 국면에서도 한국의 보수는 북한을 가장 위협적으로 판단한 것이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핵 신고 및 검증 로드맵, 체제안정보장, 한반도 종전선언 등 앞으로의 남은 과제들의 진척 여부에 따라 대북위협인식은 언제든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1-4-6〉 정치성향별 대북위협도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진보	53.5	64.7	61.2	30.3	25.7
중도	52.6	68.6	63.0	31.8	30.2
보수	59.9	64.7	70.0	40.2	41.9

중국의 경우 2019년 진보와 보수의 위협도 응답률이 30.2%, 30.9%로 거의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념별 인식 차는 크지 않았다. 한국인의 대중위협인식은 정치성향별로 확산과 수렴을 반복하는 특징을 보였다.²⁴ 2016년까지 한국인들의 보수와 진보의 대중위협인식이 어느 한쪽으로 결정되거나 고착화되기도 유보적이며 유동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정치성향별 대중위협인식에는 과거의 경향과는 달리 추세의 일관성을 보여 주기도 하였다. 2016-2018년 동안 진보 성향의 응답자의 대중위협인식은 15.8%에서 46%로, 중도 성향은 16.5%에서 48.2%로, 보수 성향은 18.7%에서 42.1%로 각각 증가하였다. 2019년의 경우 모든 정치적 성향에서의 대중위협도는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높은 위협도를 기록하였다. 2010년 이후 대중위협도는 대북위협도와 상반되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어왔지만²⁵ 올해는 그러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위협인식의 현저한 상승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4) 정근식 외, 『2016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7), p. 139.

25) 박명규 외, 『2012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2), p. 128.

〈표 1-4-7〉 정치성향별 대중위협도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진보	25.3	15.8	24.0	46.0	30.2
중도	24.3	16.5	24.0	48.2	38.2
보수	19.4	18.7	17.3	42.1	30.9

3. 주변국의 국가이미지

주변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친밀감 및 위협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개별국가를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부터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응답자는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그리고 ‘적대대상’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 조사에서 국가이미지란 “한 국가에 대한 구조화된(organized, structured) 인지의 모임”으로 인지심리학의 스키마(schema) 개념을 국제정치학에서 접목하여 발전시킨 개념이다.²⁶ 국가 단위의 관계에서 구조화된 인식으로 형성되는 ‘이미지’는 자국의 정책을 정당화 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또한 집단화된 인식과 태도가 반영된 이미지는 상대국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다.

26 박명규, 이상신 “현상과 이미지,” 『통일과 평화』, 제3집 1호 (2011), pp. 129-173.

1) 미국의 국가이미지

한국인의 대다수는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였다. 〈그림 1-4-3〉에서 보듯이 2018년 미국이 협력대상이라고 한 응답은 82.5%로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올해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인식이 높게 나타난 것은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과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2019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인 진전과 타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큰 원칙에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키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²⁷ 비록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합의에는 실패하였지만 그 이후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북한 역시 6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 친서를 전달하고, 6월 30일 남북미 회동에도 응하는 등 대화의 끈은 놓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북미간의 중재 혹은 길잡이 역할을 통해 북한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 재개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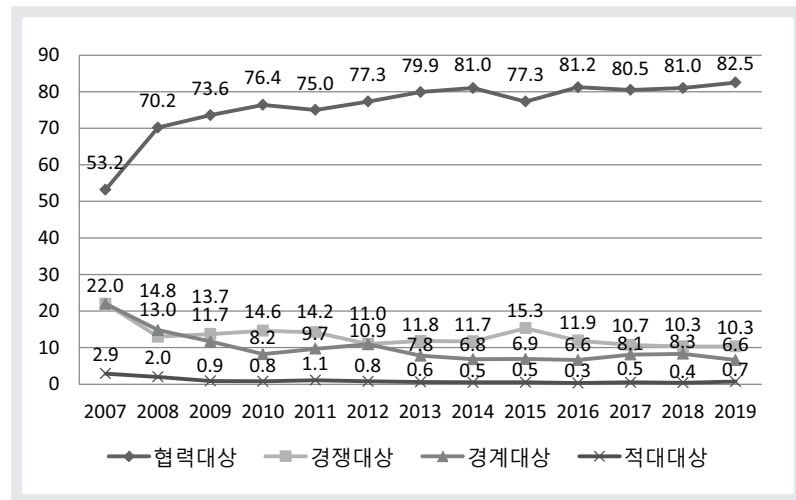
2019년 미국에 대한 협력대상 이미지가 2018년에 비해서도 더욱 긍정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부분은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미국의 도움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국민들 가운데 미국이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동맹, 협력

27 통일부, “남북관계 주요일지 2019년 2월”, p. 1.

자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에 필수적인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향후 남한주민의 협력 대상 인식에는 변수가 존재 할 수 있다. 최근 11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의 분담금 증액 압박은 대미인식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관여 의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및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등은 한국인의 대미인식에 영향을 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그림 1-4-3〉 미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



주변국가 이미지와 관련하여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변국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의식도 조사하였다. 이는 국가이미지에 대한 보편적 태도와 인식보다는 군사안보에 초점을 맞춰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 인지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대미인식을 미국의 한반도 전쟁대응과 연결지

어 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인지 혹은 남한과 북한 어느 한 쪽을 지원할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태도는 〈표 1-4-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응답자의 71.7%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 시 미국은 한국을 도울 것이라 판단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23.2%이고, 북한을 돕거나 혹은 중립을 지킬 것이라는 의견은 각각 3.2%, 1.8%였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한미동맹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전쟁 시 미국이 한반도에 개입하지 않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즉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미국이 한국을 직접적으로 돕거나 다른 주변국의 이익에 의해 한반도 상황이 결정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²⁸

〈표 1-4-8〉 한반도 전쟁 시 미국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을 도움	50.6	57.4	65.1	74.7	72.4	72.8	75.2	74.0	70.5	74.1	67.8	66.1	71.7
북한을 도움	1.3	1.4	0.7	0.7	1.6	1.8	1.6	1.8	4.9	2.4	3.4	2.4	3.2
자국의 이익 따름	45.5	37.4	32.3	23.0	24.1	23.8	20.9	22.6	22.6	22.1	26.2	29.7	23.2
중립을 지킴	2.6	3.8	2.0	1.7	1.9	1.6	2.3	1.6	2.0	1.4	2.7	1.7	1.8
합계 (N)	1,200	1,213	1,203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28] 박명규 외, 『2014 통일외식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4), p. 186.

2) 일본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일본을 협력대상이라기보다 경계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9년 일본에 대한 경계대상 이미지는 37.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경쟁대상이 36.4%였으며, 적대대상 이미지는 15.9%, 협력대상은 9.9%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경쟁대상 이미지가 우세하게 나타났다으나 2019년에는 경계대상 이미지가 가장 높게 기록된 것이다. 또한 주목되는 부분은 비록 적대대상 응답률이 15.9%로 전년도 6.8%에서 9.1%p가 상승한 점이다. 이 응답률은 중국(9.0%)과 러시아(5.5%) 보다도 높다는 점에서 올해 응답자들의 부정적인 대일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사실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가치지향을 공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일관계의 악화는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 이미지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인의 대일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양국 간의 역사인식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일 간 갈등 요인이 역사문제를 넘어 외교, 안보, 경제 분야 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²⁹⁾ 2018년 5월 9일 한·중·일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파트너십 선언³⁰⁾ 20주년을 기념하고 이를 계기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함께 열어갈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은 관계

29) 최은미, "문재인 정부 2년과 한일관계," 『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9-16), p. 1.

30) 이는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이른다.

개선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일본의 반도체 무역 규제를 비롯하여 강제징용문제,³¹⁾ 위안부문제,³²⁾ 일본 초계기 제공 비행 등에서 양국은 충돌하였고 이러한 문제는 한일 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³³⁾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³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연기,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서의 욱일기 사용 주장 논란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의 대일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일본에게 한국은 더 이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 아니며³⁵⁾ 한국에게 일본은 '과거사 문제를 경제문제와 연계' 시킴으로 양국 관계 발전에 역행하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⁶⁾ 그렇지만 한일양국은 현재의 국면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한반도 비핵화 이슈에 대해 상호 협력과 공조가

31) 한국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일본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하였다. 이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한일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보며 원고들이 피고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겨레』 2018.10.30.

32)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2015.12.28.)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2018년 1월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음을 밝힌다. 한국 정부는 2018년 11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 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한다.

33) 2019년 EAI가 여론(言論)NPO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로 2013년 31.1%에서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 또한 같은 기간 37.3%에서 49.9%로 증가하고 있다. EAI, "2019년 제7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2019.06.12.), p. 4.

34) 세계무역기구(WTO)는 2019년 4월 12일 한국 정부의 일본산(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타당하다는 상소기구 판정을 최종 확정하였다. 『연합뉴스』 2019.04.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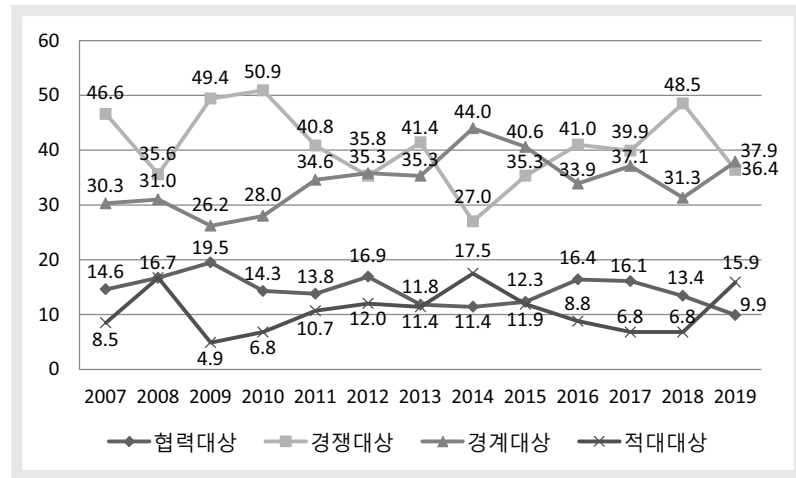
35) 『연합뉴스』 2018.01.22.

36)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804> (2019.07.15.).

필요한 상황이다.³⁷⁾ 양국 간 역사문제, 군사안보문제에서의 앞으로의 변화들이 국민들의 대일감정과 이미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1-4-4〉 일본의 국가이미지

(단위: %)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일본은 자국의 이익에 기반 한 결정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1-4-9〉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은 2019년 7.4%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를 기록했던 2018년과 거의 동일하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응답은 2019년 76.9%로 2018년의 80.9%보다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주변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응답률이다. ‘한국을 도울 것

37)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2018년 9월 25일 한일정상회담을 진행 있으며 그 후 2019년 11월 4일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사전 환담을 나누었으나 정상회담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다’는 응답이 2014년 이후 10%이하로 유지된다는 점에서 유사시 일본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한국인들의 기대감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1-4-9〉 한반도 전쟁 시 일본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을 도움	16.2	14.7	24.6	17.1	15.3	11.6	11.3	7.8	7.7	8.5	9.6	7.2	7.4
북한을 도움	3.3	4.3	3.7	2.3	3.2	5.0	2.9	7.5	9.2	6.1	4.9	4.9	8.0
자국의 이익 따름	72.7	69.4	66.0	71.6	74.3	75.4	75.1	74.9	71.6	74.5	74.5	80.9	76.9
중립을 지킴	7.9	11.6	5.7	9.1	7.2	8.0	10.7	9.8	11.5	10.9	11.0	6.9	7.6
합계(N)	1,200	1,211	1,201	1,200	1,201	1,199	1,200	1,199	1,201	1,200	1,200	1,200	1,200

3) 중국의 국가이미지

국민들은 중국을 경계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그림 1-4-5〉의 결과로 볼 때, 2019년 응답자 가운데 경계대상 이미지가 4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경쟁대상 이미지가 30.0%로 나타났다. 협력대상 이미지는 13.4%, 적대대상은 9.0%를 기록했다. 과거의 추세를 놓고 볼 때 중국에 대한 국민들의 경쟁대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긴 하였으나 특정 이미지가 우위를 나타냈다가보다 협력, 경쟁, 경계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였다. 그렇지만 2018년과 2019년은 과거와 달리 특정이미지, 즉 경계대상 이미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2016년 이후 한국 국민들의 중국에 대한 경계인식은 보다 분명해졌다. 협력대상 의식은 2017년 26.6%→2018년 13.3%→2019년 13.4%로 2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경계대상 의식은 같은 기간 38.4%→50.3%→47.7%로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둘러싼 한중갈등과 이어진 경제보복은 우리 국민의 대중인식을 부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³⁸

최근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과 한국인의 대중인식 변화에는 상호 연결되는 지점들이 존재한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2010년 이후 공세적으로 전환되었고 2013년 시진핑 체제 이후 과거 중국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면서 현상타파적인 노선은 보다 분명해졌다.³⁹ 동아시아 영토분쟁 및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중국의 공세적 대외정책은 2010년도 중반 이후 국민들의 대중의식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통일외교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15년을 기준으로 중국에 대한 경계대상 인식이 상승하기 시작하고 협력대상(2014년부터 하락) 및 경쟁대상 인식이 하락한다.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지속된 무역전쟁은 2019년 동북아 국제정세의 불안정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건국 70주년을 맞는 2019년 대내적으로는 시진핑 지배체제를 공고화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패권경쟁을 가속화하며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요추는 미국의 동아시아 내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척을 위해 '건설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중국과 한국은 한반도 통일, 한미동맹,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목표와 방법 등에서 분명한 인식차이를 가지고 있다.⁴⁰ 특히 시진핑 지도부는 한미동맹이 중국을 견제하게 되는 상황으로 작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⁴¹ 중국은 한국이 일대일로 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원하고 있으며 사드배치 문제에 있어서도 한국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2019년 6월 27일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이 두 나라 사이의 유관 문제를 계속 중시하고 원만히 잘 처리하길 희망한다"고 밝힘으로 사드문제 해결을 압박해왔다.⁴² 사드 배치 이후 지속된 중국의 경제 보복과 한한령(限韓令)이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의 대중인식이 긍정적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8] 화동사범대학의 선즈화 교수는 사드배치로 한중관계는 정상에서 밑바닥까지 추락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沈志华, "中韩关系与朝鲜半岛国际关系变局," 第二届韩中平和協力论坛 (2019.9.22.)

39] 정재호, "중국의 '부상'과 세계질서, 그리고 한국,"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 (서울: 늘품플러스, 2018), pp. 457-4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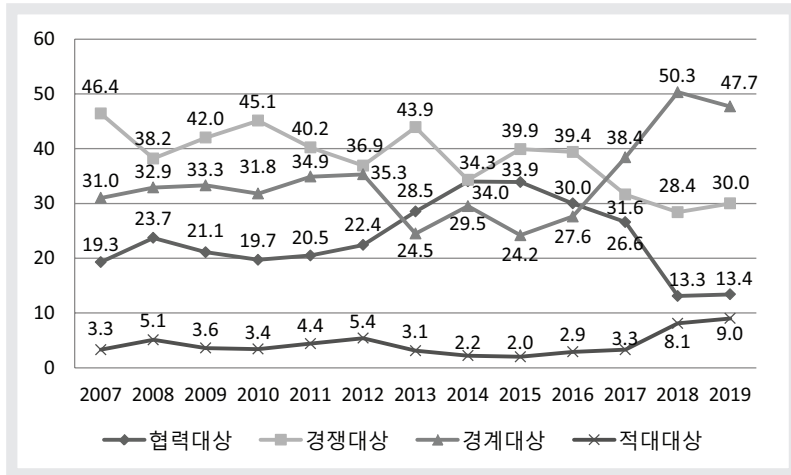
40] 이희욱, "한중관계의 주요쟁점, 사드를 중심으로," 중국학연구회 학술발표회, (2017.4), pp. 145-151.

41] 이상국, "중국의 2019년 전반기 전략 동향 평가 및 함의," 국방연구원, (2019.06.12.), pp. 7-8.

42] 『중앙일보』 2019.06.28.

〈그림 1-4-5〉 중국의 국가이미지

(단위: %)



한국인들은 중국이 유사시 북한을 돕거나 자국에 이익에 기반 한 결정을 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1-4-10〉에서 나타나듯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북한을 돕는다’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자국의 이익에 따른다’ 40.5%로 그 다음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 비해 ‘한국을 돕는다’는 1.9%로 그 비중이 매우 미미했다. 즉 중국은 유사시 한반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라는 응답이 2011년 이후 3년간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3년간 50%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한국인들은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보호자로 무력충돌, 긴급사태와 같은 유사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표 1-4-10〉 한반도 전쟁 시 중국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을 도움	5.3	4.5	3.1	3.3	2.4	1.3	3.3	5.2	5.8	5.3	1.2	1.2	1.9
북한을 도움	26.8	30.4	38.5	55.5	62.8	58.3	49.7	42.9	46.3	46.0	53.0	51.7	50.0
자국의 이익 따름	56.4	52.2	50.8	37.4	31.0	37.5	41.4	46.0	43.4	42.9	39.7	41.4	40.5
중립을 지킴	11.4	13.0	7.7	3.8	3.8	2.8	5.6	5.9	4.5	5.9	6.1	5.6	7.5
합계 (N)	1,200	1,212	1,200	1,200	1,201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4)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한국인들은 러시아에 대해 경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4-6〉에서와 같이 2019년 경계대상 이미지는 47.8%로 2018년의 47%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가장 우세한 이미지로 형성되어 있었다. 경쟁대상 이미지의 경우 2015년 39.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9년에는 31.8%로 나타났고 같은 기간 협력대상 이미지는 21.3%에서 14.9%로 하락하였다. 최근 3년의 추세를 보면 경계대상 이미지가 점차적으로 분명해지고 있다.

2010년대 들어와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 변화의 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의 국가 이미지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만한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과도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협력대상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것은 한반도의 평화에 있어 러시아의 역할

과 영향력에 대한 기대가 점차적으로 떨어진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한국인의 관심이 다른 주변국가에 비해서 높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⁴³ 하지만 시베리아횡단철도(Trans Siberia Railway, TSR)와 한반도중단철도(Trans Korea Railway, TKR)의 연결 및 남-북-러 가스관 연계 사업 등은 북한과의 협력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한국과 유라시아의 발전을 상호 연계할 수 있다.⁴⁴ 실제 3기 푸틴 정부는 신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극동개발은 자국 이익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어젠다 중의 하나이다. 북한의 호응과 변화에 따라 러-북-남 삼각협력은 활발해 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는 향후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2019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4월 25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9일에 정상회담을 실시하였다. 이는 러시아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 주변국으로서가 아닌 동아시아 이해 당사자로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가 당면한 북핵협상에서의 역할이나 이후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가 어떠한 과장과 결과를 가져올지 확실치는 않다. 2019년 8월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공식화 했던 것을 고려 할 때 군사적 측면의 경쟁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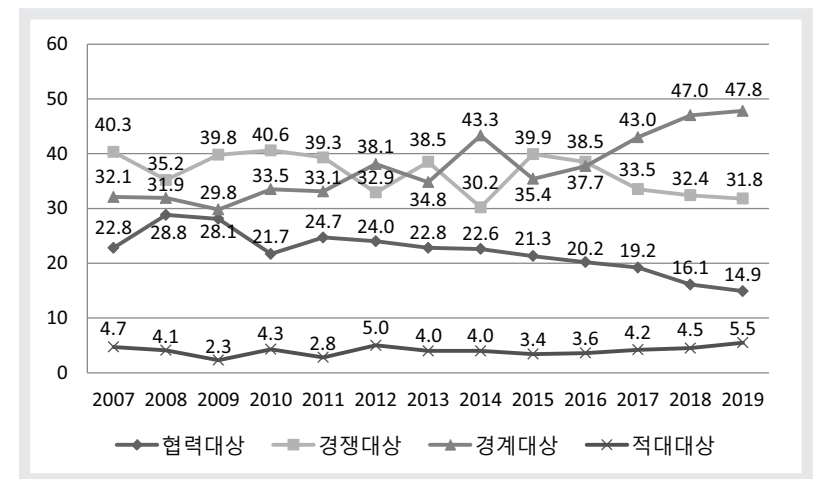
43] 2018년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에 의하면 러시아인들의 한국에 대한 지식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을 참고.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2018 한·러 양국 국민 상호인식조사,” pp. 6-18.

44] 신범식,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본 한국의 대륙외교,”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21세기 초 한국의 정치외교: 도전과 과제』 (서울: 늘봄플러스, 2018), pp. 485-533.

한반도 평화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⁴⁵ 러시아는 2019년 12월 중국과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한 바 있다. 북핵문제 있어 러시아는 소극적 방관자가 아니라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러시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지원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외교는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 유지가 동북아의 안정과 직결되어 있고 남북한과의 협력이 러시아의 경제이익 확보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향후 한-러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진전 및 남-북-러 협력의 성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은 작지 않을 것이다.

〈그림 1-4-6〉 러시아의 국가이미지

(단위: %)



45] 이수형,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와 동북아 정세,” EAI 논평 (2019.08.22.), p. 3.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에 러시아의 태도를 예상하는 질문에서도 국민들의 특별한 인식 변화는 발견되지는 않는다. <표 1-4-11>에서 보여주듯이 2019년 ‘북한을 도울 것이다’의 응답률이 24.1%로 2018년 25.9%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라는 응답률은 57.1%로 다른 응답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이는 주변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은 결과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일본에 비해 ‘중립을 지킬 것이다’라는 응답률은 가장 높다. 중국보다 ‘북한을 돕는다’는 응답률이 낮고 ‘자국의 이익을 따를 것’이란 응답이 높다는 점, 그리고 ‘중립을 지킬 것’ 응답이 주변국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은 러시아의 한반도 안보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별히 통일이 가져올 경제적 이득은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과 이해가 중첩되는 부분이 크다. 최근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통일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이 배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동북아시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여지가 있다.

<표 1-4-11> 한반도 전쟁 시 러시아의 태도 예상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국을 도움	3.7	6.0	4.3	5.8	4.2	3.7	3.8	3.3	3.3	3.8	2.4	1.9	2.1
북한을 도움	19.0	20.9	22.5	19.2	15.4	11.8	12.4	14.5	23.8	14.6	20.9	25.9	24.1
자국의 이익 따름	59.1	54.7	57.7	59.5	61.7	68.1	67.4	68.5	59.2	64.4	62.9	58.0	5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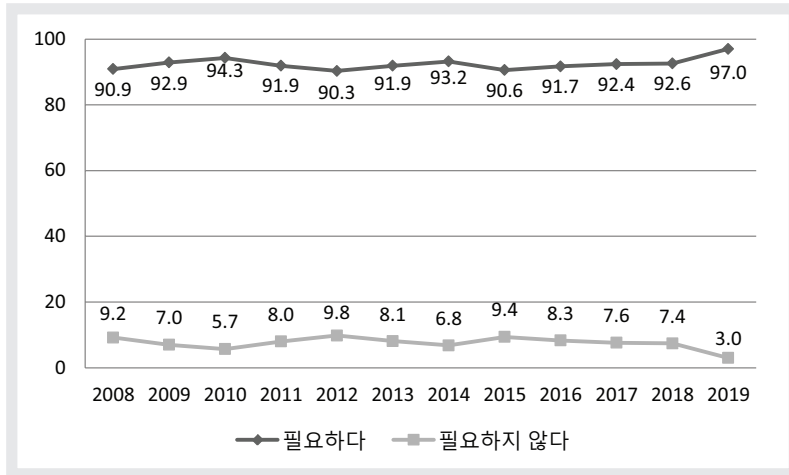
중립을 지킴	18.2	18.4	15.5	15.6	18.8	16.3	16.4	13.7	13.8	17.2	13.8	14.2	16.7
합계 (N)	1,199	1,211	1,200	1,200	1,200	1,199	1,200	1,201	1,200	1,200	1,200	1,200	1,200

4.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기대

통일이 남한과 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야 할 민족적인 과업임은 분명하지만 주변국가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국가이익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협조 체계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남북한이 하나의 국가로 통합된다는 것은 분단의 지속으로 인한 현상 유지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주변국에 각기 다른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이해를 파악하며 잠재적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통일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 먼저 주변국들이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통일인식조사에서는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1-1-7>에서 <그림 1-1-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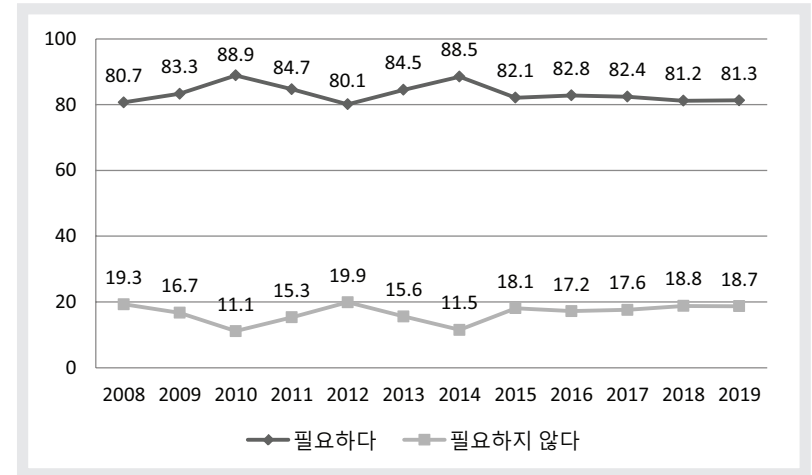
〈그림 1-4-7〉 미국 협조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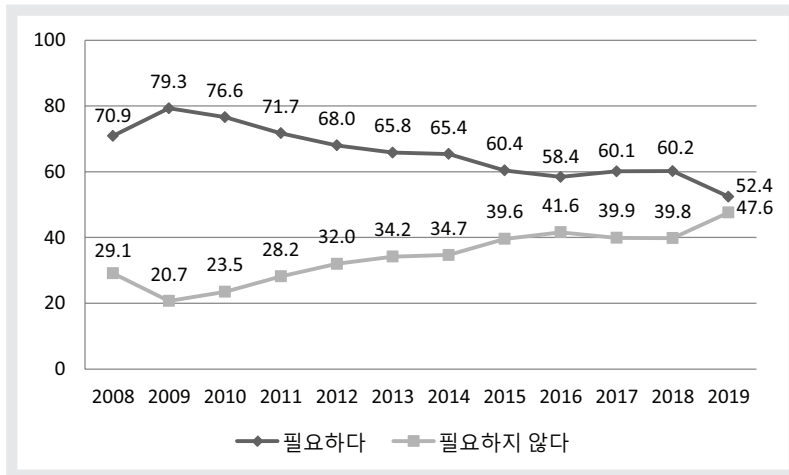
〈그림 1-4-9〉 중국 협조 필요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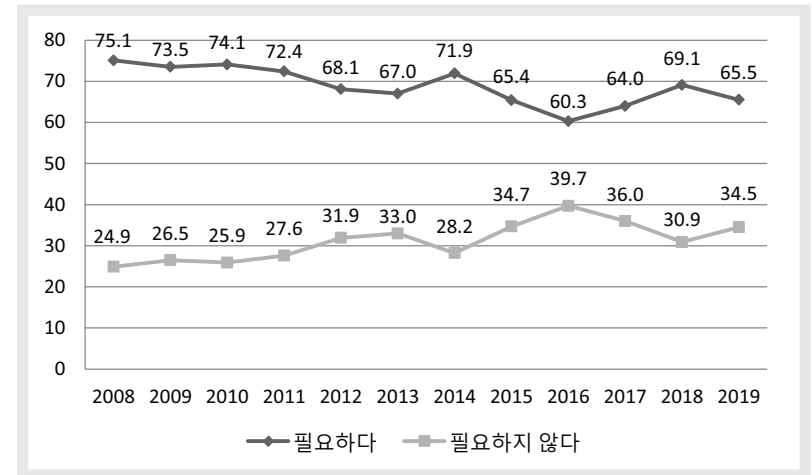
〈그림 1-4-8〉 일본 협조 필요성

(단위: %)



〈그림 1-4-10〉 러시아 협조 필요성

(단위: %)



국민들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주변 4개국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019년 미국의 경우 ‘매우 필요한 편이다’와 ‘필요한 편이다’를 합한 즉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7%로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중국, 일본, 러시아와 비교하였을 때도 가장 높다. 중국의 경우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19년 81.3%로 2008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남북한 통일에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일본의 경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를 상회하였으나 2019년에는 52.4%의 응답자들만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이며 주변국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19년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65.5%로 우리 국민들은 러시아의 도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통일을 위해 미국의 도움이 가장 절실하고 일본보다는 중국의 도움이 더 필수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표 1-4-12>에 의하면 2018년 주변국 중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은 순서는 미국 > 중국 > 러시아 > 일본 순서이며 2008-2018년 기간의 전체 평균 응답률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표 1-4-12>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

(단위: %)

	2019	2008-2019	2019	2008-2019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미국	97.0	92.5	3.0	7.5
일본	52.4	67.8	41.6	34.2
중국	81.3	83.4	18.7	16.7
러시아	65.5	68.9	34.5	31.2

본 조사는 통일을 위한 개별국가에 대한 협조 필요성 인식과 더불어 한국을 중심으로 양자 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상이한 인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표 1-4-13>에서 나타나듯이 2019년의 경우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한미 간 협력’이 36.3%로 가장 높았다. ‘모두 중요하다’가 34.1%로 뒤를 이었고 ‘남북 간 협력’이 27.6%로 세 번째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 ‘모두 중요하다’가 가장 높았지만 2019년에는 두 번째로 떨어지고 ‘한미 간 협력’이 첫 번째로 올라간 것이다. 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이 미국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한중 간 협력 필요성은 그리 높게 평가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남북 간 협력’, ‘한중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선택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한국 사회에 우세함을 보여준다.⁴⁶ 한미협력의 필요성이 지난 1년 동안 12.9%p (23.4% → 36.3%) 증가한 점은 북핵외교에서의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남북 간 협력’에 대한 응답률이 올해 하락한 부분은 비핵화 협상 및 대북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남북협력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중 간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비록 ‘한미 간 협력’이 우세하게 나타났으나 특정한 국가와의 협력 및 관계 강화가 압도적이지 않은 점은 선택과 균형에 대한 정향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양자 관계 협력의 선호도는 다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46] 이정남, 하도형, “동아시아 지역 미중 경쟁구도 강화에 따른 한국인의 대미·대중 인식 변화,” 이내영, 윤인진, 『한국인의 정체성: 변화와 연속, 2005-2015』(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16), p. 250.

〈표 1-4-13〉 남북한 협력과 한·미·중 공조

(단위: %)

	2015	2016	2017	2018	2019
남북 간 협력	32.8	34.9	36.0	35.3	27.6
한미 간 협력	24.6	26.1	31.4	23.4	36.3
한중 간 협력	6.6	7.0	5.6	3.8	2.0
모두 중요하다	36.0	32.0	27.0	37.4	34.1
합계(N)	1,200	1,200	1,200	1,200	1,200

그렇다면 당면한 최대 과제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과의 협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 통일의식조사는 2019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였다. 〈표 1-4-14〉이 보여주듯이 우리 국민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이 47.3%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한미,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는 응답은 46.2%로 두 번째였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균형과 조화의 문제라고 보는 시각이 2018년에는 높았으나 2019년에는 ‘한미 간 협력’에 우선순위를 두었음을 알 수 있다.⁴⁷⁾ 2019년 통일의식조사의 대북정책 사안 별 시급성을 묻는 질문에서 1순위는 ‘북한의 비핵화’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미공조를 중요시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북핵협상의 미국의 역할 및 한미동맹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의 한미공조에 대한 높은 선호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미

47) 정치적 성향, 소득 수준, 성별, 연령대에 관계없이 ‘모두 강화해야 한다’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다.

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상당수로 나타났다. 미중 간에 패권 경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미중 관계가 악화된다면 미국의 동맹인 한국의 입장은 난처해 질 수밖에 없다.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과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입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비핵화 문제에 있어 한국은 북미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면서 중국이 비핵화 과정 및 평화체제 구축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 1-4-14〉 북한의 비핵화와 한·미·중 공조

(단위: %)

	2018	2019
한미 간 협력	39.3	47.3
한중 간 협력	8.6	6.5
모두 강화해야 한다	52.2	46.2
합계(N)	1,200	1,200

그렇다면 우선 우리 국민들은 중국의 부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2019년 조사에서는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그 결과 ‘도움이 됨’은 29.8%, 보통은 34.5%, ‘도움이 안 됨’은 35.6%로 나타났다. 즉 남한주민의 약 3분의 1 이상은 중국의 국력강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가 한반도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계하거나 우려하는 입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응답은 60대(37.3%)와 50대(36.8%), 고학력(39.0%), 대도시 지역(41.6%), 진보 성향(39.7%)로 우세하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높았다. 2018년의 53.2%에 비해 소폭 하락 하였지만 약 절반의 응답자는 중립을 선택한 것이다. ‘미국과 협력 강화’는 43.4%(2018년 39.2%), 중국과 협력 강화는 6.6%(2018년 7.6%)로 나타났다.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매우 친근하게 생각하고 협력대상 이미지가 압도적이지만 미중 갈등 시에는 다수가 중립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이는 응답자들의 직관적인 선호를 묻은 것이기에 ‘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과 최근 미중 무역전쟁 등을 목도하면서 국민들은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더 선호하는 것은 분명하다. 국민들의 집합적인 태도와 견해를 정책 결정의 근거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반도 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 중국 두 행위자 간의 관계 악화 시에는 보다 신중하고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미중 갈등 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은 중국의 부상을 보는 인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중국의 부상 인식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을 교차 분석 했을 때, 중국의 부상을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사람 모두 미중 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표 1-4-15〉 중국 부상과 미중 갈등 시 한국 입장

(단위: %)

		미중 갈등 시			
		미국과 협력 강화	중국과 협력 강화	중립을 지켜야	합계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됨	39.1	13.4	47.4	100.0
	보통	42.4	5.3	52.3	100.0
	도움이 안 됨	48.1	2.3	49.5	100.0
	합계(N)	521	80	598	1,200

$\chi^2 = 49.789$ $p < 0.05$

5. 소결

2019년 한국인의 주변국 인식 조사를 통해 주목할 수 있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에 대한 친밀감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다. 2019년 주변국 가운데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가장 높았으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미국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고 통일을 위해 반드시 협조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고 있다. 대미친밀감 증가 및 대미인식 강화는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국과 미국의 안보 이익 추구 과정에서 조정과 협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침예한 사안에 대해 입장을 확인 받거나 미국의 안보이익에 연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

둘째, 북한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대북친밀감은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2018년 이후 크

게 감소하였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착수 및 남북 간, 북미 간 대화로 인한 협상 국면 전환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간주된다. 국민들의 대북 인식 변화는 향후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 및 남북한 간 기 합의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는 향후 정부 정책 추진에 있어 중요한 지지 기반이 될 것이다.

셋째,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대일위협인식은 최근 10년간 가장 높게 형성되어 있으며 2019년에 증가된 위협인식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한국 내 반일정서 등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통일 과정에서 일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가는 점은 국민들 가운데 양국 간 미래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현재와 같은 갈등 국면의 지속은 한일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며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한일 간 역사문제는 당장 극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한일 양국은 현재의 대립 국면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중국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국민들의 대중 친밀감은 2007년 조사 이래 가장 낮게 나타났고 중국을 경제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보다 중국이 한반도 평화에 더 위협적인 대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부상은 한반도의 평화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강화는 사드 배치 및 사드 갈등으로 인한 경제 보복 여파가 남아 있으며 최근 미중 전략경쟁에서의 갈등 구도, '일대일로(一帶一路)'를 통한 공세적 대외정책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향

후 중국에 대한 이미지는 한국을 포함한 인접국에 대한 중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질서 하에서의 중국의 포지셔닝(positioning)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미중 경쟁 심화는 남북한 간의 대립관계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동북아 질서 변화 및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한국인의 대중이미지 형성에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은 다자협력에서 미국을 중시하고 있지만 미중 사이에서 균형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국민들은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한미 간 협력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의 공세적인 부상과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완전히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 및 한미공조는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의 평화구축 과정에서 주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협조는 반드시 필요하다. 미중 갈등 시 한국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실제 외교의 현실은 보다 냉혹할 가능성이 크다. 미중 경쟁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명민하고 창의적인 한국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5장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 강채연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2019년 9월 기준 북한이탈주민의 입국 수는 총 33,248명(남 9,297명, 여 23,951명)으로 빠르게 4만 명 시대를 향해가고 있다.⁴⁸ ‘북한이탈주민’은 1997년에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채택되면서 새롭게 정의된 용어이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귀순동포’ 혹은 사회복지차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불렸지만, 법률제정과 함께 사회통합·통일대비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 ‘탈북민’ 등의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다.⁴⁹

그동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 혹은 한국사회 이해와 통합의 새로운 집단으로 등장하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의 새로운 문제의식들을 지속적으로 배출했다. 때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정’의 목소리가 북한 문제, 또는 남북문제를 둘러싼 남북갈등, 남남갈등의 중심에서 진영논리의 대상이 되기

도 한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들은 한민족이면서도 오랜 분단과정에서의 이질적인 문화와 정체성으로 분리된 소수집단이라는 일부 소외된 인식의 틀 내에서 공존한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때로는 다문화사회에서, ‘이방인’⁵⁰으로 관찰대상이 되고 통합관리대상이 되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가치관의 접목과정에서 다양한 인식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조사는 통일의식 조사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을 시작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다양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수용정책에 대한 인식, 지원정책과 취업 및 조직 내 경쟁의식, 민족성과 시민성에 대한 인식, 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사회경제적 관계의 유형별 인식, 등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조사는 2016년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동남아인, 미국/유럽인, 아랍인, 아프리카인 대비 조사로 변경되었다. 이것이 2017년부터 다시 조선족,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남아시아인 대비 친근감 조사로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수용정책에 대한 인식, 지원정책과 취업 및 조직 내 경쟁의식, 관계유형별 인식, 등은 2017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이다. 수용정책에 대한 인식은 한국입국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원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묻는다. 지원정책과 취업 및 조직 내 경쟁의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부의 지원증대에 찬성하는지, 취업경쟁과 조직 내 경쟁

48]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2019), p. 9.

49] 강채연,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1권 2호, 2018, pp. 21-22.

50] 선우현,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64권 64호, 2012, pp. 1225-1268.

사이의 동의정도를 파악하는 조사이다. 관계유형별 인식에서는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반자, 결혼상대자의 관계에서 느끼는 ‘꺼림’과 ‘꺼리지 않음’의 정도를 조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8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민족성과 시민성에 대한 인식,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이다. 민족성/시민성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는 정도와 ‘한국시민’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조사한다. 국민정체성에 있어서는 한국인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8가지 항목(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한국국적을 갖는 것,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는 것,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제기하고 그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다.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축적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인식, 남한사회 수용과 정부정책과의 상관관계 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지역별 분포에 따른 사회경제적 친화성과 관계네트워크, 등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북한문제 또는 남북관계에 따른 인식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1)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

세계화, 정보화로 인한 국민국가의 정체성이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면서 한국사회도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는 포스트모던시대의

대표적인 이민현상으로서, 한국에서는 2000년대로 진입하면서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노동자, 등 이민자 집단과 한국국민의 정체성 사이에 재구성되는 사회적 관계가 주요 연구대상으로 포함되었다.⁵¹⁾ 여기에 북한이탈주민들도 입국증가와 함께 소수집단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때로는 다문화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특히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와 언어의 차이, 출생지역과 가치관의 인식, 등에 있어 북한이탈주민들이 지니고 있는 정체성이 때로는 그들의 적응과 정착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남한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국민정체성의 중요한 조건들을 통해 성공적인 남한정착의 여러 배경들을 살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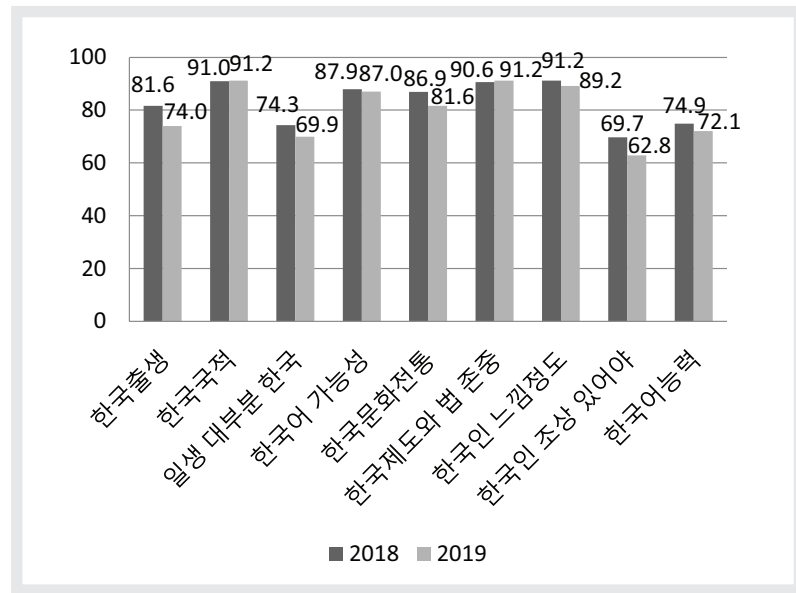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먼저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 중요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과 ‘한국국적을 갖는 것’이라는 인식이 91.2%로 가장 높다. 한국인임을 느끼는 정도도 2018년에 91.2%로 높았으나 2019년에 들어 2% 소폭 하락세를 보인다. 한국인 조상이 있어야 하고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인식은 다른 조건들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이는 다문화사회의 수용에 따른 포괄적인 인식개선의 결과로 보인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인식은 2018년에 비해 7.6%로 가장 크게 하락함으로써 조상과 출생지 위주의 전통적인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생의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51) 박은선, “국민정체성과 국민으로서의 외국인 이주자 수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김고은, “한국인의 사회정체성과 세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강진웅, “한국 사회 결혼이주여성의 정체성 비교: 통섭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의 동학,” 『다문화교육연구』 제9권 1호, 2016, pp. 1-24.

않다고 보는 인식은 20대 미만에서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졸이상이 32.4%로 비교적 긍정적이며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에서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인식은 강원권에서 66.1%로 다른 지역에 비해 약 20%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학생들과 군인들도 44.5%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역크기로 볼 때에는 대도시들에 비해 중소도시들에서 48.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그림 1-5-1〉 한국국민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단위: %)



한국어 능력에 대한 인식도 전해에 비해 2.8% 하락하면서 한국국민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서 한국국적이거나 한국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데 비해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과정에 대한 일련의 문제들에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 즉 그들 정착과 적응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되는 언어와 문화의 차이, 출생지에 따른 일련의 ‘소외감’ 등 보다는 한국국민으로서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문화적 전통의 공유, 한국국적 등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민족성과 시민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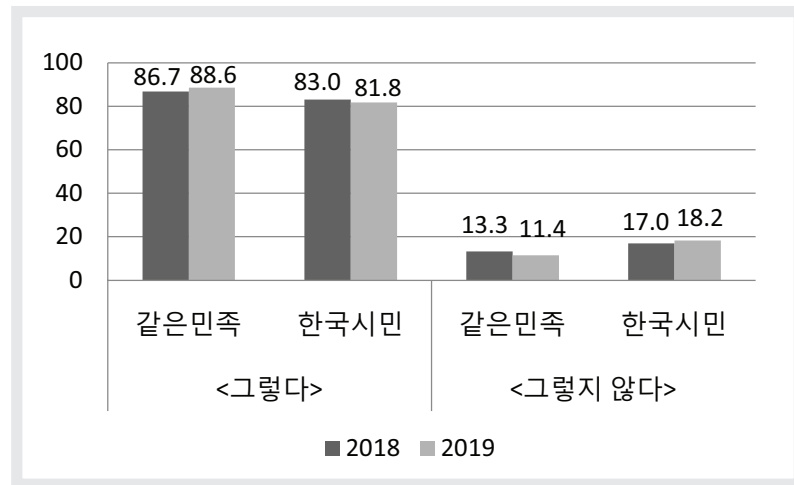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같은 민족(대한민국 시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2018년에 새롭게 추가된 문항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생각을 묻고자 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생각하는 데 상당히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대한민국 시민’보다는 ‘같은 민족’이라는 데 더 공감하는 편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1-5-2〉에서 보면, 2018년에 비해 ‘같은 민족’이라는 인식이 소폭 증가한데 비해 시민으로서의 인식은 소폭 하락세를 보인다.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감대가 높아진 것은 2018년 북한 비핵화 선언과 함께 판문점회담이 성사되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내세운 남북 평화교류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3차회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우리 국민들의 한 민족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이 다소 높아진 결과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직업별 조사에서는 ‘같은 민족’으로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농/수/축산업에서 가장 높은 25.9%를 보인다. 이는 성별,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인식조사 중 약 10% 이상 높은 비율이다.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중졸이하에서 27.4%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부정적인 인식은 전업주부 26.9%,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25.9% 순이다.

〈그림 1-5-2〉 북한이탈주민의 민족성·시민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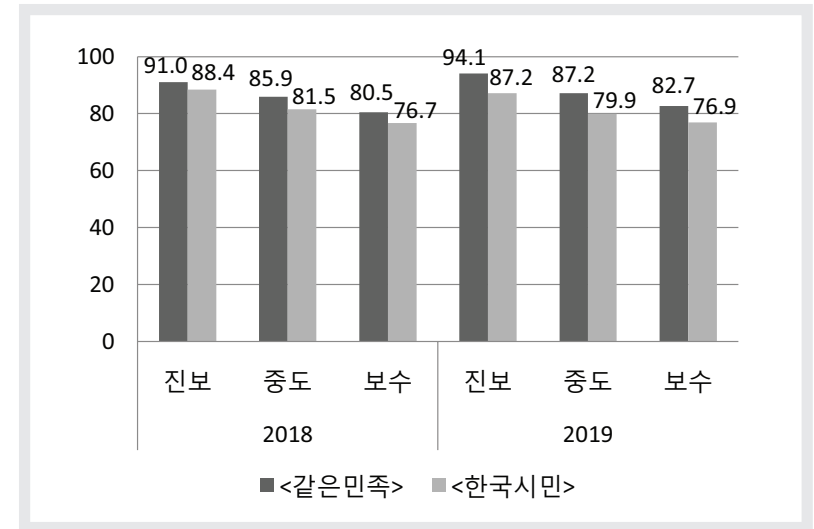
(단위: %)



한편, 〈그림 1-5-3〉에서 정치성향별로 비교해보면 ‘같은 민족’이면서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각하는 견해가 진보층에 비해 보수층이 각각 11.4%, 10.3%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진보, 중도, 보수 세 집단에서 모두 2018년에 비해 2019년 ‘같은 민족’으로서의 공감대가 약 1.2-3.1%사이에서 증가한 반면, 시민성은 보수를 제외한 진보와 중도 층에서 모두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3〉 정치성향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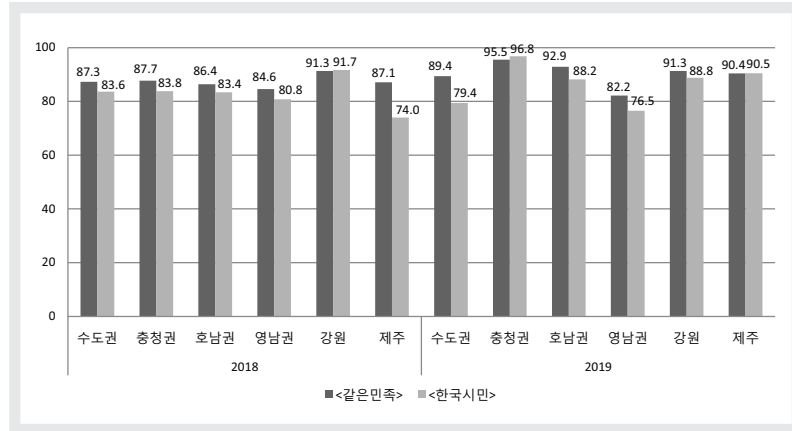
(단위: %)



〈그림 1-5-4〉는 지역별로 나타나는 민족성과 시민성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에서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2019년에 소폭 상승했고 일부 지역들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에 대한 공감대도 동시에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제주, 충청권, 호남권에서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해에 비해 각각 25.5%, 13%, 4.8%씩 증가하였다.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같은 민족’에 대한 의식은 2.1% 높아진데 반해, 시민성은 4.2%로 하락세를 보였다. 2019년 조사에서 강원권이 전해에 비해 2.9%로 시민성이 하락한 데는 2018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여파를 간과할 수 없다. 즉 북측대표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두고 일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⁵²

<그림 1-5-4> 지역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단위: %)



3. 다문화사회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수용인식

북한이탈주민의 수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다문화 수용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소수집단에 대한 우리 국민의 수용성과 포용성을 비교 분석하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한국인의 단일정체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인종, 문화, 역사와의 상호작용으로 반영되는 한국사회의 수용성과 포용성을 반영하는 사회통합의 반영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문화 수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

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상호 비교한다.

1) 다문화수용에 대한 인식

일반적으로 ‘다문화 수용성’은 다양한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다문화집단 혹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결과로 다양한 민족 또는 인종들과의 사회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태도이다.⁵³ 특히 사회통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 사회 내에서 주류 집단의 소수집단에 대한 포용성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결과이다. 이것은 다양한 민족 또는 인종을 가진 집단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⁵⁴

다문화수용에 있어서 일반적 인식은 ‘동등한 대우’와 ‘포용성’에 찬성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실제로 ‘동등한 대우’와 ‘포용성’에 있어 3년 연속 50%이상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포용성에 있어서는 3년 연속 소폭 하락하고 있으며 모든 항목들이 전체적으로 소폭 하락하고 있다. 특히 수용성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비해 4.9%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생활습관에서의 변화가 다문화수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2018년 32%에서 2019년에는 29.5%로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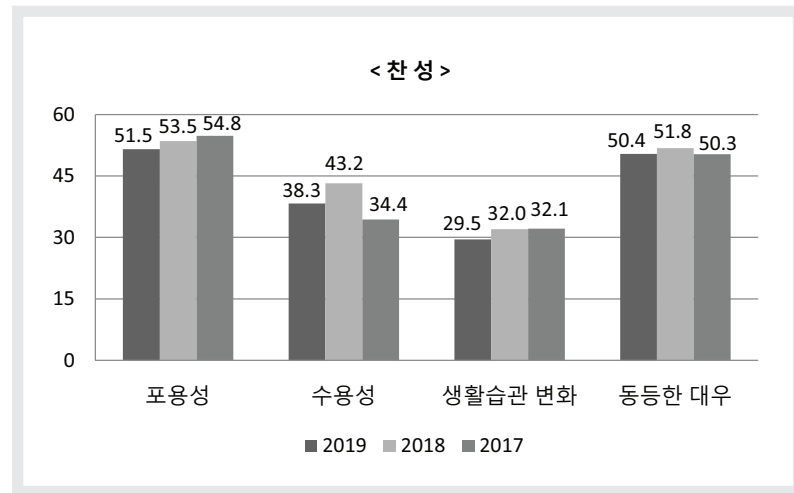
52] 신호준, “탈북자도 북한주도 평양올림픽 반대,” 『문화저널』 2018. 01. 24.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1755§ion=sc118; 박정호, “국회에서 김정은 사진 찢어버린 탈북자들,” 『오마이뉴스』 2018. 01. 24.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1755§ion=sc118.

53] 박은선 (2012), p. 6.; 윤인진·송영호,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09, pp. 579-591.

54]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약간의 부정적인 경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7년 34.4%에서 2018년에 8.8% 증가(43.2%)하였던 것이 2019년에 들어 다시 4.9% 줄어든 38.3%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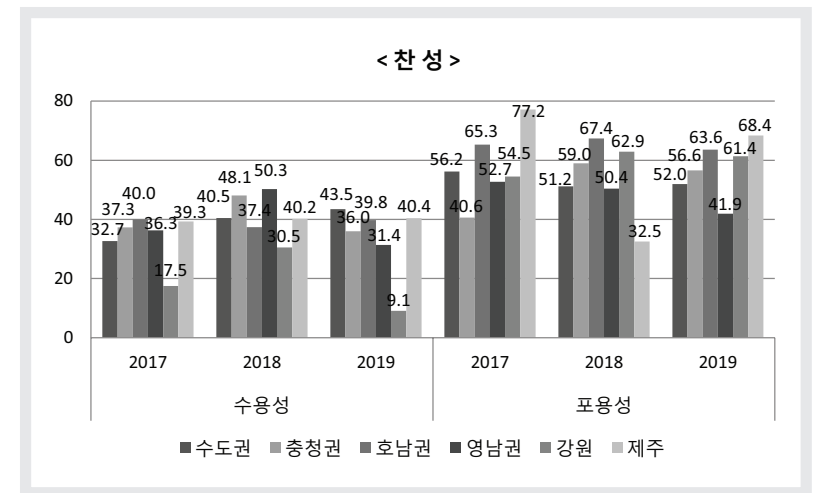
〈그림 1-5-5〉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 (단위: %)



지역별로는 수용성면에서 수도권과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에서 찬성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강원권, 영남권, 충청권은 각각 전년대비 21.4%, 18.9%, 12.1%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1-5-6). 포용성도 제주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다. 반대로 제주지역은 전년대비(32.5%) 32.5%나 크게 증가하여 2019년에 68.4%를 나타냈다. 이는 2018년부터 제주난민문제로 인한 국민적 관심사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영남권도 전년대비(50.4%) 8.7% 감소하여 2019년에 50.4%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강원권은 2019년

조사에서 수용성(9.1%)과 포용성(61.4%)의 차이가 52.3%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강원권은 수용성에 있어 반대하는 비율이 58.5%로 다른 지역들에 비해 약 20-3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지역별 다문화 인식의 차이에서 상당히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그림 1-5-6〉 지역별 다문화 수용성과 포용성 (단위: %)



2)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의 포용성/동등한 대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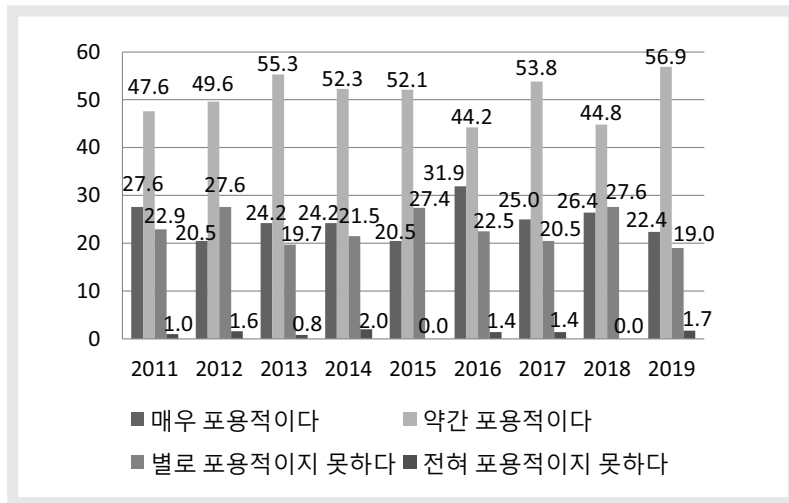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남한국민들이 체감하는 다문화 포용성/동등한 대우와 북한주민들이 체감하는 한국사회의 포용성/동등한 대우에 대한 비교도 의미 있는 결과를 제공한다.⁵⁵

〈그림 1-5-7〉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한국사회 포용성

은 2011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70%이상 긍정적인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매우 포용적이다’라는 인식이 ‘약간 포용적이다’라는 인식에 비해 20-30% 이상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남한국민들이 다문화 포용성에 찬성하는 비율보다는 상대적으로 20%이상 더 높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포용적이지 못하다’고 보는 견해는 2013년 20.5%를 제외하면 2019년에 들어 20.7%로 가장 낮다. 2018년에 비해서도 6.9%로 부정비율이 줄어든 셈이다. 이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한국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5-7〉 한국사회 포용성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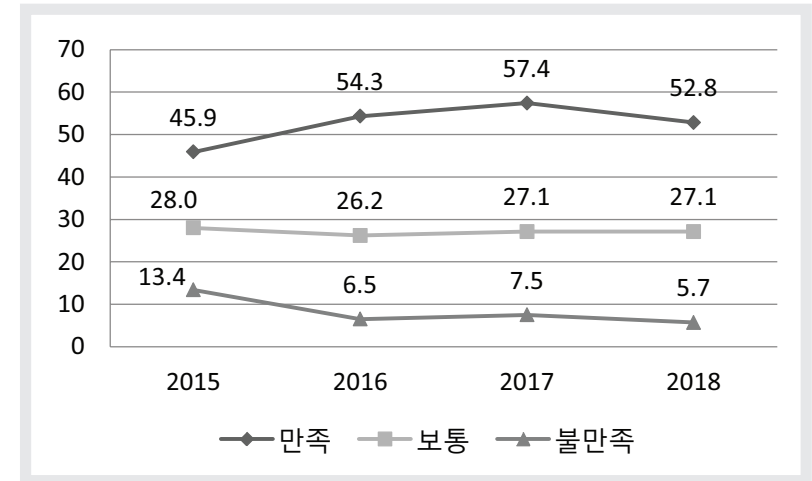
한편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2015-18년)」에 따르면, 북한

55] 북한주민들이 체감하는 한국사회의 포용성에 대한 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실시하는 「북한주민 통일외식」의 2011-2019년 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이탈주민들이 만족하는 한국사회의 ‘동등한 대우’에 대한 만족도도 5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동등한 대우’와 거의 맞먹는 비율로 큰 차이가 없다. 특히 〈그림 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45.9%에 비해 2016년(54.3%)과 2017년(57.4%)에는 약 10% 이상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서 점차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한국사회에서의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⁵⁶

〈그림 1-5-8〉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동등한 대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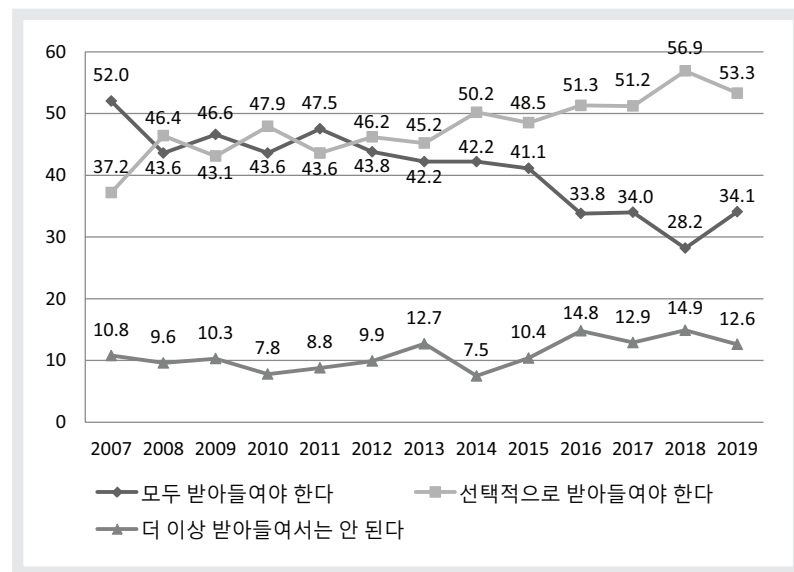
56] 이 자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에서 실시했던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자료를 반영한 것이다.;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2019).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세부인식

북한이탈주민들을 수용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는 남북 갈등에 따른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정책적 갈등 등 다양한 변수들이다.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는 2007년에 시작된 첫 조사에서 52%를 나타낸 뒤로 연속 감소하기 시작하여 12년 사이에 28.2%(2018년)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는 다시 5.9% 증가하여 34.1%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은 2007년 37.2%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2018년에는 19.2% 증가한 56.9%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 다시 3.6%로 감소하여 53.3%를 나타낸다.

〈그림 1-5-9〉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인식 (단위: %)



조사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2016년부터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선택적’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8년까지 지속되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다시 회복세를 보인다. 이는 2015년 8월 서부전선 남북 DMZ 목함지뢰 사건과 2016년 4월에 있었던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사건여파로 다양한 계층 간의 갈등이 격화된 인식의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증가와 그에 따른 남북관계, 또는 남한사회의 다양한 정치 및 사회적, 경제적 관계가 남한주민들의 인식에 반영되는 정도를 나타낸다.

지역크기별로 대도시, 소도시, 읍면동인가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수용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2019년도 조사에서는 대도시의 경우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27.8%로 가장 낮은 반면, 중소도시에서는 40.1%로 상대적으로 읍(면)지역의 33.7%에 비해서도 훨씬 높은 편이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면서도 연령대로 보면 30대에서 17.5%로 가장 높고,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층에서 16.1%로 그 중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사회경제적 친화성(親和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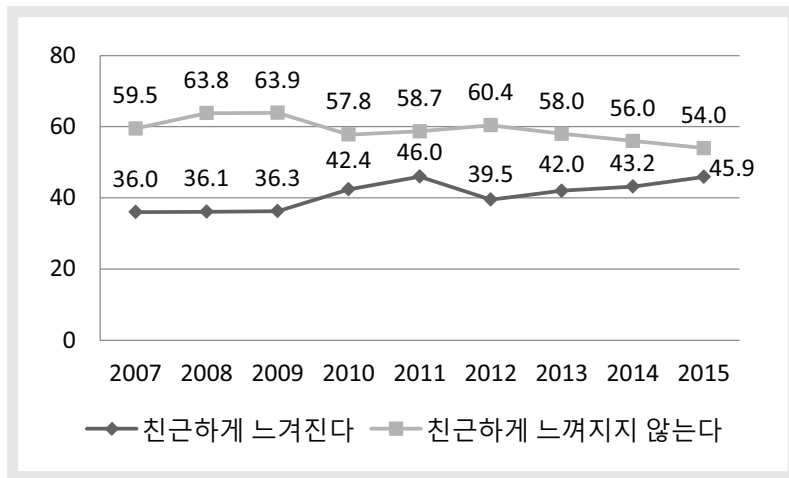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07년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까지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

인들과 비교하는 조사문항으로 바뀌었다. 조사 이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2011년에 46%로 가장 높았고 2015년 45.9%가 그 뒤를 잇는다. 그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에 비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50% 이상 높은 편이다.

〈그림 1-5-10〉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2007-2015)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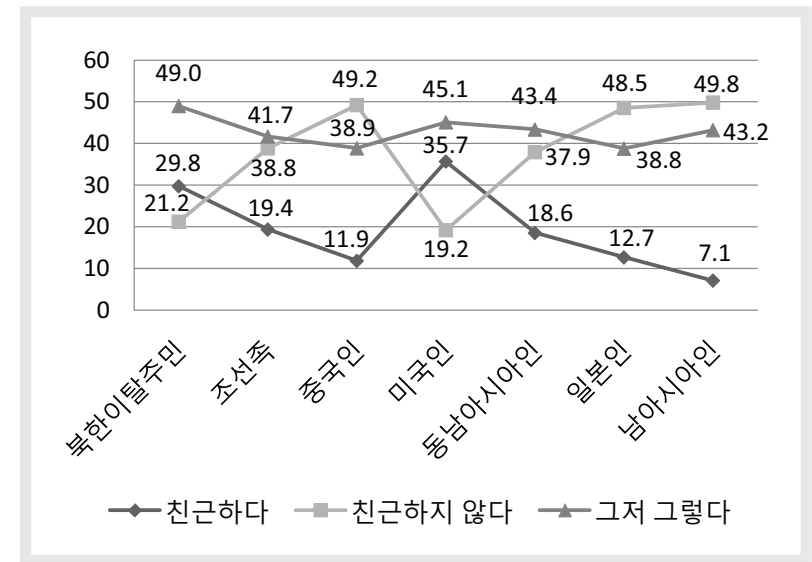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김정일 정권에서 김정은 정권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급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김정은의 후계승계를 준비하고 있던 시점에서 증가하다가 정권 출범과 함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2009년 36.3%에서 2010년 42.4%로 6.1% 증가하였고, 2011년 46%로 최고점을 찍었다가 다시 6.5% 감소한 39.5%를 나타냈다. 이후로 점차 증가하면서 2019년에는 45.9%를 보였다. 이 시기는 김정은 정권의 출범과 함께 탈북자 차단정책이 증가하면서 북한이탈주민 입국수도 현저하게 줄어든 시기다.

2) 외국인 대비 친근감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십니까?”라는 질문은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중국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일본인, 남아시아인에 대한 조사이다. 〈그림 1-5-11〉에 따르면, 2019년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29.8%)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이 미국인(35.7%)에 비해 5.9%정도 낮은 편이다. 조선족(19.4%)에 비해서는 10.4%, 동남아시아인(18.6%)에 비해서는 11.2%이상 훨씬 높은 편이다.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친근하다’와 ‘친근하지 않다’의 차이는 8.6%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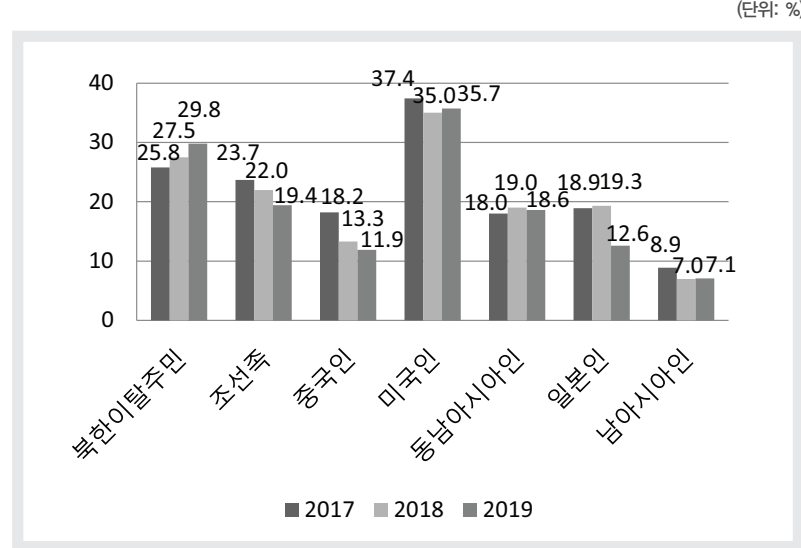
〈그림 1-5-11〉 외국인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2019)

(단위: %)



〈그림 1-5-12〉의 연도별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조선족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반면, 미국인들에 대한 친근감은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해마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로 2016년 조사에서는 미국인/유럽인이 30.3%로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북한이탈주민 27.9%, 조선족 27.1%, 동남아시아인 19.7% 순위다.

〈그림 1-5-12〉 외국인 대비 친근감 연도별 비교(2017-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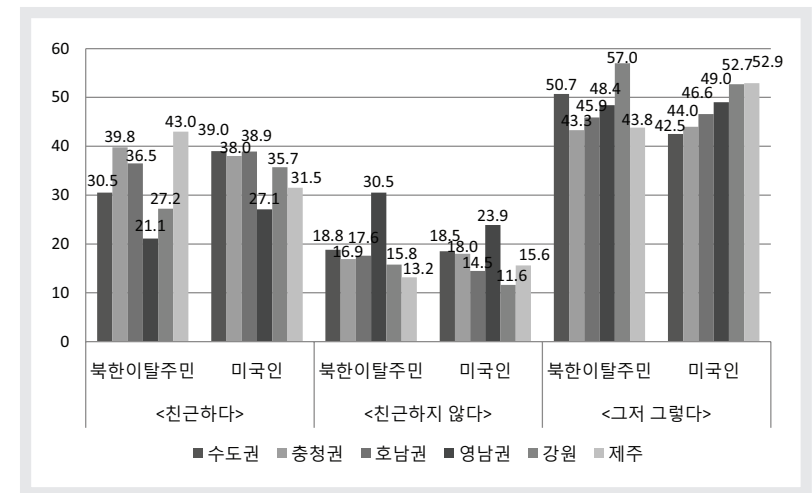


〈그림 1-5-13〉에서 지역별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과 미국인의 친근감을 비교해보면, 수도권과 영남권, 제주지역에서 긍정과 부정의 차이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실제로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낮은 편이다. 반대로 제주지역에서는 미국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훨씬 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미국인들에 대한 친근감이 39%인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8.5% 떨어진 30.5%이다. 영남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21.15% 머물러 있고,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6% 높은 27.1%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5-13〉 미국인 대비 북한이탈주민의 친근감

(단위: %)



반대로 친근하지 않다고 느끼는 정도는 북한이탈주민이 30.5%로 미국인 23.9%에 비해 6.6% 더 높은 편이다. 제주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43%로 타 지역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이보다 11.5% 떨어진 15.6%에 머물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지역순으로는 제주에 이어 충청권이 39.8%, 호남권 36.5%순으로 그 뒤를 이었고,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순으로는 수도권에 이어 호남권 38.9%, 충청권 38%순

이다. 충청권에서는 미국인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1.8% 소폭 높은 편이다. 반대로 호남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미국인에 비해 2.4% 낮은 편이다.

3) 관계유형별 친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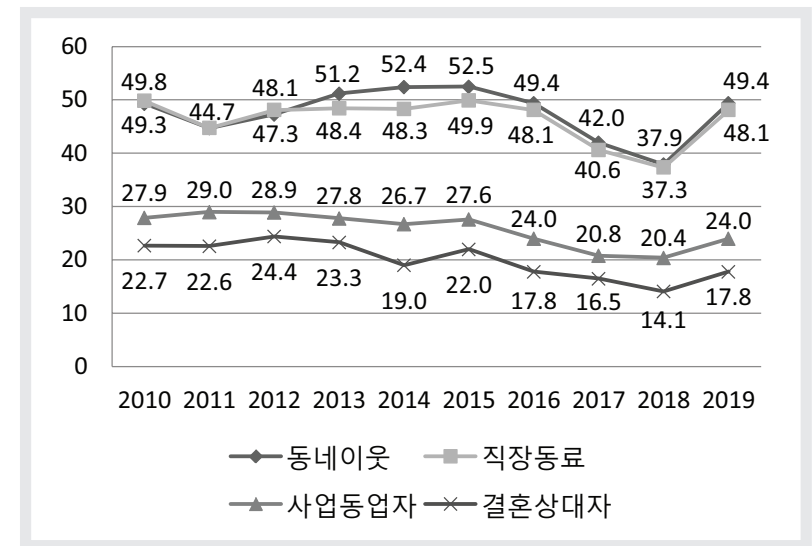
남한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과 부정에 대한 태도는 일반적으로 그들 접촉경험에 따른 유·무의 관계에서 나타난다. 실제로 대학, 학교,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집단들에서 경험자와 무경험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뢰와 수용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에서 나타난 결과다.⁵⁷⁾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접촉 집단은 부정적인 정서와 함께 연민의 정서가 높았고, 신뢰와 수용은 중간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접촉경험이 있는 집단에서는 전반적으로 더 부정적이거나 더 긍정적이면서도 신뢰와 수용의 정도도 낮게 나타난다. 이는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더 긍정적이거나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남한국민들이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등 개별적 유형에 따른 긍부정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경제적 친화성을 분석한다. 전체적으로 2016년부터 한 국국민들과 북한이탈주민들 사이의 사회경제적 친화성은 하락하였으나 2019년에 들어 약간 회복세를 보였다.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간의 관계

에서는 크게 꺼리지 않고 있으나 결혼상대자나 사업동업자로는 상당히 꺼리는 비율이 높다. 실제로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 사이의 관계가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 사이의 관계보다 두 배 이상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남한주민과 북한주민들이 직접적인 관계보다 간접적인 관계 네트워크에 보다 안정감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네이웃에서 직장동료로 사업동업자로, 나아가 결혼상대자로 갈수록 상호간의 ‘경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로서의 관계보다 사업이나 결혼관계에서 압도적으로 꺼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동네이웃으로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권으로 66.7%를 차지한다.

〈그림 1-5-14〉 관계유형별 친화성추이: 꺼리지 않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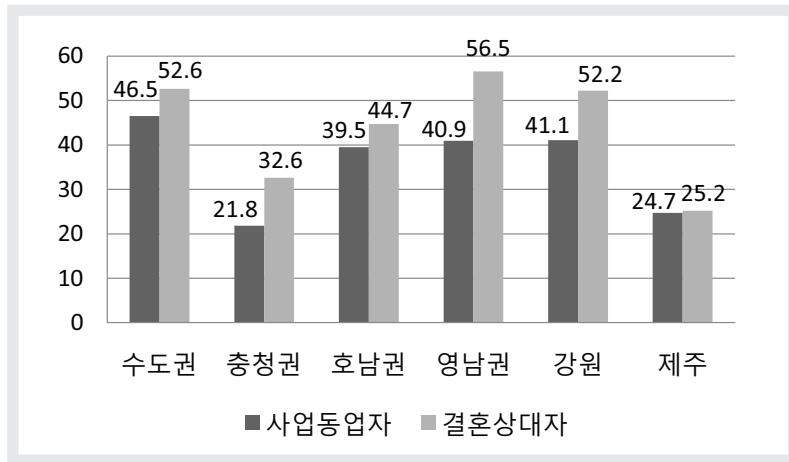


57) 양계민·정진영,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권, 2005, pp. 97-115.

한편 <그림 1-5-15>에서 보면, 전체 지역들에서 사업동업자에 앞서 결혼상대자로 ‘꺼린다’는 비율이 훨씬 더 높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타 지역들에 비해 모든 관계유형들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약 50%이상인 반면,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그 이하를 보인다. 사업동업자의 관계에서 ‘꺼린다’는 비율은 수도권, 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서 각각 46.5%, 41.1%, 40.9%, 39.5%순이다. 결혼상대자의 경우에는 영남권이 52.6%로 ‘꺼린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도권과 강원권이 각각 52.6%, 52.52%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1-5-15> 사업·결혼관계에서 꺼리는 정도

(단위: %)



그렇다면 강원권과 영남권에서 특별히 북한이탈주민과의 사회경제적 친화성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첫째, 조사표본에 따른 사례수의 지역별 분포이다. 둘째, 지역별 북한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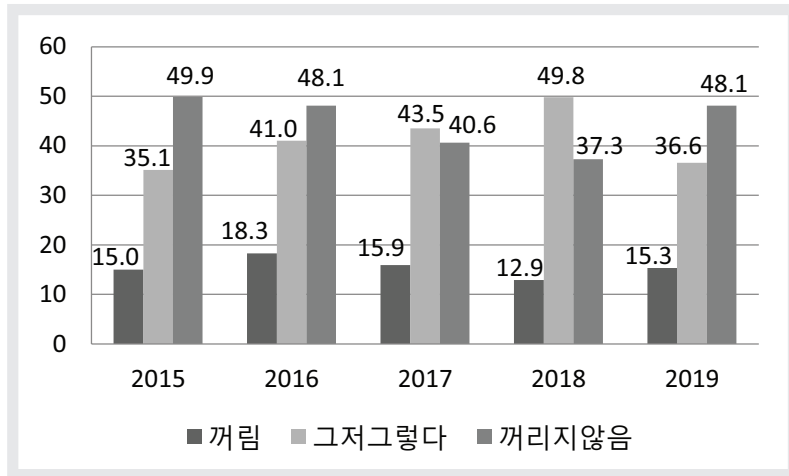
탈주민들의 거주분포이다. 셋째, 전자와 후자의 상관관계에 따른 가능한 분석이다. 즉 설문조사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총 1,200명 중 수도권은 508명, 영남권 318명, 충청권 155명으로 각각 42.3%, 26.5%, 12.9% 순이다. 또한 2018년 현재로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별 거주분포는 수도권 50%, 영남권 21.3%, 충청권 15.2%, 호남권 8.6%, 강원권 3.5%, 제주 1.3%순이다. 이는 타 지역들에 비해 특별히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남한국민과 북한이탈주민과의 직간접적인 관계네트워크로 발현되는 경험적 사례가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때로는 북한문제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들의 문제가 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반영하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을 상대로 직장동료로서의 상호친근감을 비교해보면, 남한주민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림 1-5-16>과 <그림 1-5-17>에서와 같이 남한주민들이 꺼리지 않는 정도는 2015년 49.9%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37.3%)을 기점으로 올해 들어 10.8% 증가한 48.1%를 나타냈다. ‘꺼린다’는 정도는 2016년 18.3%를 제외하고 모두 15% 이하에 머물고 있다.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은 50% 미만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의 만족도는 2015년 53.8%를 제외하고 해마다 60%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8년 58.8%를 기점으로 해마다 60%이상 만족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가폭도 큰 편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 조사는 「남북하나재단」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자료를 반영한 것이다.⁵⁸

58) 남북하나재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2015년-2019년 자료를 바탕으로 필자가 정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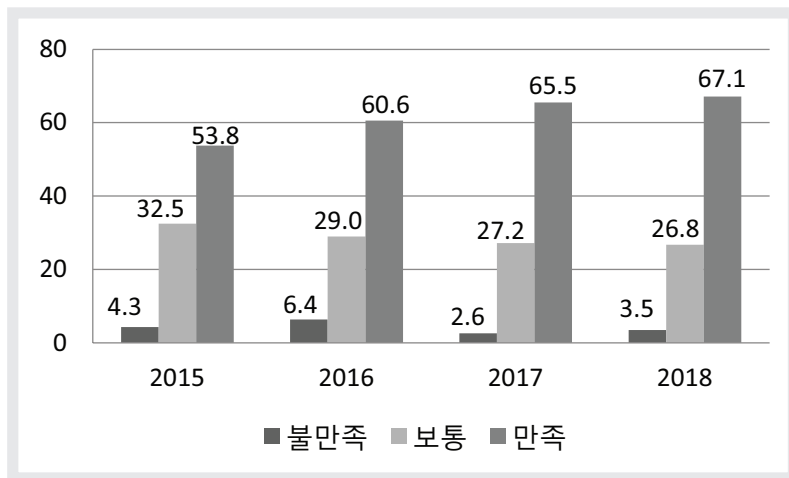
〈그림 1-5-16〉 직장동료로서의 관계: 남한주민

(단위: %)



〈그림 1-5-17〉 직장동료로서의 관계: 북한이탈주민

(단위: %)



5. 북한이탈주민정책의 효용성(效用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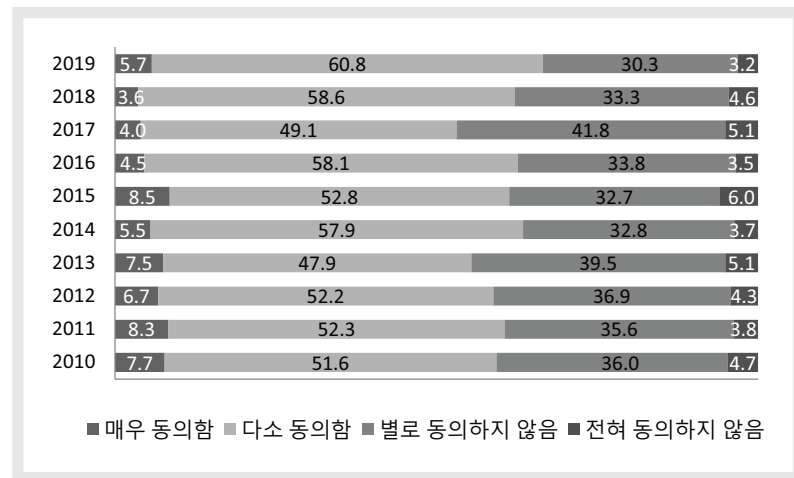
한국사회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한국사회의 동등한 경쟁의식 등 사이에서 북한이탈주민정책의 효용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될 수 있다. 즉 정치적, 경제적, 정책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합의 혹은 찬반(贊反)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를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정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한국사회의 취업 혹은 경쟁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남한국민들의 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

1)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도움이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림 1-5-18〉에서 보는 것처럼 10년 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동의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시기는 2017년으로 50.3%이다. 또한 2013년 55.4%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2017년을 기점으로 2018년에 동의하는 비율이 62.2%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10년 간 조사결과 중 가장 높은 66.5%를 나타냈다. 이는 2018년 북한 비핵화의 출발과 함께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관계의 평화모드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에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

왔던 것은 북한의 핵실험과 남북관계 경색국면에서 북한이탈주민문제의 병존(並存)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만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북한문제와 남북관계의 이중구조에서 무의식적으로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볼 수 있다.

〈그림 1-5-18〉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



2) 지원정책증가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법률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면서 담당정부부처로는 통일부를 통해 유관기관들의 협업 하에 이루어진다. 둘째, 지역적으로는 지역적응 하나센터와 각 지자체들에 마련된 북한이탈주민담당관들을 통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사회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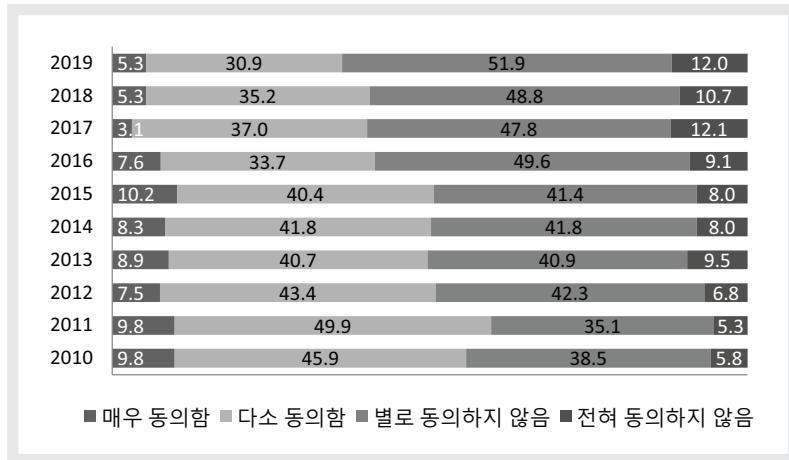
는 종교단체, 민간단체를 비롯한 단체 및 개별적 차원에서의 봉사서비스들과 지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1997년 1월 13일에 법률 제5259호로 처음 제정(1997.7.14. 시행)되어 2019년 1월 15일까지 총 23회의 개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생활 및 적응환경에 맞는 생활맞춤형 정책을 지원한다는 원칙이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 생활정보제공, 취업서비스, 사회서비스 등을 안내하거나 도와주는 지역별 적응센터이다.⁵⁹⁾ 현재 서울, 경기, 광역시를 비롯한 주요 도별 중심의 25개의 도시(서울 4, 경기 6,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2,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들에서 지역하나센터가 운영 중이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입국 증가가 그들 지원정책에 대한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에 따른 국민들의 인식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지난 10년간 나타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는 비율은 시계열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그림 1-5-19〉에서 보면, 2011년에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59.7%로 최고였지만,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9년 조사에서는 19.5% 줄어든 36.2%로 나타났다. 특히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연도는 2016년으로 전해(50.6%)에 비해 9.3% 떨어진 41.3%를 나타냈고, 그 이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59) 「남북하나재단」, https://www.koreahana.or.kr/main_business/sub06.jsp(검색일: 2019.12.01.).

〈그림 1-5-19〉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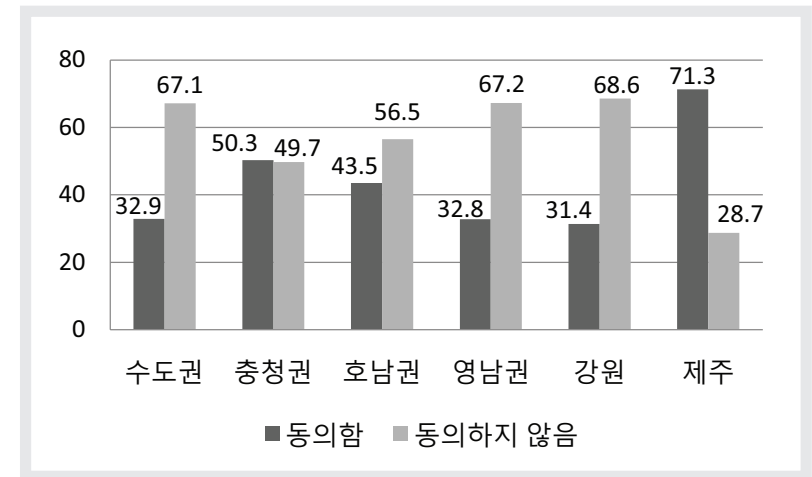
지역별로 2019년 조사를 살펴보면, 제주와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큰 폭으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권, 영남권, 수도권, 호남권 순으로 각각 68.6%, 67.2%, 67.1%, 56.5%이다. 이 지역민들의 절반이상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제주지역은 71.3% 인상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남한사회에 비쳐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현상들에 대한 거부감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큰 도시일수록,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 부정적이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57.1%)나 중도적 성

향(61.2%)에 비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들이 62.3%로 조금 더 부정적이다. 또한 종교적으로는 기독교(55%)에 비해 불교(63.6%)나 천주교(63.5%)가 가장 부정적이다.

〈그림 1-5-20〉 지역별 지원정책 증가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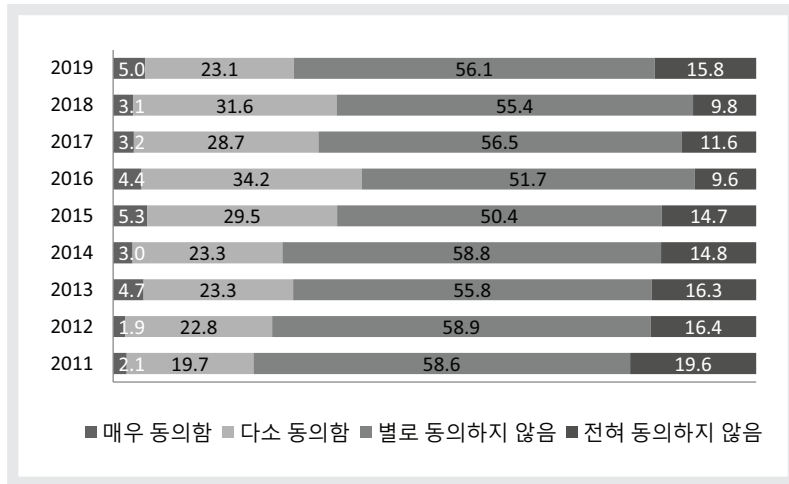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과의 취업경쟁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인식에 있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훨씬 높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의한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조사에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78.2%로 동의한다는 비율이 훨씬 압도적이었으나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는 16.9%나 줄어든 61.3%를 나타냈다. 2018년에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두 번째로 높은 34.8%를 나타냈고, 2019년에 들어 그보다 4.7% 줄어든 28.1%를 보인다.

〈그림 1-5-21〉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단위: %)



2016년과 2018년은 마찬가지로 긍정이든 부정이든 북한변수가 크게 작동하는 시점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북한문제 혹은 북한변수를 간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고위 엘리트, 지식인, 전문가 등 북한이탈주민 고급인력들의 증가와 언론매체를 비롯한 경제사회분야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증가로 인한 심리적 변수들도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여러 분야들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성공사례들이 증가하는 데 따른 경쟁의식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가 한국사회의 취업경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교육수준별로 볼 때, 중졸 이하에서 36.2%로 고졸(28%)이나 대재 이상(2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다. 가구소득 수준별로는 200만원 미만 가구에서 그 이상 소득가

구에 비해 약 6-7% 높은 34.6%를 나타낸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나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전업주부의 부정적 비율이 약 31% 미만인데 비해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에게서는 56.2%로 부정적 인식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이는 최근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이 60% 이상으로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와도 연관될 수 있다.⁶⁰ 또한 일반국민들에 비한 경제활동참가율이 약 1.4%로 높은 것을 감안해보면, 남한사회 여러 부분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경쟁이 어느 정도 남한주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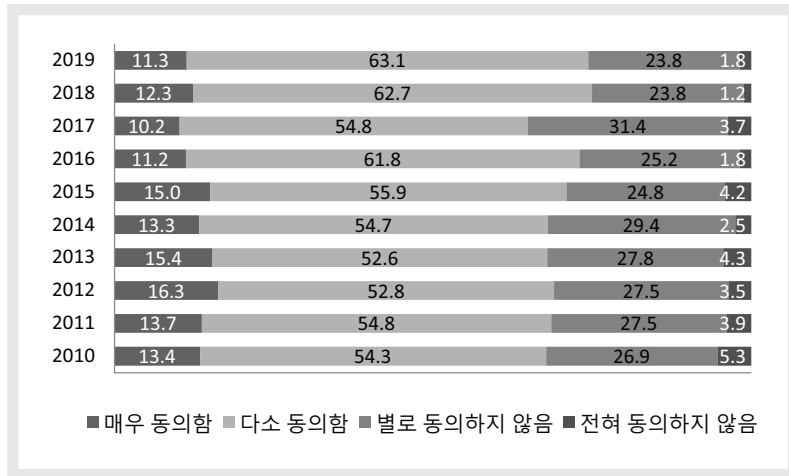
4) 집단내 동등한 경쟁의식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집단 내에서의 동등한 경쟁의식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은 취업경쟁과 정반대의 결과를 나타낸다. 취업경쟁에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60% 이상으로 높은 데 비해 집단 내 경쟁의식에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2017년을 제외하고 대부분 70%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다.

⁶⁰ 남북하나재단 (2019), p. 44.

〈그림 1-5-22〉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단위: %)



〈그림 1-5-22〉에서 보면 2010년 67.7%에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6년에 73%를 나타냈다. 2017년에는 8% 큰 폭으로 감소하여 65%를 나타냈으나 다시 2018년에 들어 10% 증가한 75%를 보인다. 그리고 2019년 조사에서는 다시 0.6%로 소폭 줄어든 74.4%를 보인다.

연령별로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40대에서 78.3%로 30대 미만에 비해 약 10.2% 이상 높은 편이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에서 중졸(64.8%)이나 대재이상(60%)에 비해 동의한다는 비율이 조금 높은 66%선이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에서 다른 직업들에 비해 약 10% 이상 높은 76.7%이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강원권에서 76%로 타 지역들에 비해 약 15~29% 높은 76%를 나타낸다.

6. 소결

이 연구에서는 2019년 『통일외식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체성, 남한사회의 수용성, 정부의 지원정책과의 상관관계, 사회경제적 친화성 등을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은 민족’이면서도 ‘대한민국 시민’으로 인식하는 공감대는 80%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민족성에 비해 시민성은 약간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진정한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여러 조건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한국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한국국적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91.2%로 가장 높다. 이러한 국민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점차 출생, 생애, 전통, 조상, 언어, 등에 따른 한국인의 전통적인 민족성보다는 국적, 법과 제도, 등의 현실적 가치들을 반영한 정체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동등한 대우’와 ‘포용성’에 있어 50% 이상 높은 찬성률을 보이는 반면, ‘수용성’의 측면에서는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리고 ‘생활습관 변화’는 포용성이나 동등한 대우에 비해 약 20% 이상 낮은 편이다. 즉 생활습관에서의 변화가 다문화 포용성이나 동등한 대우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인식과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을 포용성과 동등한 대우의 관계에서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한국사회의 포용성은 2011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70%이상 긍정적이다. 남한국민들에 비해 20% 이상 긍정적이다. 둘째, ‘동등한 대우’에 있어서도 남한국민들에 비해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긍정인식이 약간 높은 편이다. 실제로 다문화에 대한 남

한주민들의 긍정비율이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0.4%, 51.8%인데 비해 한국사회에 대한 북한이탈주민들의 긍정비율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57.4%, 52.8%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있어서는 “원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는 2007년 첫 조사에서 52%를 나타낸데 이후로 지속적이다. 대신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16년을 기점으로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조사에도 반영된다. “친근하게 느껴진다.”에 비해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비율이 조사이후 줄곧 50% 이상 높은 편이다. 외국인과 대비하면 친근감을 느끼는 정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미국인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조선족, 중국인, 미국인, 동남아시아인, 일본인, 남아시아인과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미국인(35.7%)에 비해 북한이탈주민(29.8%)에 대한 친근감이 5.9%정도 낮은 편이다. 조선족(19.4%)에 비해서는 10.4%, 동남아시아인(18.6%)에 비해서는 11.2% 높은 편이다. 미국인과 북한이탈주민과의 비교에서 가장 큰 편차를 보이는 것은 지역별 조사결과이다.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는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높은 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은 각각 8.5%, 6%정도 떨어진다.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43%로 타 지역들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은 11.5% 떨어진 15.6%에 그친다.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사회경제적 친화성은 그들 유형별 관계 네트워크(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를 통해서도 분석된

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네이웃’이나 ‘직장동료’와의 관계는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보다 약 2배 이상 긍정적이다. 그리고 동네 이웃에서 직장동료,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순으로 갈수록 상호간의 ‘경계’가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 이래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연도는 2018년으로 37.9%이다. 이것이 2019년 조사에서는 다시 10.5%로 크게 증가하여 48.4%로 나타났다. 사업동업자와 결혼상대자로서 가장 많이 꺼리는 지역은 수도권으로 각각 46.5%, 52.6%이다. 직장동료와의 관계에서 꺼리지 않는다는 비율도 2018년에 37.3%로 가장 낮았다가 2019년에 들어 다시 48.1%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대로 이는 같은 직장동료로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는 만족도(약 60%이상)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결과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 간 이질화해소에 도움이 된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특히 10년 간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낮아지면서 동의한다는 비율이 2019년에 들어 60.8%로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2015년을 기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아지면서 2019년에 들어 51.9%로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역별로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강원, 영남, 수도권이 각각 68.6%, 67.2%, 67.1%순이다.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데 동의하는 인식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점차적으로 경쟁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약 30% 중반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직업별로는 농축산업에서 56.2%로 과반수가 부정적인 인식

이 높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도 ‘조직 내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인식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즉 집단 내 동등한 경쟁의식에서 동의하는 비율은 약 70% 이상 압도적으로 높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남한국민들의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증가에 따른 남한주민들의 다양한 경쟁의식이나 관계네트워크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차별 혹은 무시당하는 이유로 약 70%가 ‘문화적 소통방식이 달라서’를 지적한다.⁶¹ 그리고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40%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남한주민들의 국민정체성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생활방식의 차이에서 무엇이 더 우선시되어야 하는가에 따른 국민적 공감대이다.

남북한 주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현재형이다. 그리고 오랜 시간에 걸쳐 화해와 이해, 결합과 통합의 과정들을 서로가 받아들이면서 성숙되기 마련이다. 동서독 사회통합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오랫동안 갈등과 분열의 상징으로 대표됐던 이른바 오씨(Ossi)와 베씨(Wessi)의 논쟁이다. 통일 이후에도 오랫동안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에 노출되어 있었다. 실제로 2007년 동서독 주민들 간 상호 이해 및 인정, 통합노력에 대한 평가에서 서독인(44%)들에 비해 동독인들(72%)의 불만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⁶² 통일 25년을 맞으면서 동독과 서독주민들의 생활만

족도는 각각 88%, 90% 유사한 비율로 높게 나타나면서 불만족하다는 답변을 월등하게 뛰어넘었다. 그러나 지역 간 인식의 차이에서는 여전히 동독이 서독에 비해 현저하게 뒤쳐져 있다는 비율이 63%를 차지했다.⁶³ 이에 비하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현재상태로도 충분히 높은 편이다. 그리고 남한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도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경제적 교류 및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아직 적지 않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조사는 이러한 남북한 주민들의 인식의 차이와 통합의 필요충분조건들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식들을 바탕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심도 있는 조사사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6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019), p. 94.

62] 양민석·송태수,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4호, 2010, p. 16.

63] 김상철,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저널』 제22권 2호, 2019, p. 21.

참고문헌

- 강진웅, 2016, “한국 사회 결혼이주여성들의 정체성 비교: 통섭적 관점에서 바라본 정체성의 동학”, 『다문화교육연구』 제9권 1호, 1-24.
- 강채연, 2018,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체성의 이주’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다문화사회연구』 제11권 2호, 5-36.
- 김고은, 2015, “한국인의 사회정체성과 세대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철, 2019, “독일 통일 후 구 동독지역의 사회정책과 사회통합”, 『질서경제 저널』 제22권 2호, 1-29.
- 남북하나재단,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서울: 남북하나재단.
- 박은선, 2012, “국민정체성과 국민으로서의 외국인 이주자 수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우현, 2012, “한국인 속의 한국인 이방인: 국내 탈북자 집단의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동서철학연구』 제64권 64호, 1225-1268.
- 안상수·민무숙·김이선·이명진·김금미, 2012, 『국민다문화수용성 조사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계민·정진영, 2005, “북한이탈주민과의 접촉이 남한사람들의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1권, 97-115.
- 양민석·송태수, 2010, “독일 통일 20년-사회·문화적 통합의 성과와 시사점”,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0권 4호, 3-34.
- 윤인진·송영호, 2009, “한국인의 국민정체성과 다문화수용성”,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579-591.
- 통일부,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서울: 통일부.
- 『남북하나재단』,
『문화저널』,
『오마이뉴스』.





제2부

심층분석

제6장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통일의식

제7장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 유형화 연구

제6장

포스트 지구화 시대의 통일의식⁶⁴복합갈등 구조와 새로운 포퓰리즘⁶⁵의 대두

| 김학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은 매우 복잡적이다. 한국 사회는 다른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민족, 종교, 이념, 계층, 지역, 노사, 세대에 따른 다양한 사회갈등이 존재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터키나 캐나다도 종교, 민족 갈등이 높은 편이고, 폴란드는 세대갈등이, 멕시코는 계층 갈등이 높고, 한국은 종교나 민족 갈등보다는 노사갈등이나 계층 갈등 등 사회경제적 갈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⁶⁶

64] 이 글은 2019년 10월 8일, "2019년 통일외식조사 :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 불안과 희망"에서 발표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으로 이 글의 내용과 사실, 분석과 주장의 오류와 관련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김학재)에게 있다.

65] 이 글에서 '새로운 포퓰리즘'은 규범적 판단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격차, 정치적 불안정성, 대외적 경쟁과 갈등이 심화된 결과로서 분석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한다.

66] 김선빈, 2013,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p. 310.

하지만 한국 사회에는 다른 사회와 달리 한국 특유의 갈등 구조가 추가되어 있는데 이는 남북관계로 인한 이념적, 정치적 갈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사회갈등 지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분단문제가 어떠한 복합적 균열 구조(cleavage structure)⁶⁷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대해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조사 사업은 이러한 한국 사회 특유의 갈등 지형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07년에 첫 조사가 시작된 이래 통일의식조사는 지속적으로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 갈등 지형을 확인해왔다. 예컨대 그동안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지역, 이념, 교육, 나이와 세대, 소득과 계층, 직업,⁶⁸ 정당지지와 정파성에 따라 통일에 대한 여론, 북한에 대한 관점, 주변국 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 조사의 결과 일반적인 사회, 경제, 문화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의 진보와 보수, 세대와 지역, 소득과 교육수준과 무관하게 상당히 여론이 수렴되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지만,⁶⁹ 유난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 그리고 경제문제를 둘러싼 첨예한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중요한 사회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었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의 차이는 지역, 이념, 교육수준, 세대 차이와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지

67] 균열구조(cleavage structure)는 노르웨이 정치사회학자 슈타인 로칸과 미국의 정치사회학자 세이무어 마틴 립셋의 유럽 정당정치 지형 형성 과정에 대한 역사적 분석에서 사용한 개념으로 국가 형성과 산업화로 인한 거시적 사회 변동에서 발생하는 종족, 언어, 종교적 중심/주변 집단간의 갈등, 근대적 국가와 종교의 갈등, 도시 산업가와 지방 지주의 갈등, 토지소유자나 고용주와 노동자들 사이의 갈등 구도를 의미한다(Lipset and Rokkan, 1967: 14, Flora, 1999: 34-39).

68] 『통일의식조사』 2007, p. 130.

69] 『통일의식조사』 2013, p. 262.

속적으로 확인되었다.⁷⁰

하지만 시기별로 지역, 이념, 세대, 계층 중 무엇이 가장 중요한 갈등의 지점이 되고 있고,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지구화,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따른 최근의 복합적 사회변동이 내부 갈등지형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고, 그것이 통일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정해진 시점, 한가지 쟁점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면 한국 사회 갈등 지형의 특성과 변화요인, 그리고 통일에 관한 여론변화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통일외식에 영향을 주는 사회 갈등의 지형은 시기적으로 변화했는데, 주로 지역과 이념차이⁷¹ 그리고 세대차이⁷²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2014년 이후에는 사회계층 차이가 확인되어 계층에 따라 통일을 선호하는 입장과 현상 유지를 선호하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⁷³ 2016년에는 정파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매우 강화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⁷⁴ 2017년에는 통일 여론에 대한 지역, 이념성향 차이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크고, 부분적으로 교육수준 차이도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⁷⁵ 2017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의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 나빠질 것인지에 대한 경제평가에 있어서는 대체로 정파적 차이의 효과도 사라진다는

70] 『통일외식조사』 2007, pp.131-134.

71] 『통일외식조사』 2007, p. 139. 2009, p. 153.

72] 『통일외식조사』 2011, pp.139-171 2015, pp. 180-218.

73] 『통일외식조사』 2012, p. 204. 2013, p. 264. 2014, pp. 205-231.

74] 정동준 2016, 『통일외식조사』 pp. 194-220.

75] 『통일외식조사』 2017, 180-181

점⁷⁶이 드러나 경제평가가 통일에 대한 여론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 연구는 우선 2019년에 수행된 통일외식조사에서는 나이(세대), 지역, 이념성향, 교육수준, 정파성 등 기존의 갈등지형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통일과 남북문제를 둘러싸고 어떤 갈등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은 갈등 지형 자체의 변화와 관련된 사회변동의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중심과 주변, 도시와 지방, 국가와 종교,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은 모두 국가 형성이나 산업화, 도시화와 같은 거시적인 사회변동의 산물로 형성되는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1970년대 이후 경제 개방과 지구적 규모의 시장 통합이 진행된 지구화가 미친 사회변동의 효과와,⁷⁷ 보다 최근에 진행된 사회변동의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제기되는 것이다.

보다 최근의 거시적 사회변동을 이 글은 ‘포스트-지구화(Post-Globalization)’ 현상으로 부르려 한다. ‘포스트 지구화’란 지난 30-40여년간 세계적으로 지속된 지구화에 따른 경제 통합이 일부 국가에서 특히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킴에 따라 외국인, 난민, 이주민 등 타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악화되며 반대로 자국 중심주의와 정치적 분리주의, 우

76] 정동준, 2017, 『통일외식조사』 pp. 194-230

77] 지구화로 인한 사회변동에 대한 연구는 무수히 이루어졌으나 특히 지구화로 인한 포스트-산업화 현상이 사회의 균열 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는 다음을 참조. Gosta Esping-Andersen, (1992) "Postindustrial Cleavage Structures: A Comparison of Evolving Pattern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in Frances Fox Piven eds. *Labor Partie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익 포퓰리즘이 부상하며 반발이 형성되는 전 세계적인 공통 현상⁷⁸⁾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이 현상이 최근 수년간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이런 변화가 한국사회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것이 통일·평화 의식과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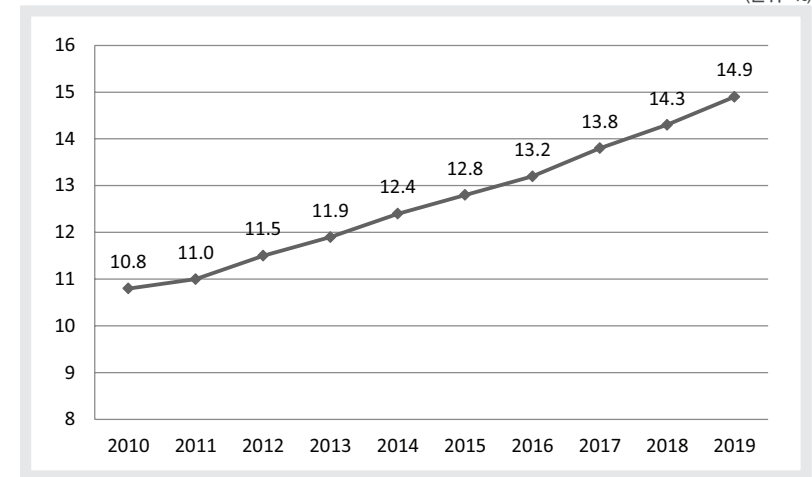
2. 통일외식조사에 반영된 한국의 사회변동

한국의 빠른 사회변동은 통일외식조사의 응답자들 특성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응답자의 특성에서 드러나는 사회변동은 크게 인구변동과 세대분화, 지구화에 따른 경제구조 변동, 노동시장의 변동, 그리고 계층 분화 현상이다.

78] 이에 대한 시론적 분석은 김학재(2019),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경제와 사회』, Kim H.J (2017) “Post-Globalization and the Ar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lition Politics, Consensual Democracy, Peace Process”, organized by Gyeonggi Province-North Ireland at Belfast Ulster Museum, Ireland, September 17-22th, 2017. 참조.

〈그림 2-6-1〉 한국 인구 중 고령인구비율: 65세 이상

(단위: %)



출처: KOSIS 100대 지표

먼저 인구 변화가 반영되어 응답자의 고령화 추세가 관찰되며, 특히 60세 이상 인구가 증가 중이다. 2007년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50대 이상이 23.3% 였으나 2015년에는 50대 이상이 21.2%, 60대 이상이 17.2%이 되었고, 2019년 조사에서는 50대 이상이 21.7%, 60대 이상이 20.2%으로 고령층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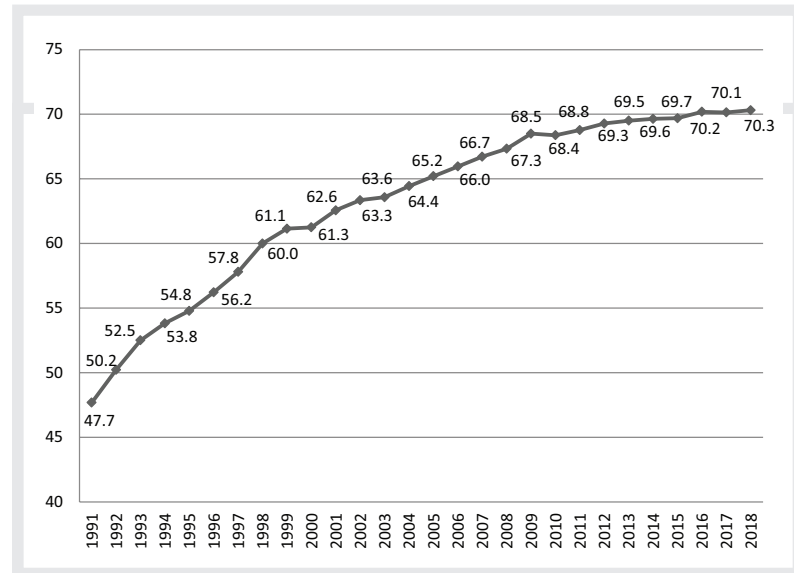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응답자의 직업 분포도 변화하여 〈그림 2-6-2〉에 서와 같이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계속 축소되고, 2, 3차 산업 종사자 비

79] 박경숙, 2018. “동북아와 아시아의 인구 네트워크와 사회문화적 영향,” 32-70 손정렬, 김상배, 박경숙, 권규상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영태, 2016, 『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10년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북스톤. 『통일외식조사』, 2007, 2019. 통일외식조사에서는 2007년 조사 연령 범주를 4개로 하였으나 이런 변화를 반영해 2018년 부터는 연령 범주를 5개로 변경했다.

중 이 증가하고 있다. 지구화와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로 여성 노동 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연도별 경기변동에 따라 자영업자가 증가하거나 전업주부가 증가 혹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2007년 조사 응답자중에서 1차산업 종사자는 2.4%, 자영업자는 24.3%, 전업주부는 19.8%이었고, 2015년에는 1차산업 종사자 1.7%, 자영업자 16.5%, 전업주부가 20.3%였는데, 2019년에는 1차산업 종사자가 0.9%로 감소하고, 자영업자는 다시 증가해 24.5%가 되었고, 전업주부는 현저히 줄어들어 응답자의 14.5%를 구성하고 있다.⁸⁰

〈그림 2-6-2〉 전체 고용에서 3차산업(서비스업) 종사자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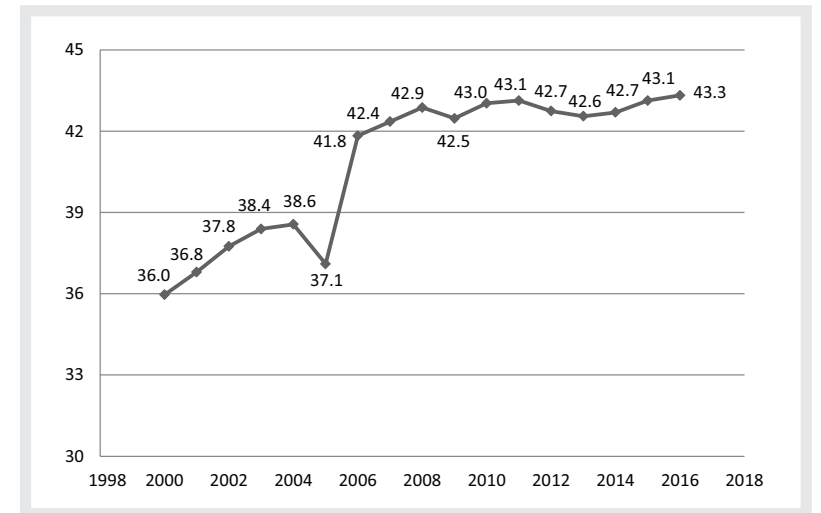


출처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2019년 9월 현재)

80] 『통일외식조사』 2007, 2015, 2019, 부록 : 조사결과 집계표 해당 부분 참조.

무엇보다 2007년 1인당 국민소득이 27,822달러(PPP)에서 2018년 40,111달러(PPP)로 증가하여 사회전반의 소득수준이 크게 증가했다. 소득수준 증가는 응답자의 평균 소득에 반영되었는데 응답자중 월 평균 소득 400만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0만원 이하 소득집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07년 조사에서는 200만원 미만 소득이 23.3%, 400만원 이상이 20.5%였는데, 2015년 조사에서는 200만원 미만 소득은 9.8%로 크게 감소하고, 400만원 이상 소득이 42.8%이 되었고, 2019년 조사에서는 200만원 미만 소득은 6.8%에 불과하고, 400만원 이상 소득은 49.8%이 되어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해당되었다.⁸¹ 하지만 이런 소득 증가 과정에서 불평등도 다소 심화되어 상위 10%의 소득 비중이 2006년에는 41%였으나 2016년에는 43%가 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2-6-3〉 전체 소득중 상위 10%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변화 (단위: %)



출처 : WID (World Inequality Database)

81] 『통일외식조사』 2007, 2015, 2019, 첨부자료.

3. 한국의 사회 갈등 지형 변화와 포스트 지구화 현상

인구변화, 소득 수준 향상, 경제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양극화와 계층 분화와 같은 사회변동은 한국사회의 복합적 격차와 갈등 지형⁸²과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먼저 진보-중도-보수 이념 성향의 비중과 정치 지형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2007년에는 주관적 이념성향이 진보인 사람이 25%, 중도는 47%, 보수는 27%로 뚜렷한 이념성향보다 중도층이 많은 정치 지형을 보였고, 2015년까지도 유사한 비율(진보 24%, 중도 49%, 보수 26%)을 유지했으나 최근의 변화를 반영해 2019년에는 진보 32%, 중도 49%, 보수 17.8%로 전반적인 이념 지형이 변화했다.⁸³

흔히 한국 사회의 양대 갈등 구조로 일컬어지는 이념과 지역갈등⁸⁴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으나, 그 정도가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⁸⁵ 소득수준 향상과 경제구조 변화, 소득 격차가 증가되던 2014년 이후에는 소득분화에 따른 계층 차이, 선거와 정권교체 전후의 정파 갈등이 다소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 일부 논쟁적 쟁점들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는 큰 여론의 차이가 없이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양상⁸⁶을 보이고 있다.

82) 구인회, (2019),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전병유·신진욱 편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83) 『통일외식조사』 2007, p. 183, 2015, p. 301. 조사시점인 2019년 7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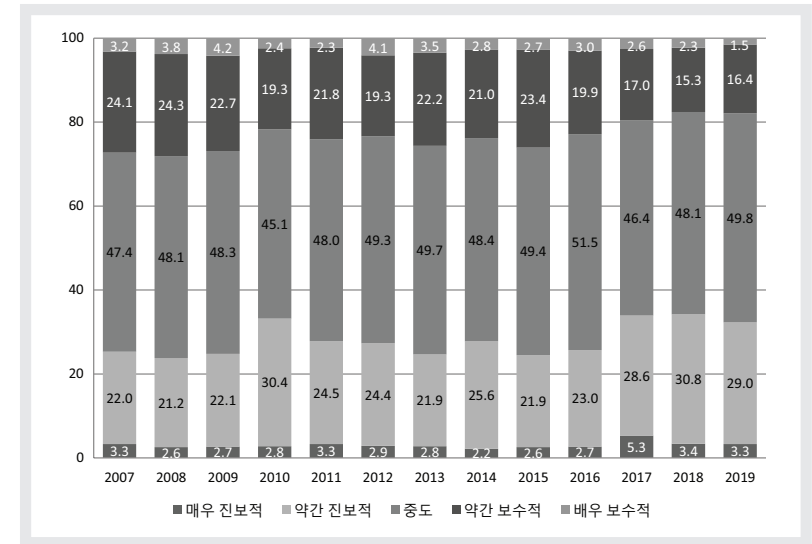
84) 『통일외식조사』 2007, p. 139. 『통일외식조사』 2009, p.153.

85) 『통일외식조사』 2009, p. 181.

86) 『통일외식조사』 2007, p. 142., 2013, p. 262.

〈그림 2-6-4〉 2007년 이후 한국의 진보-중도-보수 정치 지형의 변화

(단위: %)



올해의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일, 남북관계, 북한이탈주민과 주변국 인식에 대한 총 59개 설문 문항중, 진보와 보수의 의견 차이는 특히 “남북관계를 협력 관계로 보는 관점” (진보-보수 = 20%), “북한이 많이 변화했다는 관점” (진보-보수 = 23%),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이 크다는 관점” (진보-보수 = 23%), “국가 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진보-보수 = 22%), “성장보다 복지가 중요하다는 의견” (진보-보수 = 20%), 그리고 “재벌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 (진보-보수 = 22%)에서 가장 첨예한 차이를 보였다. 나머지 대부분의 분야에서는 입장 차이가 10% 미만으로 대체로 큰 의견 격차가 없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1) 남북관계와 북한문제 2) 경제정책 방향과 재벌문제 리는 한국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직면하고 있는 양대 균열 구조(남북 문제,

경제적 양극화 문제)임이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관찰은 한국사회의 복합적인 갈등 지형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몇가지 질문을 불러 일으킨다. 그간 발견된 갈등 구조중 어느 것이 가장 심각하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가? 정파와 정당지지, 이념 차이, 지역 차이, 세대 차이, 그리고 교육 수준차이, 직업 차이, 소득 수준 차이, 성별 차이중 시기에 따라 무엇이 가장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는가? 갈등 요인들은 어떤 상호 작용과 영향 관계를 갖고 있는가? 예컨대 지정학적 갈등과 사회경제적 양극화 그리고 정치적 양극화는 서로 악순환적 상호 작용을 하는가 아니면 서로 별개의 문제인가? 이런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사회마다 다른 갈등 구조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학술적 함의 뿐 아니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외교-정치-경제적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 동안 이러한 갈등과 상호 의견 차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해온 집단적 해석들에 대해서도 보다 객관적인 이해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 글은 세계적 경제통합과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포퓰리즘⁸⁷이 대두되는 '포스트 지구화' 현상이 한국사회에서는 언제, 어떻게 발현되고 있으며 이것이 통일의식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지난 30-40년간 소위 지구화가 진행되고 세계적으로 시장 통합이 이루어지고 AI로 상징되는 기술발전과 자동화가 일자리와 직업을 위협하면서, 최근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와 정치적 분리주의, 배제적 민족주의와 극우 정당 및 단체가 부상하고 급진 좌/우익 포퓰리즘⁸⁸이 강화되는 현상이 특히 유럽과 미국 등을 중심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브렉시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 브라질의 보우소나르 당선, 동유럽

의 반 이민 정서, 반이민, 반유럽적 유럽 극우 정당의 부상 등이 가시화된 현상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익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현상은 기존의 포퓰리즘과는 다른 원인과 성격, 유형을 보인다는 점에서 '새로운 포퓰리즘'⁸⁹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최근 새롭게 부상하는 포퓰리즘

87) 포퓰리즘의 정의와 의미는 다양하다. 저널리즘에서는 흔히 '인기 영합주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원래 포퓰리즘은 역사적으로 근대 인민주권 이론에서 권력이 국민people에게 있다는 의미에서 대의 민주주의의 원칙으로 등장한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국민당 people's party, 러시아의 인민주의자 Narodniki 운동, 프랑스의 제 3공화국 시절 조르주 블랑제가 주도한 반의회주의적 민족주의와 국민투표 공화주의 운동이 그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포퓰리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지역은 서유럽과 라틴아메리카인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20세기 초반의 고전적 포퓰리즘과 2000년대의 새로운 포퓰리즘이 구별된다. 전자는 1940-50년대 대공황과 경제 위기를 겪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카리스마적 리더들이 보다 포용적인 계층 통합을 시도했던 경우와, 2000년대에는 오히려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는 포퓰리즘 정부와 엘리트의 권력을 줄이고 급진적 사회개혁을 추구한 포퓰리즘이 등장한 두 가지 양가적 현상이 일어난 '새로운 포퓰리즘'이 연구되었다. 1990년부터 2010년 사이에 1,200권 이상 출간된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유럽에서 급진적인 우익 포퓰리즘 정당과 긴축에 반대하는 포용적 포퓰리즘이 도시에 대두되고, 미국에서도 티파티와 부캐년, 로스 페로, 사라 폴린, 트럼프 같은 포퓰리즘이 부상하는 것에 대한 연구들이 다. 경제 문제에 대한 좌파, 포용적 포퓰리즘과 정체성에 기반한 우파, 배제적 포퓰리즘을 구분하기도 하지만, 국가별 지역과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그 의미와 형태가 모두 다르다.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et al, "An Overview of the Concept and the State of the Art", in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et al. eds. (2017),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UP Oxford, pp. 15-21. 이 글은 주로 200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한 최근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여 사용한다.

88) 유럽의 20세기 정치지형에서 좌파와 우파 포퓰리즘이 모두 존재했지만, 최근에는 유럽, 미국 등에서 주로 우익 포퓰리즘과 극우 단체가 부상하고 있다. Akkerman, Tjitske, Sarah de Lange, and Matthijs Rooduijn (eds). 2016.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Western Europe: Into the Mainstream?* London: Routledge. Jens Rydgren (2018), *The Oxford Handbook of the Radical Right*, OUP Oxford. 유럽의 경우 포퓰리즘 인덱스를 간행하는 연구소의 집계에 따르면 1980년에는 1.1%에 불과했던 우익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가 2019년 현재 15.5%로 증가했고, 반대로 1980년에는 9.6%에 달하던 좌파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는 2004년 4% 수준으로 낮아졌다가 2019년 현재 6.4% 수준으로 다소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지지가 27%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 (<https://populismindex.com/data/>) 2020년 1. 15일 액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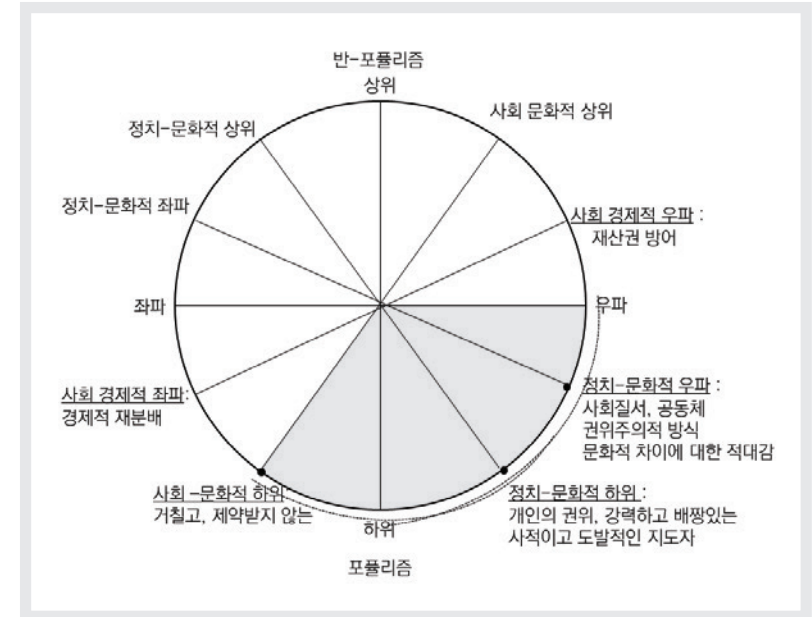
89) Revenlli, Marco (2019) *The New Populism: Democracy Stares into the Abyss*, London and New York: Verso.

의 이념, 정치 전략, 지지층의 사회문화적 태도를 설명하는 연구들이 출현하고 있다.

새로운 포퓰리즘 현상에 대해서는 주로 문화적 접근과 사회경제적 접근법이 있다. 먼저 피파 노리스와 로널드 잉글하트(Norris and Unglehart, 2019)는 최근의 포퓰리즘을 문화적 역풍 cultural backlash로 정의하고 이것이 기존의 엘리트들의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과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정치 도덕적 권위를 오직 ‘국민’에게서만 찾으려는 포퓰리스트 리더들의 태도를 가장 특징적인 것으로 꼽는다. 이러한 포퓰리즘은 두려움을 강조(politics of fear)하고 권위주의적 가치와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이들은 최근의 포퓰리즘을 ‘권위주의적 포퓰리즘(authoritarian populism)’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세대의 변화, 교육 수준의 증가, 도시화, 포스트-산업화이후 이주와 인종 다양성의 증가 같은 사회경제적 변동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조용한 문화적 변동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응이 문화적 역풍을 초래해 권위주의적 포퓰리즘이 출현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주로 서유럽, 영국과 유럽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이다.⁹⁰

〈그림 2-6-5〉 최근의 새로운 포퓰리즘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분석들

(단위: %)



출처: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UP Oxford. P. 89.

이와 관련해 문화적 태도에 주목한 또 다른 연구는 크게 세 그룹의 정치 문화적 태도가 우익 포퓰리즘과 관련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사회 질서를 강조하고, 더 권위주의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공동체를 강조하고, 문화적 차이에 대한 적대감을 보이는 정치문화적 우익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다음으로 개인의 권위를 따르고, 강하고 강력한 배짱있는 도발적 지도자를 선호하는 정치문화적 하위 그룹이 있다. 마지막으로 거칠고, 제약없이 자유분방하고, 문화적으로 대중적인 사회문화적 하위층이 최근 유럽과 미국에서의 우익 포퓰리즘 지지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분석을 제

90]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19) *Cultural Shock: Trump, Brexit, and Authoritarian Popu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4-8, 33-51.

시했다.⁹¹ 또한 급진적 우익 포퓰리즘은 대체로 개인과 사회의 평등을 거부하고, 권위주의, 민족주의와 인종혐오가 결합되어 '토착주민(native)만 이 땅에 살아야 한다'는 정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⁹²

다른 한편으로 이런 문화적 변화의 배경에 있는 사회경제적 변동에 좀 더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Gidron과 Hall(2017)은 지구화에 따른 경제 환경 변화에서 교육, 소득, 직업 숙련도의 차이가 문화적 변동의 배경이 된다고 보았는데, 특히 사회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변화하며, 지위가 낮아졌다고 인식할수록 포퓰리즘 정당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⁹³ Cavaille(2019)는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서인 반이민 정서가 고등 교육(secondary education) 격차와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지목했다.⁹⁴

마찬가지로 Iversen과 Soskice(2019)는 일반적인 포퓰리즘의 개념이나 가치보다는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동에 처한 구 중산층의 가치에 주목한다. 대량생산에 기반한 제조업이 중심인 경제로부터 지식과 서비스업 중심 경제구조로 변하는 사회 변동의 결과, 점차 사회적 이동성이 악화되면서 구 중산층이 더 이상 상승 이동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 중산층은 상층으로부터는 재분배를 요구하면서 하층과

는 스스로를 구별지으며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자격이 없'으며, 부자들이 전체 체제를 좌우한다고 간주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직업과 소득이 제도적 게임이며 따라서 이주민들은 환영하기 어려운 경쟁자로 인식하는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포퓰리즘은 단순히 새로 등장한 사회문화적 엘리트에 대한 문화적 반발이 아니라 구 중산층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자식들이 제외되었다고 느끼는 '새로운 경제'의 상징을 공격하는 포퓰리스트 정치인의 말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게 되는 구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절연(Encapsulation)을 반영하는 것으로 설명한다.⁹⁵

이러한 사회변동의 결과 특히 과거에 산업이 발전했던 도시들이 점차 몰락하거나,⁹⁶ 도시로의 집중과 지방의 발전간 격차가 증가하며 사회적 불만이 증가하는 경향⁹⁷도 지적되고 있다.

이상의 접근들은 각각의 강조점이 다르지만 (문화, 사회경제) 상호 연관된 변화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 글은 이런 현상이 지구적인 현상으로서 '포스트 지구화' 현상으로 정의하며, 지구화에 따른 지구적 경제 통합과 국가 경제 개방도의 증가와 상호 분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식 경제로의 이행과 관련된 사회변동이 초래하는 문화, 정치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 현상은 단지 개별 국가의 산업구조 변화나 경제적 계층의 변화, 혹은 문화적 태도의 변화나 특정한 극단적 정치 세력의 부상에 개별

91] Ostiguy, Pierre, 2017, "Populism: A socio-cultural approach", in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et al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UP p. 89.

92] Akkerman, Tjitske et al 2016, p. 5.

93] Gidron, Noam, and Hall, Peter A., 2017. "The politics of social status: Economic and cultural roots of the populist righ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8: 12-22.

94] Cavaille, Charlotte, Marshall, John, "Education and Anti-Immigration Attitudes: Evidence from Compulsory Schooling Reforms across Western Europ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9] 113, 1, 254-263

95] Iversen and Soskice (2019), *Democracy and Prosper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222-223, 238, 243

96] Hochschild, Arlie R. 2016. *Strangers in Their Own Land: Anger and Mourning on the American Right*. New York: New Press.

97] 정준호 (2019), "지역 간 격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창작과 비평』, 제47권 제3호, 71-89.

적으로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지구화에 따른 경제 통합과 경제적 개방도의 증가, 국제적 분업구조의 변화라는 국외적 환경 요인도 분석해야 하며, 그런 환경변화에 참여하고 영향을 받게된 각 국가들 내부 혹은 지역단위에서 경제적 개방에 따른 부작용에 대응하지 못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정치적 분리주의나,⁹⁸ 극단주의가 발생해 정치적 통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외국인과 소수자, 타자에 대한 관용이 악화되고 폐쇄적 집단 정체성이 강화되는 악순환적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6-6〉 한국의 경제적 개방도(GDP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 변화 (단위: %)



출처: World Bank DB.

그렇다면 이런 현상은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을까? 한국 사회도 세계 경제로의 통합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그림 2-6-6〉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경제 개방도)이 지속적으로 증가(2011년 110%, 2016년 77%에서 2018년 현재 83%)하며 경제적 개방이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산업구조와 직업분포가 변화하면서 동시에 더 나은 교육기회를 둘러싼 경쟁도 심화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며 구중산층의 교육기회 차단에 따른 계층 이동성 악화⁹⁹가 포퓰리즘 성향의 증가와 함께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의식조사는 통일과 분단이라는 특정 문제에 특화된 여론조사로서, 일반 사회조사처럼 개인과 사회의 성격에 대한 상세한 설문문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성별, 나이, 교육 수준, 소득 수준, 지역, 이념 성향 등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통일문제, 북한에 대한 관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에 대한 입장차이에 응답자의 사회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포퓰리즘’적 태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다수의 연구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이나 신뢰도의 저하, 혹은 이주민에 대한 반감¹⁰⁰ 같은 태도에 주목했으며, 에커만의 경우엔 포퓰리즘적 태도의 핵심을 엘리트에 대한 반감, 인민주권,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고, 순수한 ‘국민’과 ‘부패한 엘리트’로 구분하고, 엘리트는 악이고 국민은 선이라는 이분법을 결합시키는 것에 주목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포퓰리즘적 태도는

99] Hisam Kim (2015), "Resetting Education Policy to Restore Social Mobility", KDI Focus (Sep 1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100] Cavaille(2019)

98] Alberto Alesina and Enrico Spolaore, 2003, *The Size of Nation*, The MIT Press. pp.217-223.

다원주의나 엘리트주의와 구분되는 태도로 파악한다.¹⁰¹

올해 통일외식조사에서는 포퓰리즘적 태도의 요소로 언급된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나 신뢰도, 엘리트에 대한 반감과 다원주의에 대한 인식 등을 측정할 설문을 체계적으로 포함하진 않았다. 하지만 개인의 정치 성향을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확인하는 설문을 포함하였고, 이를 통해 응답자들의 범죄자나 이주민 등 타자들에 대한 관용적 태도, 복지와 경제 성장에 대한 입장, 경제적 기득권과 불평등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¹⁰²

따라서 아래에서는 한국사회의 사회변동이 사회 갈등 지형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그것이 통일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관용과 포용적 태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4. 한국 사회변동과 통일외식의 분화: 기술적 분석

먼저 통일의 필요와 기대에 대한 여론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여론이 분화되어 차이가 발견되었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서 교육, 소득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2007년-2010년까지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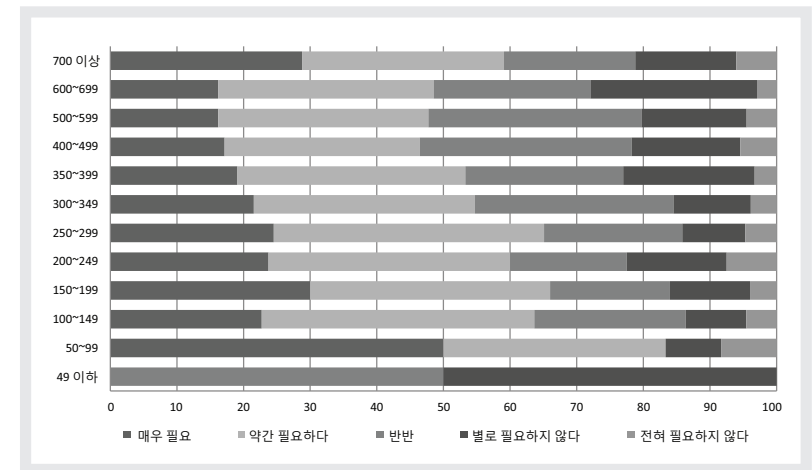
101) Akkerman, Agnes, Cas Mudde, and Andrej Zaslove. 2014. "How populist are the people? Measuring populist attitudes in vote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9): 1326-27.

102) 아시아나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포퓰리즘 인덱스를 집계하여 간행하는 경우가 없지만, 아시아의 대표적 포퓰리즘에 대한 연구는 Mizuno, Kosuke and Pasuk Phongpaichit (eds). 2009. *Populism in Asi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를 참조.

나, 2014년부터 이 경향에 변화가 발생하며 2019년 조사결과에서는 아래 <그림 2-6-7>에서 보이듯이 소득수준과 통일 필요에 대한 지지가 반비례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고소득, 고학력 층은 현상유지를 원하고, 저소득, 저학력 층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통일을 바라는 경향이 생겨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6-7>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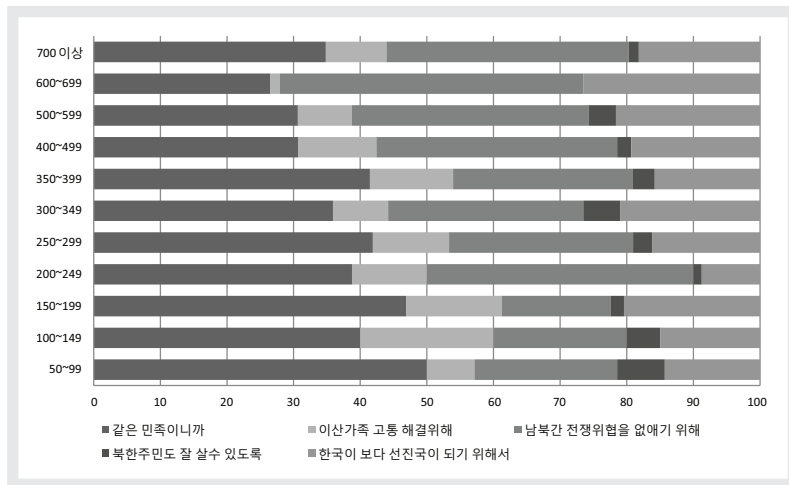
다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 소득 격차에 비해 교육 수준 격차는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장 교육수준이 높은 대학원 재학 이상의 집단에서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기대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앞의 1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통일의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도 1) 민족주의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 전쟁위험 해소를 위해, 그리고 3) 경제 성장과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답변의 비중이 시기별로 변화하는

것에도 소득수준 차이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림 2-6-8>에 따르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과, 남북간 전쟁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실용주의적 응답에 소득에 따른 응답 비중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그림 2-6-8> 소득 수준에 따른 통일의 이유

(단위: 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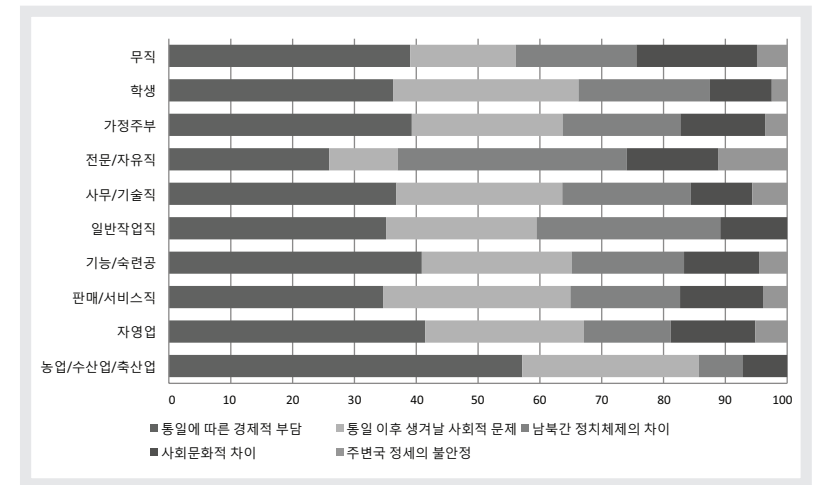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에도 경제적 원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올해 조사 결과 통일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고,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그 다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그림 2-6-9>에서 보이듯이 1차산업 종사자 >자영업자 >기능/숙련공 >가정주부 >학생/무직 순으로 높아, 소득 수준과 불안정에 따라 경제적 부담을 더욱 크게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이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통일의 편익’에 대한 여론에서도 사회 전반의 이익의 분배에 대한 여론의 시선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2-6-

10>에서 보이듯이 2007년 조사에서는 통일이 한국 전체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5.8%,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이 30.3%였으나, 2019년에는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다소 상승해 61.8%가 되었으나,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30.9% 수준에 머물렀다. 더 주목할 것은 2007년 이후 전체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과 개인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인식의 격차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그림 2-6-9> 직업별 통일에 반대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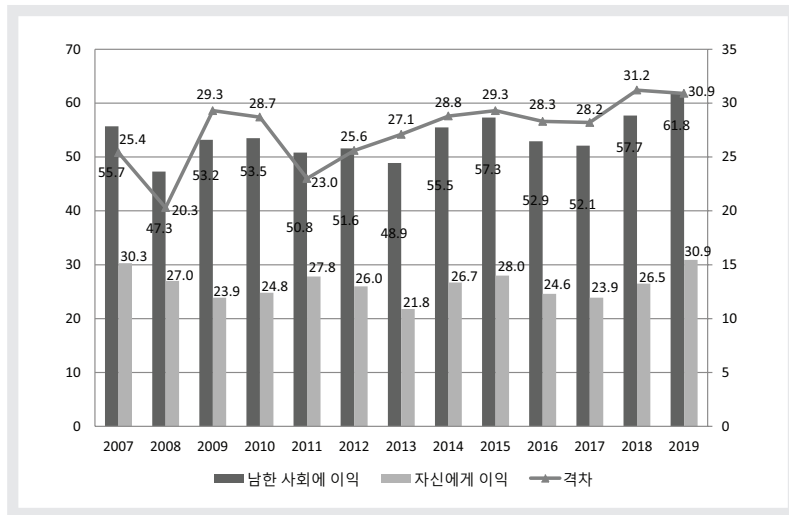
(단위: %)



이를 연령, 직업, 소득, 지역, 이념 차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39세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44%)으로 인식하고, 농수축산업 종사자는 66%가, 소득 200만원 미만은 71%, 충청권은 77%, 진보적 이념 성향의 70%가 이익이 될 것으로 인식한 반면, 전업주부의 44%, 소득 400만원 이상 40%, 영남 거주자의 46%, 대도시 거주자의 42%, 보수적 이념 성향의 46%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가 차원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에 대한 기대에 차이가 나는 것은 1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남한 전체'의 이익은 추상적이지만, '개인의 이익'은 구체적이기 때문일수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에서 통일이 가져올 이익에 대한 인식이 특히 악화되고 있으며, 통일이라는 거시적 사회변동이 가져올 이익이 개인들의 차원에서도 어떻게 분배될 것인지에 대해 이념적 차이 뿐 직업, 지역, 소득 차이에 따라 다르고 어떤 차이가 부정적 기대에 영향을 주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6-10〉 통일 편익의 연도별 변화와 전체·개인 격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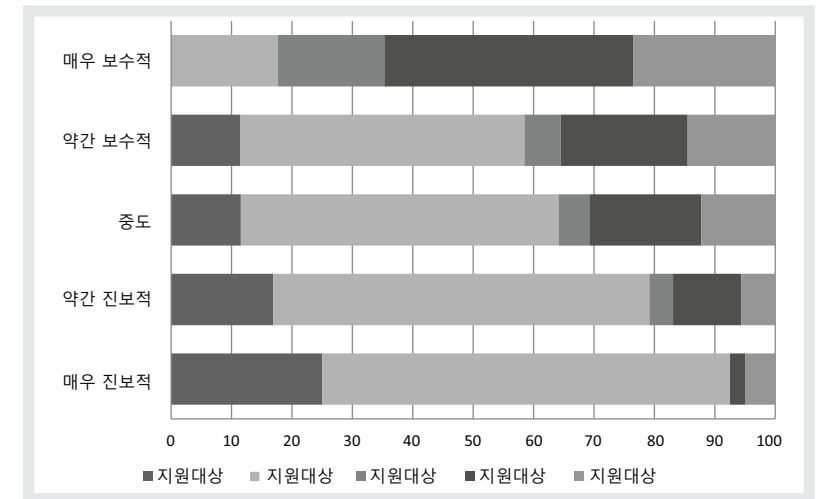


5. 한국 사회변동과 사회적 관용과 포용의 악화: 기술적 분석

다음으로 한국의 사회변동이 '새로운 포퓰리즘'의 대두로 이어져 한국 사회의 포용과 관용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올해 조사결과를 토대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한국사회의 포용과 관용¹⁰³에 대해서는 통일의 식조사의 설문항목 중에서 북한에 대한 포용적 인식, 탈북자, 이주민에 대한 사회통합적 태도와 범죄자에 대한 관용, 경제문제에 대한 인식과 복지나 분배에 대한지지에 관한 항목을 선택했다.

〈그림 2-6-11〉에서 보이듯이 전반적으로 올해 조사 결과에서는 남북 관계를 협력관계로 보고 북한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커졌지만, 진보/보수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11〉 남북관계를 협력관계로 보는 진보·보수 인식의 차이 (단위: %)



103) 다른 국가들과 비교한 한국의 사회적 포용 지수에 대해서는 다음 연구를 참조. Zanakis, S., W. Newburry and V. Taras, 2016. "Global social tolerance index and multi-method country rankings sensitivit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47(5), pp.480-495.

2015년-2017년 조사에서는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최저점(56%)이었던 것에 비해 올해 조사에서는 많이 상승(70.9%)했으나 2009년 수준으로 2018년 수준에 비해 다소 하락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정치 성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진보적인 집단은 남북관계를 지원대상, 혹은 협력 관계로 보는 비중(67.5%)이 다수이고, 보수적인 집단은 경쟁과 경계 혹은 적대대상으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한국사회에는 북한문제에 대한 여론 차이뿐 아니라, 경제적 분배와 불평등, 경제 성장과 기득권의 문제에 대한 여론의 차이가 존재한다.¹⁰⁴ 특히 최근에는 중산층이 약화되면서 과거의 중산층들이 점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포용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올해 조사에서는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재벌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높고(66.3%), 역시 진보(76%)와 보수(54%)의 의견 차이가 컸다. 그런데 ‘경제 성장을 위해 노조를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한 찬성도 58.8%여서 전반적으로 ‘경제적 기득권’으로 여겨지는 영역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각함에 대한 인식이 강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또한 경제적 분배와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경제 성장 보다는 복지’를 중심에 두는 것에 대해 찬성여론은 46.4%이고 반대여론이 더 높다(53.5%).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보(54.3%)와 보수(34%) 사이의 의견

104] 한국사회에서는 여러 분야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여론 조사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 법집행(74%), 소득과 재산 분배(71%), 취업기회(71%), 승진과 진급(65%)이 불공정하다는 답변이 많았다.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2018년 2월, 한국리서치.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716>) 2020. 1. 15. 액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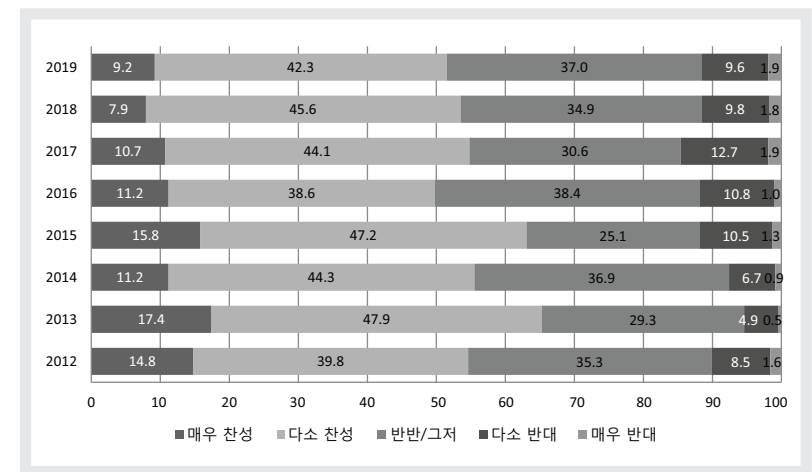
차이가 비교적 크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복지나 분배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다소 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타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시선은 어떠할까. 탈북자, 이민자, 범죄자 등 사회적 타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적 시선에 사회경제적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2-6-12>에서 보이듯이 다문화 포용성이 가장 높았던 2013년(찬성 65.3%)에 비해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로 2019년에는 51.5%가 찬성하고 있다.

<그림 2-6-12> 다문화에 대한 포용성의 연도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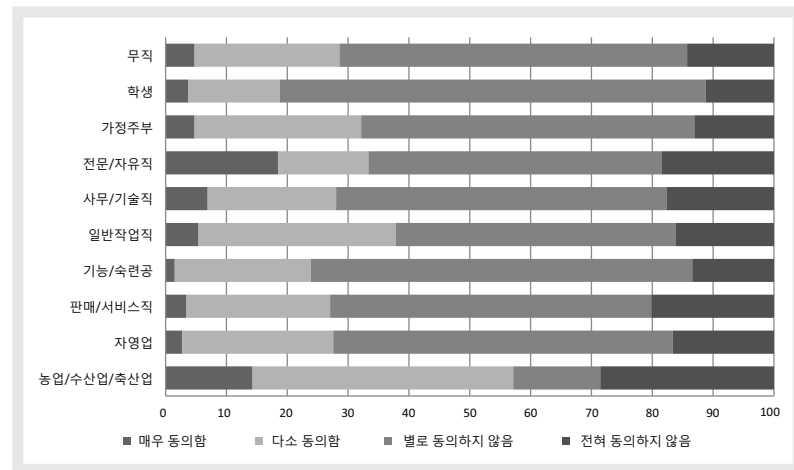


그리고 <그림 2-6-13>에서 보이듯이 ‘탈북자가 취업을 위협한다’는 의견이 가장 낮았던 2011년(21.9%)에 비해 다소 상승하여 2016년에는 최대치(38.6%)에 도달했다가 다소 하락하여 2019년에는 28.1%가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직업(1차산업,

일반 블루칼라, 가정주부, 무직, 자유직, 자영업 종사자 순으로)에 따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범죄자에 대한 관용의 시선 역시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형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진보와 보수 크게 차이 없이 반대 여론이 높은 편으로 확인되었다.(67.6%)

〈그림 2-6-13〉 북한이탈주민이 취업을 위협한다는 응답의 직업별 차이 (단위: %)



이상이 한국의 최근 사회변동이 통일의식과 사회적 포용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술적 분석이었다면, 이러한 변화가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확인되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6. 통계적 분석

이 글은 한국사회에서 가장 두드러진 갈등 구조가 통일과 남북관계를 둘러싼 의견차이에서 나타나는 만큼 여기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 무엇인지를 순위로짓(ordered logit) 분석¹⁰⁵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특히 한국의 지난 수년간의 사회변동이 새로운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사회적 포용성과 관용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가설하에 이번 조사 결과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¹⁰⁶

먼저 통일과 관련된 분야의 올해 조사 결과에서도 통일의 필요성, 통일이 가져올 편익, 북한을 협력 대상으로 보는 인식, 북한이 많이 변화했다고 보는 인식 등 한국사회 여론의 차이가 가장 큰 대표적 질문들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계수나 오즈비¹⁰⁷로 보아도 모두 주관적 이념성향(진보-보수)¹⁰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북한에 대한 태도가 한국 사회의 진보-보수 이념차이를 가르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미약한 수준이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인식

105] 설문 항목들이 나이, 교육수준, 소득수준, 이념 성향척도 등 여러 단계를 갖는 순위변수(ordered variable)일 경우 변인들의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106] 조사결과 원자료의 분석을 위해 이 장에서는 SPSS25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107] 오즈비(odds ration)는 분석 모델이 비선형 회귀분석일 때 직접적인 계수가 아닌 독립변수 1단위 증가시 종속 변수가 증가할 확률로서 이를 통해 각 변수가 독립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다.

108] 통일의식조사는 설문문항에서 "00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고 이를 5점 척도 ① 매우 진보적 ② 약간 진보적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로 답한 것을 토대로 이념 성향을 측정하고 있다.

에서 <표 2-6-1>에 나타난 것처럼 소득차이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관적 이념성향 차이 뿐 아니라 소득 차이도 북한에 대한 태도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새로운 포퓰리즘'적 태도의 특징으로 볼수 있는 낮은 포용과 관용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다문화 포용성, 탈북자의 취업 위협에 대한 인식, 경제 성장보다 복지에 대한 우호적 태도, 이주노동자나 난민에 대한 규제, 사형제 폐지에 대한 질문을 선택하고 여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변인이 무엇인지를 마찬가지로 순위로짓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포용성, 복지에 대한지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에는 이념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지만, 탈북자가 취업을 위협한다는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성별이며, 두 번째는 소득 차이이고, 마찬가지로 복지에 대한 지지에도 소득차이가 두 번째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말하자면, 진보-보수 이념 성향의 차이는 다문화에 대한 포용, 복지에 대한 지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규제 문제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나며, 보수적일수록 이주노동자, 다문화주의, 복지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취업을 위협한다는 인식에는 소득차이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소득이 낮을수록 북한이탈주민을 경제적 경쟁자로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경제적 기득권과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역시 이념성향이 가장 큰 변인임이 확인되었는데, 진보적일수록 재벌에 대한 규제를 찬성하고, 보수적일수록 노조에 대한 규제에 찬성하는 의견이 강했다.

<표 2-6-1> 통일의식과 포용관련 여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장 큰 영향 변인 계수(오즈비)		1	2	3
통일 / 남북 문제	통일 필요성	이념 0.6(1.82)	성별 0.31(1.36)	소득 0.04(1.04)
	통일 편익	이념 0.49(1.63)	소득 0.05(1.06)	
	남북 협력관계	이념 -0.73(0.48)	지역	
	북한의 변화	이념 0.611(1.84)	지역	
포용성	다문화 포용성	이념 0.4(1.5)		
	탈북자 취업위협	성별 -0.2(0.81)	소득 0.05(1.05)	
	성장보다 복지	이념 0.44(1.55)	소득 0.08(1.08)	
	이주노동자, 난민 규제	이념 -0.19(0.82)		
경제 기득권 / 규제	사형제 폐지	이념 0.18(1.19)		
	노조 규제	이념 -0.14(0.86)		9.1
	재벌 규제	이념 0.41(1.52)	지역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아래 <표 2-6-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6-2> 통일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결정 요인에 대한 순위 로짓 분석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편익		북한은 협력대상		북한은 변화했다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지역	-.042***	0.958	-.032**	0.968	.105***	1.110	-.047***	0.954
성별	.312**	1.366	.183	1.20	-.240	0.786	.004	1.004
나이	-.030***	0.970	-.010	0.99	.014	1.014	-.008	0.992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편익		북한은 협력대상		북한은 변화했다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이념	.602 ***	1.825	.494 ***	1.638	-.730 ***	0.482	.611 ***	1.842
교육	.000	1	-.001	0.999	-.015	0.985	.006	1.006
소득	.047 *	1.048	.058 **	1.059	-.041	0.959	-.041	0.959

*** P< .01 ** p< .05 * p< .1

통일의 필요성에는 이념과 성별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통일의 편익에는 이념과 소득 차이가 중요 요인이었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북한이 많이 변화했다고 보는 인식에도 역시 이념 성향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렇다면 외국인에 대한 다문화적 포용과 탈북자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식, 복지에 대한 태도에는 어떤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을까? <표 2-6-3>에 정리된 것처럼 다문화 포용성, 복지에 대한 태도, 이주노동자와 난민에 대한 규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념 차이였는데, 대체로 진보적이라고 스스로 인식할수록 포용성이 높았다. 그런데 탈북자가 취업을 위협한다는 인식과 복지에 대한 지지에서는 소득차이의 영향력도 두 번째로 큰 것이 확인되었다.

<표 2-6-3> 포용성과 관용의 결정 요인에 대한 순위로짓 분석

	다문화 포용성		탈북자가 취업 위협		성장보다 복지		이주노동자 난민 규제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지역	-.039 ***	0.961	-.033 **	0.967	-.046 ***	0.955	.014	1.014
성별	.111	1.117	-.203 *	0.816	-.079	0.924	-.002	0.998
나이	-.002	0.998	-.001	0.999	.003	1.003	-.003	0.997

	다문화 포용성		탈북자가 취업 위협		성장보다 복지		이주노동자 난민 규제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계수	오즈비
이념	.409 ***	1.505	-.006	0.994	.442 ***	1.555	-.190 **	0.827
교육	.006	1.006	-.001	0.999	.007	1.007	-.014	0.986
소득	.024	1.024	.053 **	1.054	.084 ***	1.087	-.026	0.974

*** P< .01 ** p< .05 * p< .1

이처럼 올해 조사에서는 이 글이 분석한 남북관계, 포용 관련 분야에서 이념 성향이 지역, 세대, 성별, 교육 수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소득차이가 미약한 수준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세대나 교육수준, 지역차이 보다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즉 오랫동안 그랬던 것처럼, 진보-보수 이념차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생각과 경제적 양극화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뚜렷히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에는 지역차이나 세대차이가 중요한 사회적 차이였다고 한다면, 통일의 편익이나 복지, 북한이탈주민을 취업 위협으로 보는 인식 같은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세대, 지역, 교육수준 보다 소득수준의 차이가 비록 미약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등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국인들의 주관적 이념성향 자체에 북한문제 이외에 어떤 사회적 특성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글은 이념 성향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을 순위로짓 분석으로 확인해 보았더니 소득과 나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보수적인 태도와 나이는 비례하고, 소득수준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기존의 조사 결과들에서처럼 통일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에 단지 이념 차이와 지역 차

이, 세대 차이만 두드러진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가 이념 성향의 차이 그리고 통일에 대한 여론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6-4〉 진보적-보수적인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계수	오즈비	유의확률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위치	소득	-.089***	0.914	.001		-.140	-.039
	교육	-.002	0.998	.813		-.022	.017
	직업	.001	1.001	.941		-.034	.037
	지역	-.016	0.984	.169		-.039	.007
	나이	.025***	1.025	.000		.017	.033

7. 소결

이 글은 이념, 지역, 세대, 교육수준 등을 둘러싼 한국 사회의 갈등지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구화와 경제 통합에 따른 사회변동이 한국 사회의 통일에 대한 여론과 '새로운 포퓰리즘'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려 했다. 그 결과 이 연구는 한국 사회의 오랜 갈등 구도인 이념 차이가 지역, 세대, 교육수준 차이에 비해 여전히 통일에 대한 여론 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울러 소득 차이가 통일이나 경제문제와 관련된 특정 분야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즉, 비핵-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협력적으로 보는 여론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하나, 이념 차이에 따른 통일, 북한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인식(필요, 기대, 이유, 이익)의 차이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나아가 이념적 차이 뿐 아니라 소득, 교육 격차에 따라 여론이 분화되고 있었다. 특히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된 집단에서 통일이나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포용성도 다소 하락하는 추세이며, 학력, 소득, 직업 차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위협을 특히 크게 인식하는 집단들도 있었다. 또한 보수/진보 이념 차이에 상관 없이 범죄자에 대한 사형 폐지에 부정적 인식을 보이는 등 사회 전반의 관용적 여론은 높은 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통계분석을 통해서도 통일, 남북, 포용, 경제분야 갈등의 가장 큰 변인은 여전히 이념인 것으로 나타나, 통일문제, 경제문제에 있어서 이념에 따른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기존에는

지역, 세대, 성별, 교육 수준 차이가 큰 것으로 보았는데, 올해에는 통일의식이 있어서 소득격차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등장했다.

즉, 2018년 이후 평화프로세스를 통해 남북 관계를 협력적으로 보는 인식이 증가했으나, 경제적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포용적 인식이 줄어드는 집단에서 특히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포용성, 탈북자에 대해 부정적 인식, 범죄자에 대한 불관용적 여론 등 새로운 포퓰리즘과 포용성 분야에서 이념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득격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다. 진보/보수 이념 차이 자체에도 소득 격차가 나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이념적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가 겹쳐서 드러나는 양상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무엇보다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이 어떤 상호 작용과 영향 관계를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충분한 분석과 답을 제시하지 못했고 시계열적으로 그러한 사회적 갈등 지형의 변화를 재검토하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이 연구가 주목했던 '새로운 포퓰리즘'의 대두를 측정할 수 있는 정확한 설문문항과 지표들이 없는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포괄적인 인과적 관계나 선명한 결론을 내릴수 없는 분석의 한계도 분명하다. 이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¹⁰⁹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적 쟁점에 있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

능함에도 유독 통일과 남북관계, 경제분야에 있어서 극심한 이념 양극화의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연구의 결과는 지정학적 갈등과 이념적 양극화에 추가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겹쳐서 해소하기 어려운 복합갈등이 누적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그동안 한국 사회의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라는 뿌리 깊은 현상에 대해서는 지정학적 배경, 분단, 전쟁, 불균형 발전, 권위주의의 유산, 대통령-양당제 정치, 불평등 심화가 맞물린 복합적 산물이라는 기존의 분석과 지적¹¹⁰이 있었다.

포스트-지구화와 '새로운 포퓰리즘'의 대두로 부를수 있는 최근의 현상이 초래한 어려움들에 비교적 잘 대응하며 다양한 사회 갈등을 성숙한 민주 정치와 사회적 역량으로 풀어내는 것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은 더 평화로운 지역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경제적 개방에도 불구하고 더 성숙하고 개방적인 민주주의 정치를 토대로 수십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정치와 외교활동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경제적 성숙도와 경제적 개방도는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오히려 높은 수준과 역량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와 달리 민주주의 정치의 개방성과 성숙, 안정성을 유지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치 발전에 구조적 제약을 가하는 요인들에는 구조적인 지정학적 갈등과 오랜 권위주의의 유산, 대통령/양당제 정치 제도의 장단점, 정치에 대한 높은 불신들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고령화, 양극화 추세는 제도에 대한 불신의

109) 통일인식조사는 주로 통일과 남북관계 북한과 주변국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 초점을 맞춘 조사이며,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항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한국종합사회조사> 등의 구체적 사회조사와 달리 응답자의 직업, 학력, 고용 형태와 지위, 근속연수, 가계소득, 자녀세대의 생활수준 예상,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생관과 사회적 태도, 사회활동에 대한 상세한 설문 항목은 없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10) 이내영, 2011; 이성우, 2011; 장덕진, 2014; 정동준, 2018; 채진원, 2017.

수준을 높여¹¹¹ 정부가 여러 외교, 경제, 사회문제에 대한 정책을 펴기에 부정적인 상황을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관점에 따라 다를 것이다. 사회경제적 배경을 주목하는 관점에서의 해결책은 ‘기회’를 확대하는 것. 즉 유치원부터, 직업 훈련, 공교육, 교육 재정의 중앙정부의 할당, 대학교육의 보조, 성인들의 직업훈련과 재교육에 대한 더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¹¹² 문화적 태도를 중요시 하는 관점에서는 특히 반이민 정서에 대해 더 많은 사람에게 고등교육(secondary education)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¹¹³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한 정치 연합과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것, 지정학적 갈등과 국가간 관계를 더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다른 거시적인 차원의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새롭게 변화된 환경에 직면한 통일문제와 통일여론의 문제는 단지 통일정책의 문제만이 아닌 지정학적인 갈등 해소와 평화구축, 국제 정치 경제학적인 변화가 초래하는 새로운 사회갈등에 더 안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 포용적인 민주주의를 만들고 지키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통일 정책 분야는 오늘날 변화하는 외교 환경에서 무엇보다 연속성과 지속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국민 여론의 탄탄한 지지를 받아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분야이다. 이 글은 ‘포스트 지

구화’ 현상과 ‘새로운 포퓰리즘’의 대두에 주목함으로써, 대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안정성은 외적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만 내적 갈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거시적, 복합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오늘의 현실을 강조하고자 했다. 즉 지구화와 경제통합이라는 ‘전통적 안보 위협’이 아닌 경제 현상 자체가 초래하는 환경 변화와 사회변동이 어떻게 국내 정치, 경제, 사회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포착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는 이러한 포괄적 인과관계를 파악하기에는 조사의 항목과 이론적, 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시계열적 차이와 추이를 확인하고, 세대 변화, 문화 변화, 경제적 양극화와 사회변동에 따른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변화, 지위에 대한 불안, 이민에 대한 태도, 정당 선호,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도, 정치와 정부에 대한 신뢰 등의 종합적 연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는 후속 연구들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111] 장덕진, “고령화는 어떤 세상을 가져올까?: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본 고령화 30년의 경험”, <다가온 인구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 12회 SNU 국가정책포럼, 2019.12.11.

112] (Iversen Soskice 2019, 243).

113] Cavaille(2019).

참고문헌

- 구인회, 2019, 『21세기 한국의 불평등: 급변하는 시장과 가족, 지체된 사회정책』, 서울: 사회평론 아카데미.
- 김선빈, 2014, “한국 사회갈등의 진단과 통합 촉진 자원으로서 신뢰”, 이영훈 엮음, 『한국형 시장경제 체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학재, 2019, ‘사회적 평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경제와 사회』.
- 박경숙, 2018, “동북아와 아시아의 인구 네트워크와 사회문화적 영향.” 32-70 손정렬, 김상배, 박경숙, 권규상 『네트워크로 바라본 아시아』,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외식조사』, 2007-2018.
- 안효상, 2019 “디지털 전환: 포퓰리즘의 최신 계기”,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대전환: 유토피아 혹은 디스토피아”, 제 22회 비판사회학대회, 2019. 10. 26,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 이내영, 2011, “한국사회 이념갈등의 원인”, 『한국정당학회보』, 10(2): 251-287.
- 이성우, 2011,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당파적 배열”, 『민주주의와 인권』, 11(3): 109-138.
- 장덕진, “고령화는 어떤 세상을 가져올까?: 세계가치관조사를 통해 본 고령화 30년의 경험”, <다가온 인구 위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제 12회 SNU 국가정책포럼, 2019.12.11.
- 장덕진, 2014, “박근혜 정부 지지율의 비밀: 정치적 양극화”, 『황해문화』, 82: 32-47.
- 전병유·신진욱 편, 2016, 『다중격차: 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서울: 페이퍼로드.
- 정동준, 2018,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유권자들의 정치 양극화”, Oughtopia 33(3): 143-180.
- 정준호, 2019, “지역 간 격차,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창작과 비평』, 제47권 제3호, 71-89.
- 조영태, 2016, 『정해진 미래: 인구학이 말하는 10년후 한국 그리고 생존전략』, 북스톤.
- 채진원, 2017, “남남갈등에서의 정치적 양극화와 중도정치”, 『통일인문학』, 69: 161-199.
- Akkerman, Agnes, Cas Mudde, and Andrej Zaslove. 2014. “How populist are the people? Measuring populist attitudes in voter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7(9): 1324-53.
- Akkerman, Tjitske, Sarah de Lange, and Matthijs Rooduijn (eds). 2016. *Radical Right-Wing Populist Parties in Western Europe: Into the Mainstream?* London: Routledge.
- Alberto Alesina and Enrico Spolaore. 2003. *The Size of Nation*, The MIT Press.
- Bornschieer, Simon. 2010. *Cleavage Politics and the Populist Right: The New Cultural Conflict in Western Europe*.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Carles Boix and Susan C. Stokes eds. 2007. *The Oxford Handbook of Comparative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Cavaille, Charlotte, Marshall, John, “Education and Anti-Immigration Attitudes: Evidence from Compulsory Schooling Reforms across Western Europ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2019. 113, 1, 254-263
-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et al eds. 2017. *The Oxford Handbook of Populism*, OUP Oxford.
- Flora, Peter eds. 1999. *State Formation Nation-building and Mass Politics in Europe: The Theory of Stein Rokka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alston, William A. 2018. “The Populist Challenge to Liberal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29(2), pp.5-19.
- Gidron, Noam, and Peter A. Hall. 2017. “The politics of social status: Economic and cultural roots of the populist righ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8: S57-S84.
- Gosta Esping-Andersen. 1992. “Postindustrial Cleavage Structures: A Comparison of Evolving Patterns of Social Stratification in Germany, Sweden, and the United States”, in Frances Fox Piven eds. *Labor Parties in Postindustrial Societ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ramlich, J. 2017. “Most Americans Would Favor Policies to Limit Job and Wage Losses Caused by Automation,” Pew Research Center. HYPERLINK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10/09/most-americans-would-favor-policies-to-limit-job-and-wage-losses-caused-by-automation/>”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17/10/09/most-americans-would-favor-policies-to-limit-job-and-wage-losses-caused-by-automation/>”(2020.1.13. access)
- Grattan, Laura. 2016. *Populism's Power: Radical Grassroots Democracy in Ameri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isam Kim. 2015. “Resetting Education Policy to Restore Social Mobility”, KDI Focus (Sep 18), Korea Development Institute.

Hochschild, Arlie R. 2016. *Strangers in Their Own Land: Anger and Mourning on the American Right*. New York: New Press.

Iversen, Torben, Soskice, David. 2019. *Democracy and Prosperity: Reinventing Capitalism Through A Turbulent Centu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Jens Rydgren. 2018. *The Oxford Handbook of the Radical Right*, Oxford. OUP.

Kim Hak Jae. 2017. "Post-Globalization and the Art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lition Politics, Consensual Democracy, Peace Process", organized by Gyeonggi Province-North Ireland at Belfast Ulster Museum, Ireland. September 17-22th, 2017.

Laclau, Ernst. 2005. *On Populist Reason*, London and New York: Verso.

Lipset, Seymour M and Rokkan, Stein.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An Introduction," in Lipset and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Free Press.

Manwarin, Rob and Paul Kennedy eds. 2018. *Why the Left Loses: The Decline of the Center-Left in Comparative Perspective*, Bristol and Chicago: Bristol University Press.

Mizuno, Kosuke and Pasuk Phongpaichit (eds). 2009. *Populism in Asia*. Singapore: Singapore University Press.

Moffitt, Benjamin. 2016. *The Global Rise of Populism: Performance, Political Style, and Represent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Mudde, Cas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2017.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Norris, Pippa and Ronald Inglehart. 2019. *Cultural Backlash: Trump, Brexit, and Authoritarian Popu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Revenli, Marco. 2019.



제7장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 유형화 연구¹¹⁴

| 김희정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서론

2018년 남북관계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화해 무드로 진입하면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2019년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다시 긴장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평화와 통일이 가까이 온 듯 하다가 다시 경색되는 분위기 속에 우리 국민들은 통일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낄까? 본 연구는 남북관계가 화해와 대치, 긴장의 등락을 거듭해 오면서 형성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었다.

114] 본 장은 김희정,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 유형화 연구,” 『인문사회 21』, 제11권1호(2020)를 수정 보완한 것임.

분단 상황을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통일은 미래지향적 사건이지만 통일에 대한 감정은 오히려 과거부터 누적된 분단의 감정에 토대한다. 통일은 헤어진 한민족의 화합이라는 점에서 오랜 기간 ‘우리의 소원’이었다. 통일은 이산가족, 북한 인권,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는 당위적인 사안이었으나 한편으로는 지속되는 남북 갈등, 내부 갈등이자 정치 사회적 쟁점 중 하나였다. 70년 이상 분단이 지속되면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남북관계, 국내 정치적 상황, 대외관계 등 정치, 사회적 환경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고 통일 교육 역시 시류에 따라 변동을 거듭했다. 통일에 대한 감정은 한국 사회의 가장 첨예한 갈등 요인 중 하나인 분단과 남북갈등에 따른 정치적 사안인 한편, 개별 국민들의 경험 속에서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의 영역에서 혹은 무의식 영역에서 분화되거나 확대 파생되었을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감정은 통일이 정치적 이슈라는 점에서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속성 뿐 아니라, 분단경험, 경제상황, 개인의 재정 상태와 같은 단기적 원인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며, 국가적 정체성, 애국심, 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같은 장기적 요인과의 관련된다.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는 국민 한 개인이 분단 시대를 살면서 경험한 개별적인 감정과 사회·문화적으로 배태되고 형성된 감정의 스펙트럼으로 볼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한 사회 혹은 한 세대는 각각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형성하며 그 특성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경험과 의식, 정서의 총체인 감정구조에 기반한다고 주장했다.¹¹⁵ 감정이 개인의 미시적 삶의 영역을 넘어 집단적 차원에서 미치는 영

115] Williams, R, *Marxism and Literature*(1977), 박만준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서울: 지식은 만드는 지식, 2013).

향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10여 년은 실로 감정의 시대라고 부를 정도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감정에 집중하였다. 감성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되던 감정이 사회학, 정치학, 경영학 등 거시적 측면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세계화로 인해 유동화된 환경 속에서 사회적 삶과 개별 주체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이 속에서 감정이 전염되고 공유된다는데 기초한다. 이와 같은 감정의 연대, 공유와 같은 전염 현상의 특징 중 하나는 감정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의식적인 선상에서 감정이 전염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¹¹⁶ 감정의 영역에서 무의식적 반영은 직관과 본능, 심지어 공감보다 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으며 이렇게 전염된 감정은 역사, 사회, 개인을 매개하면서 인간 세계의 지속적인 변화과정을 이끄는 동력이 된다.¹¹⁷

통일은 그동안 인지적, 인식론적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졌으며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를 실증적으로 다룬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인간의 감정(feeling)과 인식(cognition), 행동(behavior)은 개별 주체의 태도(attitude)를 형성하는 요인¹¹⁸이라는 점에서 통일에 대한 감정과 인식, 그리고 그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통일과 관련된 정책, 정치적 행위와 태도를

116] 바르세이드는 실험실에서 감정의 전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한명의 참가가 실험실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와 위축되고 웅크린 모습을 보이는 경우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감정이 실험실에 있던 학생들에게 전염이 되었으나 학생들은 감정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여겼고 타인이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사회전염에 걸리는 과정, 행동 모방, 표정 짐작, 말투 분석, 단어 암시 등이 한데 어울리면, '전염된' 사람들의 관련 기억망을 자극해 그 감정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동일한 환경의 사람들에서 전염된 것이다(Kravetz, L. D, 2017).

117] 박형신, 정수남, 『감정은 사회를 어떻게 움직이는가: 공포 감정의 거시 사회학』(서울: 한길사, 2015).

118] Breckler, S. J., "Empirical validation of affect, behavior, and cognition as distinct components of attitud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7, no. 6 (1984), pp. 1191.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감정 양상을 살펴보고 감정구조의 유형화 분석을 실시하여 각 유형별 집단에 따라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통일인식 변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통일에 대한 감정

우리는 분단으로 발생하는 갈등에 의해 강렬한 감정을 경험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은 아직 밝혀진 바가 없으나 분단의 역사 속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남북관계의 등락과 국내 정권의 변동에 거듭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무력감과 피로감, 혹은 통일 과정과 이후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갈등에 대한 공포와 불안, 갈등 종식과 평화에 대한 희망과 기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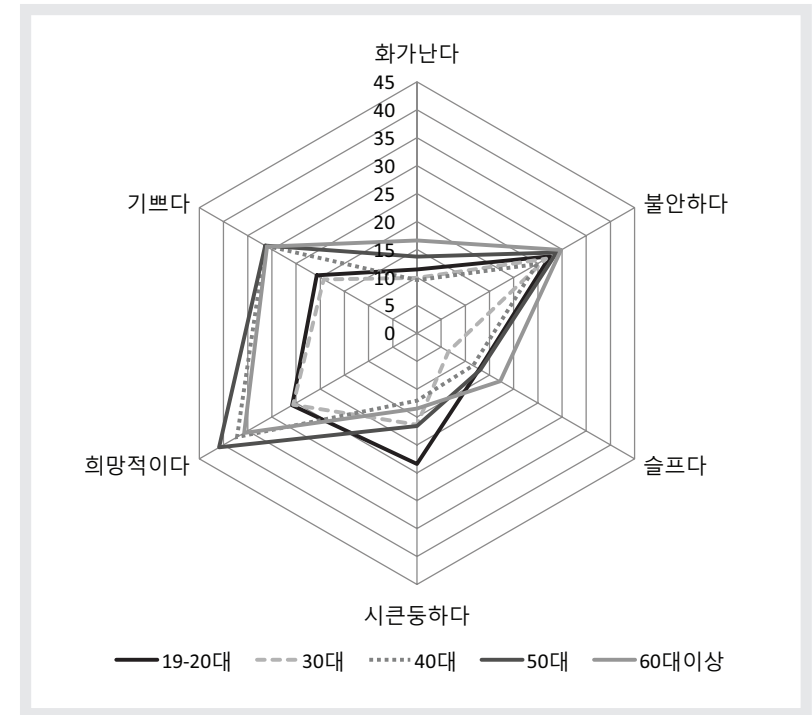
이와 같은 통일에 대한 감정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2019 통일의식조사에서 "통일을 생각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라는 질문으로 통일에 대한 감정 문항을 새롭게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화가난다(분노), 불안하다(불안), 슬프다(슬픔), 시큰둥하다(회의/무관심), 희망적이다(희망), 기쁘다(기쁨)의 여섯 가지 감정이며 1(매우 그렇다)부터 5(전혀 그렇지 않다)까지의 5점 척도로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PASW18(SPSS Inc., Chicago, I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통일 감정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전반적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았다. 응답은 역코딩하여 해당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감정이 강한 것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에 대한 감정의 평균점수는 희망적이다(3.12), 기쁘다(3.02), 불안하다(2.75), 시큰둥하다(2.57), 슬프다(2.34), 화가난다(2.32)의 순으로 나타나,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은 긍정적 감정이 높았으며 부정감정 중에서는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령대별 감정을 살펴보면, 40대, 50대, 60대 이상이 기쁨과 희망 감정에 높은 비율로 응답해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에 비해 20대, 30대에서는 불안이 가장 높았다. 불안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나 통일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났으며 분노, 슬픔은 상대적으로 전 연령대에서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시큰둥하다(무관심/회의)는 연령대별 폭이 가장 큰 감정으로 20대>50대>30대>60대이상>40대의 순으로 나타나 20대의 통일에 대한 무관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2-7-1>의 방사형 그래프에서 보면, 연령대별로 감정의 구조뿐 아니라 감정 영역 즉 넓이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20, 30대는 40대, 50대 60대에 비해 감정 영역이 좁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7-1> 연령대별 통일에 대한 감정

(단위: %)



3.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와 유형화

통일의 감정구조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문화 속에서 감정주체인 개인이 개인적 사회적 경험으로 인해 배태되고 문화로부터 형성된 '사회적 성격'을 지닌 감정이라고 볼 수 있다.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감정의 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정치경제와 그에 상응하는 마음의 열개라고 정

의하였다.¹¹⁹ 그는 한 사회의 변화는 감정구조가 변화할 때 성취된다고 하여 감정구조의 사회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감정구조란 단지 개인적 감정의 내적·주관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성격처럼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넓고 심도 깊은 의사소통이 그것에 의해 실제로 가능하게 되는 감정적 문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감정구조는 사회적 차이 뿐만 아니라 한 사회 내에서도 시대에 따라 공동체, 세대별로 차이를 드러낸다.¹²⁰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 역사적이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감정코드는 변화 가능하다.¹²¹ 우테 프레버트 교수는 ‘감정과 역사’라는 주제로 바이마르 공화국, 나찌, 동독, 서독, 통일독일의 5개 독일이 100년간 변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들의 변화와 함께 감정 표현도 변화하였음을 밝혔다.¹²² 사람들은 감정을 갖기 전에 이미 감정을 학습한다. 그런

119] Williams, R., *Marxism and Literature*(1977), 박만준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문학』, (서울: 지식만드는 지식, 2013).

120] 엄묘섭, “감정의 시대: 문화와 집합행동,” 『문화와 사회』, 제6권(2009), pp. 28-29.

121] Frevert, U, 『감정과 역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북콘서트(2019년 11월 8일 관정관 양두석출).

122] 우테 프레버트 교수는 독일의 군사문화가 바뀐 예를 들어 감정코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독일 연방공화국은 1956년 징병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병역의무는 전통적인 군사문화로 특징지어졌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군대 제도가 지금껏 남성성, 강건함, 획일성, 절도로 특징지어지던 감정 코드를 변경하였다. 서독의 많은 젊은이들이 군복무를 거부하기 위해 헌법상 규정된 병역거부권을 활용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대해 “남성성”이 상실된 것, “민간복장을 하는 것” 등에 대한 불평이 거세졌으며 “어깨 길이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여성스러운 헤어스타일” 금지가 이어졌다. 4년 이후 당시 사회민주당 국방장관이었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악명 높은 “헤어넛 포고령”으로 히피라고 불리던 긴 머리인 사람이 헤어넛을 착용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려 당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 문화 트렌드를 만들어냈다. 우테 프레버트 교수는 젊은이들이 다른 제도들로부터 느슨함, 경계넘기, 이완에 대한 갈망을 체험하고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라는 제도의 감정코드를 바꾸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데 사회의 제도적 코드와 규칙 체계는 정적이기보다는 가변적이고 전환과 변화를 거치므로 이 과정에서 사회구성원들을 사회화하기 위해 개발한 특정 코드를 변화시킨다는 점이다. 그는 독일의 역사적 사건을 20가지 감정으로 분류하였으며 감정이 역사적으로 갖는 영향력과 힘을 강조하였다.

김종곤¹²³은 한반도에 분단적대성이라는 감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성과 감정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그동안 다루어지지 않았던 집단감정(group emotion)들이 나타나는 것을 분단이 낳은 상징체계 즉 분단 문화의 사회적 결과물로 보았다. 분단 문화로부터 인해 생긴 북한과 내적 대상에 대한 분노, 증오와 같은 감정들이 남북의 정치적 목적, 냉전 정치에 의해 탄생되었으며 한국 전쟁은 이러한 분단적대성을 지속 재생산하는 역사적 경험으로 작동하였다는 것이다. 분단의 적대성은 분단국가가 위기담론을 통해 불안과 공포의 감정을 대중들에게 자극해 움으로써 국민이 북한을 우리의 삶과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위협적 대상’으로 여기거나 적대적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의미한다.¹²⁴

개인, 집단 간에 특정 사안에 대한 감정이 각각 그 강도와 현저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한 단편적 감정보다 감정의 구조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기쁨, 슬픔, 분노, 희망 등의 감정은 전 세계인들에게서 모두 나타나는 기본 감정이며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혼합감정 혹은 긍정과 부정감정이 결합된 양가적 감정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그동안 정치적 사안에 대한 감정 연구는 개별 감정의 역할에 주목하였으며 감정의 정치심리학 분야의 연구는 주로 부정

123] 김종곤, “‘분단적대성’의 역사적 발원과 감정구조,” 『통일인문학』, 제75권(2018), pp. 5-32.

124] 김종곤, 위의 논문

적 감정의 영향력을 탐색해왔다.¹²⁵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의 경우 유권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적 반응 중 분노와 희망이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참여나 투표 참여의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였다.¹²⁶ 메르스가 발발했을 당시 국민들의 감정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본 최미정, 은재호¹²⁷의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정서가 정부 대응에 의해 회복되거나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며 정부에 대한 신뢰, 국민들의 위협인식, 부정적 감정에 대한 소통과의 관계성을 설명하였다. 최근 ‘울분’ 감정이 한국 사회의 지배적인 감정으로 분노, 억울함, 슬픔 등의 복합적 감정임을 밝히고 이 감정이 사회정의 및 복지와 관련된다고 분석하였다.¹²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는 개인이 분단 사회에서 경험한 분단에 대한 역사성과 적대성, 적대성의 극복과 회복, 통일에 대한 희망 혹은 불안 등을 내포하며 분단의 시대적, 문화적 산물이자 현시대를 반영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유형화 될 수 있다. 또한 연령, 지역, 성별 등의 인구학적 요인에 따른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구조화되어 유형화되는지, 그리고 유형별 집단에 따라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25] 이강형, “정치적 사건에 대한 유권자의 감정적 반응과 정치참여의 관계: 2004년 대통령 탄핵사건을 중심으로,” 『대한정치학회보』, 제15권2호, pp. 273-300.; 최미정, 은재호, “위험소통과 정부신뢰 빅데이터 감정분석을 통한 메르스 사례분석,” 『한국정책학회보』 제27권1호, pp. 33.

126] 이강형, 위의 논문.

127] 최미정, 은재호, 위의 논문.

128] 유명순 외, “한국의 울분’ 연구가 나아갈 길: 울분 연구의 국제 동향과 전망,” 서울대 3개 연구센터 공동기획 사회과학연구세미나(2019.10.11).

1)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 유형화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가 어떻게 유형화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군집의 수는 4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7-1>과 같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의 총점은 [낮은감정], [긍정감정], [불안감정], [높은감정] 집단 순으로 높아졌으며, Sheffé 사후검증을 통해 이러한 집단간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유형 1은 [낮은감정] 집단으로 통일에 대한 전체 감정 평균이 2.27점으로 감정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집단이며, 이는 전체 감정 평균인 2.69점과 비교했을 때도 낮았으며 감정 영역 전반으로 낮은 분포를 보였다. 유형 2는 [긍정감정] 집단으로 통일에 대한 전체 감정 평균이 2.55점으로 분노, 슬픔, 회의의 부정감정이 매우 낮은 반면 희망, 기쁨과 같은 긍정감정이 높은 집단이다. 유형 3은 [불안감정] 집단으로 통일에 대한 전체 감정 평균이 2.73점으로 타 감정에 비해 불안감정이 3.67점으로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시큰둥’한 감정이 추가 되는 집단이다. 유형 4는 [높은감정] 집단으로 통일에 대한 전체 감정 평균이 3.36점으로 감정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이는 전체 감정 평균인 2.69점과 비교했을 때도 매우 높으며 전 영역별로 높은 수준의 감정 분포를 보였다. 특히 불안, 슬픔, 분노, 회의/무관심 등의 부정적 감정순으로 높으며 타 집단에 비해 희망과 기쁨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한편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이 강도(현저성)과 긍정·부정성에 따라 집단별로 유형화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집단에 따른 감정 프로파일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통일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분노 감정은 네 개의 집단을 모두 유의하게 구별하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긍정감정], [낮은감정], [불안감정], [높은감정] 집단 순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낮은감정] 집단에 대해서는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돕는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며, [긍정감정] 집단에게는 타집단의 부정적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불안감정] 집단과 [높은감정] 집단에는 부정적 정서유발요인이 개인적 혹은 집단의 특정 경험과 관련되는지 확인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다면 치유와 회복을 포함한 심리 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높은감정] 집단의 감정 분포에서 분노와 슬픔과 같이 추후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통일 교육이 제공된다면 효과적일 수 있다.

〈표 2-7-1〉 통일 감정구조 유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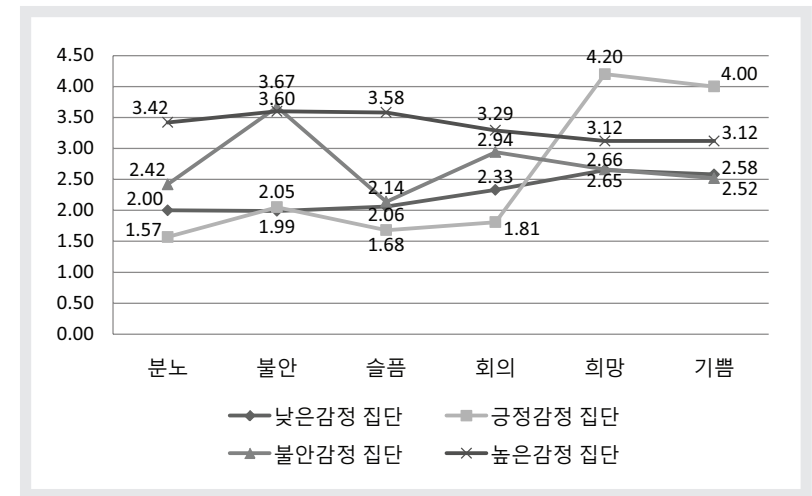
	전체 n=1197	유형1 낮은감정 n=369	유형2 긍정감정 n=282	유형3 불안감정 n=273	유형4 높은감정 n=273	F/p
분노	2.32	2.00(.59)b	1.57(.58)a	2.42(.76)c	3.42(.81)d	380.95***
불안	2.76	1.99(.54)a	2.05(.85)a	3.67(.62)b	3.60(.81)b	516.41***
슬픔	2.34	2.06(.70)b	1.68(.81)a	2.14(.59)b	3.58(.74)c	375.73***
회의	2.57	2.33(.74)b	1.81(.82)a	2.94(.90)c	3.29(.90)d	188.82***
희망	3.13	2.65(.65)a	4.20(.53)c	2.66(.78)a	3.12(.89)b	303.70***
기쁨	3.02	2.58(.64)a	4.00(.68)c	2.52(.70)a	3.12(.86)b	267.75***
총점	16.14	13.61	15.31	16.35	20.13	

p < .01. *p < .001.

※ Scheffé 사후검증 ; a<b<c<d

〈그림 2-7-2〉 통일 감정구조 유형 집단

(단위: %)



2)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차이

통일감정 프로파일에 따라 도출한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에 따른 교차분석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7-2〉에서와 같이 성별($\chi^2 = 16.561, p < .01$), 거주 지역($\chi^2 = 47.686, p < .001$), 연령($\chi^2 = 30.717, p < .01$), 정치적 성향($F = 7.788,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감정] 집단에 여성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며 [낮은감정] 집단에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표준화된 잔차의 값을 구하여 구체적으로 어느 빈도에서 차이가 나타

났는지 살펴본 결과 [낮은감정] 집단에는 영남권에서 [긍정감정] 집단에는 중부권에서 [불안감정] 집단에서는 중부권에서 [높은감정] 집단에서는 강원권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대에서 표준화된 잔차(standard residual)를 확인한 결과 [낮은감정], [긍정감정], [불안감정] 집단 모두 30-39세의 비율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높은감정] 집단에서는 60세 이상의 비율에서 차이가 났다. [긍정감정]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인구사회학적 차이를 요약하면, [낮은감정]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영남권 비율이 높으며 연령대는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하며 진보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긍정감정] 집단은 중부권에 거주하는 진보적 성향이 높은 남성이 타집단에 비해 많았으며 30-39세 연령대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불안감정]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소폭 높으며 중부권 비율이 가장 낮으며 30-39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진보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높은감정] 집단은 수도권 비율이 높으며 강원권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고 정치적 성향은 중간으로 나타났다.

〈표 2-7-2〉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차이

		낮은감정 n=369	긍정감정 n=282	불안감정 n=273	높은감정 n=273	χ ² (df), F(df)
성별	남성	172(46.6)	174(61.7)	133(48.7)	135(49.5)	16.561(3)**
	여성	197(53.4)	108(38.3)	140(51.3)	138(50.5)	
지역	수도권	151(40.9)	115(40.8)	116(42.5)	126(46.2)	47.686(15)***
	중부권	37(10.0)	58(20.6)	21(7.7)	38(13.9)	
	호남권	44(11.9)	41(14.5)	30(11.0)	27(9.9)	
	영남권	116(31.4)	46(16.3)	86(31.5)	69(25.3)	
	강원	14(3.8)	14(5.0)	11(4.0)	5(1.8)	
	제주	7(1.9)	8(2.8)	9(3.3)	8(2.9)	
연령	19-29세	70(19)	40(14.2)	63(23.1)	48(17.6)	30.717(12)**
	30-39세	77(20.9)	38(13.5)	64(23.4)	41(15.0)	
	40-49세	77(20.9)	73(25.9)	49(17.9)	53(19.4)	
	50-59세	72(19.5)	74(25.9)	52(19.0)	63(23.1)	
	60세이상	73(19.8)	57(20.2)	45(16.5)	68(24.9)	
정치적성향	3.09(.72)a	3.34(.84)b	3.05(.77)a	3.20(.81)ab	7.788(3)***	
교육수준	3.84(7.07)	3.45(.75)	4.14(8.2)	3.37(5.57)	1.148(3)	

p < .01. *p < .001.

※ Scheffé 사후검증 ; a<b<c

4. 통일의 감정구조와 통일인식

개인이 위협, 위기, 갈등이 존재하는 분단이라는 특정 문화와 맥락(context) 속에서 표출하는 통일에 대한 감정은 통일에 대한 인식

(cognition)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일반인들은 위험 인식에 있어 인지적 판단보다 감정적 판단에 근거하는 경향이 크다.¹²⁹ 통일이라는 사건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안이며 분단의 문화 속에서 형성된 집단적 감정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은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에 따른 인식의 차이와 그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성을 보여준다. 통일에 대한 감정과 인식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통일에 대한 통일 정책과 관련 정치적 사안에 대한 국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은 정치적 행위자로서 국민의 통일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고 정치적 행동을 예측하는 핵심 기제가 될 수 있다.

통일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러한 구조가 인식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정치적 이슈에 대한 감정 연구는 주로 부정적 감정과 정치적 인식, 태도와의 관계를 설명한다. 사회인지이론에서 점화는 개인의 의견 변화를 의미하며 기존에 활성화되었던 개념이나 범주가 새로운 자극정보에 대한 평가 및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¹³⁰ 특히 상대적으로 강한 감정이나 정서가 형성되는 경우 점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사안이나 정책 분야에서 형성된 부정적 감정은 이후 촉발요인에 따라 감정적 요소, 구체적으로 감정적 태도나 기분, 정서, 느낌 등이 인지과정을 선택적

으로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정의 활성화와 그 효과를 감정적 점화(affective priming)로 설명하는데 사전활성화를 통해 접근가능성이 높은 감정이 새로운 정보의 긍정성 부정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교육 연구에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정서적 교류나 긍정적 경험을 해보지 못한 집단이 느끼는 부정적 감정에 대한 교육적 고민이 제기되어 왔다.^{128]} 통일교육에서 갈등 대상에 대한 혐오, 분노, 공포 등의 감정을 조절하는 역량을 증진하고자 할 때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긍정적 감정 등 타 감정과의 관계, 그리고 통일인식에 대한 이해이다.¹³¹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감정의 현저성과 공부정성에 따른 구조를 확인하고 감정구조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각 감정구조 집단의 감정과 인지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통일교육의 정서적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통일인식의 차이

본 연구에서 통일인식은 통일에 대한 인지적 인식을 의미하며 통일(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집단이익, 통일의 개인이익), 북한(북한의 변화, 무력도발 가능성, 북핵 위협, 북한 인권사항), 탈북민(탈북자 인식)의 세 개의 하위 영역에 해당하는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인구사회학적 변인 검토 시 감정구조 집단별로 성별,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129] Lowenstein, G. E., Hsueh, C. K., & Weber, E. O., & Welch, N., "Risk all feeling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27 (2001), pp. Z67-Z86.

130] Higgins, E. T., "Continuities and discontinuities in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ve processes: A developmental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vol.57, no.2 (1989) pp. 407-444.

131] 김희정, 김선, "세대별 통일교육의 정서적 접근 방식: 정서조절 방식을 중심으로," 『통일인문학』, 제76권 (2018), pp. 233-254.

하여 공변량을 투입할 수 있는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를 실시하였다. 다변량공분산분석(MANCOVA)은 확인된 통제변수인 공변량을 통제된 이후 분류된 네 집단에 따른 통일의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수 있는 분석이다.

우선 다변량공분산분석의 기본 가정인 종속변수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동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Box's test 결과를 살펴보고, 분산이 동질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 = 1.925, p < .001$). Box's M 검증결과가 유의적인 경우, 집단크기가 유사하면(가장 큰 집단 크기 $1.5 \times$ 가장 작은 집단 크기) 별로 큰 문제가 아니며 공분산 동일성 가정을 위배하는 경우 다변량 검증시 Pillai의 트레이스를 사용하면 된다.¹³² 해당 집단의 크기가 $369 < 273 \times 1.5 = 409.5$ 로 이러한 기준을 만족하였다. 다변량공분산분석의 결과, 통일감정 구조 유형에 따라 나눈 네 집단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Pillai's Trace = 10.679, $p < .001$), <표 IV-3>와 같이 통일인식으로는 통일의 필요성($F = 50.920, p < .001$), 통일의 집단이익($F = 51.097, p < .001$), 통일의 개인이익($F = 23.733, p < .001$), 북한인식으로는 북한의 변화($F = 19.515, p < .001$), 북한 무력도발($F = 19.851, p < .001$), 북한 핵위협($F = 4.948, p < .01$), 북한의 국가성인식($F = 2.714, p < .05$), 북한 인권사항($F = 6.955, p < .001$), 탈북민 인식으로는 탈북민 인식(시민)($F = 11.247, p <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사후검정결과를 살펴보면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불안감정] 집단이 가장 낮았으며, [낮은감정], [높은감정] 집단, 그리고

[긍정감정] 집단의 순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통일의 집단이익에 대한 인식은 [긍정감정] 집단이 [낮은감정]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게, [불안감정] 집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통일의 개인이익에 대한 인식은 [불안감정], [낮은감정] 집단보다 [높은감정], [긍정감정]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낮은감정], [불안감정] 집단 보다 [높은감정], [긍정감정]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의 무력도발 인식은 [낮은감정], [긍정감정] 집단보다, [불안감정], [높은감정] 집단이 유의하게 높았다. 북한핵위협 인식은 [낮은감정], [긍정감정]이 낮았고 다음으로 [불안감정], [높은감정] 집단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북한의 국가성 인식은 [불안감정] 집단이 [긍정감정]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북한인권 사항은 [높은감정] 집단이 [긍정감정], [불안감정]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탈북민인식은 [긍정감정] 집단이 타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여기서 [불안감정] 집단은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의 집단이익, 개인이익으로 구성된 통일인식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북한의 변화는 가장 낮게, 북한의 무력도발은 높게, 북한의 인권사항은 심각하게 보였으며 탈북민 인식은 낮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132] 이학식, 임지훈, 『SPSS 20.0 매뉴얼』, (서울: 집현재, 2012).

〈표 2-7-3〉 통일 감정구조 유형별 통일인식의 차이

	낮은감정 n=369	긍정감정 n=282	불안감정 n=273	높은감정 n=273	F(df)
통일의 필요성	3.35(.98)b	4.21(.90)c	3.07(1.01)a	3.37(1.26)b	50.920(3)***
통일의 집단이익	2.61(.70)b	3.19(.69)c	2.38(.78)a	2.55(.89)ab	51.097(3)***
통일의 개인이익	2.06(.67)a	2.52(.77)c	1.95(.63)a	2.26(.86)b	23.733(3)***
북한의 변화	2.79(.66)a	3.10(.64)b	2.63(.75)a	2.69(.78)a	19.515(3)***
북한무력도발	2.53(.66)a	2.47(.74)a	2.75(.68)b	2.86(.76)b	19.851(3)***
북한핵위협	2.95(.67)a	2.93(.84)a	3.04(.71)ab	3.15(.72)b	4.948(3)**
북한의 국가성 인식	3.62(.84)ab	3.80(.82)b	3.53(.86)a	3.61(.96)ab	2.714(3)*
북한인권사황	4.11(.70)ab	4.26(.71)b	4.26(.71)b	4.02(.79)a	6.955(3)***
탈북민 인식 (시민)	2.90(.56)a	3.22(.65)b	2.92(.70)a	3.03(.80)a	11.247(3)***

*p < .05. **p < .01. ***p < .001.

※ Scheffé 사후검증 ; a<b<c

5. 소결

이상의 결과를 정리하면 본 장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 통일감정은 희망, 기쁨의 긍정적 감정에 이어 불안, 회의 등의 순으로 나타나 긍정감정에서는 희망 감정이, 부정감정에서는 불안 감정이 가장 높다. 이는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정이 희망과 불안이라는 양가적일 수 있는 두 감정의 축에서 교차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2018년 연이은 남

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인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었으나 2019년 북미 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우려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해 감정이 복합적이며 연령대별로 부정감정, 긍정감정의 차이가 나타나 연령대별 감정의 특징을 고려한 통일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둘째, 군집분석 결과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유형은 네 가지로 분류된다. 네 가지 유형은 감정의 긍정/부정성과 감정의 강도(현저성)에 따라 [낮은감정], [긍정감정], [불안감정], [높은감정]으로 구분되며 각 집단의 비율이 유사하다. 이 결과로부터 통일에 대한 감정은 단일한 감정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복합감정이 얽혀 있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개별 감정의 총점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낮은 수준의 감정 집단뿐 아니라 긍정감정 편향, 불안감정 편향, 그리고 부정, 긍정감정이 모두 높은 수준의 감정 집단과 같이 다면적, 다층적 감정유형 집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높은 감정 집단에 대해서는 분단으로 인한 트라우마와 분단의 적대성 등의 경험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겪는 심리적 불안과 고통 등 부정적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심리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통일감정구조의 네 가지 유형 집단은 각각 서로 다른 성별, 지역별, 연령대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을 갖는다. [낮은감정] 집단은 비교적 균등한 연령대로 영남권, 여성의 비율이 높고 진보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긍정감정] 집단은 중부권, 남성 비율이 높고 진보적 성향이 높았으며 30-39세 연령대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 [불안감정] 집단은 30-39세 비율

이 가장 높으며 중부권, 진보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높은감정] 집단은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고 강원권의 비율이 가장 낮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지만 타연령대 역시 유사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성향은 중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가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개인 요인과 결부되어 성별, 지역, 코호트별로 희망과 기쁨과 같은 긍정편향을 갖거나 혹은 불안, 슬픔, 분노와 같은 부정 편향, 혹은 그 모든 것이 복합된 형태로 나타나거나 특정 감정이 강하게 혹은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통일감정구조의 유형별 집단은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통일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이 연구에서 분류된 통일 감정구조 유형이 통일인식에 차이를 나타내는 주요 변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지금까지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인식론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하였다면 이 연구는 통일에 대한 다층위적 복합감정을 전제하고 한국인의 통일에 대한 감정구조가 긍정, 부정성과 감정의 강도(현저성)에 따라 유형화된다는 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방법론적으로 집단감정을 긍정, 부정 혹은 단일한 감정, 혹은 병렬식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와 달리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감정의 복합적 구조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및 정책 제언 현장에서 지금까지 이성과 합리성에 지나치게 편중된 현실 속에서 통일 감정구조에 대한 이해와 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통일에 대해 높은 감정 집단의 경우 이후 분단관련 사건 및 정책 등의 부정적 촉발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점화 효과를 나타내거나 부정적 감정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통일, 분단에 대한 분노, 슬픔, 불안 감정의 원인을 밝힘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촉발하는 요인을 줄이고 치유와 회복에 기초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분단과 통일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고 변화 가능성을 인식할 때 통일의 감정 코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인간이 갈등 대상과의 관계에서 분노나 불안 등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적응적 행위가 아니며 통일에 대한 당위성에 위반되는 부정적 정서 표출에 대한 방어기제,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등의 이유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의식적 수준에서 드러내기 어렵다. 이러한 요인을 통제하거나 이를 반영한 새로운 감정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통일에 대한 감정을 의식적 무의식적 차원에서 가장 근접하게 측정하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감정을 제한된 정서단어의 자기 보고식 설문 방식으로 측정하는 것은 무의식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역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실제 감정과 감정의 인식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감정 측정 시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융합연구로 확장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감정을 일으키며 감정구조를 형성하는 원천인 감정의 원인 및 유발 자극을 밝히지 못했다. 추후 연구에서는 감정의 원인과 유발 자극을 밝히고 실험 환경에서 이에 따라 통일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유지, 변화되는지에 대한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결 장



결장

2019년 한국인의 통일의식과 태도

2019년에는 2018년에 재개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흐름이 이어지며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그만큼 다양한 부침을 겪기도 했던 한 해였다. 연초에 북미 고위급 회담과 남북미 실무회의를 거쳐 제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되었고 그 결과 2월 27일과 28일에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하지만 영변과 그 이상의 전면적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과 경제 발전을 위한 제재 해제를 요구한 양국의 입장차로 회담이 결렬되며 교착상태가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6월의 오슬로 포럼 기조연설, 스웨덴 의회 연설 등을 통해 대화와 신뢰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고 오사카에서 열린 G20 회의 이후 6월 30일에는 판문점에서 최초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며 하노이 이후 불신과 갈등을 넘어서려는 흐름이 회복되려 했다.

하지만 중국과 미국간의 무역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간 관계에 상당한 긴장이 형성되었고, 비핵화를 둘러싼 북미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 발사가 이어졌고,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었다. 또한 한일간에는 수출규제와 강제징용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10월에 스톡홀름 북미 실무 협상이 열렸지만 입장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연초에 설정한 '연말 시한' 내에 협상 성과가 없다면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는 언급을 재확인하였다. 하지만 연말과 연초에 새로운 군사적 도발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서 한해가 마무리 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부침을 겪은 올해의 평화 외교는 올해의 통일의식조사 결과에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먼저 통일의식의 경우 2019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필요성, 통일 추진 방식, 통일 가능 시기 등의 항목에 있어 2018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해진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여 소극적 입장이 다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향후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과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2018년에 이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남북 관계 개선이 가져올 경제적 성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와 '신경제지도'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변화와 달리 지속적인 경향성도 확인되었다. 즉,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민족적 당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줄어드는 대신 전쟁위협 해소라는 안보문제 해결, 또는 한국이 보다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라는 실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아울러 통일이후 체제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도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하고, 남북한 두 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통일외식조사에서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추이로 남북의 양 체제가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하면서도 각각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현실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론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개선된 양상을 이어갔다. 즉, 올해 조사에서는 북한을 협력대상(54%) 혹은 적대대상(10.8%)으로 보는 인식,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51.6%), 북한변화에 대한 인식(70.9%) 등 전반적인 북한인식이 급상승했던 작년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금년에는 남북관계가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어 따라 작년에 평화분위기 조성으로 대체로 상승했던 여론이 지역과 세대, 정치성향 등의 변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세대의 경우 변화된 한반도 정세에 젊은층이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기존에 보였던 세대 간 인식차이가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 차이는 대북인식의 거의 모든 항목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념차이도 여전히 북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증가하는 와중에 한국 사회의 오래된 지역, 이념 차이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원에서 다시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2019년 정부의 대북정책에 부침이 있었던 것처럼,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도 지난 2년간 상승하였다가 올해에는 다소 하락한 55.92%가 되었다. 하지만 주요 대북 정책의 효용성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기대가 유지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핵무장 찬성의견은 대폭 감소하여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이고, 대체로 안보 위협보다는 비핵-평화프로세스와 한미공조, 남북교류 협력 확대를 병행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와 진보 모두 중재자로서든, 당사국으로서든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관련 활

동과 협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인식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북미 협상의 교착, 한국 정부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의 한계, 한일 갈등과 중미 분쟁 등 다양한 긴장이 표면화된 한해였지만 국민들의 주변국에 대한 선호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즉, 주변국 중에 여전히 미국을 가장 선호하고, 그 다음으로 북한에 호감을 갖는 순의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북 평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북한에 대한 위협인식은 낮아졌다. 그리고 중미 무역분쟁이 본격화되자 중국을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고, 한일 무역분쟁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인식이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다자협력에서 여전히 미국을 중시하고 있지만 미중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고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한국 사회 내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포용과 통합의 시선은 큰 변화가 없었다.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을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시민'으로 인식하는 비중(81.8%)은 약간 줄어들었다.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수용하기 보다는 선택적으로 수용해야한다는 인식이 증가세를 보이다 올해 다소 감소했지만, 친화성의 측면에서는 이웃이나 직장동료관계에 비해 사업동업자나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역별로 관용과 포용의 시선에 차이가 다시 확인되었다. 즉 모든 지역에서 민족성/국민성 인식이 증가했지만 영남권에선 감소했고, 전체적으로 영남, 강원지역에서 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수도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비해 오히려 미국인에 대한

친근감이 더 높은 반면, 제주지역에서는 북한이탈주민(43%)에 비해 미국인(11.5%)에 대한 친근감이 훨씬 낮은 모습을 보였다.

2019년의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새로운 분야에서 변화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화분석을 시도했다. 먼저 올해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와 달리 다양한 정책 분야에 대한 국민들의 선호를 묻는 설문 항목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정치적 정향(political orientation)’을 자세히 분석하고 통일의식과의 관계를 검토했다. 기존 조사에서는 진보-보수 이념 성향의 차이를 주관적 응답으로 파악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다양한 정책분야에 대한 찬반 질문을 추가했고 이를 통해 정책별 이념 성향의 차이를 새롭게 파악하고 그것이 통일문제와 어떻게 관련되어있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첫번째 심화분석에서는 통일과 북한문제와 연결된 한국 사회의 갈등 지형이 그동안 어떻게 변화했고, 2019년에는 어떤 양상을 보였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의 진보/보수 이념 차이는 주로 북한(통일)문제와 경제문제분야에서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편의분야에서 소득차이가 지역이나 나이보다 중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포용성 차원에서 탈북자가 취업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특히 소득격차가 가장 큰 변인이 되고 있고, 성장보다 복지를 선호하는 의견에도 소득차이가 두 번째로 중요한 변인이었다. 또한 진보/보수 이념 차이 자체와 연관된 가장 중요한 변인이 지역 보다도 소득과 나이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통일에 대한 여론에서 기존에 중요한 영향을 주던 이념, 지역별 차이에 이어 소득 수준 차이가 중요한 변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에 경제적 부담이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이고, 직업, 소득의 불

안정성이 높은 집단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다는 것에서도 사회경제적 요인이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통일 여론에의 영향을 보여주는 결과일 뿐 아니라, 한국사회가 지구적 시장 통합이 심화되며 나타나는 정치적 분리주의, 포퓰리즘의 대두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겪고 있고, 이런 변화가 통일여론에 영향을 주는, 갈등 지형의 복합성(이념/지역/소득/교육)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올해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통일에 대한 복합감정’을 분석하여 감정의 강도(현저성)과 긍정, 부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감정 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고 집단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통일 의식에 대한 조사는 특정 문제에 있어서의 태도와 합리적 판단, 찬성과 반대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통일과 관련된 정서와 감정에 대한 설문 항목을 추가했고, 화가난다(분노), 불안하다(불안), 슬프다(슬픔), 시큰둥하다(회의/무관심), 희망적이다(희망), 기쁘다(기쁨)와 같은 여섯 가지 감정을 통일과 관련된 사람들의 집단적 정서, 정치적 감정으로 파악해보려 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통일에 대한 정서로 가장 큰 것은 ‘희망’, ‘기쁨’과 더불어 ‘불안’인 것으로 확인되어 국민들은 통일과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불안과 동시에 희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대별로는 20-30대는 불안정서가 높았으며, 4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희망정서가 가장 컸다.

국민의 통일에 대한 감정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볼 수 있었다. 즉 첫 번째 유형은 ‘낮은감정’ 집단으로 통일에 대한 전체 감정 자체가 매우 작은 집단이었다. 두 번째는 ‘긍정감정’ 집단으로서 통일에 대해 희망, 기쁨과 같은 긍정적 감정이 높고 분노, 슬픔, 회의와 같은 부정적 감정

은 낮은 집단이었다. 세 번째는 ‘불안감정’ 집단으로서 통일에 대해 불안한 감정이 월등히 높고, 다음으로 ‘시큰둥’한 감정이 주가 되는 집단이다. 네 번째는 ‘높은감정’ 집단으로 통일에 대한 전체 감정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집단이다. 특히 불안, 슬픔, 분노, 회의/무관심 등의 부정적 감정순으로 높으며 타 집단에 비해 희망과 기쁨도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있다.

네가지 감정 유형의 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살펴보면, ‘낮은감정’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으로 영남권 비율이 높으며 진보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긍정감정’ 집단은 중부권에 거주하는 진보적 성향이 높은 남성이 타집단에 비해 많았다. ‘불안감정’ 집단은 여성의 비율이 소폭 높으며 30-39세 비율이 가장 높으며 진보적 성향이 낮게 나타났다. ‘높은감정’ 집단은 수도권 비율이 가장 높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 비율이 가장 높고 정치적 성향은 중간으로 나타났다.

불안감정을 가진 집단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긍정적 감정을 가진 집단은 통일에 대한 지지를 보여 정서와 감정에 대한 분석이 특히 통일 교육분야나 정책에 대한 국민적 설득을 추구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두 가지 심화 분석은 통일문제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어 보이는 ‘정치성 성향’의 다차원적 특성, ‘사회경제적 배경’의 변화, 그런 변화 속에서 뚜렷해지는 ‘정치적 감정과 집단적 정서’의 분화에 주목하며 통일 여론 분석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심화분석은 기존과 달라진 사회적 복잡성들,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상, 그리고 새로운 분석 대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각각의 현상이 통일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는 영향을 알려주고, 또한 다양한 분야(정치, 사회

경제, 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주고 있다. 물론 앞으로는 심화분석의 새로운 주제들을 발굴할 뿐 아니라,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추가적 논의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글을 마무리 하고 있는 2020년 2월 현재, 북한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 7기 5차 전원회의 결과 경제적으로 자력갱생·자력강화를 선택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할 것임을 밝히는 한편, 미국의 북한에 대한 입장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가 가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생일축하인사를 전달한 이후 다시 대화가 진전되기를 기대하며 금강산 관광을 개별관광으로 진행하는 것을 한국과 미국간 협의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중국에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대두되었고, 미국 내부에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으나 상원에서 탄핵안이 기각되었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며, 한국에서는 총선이 예정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도쿄 올림픽이 개최되고, 연중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다양한 계기들을 통해 다시 미뤄진 실무, 정상 회담들이 재개될지 주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2020년은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국전쟁의 종식문제가 비핵-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그리고 올해의 이런 변화 가능성들이 통일에 대한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3년간 이루어진 통일외식조사의 지속성을 이어가면 서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자료들을 바탕으로 10여년간의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

고 비교하는 종합적 연구와 유사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과의 협력문제,¹³³ 조사 사업을 모듈화하여 매년, 격년으로 진행할 설문 문항을 구분하는 일, 무엇보다 다양한 심층분석들을 더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계해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는 일들이 앞으로의 과제로 제안된 일들이다.

통일평화연구원은 이러한 제안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해나가고, 기존의 방법을 보완해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여, 통일문제라고 하는 한국의 특수한 과제에 대한 객관적 분석의 자료와 토대를 제공하고, 이를 다양한 학문 분야와 연결해 보다 보편적 학문의 성과로 만들어내는 일을 지속할 것이다.



133] 올해의 유사한 여론 조사로는 민주평통의 『통일여론』,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 2019』, KBS의 '2019 국민 통일의식조사', 국회입법조사처의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문화체육부의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등이 있다.



부 록



1. 조사 목적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과 인식변화를 연도별로 추적·비교하여 평화로운 통일한국 실현을 위한 종합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조사의 주된 목적이다.

2. 주요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미지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대북 사안별 시급성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 통일이 이익이 되는 정도 (남한/자기 자신) 통일 후 사회문제 개선 정도 예측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학교에서의 통일 교육 통일에 대한 기본
북한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북한 사회 인지도 북한 관련 경험 유무 사회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인식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하나의 국가로 북한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견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견해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에 대한 견해
대북 지원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북정책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현 정부의 대북 정책 만족도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남북관계 개선에 정부의 대북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정도 한국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 한반도 평화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

구분	내용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인종, 국가, 민족에 관한 견해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같은 민족/대한민국 시민)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도
주변국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한국과 주변 주요국의 관계 인식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예상 주변 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통일을 위해 협력해야 할 국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협력에 대한 생각 중국의 부상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정도 미·중 갈등 심화 시 한국의 입장
현재의 정치/경제/사회 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문제의 심각성 평가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남한 사회의 민주성 평가 정치에 대한 관심 정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 정치적 성향 지지정당 2017년 대통령 선거 투표 현직 대통령 직무 평가
응답자 특성 (Demographic Vari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지역크기 성 연령 종교 결혼여부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 가구소득계층 사회계층 생활수준 개선도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지역

3. 조사의 기본 설계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 분	내 용
1) 모집단	전국 17개 시도 만 19세 이상 74세 이하 성인 남녀
2) 표본 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다단계 층화 계통 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ystematic Sampling)
4) 표본 오차 ^(*)	± 2.8% (95% 신뢰수준)

<주>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표본 할당>

지역	성별	연령별					소계	합계
		19-29세	30대	40대	50대	60-74세		
서울특별시	남자	19	19	19	19	18	94	191
	여자	20	19	19	20	21	99	
부산광역시	남자	8	7	8	8	9	40	80
	여자	7	6	8	9	10	40	
대구광역시	남자	6	5	6	7	6	30	61
	여자	5	5	7	7	7	31	
인천광역시	남자	7	7	8	8	6	36	70
	여자	6	6	7	8	7	34	
광주광역시	남자	5	4	5	5	4	23	45
	여자	4	4	5	5	4	22	
대전광역시	남자	5	4	5	5	4	23	46
	여자	5	4	5	5	4	23	
울산광역시	남자	4	4	4	5	4	21	40
	여자	3	3	4	5	4	19	
경기도	남자	24	26	28	27	21	126	245
	여자	21	23	27	26	22	119	
강원도	남자	4	4	5	5	5	23	44
	여자	3	3	4	5	6	21	
충청북도	남자	5	4	5	5	5	24	46
	여자	4	4	4	5	5	22	
충청남도(세종)	남자	6	7	7	7	6	33	62
	여자	5	6	6	6	6	29	
전라북도	남자	5	4	5	6	6	26	50
	여자	4	4	5	5	6	24	
전라남도	남자	4	4	5	6	6	25	46
	여자	3	3	4	5	6	21	
경상북도	남자	6	6	7	7	7	33	64
	여자	5	5	6	7	8	31	
경상남도	남자	7	8	9	9	8	41	76
	여자	5	6	8	8	8	35	
제주도	남자	3	3	4	4	3	17	32
	여자	3	3	3	3	3	15	
합계		221	220	252	262	245	1,200	1,200

<주1> 층화변수는 시/도별(16개 수준, 세종시는 충남지역에 포함),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선정

<주2> 표본할당은 시/도별 응답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20개 표본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법 적용

2) 실사 설계 (Fieldwork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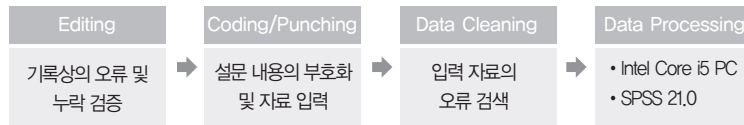
3) 조사 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 방법	전문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 수집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 기간	2019년 7월 1일 - 7월 26일 (26일간)

4. 자료 처리

1) 자료 처리 (Data Processing)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 하였음



2) 가중치 (Weight)

조사결과는 시/도별(16개 수준), 성별(2개 수준), 연령별(5개 수준)로 모집단(2019년 5월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 행정안전부) 분포를 반영하여 모집단과 표본의 특성이 일치 하도록 보정하는 가중치 작업 후 분석하였음

<가중치 산출식>

- ◎ i : 시/도를 나타내는 첨자 (i = 1(서울), 2(부산), ..., 16(제주))
- ◎ j : 성별을 나타내는 첨자 (j = 1(남), 2(여))
- ◎ k : 연령 그룹을 나타내는 첨자 (k = 1(19~29세), 2(30대), ..., 5(60~74세))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모집단 인구 수
- ◎ n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조사된 응답자 수
- ◎ n : 조사된 전체 응답자 수
- ◎ N : 모집단 전체 인구 수
- ◎ W_{ijk} : i 시/도, j 성별, k 연령 그룹 내의 가중치
- ◎ 총별 최종 가중치 W_{ijk}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함

$$W_{ijk} = \frac{N_{ijk}}{n_{ijk}} \times \frac{n}{N}$$

5. 응답자 특성

구분	조사 표본		가중 표본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200	100.0	1,200	100.0	
성별	남 자	615	51.3	610	50.9
	여 자	585	48.8	590	49.1
연령별	19 ~ 29 세	221	18.4	223	18.5
	30 대	221	18.4	222	18.5
	40 대	252	21.0	253	21.0
	50 대	262	21.8	261	21.7
	60대 이상	244	20.3	242	20.2
교육수준별	중졸 이하	117	9.8	118	9.8
	고 졸	485	40.4	489	40.8
	대재 이상	594	49.5	589	49.1
	무응답	4	0.3	3	0.3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2	11	0.9
	자 영 업	294	24.5	294	24.5
	블루칼라	337	28.1	336	28.0
	화이트칼라	264	22.0	264	22.0
	전업 주부	168	14.0	174	14.5
	학생/군인/무직	123	10.3	122	10.2
가구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86	7.2	81	6.8
	200~299만원	186	15.5	185	15.4
	300~399만원	333	27.8	336	28.0
	400만원 이상	595	49.6	598	49.8
지역별	수 도 권	508	42.3	610	50.8
	총 청 권	155	12.9	128	10.6
	호 남 권	143	11.9	113	9.4
	영 남 권	318	26.5	300	25.0
	강 원	44	3.7	34	2.9
	제 주	32	2.7	15	1.2
지역 크기	대 도시	544	45.3	547	45.6
	중·소 도시	561	46.8	576	48.0
	읍 / 면	95	7.9	77	6.4
정치적 성향	진 보 적	395	32.9	388	32.3
	중 도	588	49.0	598	49.8
	보 수 적	217	18.1	215	17.9
종교별	불 교	207	17.3	199	16.5
	기 독 교	220	18.3	218	18.2
	천 주 교	81	6.8	86	7.2
	기타	2	0.2	2	0.1
	종교 없음	671	55.9	677	56.4
	무응답	19	1.6	19	1.6

<주> 가중 표본의 사례 수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전체 합계와 다를 수 있음

6. 조사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 본 보고서에 수록된 자료는 단위 미만을 반올림하였기 때문에 합계의 숫자와 각 항목별 합계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 조사 사례 수가 30표본 미만의 과소한 집단은 통계청에서 허용하는 상대표준오차 범위 ($CV \leq 25\%$)를 벗어나게 되므로 특성별 분석 시 주의해야 함
- ◎ 유사 조사 또는 과거 자료와 비교 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문항 내용에 차이가 있고, 조사 기간 및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직접적인 시계열 비교를 할 때는 결과 해석 시 유의해야 함

【별첨. 표본오차에 관한 보충자료】 참조

1. 표본 오차(Sampling Error) 공식

표본추출 사례로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본오차(Sampling Error) 공식은 아래와 같다.

$$SE = \pm 1.96 \sqrt{\frac{P(100 - P)}{n}}$$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2. 표본의 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표본오차의 해석: 동일한 과정의 조사를 100번 했을 경우의 결과값 중 95번은 표본오차 만큼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95% 신뢰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1,000	1,200	2,000	3,000
	± %	± %	± %	± %	± %
50	4.4	3.1	2.8	2.2	1.8
40 or 60	4.3	3.0	2.8	2.1	1.8
30 or 70	4.0	2.8	2.6	2.0	1.6
20 or 80	3.5	2.5	2.3	1.8	1.4
10 or 90	2.6	1.9	1.7	1.3	1.1

* 본 조사의 경우 표본크기가 1,200이므로 최대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 정도임



조사 결과 집계표

응답자 특성

		사례수	%	
전 체		1200	100.0	
성별	남자	615	51.3	
	여자	585	48.8	
연령별	19~29세	221	18.4	
	30대	221	18.4	
	40대	252	21.0	
	50대	262	21.8	
	60대 이상	244	20.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9.8	
	고졸	485	40.4	
	대재 이상	594	49.5	
		모름/무응답	4	0.3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2	
	자영업	294	24.5	
	블루 칼라	337	28.1	
	화이트 칼라	264	22.0	
	전업 주부	168	14.0	
	학생/군인/무직	123	10.3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2	
	200~299 만원	186	15.5	
	300~399 만원	333	27.8	
	400만원 이상	595	49.6	
지역별	수도권	508	42.3	
	충청권	155	12.9	
	호남권	143	11.9	
	영남권	318	26.5	
	강원	44	3.7	
	제주	32	2.7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5.3	
	중/소도시	561	46.8	
	읍/면	95	7.9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2.9	
	중도	588	49.0	
	보수적	217	18.1	
종교	불교	207	17.3	
	기독교	220	18.3	
	천주교	81	6.8	
	기타	2	0.2	
	종교 없음	671	55.9	
	모름/무응답	19	1.6	

표1. 남북한 통일에 대한 이미지

문) ○○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례수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남북 간 경제협력의 심화되는 것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기타	계
			%	%	%	%	%	%
전 체		1200	61.5	14.6	19.3	4.3	0.3	100.0
성별	남자	615	61.6	14.3	19.2	4.4	0.5	100.0
	여자	585	61.4	14.9	19.5	4.1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62.9	12.2	18.6	5.9	0.5	100.0
	30대	221	61.5	16.3	18.1	3.6	0.5	100.0
	40대	252	56.3	20.2	17.5	5.2	0.8	100.0
	50대	262	63.0	13.0	20.6	3.4	0.0	100.0
	60대 이상	244	63.9	11.1	21.7	3.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0.7	17.9	17.1	4.3	0.0	100.0
	고졸	485	62.7	14.6	19.4	3.1	0.2	100.0
	대재 이상	594	60.4	14.0	19.9	5.2	0.5	100.0
		모름/무응답	4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28.6	21.4	7.1	0.0	100.0
	자영업	294	65.0	12.6	17.7	4.4	0.3	100.0
	블루 칼라	337	63.2	17.2	16.9	2.7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60.2	16.3	18.6	4.5	0.4	100.0
	전업 주부	168	57.7	13.7	23.8	4.2	0.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8.5	8.1	25.2	7.3	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64.0	12.8	15.1	8.1	0.0	100.0
	200~299 만원	186	59.7	11.8	23.1	5.4	0.0	100.0
	300~399 만원	333	63.1	15.3	17.4	3.9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60.8	15.3	19.8	3.5	0.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6.1	16.5	22.8	3.9	0.6	100.0
	충청권	155	61.9	21.3	14.8	1.9	0.0	100.0
	호남권	143	61.5	14.7	17.5	6.3	0.0	100.0
	영남권	318	66.0	10.7	18.2	4.7	0.3	100.0
	강원	44	79.5	2.3	11.4	6.8	0.0	100.0
	제주	32	75.0	6.3	15.6	3.1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62.1	11.8	20.8	4.8	0.6	100.0
	중/소도시	561	60.4	18.2	17.8	3.4	0.2	100.0
	읍/면	95	64.2	9.5	20.0	6.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2.5	14.2	19.0	4.1	0.3	100.0
	중도	588	60.7	15.5	19.0	4.4	0.3	100.0
	보수적	217	61.8	12.9	20.7	4.1	0.5	100.0
종교	불교	207	59.9	15.0	20.3	3.9	1.0	100.0
	기독교	220	65.5	9.5	20.0	5.0	0.0	100.0
	천주교	81	61.7	8.6	25.9	3.7	0.0	100.0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60.5	16.8	18.2	4.2	0.3	100.0
	모름/무응답	19	63.2	15.8	15.8	5.3	0.0	100.0

표2.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 하다	② 약간 필요 하다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5	33.1	53.6	26.4	15.3	4.7	20.0	100.0
성별									
남자	615	24.6	32.8	57.4	23.3	14.1	5.2	19.3	100.0
여자	585	16.2	33.3	49.6	29.7	16.6	4.1	20.7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6	28.1	41.6	33.9	17.2	7.2	24.4	100.0
30대	221	11.8	26.2	38.0	37.1	21.3	3.6	24.9	100.0
40대	252	22.6	31.7	54.4	27.0	14.3	4.4	18.7	100.0
50대	262	27.1	35.5	62.6	21.0	14.1	2.3	16.4	100.0
60대 이상	244	25.4	42.6	68.0	15.2	10.7	6.1	1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1.4	44.4	65.8	15.4	12.8	6.0	18.8	100.0
고졸	485	20.0	35.7	55.7	26.6	13.6	4.1	17.7	100.0
대재 이상	594	20.9	28.5	49.3	28.6	17.2	4.9	22.1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0.0	35.7	85.7	14.3	0.0	0.0	0.0	100.0
자영업	294	22.1	36.1	58.2	24.5	12.6	4.8	17.3	100.0
블루 칼라	337	19.3	29.1	48.4	27.6	19.3	4.7	24.0	100.0
화이트 칼라	264	26.9	30.3	57.2	24.2	12.9	5.7	18.6	100.0
전업 주부	168	11.9	38.1	50.0	28.0	18.5	3.6	22.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4.6	35.8	50.4	31.7	13.8	4.1	17.9	100.0
200만원 미만	86	30.2	36.0	66.3	17.4	11.6	4.7	16.3	100.0
200~299 만원	186	24.2	38.7	62.9	19.4	11.8	5.9	17.7	100.0
300~399 만원	333	20.4	33.6	54.1	27.0	15.3	3.6	18.9	100.0
400만원 이상	595	18.0	30.6	48.6	29.6	17.0	4.9	21.8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0.7	32.5	53.1	26.6	14.8	5.5	20.3	100.0
충청권	155	27.1	34.2	61.3	22.6	11.6	4.5	16.1	100.0
호남권	143	25.9	37.1	62.9	28.0	7.0	2.1	9.1	100.0
영남권	318	11.9	31.8	43.7	28.3	23.6	4.4	28.0	100.0
강원	44	27.3	29.5	56.8	25.0	11.4	6.8	18.2	100.0
제주	32	37.5	37.5	75.0	18.8	3.1	3.1	6.3	100.0
대도시	544	16.0	32.0	48.0	27.8	18.4	5.9	24.3	100.0
중/소도시	561	22.5	34.4	56.9	26.4	13.2	3.6	16.8	100.0
읍/면	95	34.7	31.6	66.3	18.9	10.5	4.2	14.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2.4	35.7	68.1	20.8	8.1	3.0	11.1	100.0
중도	588	14.6	28.1	42.7	32.5	19.9	4.9	24.8	100.0
보수적	217	14.7	41.9	56.7	20.3	16.1	6.9	23.0	100.0
불교	207	18.4	39.1	57.5	19.3	17.4	5.8	23.2	100.0
기독교	220	28.6	30.5	59.1	27.7	10.5	2.7	13.2	100.0
천주교	81	24.7	30.9	55.6	24.7	12.3	7.4	19.8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8.2	32.9	51.1	28.2	16.1	4.6	20.7	100.0
모름/무응답	19	5.3	15.8	21.1	36.8	36.8	5.3	42.1	100.0

표3.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현재 대로가 좋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4.4	16.6	53.5	19.8	5.8	100.0
성별							
남자	615	5.5	17.6	54.3	18.2	4.4	100.0
여자	585	3.2	15.6	52.6	21.4	7.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	14.0	48.9	27.1	8.1	100.0
30대	221	2.3	13.1	53.8	27.1	3.6	100.0
40대	252	2.8	19.4	57.1	16.3	4.4	100.0
50대	262	6.1	17.9	55.7	15.3	5.0	100.0
60대 이상	244	8.6	17.6	51.2	14.8	7.8	100.0
중졸 이하	117	8.5	16.2	53.0	13.7	8.5	100.0
고졸	485	4.9	18.4	50.7	20.8	5.2	100.0
대재 이상	594	3.2	15.2	55.9	20.0	5.7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5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1.4	50.0	14.3	0.0	100.0
자영업	294	5.1	16.0	57.1	15.3	6.5	100.0
블루 칼라	337	4.7	16.3	49.9	22.8	6.2	100.0
화이트 칼라	264	4.2	18.2	52.3	19.3	6.1	100.0
전업 주부	168	3.6	17.9	51.2	21.4	6.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13.0	61.0	21.1	2.4	100.0
200만원 미만	86	10.5	20.9	46.5	15.1	7.0	100.0
200~299 만원	186	3.8	18.3	56.5	17.7	3.8	100.0
300~399 만원	333	5.4	17.4	51.4	20.4	5.4	100.0
400만원 이상	595	3.2	15.0	54.8	20.7	6.4	100.0
수도권	508	4.3	15.7	56.7	17.3	5.9	100.0
충청권	155	7.1	19.4	50.3	20.0	3.2	100.0
호남권	143	5.6	19.6	56.6	15.4	2.8	100.0
영남권	318	2.5	15.4	46.5	27.0	8.5	100.0
강원	44	4.5	20.5	54.5	18.2	2.3	100.0
제주	32	6.3	9.4	71.9	6.3	6.3	100.0
대도시	544	3.7	12.9	53.9	23.3	6.3	100.0
중/소도시	561	5.0	20.0	52.0	17.3	5.7	100.0
읍/면	95	5.3	17.9	60.0	13.7	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1	23.3	49.1	16.2	4.3	100.0
중도	588	3.2	12.9	55.8	21.8	6.3	100.0
보수적	217	2.8	14.3	55.3	20.7	6.9	100.0
불교	207	6.3	17.4	49.8	20.8	5.8	100.0
기독교	220	3.6	21.4	55.5	14.1	5.5	100.0
천주교	81	6.2	22.2	51.9	17.3	2.5	100.0
기타	2	0.0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0	14.5	54.8	20.6	6.1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26.3	57.9	10.5	100.0

표4.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전 체	1200	3.8	18.5	24.9	18.2	14.8	19.9	100.0	
성별	남자	615	3.7	20.7	25.4	16.7	16.3	17.2	100.0
	여자	585	3.8	16.2	24.4	19.7	13.2	22.7	100.0
연령별	19~29세	221	3.2	15.8	20.8	18.1	17.6	24.4	100.0
	30대	221	2.7	15.4	21.7	19.9	19.5	20.8	100.0
	40대	252	1.2	19.8	27.8	19.8	15.5	15.9	100.0
	50대	262	5.7	21.0	27.5	17.6	10.3	17.9	100.0
	60대 이상	244	5.7	19.7	25.8	15.6	11.9	21.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17.1	23.1	15.4	12.8	23.9	100.0
	고졸	485	3.7	17.7	28.0	18.6	12.2	19.8	100.0
	대재 이상	594	3.0	19.2	22.7	18.5	17.3	19.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25.0	0.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21.4	14.3	35.7	7.1	7.1	100.0
	자영업	294	2.4	19.4	28.9	15.0	15.3	19.0	100.0
	블루 칼라	337	3.3	18.1	23.7	17.5	13.9	23.4	100.0
	화이트 칼라	264	4.5	21.2	22.3	20.8	15.5	15.5	100.0
	전업 주부	168	5.4	13.1	27.4	19.0	14.3	20.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	18.7	22.0	18.7	15.4	22.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9.3	22.1	18.6	14.0	15.1	20.9	100.0
	200~299 만원	186	5.9	20.4	22.6	19.9	12.9	18.3	100.0
	300~399 만원	333	4.2	21.6	24.0	16.2	12.6	21.3	100.0
	400만원 이상	595	2.0	15.6	27.1	19.3	16.5	19.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8	15.2	25.2	21.3	16.9	18.7	100.0
	충청권	155	3.9	19.4	26.5	16.8	14.8	18.7	100.0
	호남권	143	3.5	18.2	29.4	20.3	13.3	15.4	100.0
	영남권	318	4.4	21.1	22.6	13.5	12.3	26.1	100.0
	강원	44	6.8	25.0	20.5	18.2	13.6	15.9	100.0
	제주	32	9.4	34.4	21.9	12.5	12.5	9.4	100.0
	대도시	544	2.9	17.1	25.7	17.8	14.5	21.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4.5	18.4	25.5	18.4	14.8	18.5	100.0
	읍/면	95	4.2	27.4	16.8	18.9	15.8	1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6	26.6	27.8	13.7	12.4	12.9	100.0
	중도	588	2.2	14.8	20.7	21.8	16.3	24.1	100.0
	보수적	217	2.8	13.8	30.9	16.6	14.7	21.2	100.0
종교	불교	207	6.8	18.8	23.7	15.9	10.1	24.6	100.0
	기독교	220	4.1	23.2	31.8	15.0	13.6	12.3	100.0
	천주교	81	2.5	12.3	27.2	25.9	16.0	16.0	100.0
	기타	2	0.0	0.0	5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8	17.9	23.2	19.2	16.2	20.6	100.0
	모름/무응답	19	5.3	10.5	5.3	5.3	21.1	52.6	100.0

표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㉞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 체	1200	18.8	55.8	74.6	22.6	2.8	25.3	0.1	100.0	
성별	남자	615	22.0	53.7	75.6	21.8	2.6	24.4	0.0	100.0
	여자	585	15.6	57.9	73.5	23.4	2.9	26.3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2	57.9	70.1	26.7	3.2	29.9	0.0	100.0
	30대	221	16.7	52.5	69.2	28.1	2.7	30.8	0.0	100.0
	40대	252	19.0	56.0	75.0	22.6	2.0	24.6	0.4	100.0
	50대	262	22.1	57.6	79.8	18.7	1.5	20.2	0.0	100.0
	60대 이상	244	23.0	54.5	77.5	18.0	4.5	22.5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1	59.0	76.1	20.5	3.4	23.9	0.0	100.0
	고졸	485	19.8	58.4	78.1	19.4	2.5	21.9	0.0	100.0
	대재 이상	594	18.4	52.9	71.2	25.8	2.9	28.6	0.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8.6	71.4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20.7	56.1	76.9	20.7	2.4	23.1	0.0	100.0
	블루 칼라	337	19.3	57.9	77.2	21.4	1.5	22.8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22.3	49.2	71.6	23.9	4.2	28.0	0.4	100.0
	전업 주부	168	14.9	56.0	70.8	26.2	3.0	29.2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9.8	61.0	70.7	25.2	4.1	29.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5.6	44.2	69.8	26.7	3.5	30.2	0.0	100.0
	200~299 만원	186	20.4	59.1	79.6	17.7	2.7	20.4	0.0	100.0
	300~399 만원	333	18.9	58.3	77.2	21.0	1.5	22.5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17.3	55.0	72.3	24.4	3.4	27.7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4.2	59.3	73.4	22.4	4.1	26.6	0.0	100.0
	충청권	155	33.5	49.0	82.6	16.1	0.6	16.8	0.6	100.0
	호남권	143	32.9	58.7	91.6	8.4	0.0	8.4	0.0	100.0
	영남권	318	9.1	54.4	63.5	34.0	2.5	36.5	0.0	100.0
	강원	44	25.0	54.5	79.5	18.2	2.3	20.5	0.0	100.0
	제주	32	46.9	34.4	81.3	12.5	6.3	18.8	0.0	100.0
	대도시	544	14.3	52.2	66.5	29.4	4.0	33.5	0.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20.3	60.8	81.1	17.3	1.6	18.9	0.0	100.0
	읍/면	95	35.8	46.3	82.1	14.7	2.1	16.8	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9.9	54.9	84.8	13.7	1.5	15.2	0.0	100.0
	중도	588	14.1	55.3	69.4	27.2	3.2	30.4	0.2	100.0
	보수적	217	11.5	58.5	70.0	26.3	3.7	30.0	0.0	100.0
종교	불교	207	20.8	50.7	71.5	23.7	4.8	28.5	0.0	100.0
	기독교	220	23.2	58.6	81.8	15.0	3.2	18.2	0.0	100.0
	천주교	81	23.5	54.3	77.8	21.0	1.2	22.2	0.0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6.4	56.6	73.0	24.9	1.9	26.8	0.1	100.0
	모름/무응답	19	5.3	57.9	63.2	26.3	10.5	36.8	0.0	100.0

표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㉑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8.9	43.8	82.8	14.4	2.8	17.3	100.0
성별								
남자	615	40.3	44.1	84.4	12.2	3.4	15.6	100.0
여자	585	37.4	43.6	81.0	16.8	2.2	19.0	100.0
연령별								
19~29세	221	33.5	48.0	81.4	14.5	4.1	18.6	100.0
30대	221	34.8	41.2	76.0	20.8	3.2	24.0	100.0
40대	252	40.5	43.7	84.1	13.9	2.0	15.9	100.0
50대	262	41.6	45.4	87.0	10.7	2.3	13.0	100.0
60대 이상	244	43.0	41.0	84.0	13.1	2.9	1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8.5	45.3	83.8	13.7	2.6	16.2	100.0
고졸	485	39.0	45.2	84.1	13.2	2.7	15.9	100.0
대재 이상	594	38.9	42.4	81.3	15.7	3.0	18.7	100.0
모름/무응답	4	50.0	5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7.1	42.9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39.1	46.3	85.4	11.9	2.7	14.6	100.0
블루 칼라	337	41.5	40.4	81.9	15.4	2.7	18.1	100.0
화이트 칼라	264	42.8	39.4	82.2	14.4	3.4	17.8	100.0
전업 주부	168	31.5	48.8	80.4	17.9	1.8	19.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0.9	50.4	81.3	14.6	4.1	1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7.7	32.6	80.2	17.4	2.3	19.8	100.0
200~299 만원	186	37.6	46.8	84.4	12.9	2.7	15.6	100.0
300~399 만원	333	38.1	44.4	82.6	15.3	2.1	17.4	100.0
400만원 이상	595	38.5	44.2	82.7	13.9	3.4	17.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6.4	45.9	82.3	13.0	4.7	17.7	100.0
충청권	155	49.7	38.1	87.7	11.0	1.3	12.3	100.0
호남권	143	59.4	32.2	91.6	8.4	0.0	8.4	100.0
영남권	318	26.4	50.0	76.4	21.7	1.9	23.6	100.0
강원	44	36.4	45.5	81.8	15.9	2.3	18.2	100.0
제주	32	62.5	28.1	90.6	6.3	3.1	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3.6	47.2	80.9	14.5	4.6	19.1	100.0
중/소도시	561	42.1	42.2	84.3	14.3	1.4	15.7	100.0
읍/면	95	50.5	33.7	84.2	14.7	1.1	1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6.3	42.3	88.6	10.1	1.3	11.4	100.0
중도	588	34.9	44.4	79.3	16.8	3.9	20.7	100.0
보수적	217	36.4	45.2	81.6	15.7	2.8	18.4	100.0
종교								
불교	207	36.2	43.5	79.7	16.9	3.4	20.3	100.0
기독교	220	44.5	43.6	88.2	10.0	1.8	11.8	100.0
천주교	81	39.5	49.4	88.9	8.6	2.5	11.1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8.0	43.5	81.5	15.5	3.0	18.5	100.0
모름/무응답	19	31.6	36.8	68.4	26.3	5.3	31.6	100.0

표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㉒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8	19.8	26.6	47.2	26.3	73.4	100.0
성별								
남자	615	5.9	21.1	27.0	44.6	28.5	73.0	100.0
여자	585	7.9	18.3	26.2	49.9	23.9	73.8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	22.6	27.1	46.2	26.7	72.9	100.0
30대	221	5.0	19.5	24.4	48.0	27.6	75.6	100.0
40대	252	9.1	15.1	24.2	48.8	27.0	75.8	100.0
50대	262	8.4	20.6	29.0	46.6	24.4	71.0	100.0
60대 이상	244	6.6	21.3	27.9	46.3	25.8	72.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1.1	22.2	33.3	43.6	23.1	66.7	100.0
고졸	485	6.4	19.4	25.8	51.8	22.5	74.2	100.0
대재 이상	594	6.4	19.5	25.9	44.1	30.0	74.1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35.7	50.0	21.4	28.6	50.0	100.0
자영업	294	4.8	16.7	21.4	47.6	31.0	78.6	100.0
블루 칼라	337	5.9	20.8	26.7	49.6	23.7	73.3	100.0
화이트 칼라	264	9.1	22.3	31.4	39.4	29.2	68.6	100.0
전업 주부	168	8.3	12.5	20.8	54.8	24.4	79.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26.8	33.3	48.8	17.9	66.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7	23.3	27.9	41.9	30.2	72.1	100.0
200~299 만원	186	8.6	16.7	25.3	46.8	28.0	74.7	100.0
300~399 만원	333	8.4	21.3	29.7	48.0	22.2	70.3	100.0
400만원 이상	595	5.7	19.3	25.0	47.6	27.4	75.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1	12.8	19.9	47.0	33.1	80.1	100.0
충청권	155	5.8	31.0	36.8	40.0	23.2	63.2	100.0
호남권	143	7.7	25.9	33.6	55.9	10.5	66.4	100.0
영남권	318	7.2	21.4	28.6	47.5	23.9	71.4	100.0
강원	44	4.5	25.0	29.5	40.9	29.5	70.5	100.0
제주	32	3.1	25.0	28.1	50.0	21.9	7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9	14.0	17.8	50.4	31.8	82.2	100.0
중/소도시	561	10.0	24.8	34.8	43.7	21.6	65.2	100.0
읍/면	95	5.3	23.2	28.4	49.5	22.1	7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9.4	24.6	33.9	50.1	15.9	66.1	100.0
중도	588	5.6	16.8	22.4	49.0	28.6	77.6	100.0
보수적	217	5.5	18.9	24.4	36.9	38.7	75.6	100.0
종교								
불교	207	7.2	21.7	29.0	42.5	28.5	71.0	100.0
기독교	220	4.5	20.5	25.0	44.5	30.5	75.0	100.0
천주교	81	6.2	14.8	21.0	58.0	21.0	79.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7.7	20.0	27.7	47.5	24.7	72.3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5.3	68.4	26.3	94.7	100.0

표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3.3	51.3	74.5	23.2	2.3	25.5	100.0	
성별	남자	615	24.2	50.1	74.3	23.3	2.4	25.7	100.0
	여자	585	22.2	52.5	74.7	23.1	2.2	25.3	100.0
연령별	19~29세	221	25.3	46.6	71.9	24.9	3.2	28.1	100.0
	30대	221	19.9	57.0	76.9	19.9	3.2	23.1	100.0
	40대	252	21.4	54.0	75.4	23.0	1.6	24.6	100.0
	50대	262	25.2	48.1	73.3	24.4	2.3	26.7	100.0
	60대 이상	244	24.2	50.8	75.0	23.4	1.6	25.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9	58.1	76.1	23.1	0.9	23.9	100.0
	고졸	485	22.1	53.8	75.9	21.9	2.3	24.1	100.0
	대재 이상	594	25.4	47.6	73.1	24.2	2.7	26.9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64.3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24.1	52.4	76.5	21.4	2.0	23.5	100.0
	블루 칼라	337	22.3	53.4	75.7	21.7	2.7	24.3	100.0
	화이트 칼라	264	26.9	44.3	71.2	25.4	3.4	28.8	100.0
	전업 주부	168	16.1	58.9	75.0	23.8	1.2	25.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5.2	45.5	70.7	27.6	1.6	29.3	100.0
	200만원 미만	86	26.7	51.2	77.9	22.1	0.0	22.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3.1	50.0	73.1	24.7	2.2	26.9	100.0
	300~399 만원	333	21.0	56.2	77.2	21.6	1.2	22.8	100.0
	400만원 이상	595	24.0	48.9	72.9	23.7	3.4	27.1	100.0
	수도권	508	20.1	49.2	69.3	27.0	3.7	30.7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43.9	42.6	86.5	13.5	0.0	13.5	100.0
	호남권	143	24.5	57.3	81.8	18.2	0.0	18.2	100.0
	영남권	318	13.8	58.5	72.3	24.8	2.8	27.7	100.0
	강원	44	34.1	40.9	75.0	25.0	0.0	25.0	100.0
	제주	32	46.9	40.6	87.5	12.5	0.0	12.5	100.0
	대도시	544	19.9	50.0	69.9	26.5	3.7	30.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25.3	53.7	79.0	20.0	1.1	21.0	100.0
	읍/면	95	30.5	44.2	74.7	23.2	2.1	25.3	100.0
	진보적	395	29.9	50.9	80.8	18.5	0.8	19.2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88	20.4	51.7	72.1	24.5	3.4	27.9	100.0
	보수적	217	18.9	50.7	69.6	28.1	2.3	30.4	100.0
	불교	207	27.5	45.4	72.9	23.2	3.9	27.1	100.0
종교	기독교	220	27.3	56.4	83.6	14.5	1.8	16.4	100.0
	천주교	81	16.0	49.4	65.4	30.9	3.7	34.6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1.8	51.6	73.3	25.0	1.6	26.7	100.0
	모름/무응답	19	10.5	52.6	63.2	26.3	10.5	36.8	100.0

표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0.2	49.6	79.8	17.7	2.6	20.3	100.0	
성별	남자	615	32.2	50.6	82.8	14.6	2.6	17.2	100.0
	여자	585	28.0	48.5	76.6	20.9	2.6	23.4	100.0
연령별	19~29세	221	28.1	49.3	77.4	18.6	4.1	22.6	100.0
	30대	221	27.6	51.6	79.2	18.1	2.7	20.8	100.0
	40대	252	32.1	46.0	78.2	19.0	2.8	21.8	100.0
	50대	262	33.6	50.4	84.0	14.1	1.9	16.0	100.0
	60대 이상	244	28.7	50.8	79.5	18.9	1.6	20.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9.9	49.6	79.5	20.5	0.0	20.5	100.0
	고졸	485	28.7	53.4	82.1	15.9	2.1	17.9	100.0
	대재 이상	594	31.3	46.5	77.8	18.7	3.5	22.2	100.0
	모름/무응답	4	50.0	5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42.9	85.7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27.2	54.8	82.0	16.7	1.4	18.0	100.0
	블루 칼라	337	33.5	46.6	80.1	18.1	1.8	19.9	100.0
	화이트 칼라	264	35.2	46.6	81.8	12.9	5.3	18.2	100.0
	전업 주부	168	26.2	49.4	75.6	23.2	1.2	24.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1.1	52.8	74.0	22.0	4.1	26.0	100.0
	200만원 미만	86	29.1	50.0	79.1	18.6	2.3	20.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8.5	52.2	80.6	17.7	1.6	19.4	100.0
	300~399 만원	333	29.1	52.0	81.1	17.1	1.8	18.9	100.0
	400만원 이상	595	31.4	47.4	78.8	17.8	3.4	21.2	100.0
	수도권	508	27.0	53.7	80.7	15.6	3.7	19.3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43.9	43.2	87.1	11.0	1.9	12.9	100.0
	호남권	143	32.2	51.7	83.9	16.1	0.0	16.1	100.0
	영남권	318	25.8	47.8	73.6	23.6	2.8	26.4	100.0
	강원	44	29.5	40.9	70.5	29.5	0.0	29.5	100.0
	제주	32	50.0	34.4	84.4	15.6	0.0	15.6	100.0
	대도시	544	25.6	51.5	77.0	18.6	4.4	23.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33.0	50.1	83.1	15.9	1.1	16.9	100.0
	읍/면	95	40.0	35.8	75.8	23.2	1.1	24.2	100.0
	진보적	395	37.2	50.1	87.3	11.6	1.0	12.7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88	25.3	51.5	76.9	19.4	3.7	23.1	100.0
	보수적	217	30.4	43.3	73.7	24.0	2.3	26.3	100.0
	불교	207	34.3	41.1	75.4	21.7	2.9	24.6	100.0
종교	기독교	220	32.7	50.0	82.7	15.9	1.4	17.3	100.0
	천주교	81	25.9	53.1	79.0	18.5	2.5	21.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8.9	51.7	80.6	16.7	2.7	19.4	100.0
	모름/무응답	19	15.8	47.4	63.2	26.3	10.5	36.8	100.0

표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6.8	48.7	85.4	12.3	2.2	14.4	0.2	100.0
성별									
남자	615	37.9	48.8	86.7	10.9	2.3	13.2	0.2	100.0
여자	585	35.6	48.5	84.1	13.7	2.1	15.7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2	48.4	84.6	11.3	4.1	15.4	0.0	100.0
30대	221	38.9	44.3	83.3	13.6	3.2	16.7	0.0	100.0
40대	252	41.3	44.8	86.1	11.9	2.0	13.9	0.0	100.0
50대	262	33.2	55.0	88.2	11.5	0.4	11.8	0.0	100.0
60대 이상	244	34.4	50.0	84.4	13.1	1.6	14.8	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7.4	56.4	83.8	13.7	1.7	15.4	0.9	100.0
고졸	485	36.5	49.7	86.2	12.6	1.0	13.6	0.2	100.0
대재 이상	594	38.6	46.5	85.0	11.8	3.2	15.0	0.0	100.0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71.4	92.9	7.1	0.0	7.1	0.0	100.0
자영업	294	39.1	49.0	88.1	10.2	1.0	11.2	0.7	100.0
블루 칼라	337	38.9	45.4	84.3	14.2	1.5	15.7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39.8	45.5	85.2	10.6	4.2	14.8	0.0	100.0
전업 주부	168	28.0	54.2	82.1	15.5	2.4	17.9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2.5	53.7	86.2	11.4	2.4	13.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4.4	55.8	80.2	18.6	1.2	19.8	0.0	100.0
200~299 만원	186	39.8	43.0	82.8	14.0	2.7	16.7	0.5	100.0
300~399 만원	333	36.3	47.7	84.1	14.1	1.5	15.6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37.8	49.9	87.7	9.7	2.5	12.3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7.4	51.4	88.8	7.9	3.1	11.0	0.2	100.0
충청권	155	47.7	44.5	92.3	6.5	0.6	7.1	0.6	100.0
호남권	143	36.4	52.4	88.8	9.8	1.4	11.2	0.0	100.0
영남권	318	29.2	46.2	75.5	23.0	1.6	24.5	0.0	100.0
강원	44	34.1	50.0	84.1	13.6	2.3	15.9	0.0	100.0
제주	32	53.1	31.3	84.4	12.5	3.1	15.6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5.3	47.6	82.9	13.6	3.1	16.7	0.4	100.0
중/소도시	561	37.1	51.9	88.9	10.0	1.1	11.1	0.0	100.0
읍/면	95	43.2	35.8	78.9	17.9	3.2	21.1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1.8	48.4	90.1	8.4	1.3	9.6	0.3	100.0
중도	588	34.7	48.5	83.2	13.4	3.2	16.7	0.2	100.0
보수적	217	33.2	49.8	82.9	16.1	0.9	17.1	0.0	100.0
불교	207	30.9	49.8	80.7	15.9	3.4	19.3	0.0	100.0
기독교	220	43.6	47.3	90.9	8.2	0.9	9.1	0.0	100.0
천주교	81	42.0	49.4	91.4	8.6	0.0	8.6	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6.1	49.0	85.1	12.5	2.1	14.6	0.3	100.0
모름/무응답	19	21.1	36.8	57.9	26.3	15.8	42.1	0.0	100.0

표5-7.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북한 비핵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58.3	28.8	87.1	11.3	1.6	12.8	0.1	100.0
성별									
남자	615	57.2	29.8	87.0	11.1	1.8	12.8	0.2	100.0
여자	585	59.3	27.9	87.2	11.5	1.4	12.8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58.4	27.1	85.5	12.2	2.3	14.5	0.0	100.0
30대	221	53.8	34.8	88.7	10.4	0.9	11.3	0.0	100.0
40대	252	60.7	25.4	86.1	12.7	1.2	13.9	0.0	100.0
50대	262	55.3	31.3	86.6	11.5	1.9	13.4	0.0	100.0
60대 이상	244	62.7	25.8	88.5	9.4	1.6	11.1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7.3	30.8	88.0	8.5	2.6	11.1	0.9	100.0
고졸	485	56.9	28.7	85.6	12.6	1.9	14.4	0.0	100.0
대재 이상	594	59.4	28.6	88.0	10.8	1.2	12.0	0.0	100.0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8.6	7.1	85.7	14.3	0.0	14.3	0.0	100.0
자영업	294	58.2	29.6	87.8	11.2	1.0	12.2	0.0	100.0
블루 칼라	337	57.9	27.6	85.5	11.6	2.7	14.2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61.0	26.5	87.5	11.4	1.1	12.5	0.0	100.0
전업 주부	168	61.3	29.2	90.5	8.9	0.6	9.5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7.2	37.4	84.6	13.0	2.4	15.4	0.0	100.0
200만원 미만	86	54.7	31.4	86.0	10.5	3.5	14.0	0.0	100.0
200~299 만원	186	63.4	28.0	91.4	6.5	1.6	8.1	0.5	100.0
300~399 만원	333	52.3	32.1	84.4	13.8	1.8	15.6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60.5	26.9	87.4	11.4	1.2	12.6	0.0	100.0
수도권	508	56.9	31.3	88.2	10.2	1.4	11.6	0.2	100.0
충청권	155	62.6	27.7	90.3	9.7	0.0	9.7	0.0	100.0
호남권	143	62.9	28.7	91.6	7.0	1.4	8.4	0.0	100.0
영남권	318	57.9	26.1	84.0	14.2	1.9	16.0	0.0	100.0
강원	44	38.6	29.5	68.2	22.7	9.1	31.8	0.0	100.0
제주	32	68.8	21.9	90.6	9.4	0.0	9.4	0.0	100.0
대도시	544	60.5	27.9	88.4	9.9	1.5	11.4	0.2	100.0
중/소도시	561	54.5	31.2	85.7	12.7	1.6	14.3	0.0	100.0
읍/면	95	67.4	20.0	87.4	10.5	2.1	12.6	0.0	100.0
진보적	395	59.2	28.4	87.6	11.4	1.0	12.4	0.0	100.0
중도	588	58.8	28.9	87.8	10.0	2.0	12.1	0.2	100.0
보수적	217	54.8	29.5	84.3	14.3	1.4	15.7	0.0	100.0
불교	207	54.1	33.3	87.4	10.1	2.4	12.6	0.0	100.0
기독교	220	63.6	27.7	91.4	8.2	0.5	8.6	0.0	100.0
천주교	81	53.1	28.4	81.5	14.8	3.7	18.5	0.0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8.4	28.3	86.7	12.2	1.0	13.3	0.0	100.0
모름/무응답	19	52.6	15.8	68.4	10.5	15.8	26.3	5.3	100.0

표5-8.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2.5	43.6	56.1	37.6	6.3	43.9	100.0	
성별	남자	615	14.1	41.8	55.9	38.4	5.7	44.1	100.0
	여자	585	10.8	45.5	56.2	36.8	7.0	43.8	100.0
연령별	19~29세	221	7.2	44.3	51.6	39.8	8.6	48.4	100.0
	30대	221	12.2	38.9	51.1	42.5	6.3	48.9	100.0
	40대	252	12.7	43.7	56.3	38.5	5.2	43.7	100.0
	50대	262	15.3	46.6	61.8	33.2	5.0	38.2	100.0
	60대 이상	244	14.3	43.9	58.2	34.8	7.0	41.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3.7	45.3	59.0	34.2	6.8	41.0	100.0
	고졸	485	12.8	45.2	57.9	36.9	5.2	42.1	100.0
	대재 이상	594	12.1	42.1	54.2	38.7	7.1	45.8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75.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57.1	71.4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10.2	43.2	53.4	40.8	5.8	46.6	100.0
	블루 칼라	337	12.2	45.1	57.3	38.0	4.7	42.7	100.0
	화이트 칼라	264	18.2	42.0	60.2	33.7	6.1	39.8	100.0
	전업 주부	168	10.7	42.3	53.0	36.9	10.1	47.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43.9	52.8	39.0	8.1	47.2	100.0
	200만원 미만	86	17.4	37.2	54.7	39.5	5.8	45.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2.4	44.6	57.0	38.7	4.3	43.0	100.0
	300~399 만원	333	14.4	43.5	58.0	36.0	6.0	42.0	100.0
	400만원 이상	595	10.8	44.2	55.0	37.8	7.2	45.0	100.0
	수도권	508	9.3	41.5	50.8	42.5	6.7	49.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7.4	55.5	72.9	23.9	3.2	27.1	100.0
	호남권	143	20.3	52.4	72.7	25.2	2.1	27.3	100.0
	영남권	318	10.4	38.4	48.7	43.1	8.2	51.3	100.0
	강원	44	11.4	36.4	47.7	43.2	9.1	52.3	100.0
	제주	32	28.1	40.6	68.8	18.8	12.5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9	40.1	50.0	42.6	7.4	50.0	100.0
	중/소도시	561	14.1	46.7	60.8	33.5	5.7	39.2	100.0
	읍/면	95	17.9	45.3	63.2	32.6	4.2	3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7.2	49.6	66.8	29.1	4.1	33.2	100.0
	중도	588	10.7	41.2	51.9	40.6	7.5	48.1	100.0
	보수적	217	8.8	39.2	47.9	44.7	7.4	52.1	100.0
종교	불교	207	15.5	38.2	53.6	36.2	10.1	46.4	100.0
	기독교	220	14.1	49.5	63.6	32.7	3.6	36.4	100.0
	천주교	81	7.4	43.2	50.6	43.2	6.2	49.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1.8	43.2	55.0	38.9	6.1	45.0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2.1	52.6	42.1	5.3	47.4	100.0

표5-9.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7.9	53.9	71.8	24.4	3.8	28.2	100.0	
성별	남자	615	20.0	51.5	71.5	24.7	3.7	28.5	100.0
	여자	585	15.7	56.4	72.1	24.1	3.8	27.9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0	57.9	71.9	23.1	5.0	28.1	100.0
	30대	221	19.5	49.3	68.8	27.6	3.6	31.2	100.0
	40대	252	16.3	54.4	70.6	24.6	4.8	29.4	100.0
	50대	262	19.8	54.6	74.4	22.5	3.1	25.6	100.0
	60대 이상	244	19.7	53.3	73.0	24.6	2.5	2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1.4	52.1	73.5	24.8	1.7	26.5	100.0
	고졸	485	18.8	55.3	74.0	22.7	3.3	26.0	100.0
	대재 이상	594	16.7	53.0	69.7	25.8	4.5	30.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35.7	42.9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14.6	51.4	66.0	32.0	2.0	34.0	100.0
	블루 칼라	337	19.9	57.0	76.9	19.0	4.2	23.1	100.0
	화이트 칼라	264	22.3	51.9	74.2	22.3	3.4	25.8	100.0
	전업 주부	168	14.9	54.8	69.6	25.0	5.4	30.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3.0	56.1	69.1	25.2	5.7	30.9	100.0
	200만원 미만	86	23.3	46.5	69.8	25.6	4.7	30.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3.1	52.2	75.3	22.6	2.2	24.7	100.0
	300~399 만원	333	17.4	56.5	73.9	23.1	3.0	26.1	100.0
	400만원 이상	595	15.8	54.1	69.9	25.5	4.5	30.1	100.0
	수도권	508	16.3	54.1	70.5	24.4	5.1	29.5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31.0	54.2	85.2	14.2	0.6	14.8	100.0
	호남권	143	19.6	63.6	83.2	16.1	0.7	16.8	100.0
	영남권	318	11.3	49.7	61.0	34.6	4.4	39.0	100.0
	강원	44	20.5	54.5	75.0	22.7	2.3	25.0	100.0
	제주	32	34.4	46.9	81.3	12.5	6.3	18.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1.9	56.4	68.4	27.2	4.4	31.6	100.0
	중/소도시	561	21.6	54.4	75.9	21.4	2.7	24.1	100.0
	읍/면	95	30.5	36.8	67.4	26.3	6.3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6.8	55.2	82.0	16.5	1.5	18.0	100.0
	중도	588	11.9	55.4	67.3	27.6	5.1	32.7	100.0
	보수적	217	18.0	47.5	65.4	30.4	4.1	34.6	100.0
종교	불교	207	19.3	49.3	68.6	26.6	4.8	31.4	100.0
	기독교	220	20.0	56.8	76.8	21.8	1.4	23.2	100.0
	천주교	81	11.1	65.4	76.5	16.0	7.4	23.5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7.9	53.4	71.2	25.0	3.7	28.8	100.0
	모름/무응답	19	5.3	42.1	47.4	47.4	5.3	52.6	100.0

표5-10.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㉔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21.1	54.3	75.3	21.4	3.1	24.5	0.2	100.0
성별									
남자	615	22.0	53.5	75.4	21.8	2.8	24.6	0.0	100.0
여자	585	20.2	55.0	75.2	21.0	3.4	24.4	0.3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6	52.0	70.6	23.5	5.4	29.0	0.5	100.0
30대	221	20.4	55.2	75.6	21.7	2.7	24.4	0.0	100.0
40대	252	21.4	54.4	75.8	21.4	2.8	24.2	0.0	100.0
50대	262	23.7	54.2	77.9	19.8	2.3	22.1	0.0	100.0
60대 이상	244	20.9	55.3	76.2	20.9	2.5	23.4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0.5	55.6	76.1	23.1	0.0	23.1	0.9	100.0
고졸	485	20.6	56.1	76.7	20.8	2.5	23.3	0.0	100.0
대재 이상	594	21.7	52.2	73.9	21.7	4.2	25.9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50.0	85.7	14.3	0.0	14.3	0.0	100.0
자영업	294	16.3	59.2	75.5	22.1	2.0	24.1	0.3	100.0
블루 칼라	337	23.1	53.4	76.6	20.8	2.4	23.1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31.1	42.8	73.9	22.0	4.2	26.1	0.0	100.0
전업 주부	168	12.5	61.9	74.4	22.6	3.0	25.6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5.4	59.3	74.8	19.5	5.7	25.2	0.0	100.0
200만원 미만	86	18.6	50.0	68.6	25.6	5.8	31.4	0.0	100.0
200~299 만원	186	22.6	54.8	77.4	20.4	1.6	22.0	0.5	100.0
300~399 만원	333	21.0	56.5	77.5	20.1	2.4	22.5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1.0	53.4	74.5	21.8	3.5	25.4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7.3	57.1	74.4	21.5	4.1	25.6	0.0	100.0
충청권	155	38.1	45.2	83.2	14.8	1.3	16.1	0.6	100.0
호남권	143	28.7	55.2	83.9	14.7	1.4	16.1	0.0	100.0
영남권	318	14.2	53.5	67.6	29.2	3.1	32.4	0.0	100.0
강원	44	18.2	61.4	79.5	20.5	0.0	20.5	0.0	100.0
제주	32	37.5	46.9	84.4	6.3	6.3	12.5	3.1	100.0
대도시	544	16.4	54.2	70.6	25.2	4.2	29.4	0.0	100.0
중/소도시	561	24.4	55.4	79.9	18.0	2.0	20.0	0.2	100.0
읍/면	95	28.4	47.4	75.8	20.0	3.2	23.2	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9.6	56.7	86.3	11.6	1.5	13.2	0.5	100.0
중도	588	17.2	53.9	71.1	24.8	4.1	28.9	0.0	100.0
보수적	217	16.1	50.7	66.8	30.0	3.2	33.2	0.0	100.0
불교	207	22.7	47.3	70.0	25.6	3.9	29.5	0.5	100.0
기독교	220	23.2	59.1	82.3	15.9	1.8	17.7	0.0	100.0
천주교	81	17.3	60.5	77.8	17.3	4.9	22.2	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0.6	54.2	74.8	22.1	3.0	25.0	0.1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7.4	57.9	36.8	5.3	42.1	0.0	100.0

표5-1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㉕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1.5	45.3	76.8	20.2	3.1	23.3	100.0
성별								
남자	615	31.9	45.9	77.7	18.7	3.6	22.3	100.0
여자	585	31.1	44.6	75.7	21.7	2.6	24.3	100.0
연령별								
19~29세	221	31.7	46.2	77.8	19.5	2.7	22.2	100.0
30대	221	29.9	43.4	73.3	23.5	3.2	26.7	100.0
40대	252	33.3	42.5	75.8	22.6	1.6	24.2	100.0
50대	262	31.7	46.6	78.2	17.6	4.2	21.8	100.0
60대 이상	244	30.7	47.5	78.3	18.0	3.7	2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5.6	50.4	76.1	23.1	0.9	23.9	100.0
고졸	485	30.9	46.6	77.5	19.8	2.7	22.5	100.0
대재 이상	594	33.2	43.1	76.3	19.9	3.9	23.7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7.1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31.3	43.9	75.2	21.8	3.1	24.8	100.0
블루 칼라	337	31.2	46.6	77.7	20.2	2.1	22.3	100.0
화이트 칼라	264	36.7	42.0	78.8	17.0	4.2	21.2	100.0
전업 주부	168	29.2	45.2	74.4	23.2	2.4	25.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6.0	50.4	76.4	18.7	4.9	23.6	100.0
200만원 미만	86	33.7	41.9	75.6	18.6	5.8	24.4	100.0
200~299 만원	186	29.6	45.7	75.3	23.1	1.6	24.7	100.0
300~399 만원	333	28.5	47.7	76.3	21.6	2.1	23.7	100.0
400만원 이상	595	33.4	44.2	77.6	18.7	3.7	22.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0.1	43.7	73.8	22.2	3.9	26.2	100.0
충청권	155	45.2	41.3	86.5	11.6	1.9	13.5	100.0
호남권	143	39.9	53.1	93.0	5.6	1.4	7.0	100.0
영남권	318	21.7	47.2	68.9	28.0	3.1	31.1	100.0
강원	44	29.5	40.9	70.5	29.5	0.0	29.5	100.0
제주	32	50.0	40.6	90.6	3.1	6.3	9.4	100.0
대도시	544	27.8	47.4	75.2	21.0	3.9	24.8	100.0
중/소도시	561	33.5	45.3	78.8	19.1	2.1	21.2	100.0
읍/면	95	41.1	32.6	73.7	22.1	4.2	2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1.3	44.8	86.1	12.4	1.5	13.9	100.0
중도	588	26.5	47.6	74.1	23.1	2.7	25.9	100.0
보수적	217	27.2	39.6	66.8	26.3	6.9	33.2	100.0
불교	207	28.0	44.9	72.9	22.7	4.3	27.1	100.0
기독교	220	33.6	50.9	84.5	12.7	2.7	15.5	100.0
천주교	81	27.2	49.4	76.5	19.8	3.7	23.5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2.3	43.4	75.7	21.8	2.5	24.3	100.0
모름/무응답	19	26.3	36.8	63.2	26.3	10.5	36.8	100.0

표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 이니까	이산 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남북간에 전쟁 위험을 없애기 위해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기타	계	
		%	%	%	%	%	%	%	
전 체	1200	35.3	10.0	32.5	3.1	18.8	0.4	100.0	
성별	남자	615	35.6	9.6	31.7	2.8	19.5	0.8	100.0
	여자	585	34.9	10.4	33.3	3.4	17.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30.8	10.4	35.7	3.2	19.9	0.0	100.0
	30대	221	33.0	11.8	31.7	1.4	21.3	0.9	100.0
	40대	252	33.7	10.7	34.1	2.4	18.7	0.4	100.0
	50대	262	36.3	9.5	31.7	4.2	18.3	0.0	100.0
	60대 이상	244	41.8	7.8	29.5	4.1	16.0	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5.3	12.8	25.6	2.6	13.7	0.0	100.0
	고졸	485	36.1	12.4	33.2	3.9	13.8	0.6	100.0
	대재 이상	594	32.5	7.6	33.5	2.5	23.6	0.3	100.0
	모름/무응답	4	50.0	0.0	0.0	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14.3	35.7	14.3	7.1	0.0	100.0
	자영업	294	38.8	11.2	29.6	1.4	18.7	0.3	100.0
	블루 칼라	337	35.3	10.1	35.0	3.6	15.4	0.6	100.0
	화이트 칼라	264	32.6	7.2	33.0	2.7	24.6	0.0	100.0
	전업 주부	168	32.1	10.1	36.9	4.2	16.7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7.4	12.2	25.2	4.1	19.5	1.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4.2	14.0	17.4	3.5	17.4	3.5	100.0
	200~299 만원	186	40.3	11.3	32.8	2.2	12.9	0.5	100.0
	300~399 만원	333	38.4	10.2	28.2	4.5	18.6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30.6	8.9	37.0	2.5	20.8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2.5	12.6	32.3	2.8	19.9	0.0	100.0
	충청권	155	39.4	7.7	31.0	3.2	18.1	0.6	100.0
	호남권	143	35.7	10.5	21.7	4.9	27.3	0.0	100.0
	영남권	318	37.4	8.2	38.7	2.8	12.3	0.6	100.0
	강원	44	34.1	2.3	27.3	2.3	29.5	4.5	100.0
	제주	32	37.5	6.3	37.5	3.1	15.6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4.4	6.4	37.9	2.6	18.6	0.2	100.0
	중/소도시	561	34.2	14.3	28.7	3.9	18.2	0.7	100.0
	읍/면	95	46.3	5.3	24.2	1.1	23.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8.7	7.6	31.4	2.3	19.7	0.3	100.0
	중도	588	32.0	11.9	32.5	2.7	20.4	0.5	100.0
	보수적	217	37.8	9.2	34.6	5.5	12.4	0.5	100.0
종교	불교	207	39.6	9.2	32.9	4.8	13.0	0.5	100.0
	기독교	220	41.8	5.0	32.3	3.2	17.7	0.0	100.0
	천주교	81	35.8	14.8	23.5	2.5	23.5	0.0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1.7	11.5	33.7	2.5	20.0	0.6	100.0
	모름/무응답	19	36.8	5.3	31.6	5.3	21.1	0.0	100.0

표7.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만약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 ○○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정치 체제의 차이	남북 간 사회 문화적 차이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기타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8.5	12.6	37.9	26.0	4.4	0.2	0.4	100.0	
성별	남자	615	19.3	11.9	37.9	25.2	4.9	0.2	0.7	100.0
	여자	585	17.6	13.3	37.9	26.8	3.9	0.2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0.8	10.0	38.0	27.1	4.1	0.0	0.0	100.0
	30대	221	14.0	16.7	40.3	26.7	2.3	0.0	0.0	100.0
	40대	252	18.3	9.9	35.7	31.3	4.4	0.0	0.4	100.0
	50대	262	19.5	13.7	38.2	22.9	4.6	0.4	0.8	100.0
	60대 이상	244	19.7	12.7	37.7	22.1	6.6	0.4	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5	14.5	35.9	17.1	6.0	0.0	0.0	100.0
	고졸	485	16.1	12.2	40.2	26.4	4.3	0.2	0.6	100.0
	대재 이상	594	19.0	12.3	36.5	27.4	4.2	0.2	0.3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7.1	57.1	28.6	0.0	0.0	0.0	100.0
	자영업	294	13.9	13.6	41.2	25.5	5.1	0.3	0.3	100.0
	블루 칼라	337	19.0	12.8	35.6	28.2	3.6	0.3	0.6	100.0
	화이트 칼라	264	22.3	10.2	36.0	25.0	6.1	0.0	0.4	100.0
	전업 주부	168	19.0	13.7	39.3	24.4	3.6	0.0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0.3	13.8	36.6	25.2	3.3	0.0	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6.3	18.6	37.2	18.6	7.0	1.2	1.2	100.0
	200~299 만원	186	19.4	12.4	41.4	22.0	3.8	0.0	1.1	100.0
	300~399 만원	333	21.3	14.1	33.9	27.3	3.3	0.0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17.0	10.9	39.2	27.6	4.9	0.2	0.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7.1	12.8	42.1	22.0	5.7	0.2	0.0	100.0
	충청권	155	25.2	9.0	45.8	18.1	0.6	0.6	0.6	100.0
	호남권	143	19.6	12.6	28.0	32.9	5.6	0.0	1.4	100.0
	영남권	318	14.8	13.8	34.0	33.3	3.8	0.0	0.3	100.0
	강원	44	27.3	11.4	34.1	25.0	2.3	0.0	0.0	100.0
	제주	32	28.1	15.6	21.9	25.0	6.3	0.0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5.1	9.9	41.7	27.8	5.5	0.0	0.0	100.0
	중/소도시	561	20.3	15.3	34.4	25.1	3.7	0.4	0.7	100.0
	읍/면	95	27.4	11.6	36.8	21.1	2.1	0.0	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9.2	13.4	35.2	25.6	5.6	0.3	0.8	100.0
	중도	588	17.9	12.2	38.9	26.2	4.6	0.0	0.2	100.0
	보수적	217	18.9	12.0	40.1	26.3	1.8	0.5	0.5	100.0
종교	불교	207	18.4	15.9	31.4	29.0	5.3	0.0	0.0	100.0
	기독교	220	20.9	11.4	37.7	25.9	3.2	0.5	0.5	100.0
	천주교	81	11.1	14.8	42.0	27.2	3.7	0.0	1.2	100.0
	기타	2	50.0	0.0	0.0	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8.5	11.6	40.1	24.7	4.5	0.1	0.4	100.0
	모름/무응답	19	21.1	15.8	21.1	36.8	5.3	0.0	0.0	100.0

표8.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4.3	47.6	61.9	29.9	8.2	38.1	100.0	
성별	남자	615	16.4	47.2	63.6	28.8	7.6	36.4	100.0
	여자	585	12.1	48.0	60.2	31.1	8.7	39.8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1	43.4	56.6	36.2	7.2	43.4	100.0
	30대	221	11.3	44.8	56.1	35.3	8.6	43.9	100.0
	40대	252	15.5	50.0	65.5	28.6	6.0	34.5	100.0
	50대	262	16.0	50.0	66.0	25.2	8.8	34.0	100.0
	60대 이상	244	15.2	48.8	63.9	25.8	10.2	3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0.3	53.8	64.1	24.8	11.1	35.9	100.0
	고졸	485	13.8	49.7	63.5	28.5	8.0	36.5	100.0
	대재 이상	594	15.7	44.4	60.1	32.2	7.7	39.9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57.1	71.4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15.0	45.6	60.5	31.3	8.2	39.5	100.0
	블루 칼라	337	15.4	48.7	64.1	29.7	6.2	35.9	100.0
	화이트 칼라	264	17.0	50.4	67.4	22.3	10.2	32.6	100.0
	전업 주부	168	7.1	47.6	54.8	34.5	10.7	45.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3.8	42.3	56.1	37.4	6.5	43.9	100.0
	200만원 미만	86	18.6	53.5	72.1	20.9	7.0	27.9	100.0
	200~299 만원	186	17.7	47.8	65.6	25.8	8.6	34.4	100.0
300~399 만원	333	13.2	48.3	61.6	33.0	5.4	38.4	100.0	
400만원 이상	595	13.3	46.2	59.5	30.8	9.7	40.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2.0	49.8	61.8	29.3	8.9	38.2	100.0
	충청권	155	27.7	49.0	76.8	21.3	1.9	23.2	100.0
	호남권	143	18.2	46.9	65.0	26.6	8.4	35.0	100.0
	영남권	318	7.9	45.6	53.5	36.2	10.4	46.5	100.0
	강원	44	18.2	36.4	54.5	38.6	6.8	45.5	100.0
	제주	32	28.1	43.8	71.9	21.9	6.3	28.1	100.0
	대도시	544	10.8	47.2	58.1	29.8	12.1	41.9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15.2	49.7	64.9	30.8	4.3	35.1	100.0
	읍/면	95	29.5	36.8	66.3	25.3	8.4	3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2.3	48.6	70.9	24.6	4.6	29.1	100.0
	중도	588	11.2	47.8	59.0	31.5	9.5	41.0	100.0
	보수적	217	8.3	45.2	53.5	35.5	11.1	46.5	100.0
종교	불교	207	15.0	42.5	57.5	31.4	11.1	42.5	100.0
	기독교	220	16.4	54.5	70.9	24.5	4.5	29.1	100.0
	천주교	81	12.3	48.1	60.5	29.6	9.9	39.5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3.9	46.8	60.7	31.4	7.9	39.3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2.1	52.6	26.3	21.1	47.4	100.0

표9.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6	26.3	30.9	52.4	16.7	69.1	100.0	
성별	남자	615	5.7	28.9	34.6	50.1	15.3	65.4	100.0
	여자	585	3.4	23.6	27.0	54.9	18.1	73.0	100.0
연령별	19~29세	221	2.3	27.6	29.9	53.4	16.7	70.1	100.0
	30대	221	3.2	20.8	24.0	56.6	19.5	76.0	100.0
	40대	252	6.0	25.8	31.7	52.4	15.9	68.3	100.0
	50대	262	6.5	31.3	37.8	48.1	14.1	62.2	100.0
	60대 이상	244	4.5	25.4	29.9	52.5	17.6	7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24.8	27.4	50.4	22.2	72.6	100.0
	고졸	485	2.9	28.9	31.8	52.0	16.3	68.2	100.0
	대재 이상	594	6.4	24.4	30.8	53.4	15.8	69.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42.9	50.0	42.9	7.1	50.0	100.0
	자영업	294	4.4	26.9	31.3	57.5	11.2	68.7	100.0
	블루 칼라	337	4.2	25.8	30.0	50.1	19.9	70.0	100.0
	화이트 칼라	264	6.8	26.5	33.3	50.0	16.7	66.7	100.0
	전업 주부	168	1.8	23.8	25.6	52.4	22.0	74.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9	27.6	32.5	52.8	14.6	67.5	100.0
	200만원 미만	86	5.8	30.2	36.0	51.2	12.8	64.0	100.0
	200~299 만원	186	4.8	23.1	28.0	55.9	16.1	72.0	100.0
300~399 만원	333	4.2	28.5	32.7	52.0	15.3	67.3	100.0	
400만원 이상	595	4.5	25.5	30.1	51.8	18.2	69.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1	28.1	32.3	53.5	14.2	67.7	100.0
	충청권	155	10.3	25.2	35.5	49.7	14.8	64.5	100.0
	호남권	143	4.9	33.6	38.5	43.4	18.2	61.5	100.0
	영남권	318	2.5	19.2	21.7	56.6	21.7	78.3	100.0
	강원	44	4.5	34.1	38.6	45.5	15.9	61.4	100.0
	제주	32	3.1	31.3	34.4	56.3	9.4	65.6	100.0
	대도시	544	3.1	23.9	27.0	54.2	18.8	73.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5.2	28.0	33.2	52.0	14.8	66.8	100.0
	읍/면	95	9.5	30.5	40.0	44.2	15.8	6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8	35.7	43.5	45.8	10.6	56.5	100.0
	중도	588	2.9	22.6	25.5	56.5	18.0	74.5	100.0
	보수적	217	3.2	19.4	22.6	53.5	24.0	77.4	100.0
종교	불교	207	5.3	24.6	30.0	46.9	23.2	70.0	100.0
	기독교	220	6.8	30.5	37.3	52.7	10.0	62.7	100.0
	천주교	81	2.5	22.2	24.7	55.6	19.8	75.3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3.9	26.5	30.4	53.8	15.8	69.6	100.0
	모름/무응답	19	5.3	10.5	15.8	47.4	36.8	84.2	100.0

표10-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3.4	15.1	18.5	27.3	33.8	20.4	54.2	100.0
성별									
남자	615	3.6	14.5	18.0	29.3	33.7	19.0	52.7	100.0
여자	585	3.2	15.7	19.0	25.3	33.8	21.9	55.7	100.0
연령별									
19~29세	221	2.7	12.7	15.4	30.3	35.3	19.0	54.3	100.0
30대	221	2.3	15.8	18.1	27.6	29.0	25.3	54.3	100.0
40대	252	4.8	13.5	18.3	26.6	36.1	19.0	55.2	100.0
50대	262	3.8	18.3	22.1	28.6	30.9	18.3	49.2	100.0
60대 이상	244	3.3	14.8	18.0	23.8	37.3	20.9	58.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	17.9	23.1	25.6	29.1	22.2	51.3	100.0
고졸	485	3.3	15.1	18.4	28.0	37.3	16.3	53.6	100.0
대재 이상	594	3.2	14.5	17.7	26.9	32.0	23.4	55.4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25.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14.3	28.6	14.3	50.0	7.1	57.1	100.0
자영업	294	2.4	16.0	18.4	28.9	31.0	21.8	52.7	100.0
블루 칼라	337	3.9	12.8	16.6	27.3	33.5	22.6	56.1	100.0
화이트 칼라	264	3.8	15.9	19.7	28.8	33.0	18.6	51.5	100.0
전업 주부	168	2.4	13.7	16.1	22.0	38.1	23.8	61.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9.5	23.6	29.3	35.0	12.2	47.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9.3	11.6	20.9	25.6	30.2	23.3	53.5	100.0
200~299 만원	186	2.2	13.4	15.6	29.6	34.9	19.9	54.8	100.0
300~399 만원	333	3.3	18.3	21.6	27.0	33.0	18.3	51.4	100.0
400만원 이상	595	3.0	14.3	17.3	27.1	34.3	21.3	55.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2	15.0	17.1	29.1	36.8	16.9	53.7	100.0
충청권	155	8.4	26.5	34.8	18.7	29.0	17.4	46.5	100.0
호남권	143	5.6	16.8	22.4	39.2	21.7	16.8	38.5	100.0
영남권	318	2.5	8.8	11.3	23.6	37.7	27.4	65.1	100.0
강원	44	0.0	6.8	6.8	20.5	36.4	36.4	72.7	100.0
제주	32	3.1	28.1	31.3	34.4	18.8	15.6	3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	11.4	13.8	29.4	35.5	21.3	56.8	100.0
중/소도시	561	4.8	17.6	22.5	26.4	32.8	18.4	51.2	100.0
읍/면	95	1.1	21.1	22.1	21.1	29.5	27.4	5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3	20.5	25.8	21.3	37.2	15.7	52.9	100.0
중도	588	3.2	12.6	15.8	32.8	31.5	19.9	51.4	100.0
보수적	217	0.5	12.0	12.4	23.5	33.6	30.4	64.1	100.0
불교	207	5.3	16.4	21.7	22.7	32.9	22.7	55.6	100.0
기독교	220	3.2	20.0	23.2	21.8	40.0	15.0	55.0	100.0
천주교	81	3.7	12.3	16.0	32.1	33.3	18.5	51.9	100.0
기타	2	0.0	0.0	0.0	50.0	0.0	5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3.0	13.6	16.5	29.8	32.3	21.3	53.7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5	10.5	31.6	26.3	31.6	57.9	100.0

표10-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전 체	1200	5.2	20.2	25.3	25.8	28.3	20.4	48.8	0.1	100.0
성별										
남자	615	5.0	19.0	24.1	26.8	28.5	20.7	49.1	0.0	100.0
여자	585	5.3	21.4	26.7	24.8	28.2	20.2	48.4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	22.6	26.2	26.2	29.4	18.1	47.5	0.0	100.0
30대	221	4.5	19.0	23.5	21.7	31.7	23.1	54.8	0.0	100.0
40대	252	6.3	20.2	26.6	24.6	25.8	23.0	48.8	0.0	100.0
50대	262	7.3	16.0	23.3	29.0	30.9	16.8	47.7	0.0	100.0
60대 이상	244	3.7	23.4	27.0	27.0	24.2	21.3	45.5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21.4	29.1	21.4	25.6	23.9	49.6	0.0	100.0
고졸	485	5.2	21.2	26.4	29.3	27.8	16.3	44.1	0.2	100.0
대재 이상	594	4.7	19.0	23.7	23.7	29.5	23.1	52.5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25.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7.1	21.4	28.6	35.7	14.3	50.0	0.0	100.0
자영업	294	4.8	21.8	26.5	25.2	24.5	23.5	48.0	0.3	100.0
블루 칼라	337	5.3	20.8	26.1	27.9	26.4	19.6	46.0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6.8	16.7	23.5	20.8	32.2	23.5	55.7	0.0	100.0
전업 주부	168	3.6	19.0	22.6	27.4	28.6	21.4	50.0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	25.2	28.5	30.1	33.3	8.1	41.5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7	19.8	24.4	25.6	30.2	19.8	50.0	0.0	100.0
200~299 만원	186	3.8	23.1	26.9	26.3	23.7	23.1	46.8	0.0	100.0
300~399 만원	333	5.4	22.5	27.9	25.8	26.7	19.2	45.9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5.5	18.0	23.5	25.7	30.4	20.3	50.8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1	24.8	29.9	24.8	27.0	18.3	45.3	0.0	100.0
충청권	155	8.4	18.7	27.1	21.9	27.7	22.6	50.3	0.6	100.0
호남권	143	4.2	22.4	26.6	30.8	25.2	17.5	42.7	0.0	100.0
영남권	318	4.7	12.3	17.0	28.3	32.7	22.0	54.7	0.0	100.0
강원	44	0.0	22.7	22.7	13.6	27.3	36.4	63.6	0.0	100.0
제주	32	6.3	18.8	25.0	31.3	25.0	18.8	43.8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2	17.8	22.1	29.6	28.1	20.0	48.2	0.2	100.0
중/소도시	561	6.4	22.5	28.9	23.0	28.3	19.8	48.1	0.0	100.0
읍/면	95	3.2	20.0	23.2	21.1	29.5	26.3	55.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3	24.1	30.4	22.0	31.1	16.2	47.3	0.3	100.0
중도	588	4.8	20.7	25.5	26.4	27.0	21.1	48.1	0.0	100.0
보수적	217	4.1	11.5	15.7	31.3	26.7	26.3	53.0	0.0	100.0
불교	207	7.2	15.0	22.2	26.6	25.6	25.6	51.2	0.0	100.0
기독교	220	6.8	24.1	30.9	22.3	29.1	17.7	46.8	0.0	100.0
천주교	81	4.9	21.0	25.9	19.8	33.3	21.0	54.3	0.0	100.0
기타	2	0.0	50.0	50.0	0.0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2	20.7	24.9	27.6	28.0	19.4	47.4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5.3	26.3	42.1	26.3	68.4	0.0	100.0

표10-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9.4	29.4	38.8	19.5	28.8	12.8	41.7	100.0
성별									
남자	615	8.8	31.7	40.5	18.2	28.6	12.7	41.3	100.0
여자	585	10.1	27.0	37.1	20.9	29.1	13.0	42.1	100.0
연령별									
19~29세	221	9.5	33.0	42.5	20.4	24.4	12.7	37.1	100.0
30대	221	12.2	24.4	36.7	18.6	30.8	14.0	44.8	100.0
40대	252	9.1	30.2	39.3	20.6	31.0	9.1	40.1	100.0
50대	262	6.5	34.4	40.8	17.6	25.2	16.4	41.6	100.0
60대 이상	244	10.2	24.6	34.8	20.5	32.8	11.9	44.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24.8	31.6	21.4	35.0	12.0	47.0	100.0
고졸	485	9.7	30.1	39.8	21.0	26.6	12.6	39.2	100.0
대재 이상	594	9.8	29.8	39.6	17.7	29.6	13.1	42.8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25.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14.3	28.6	7.1	50.0	14.3	64.3	100.0
자영업	294	5.4	29.3	34.7	17.0	34.4	13.9	48.3	100.0
블루 칼라	337	11.0	32.9	43.9	21.4	24.3	10.4	34.7	100.0
화이트 칼라	264	12.1	29.5	41.7	16.3	26.5	15.5	42.0	100.0
전업 주부	168	6.5	23.8	30.4	24.4	30.4	14.9	45.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2.2	29.3	41.5	22.0	28.5	8.1	36.6	100.0
200만원 미만	86	5.8	25.6	31.4	19.8	36.0	12.8	48.8	100.0
200~299 만원	186	11.3	26.3	37.6	17.7	35.5	9.1	44.6	100.0
300~399 만원	333	8.4	31.8	40.2	20.1	24.6	15.0	39.6	100.0
400만원 이상	595	9.9	29.6	39.5	19.7	28.1	12.8	40.8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5	26.8	35.2	16.1	37.8	10.8	48.6	100.0
충청권	155	24.5	34.8	59.4	15.5	18.7	6.5	25.2	100.0
호남권	143	5.6	40.6	46.2	30.8	15.4	7.7	23.1	100.0
영남권	318	5.7	23.3	28.9	23.9	25.2	22.0	47.2	100.0
강원	44	9.1	43.2	52.3	13.6	27.3	6.8	34.1	100.0
제주	32	6.3	37.5	43.8	6.3	34.4	15.6	5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6.3	28.3	34.6	20.4	31.8	13.2	45.0	100.0
중/소도시	561	12.3	31.2	43.5	19.3	25.5	11.8	37.3	100.0
읍/면	95	10.5	25.3	35.8	15.8	31.6	16.8	4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6.5	31.6	48.1	17.7	24.8	9.4	34.2	100.0
중도	588	6.1	28.7	34.9	21.3	29.8	14.1	43.9	100.0
보수적	217	5.5	27.2	32.7	18.0	33.6	15.7	49.3	100.0
종교									
불교	207	12.1	26.1	38.2	16.9	28.5	16.4	44.9	100.0
기독교	220	7.7	39.5	47.3	17.3	28.2	7.3	35.5	100.0
천주교	81	6.2	33.3	39.5	21.0	29.6	9.9	39.5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9.4	27.4	36.8	21.2	28.9	13.1	42.0	100.0
모름/무응답	19	15.8	5.3	21.1	10.5	26.3	42.1	68.4	100.0

표10-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2.5	7.8	10.3	29.4	43.8	16.6	60.3	100.0
성별									
남자	615	2.9	7.5	10.4	30.6	41.5	17.6	59.0	100.0
여자	585	2.1	8.0	10.1	28.2	46.2	15.6	61.7	100.0
연령별									
19~29세	221	3.2	7.7	10.9	24.4	44.3	20.4	64.7	100.0
30대	221	3.2	6.3	9.5	25.8	46.6	18.1	64.7	100.0
40대	252	2.4	8.3	10.7	27.8	47.2	14.3	61.5	100.0
50대	262	3.4	6.5	9.9	33.6	41.6	14.9	56.5	100.0
60대 이상	244	0.4	9.8	10.2	34.4	39.3	16.0	55.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11.1	12.0	35.0	37.6	15.4	53.0	100.0
고졸	485	2.7	7.6	10.3	33.2	40.4	16.1	56.5	100.0
대재 이상	594	2.7	7.1	9.8	25.3	47.8	17.2	65.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14.3	14.3	14.3	42.9	28.6	71.4	100.0
자영업	294	1.4	7.5	8.8	28.9	44.6	17.7	62.2	100.0
블루 칼라	337	2.1	8.3	10.4	35.3	34.7	19.6	54.3	100.0
화이트 칼라	264	4.2	8.0	12.1	27.3	44.7	15.9	60.6	100.0
전업 주부	168	2.4	5.4	7.7	24.4	53.6	14.3	67.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	8.9	12.2	27.6	51.2	8.9	60.2	100.0
200만원 미만	86	4.7	9.3	14.0	30.2	36.0	19.8	55.8	100.0
200~299 만원	186	1.1	8.6	9.7	36.0	36.6	17.7	54.3	100.0
300~399 만원	333	3.3	7.5	10.8	32.4	43.5	13.2	56.8	100.0
400만원 이상	595	2.2	7.4	9.6	25.5	47.2	17.6	64.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8	7.5	10.2	28.1	47.4	14.2	61.6	100.0
충청권	155	3.9	11.0	14.8	40.0	31.0	14.2	45.2	100.0
호남권	143	2.1	9.1	11.2	26.6	44.1	18.2	62.2	100.0
영남권	318	1.6	6.6	8.2	29.2	42.1	20.4	62.6	100.0
강원	44	0.0	4.5	4.5	29.5	47.7	18.2	65.9	100.0
제주	32	6.3	6.3	12.5	12.5	56.3	18.8	7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9	6.4	7.4	25.6	50.6	16.5	67.1	100.0
중/소도시	561	4.5	8.9	13.4	33.0	38.1	15.5	53.7	100.0
읍/면	95	0.0	8.4	8.4	30.5	37.9	23.2	6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3	9.6	11.9	35.9	40.8	11.4	52.2	100.0
중도	588	3.1	6.5	9.5	25.3	47.4	17.7	65.1	100.0
보수적	217	1.4	7.8	9.2	28.6	39.2	23.0	62.2	100.0
종교									
불교	207	2.9	10.1	13.0	30.4	38.2	18.4	56.5	100.0
기독교	220	3.6	9.1	12.7	33.2	39.1	15.0	54.1	100.0
천주교	81	3.7	4.9	8.6	25.9	53.1	12.3	65.4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1.9	7.0	8.9	28.8	45.6	16.7	62.3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5.3	15.8	47.4	31.6	78.9	100.0

표10-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2.7	10.8	13.4	27.5	37.1	21.9	59.0	0.1	100.0	
성별	남자	615	2.9	11.4	14.3	27.2	36.3	22.3	58.5	0.0	100.0
	여자	585	2.4	10.1	12.5	27.9	37.9	21.5	59.5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3	10.9	13.1	29.4	33.5	23.5	57.0	0.5	100.0
	30대	221	1.8	8.1	10.0	29.4	38.5	22.2	60.6	0.0	100.0
	40대	252	3.2	9.9	13.1	24.2	39.7	23.0	62.7	0.0	100.0
	50대	262	3.4	12.6	16.0	26.7	36.6	20.6	57.3	0.0	100.0
	60대 이상	244	2.5	11.9	14.3	28.3	36.9	20.5	57.4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14.5	15.4	31.6	33.3	19.7	53.0	0.0	100.0
	고졸	485	3.5	10.7	14.2	28.2	38.4	19.0	57.3	0.2	100.0
	대재 이상	594	2.4	9.9	12.3	25.9	37.0	24.7	61.8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25.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14.3	21.4	42.9	21.4	14.3	35.7	0.0	100.0
	자영업	294	2.4	8.2	10.5	25.9	38.8	24.8	63.6	0.0	100.0
	블루 칼라	337	2.1	12.8	14.8	27.9	39.2	17.8	57.0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4.5	11.7	16.3	26.1	33.0	24.6	57.6	0.0	100.0
	전업 주부	168	1.2	8.9	10.1	30.4	36.9	22.6	59.5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11.4	13.8	27.6	38.2	20.3	58.5	0.0	100.0
	200만원 미만	86	5.8	17.4	23.3	26.7	23.3	25.6	48.8	1.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1	9.7	10.8	31.2	40.9	17.2	58.1	0.0	100.0
	300~399 만원	333	2.4	11.4	13.8	28.5	36.9	20.7	57.7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9	9.7	12.6	25.9	38.0	23.5	61.5	0.0	100.0
	수도권	508	1.8	13.0	14.8	23.6	37.2	24.4	61.6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6.5	8.4	14.8	32.3	35.5	17.4	52.9	0.0	100.0
	호남권	143	2.1	12.6	14.7	34.3	31.5	19.6	51.0	0.0	100.0
	영남권	318	2.2	8.5	10.7	29.2	39.3	20.4	59.7	0.3	100.0
	강원	44	0.0	9.1	9.1	27.3	43.2	20.5	63.6	0.0	100.0
	제주	32	9.4	3.1	12.5	18.8	37.5	31.3	68.8	0.0	100.0
	대도시	544	1.3	9.2	10.5	29.8	36.4	23.3	59.7	0.0	100.0
	중/소도시	561	4.1	12.8	16.9	25.1	37.1	20.7	57.8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2.1	7.4	9.5	28.4	41.1	21.1	62.1	0.0	100.0
	진보적	395	3.0	12.2	15.2	33.2	33.7	18.0	51.6	0.0	100.0
	중도 보수적	588	2.9	9.9	12.8	25.3	37.6	24.1	61.7	0.2	100.0
종교	불교	207	3.4	12.6	15.9	30.9	34.3	18.8	53.1	0.0	100.0
	기독교	220	3.6	12.7	16.4	23.2	40.0	20.5	60.5	0.0	100.0
	천주교	81	2.5	16.0	18.5	28.4	34.6	18.5	53.1	0.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2	9.1	11.3	27.4	37.7	23.4	61.1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5.3	36.8	21.1	36.8	57.9	0.0	100.0

표10-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㉞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전 체	1200	3.8	11.8	15.7	21.0	37.8	25.4	63.3	0.1	100.0	
성별	남자	615	4.4	10.6	15.0	21.6	39.0	24.2	63.3	0.2	100.0
	여자	585	3.2	13.2	16.4	20.3	36.6	26.7	63.2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	12.2	16.7	21.7	37.1	24.4	61.5	0.0	100.0
	30대	221	2.7	9.0	11.8	21.7	38.5	28.1	66.5	0.0	100.0
	40대	252	4.8	12.3	17.1	18.3	40.1	24.6	64.7	0.0	100.0
	50대	262	3.8	13.4	17.2	22.5	35.5	24.8	60.3	0.0	100.0
	60대 이상	244	3.3	11.9	15.2	20.9	38.1	25.4	63.5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11.1	12.8	25.6	35.9	24.8	60.7	0.9	100.0
	고졸	485	3.7	13.8	17.5	21.9	37.7	22.9	60.6	0.0	100.0
	대재 이상	594	4.4	10.3	14.6	19.2	38.6	27.6	66.2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0.0	25.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0.0	7.1	42.9	28.6	21.4	50.0	0.0	100.0
	자영업	294	3.1	11.9	15.0	15.6	40.5	28.6	69.0	0.3	100.0
	블루 칼라	337	3.3	12.5	15.7	24.9	35.6	23.7	59.3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6.4	8.7	15.2	20.8	36.4	27.7	64.0	0.0	100.0
	전업 주부	168	1.8	14.9	16.7	20.2	37.5	25.6	63.1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3.8	17.9	22.0	42.3	17.9	60.2	0.0	100.0
	200만원 미만	86	4.7	12.8	17.4	25.6	26.7	30.2	57.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8	10.8	15.6	22.6	40.9	21.0	61.8	0.0	100.0
	300~399 만원	333	3.0	15.6	18.6	21.9	34.8	24.3	59.2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3.9	9.9	13.8	19.3	40.2	26.7	66.9	0.0	100.0
	수도권	508	2.8	14.0	16.7	21.5	37.8	24.0	61.8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5.8	14.8	20.6	23.9	32.9	21.9	54.8	0.6	100.0
	호남권	143	3.5	9.1	12.6	28.0	30.1	29.4	59.4	0.0	100.0
	영남권	318	4.1	8.5	12.6	17.9	44.0	25.5	69.5	0.0	100.0
	강원	44	6.8	11.4	18.2	6.8	43.2	31.8	75.0	0.0	100.0
	제주	32	6.3	9.4	15.6	18.8	28.1	37.5	65.6	0.0	100.0
	대도시	544	2.4	9.6	11.9	19.9	40.1	27.9	68.0	0.2	100.0
	중/소도시	561	5.5	14.4	20.0	22.3	35.7	22.1	57.8	0.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2.1	9.5	11.6	20.0	37.9	30.5	68.4	0.0	100.0
	진보적	395	4.8	13.9	18.7	23.5	37.0	20.8	57.7	0.0	100.0
	중도 보수적	588	3.7	11.1	14.8	20.4	38.1	26.7	64.8	0.0	100.0
종교	불교	207	4.3	12.6	16.9	19.8	37.7	25.1	62.8	0.5	100.0
	기독교	220	5.0	17.7	22.7	19.5	34.1	23.6	57.7	0.0	100.0
	천주교	81	3.7	14.8	18.5	29.6	30.9	21.0	51.9	0.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3	9.7	13.0	20.7	39.9	26.4	66.3	0.0	100.0
	모름/무응답	19	5.3	0.0	5.3	21.1	36.8	36.8	73.7	0.0	100.0

표10-7.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환경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전 체	1200	3.4	23.7	27.1	43.8	21.9	7.2	29.1	100.0
성별									
남자	615	2.9	23.3	26.2	45.5	20.8	7.5	28.3	100.0
여자	585	3.9	24.1	28.0	42.1	23.1	6.8	29.9	100.0
연령별									
19~29세	221	4.1	21.7	25.8	44.8	21.3	8.1	29.4	100.0
30대	221	1.8	20.8	22.6	49.3	19.5	8.6	28.1	100.0
40대	252	4.0	23.8	27.8	41.3	23.8	7.1	31.0	100.0
50대	262	3.8	28.2	32.1	40.1	21.0	6.9	27.9	100.0
60대 이상	244	3.3	23.0	26.2	44.7	23.8	5.3	29.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23.1	23.9	42.7	28.2	5.1	33.3	100.0
고졸	485	4.3	26.4	30.7	44.3	18.1	6.8	24.9	100.0
대재 이상	594	3.2	21.5	24.7	43.6	23.7	7.9	31.6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1.4	35.7	28.6	28.6	7.1	35.7	100.0
자영업	294	3.4	24.1	27.6	45.6	18.4	8.5	26.9	100.0
블루 칼라	337	3.0	28.2	31.2	44.2	19.0	5.6	24.6	100.0
화이트 칼라	264	3.4	20.5	23.9	44.3	22.3	9.5	31.8	100.0
전업 주부	168	3.0	22.6	25.6	43.5	25.0	6.0	31.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8.7	22.8	39.8	32.5	4.9	37.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1	19.8	27.9	34.9	25.6	11.6	37.2	100.0
200~299 만원	186	2.2	29.6	31.7	40.3	20.4	7.5	28.0	100.0
300~399 만원	333	2.7	24.9	27.6	46.2	20.1	6.0	26.1	100.0
400만원 이상	595	3.5	21.7	25.2	44.9	22.9	7.1	29.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8	24.8	27.6	44.9	20.9	6.7	27.6	100.0
충청권	155	5.8	27.1	32.9	38.7	22.6	5.8	28.4	100.0
호남권	143	2.8	23.8	26.6	58.0	8.4	7.0	15.4	100.0
영남권	318	1.9	19.5	21.4	40.3	29.6	8.8	38.4	100.0
강원	44	13.6	27.3	40.9	45.5	11.4	2.3	13.6	100.0
제주	32	6.3	25.0	31.3	21.9	34.4	12.5	46.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7	19.7	21.3	45.8	23.9	9.0	32.9	100.0
중/소도시	561	4.6	26.7	31.4	43.3	20.3	5.0	25.3	100.0
읍/면	95	6.3	28.4	34.7	35.8	20.0	9.5	2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6	26.3	30.9	45.8	18.2	5.1	23.3	100.0
중도	588	2.7	23.8	26.5	42.7	22.1	8.7	30.8	100.0
보수적	217	3.2	18.4	21.7	43.3	28.1	6.9	35.0	100.0
종교									
불교	207	3.4	21.7	25.1	39.6	25.6	9.7	35.3	100.0
기독교	220	5.0	24.1	29.1	46.4	20.9	3.6	24.5	100.0
천주교	81	3.7	28.4	32.1	35.8	27.2	4.9	32.1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8	24.0	26.8	45.0	20.7	7.5	28.2	100.0
모름/무응답	19	5.3	5.3	10.5	52.6	15.8	21.1	36.8	100.0

표10-8.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무응답	계
		크게 개선	약간 개선	%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	%	%	%	%	%	%	%	%
전 체	1200	4.1	17.8	21.8	47.3	24.0	6.8	30.8	0.1	100.0
성별										
남자	615	5.0	18.0	23.1	46.3	24.2	6.3	30.6	0.0	100.0
여자	585	3.1	17.4	20.5	48.2	23.8	7.4	31.1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7	20.4	23.1	44.3	25.8	6.8	32.6	0.0	100.0
30대	221	1.4	16.3	17.6	50.2	23.5	8.1	31.7	0.5	100.0
40대	252	6.0	18.3	24.2	47.6	23.4	4.8	28.2	0.0	100.0
50대	262	6.9	16.4	23.3	45.4	25.2	6.1	31.3	0.0	100.0
60대 이상	244	2.9	17.6	20.5	48.8	22.1	8.6	30.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13.7	17.1	44.4	29.1	9.4	38.5	0.0	100.0
고졸	485	4.7	18.1	22.9	52.8	18.8	5.4	24.1	0.2	100.0
대재 이상	594	3.7	18.4	22.1	43.1	27.3	7.6	34.8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75.0	25.0	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28.6	35.7	28.6	28.6	7.1	35.7	0.0	100.0
자영업	294	2.7	15.0	17.7	48.6	25.5	8.2	33.7	0.0	100.0
블루 칼라	337	5.0	17.8	22.8	51.0	22.0	4.2	26.1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5.3	21.6	26.9	41.7	22.7	8.3	31.1	0.4	100.0
전업 주부	168	2.4	15.5	17.9	49.4	25.0	7.7	32.7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7.9	22.0	44.7	26.8	6.5	33.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0	16.3	23.3	39.5	25.6	11.6	37.2	0.0	100.0
200~299 만원	186	3.8	20.4	24.2	47.3	20.4	8.1	28.5	0.0	100.0
300~399 만원	333	4.2	18.6	22.8	50.5	21.9	4.8	26.7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3.7	16.6	20.3	46.6	26.1	6.9	32.9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1	18.3	21.5	53.0	19.7	5.9	25.6	0.0	100.0
충청권	155	9.0	20.6	29.7	42.6	22.6	5.2	27.7	0.0	100.0
호남권	143	3.5	22.4	25.9	41.3	25.2	7.0	32.2	0.7	100.0
영남권	318	2.8	13.8	16.7	44.0	30.2	9.1	39.3	0.0	100.0
강원	44	6.8	11.4	18.2	50.0	27.3	4.5	31.8	0.0	100.0
제주	32	6.3	21.9	28.1	34.4	28.1	9.4	37.5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6	11.9	14.5	51.7	25.4	8.5	33.8	0.0	100.0
중/소도시	561	5.5	23.9	29.4	43.0	22.8	4.6	27.5	0.2	100.0
읍/면	95	4.2	14.7	18.9	47.4	23.2	10.5	33.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6	22.0	27.6	47.6	20.5	4.3	24.8	0.0	100.0
중도	588	3.1	14.6	17.7	48.3	26.2	7.7	33.8	0.2	100.0
보수적	217	4.1	18.4	22.6	43.8	24.4	9.2	33.6	0.0	100.0
종교										
불교	207	3.9	15.9	19.8	47.3	23.2	9.2	32.4	0.5	100.0
기독교	220	3.6	25.5	29.1	46.4	20.0	4.5	24.5	0.0	100.0
천주교	81	7.4	16.0	23.5	44.4	27.2	4.9	32.1	0.0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9	16.2	20.1	48.1	24.6	7.2	31.7	0.0	100.0
모름/무응답	19	5.3	5.3	10.5	36.8	47.4	5.3	52.6	0.0	100.0

표10-9.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㉔ 저출산·고령화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8.8	37.3	46.1	39.2	11.3	3.3	14.7	0.1	100.0	
성별	남자	615	10.6	38.7	49.3	36.1	10.1	4.4	14.5	0.2	100.0
	여자	585	7.0	35.7	42.7	42.4	12.6	2.2	14.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9.5	37.6	47.1	36.7	13.1	2.7	15.8	0.5	100.0
	30대	221	9.5	38.9	48.4	40.3	7.2	4.1	11.3	0.0	100.0
	40대	252	6.7	35.3	42.1	43.7	11.1	3.2	14.3	0.0	100.0
	50대	262	9.9	35.9	45.8	37.8	13.4	3.1	16.4	0.0	100.0
	60대 이상	244	8.6	38.9	47.5	37.3	11.5	3.7	15.2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40.2	47.0	35.0	12.0	6.0	17.9	0.0	100.0
	고졸	485	9.7	37.5	47.2	39.8	10.5	2.3	12.8	0.2	100.0
	대재 이상	594	8.6	36.7	45.3	39.1	12.0	3.7	15.7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28.6	50.0	28.6	14.3	7.1	21.4	0.0	100.0
	자영업	294	6.1	40.8	46.9	41.2	8.2	3.7	11.9	0.0	100.0
	블루 칼라	337	11.3	35.6	46.9	38.9	12.5	1.8	14.2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10.2	31.4	41.7	41.7	10.6	5.7	16.3	0.4	100.0
	전업 주부	168	5.4	42.3	47.6	36.3	13.7	2.4	16.1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39.8	48.8	35.0	13.8	2.4	16.3	0.0	100.0
	200만원 미만	86	8.1	41.9	50.0	33.7	8.1	8.1	16.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1.3	39.8	51.1	33.3	10.8	4.8	15.6	0.0	100.0
	300~399 만원	333	7.8	36.9	44.7	40.5	12.0	2.7	14.7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8.7	36.0	44.7	41.0	11.6	2.5	14.1	0.2	100.0
	수도권	508	6.5	45.7	52.2	36.0	8.7	3.1	11.8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3.9	29.0	52.9	31.6	13.5	1.9	15.5	0.0	100.0
	호남권	143	8.4	33.6	42.0	47.6	6.3	4.2	10.5	0.0	100.0
	영남권	318	6.0	26.7	32.7	46.2	17.3	3.5	20.8	0.3	100.0
	강원	44	6.8	63.6	70.5	20.5	6.8	2.3	9.1	0.0	100.0
	제주	32	6.3	28.1	34.4	43.8	12.5	9.4	21.9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7	39.3	45.0	40.1	11.0	3.9	14.9	0.0	100.0
	중/소도시	561	11.2	36.7	48.0	37.6	11.9	2.3	14.3	0.2	100.0
	읍/면	95	12.6	28.4	41.1	43.2	9.5	6.3	15.8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1.4	39.0	50.4	35.9	11.1	2.5	13.7	0.0	100.0
	중도	588	7.1	36.7	43.9	41.0	11.1	3.9	15.0	0.2	100.0
	보수적	217	8.8	35.5	44.2	40.1	12.4	3.2	15.7	0.0	100.0
종교	불교	207	8.7	32.9	41.5	37.7	14.5	5.8	20.3	0.5	100.0
	기독교	220	6.4	50.0	56.4	35.0	7.3	1.4	8.6	0.0	100.0
	천주교	81	7.4	42.0	49.4	42.0	7.4	1.2	8.6	0.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9.2	34.3	43.5	41.1	11.8	3.6	15.4	0.0	100.0
	모름/무응답	19	31.6	26.3	57.9	21.1	21.1	0.0	21.1	0.0	100.0

표10-10.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㉕ 세대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2	14.3	16.4	48.0	28.6	7.0	35.6	100.0	
성별	남자	615	2.8	15.8	18.5	46.7	28.1	6.7	34.8	100.0
	여자	585	1.5	12.6	14.2	49.4	29.1	7.4	36.4	100.0
연령별	19~29세	221	2.3	13.6	15.8	44.3	32.1	7.7	39.8	100.0
	30대	221	0.0	13.1	13.1	49.3	29.4	8.1	37.6	100.0
	40대	252	4.4	11.9	16.3	50.8	27.0	6.0	32.9	100.0
	50대	262	2.3	14.9	17.2	45.8	30.5	6.5	37.0	100.0
	60대 이상	244	1.6	17.6	19.3	49.6	24.2	7.0	31.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15.4	16.2	49.6	23.9	10.3	34.2	100.0
	고졸	485	2.5	15.1	17.5	49.7	28.7	4.1	32.8	100.0
	대재 이상	594	2.2	13.5	15.7	46.1	29.5	8.8	38.2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14.3	21.4	50.0	14.3	14.3	28.6	100.0
	자영업	294	1.4	11.9	13.3	49.7	30.6	6.5	37.1	100.0
	블루 칼라	337	2.7	15.1	17.8	48.7	27.3	6.2	33.5	100.0
	화이트 칼라	264	2.3	15.2	17.4	46.2	26.1	10.2	36.4	100.0
	전업 주부	168	1.8	13.1	14.9	50.0	30.4	4.8	35.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17.1	19.5	43.1	31.7	5.7	37.4	100.0
	200만원 미만	86	4.7	16.3	20.9	48.8	19.8	10.5	30.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1	14.0	15.1	46.8	30.1	8.1	38.2	100.0
	300~399 만원	333	3.0	14.7	17.7	50.8	24.9	6.6	31.5	100.0
	400만원 이상	595	1.7	13.8	15.5	46.7	31.4	6.4	37.8	100.0
	수도권	508	1.2	16.3	17.5	44.1	31.7	6.7	38.4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5.8	16.1	21.9	47.1	23.9	7.1	31.0	100.0
	호남권	143	3.5	18.9	22.4	55.9	15.4	6.3	21.7	100.0
	영남권	318	1.6	7.9	9.4	52.8	29.9	7.9	37.7	100.0
	강원	44	0.0	11.4	11.4	45.5	38.6	4.5	43.2	100.0
	제주	32	3.1	18.8	21.9	34.4	34.4	9.4	43.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7	13.4	15.1	47.1	30.3	7.5	37.9	100.0
	중/소도시	561	3.0	15.9	18.9	46.5	28.9	5.7	34.6	100.0
	읍/면	95	0.0	9.5	9.5	62.1	16.8	11.6	2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5	19.7	22.3	45.3	26.6	5.8	32.4	100.0
	중도	588	2.4	12.6	15.0	47.1	30.3	7.7	37.9	100.0
	보수적	217	0.9	8.8	9.7	55.3	27.6	7.4	35.0	100.0
종교	불교	207	2.9	13.0	15.9	46.4	27.5	10.1	37.7	100.0
	기독교	220	1.8	17.3	19.1	45.9	30.0	5.0	35.0	100.0
	천주교	81	2.5	18.5	21.0	50.6	23.5	4.9	28.4	100.0
	기타	2	50.0	0.0	50.0	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9	13.4	15.4	49.3	28.6	6.7	35.3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5.3	36.8	42.1	15.8	57.9	100.0

표11.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재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전 체	1200	44.8	30.7	21.8	2.8	100.0
성별						
남자	615	46.2	28.1	22.4	3.3	100.0
여자	585	43.4	33.3	21.0	2.2	100.0
연령별						
19~29세	221	43.0	29.0	26.2	1.8	100.0
30대	221	51.6	26.7	19.9	1.8	100.0
40대	252	40.1	33.7	23.4	2.8	100.0
50대	262	42.7	31.7	21.4	4.2	100.0
60대 이상	244	47.5	31.6	18.0	2.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8.7	29.9	17.1	4.3	100.0
고졸	485	40.0	33.8	23.1	3.1	100.0
대재 이상	594	48.1	28.1	21.5	2.2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21.4	35.7	14.3	100.0
자영업	294	47.3	28.9	21.4	2.4	100.0
블루 칼라	337	42.1	31.2	24.9	1.8	100.0
화이트 칼라	264	46.2	29.9	20.1	3.8	100.0
전업 주부	168	45.2	31.0	20.8	3.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4.7	35.8	17.1	2.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4.2	29.1	23.3	3.5	100.0
200~299 만원	186	39.8	30.6	26.9	2.7	100.0
300~399 만원	333	38.4	37.5	20.7	3.3	100.0
400만원 이상	595	50.1	27.1	20.5	2.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7.0	30.7	21.3	1.0	100.0
충청권	155	51.6	20.0	25.2	3.2	100.0
호남권	143	42.7	28.7	23.8	4.9	100.0
영남권	318	39.9	34.9	20.8	4.4	100.0
강원	44	45.5	34.1	18.2	2.3	100.0
제주	32	34.4	43.8	18.8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2.4	26.5	19.1	2.0	100.0
중/소도시	561	37.1	34.8	25.3	2.9	100.0
읍/면	95	47.4	30.5	15.8	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8.7	35.2	21.5	4.6	100.0
중도	588	45.7	28.7	23.5	2.0	100.0
보수적	217	53.5	27.6	17.5	1.4	100.0
종교						
불교	207	42.5	34.3	18.8	4.3	100.0
기독교	220	44.1	37.3	16.8	1.8	100.0
천주교	81	48.1	24.7	24.7	2.5	100.0
기타	2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5.6	27.9	24.0	2.5	100.0
모름/무응답	19	42.1	36.8	15.8	5.3	100.0

표12-1. 학교에서 배운 통일 교육의 기억 정도 - ㉔ 갈등해결교육

문)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운 적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3.5	16.9	27.3	27.2	25.1	100.0
성별							
남자	615	3.7	17.7	27.6	26.7	24.2	100.0
여자	585	3.2	16.1	27.0	27.7	26.0	100.0
연령별							
19~29세	221	3.2	15.4	34.8	24.9	21.7	100.0
30대	221	3.6	17.2	29.0	31.7	18.6	100.0
40대	252	4.8	15.5	24.2	31.0	24.6	100.0
50대	262	2.7	19.5	27.5	26.3	24.0	100.0
60대 이상	244	3.3	16.8	22.1	22.1	3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23.1	18.8	22.2	34.2	100.0
고졸	485	2.9	15.5	26.4	28.0	27.2	100.0
대재 이상	594	4.4	16.8	29.5	27.6	21.7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75.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21.4	21.4	35.7	14.3	100.0
자영업	294	2.4	12.9	23.8	27.9	33.0	100.0
블루 칼라	337	2.7	16.3	26.1	31.2	23.7	100.0
화이트 칼라	264	6.1	17.4	30.3	26.5	19.7	100.0
전업 주부	168	3.0	19.6	27.4	25.0	25.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	22.8	33.3	17.9	22.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0	18.6	15.1	24.4	34.9	100.0
200~299 만원	186	1.6	11.3	28.0	29.6	29.6	100.0
300~399 만원	333	3.9	18.9	27.6	22.8	26.7	100.0
400만원 이상	595	3.4	17.3	28.7	29.2	21.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7	19.1	22.8	24.2	30.1	100.0
충청권	155	3.9	24.5	40.6	20.6	10.3	100.0
호남권	143	6.3	14.0	25.2	30.1	24.5	100.0
영남권	318	1.6	13.2	28.9	33.6	22.6	100.0
강원	44	0.0	2.3	27.3	27.3	43.2	100.0
제주	32	9.4	15.6	28.1	28.1	18.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5	12.1	28.1	30.5	25.7	100.0
중/소도시	561	3.6	22.8	26.4	24.2	23.0	100.0
읍/면	95	3.2	9.5	28.4	25.3	3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1	19.7	26.3	26.3	22.5	100.0
중도	588	3.2	16.7	26.5	28.2	25.3	100.0
보수적	217	1.4	12.4	31.3	25.8	29.0	100.0
종교							
불교	207	3.9	20.3	22.7	28.0	25.1	100.0
기독교	220	3.6	12.3	23.2	30.0	30.9	100.0
천주교	81	2.5	12.3	27.2	27.2	30.9	100.0
기타	2	50.0	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4	18.2	29.7	26.2	22.5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5	42.1	21.1	26.3	100.0

표12-2. 학교에서 배운 통일 교육의 기억 정도 - ㉔ 평화교육

문)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운 적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5.4	25.5	30.8	23.2	15.1	100.0	
성별	남자	615	5.9	25.7	31.4	22.8	14.3	100.0
	여자	585	5.0	25.3	30.3	23.6	15.9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	25.3	35.3	21.7	13.1	100.0
	30대	221	4.1	23.1	34.8	24.9	13.1	100.0
	40대	252	4.4	29.8	28.6	25.8	11.5	100.0
	50대	262	8.0	27.1	30.2	19.8	14.9	100.0
	60대 이상	244	5.7	21.7	26.2	23.8	22.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	18.8	23.1	27.4	25.6	100.0
	고졸	485	6.4	25.6	29.9	23.5	14.6	100.0
	대재 이상	594	4.7	26.8	32.8	22.2	13.5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25.0	75.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21.4	21.4	35.7	7.1	100.0
	자영업	294	4.1	23.5	28.6	26.2	17.7	100.0
	블루 칼라	337	3.9	23.4	33.5	24.3	14.8	100.0
	화이트 칼라	264	7.6	27.3	31.8	20.8	12.5	100.0
	전업 주부	168	6.0	29.2	29.2	20.8	14.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27.6	30.1	19.5	16.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0.5	18.6	18.6	30.2	22.1	100.0
	200~299 만원	186	2.7	21.5	26.9	29.0	19.9	100.0
	300~399 만원	333	5.1	22.5	34.5	22.2	15.6	100.0
	400만원 이상	595	5.7	29.4	31.8	20.8	12.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6.7	29.5	21.9	21.3	20.7	100.0
	충청권	155	4.5	29.7	42.6	14.8	8.4	100.0
	호남권	143	9.1	25.2	35.7	16.8	13.3	100.0
	영남권	318	2.8	18.2	35.5	32.4	11.0	100.0
	강원	44	0.0	15.9	38.6	29.5	15.9	100.0
	제주	32	6.3	28.1	37.5	21.9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5	24.3	29.4	25.7	15.1	100.0
	중/소도시	561	5.7	26.9	31.4	21.9	14.1	100.0
	읍/면	95	3.2	24.2	35.8	15.8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1	26.6	28.4	20.8	17.2	100.0
	중도	588	4.9	26.4	32.1	23.8	12.8	100.0
	보수적	217	3.7	21.2	31.8	25.8	17.5	100.0
종교	불교	207	7.2	19.8	31.4	25.1	16.4	100.0
	기독교	220	4.5	22.7	27.3	28.6	16.8	100.0
	천주교	81	4.9	25.9	29.6	19.8	19.8	100.0
	기타	2	0.0	5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2	27.7	32.0	21.5	13.6	100.0
	모름/무응답	19	5.3	36.8	26.3	15.8	15.8	100.0

표12-3. 학교에서 배운 통일 교육의 기억 정도 - ㉕ 통일 비용과 이익 교육

문)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운 적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5.3	15.2	27.5	25.2	26.9	100.0	
성별	남자	615	6.3	14.6	28.5	26.3	24.2	100.0
	여자	585	4.1	15.7	26.5	23.9	29.7	100.0
연령별	19~29세	221	5.0	18.1	26.7	25.3	24.9	100.0
	30대	221	4.1	14.9	33.5	27.6	19.9	100.0
	40대	252	5.6	15.9	24.6	29.0	25.0	100.0
	50대	262	5.7	13.7	32.1	21.8	26.7	100.0
	60대 이상	244	5.7	13.5	20.9	22.5	3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0	9.4	27.4	19.7	37.6	100.0
	고졸	485	4.7	15.7	26.8	22.5	30.3	100.0
	대재 이상	594	5.6	15.7	28.1	28.5	22.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25.0	25.0	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35.7	14.3	21.4	21.4	100.0
	자영업	294	4.1	10.5	29.6	24.1	31.6	100.0
	블루 칼라	337	5.6	16.0	25.2	28.8	24.3	100.0
	화이트 칼라	264	8.0	16.7	29.2	24.2	22.0	100.0
	전업 주부	168	3.0	16.1	27.4	23.2	30.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7.1	26.8	22.8	29.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8	10.5	14.0	29.1	33.7	100.0
	200~299 만원	186	2.7	11.8	33.3	21.5	30.6	100.0
	300~399 만원	333	4.8	16.5	26.7	21.9	30.0	100.0
	400만원 이상	595	5.2	16.1	28.1	27.6	23.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5	13.6	30.1	19.7	29.1	100.0
	충청권	155	3.9	31.0	27.1	23.2	14.8	100.0
	호남권	143	6.3	17.5	22.4	23.1	30.8	100.0
	영남권	318	2.2	10.1	27.4	33.3	27.0	100.0
	강원	44	0.0	6.8	13.6	38.6	40.9	100.0
	제주	32	9.4	15.6	31.3	31.3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0	14.7	27.6	27.6	26.1	100.0
	중/소도시	561	6.6	16.0	27.5	23.5	26.4	100.0
	읍/면	95	4.2	12.6	27.4	21.1	34.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6	16.2	24.8	27.1	26.3	100.0
	중도	588	6.1	15.0	29.1	24.7	25.2	100.0
	보수적	217	2.3	13.8	28.1	23.0	32.7	100.0
종교	불교	207	7.2	15.0	23.2	23.2	31.4	100.0
	기독교	220	3.6	13.6	25.5	24.1	33.2	100.0
	천주교	81	1.2	11.1	33.3	21.0	33.3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8	15.9	28.5	27.0	22.8	100.0
	모름/무응답	19	0.0	15.8	42.1	15.8	26.3	100.0

표12-4. 학교에서 배운 통일 교육의 기억 정도 - ㉔ 한민족 정체성 교육

문)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운 적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5.8	19.2	32.8	26.2	16.1	100.0	
성별	남자	615	6.2	20.8	31.7	27.6	13.7	100.0
	여자	585	5.3	17.4	34.0	24.6	18.6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	20.4	35.3	23.5	16.3	100.0
	30대	221	5.0	18.1	36.7	28.1	12.2	100.0
	40대	252	6.3	20.6	28.2	30.2	14.7	100.0
	50대	262	5.7	19.5	33.6	26.0	15.3	100.0
	60대 이상	244	7.0	17.2	31.1	23.0	2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17.1	23.9	24.8	26.5	100.0
	고졸	485	4.9	19.6	33.8	25.8	15.9	100.0
	대재 이상	594	6.1	19.4	33.8	26.4	14.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0.0	25.0	75.0	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28.6	0.0	57.1	7.1	100.0
	자영업	294	3.1	16.0	34.4	29.3	17.3	100.0
	블루 칼라	337	5.3	19.0	32.9	28.5	14.2	100.0
	화이트 칼라	264	9.8	21.6	31.8	23.5	13.3	100.0
	전업 주부	168	4.2	16.7	37.5	19.6	22.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24.4	28.5	23.6	17.1	100.0
	200만원 미만	86	7.0	18.6	20.9	25.6	27.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7.0	18.3	27.4	30.1	17.2	100.0
	300~399 만원	333	4.2	18.6	35.1	25.5	16.5	100.0
	400만원 이상	595	6.1	19.8	35.0	25.4	13.8	100.0
	수도권	508	7.7	15.7	34.3	23.8	18.5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5.8	33.5	35.5	16.1	9.0	100.0
	호남권	143	7.0	26.6	22.4	28.0	16.1	100.0
	영남권	318	2.5	13.5	35.5	31.4	17.0	100.0
	강원	44	2.3	18.2	29.5	36.4	13.6	100.0
	제주	32	6.3	28.1	21.9	37.5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1	17.3	34.7	27.0	15.8	100.0
	중/소도시	561	6.4	20.3	32.4	25.3	15.5	100.0
	읍/면	95	5.3	23.2	24.2	26.3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1	22.5	30.9	24.8	14.7	100.0
	중도	588	5.4	17.9	33.3	26.5	16.8	100.0
	보수적	217	4.1	16.6	35.0	27.6	16.6	100.0
종교	불교	207	6.3	21.7	30.0	22.7	19.3	100.0
	기독교	220	5.9	19.5	30.0	26.8	17.7	100.0
	천주교	81	8.6	13.6	33.3	25.9	18.5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2	18.8	34.6	27.3	14.2	100.0
	모름/무응답	19	5.3	15.8	36.8	21.1	21.1	100.0

표12-5. 학교에서 배운 통일 교육의 기억 정도 - ㉕ 국가 안보교육

문)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운 적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10.4	26.8	34.9	19.8	8.2	100.0	
성별	남자	615	12.7	27.8	34.5	17.6	7.5	100.0
	여자	585	8.0	25.6	35.4	22.1	8.9	100.0
연령별	19~29세	221	6.8	24.0	34.4	21.7	13.1	100.0
	30대	221	5.9	23.5	38.5	21.7	10.4	100.0
	40대	252	9.5	29.0	32.5	22.6	6.3	100.0
	50대	262	14.5	29.4	35.1	17.2	3.8	100.0
	60대 이상	244	14.3	27.0	34.4	16.0	8.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25.6	32.5	21.4	12.0	100.0
	고졸	485	10.5	27.6	36.9	19.0	6.0	100.0
	대재 이상	594	10.8	26.4	33.7	19.9	9.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0.0	50.0	5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14.3	57.1	7.1	0.0	100.0
	자영업	294	11.2	23.1	38.4	20.7	6.5	100.0
	블루 칼라	337	8.9	28.2	35.0	18.4	9.5	100.0
	화이트 칼라	264	11.4	28.4	32.6	19.7	8.0	100.0
	전업 주부	168	8.9	30.4	34.5	19.6	6.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1.4	24.4	29.3	22.8	12.2	100.0
	200만원 미만	86	19.8	24.4	27.9	17.4	10.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2.4	25.8	31.2	19.9	10.8	100.0
	300~399 만원	333	8.1	25.2	37.8	21.6	7.2	100.0
	400만원 이상	595	9.7	28.2	35.5	19.0	7.6	100.0
	수도권	508	7.7	26.2	33.1	20.9	12.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9.0	38.7	38.7	10.3	3.2	100.0
	호남권	143	19.6	20.3	35.7	18.9	5.6	100.0
	영남권	318	8.2	26.1	34.9	23.6	7.2	100.0
	강원	44	22.7	22.7	43.2	11.4	0.0	100.0
	제주	32	25.0	18.8	31.3	25.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0	27.4	33.6	20.4	9.6	100.0
	중/소도시	561	10.3	26.9	36.4	19.4	7.0	100.0
	읍/면	95	18.9	22.1	33.7	17.9	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9	30.1	32.7	17.7	8.6	100.0
	중도	588	8.2	23.6	37.2	22.1	8.8	100.0
	보수적	217	15.7	29.0	32.7	17.1	5.5	100.0
종교	불교	207	12.6	27.1	37.7	16.4	6.3	100.0
	기독교	220	10.0	26.8	30.9	21.4	10.9	100.0
	천주교	81	7.4	27.2	34.6	19.8	11.1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9.8	26.5	35.6	20.4	7.6	100.0
	모름/무응답	19	26.3	21.1	31.6	15.8	5.3	100.0

표12-6. 학교에서 배운 통일 교육의 기억 정도 - ㉔ 북한 이해교육

문)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사례수	매우 많이 남아있다	많이 남아있다	조금 남아있다	거의 남아있지 않다	배운 적 없다	계
		%	%	%	%	%	%
전 체	1200	3.6	15.3	36.3	24.8	20.0	100.0
성별							
남자	615	3.7	17.2	34.3	26.5	18.2	100.0
여자	585	3.4	13.3	38.3	23.1	21.9	100.0
연령별							
19~29세	221	4.1	15.4	36.7	25.3	18.6	100.0
30대	221	2.3	15.4	42.1	25.8	14.5	100.0
40대	252	4.4	15.1	31.7	29.8	19.0	100.0
50대	262	4.2	14.9	42.4	19.5	19.1	100.0
60대 이상	244	2.9	16.0	28.7	24.2	28.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17.9	29.1	25.6	26.5	100.0
고졸	485	3.7	13.0	38.8	23.5	21.0	100.0
대재 이상	594	4.0	16.8	35.4	25.8	18.0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75.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1.4	28.6	28.6	7.1	100.0
자영업	294	1.7	13.6	38.1	24.8	21.8	100.0
블루 칼라	337	3.0	11.9	37.7	27.3	20.2	100.0
화이트 칼라	264	6.1	19.7	33.3	23.9	17.0	100.0
전업 주부	168	3.0	11.9	42.3	22.0	20.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23.6	26.8	23.6	22.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0	17.4	19.8	25.6	30.2	100.0
200~299 만원	186	2.2	14.5	35.5	23.7	24.2	100.0
300~399 만원	333	2.4	14.1	37.5	25.5	20.4	100.0
400만원 이상	595	4.2	16.0	38.2	24.7	17.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3	17.3	31.1	25.0	23.2	100.0
충청권	155	3.2	20.6	49.0	15.5	11.6	100.0
호남권	143	6.3	16.8	34.3	23.8	18.9	100.0
영남권	318	2.5	8.5	39.6	28.3	21.1	100.0
강원	44	0.0	18.2	34.1	36.4	11.4	100.0
제주	32	12.5	15.6	34.4	21.9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7	13.6	36.8	26.8	19.1	100.0
중/소도시	561	3.4	17.1	35.7	23.9	20.0	100.0
읍/면	95	4.2	14.7	36.8	18.9	2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0	19.2	34.9	24.1	18.7	100.0
중도	588	4.8	12.9	37.4	25.0	19.9	100.0
보수적	217	1.4	14.7	35.5	25.8	22.6	100.0
종교							
불교	207	5.3	19.8	32.4	21.7	20.8	100.0
기독교	220	1.8	15.0	31.4	25.9	25.9	100.0
천주교	81	6.2	12.3	39.5	23.5	18.5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4	14.2	38.7	25.6	18.0	100.0
모름/무응답	19	0.0	15.8	36.8	26.3	21.1	100.0

표13-1. 통일을 생각할 때의 기분 - ㉔ 화가 난다

문)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2.4	8.9	11.3	24.8	45.3	18.4	63.8	0.1	100.0
성별										
남자	615	2.8	9.1	11.9	23.6	43.9	20.7	64.6	0.0	100.0
여자	585	2.1	8.7	10.8	26.2	46.8	16.1	62.9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3.2	7.2	10.4	21.7	50.7	17.2	67.9	0.0	100.0
30대	221	1.4	8.1	9.5	28.1	46.2	16.3	62.4	0.0	100.0
40대	252	2.0	6.7	8.7	28.2	42.9	20.2	63.1	0.0	100.0
50대	262	1.9	10.7	12.6	26.0	40.1	21.0	61.1	0.4	100.0
60대 이상	244	3.7	11.5	15.2	20.1	48.0	16.8	64.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15.4	18.8	18.8	50.4	12.0	62.4	0.0	100.0
고졸	485	1.9	5.2	7.0	26.8	49.3	16.7	66.0	0.2	100.0
대재 이상	594	2.7	10.8	13.5	24.4	40.9	21.2	62.1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25.0	75.0	0.0	7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0.0	0.0	35.7	57.1	7.1	64.3	0.0	100.0
자영업	294	2.4	10.2	12.6	23.8	42.2	21.4	63.6	0.0	100.0
블루 칼라	337	1.8	5.9	7.7	27.0	50.4	14.8	65.3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3.0	10.2	13.3	23.5	37.5	25.4	62.9	0.4	100.0
전업 주부	168	2.4	9.5	11.9	23.2	51.8	13.1	64.9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	11.4	14.6	25.2	45.5	14.6	60.2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10.5	14.0	22.1	47.7	16.3	64.0	0.0	100.0
200~299 만원	186	1.1	9.1	10.2	22.0	52.7	15.1	67.7	0.0	100.0
300~399 만원	333	2.7	7.8	10.5	24.9	44.1	20.4	64.6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5	9.2	11.8	26.1	43.4	18.7	62.0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7	11.6	16.3	21.3	43.7	18.7	62.4	0.0	100.0
충청권	155	0.6	6.5	7.1	22.6	43.2	27.1	70.3	0.0	100.0
호남권	143	0.7	7.0	7.7	16.8	46.9	28.7	75.5	0.0	100.0
영남권	318	0.6	7.5	8.2	34.9	50.0	6.6	56.6	0.3	100.0
강원	44	0.0	9.1	9.1	18.2	40.9	31.8	72.7	0.0	100.0
제주	32	3.1	0.0	3.1	37.5	34.4	25.0	59.4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5	5.1	8.6	27.0	46.0	18.4	64.3	0.0	100.0
중/소도시	561	1.4	13.2	14.6	22.8	44.2	18.2	62.4	0.2	100.0
읍/면	95	2.1	5.3	7.4	24.2	48.4	20.0	68.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0	9.4	11.4	18.5	45.6	24.3	69.9	0.3	100.0
중도	588	3.1	7.0	10.0	29.3	45.7	15.0	60.7	0.0	100.0
보수적	217	1.4	13.4	14.7	24.4	43.8	17.1	60.8	0.0	100.0
종교										
불교	207	2.9	11.1	14.0	24.6	47.3	14.0	61.4	0.0	100.0
기독교	220	1.4	7.3	8.6	26.8	39.1	25.5	64.5	0.0	100.0
천주교	81	2.5	11.1	13.6	22.2	44.4	19.8	64.2	0.0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5	8.6	11.2	24.6	47.1	17.0	64.1	0.1	100.0
모름/무응답	19	5.3	5.3	10.5	26.3	42.1	21.1	63.2	0.0	100.0

표13-2. 통일을 생각할 때의 기분 - ㉠ 불안하다

문)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	%	%	%	%	%	%	
전 체	1200	5.0	21.9	26.9	27.6	34.3	11.2	45.4	0.1	100.0	
성별	남자	615	4.6	19.3	23.9	27.6	35.0	13.5	48.5	0.0	100.0
	여자	585	5.5	24.6	30.1	27.5	33.5	8.7	42.2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5.0	22.6	27.6	33.0	30.8	8.6	39.4	0.0	100.0
	30대	221	4.5	21.7	26.2	25.8	40.7	7.2	48.0	0.0	100.0
	40대	252	4.0	20.2	24.2	27.4	36.5	11.9	48.4	0.0	100.0
	50대	262	5.3	21.8	27.1	26.7	32.1	13.7	45.8	0.4	100.0
	60대 이상	244	6.1	23.4	29.5	25.4	31.6	13.5	45.1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9.4	23.9	33.3	23.9	32.5	10.3	42.7	0.0	100.0
	고졸	485	3.5	20.0	23.5	27.2	36.9	12.2	49.1	0.2	100.0
	대재 이상	594	5.4	23.1	28.5	28.5	32.5	10.6	43.1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1.4	21.4	42.9	28.6	7.1	35.7	0.0	100.0
	자영업	294	6.1	24.5	30.6	28.2	29.9	11.2	41.2	0.0	100.0
	블루 칼라	337	3.6	19.0	22.6	26.7	40.7	10.1	50.7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4.9	22.7	27.7	25.8	32.6	13.6	46.2	0.4	100.0
	전업 주부	168	7.7	20.8	28.6	22.6	36.3	12.5	48.8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	23.6	26.8	37.4	28.5	7.3	35.8	0.0	100.0
	200만원 미만	86	7.0	18.6	25.6	31.4	32.6	10.5	43.0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6.5	14.5	21.0	26.9	34.4	17.7	52.2	0.0	100.0
	300~399 만원	333	4.2	20.7	24.9	30.6	32.4	12.0	44.4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4.7	25.4	30.1	25.5	35.5	8.7	44.2	0.2	100.0
	수도권	508	8.3	24.4	32.7	22.8	35.0	9.4	44.5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3	14.8	16.1	32.3	37.4	14.2	51.6	0.0	100.0
	호남권	143	3.5	21.0	24.5	28.0	28.7	18.9	47.6	0.0	100.0
	영남권	318	2.8	22.3	25.2	31.1	35.8	7.5	43.4	0.3	100.0
	강원	44	2.3	20.5	22.7	27.3	29.5	20.5	50.0	0.0	100.0
	제주	32	3.1	18.8	21.9	43.8	21.9	12.5	34.4	0.0	100.0
	대도시	544	5.3	25.0	30.3	27.2	34.0	8.5	42.5	0.0	100.0
	중/소도시	561	4.8	20.0	24.8	28.2	34.9	11.9	46.9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4.2	15.8	20.0	26.3	31.6	22.1	53.7	0.0	100.0
	진보적	395	3.5	19.2	22.8	27.3	34.4	15.2	49.6	0.3	100.0
	중도	588	5.6	23.0	28.6	28.6	34.7	8.2	42.9	0.0	100.0
종교	보수적	217	6.0	24.0	30.0	25.3	32.7	12.0	44.7	0.0	100.0
	불교	207	6.8	25.1	31.9	25.6	30.4	12.1	42.5	0.0	100.0
	기독교	220	4.1	20.9	25.0	29.1	32.7	13.2	45.9	0.0	100.0
	천주교	81	6.2	27.2	33.3	24.7	29.6	12.3	42.0	0.0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6	20.4	25.0	28.2	36.8	9.8	46.6	0.1	100.0
	모름/무응답	19	5.3	31.6	36.8	26.3	26.3	10.5	36.8	0.0	100.0

표13-3. 통일을 생각할 때의 기분 - ㉡ 슬프다

문)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	%	%	%	%	%	%	
전 체	1200	3.3	8.8	12.0	26.4	41.4	20.1	61.5	0.1	100.0	
성별	남자	615	3.6	8.0	11.5	25.9	39.5	23.1	62.6	0.0	100.0
	여자	585	2.9	9.6	12.5	27.0	43.4	16.9	60.3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7	9.5	12.2	24.9	43.9	19.0	62.9	0.0	100.0
	30대	221	2.7	4.1	6.8	31.7	43.0	18.6	61.5	0.0	100.0
	40대	252	2.4	8.3	10.7	24.6	43.7	21.0	64.7	0.0	100.0
	50대	262	4.2	8.8	13.0	24.8	39.3	22.5	61.8	0.4	100.0
	60대 이상	244	4.1	12.7	16.8	26.6	37.7	18.9	56.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13.7	21.4	27.4	37.6	13.7	51.3	0.0	100.0
	고졸	485	1.9	8.5	10.3	26.0	43.5	20.0	63.5	0.2	100.0
	대재 이상	594	3.5	7.9	11.4	26.8	40.2	21.5	61.8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0.0	75.0	0.0	7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1.4	21.4	35.7	28.6	14.3	42.9	0.0	100.0
	자영업	294	3.1	8.8	11.9	26.9	40.1	21.1	61.2	0.0	100.0
	블루 칼라	337	3.9	8.3	12.2	24.0	43.6	20.2	63.8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3.8	7.6	11.4	27.7	36.0	24.6	60.6	0.4	100.0
	전업 주부	168	2.4	7.1	9.5	28.0	46.4	16.1	62.5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13.0	15.4	26.0	44.7	13.8	58.5	0.0	100.0
	200만원 미만	86	2.3	11.6	14.0	24.4	43.0	18.6	61.6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8	7.0	11.8	30.1	39.2	18.8	58.1	0.0	100.0
	300~399 만원	333	3.9	11.1	15.0	23.1	40.8	21.0	61.9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5	7.6	10.1	27.4	42.2	20.2	62.4	0.2	100.0
	수도권	508	6.1	8.9	15.0	26.2	40.4	18.5	58.9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6	12.3	14.8	23.9	32.9	28.4	61.3	0.0	100.0
	호남권	143	0.7	7.7	8.4	18.9	32.9	39.9	72.7	0.0	100.0
	영남권	318	0.3	8.2	8.5	32.1	51.3	7.9	59.1	0.3	100.0
	강원	44	2.3	4.5	6.8	18.2	50.0	25.0	75.0	0.0	100.0
	제주	32	3.1	6.3	9.4	31.3	28.1	31.3	59.4	0.0	100.0
	대도시	544	2.9	7.4	10.3	25.6	45.0	19.1	64.2	0.0	100.0
	중/소도시	561	3.9	8.7	12.7	28.9	39.4	18.9	58.3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1.1	16.8	17.9	16.8	32.6	32.6	65.3	0.0	100.0
	진보적	395	3.5	7.8	11.4	25.1	37.2	26.1	63.3	0.3	100.0
	중도	588	3.2	9.5	12.8	27.0	42.2	18.0	60.2	0.0	100.0
종교	보수적	217	2.8	8.3	11.1	27.2	47.0	14.7	61.8	0.0	100.0
	불교	207	4.8	9.7	14.5	26.1	43.5	15.9	59.4	0.0	100.0
	기독교	220	3.2	7.7	10.9	25.5	39.1	24.5	63.6	0.0	100.0
	천주교	81	4.9	8.6	13.6	25.9	37.0	23.5	60.5	0.0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7	8.6	11.3	27.1	42.3	19.1	61.4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15.8	15.8	21.1	36.8	26.3	63.2	0.0	100.0

표13-4. 통일을 생각할 때의 기분 - ㉔ 시큰둥하다

문)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	%	%	%	%	%	%	%
전 체	1200	3.3	12.3	15.7	33.9	38.2	12.1	50.3	0.2	100.0	
성별	남자	615	3.6	12.5	16.1	32.5	37.7	13.7	51.4	0.0	100.0
	여자	585	3.1	12.1	15.2	35.4	38.6	10.4	49.1	0.3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	17.6	22.2	34.4	34.8	8.6	43.4	0.0	100.0
	30대	221	4.5	11.3	15.8	39.4	36.7	7.7	44.3	0.5	100.0
	40대	252	1.6	10.3	11.9	36.1	34.9	17.1	52.0	0.0	100.0
	50대	262	3.1	13.0	16.0	29.0	42.0	12.6	54.6	0.4	100.0
	60대 이상	244	3.3	9.8	13.1	31.6	41.8	13.5	55.3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	14.5	19.7	32.5	36.8	11.1	47.9	0.0	100.0
	고졸	485	2.3	11.1	13.4	32.4	42.7	11.1	53.8	0.4	100.0
	대재 이상	594	3.9	13.0	16.8	35.2	34.8	13.1	48.0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75.0	25.0	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1.4	21.4	21.4	42.9	14.3	57.1	0.0	100.0
	자영업	294	3.4	13.6	17.0	30.6	38.4	13.9	52.4	0.0	100.0
	블루 칼라	337	3.9	11.0	14.8	34.7	41.5	8.9	50.4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3.8	13.3	17.0	31.1	35.2	15.9	51.1	0.8	100.0
	전업 주부	168	3.6	6.5	10.1	40.5	38.1	11.3	49.4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17.9	18.7	38.2	34.1	8.9	43.1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10.5	14.0	30.2	37.2	18.6	55.8	0.0	100.0
	200~299 만원	186	2.7	10.2	12.9	33.9	42.5	10.8	53.2	0.0	100.0
	300~399 만원	333	2.4	12.9	15.3	37.5	34.5	12.6	47.1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4.0	12.9	17.0	32.4	39.0	11.3	50.3	0.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3	11.8	17.1	31.1	41.9	9.8	51.8	0.0	100.0
	충청권	155	1.3	9.0	10.3	39.4	34.8	15.5	50.3	0.0	100.0
	호남권	143	1.4	6.3	7.7	29.4	42.7	19.6	62.2	0.7	100.0
	영남권	318	2.8	17.3	20.1	39.6	33.0	6.9	39.9	0.3	100.0
	강원	44	0.0	15.9	15.9	38.6	29.5	68.2	0.0	100.0	
	제주	32	0.0	9.4	9.4	40.6	25.0	25.0	5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7	14.0	17.6	34.7	36.2	11.4	47.6	0.0	100.0
	중/소도시	561	3.0	11.1	14.1	34.2	40.1	11.2	51.3	0.4	100.0
	읍/면	95	3.2	10.5	13.7	27.4	37.9	21.1	58.9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3	11.9	14.2	29.9	38.5	17.2	55.7	0.3	100.0
	중도	588	4.1	13.4	17.5	34.9	38.3	9.2	47.4	0.2	100.0
	보수적	217	3.2	10.1	13.4	38.7	37.3	10.6	47.9	0.0	100.0
종교	불교	207	5.8	15.0	20.8	33.3	33.8	12.1	45.9	0.0	100.0
	기독교	220	1.4	10.0	11.4	35.0	39.1	14.1	53.2	0.5	100.0
	천주교	81	2.5	9.9	12.3	35.8	40.7	11.1	51.9	0.0	100.0
	기타	2	0.0	0.0	0.0	50.0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1	12.4	15.5	33.4	39.3	11.6	51.0	0.1	100.0
	모름/무응답	19	10.5	21.1	31.6	36.8	26.3	5.3	31.6	0.0	100.0

표13-5. 통일을 생각할 때의 기분 - ㉕ 희망적이다

문)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	%	%	%	%	%	%	%
전 체	1200	7.5	25.7	33.2	42.4	20.4	3.9	24.3	0.1	100.0	
성별	남자	615	8.9	27.3	36.3	40.2	19.2	4.4	23.6	0.0	100.0
	여자	585	6.0	23.9	29.9	44.8	21.7	3.4	25.1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6.3	19.0	25.3	45.7	24.4	4.5	29.0	0.0	100.0
	30대	221	5.0	19.9	24.9	50.7	22.2	2.3	24.4	0.0	100.0
	40대	252	6.7	30.2	36.9	39.7	19.4	4.0	23.4	0.0	100.0
	50대	262	10.7	30.5	41.2	36.6	17.2	4.6	21.8	0.4	100.0
	60대 이상	244	8.2	27.0	35.2	41.0	19.7	4.1	23.8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25.6	34.2	39.3	23.1	3.4	26.5	0.0	100.0
	고졸	485	6.4	27.0	33.4	42.7	19.0	4.7	23.7	0.2	100.0
	대재 이상	594	8.2	24.6	32.8	42.9	20.9	3.4	24.2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50.0	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21.4	42.9	42.9	14.3	0.0	14.3	0.0	100.0
	자영업	294	8.5	24.8	33.3	42.5	19.7	4.4	24.1	0.0	100.0
	블루 칼라	337	6.2	24.9	31.2	42.7	20.8	5.3	26.1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8.7	28.0	36.7	41.7	17.4	3.8	21.2	0.4	100.0
	전업 주부	168	7.7	25.6	33.3	42.9	23.2	0.6	23.8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25.2	29.3	42.3	24.4	4.1	28.5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6.3	18.6	34.9	33.7	25.6	5.8	31.4	0.0	100.0
	200~299 만원	186	8.1	27.4	35.5	41.4	21.0	2.2	23.1	0.0	100.0
	300~399 만원	333	6.9	29.1	36.0	40.8	20.1	3.0	23.1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6.4	24.2	30.6	44.9	19.7	4.7	24.4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3	28.0	36.2	43.1	16.9	3.7	20.7	0.0	100.0
	충청권	155	12.3	33.5	45.8	36.1	15.5	2.6	18.1	0.0	100.0
	호남권	143	7.0	25.9	32.9	39.9	22.4	4.9	27.3	0.0	100.0
	영남권	318	3.5	18.6	22.0	46.9	26.7	4.1	30.8	0.3	100.0
	강원	44	6.8	27.3	34.1	29.5	31.8	4.5	36.4	0.0	100.0
	제주	32	15.6	18.8	34.4	46.9	12.5	6.3	18.8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7.0	23.7	30.7	43.8	21.5	4.0	25.6	0.0	100.0
	중/소도시	561	7.8	27.1	34.9	41.5	19.3	4.1	23.4	0.2	100.0
	읍/면	95	8.4	28.4	36.8	40.0	21.1	2.1	23.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1.6	30.6	42.3	37.2	17.2	3.0	20.3	0.3	100.0
	중도	588	6.0	22.6	28.6	46.6	20.1	4.8	24.8	0.0	100.0
	보수적	217	4.1	24.9	29.0	40.6	27.2	3.2	30.4	0.0	100.0
종교	불교	207	10.1	22.7	32.9	36.7	24.2	6.3	30.4	0.0	100.0
	기독교	220	7.7	31.8	39.5	42.7	14.5	3.2	17.7	0.0	100.0
	천주교	81	8.6	30.9	39.5	38.3	18.5	3.7	22.2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6.7	23.8	30.6	44.7	21.3	3.3	24.6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21.1	42.1	26.3	10.5	36.8	0.0	100.0

표13-6. 통일을 생각할 때의 기분 - ㉞ 기쁘다

문)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런 편이다	①+②	③ 보통 이다	④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	%	%	%	%	%	%	%
전 체	1200	6.2	21.2	27.3	45.9	22.3	4.4	26.7	0.1	100.0
성별										
남자	615	7.3	23.1	30.4	45.0	20.2	4.2	24.4	0.2	100.0
여자	585	5.0	19.1	24.1	46.8	24.4	4.6	29.1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	16.7	20.4	44.8	29.4	5.4	34.8	0.0	100.0
30대	221	3.2	15.8	19.0	54.8	22.6	3.6	26.2	0.0	100.0
40대	252	6.7	25.4	32.1	46.8	17.1	4.0	21.0	0.0	100.0
50대	262	9.5	22.9	32.4	42.4	20.6	4.6	25.2	0.0	100.0
60대 이상	244	7.0	23.8	30.7	41.8	22.5	4.5	27.0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3	23.9	28.2	40.2	27.4	4.3	31.6	0.0	100.0
고졸	485	5.8	19.8	25.6	48.2	21.9	4.3	26.2	0.0	100.0
대재 이상	594	6.9	21.9	28.8	44.9	21.5	4.5	26.1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75.0	25.0	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28.6	35.7	42.9	21.4	0.0	21.4	0.0	100.0
자영업	294	7.5	20.1	27.6	50.0	17.0	5.1	22.1	0.3	100.0
블루 칼라	337	4.7	19.3	24.0	45.4	26.7	3.9	30.6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8.0	26.1	34.1	42.8	17.4	5.7	23.1	0.0	100.0
전업 주부	168	6.5	18.5	25.0	43.5	29.2	2.4	31.5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21.1	23.6	48.0	23.6	4.9	28.5	0.0	100.0
200만원 미만	86	9.3	29.1	38.4	22.1	32.6	7.0	39.5	0.0	100.0
200~299 만원	186	4.3	23.7	28.0	43.0	24.7	4.3	29.0	0.0	100.0
300~399 만원	333	6.3	21.0	27.3	47.7	21.9	2.7	24.6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6.2	19.3	25.5	49.2	20.2	5.0	25.2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9	21.3	27.2	48.0	19.9	4.9	24.8	0.0	100.0
충청권	155	12.9	34.2	47.1	36.8	12.9	2.6	15.5	0.6	100.0
호남권	143	8.4	20.3	28.7	48.3	22.4	0.7	23.1	0.0	100.0
영남권	318	2.5	15.4	17.9	46.5	30.2	5.3	35.5	0.0	100.0
강원	44	4.5	22.7	27.3	34.1	31.8	6.8	38.6	0.0	100.0
제주	32	6.3	15.6	21.9	56.3	12.5	9.4	21.9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5	18.6	24.1	48.2	22.4	5.1	27.6	0.2	100.0
중/소도시	561	5.9	23.5	29.4	44.7	21.9	3.9	25.8	0.0	100.0
읍/면	95	11.6	22.1	33.7	40.0	23.2	3.2	26.3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4	24.8	35.2	42.8	19.2	2.8	22.0	0.0	100.0
중도	588	3.9	19.2	23.1	50.0	21.8	5.1	26.9	0.0	100.0
보수적	217	4.6	19.8	24.4	40.6	29.0	5.5	34.6	0.5	100.0
불교	207	7.7	20.8	28.5	38.6	25.1	7.7	32.9	0.0	100.0
기독교	220	9.5	25.9	35.5	44.5	16.4	3.2	19.5	0.5	100.0
천주교	81	7.4	17.3	24.7	44.4	25.9	4.9	30.9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6	19.8	24.4	49.0	23.0	3.6	26.5	0.0	100.0
모름/무응답	19	0.0	26.3	26.3	42.1	21.1	10.5	31.6	0.0	100.0

표14.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 대상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	%
전 체	1200	13.4	54.5	4.9	16.6	10.6	100.0
성별							
남자	615	11.5	58.2	4.2	16.1	9.9	100.0
여자	585	15.4	50.6	5.6	17.1	11.3	100.0
연령별							
19~29세	221	11.3	52.0	4.5	17.2	14.9	100.0
30대	221	13.1	51.6	6.8	18.6	10.0	100.0
40대	252	11.9	58.7	4.0	17.1	8.3	100.0
50대	262	14.9	58.4	3.1	12.6	11.1	100.0
60대 이상	244	15.6	50.8	6.6	18.0	9.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3.9	43.6	7.7	16.2	8.5	100.0
고졸	485	12.4	56.1	4.3	17.3	9.9	100.0
대재 이상	594	12.3	55.4	4.7	16.2	11.4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71.4	21.4	0.0	0.0	100.0
자영업	294	15.6	54.8	4.4	16.3	8.8	100.0
블루 칼라	337	10.4	54.9	5.3	16.6	12.8	100.0
화이트 칼라	264	10.2	61.4	3.0	17.0	8.3	100.0
전업 주부	168	19.0	43.5	6.5	17.9	13.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3	51.2	4.9	16.3	11.4	100.0
200만원 미만	86	17.4	52.3	5.8	15.1	9.3	100.0
200~299 만원	186	16.7	52.7	5.4	18.8	6.5	100.0
300~399 만원	333	12.0	58.9	6.0	11.7	11.4	100.0
400만원 이상	595	12.6	52.9	4.0	18.8	11.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4.0	54.1	3.9	16.7	11.2	100.0
충청권	155	9.0	67.7	5.2	14.2	3.9	100.0
호남권	143	22.4	61.5	2.8	8.4	4.9	100.0
영남권	318	10.4	44.7	6.3	22.0	16.7	100.0
강원	44	18.2	54.5	2.3	15.9	9.1	100.0
제주	32	9.4	62.5	18.8	9.4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2.7	47.8	2.4	21.3	15.8	100.0
중/소도시	561	13.5	60.6	6.6	12.8	6.4	100.0
읍/면	95	16.8	56.8	9.5	11.6	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7.7	62.8	3.5	10.4	5.6	100.0
중도	588	11.6	52.6	5.1	18.5	12.2	100.0
보수적	217	10.6	44.7	6.9	22.6	15.2	100.0
불교	207	11.1	51.7	10.6	16.4	10.1	100.0
기독교	220	18.2	55.5	4.5	12.7	9.1	100.0
천주교	81	17.3	50.6	4.9	17.3	9.9	100.0
기타	2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2.4	55.6	3.1	17.7	11.2	100.0
모름/무응답	19	5.3	47.4	10.5	21.1	15.8	100.0

표15.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①+②	③ 별로 가능하지 않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8	47.3	52.1	40.7	7.3	47.9	100.0	
성별	남자	615	5.9	47.0	52.8	39.2	8.0	47.2	100.0
	여자	585	3.8	47.5	51.3	42.2	6.5	48.7	100.0
연령별	19~29세	221	5.4	44.8	50.2	43.4	6.3	49.8	100.0
	30대	221	3.2	47.1	50.2	40.7	9.0	49.8	100.0
	40대	252	5.6	47.6	53.2	41.7	5.2	46.8	100.0
	50대	262	5.7	47.7	53.4	39.3	7.3	46.6	100.0
	60대 이상	244	4.1	48.8	52.9	38.5	8.6	4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45.3	48.7	41.9	9.4	51.3	100.0
	고졸	485	3.9	49.3	53.2	41.0	5.8	46.8	100.0
	대재 이상	594	5.7	46.0	51.7	40.2	8.1	48.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0.0	92.9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6.5	42.2	48.6	42.5	8.8	51.4	100.0
	블루 칼라	337	3.3	50.1	53.4	40.1	6.5	46.6	100.0
	화이트 칼라	264	5.7	48.1	53.8	39.0	7.2	46.2	100.0
	전업 주부	168	3.6	41.7	45.2	47.6	7.1	54.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7	52.0	57.7	35.8	6.5	42.3	100.0
	200만원 미만	86	5.8	45.3	51.2	40.7	8.1	4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3.8	48.4	52.2	41.4	6.5	47.8	100.0
	300~399 만원	333	5.4	49.5	55.0	38.4	6.6	45.0	100.0
	400만원 이상	595	4.7	45.9	50.6	41.7	7.7	49.4	100.0
	수도권	508	4.5	45.9	50.4	41.9	7.7	49.6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7.7	55.5	63.2	34.2	2.6	36.8	100.0
	호남권	143	3.5	57.3	60.8	35.7	3.5	39.2	100.0
	영남권	318	3.8	38.7	42.5	46.9	10.7	57.5	100.0
	강원	44	9.1	52.3	61.4	31.8	6.8	38.6	100.0
	제주	32	6.3	62.5	68.8	25.0	6.3	31.3	100.0
	대도시	544	3.1	38.2	41.4	49.3	9.4	58.6	100.0
	중/소도시	561	6.4	55.1	61.5	33.5	5.0	38.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5.3	52.6	57.9	33.7	8.4	42.1	100.0
	진보적	395	7.3	59.0	66.3	30.9	2.8	33.7	100.0
	중도 보수적	588	3.9	45.2	49.1	43.0	7.8	50.9	100.0
종교	보수적	217	2.8	31.3	34.1	52.1	13.8	65.9	100.0
	불교	207	4.8	45.4	50.2	38.6	11.1	49.8	100.0
	기독교	220	6.4	49.5	55.9	38.2	5.9	44.1	100.0
	천주교	81	4.9	50.6	55.6	39.5	4.9	44.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2	46.9	51.1	42.3	6.6	48.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1.6	42.1	42.1	15.8	57.9	100.0

표16.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4	38.7	43.1	46.6	10.3	56.9	100.0	
성별	남자	615	4.4	36.9	41.3	46.2	12.5	58.7	100.0
	여자	585	4.4	40.5	45.0	47.0	8.0	55.0	100.0
연령별	19~29세	221	4.1	36.7	40.7	49.8	9.5	59.3	100.0
	30대	221	2.3	34.8	37.1	52.9	10.0	62.9	100.0
	40대	252	4.4	39.3	43.7	44.8	11.5	56.3	100.0
	50대	262	6.1	39.3	45.4	45.8	8.8	54.6	100.0
	60대 이상	244	4.9	42.6	47.5	40.6	11.9	52.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0	42.7	48.7	37.6	13.7	51.3	100.0
	고졸	485	2.9	39.4	42.3	50.3	7.4	57.7	100.0
	대재 이상	594	5.4	37.2	42.6	45.3	12.1	57.4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5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71.4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4.4	35.7	40.1	47.6	12.2	59.9	100.0
	블루 칼라	337	2.7	40.1	42.7	47.5	9.8	57.3	100.0
	화이트 칼라	264	6.4	40.2	46.6	42.4	11.0	53.4	100.0
	전업 주부	168	4.2	35.1	39.3	52.4	8.3	60.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9	39.8	44.7	45.5	9.8	55.3	100.0
	200만원 미만	86	7.0	39.5	46.5	41.9	11.6	53.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8	40.9	45.7	43.5	10.8	54.3	100.0
	300~399 만원	333	4.8	38.1	42.9	47.7	9.3	57.1	100.0
	400만원 이상	595	3.7	38.2	41.8	47.6	10.6	58.2	100.0
	수도권	508	5.7	34.1	39.8	49.8	10.4	60.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3.2	52.3	55.5	38.1	6.5	44.5	100.0
	호남권	143	3.5	46.9	50.3	42.7	7.0	49.7	100.0
	영남권	318	2.5	33.0	35.5	50.6	13.8	64.5	100.0
	강원	44	4.5	59.1	63.6	27.3	9.1	36.4	100.0
	제주	32	12.5	37.5	50.0	40.6	9.4	50.0	100.0
	대도시	544	1.5	29.6	31.1	56.1	12.9	68.9	100.0
	중/소도시	561	7.5	46.0	53.5	38.5	8.0	46.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3.2	47.4	50.5	40.0	9.5	49.5	100.0
	진보적	395	7.3	48.6	55.9	39.2	4.8	44.1	100.0
	중도 보수적	588	3.1	32.3	35.4	53.1	11.6	64.6	100.0
종교	보수적	217	2.8	37.8	40.6	42.4	17.1	59.4	100.0
	불교	207	6.8	42.5	49.3	37.7	13.0	50.7	100.0
	기독교	220	5.9	40.5	46.4	44.1	9.5	53.6	100.0
	천주교	81	8.6	29.6	38.3	48.1	13.6	61.7	100.0
	기타	2	0.0	50.0	50.0	0.0	5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8	38.0	40.8	50.1	9.1	59.2	100.0
	모름/무응답	19	0.0	36.8	36.8	47.4	15.8	63.2	100.0

표17. 북한 정권의 안정화에 대한 견해

문)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동의 한다	대체로 동의 한다	%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	%	%
전 체	1200	2.4	28.5	30.9	43.6	21.0	4.4	25.4	0.1	100.0
성별										
남자	615	3.1	29.8	32.8	40.2	21.3	5.7	27.0	0.0	100.0
여자	585	1.7	27.2	28.9	47.2	20.7	3.1	23.8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	30.3	31.7	44.3	19.0	5.0	24.0	0.0	100.0
30대	221	2.7	23.5	26.2	49.8	19.5	4.1	23.5	0.5	100.0
40대	252	2.4	29.8	32.1	39.7	24.2	4.0	28.2	0.0	100.0
50대	262	3.4	29.0	32.4	43.9	19.1	4.6	23.7	0.0	100.0
60대 이상	244	2.0	29.5	31.6	41.0	23.0	4.5	27.5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25.6	29.1	45.3	21.4	4.3	25.6	0.0	100.0
고졸	485	2.7	28.7	31.3	45.2	21.4	2.1	23.5	0.0	100.0
대재 이상	594	2.0	29.0	31.0	41.9	20.5	6.4	26.9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57.1	57.1	14.3	28.6	0.0	28.6	0.0	100.0
자영업	294	2.0	26.5	28.6	43.2	22.4	5.4	27.9	0.3	100.0
블루 칼라	337	2.7	29.7	32.3	46.6	18.7	2.4	21.1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2.3	29.9	32.2	40.5	20.5	6.8	27.3	0.0	100.0
전업 주부	168	1.8	25.0	26.8	50.0	19.6	3.6	23.2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28.5	32.5	37.4	26.0	4.1	30.1	0.0	100.0
200만원 미만	86	3.5	27.9	31.4	36.0	26.7	5.8	32.6	0.0	100.0
200~299만원	186	2.2	25.8	28.0	51.6	15.6	4.8	20.4	0.0	100.0
300~399만원	333	2.7	31.8	34.5	42.6	19.5	3.3	22.8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2	27.6	29.7	42.7	22.7	4.7	27.4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0	28.7	31.7	44.1	18.1	6.1	24.2	0.0	100.0
충청권	155	2.6	29.0	31.6	45.8	18.7	3.9	22.6	0.0	100.0
호남권	143	3.5	35.0	38.5	46.2	14.0	1.4	15.4	0.0	100.0
영남권	318	1.3	24.8	26.1	41.5	29.2	2.8	32.1	0.3	100.0
강원	44	0.0	25.0	25.0	36.4	34.1	4.5	38.6	0.0	100.0
제주	32	3.1	34.4	37.5	43.8	9.4	9.4	18.8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7	22.4	23.2	44.3	27.0	5.5	32.5	0.0	100.0
중/소도시	561	3.9	33.5	37.4	43.7	15.2	3.6	18.7	0.2	100.0
읍/면	95	3.2	33.7	36.8	38.9	21.1	3.2	24.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0	42.0	45.1	37.7	13.9	3.3	17.2	0.0	100.0
중도	588	2.4	23.1	25.5	46.9	23.0	4.4	27.4	0.2	100.0
보수적	217	1.4	18.4	19.8	45.2	28.6	6.5	35.0	0.0	100.0
종교										
불교	207	2.4	32.4	34.8	33.3	26.1	5.8	31.9	0.0	100.0
기독교	220	2.7	30.9	33.6	43.2	18.6	4.5	23.2	0.0	100.0
천주교	81	3.7	30.9	34.6	46.9	13.6	4.9	18.5	0.0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1	26.5	28.6	46.2	21.2	4.0	25.2	0.0	100.0
모름/무응답	19	5.3	21.1	26.3	47.4	21.1	0.0	21.1	5.3	100.0

표18.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	%
전 체	1200	14.1	56.7	70.8	24.8	4.4	29.3	100.0
성별								
남자	615	14.3	56.6	70.9	24.4	4.7	29.1	100.0
여자	585	13.8	56.8	70.6	25.3	4.1	29.4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1	57.5	70.6	23.1	6.3	29.4	100.0
30대	221	11.8	57.0	68.8	26.7	4.5	31.2	100.0
40대	252	17.1	57.9	75.0	23.0	2.0	25.0	100.0
50대	262	15.6	55.7	71.4	24.4	4.2	28.6	100.0
60대 이상	244	12.3	55.3	67.6	27.0	5.3	32.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1.1	50.4	61.5	33.3	5.1	38.5	100.0
고졸	485	13.8	60.0	73.8	22.5	3.7	26.2	100.0
대재 이상	594	15.0	55.1	70.0	25.3	4.7	30.0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0.0	25.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64.3	85.7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15.0	52.7	67.7	28.2	4.1	32.3	100.0
블루 칼라	337	12.5	61.4	73.9	22.6	3.6	26.1	100.0
화이트 칼라	264	18.6	55.3	73.9	20.8	5.3	26.1	100.0
전업 주부	168	11.9	53.6	65.5	28.6	6.0	34.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59.3	68.3	27.6	4.1	31.7	100.0
200만원 미만	86	9.3	48.8	58.1	36.0	5.8	41.9	100.0
200~299만원	186	15.6	59.1	74.7	22.6	2.7	25.3	100.0
300~399만원	333	12.9	58.6	71.5	24.0	4.5	28.5	100.0
400만원 이상	595	15.0	56.0	70.9	24.4	4.7	29.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2.6	60.0	72.6	22.4	4.9	27.4	100.0
충청권	155	17.4	58.1	75.5	23.9	0.6	24.5	100.0
호남권	143	18.9	57.3	76.2	20.3	3.5	23.8	100.0
영남권	318	12.6	50.3	62.9	31.1	6.0	37.1	100.0
강원	44	18.2	50.0	68.2	25.0	6.8	31.8	100.0
제주	32	9.4	65.6	75.0	25.0	0.0	2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2.7	50.2	62.9	30.9	6.3	37.1	100.0
중/소도시	561	15.5	62.9	78.4	18.5	3.0	21.6	100.0
읍/면	95	13.7	56.8	70.5	27.4	2.1	2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2.8	58.7	81.5	15.9	2.5	18.5	100.0
중도	588	11.1	57.5	68.5	27.4	4.1	31.5	100.0
보수적	217	6.5	50.7	57.1	34.1	8.8	42.9	100.0
종교								
불교	207	15.9	46.9	62.8	30.9	6.3	37.2	100.0
기독교	220	17.7	56.4	74.1	20.9	5.0	25.9	100.0
천주교	81	13.6	58.0	71.6	25.9	2.5	28.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2.5	59.0	71.5	24.4	4.0	28.5	100.0
모름/무응답	19	10.5	73.7	84.2	15.8	0.0	15.8	100.0

표19.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약간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전 체	1200	10.5	47.5	58.0	37.8	4.3	42.0	100.0	
성별	남자	615	12.4	42.8	55.1	40.5	4.4	44.9	100.0
	여자	585	8.5	52.5	61.0	34.9	4.1	39.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0	46.2	60.2	36.2	3.6	39.8	100.0
	30대	221	10.4	51.6	62.0	35.3	2.7	38.0	100.0
	40대	252	10.3	46.8	57.1	39.3	3.6	42.9	100.0
	50대	262	9.2	48.1	57.3	37.4	5.3	42.7	100.0
	60대 이상	244	9.0	45.1	54.1	40.2	5.7	45.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49.6	56.4	37.6	6.0	43.6	100.0
	고졸	485	8.2	46.6	54.8	40.8	4.3	45.2	100.0
	대재 이상	594	13.1	47.5	60.6	35.5	3.9	39.4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0.0	71.4	21.4	7.1	28.6	100.0
	자영업	294	10.9	44.6	55.4	37.8	6.8	44.6	100.0
	블루 칼라	337	9.8	49.9	59.6	37.4	3.0	40.4	100.0
	화이트 칼라	264	11.4	48.1	59.5	36.4	4.2	40.5	100.0
	전업 주부	168	7.7	47.6	55.4	41.7	3.0	44.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2.2	46.3	58.5	38.2	3.3	41.5	100.0
	200만원 미만	86	15.1	47.7	62.8	34.9	2.3	37.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7.5	52.2	59.7	34.9	5.4	40.3	100.0
	300~399 만원	333	9.6	45.3	55.0	41.4	3.6	45.0	100.0
	400만원 이상	595	11.3	47.2	58.5	37.0	4.5	41.5	100.0
	수도권	508	9.1	43.3	52.4	44.9	2.8	47.6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8.7	51.0	69.7	25.2	5.2	30.3	100.0
	호남권	143	4.9	52.4	57.3	35.7	7.0	42.7	100.0
	영남권	318	10.1	51.6	61.6	33.6	4.7	38.4	100.0
	강원	44	6.8	40.9	47.7	45.5	6.8	52.3	100.0
	제주	32	28.1	43.8	71.9	25.0	3.1	28.1	100.0
	대도시	544	11.8	44.1	55.9	40.4	3.7	44.1	100.0
	중/소도시	561	9.4	50.4	59.9	35.8	4.3	40.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9.5	49.5	58.9	33.7	7.4	41.1	100.0
	진보적	395	7.1	41.5	48.6	44.1	7.3	51.4	100.0
	중도 보수적	588	12.1	48.1	60.2	37.2	2.6	39.8	100.0
종교	보수적	217	12.4	56.7	69.1	27.6	3.2	30.9	100.0
	불교	207	9.7	56.5	66.2	30.0	3.9	33.8	100.0
	기독교	220	10.9	50.0	60.9	35.0	4.1	39.1	100.0
	천주교	81	11.1	48.1	59.3	33.3	7.4	40.7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0.4	43.4	53.8	42.0	4.2	46.2	100.0
	모름/무응답	19	15.8	63.2	78.9	21.1	0.0	21.1	100.0

표20-1.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5.8	23.3	39.8	31.1	100.0	
성별	남자	615	8.8	28.0	41.1	22.1	100.0
	여자	585	2.7	18.5	38.3	40.5	100.0
연령별	19~29세	221	5.9	22.6	30.8	40.7	100.0
	30대	221	4.5	21.7	45.7	28.1	100.0
	40대	252	6.3	21.0	42.1	30.6	100.0
	50대	262	7.3	27.5	39.3	26.0	100.0
	60대 이상	244	4.9	23.4	40.6	31.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23.1	37.6	37.6	100.0
	고졸	485	5.4	20.2	43.7	30.7	100.0
	대재 이상	594	7.1	25.8	37.0	30.1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25.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8.6	50.0	21.4	100.0
	자영업	294	6.5	26.9	41.2	25.5	100.0
	블루 칼라	337	6.2	22.0	43.9	27.9	100.0
	화이트 칼라	264	7.6	26.5	38.3	27.7	100.0
	전업 주부	168	1.8	18.5	35.1	44.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7	17.9	33.3	43.1	100.0
	200만원 미만	86	9.3	26.7	30.2	33.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3.2	21.0	43.5	32.3	100.0
	300~399 만원	333	6.0	24.9	40.2	28.8	100.0
	400만원 이상	595	6.1	22.7	39.7	31.6	100.0
	수도권	508	6.1	23.4	38.8	31.7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7.7	31.6	38.7	21.9	100.0
	호남권	143	5.6	23.8	37.8	32.9	100.0
	영남권	318	3.8	17.3	43.1	35.8	100.0
	강원	44	11.4	31.8	31.8	25.0	100.0
	제주	32	6.3	28.1	46.9	18.8	100.0
	대도시	544	7.5	19.3	38.4	34.7	100.0
	중/소도시	561	3.7	27.6	40.8	27.8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8.4	21.1	41.1	29.5	100.0
	진보적	395	6.3	28.1	39.0	26.6	100.0
	중도 보수적	588	4.9	20.9	38.1	36.1	100.0
종교	보수적	217	7.4	21.2	45.6	25.8	100.0
	불교	207	6.8	24.6	37.7	30.9	100.0
	기독교	220	5.5	21.8	41.8	30.9	100.0
	천주교	81	4.9	24.7	44.4	25.9	100.0
	기타	2	5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8	23.2	39.8	31.1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21.1	57.9	100.0

표20-2.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12.8	30.8	39.9	16.4	100.0
성별						
남자	615	15.9	33.3	39.8	10.9	100.0
여자	585	9.6	28.2	40.0	22.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1.3	29.4	29.4	29.9	100.0
30대	221	10.0	26.2	47.1	16.7	100.0
40대	252	13.1	29.4	44.4	13.1	100.0
50대	262	17.6	35.5	37.4	9.5	100.0
60대 이상	244	11.5	32.8	41.0	1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0	30.8	45.3	17.9	100.0
고졸	485	12.2	28.0	43.7	16.1	100.0
대재 이상	594	14.8	33.2	35.7	16.3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5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1.4	57.1	7.1	100.0
자영업	294	13.6	31.3	44.9	10.2	100.0
블루 칼라	337	10.7	30.3	42.4	16.6	100.0
화이트 칼라	264	16.7	34.8	35.2	13.3	100.0
전업 주부	168	10.1	29.2	40.5	20.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2.2	26.0	28.5	3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34.9	33.7	17.4	100.0
200~299 만원	186	10.2	28.5	41.4	19.9	100.0
300~399 만원	333	13.2	30.0	40.2	16.5	100.0
400만원 이상	595	13.3	31.4	40.2	15.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0.6	25.8	41.3	22.2	100.0
충청권	155	12.3	38.1	40.6	9.0	100.0
호남권	143	15.4	39.9	30.8	14.0	100.0
영남권	318	12.3	31.8	41.8	14.2	100.0
강원	44	31.8	31.8	29.5	6.8	100.0
제주	32	18.8	25.0	50.0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4.5	30.1	37.5	17.8	100.0
중/소도시	561	10.9	31.9	42.2	15.0	100.0
읍/면	95	14.7	28.4	40.0	1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4.7	35.2	36.7	13.4	100.0
중도	588	9.7	29.1	41.2	20.1	100.0
보수적	217	18.0	27.6	42.4	12.0	100.0
종교						
불교	207	17.9	27.1	41.5	13.5	100.0
기독교	220	10.9	32.7	36.8	19.5	100.0
천주교	81	12.3	29.6	39.5	18.5	100.0
기타	2	5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2.2	30.8	41.0	15.9	100.0
모름/무응답	19	0.0	52.6	26.3	21.1	100.0

표20-3.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10.4	28.2	42.5	18.9	100.0
성별						
남자	615	12.2	32.8	38.9	16.1	100.0
여자	585	8.5	23.2	46.3	21.9	100.0
연령별						
19~29세	221	8.6	18.6	38.0	34.8	100.0
30대	221	5.4	24.0	48.0	22.6	100.0
40대	252	10.7	28.2	45.6	15.5	100.0
50대	262	13.4	38.2	38.5	9.9	100.0
60대 이상	244	13.1	29.9	42.6	14.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0.3	24.8	45.3	19.7	100.0
고졸	485	9.5	30.1	42.7	17.7	100.0
대재 이상	594	11.3	27.3	41.8	19.7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5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1.4	64.3	0.0	100.0
자영업	294	9.9	33.3	43.2	13.6	100.0
블루 칼라	337	10.1	26.4	45.7	17.8	100.0
화이트 칼라	264	12.5	33.0	36.4	18.2	100.0
전업 주부	168	8.3	23.2	48.8	19.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0.6	17.9	34.1	37.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8	23.3	37.2	26.7	100.0
200~299 만원	186	9.1	28.5	42.5	19.9	100.0
300~399 만원	333	9.3	28.5	43.5	18.6	100.0
400만원 이상	595	11.1	28.6	42.7	17.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9.6	20.3	47.6	22.4	100.0
충청권	155	8.4	34.8	38.7	18.1	100.0
호남권	143	14.0	29.4	44.1	12.6	100.0
영남권	318	9.4	36.2	35.2	19.2	100.0
강원	44	18.2	43.2	29.5	9.1	100.0
제주	32	15.6	15.6	62.5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2.5	28.9	39.9	18.8	100.0
중/소도시	561	8.0	26.6	44.9	20.5	100.0
읍/면	95	12.6	33.7	43.2	1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4	31.4	42.3	15.9	100.0
중도	588	9.2	25.0	42.3	23.5	100.0
보수적	217	13.8	30.9	43.3	12.0	100.0
종교						
불교	207	11.1	34.8	38.2	15.9	100.0
기독교	220	10.0	28.6	45.5	15.9	100.0
천주교	81	8.6	25.9	50.6	14.8	100.0
기타	2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0.7	26.1	42.2	21.0	100.0
모름/무응답	19	5.3	31.6	31.6	31.6	100.0

표20-4.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8.6	26.6	39.8	25.1	100.0
성별						
남자	615	11.4	29.6	39.5	19.5	100.0
여자	585	5.6	23.4	40.0	30.9	100.0
연령별						
19~29세	221	6.8	19.0	36.2	38.0	100.0
30대	221	8.1	23.1	40.7	28.1	100.0
40대	252	8.7	27.8	44.8	18.7	100.0
50대	262	10.7	32.4	38.5	18.3	100.0
60대 이상	244	8.2	29.1	38.1	24.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	23.9	41.0	29.9	100.0
고졸	485	7.8	26.4	39.4	26.4	100.0
대재 이상	594	9.9	27.1	39.7	23.2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28.6	42.9	7.1	100.0
자영업	294	9.5	27.2	41.2	22.1	100.0
블루 칼라	337	7.4	26.4	42.7	23.4	100.0
화이트 칼라	264	11.7	31.1	37.9	19.3	100.0
전업 주부	168	4.2	24.4	39.9	31.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7.3	18.7	31.7	42.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19.8	37.2	29.1	100.0
200~299 만원	186	5.9	25.3	39.2	29.6	100.0
300~399 만원	333	8.1	25.8	40.5	25.5	100.0
400만원 이상	595	8.9	28.4	39.8	22.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5	19.1	45.3	27.2	100.0
충청권	155	8.4	32.3	43.2	16.1	100.0
호남권	143	7.7	34.3	29.4	28.7	100.0
영남권	318	6.6	30.5	34.9	28.0	100.0
강원	44	20.5	38.6	34.1	6.8	100.0
제주	32	18.8	28.1	37.5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0.1	27.4	36.4	26.1	100.0
중/소도시	561	6.4	27.3	42.8	23.5	100.0
읍/면	95	12.6	17.9	41.1	2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6	27.6	39.7	22.0	100.0
중도	588	6.8	25.2	38.9	29.1	100.0
보수적	217	9.7	28.6	41.9	19.8	100.0
종교						
불교	207	10.6	28.0	37.7	23.7	100.0
기독교	220	7.7	30.5	38.2	23.6	100.0
천주교	81	8.6	27.2	43.2	21.0	100.0
기타	2	5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8.3	24.4	40.8	26.4	100.0
모름/무응답	19	0.0	36.8	31.6	31.6	100.0

표20-5. 북한 사회 인지도 - ㉕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전 체	1200	9.5	27.0	34.3	29.2	100.0
성별						
남자	615	12.2	28.8	35.4	23.6	100.0
여자	585	6.7	25.1	33.2	35.0	100.0
연령별						
19~29세	221	9.5	18.1	30.8	41.6	100.0
30대	221	9.0	23.1	35.7	32.1	100.0
40대	252	9.1	28.6	33.3	29.0	100.0
50대	262	11.8	32.1	35.1	21.0	100.0
60대 이상	244	7.8	31.6	36.5	24.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3	25.6	38.5	31.6	100.0
고졸	485	9.1	30.1	32.2	28.7	100.0
대재 이상	594	10.9	24.9	35.0	29.1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75.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35.7	42.9	7.1	100.0
자영업	294	8.5	32.0	36.1	23.5	100.0
블루 칼라	337	8.9	26.4	35.3	29.4	100.0
화이트 칼라	264	12.5	28.4	33.3	25.8	100.0
전업 주부	168	7.7	26.2	32.1	33.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13.8	31.7	45.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5.1	22.1	34.9	27.9	100.0
200~299 만원	186	7.0	36.0	26.9	30.1	100.0
300~399 만원	333	7.8	26.4	36.6	29.1	100.0
400만원 이상	595	10.4	25.2	35.3	29.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7	21.3	41.7	29.3	100.0
충청권	155	8.4	39.4	25.8	26.5	100.0
호남권	143	16.1	24.5	30.8	28.7	100.0
영남권	318	7.9	32.1	27.7	32.4	100.0
강원	44	15.9	29.5	31.8	22.7	100.0
제주	32	21.9	15.6	43.8	18.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1.9	26.8	30.7	30.5	100.0
중/소도시	561	6.6	27.1	38.0	28.3	100.0
읍/면	95	12.6	27.4	33.7	2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1.9	27.3	37.2	23.5	100.0
중도	588	7.3	25.3	33.0	34.4	100.0
보수적	217	11.1	30.9	32.7	25.3	100.0
종교						
불교	207	10.1	31.4	31.4	27.1	100.0
기독교	220	7.7	29.1	33.6	29.5	100.0
천주교	81	7.4	23.5	43.2	25.9	100.0
기타	2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0.1	25.9	34.3	29.7	100.0
모름/무응답	19	5.3	10.5	36.8	47.4	100.0

표20-6. 북한 사회 인지도 - ㉔ 모란봉 악단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전 체	1200	15.5	44.9	31.1	8.5	100.0	
성별	남자	615	17.4	45.5	29.8	7.3	100.0
	여자	585	13.5	44.3	32.5	9.7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2	33.5	36.2	18.1	100.0
	30대	221	16.3	39.4	34.4	10.0	100.0
	40대	252	16.3	50.8	29.0	4.0	100.0
	50대	262	17.6	51.5	25.2	5.7	100.0
	60대 이상	244	14.8	47.1	32.0	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47.0	32.5	12.0	100.0
	고졸	485	15.3	48.2	30.1	6.4	100.0
	대재 이상	594	17.2	41.9	31.5	9.4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25.0	5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50.0	28.6	0.0	100.0
	자영업	294	14.6	50.7	26.2	8.5	100.0
	블루 칼라	337	15.1	45.7	31.8	7.4	100.0
	화이트 칼라	264	19.7	41.3	30.3	8.7	100.0
	전업 주부	168	12.5	47.6	35.7	4.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3.0	32.5	36.6	17.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5.1	37.2	36.0	11.6	100.0
	200~299 만원	186	14.0	44.6	33.9	7.5	100.0
	300~399 만원	333	15.3	44.4	31.5	8.7	100.0
	400만원 이상	595	16.1	46.4	29.2	8.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3.2	43.5	34.3	9.1	100.0
	충청권	155	9.7	51.6	31.0	7.7	100.0
	호남권	143	26.6	39.2	25.9	8.4	100.0
	영남권	318	14.5	45.9	30.8	8.8	100.0
	강원	44	22.7	54.5	18.2	4.5	100.0
	제주	32	31.3	37.5	25.0	6.3	100.0
	대도시	544	17.5	40.8	32.7	9.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12.5	49.0	31.0	7.5	100.0
	읍/면	95	22.1	44.2	22.1	1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7.2	47.3	30.6	4.8	100.0
	중도	588	12.9	44.7	30.8	11.6	100.0
	보수적	217	19.4	41.0	32.7	6.9	100.0
종교	불교	207	14.5	49.8	28.5	7.2	100.0
	기독교	220	13.2	48.6	30.0	8.2	100.0
	천주교	81	17.3	44.4	30.9	7.4	100.0
	기타	2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6.8	41.7	32.6	8.8	100.0
	모름/무응답	19	0.0	57.9	21.1	21.1	100.0

표21-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전 체	1200	3.4	96.6	100.0	
성별	남자	615	3.4	96.6	100.0
	여자	585	3.4	96.6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	98.6	100.0
	30대	221	0.9	99.1	100.0
	40대	252	2.8	97.2	100.0
	50대	262	6.9	93.1	100.0
	60대 이상	244	4.5	95.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96.6	100.0
	고졸	485	3.9	96.1	100.0
	대재 이상	594	3.0	97.0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농/수/축산업	14	0.0	100.0	100.0
	자영업	294	5.4	94.6	100.0
	블루 칼라	337	1.8	98.2	100.0
	화이트 칼라	264	4.5	95.5	100.0
	전업 주부	168	2.4	97.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9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96.5	100.0
	200~299 만원	186	3.2	96.8	100.0
	300~399 만원	333	3.6	96.4	100.0
	400만원 이상	595	3.4	96.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4	97.6	100.0
	충청권	155	7.7	92.3	100.0
	호남권	143	6.3	93.7	100.0
	영남권	318	1.6	98.4	100.0
	강원	44	4.5	95.5	100.0
	제주	32	3.1	96.9	100.0
	대도시	544	2.6	97.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3.6	96.4	100.0
	읍/면	95	7.4	9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3	95.7	100.0
	중도	588	2.4	97.6	100.0
	보수적	217	4.6	95.4	100.0
종교	불교	207	3.4	96.6	100.0
	기독교	220	5.9	94.1	100.0
	천주교	81	3.7	96.3	100.0
	기타	2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2.7	97.3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0.0	100.0

표21-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북한이탈주민)과 만남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8.2	81.8	100.0	
성별	남자	615	18.2	81.8	100.0
	여자	585	18.1	81.9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7	87.3	100.0
	30대	221	20.4	79.6	100.0
	40대	252	21.0	79.0	100.0
	50대	262	19.8	80.2	100.0
	60대 이상	244	16.4	83.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0	88.0	100.0
	고졸	485	18.6	81.4	100.0
	대재 이상	594	18.7	81.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78.6	100.0
	자영업	294	20.4	79.6	100.0
	블루 칼라	337	17.5	82.5	100.0
	화이트 칼라	264	21.6	78.4	100.0
	전업 주부	168	14.3	85.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2.2	87.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8.6	81.4	100.0
	200~299 만원	186	19.4	80.6	100.0
	300~399 만원	333	21.3	78.7	100.0
	400만원 이상	595	16.0	84.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0.7	79.3	100.0
	충청권	155	27.7	72.3	100.0
	호남권	143	9.8	90.2	100.0
	영남권	318	9.1	90.9	100.0
	강원	44	40.9	59.1	100.0
	제주	32	28.1	7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6.7	83.3	100.0
	중/소도시	561	17.6	82.4	100.0
	읍/면	95	29.5	7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9.2	80.8	100.0
	중도	588	18.2	81.8	100.0
	보수적	217	16.1	83.9	100.0
종교	불교	207	13.5	86.5	100.0
	기독교	220	21.8	78.2	100.0
	천주교	81	16.0	84.0	100.0
	기타	2	5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8.9	81.1	100.0
모름/무응답	19	5.3	94.7	100.0	

표21-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함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26.2	73.8	100.0	
성별	남자	615	25.0	75.0	100.0
	여자	585	27.4	72.6	100.0
연령별	19~29세	221	26.2	73.8	100.0
	30대	221	20.4	79.6	100.0
	40대	252	26.2	73.8	100.0
	50대	262	28.2	71.8	100.0
	60대 이상	244	29.1	7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3.9	76.1	100.0
	고졸	485	28.5	71.5	100.0
	대재 이상	594	24.4	75.6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35.7	64.3	100.0
	자영업	294	27.2	72.8	100.0
	블루 칼라	337	24.3	75.7	100.0
	화이트 칼라	264	25.8	74.2	100.0
	전업 주부	168	27.4	72.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6.8	73.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0.2	69.8	100.0
	200~299 만원	186	20.4	79.6	100.0
	300~399 만원	333	27.6	72.4	100.0
	400만원 이상	595	26.6	73.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3.6	76.4	100.0
	충청권	155	16.1	83.9	100.0
	호남권	143	31.5	68.5	100.0
	영남권	318	27.4	72.6	100.0
	강원	44	45.5	54.5	100.0
	제주	32	53.1	46.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4	75.6	100.0
	중/소도시	561	26.2	73.8	100.0
	읍/면	95	35.8	6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8.4	71.6	100.0
	중도	588	23.5	76.5	100.0
	보수적	217	29.5	70.5	100.0
종교	불교	207	22.7	77.3	100.0
	기독교	220	30.0	70.0	100.0
	천주교	81	22.2	77.8	100.0
	기타	2	10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5.6	74.4	100.0
모름/무응답	19	47.4	52.6	100.0	

표21-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㉔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전 체	1200	1.7	98.3	100.0	
성별	남자	615	1.6	98.4	100.0
	여자	585	1.7	98.3	100.0
연령별	19~29세	221	0.9	99.1	100.0
	30대	221	1.4	98.6	100.0
	40대	252	2.8	97.2	100.0
	50대	262	1.5	98.5	100.0
	60대 이상	244	1.6	98.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0	100.0	100.0
	고졸	485	1.4	98.6	100.0
	대재 이상	594	2.2	97.8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농/수/축산업	14	0.0	100.0	100.0
	자영업	294	1.7	98.3	100.0
	블루 칼라	337	2.1	97.9	100.0
	화이트 칼라	264	1.5	98.5	100.0
	전업 주부	168	1.8	98.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99.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3	97.7	100.0
	200~299 만원	186	1.1	98.9	100.0
	300~399 만원	333	1.8	98.2	100.0
	400만원 이상	595	1.7	98.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8	98.2	100.0
	충청권	155	1.9	98.1	100.0
	호남권	143	1.4	98.6	100.0
	영남권	318	1.6	98.4	100.0
	강원	44	2.3	97.7	100.0
	제주	32	0.0	10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0	98.0	100.0
	중/소도시	561	1.4	98.6	100.0
	읍/면	95	1.1	9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3	96.7	100.0
	중도	588	1.2	98.8	100.0
	보수적	217	0.0	100.0	100.0
종교	불교	207	1.4	98.6	100.0
	기독교	220	2.3	97.7	100.0
	천주교	81	1.2	98.8	100.0
	기타	2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1.6	98.4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0.0	100.0	

표22-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70.7	23.6	94.3	5.2		0.6
성별	남자	615	73.2	22.1	95.3	4.6	0.2	4.7	100.0
	여자	585	68.0	25.1	93.2	5.8	1.0	6.8	100.0
연령별	19~29세	221	67.0	27.6	94.6	4.5	0.9	5.4	100.0
	30대	221	73.8	20.8	94.6	5.0	0.5	5.4	100.0
	40대	252	71.8	24.2	96.0	4.0	0.0	4.0	100.0
	50대	262	71.4	20.6	92.0	7.3	0.8	8.0	100.0
	60대 이상	244	69.3	25.0	94.3	4.9	0.8	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4.1	28.2	92.3	6.0	1.7	7.7	100.0
	고졸	485	67.0	24.5	91.5	7.8	0.6	8.5	100.0
	대재 이상	594	74.9	22.1	97.0	2.7	0.3	3.0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75.0	0.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57.1	35.7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76.2	18.4	94.6	4.8	0.7	5.4	100.0
	블루 칼라	337	69.7	22.3	92.0	7.4	0.6	8.0	100.0
	화이트 칼라	264	75.4	20.8	96.2	3.0	0.8	3.8	100.0
	전업 주부	168	63.7	30.4	94.0	5.4	0.6	6.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1.0	35.0	95.9	4.1	0.0	4.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60.5	33.7	94.2	5.8	0.0	5.8	100.0
	200~299 만원	186	70.4	22.0	92.5	7.0	0.5	7.5	100.0
	300~399 만원	333	68.5	24.6	93.1	6.3	0.6	6.9	100.0
	400만원 이상	595	73.4	22.0	95.5	3.9	0.7	4.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0.1	27.2	97.2	2.0	0.8	2.8	100.0
	충청권	155	71.0	19.4	90.3	9.7	0.0	9.7	100.0
	호남권	143	74.1	17.5	91.6	7.0	1.4	8.4	100.0
	영남권	318	68.6	24.8	93.4	6.6	0.0	6.6	100.0
	강원	44	79.5	13.6	93.2	6.8	0.0	6.8	100.0
	제주	32	71.9	15.6	87.5	9.4	3.1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72.2	24.1	96.3	3.1	0.6	3.7	100.0
	중/소도시	561	67.9	24.2	92.2	7.3	0.5	7.8	100.0
	읍/면	95	77.9	16.8	94.7	4.2	1.1	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9.6	25.8	95.4	3.8	0.8	4.6	100.0
	중도	588	71.6	22.6	94.2	5.1	0.7	5.8	100.0
	보수적	217	70.0	22.1	92.2	7.8	0.0	7.8	100.0
종교	불교	207	61.4	30.0	91.3	7.2	1.4	8.7	100.0
	기독교	220	71.4	24.5	95.9	4.1	0.0	4.1	100.0
	천주교	81	71.6	27.2	98.8	1.2	0.0	1.2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73.2	21.0	94.2	5.2	0.6	5.8	100.0
모름/무응답	19	68.4	21.1	89.5	10.5	0.0	10.5	100.0	

표22-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㉑ 사회복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전 체	1200	73.2	22.7	95.8	3.7	0.5	4.2	100.0	
성별	남자	615	74.8	21.5	96.3	3.6	0.2	3.7	100.0
	여자	585	71.5	23.9	95.4	3.8	0.9	4.6	100.0
연령별	19~29세	221	71.5	24.9	96.4	2.7	0.9	3.6	100.0
	30대	221	75.1	22.6	97.7	2.3	0.0	2.3	100.0
	40대	252	75.4	20.2	95.6	4.4	0.0	4.4	100.0
	50대	262	72.1	23.3	95.4	4.2	0.4	4.6	100.0
	60대 이상	244	71.7	22.5	94.3	4.5	1.2	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4	23.9	92.3	6.8	0.9	7.7	100.0
	고졸	485	72.2	22.9	95.1	4.5	0.4	4.9	100.0
	대재 이상	594	74.9	22.2	97.1	2.4	0.5	2.9	100.0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7.1	35.7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81.6	14.6	96.3	3.7	0.0	3.7	100.0
	블루 칼라	337	74.5	21.7	96.1	3.3	0.6	3.9	100.0
	화이트 칼라	264	72.7	24.6	97.3	2.3	0.4	2.7	100.0
	전업 주부	168	66.7	26.2	92.9	6.0	1.2	7.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1.0	34.1	95.1	4.1	0.8	4.9	100.0
	200만원 미만	86	65.1	29.1	94.2	4.7	1.2	5.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74.7	18.8	93.5	6.5	0.0	6.5	100.0
	300~399 만원	333	70.3	26.7	97.0	2.7	0.3	3.0	100.0
	400만원 이상	595	75.5	20.7	96.1	3.2	0.7	3.9	100.0
	수도권	508	69.9	25.6	95.5	4.1	0.4	4.5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79.4	18.1	97.4	2.6	0.0	2.6	100.0
	호남권	143	67.8	27.3	95.1	3.5	1.4	4.9	100.0
	영남권	318	76.1	20.8	96.9	2.5	0.6	3.1	100.0
	강원	44	86.4	9.1	95.5	4.5	0.0	4.5	100.0
	제주	32	71.9	15.6	87.5	12.5	0.0	12.5	100.0
	대도시	544	76.3	20.6	96.9	2.4	0.7	3.1	100.0
	중/소도시	561	68.8	26.4	95.2	4.5	0.4	4.8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81.1	12.6	93.7	6.3	0.0	6.3	100.0
	진보적	395	74.2	22.8	97.0	2.5	0.5	3.0	100.0
	중도 보수적	588	73.0	22.1	95.1	4.4	0.5	4.9	100.0
종교	불교	217	71.9	24.0	95.9	3.7	0.5	4.1	100.0
	기독교	220	70.9	23.2	94.1	5.0	0.9	5.9	100.0
	천주교	81	67.9	28.4	96.3	3.7	0.0	3.7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74.7	23.1	97.8	2.1	0.1	2.2	100.0
	모름/무응답	19	78.9	10.5	89.5	10.5	0.0	10.5	100.0

표22-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㉒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전 체	1200	31.9	54.6	86.5	11.8	1.7	13.5	100.0	
성별	남자	615	32.5	54.3	86.8	11.4	1.8	13.2	100.0
	여자	585	31.3	54.9	86.2	12.3	1.5	13.8	100.0
연령별	19~29세	221	34.4	50.7	85.1	13.6	1.4	14.9	100.0
	30대	221	26.7	62.0	88.7	10.0	1.4	11.3	100.0
	40대	252	31.3	54.4	85.7	11.9	2.4	14.3	100.0
	50대	262	36.3	49.6	85.9	12.6	1.5	14.1	100.0
	60대 이상	244	30.3	57.0	87.3	11.1	1.6	12.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6.8	48.7	85.5	12.0	2.6	14.5	100.0
	고졸	485	29.5	57.1	86.6	11.8	1.6	13.4	100.0
	대재 이상	594	33.0	53.5	86.5	12.0	1.5	13.5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64.3	28.6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31.6	57.5	89.1	9.2	1.7	10.9	100.0
	블루 칼라	337	32.6	53.4	86.1	12.2	1.8	13.9	100.0
	화이트 칼라	264	32.6	54.2	86.7	11.7	1.5	13.3	100.0
	전업 주부	168	29.8	53.0	82.7	14.9	2.4	17.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8.5	56.9	85.4	13.8	0.8	14.6	100.0
	200만원 미만	86	38.4	47.7	86.0	12.8	1.2	14.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31.2	56.5	87.6	10.2	2.2	12.4	100.0
	300~399 만원	333	29.1	56.2	85.3	13.2	1.5	14.7	100.0
	400만원 이상	595	32.8	54.1	86.9	11.4	1.7	13.1	100.0
	수도권	508	25.8	61.0	86.8	10.6	2.6	13.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34.2	60.6	94.8	4.5	0.6	5.2	100.0
	호남권	143	33.6	58.0	91.6	7.0	1.4	8.4	100.0
	영남권	318	37.4	41.5	78.9	19.8	1.3	21.1	100.0
	강원	44	36.4	47.7	84.1	15.9	0.0	15.9	100.0
	제주	32	50.0	46.9	96.9	3.1	0.0	3.1	100.0
	대도시	544	30.3	53.3	83.6	14.0	2.4	16.4	100.0
	중/소도시	561	31.2	57.8	88.9	10.2	0.9	11.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45.3	43.2	88.4	9.5	2.1	11.6	100.0
	진보적	395	29.1	56.5	85.6	11.6	2.8	14.4	100.0
	중도 보수적	588	33.5	54.1	87.6	11.1	1.4	12.4	100.0
종교	불교	217	32.7	52.5	85.3	14.3	0.5	14.7	100.0
	기독교	220	34.8	47.8	82.6	13.5	3.9	17.4	100.0
	천주교	81	28.6	58.6	87.3	11.4	1.4	12.7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3.2	54.8	88.1	11.2	0.7	11.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68.4	78.9	21.1	0.0	21.1	100.0

표22-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32.8	48.8	81.7	16.6	1.8	18.3	100.0
성별								
남자	615	31.9	50.9	82.8	15.6	1.6	17.2	100.0
여자	585	33.8	46.7	80.5	17.6	1.9	19.5	100.0
연령별								
19~29세	221	31.2	53.4	84.6	11.8	3.6	15.4	100.0
30대	221	34.4	50.7	85.1	14.9	0.0	14.9	100.0
40대	252	32.5	49.6	82.1	16.3	1.6	17.9	100.0
50대	262	35.1	44.7	79.8	17.2	3.1	20.2	100.0
60대 이상	244	30.7	46.7	77.5	22.1	0.4	22.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9.9	45.3	75.2	24.8	0.0	24.8	100.0
고졸	485	34.2	46.6	80.8	16.7	2.5	19.2	100.0
대재 이상	594	32.2	51.3	83.5	15.0	1.5	16.5	100.0
모름/무응답	4	50.0	5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50.0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32.7	48.0	80.6	18.4	1.0	19.4	100.0
블루 칼라	337	36.8	45.1	81.9	16.0	2.1	18.1	100.0
화이트 칼라	264	33.0	51.5	84.5	14.8	0.8	15.5	100.0
전업 주부	168	29.8	46.4	76.2	21.4	2.4	23.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5.2	58.5	83.7	12.2	4.1	16.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3.7	48.8	82.6	16.3	1.2	17.4	100.0
200~299 만원	186	34.9	44.1	79.0	18.3	2.7	21.0	100.0
300~399 만원	333	29.4	52.0	81.4	17.4	1.2	18.6	100.0
400만원 이상	595	33.9	48.6	82.5	15.6	1.8	17.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9.1	49.0	78.1	18.3	3.5	21.9	100.0
충청권	155	37.4	54.8	92.3	7.7	0.0	7.7	100.0
호남권	143	24.5	59.4	83.9	14.7	1.4	16.1	100.0
영남권	318	38.7	40.6	79.2	20.4	0.3	20.8	100.0
강원	44	34.1	56.8	90.9	9.1	0.0	9.1	100.0
제주	32	46.9	40.6	87.5	12.5	0.0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2.0	50.2	82.2	15.1	2.8	17.8	100.0
중/소도시	561	32.3	49.0	81.3	17.8	0.9	18.7	100.0
읍/면	95	41.1	40.0	81.1	17.9	1.1	1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8.9	52.7	81.5	16.7	1.8	18.5	100.0
중도	588	35.7	47.1	82.8	15.3	1.9	17.2	100.0
보수적	217	32.3	46.5	78.8	19.8	1.4	21.2	100.0
종교								
불교	207	36.2	40.6	76.8	22.7	0.5	23.2	100.0
기독교	220	25.0	58.2	83.2	15.0	1.8	16.8	100.0
천주교	81	32.1	39.5	71.6	23.5	4.9	28.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4.4	49.2	83.6	14.6	1.8	16.4	100.0
모름/무응답	19	36.8	52.6	89.5	10.5	0.0	10.5	100.0

표22-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가족중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	%	%	%	%	%	%
전 체	1200	18.0	42.9	60.9	34.8	4.3	39.1	100.0
성별								
남자	615	18.7	41.6	60.3	34.8	4.9	39.7	100.0
여자	585	17.3	44.3	61.5	34.9	3.6	38.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6.7	45.7	62.4	33.0	4.5	37.6	100.0
30대	221	21.7	44.8	66.5	29.4	4.1	33.5	100.0
40대	252	18.3	42.5	60.7	34.1	5.2	39.3	100.0
50대	262	19.1	42.0	61.1	34.4	4.6	38.9	100.0
60대 이상	244	14.3	40.2	54.5	42.6	2.9	45.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8	42.7	55.6	41.9	2.6	44.4	100.0
고졸	485	18.4	40.6	59.0	36.9	4.1	41.0	100.0
대재 이상	594	18.7	44.6	63.3	32.0	4.7	36.7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21.4	64.3	35.7	0.0	35.7	100.0
자영업	294	20.7	37.4	58.2	39.1	2.7	41.8	100.0
블루 칼라	337	18.1	42.4	60.5	34.4	5.0	39.5	100.0
화이트 칼라	264	19.7	46.2	65.9	27.7	6.4	34.1	100.0
전업 주부	168	13.1	44.0	57.1	39.9	3.0	42.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1.4	51.2	62.6	34.1	3.3	37.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6.7	38.4	65.1	32.6	2.3	34.9	100.0
200~299 만원	186	15.6	46.8	62.4	33.9	3.8	37.6	100.0
300~399 만원	333	15.9	45.9	61.9	33.9	4.2	38.1	100.0
400만원 이상	595	18.7	40.7	59.3	36.0	4.7	40.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4.8	46.3	61.0	35.0	3.9	39.0	100.0
충청권	155	16.8	42.6	59.4	32.3	8.4	40.6	100.0
호남권	143	22.4	39.2	61.5	32.9	5.6	38.5	100.0
영남권	318	20.4	39.3	59.7	37.4	2.8	40.3	100.0
강원	44	18.2	43.2	61.4	38.6	0.0	38.6	100.0
제주	32	31.3	43.8	75.0	21.9	3.1	2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8.2	43.8	61.9	32.4	5.7	38.1	100.0
중/소도시	561	16.9	42.8	59.7	36.9	3.4	40.3	100.0
읍/면	95	23.2	38.9	62.1	36.8	1.1	3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7.0	40.3	57.2	37.0	5.8	42.8	100.0
중도	588	18.7	47.3	66.0	30.6	3.4	34.0	100.0
보수적	217	18.0	35.9	53.9	42.4	3.7	46.1	100.0
종교								
불교	207	15.5	44.0	59.4	36.7	3.9	40.6	100.0
기독교	220	14.5	45.9	60.5	36.4	3.2	39.5	100.0
천주교	81	23.5	38.3	61.7	32.1	6.2	38.3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9.5	41.6	61.1	34.3	4.6	38.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57.9	68.4	31.6	0.0	31.6	100.0

표22-6.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㉔ 돈에 대한 증시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많이 있다	다소 있다	%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전 체	1200	24.6	47.5	72.1	24.8	3.2	27.9	100.0
성별								
남자	615	24.4	48.0	72.4	24.7	2.9	27.6	100.0
여자	585	24.8	47.0	71.8	24.8	3.4	28.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2.6	53.4	76.0	20.4	3.6	24.0	100.0
30대	221	27.6	46.2	73.8	23.5	2.7	26.2	100.0
40대	252	25.0	40.9	65.9	29.8	4.4	34.1	100.0
50대	262	24.0	50.8	74.8	22.5	2.7	25.2	100.0
60대 이상	244	23.8	46.7	70.5	27.0	2.5	2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9.7	48.7	68.4	28.2	3.4	31.6	100.0
고졸	485	23.5	47.8	71.3	26.2	2.5	28.7	100.0
대재 이상	594	26.3	47.0	73.2	23.1	3.7	26.8	100.0
모름/무응답	4	50.0	5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0.0	35.7	85.7	0.0	14.3	14.3	100.0
자영업	294	25.5	48.3	73.8	23.8	2.4	26.2	100.0
블루 칼라	337	24.0	48.7	72.7	23.7	3.6	27.3	100.0
화이트 칼라	264	28.0	42.8	70.8	26.1	3.0	29.2	100.0
전업 주부	168	19.6	47.6	67.3	29.8	3.0	32.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0.3	53.7	74.0	22.8	3.3	26.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1.4	45.3	76.7	20.9	2.3	23.3	100.0
200~299 만원	186	24.7	48.9	73.7	23.7	2.7	26.3	100.0
300~399 만원	333	22.2	50.5	72.7	24.3	3.0	27.3	100.0
400만원 이상	595	24.9	45.7	70.6	25.9	3.5	29.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0.1	52.8	72.8	24.0	3.1	27.2	100.0
충청권	155	21.3	41.3	62.6	30.3	7.1	37.4	100.0
호남권	143	24.5	53.8	78.3	18.9	2.8	21.7	100.0
영남권	318	28.3	41.2	69.5	28.9	1.6	30.5	100.0
강원	44	38.6	45.5	84.1	13.6	2.3	15.9	100.0
제주	32	56.3	31.3	87.5	9.4	3.1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5.6	46.0	71.5	24.6	3.9	28.5	100.0
중/소도시	561	22.5	50.4	72.9	25.0	2.1	27.1	100.0
읍/면	95	31.6	38.9	70.5	24.2	5.3	2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2.8	46.8	69.6	26.8	3.5	30.4	100.0
중도	588	25.7	50.2	75.9	21.3	2.9	24.1	100.0
보수적	217	24.9	41.5	66.4	30.4	3.2	33.6	100.0
종교								
불교	207	27.5	43.5	71.0	26.1	2.9	29.0	100.0
기독교	220	23.2	52.7	75.9	21.4	2.7	24.1	100.0
천주교	81	27.2	44.4	71.6	24.7	3.7	28.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4.4	46.5	70.9	25.6	3.4	29.1	100.0
모름/무응답	19	5.3	73.7	78.9	21.1	0.0	21.1	100.0

표23.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전 체	1200	25.3	53.3	78.5	19.0	2.5	21.5	100.0
성별								
남자	615	25.2	50.7	75.9	21.3	2.8	24.1	100.0
여자	585	25.3	55.9	81.2	16.6	2.2	18.8	100.0
연령별								
19~29세	221	28.1	50.2	78.3	19.0	2.7	21.7	100.0
30대	221	24.0	54.8	78.7	19.9	1.4	21.3	100.0
40대	252	20.6	56.7	77.4	20.2	2.4	22.6	100.0
50대	262	25.2	52.7	77.9	17.9	4.2	22.1	100.0
60대 이상	244	28.7	51.6	80.3	18.0	1.6	19.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0.8	53.8	84.6	12.8	2.6	15.4	100.0
고졸	485	23.1	54.2	77.3	20.6	2.1	22.7	100.0
대재 이상	594	25.6	52.5	78.1	19.0	2.9	21.9	100.0
모름/무응답	4	75.0	2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50.0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25.9	55.4	81.3	15.0	3.7	18.7	100.0
블루 칼라	337	22.6	55.5	78.0	20.8	1.2	22.0	100.0
화이트 칼라	264	23.5	52.3	75.8	22.3	1.9	24.2	100.0
전업 주부	168	28.0	51.8	79.8	17.3	3.0	20.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9.3	46.3	75.6	20.3	4.1	24.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7.2	43.0	80.2	17.4	2.3	19.8	100.0
200~299 만원	186	29.0	52.2	81.2	18.3	0.5	18.8	100.0
300~399 만원	333	23.1	56.8	79.9	17.4	2.7	20.1	100.0
400만원 이상	595	23.5	53.1	76.6	20.3	3.0	23.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2.2	60.2	82.5	16.5	1.0	17.5	100.0
충청권	155	38.1	38.1	76.1	21.3	2.6	23.9	100.0
호남권	143	9.1	60.8	69.9	23.1	7.0	30.1	100.0
영남권	318	28.6	50.6	79.2	17.9	2.8	20.8	100.0
강원	44	31.8	31.8	63.6	34.1	2.3	36.4	100.0
제주	32	40.6	37.5	78.1	18.8	3.1	2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9.4	51.5	80.9	16.9	2.2	19.1	100.0
중/소도시	561	19.3	56.5	75.8	21.4	2.9	24.2	100.0
읍/면	95	36.8	44.2	81.1	16.8	2.1	1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0.8	51.9	72.7	22.8	4.6	27.3	100.0
중도	588	26.0	54.4	80.4	18.4	1.2	19.6	100.0
보수적	217	31.3	52.5	83.9	13.8	2.3	16.1	100.0
종교								
불교	207	29.5	49.8	79.2	17.9	2.9	20.8	100.0
기독교	220	28.2	48.6	76.8	17.7	5.5	23.2	100.0
천주교	81	23.5	53.1	76.5	19.8	3.7	23.5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2.5	56.3	78.8	19.8	1.3	21.2	100.0
모름/무응답	19	47.4	42.1	89.5	10.5	0.0	10.5	100.0

표24.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 한다	② 다소 동의 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③+④	잘 모름	계
		%	%	%	%	%	%	%	%
전 체	1200	34.9	47.3	82.2	13.3	3.3	16.6	1.3	100.0
성별									
남자	615	35.4	47.2	82.6	13.2	3.3	16.4	1.0	100.0
여자	585	34.4	47.4	81.7	13.5	3.2	16.8	1.5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7	46.2	82.8	13.1	3.2	16.3	0.9	100.0
30대	221	36.7	48.4	85.1	10.9	3.2	14.0	0.9	100.0
40대	252	31.7	46.8	78.6	17.9	2.4	20.2	1.2	100.0
50대	262	32.4	50.8	83.2	11.5	4.2	15.6	1.1	100.0
60대 이상	244	37.7	43.9	81.6	13.1	3.3	16.4	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0.8	52.1	82.9	12.0	2.6	14.5	2.6	100.0
고졸	485	34.0	46.6	80.6	13.6	4.1	17.7	1.6	100.0
대재 이상	594	36.5	46.6	83.2	13.5	2.7	16.2	0.7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57.1	92.9	0.0	7.1	7.1	0.0	100.0
자영업	294	35.7	48.6	84.4	11.9	2.4	14.3	1.4	100.0
블루 칼라	337	35.9	44.8	80.7	13.4	3.6	16.9	2.4	100.0
화이트 칼라	264	33.7	46.6	80.3	15.9	3.0	18.9	0.8	100.0
전업 주부	168	32.1	50.6	82.7	13.7	3.0	16.7	0.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6.6	46.3	82.9	12.2	4.9	17.1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2.6	50.0	82.6	8.1	4.7	12.8	4.7	100.0
200~299 만원	186	39.2	42.5	81.7	16.7	1.1	17.7	0.5	100.0
300~399 만원	333	36.9	43.8	80.8	14.4	3.6	18.0	1.2	100.0
400만원 이상	595	32.8	50.3	83.0	12.4	3.5	16.0	1.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6.0	47.2	83.3	12.8	3.5	16.3	0.4	100.0
충청권	155	34.2	41.9	76.1	18.1	2.6	20.6	3.2	100.0
호남권	143	18.2	55.2	73.4	20.3	4.2	24.5	2.1	100.0
영남권	318	41.2	46.2	87.4	7.9	3.1	11.0	1.6	100.0
강원	44	34.1	40.9	75.0	22.7	2.3	25.0	0.0	100.0
제주	32	34.4	56.3	90.6	9.4	0.0	9.4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6.8	48.9	85.7	10.1	3.1	13.2	1.1	100.0
중/소도시	561	32.6	45.6	78.3	16.9	3.4	20.3	1.4	100.0
읍/면	95	37.9	47.4	85.3	10.5	3.2	13.7	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0.9	47.1	78.0	17.5	3.5	21.0	1.0	100.0
중도	588	33.2	49.8	83.0	12.1	3.4	15.5	1.5	100.0
보수적	217	47.0	40.6	87.6	9.2	2.3	11.5	0.9	100.0
종교									
불교	207	44.9	39.1	84.1	11.1	2.4	13.5	2.4	100.0
기독교	220	35.9	45.5	81.4	12.7	4.1	16.8	1.8	100.0
천주교	81	29.6	50.6	80.2	14.8	4.9	19.8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1.9	49.9	81.8	14.2	3.1	17.3	0.9	100.0
모름/무응답	19	47.4	42.1	89.5	10.5	0.0	10.5	0.0	100.0

표25. 북한의 국가성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한다	② 다소 찬성 한다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한다	⑤ 매우 반대 한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0	47.2	61.2	29.8	7.3	1.8	9.1	100.0
성별									
남자	615	14.5	48.6	63.1	27.3	7.6	2.0	9.6	100.0
여자	585	13.5	45.6	59.1	32.3	7.0	1.5	8.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1	44.3	57.5	32.6	9.0	0.9	10.0	100.0
30대	221	11.8	43.4	55.2	36.2	6.8	1.8	8.6	100.0
40대	252	14.7	52.0	66.7	26.6	5.6	1.2	6.7	100.0
50대	262	15.3	46.9	62.2	28.2	7.3	2.3	9.5	100.0
60대 이상	244	14.8	48.4	63.1	26.2	8.2	2.5	10.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4.5	46.2	60.7	30.8	6.0	2.6	8.5	100.0
고졸	485	14.0	46.2	60.2	29.1	8.7	2.1	10.7	100.0
대재 이상	594	13.6	48.5	62.1	30.0	6.6	1.3	7.9	100.0
모름/무응답	4	50.0	0.0	50.0	5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28.6	50.0	4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12.9	51.4	64.3	27.2	6.5	2.0	8.5	100.0
블루 칼라	337	14.8	45.7	60.5	32.0	5.6	1.8	7.4	100.0
화이트 칼라	264	16.3	47.0	63.3	27.7	8.0	1.1	9.1	100.0
전업 주부	168	13.1	42.3	55.4	33.3	8.3	3.0	11.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9.8	50.4	60.2	27.6	11.4	0.8	12.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0	37.2	44.2	41.9	10.5	3.5	14.0	100.0
200~299 만원	186	16.7	44.6	61.3	27.4	9.1	2.2	11.3	100.0
300~399 만원	333	13.2	50.2	63.4	27.3	8.1	1.2	9.3	100.0
400만원 이상	595	14.6	47.7	62.4	30.1	5.9	1.7	7.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1.8	49.4	61.2	28.5	7.9	2.4	10.2	100.0
충청권	155	18.1	45.8	63.9	27.7	6.5	1.9	8.4	100.0
호남권	143	19.6	50.3	69.9	27.3	2.8	0.0	2.8	100.0
영남권	318	13.2	42.5	55.7	33.3	9.1	1.9	11.0	100.0
강원	44	15.9	54.5	70.5	22.7	6.8	0.0	6.8	100.0
제주	32	9.4	40.6	50.0	43.8	6.3	0.0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1.4	46.0	57.4	30.9	9.0	2.8	11.8	100.0
중/소도시	561	15.7	50.1	65.8	27.6	5.5	1.1	6.6	100.0
읍/면	95	18.9	36.8	55.8	35.8	8.4	0.0	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1.3	51.1	72.4	22.0	4.3	1.3	5.6	100.0
중도	588	11.2	45.7	57.0	34.5	7.3	1.2	8.5	100.0
보수적	217	8.3	43.8	52.1	30.9	12.9	4.1	17.1	100.0
종교									
불교	207	14.0	43.0	57.0	31.4	8.2	3.4	11.6	100.0
기독교	220	16.4	49.5	65.9	25.5	7.3	1.4	8.6	100.0
천주교	81	16.0	49.4	65.4	24.7	8.6	1.2	9.9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3.1	46.9	60.1	31.6	7.0	1.3	8.3	100.0
모름/무응답	19	5.3	68.4	73.7	15.8	5.3	5.3	10.5	100.0

표26. 북한의 인권 상황

문)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심각 하다	다소 심각 하다	%	%	보통 이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
전 체	1200	34.6	48.3	82.8	15.8	1.3	0.1	1.3	100.0
성별									
남자	615	35.6	49.4	85.0	13.5	1.3	0.2	1.5	100.0
여자	585	33.5	47.0	80.5	18.3	1.2	0.0	1.2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7	44.8	81.4	15.8	2.3	0.5	2.7	100.0
30대	221	35.3	48.0	83.3	16.3	0.5	0.0	0.5	100.0
40대	252	33.7	46.0	79.8	19.0	1.2	0.0	1.2	100.0
50대	262	32.8	51.9	84.7	13.4	1.9	0.0	1.9	100.0
60대 이상	244	34.8	50.0	84.8	14.8	0.4	0.0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1.6	52.1	83.8	16.2	0.0	0.0	0.0	100.0
고졸	485	32.0	50.9	82.9	15.5	1.6	0.0	1.6	100.0
대재 이상	594	37.2	45.3	82.5	16.2	1.2	0.2	1.3	100.0
모름/무응답	4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7.1	42.9	100.0	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31.6	49.7	81.3	18.4	0.3	0.0	0.3	100.0
블루 칼라	337	34.1	49.0	83.1	15.7	1.2	0.0	1.2	100.0
화이트 칼라	264	40.2	45.1	85.2	13.3	1.5	0.0	1.5	100.0
전업 주부	168	28.0	51.8	79.8	17.9	2.4	0.0	2.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7.4	45.5	82.9	14.6	1.6	0.8	2.4	100.0
200만원 미만	86	33.7	50.0	83.7	16.3	0.0	0.0	0.0	100.0
200~299 만원	186	34.9	48.4	83.3	16.1	0.5	0.0	0.5	100.0
300~399 만원	333	33.9	46.5	80.5	17.1	2.4	0.0	2.4	100.0
400만원 이상	595	35.0	48.9	83.9	15.0	1.0	0.2	1.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1.1	53.0	84.1	14.8	1.0	0.2	1.2	100.0
충청권	155	47.1	40.0	87.1	12.3	0.6	0.0	0.6	100.0
호남권	143	39.2	46.2	85.3	14.0	0.7	0.0	0.7	100.0
영남권	318	27.7	47.8	75.5	22.0	2.5	0.0	2.5	100.0
강원	44	59.1	34.1	93.2	6.8	0.0	0.0	0.0	100.0
제주	32	43.8	46.9	90.6	9.4	0.0	0.0	0.0	100.0
대도시	544	33.6	50.9	84.6	14.2	1.1	0.2	1.3	100.0
중/소도시	561	33.7	47.4	81.1	17.3	1.6	0.0	1.6	100.0
읍/면	95	45.3	37.9	83.2	16.8	0.0	0.0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4.7	48.9	83.5	14.7	1.5	0.3	1.8	100.0
중도	588	33.0	49.1	82.1	16.5	1.4	0.0	1.4	100.0
보수적	217	38.7	44.7	83.4	16.1	0.5	0.0	0.5	100.0
불교	207	33.3	49.3	82.6	16.9	0.5	0.0	0.5	100.0
기독교	220	43.2	46.4	89.5	9.5	0.9	0.0	0.9	100.0
천주교	81	39.5	43.2	82.7	16.0	1.2	0.0	1.2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2.0	48.6	80.6	17.7	1.5	0.1	1.6	100.0
모름/무응답	19	15.8	68.4	84.2	10.5	5.3	0.0	5.3	100.0

표27. 북한의 인권 개선 방법

문)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인도적 대북지원	남북 간의 대화과 교류	대북 제재	북한의 민주화	계
		%	%	%	%	%
전 체	1200	13.0	47.1	10.3	29.7	100.0
성별						
남자	615	13.0	47.3	9.8	29.9	100.0
여자	585	13.0	46.8	10.8	29.4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2	43.0	11.8	33.0	100.0
30대	221	14.5	45.2	8.6	31.7	100.0
40대	252	13.5	47.2	8.7	30.6	100.0
50대	262	11.8	51.1	9.9	27.1	100.0
60대 이상	244	13.1	48.0	12.3	2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0.5	46.2	9.4	23.9	100.0
고졸	485	11.3	49.1	11.1	28.5	100.0
대재 이상	594	13.0	45.6	9.8	31.6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7.1	7.1	14.3	100.0
자영업	294	14.3	51.7	6.5	27.6	100.0
블루 칼라	337	11.3	47.8	11.6	29.4	100.0
화이트 칼라	264	13.6	39.0	11.7	35.6	100.0
전업 주부	168	13.1	48.8	11.9	26.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2.2	48.0	10.6	29.3	100.0
200만원 미만	86	11.6	53.5	7.0	27.9	100.0
200~299 만원	186	16.1	45.7	9.1	29.0	100.0
300~399 만원	333	10.5	51.4	11.4	26.7	100.0
400만원 이상	595	13.6	44.2	10.4	31.8	100.0
수도권	508	15.9	50.8	8.5	24.8	100.0
충청권	155	6.5	40.6	10.3	42.6	100.0
호남권	143	22.4	50.3	5.6	21.7	100.0
영남권	318	8.5	42.8	15.4	33.3	100.0
강원	44	2.3	40.9	13.6	43.2	100.0
제주	32	15.6	56.3	3.1	25.0	100.0
대도시	544	11.8	44.5	8.8	34.9	100.0
중/소도시	561	13.4	51.7	10.0	25.0	100.0
읍/면	95	17.9	34.7	20.0	2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4.9	52.2	7.1	25.8	100.0
중도	588	13.1	45.7	11.7	29.4	100.0
보수적	217	9.2	41.5	12.0	37.3	100.0
불교	207	9.2	47.3	13.0	30.4	100.0
기독교	220	18.2	46.8	7.3	27.7	100.0
천주교	81	17.3	45.7	8.6	28.4	100.0
기타	2	50.0	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1.6	47.8	10.7	29.8	100.0
모름/무응답	19	21.1	31.6	5.3	42.1	100.0

표28-1.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㉞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6	51.2	61.8	32.9	5.3	38.3	100.0	
성별	남자	615	12.4	50.6	62.9	31.5	5.5	37.1	100.0
	여자	585	8.7	51.8	60.5	34.4	5.1	39.5	100.0
연령별	19~29세	221	7.7	57.9	65.6	29.4	5.0	34.4	100.0
	30대	221	7.7	50.2	57.9	37.6	4.5	42.1	100.0
	40대	252	11.9	52.0	63.9	30.2	6.0	36.1	100.0
	50대	262	12.2	48.5	60.7	33.6	5.7	39.3	100.0
	60대 이상	244	12.7	48.0	60.7	34.0	5.3	3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54.7	63.2	30.8	6.0	36.8	100.0
	고졸	485	12.2	48.0	60.2	35.5	4.3	39.8	100.0
	대재 이상	594	9.8	53.0	62.8	31.3	5.9	37.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42.9	57.1	42.9	0.0	42.9	100.0
	자영업	294	10.2	43.9	54.1	39.8	6.1	45.9	100.0
	블루 칼라	337	11.9	54.6	66.5	28.5	5.0	33.5	100.0
	화이트 칼라	264	12.5	51.5	64.0	29.5	6.4	36.0	100.0
	전업 주부	168	7.7	51.8	59.5	35.7	4.8	40.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7.3	58.5	65.9	30.9	3.3	34.1	100.0
	200만원 미만	86	10.5	46.5	57.0	36.0	7.0	4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9.7	55.9	65.6	28.5	5.9	34.4	100.0
	300~399 만원	333	12.3	52.9	65.2	31.8	3.0	34.8	100.0
	400만원 이상	595	9.9	49.4	59.3	34.5	6.2	40.7	100.0
	수도권	508	8.3	52.2	60.4	33.9	5.7	39.6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2.9	58.7	71.6	23.9	4.5	28.4	100.0
	호남권	143	31.5	47.6	79.0	18.2	2.8	21.0	100.0
	영남권	318	3.5	49.1	52.5	42.5	5.0	47.5	100.0
	강원	44	9.1	52.3	61.4	22.7	15.9	38.6	100.0
	제주	32	15.6	34.4	50.0	46.9	3.1	5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0	48.3	57.4	36.6	6.1	42.6	100.0
	중/소도시	561	11.8	54.2	66.0	29.6	4.5	34.0	100.0
	읍/면	95	12.6	49.5	62.1	31.6	6.3	3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8.7	58.0	76.7	21.0	2.3	23.3	100.0
	중도	588	8.0	47.4	55.4	38.3	6.3	44.6	100.0
	보수적	217	2.8	48.8	51.6	40.1	8.3	48.4	100.0
종교	불교	207	8.7	47.8	56.5	36.7	6.8	43.5	100.0
	기독교	220	14.1	52.3	66.4	30.0	3.6	33.6	100.0
	천주교	81	11.1	53.1	64.2	32.1	3.7	35.8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9.8	51.9	61.7	32.8	5.5	38.3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2.1	52.6	36.8	10.5	47.4	100.0

표28-2.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㉟ 남북 사회문화교류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9.3	55.0	74.3	23.1	2.7	25.8	100.0	
성별	남자	615	22.0	53.0	75.0	22.1	2.9	25.0	100.0
	여자	585	16.4	57.1	73.5	24.1	2.4	26.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5	61.1	75.6	21.7	2.7	24.4	100.0
	30대	221	18.6	53.4	71.9	25.3	2.7	28.1	100.0
	40대	252	19.0	57.5	76.6	20.2	3.2	23.4	100.0
	50대	262	19.5	54.6	74.0	24.0	1.9	26.0	100.0
	60대 이상	244	24.2	48.8	73.0	24.2	2.9	2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8.8	54.7	73.5	24.8	1.7	26.5	100.0
	고졸	485	21.2	54.0	75.3	22.9	1.9	24.7	100.0
	대재 이상	594	17.7	55.7	73.4	23.1	3.5	26.6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57.1	64.3	35.7	0.0	35.7	100.0
	자영업	294	18.4	55.8	74.1	24.5	1.4	25.9	100.0
	블루 칼라	337	22.6	53.7	76.3	20.5	3.3	23.7	100.0
	화이트 칼라	264	21.2	53.8	75.0	22.0	3.0	25.0	100.0
	전업 주부	168	14.3	57.1	71.4	25.0	3.6	28.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3	56.1	72.4	25.2	2.4	27.6	100.0
	200만원 미만	86	17.4	51.2	68.6	30.2	1.2	31.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7.4	51.1	78.5	19.9	1.6	21.5	100.0
	300~399 만원	333	22.2	53.5	75.7	22.8	1.5	24.3	100.0
	400만원 이상	595	15.3	57.6	72.9	23.2	3.9	27.1	100.0
	수도권	508	17.9	53.7	71.7	23.8	4.5	28.3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7.7	52.3	80.0	20.0	0.0	20.0	100.0
	호남권	143	29.4	60.1	89.5	10.5	0.0	10.5	100.0
	영남권	318	11.9	54.7	66.7	30.8	2.5	33.3	100.0
	강원	44	20.5	61.4	81.8	18.2	0.0	18.2	100.0
	제주	32	25.0	59.4	84.4	12.5	3.1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4.5	57.7	72.2	24.1	3.7	27.8	100.0
	중/소도시	561	22.5	52.2	74.7	23.9	1.4	25.3	100.0
	읍/면	95	27.4	55.8	83.2	12.6	4.2	1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2.7	51.9	84.6	14.7	0.8	15.4	100.0
	중도	588	12.1	57.7	69.7	26.7	3.6	30.3	100.0
	보수적	217	14.3	53.5	67.7	28.6	3.7	32.3	100.0
종교	불교	207	16.9	51.2	68.1	27.5	4.3	31.9	100.0
	기독교	220	20.9	56.4	77.3	20.9	1.8	22.7	100.0
	천주교	81	13.6	60.5	74.1	24.7	1.2	25.9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0.4	55.1	75.6	21.8	2.7	24.4	100.0
	모름/무응답	19	5.3	52.6	57.9	42.1	0.0	42.1	100.0

표28-3.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㉔ 남북 경제협력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0.8	52.3	73.0	23.3	3.7	27.0	100.0
성별								
남자	615	22.3	49.8	72.0	24.1	3.9	28.0	100.0
여자	585	19.1	54.9	74.0	22.6	3.4	26.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6	51.1	69.7	25.3	5.0	30.3	100.0
30대	221	20.4	48.4	68.8	27.1	4.1	31.2	100.0
40대	252	21.4	55.6	77.0	20.2	2.8	23.0	100.0
50대	262	23.3	50.4	73.7	22.9	3.4	26.3	100.0
60대 이상	244	19.7	55.3	75.0	21.7	3.3	25.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1	60.7	77.8	21.4	0.9	22.2	100.0
고졸	485	21.9	52.4	74.2	23.7	2.1	25.8	100.0
대재 이상	594	20.7	50.2	70.9	23.6	5.6	29.1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78.6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17.3	56.1	73.5	23.8	2.7	26.5	100.0
블루 칼라	337	23.7	48.4	72.1	24.9	3.0	27.9	100.0
화이트 칼라	264	27.7	47.7	75.4	19.7	4.9	24.6	100.0
전업 주부	168	13.1	59.5	72.6	23.8	3.6	27.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7.1	50.4	67.5	26.8	5.7	32.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9.8	50.0	69.8	25.6	4.7	30.2	100.0
200~299 만원	186	24.7	45.7	70.4	28.0	1.6	29.6	100.0
300~399 만원	333	22.8	56.2	79.0	18.0	3.0	21.0	100.0
400만원 이상	595	18.5	52.4	70.9	24.5	4.5	29.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0.3	50.2	70.5	23.8	5.7	29.5	100.0
충청권	155	27.1	52.9	80.0	18.1	1.9	20.0	100.0
호남권	143	30.1	57.3	87.4	11.9	0.7	12.6	100.0
영남권	318	13.8	52.5	66.4	30.8	2.8	33.6	100.0
강원	44	22.7	50.0	72.7	25.0	2.3	27.3	100.0
제주	32	21.9	59.4	81.3	15.6	3.1	18.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7.3	51.1	68.4	26.5	5.1	31.6	100.0
중/소도시	561	23.5	53.8	77.4	20.5	2.1	22.6	100.0
읍/면	95	24.2	49.5	73.7	22.1	4.2	2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2.2	53.7	85.8	12.9	1.3	14.2	100.0
중도	588	16.3	52.2	68.5	27.2	4.3	31.5	100.0
보수적	217	12.0	49.8	61.8	31.8	6.5	38.2	100.0
종교								
불교	207	18.8	48.3	67.1	28.5	4.3	32.9	100.0
기독교	220	24.1	53.6	77.7	19.5	2.7	22.3	100.0
천주교	81	21.0	51.9	72.8	22.2	4.9	27.2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0.6	53.2	73.8	22.5	3.7	26.2	100.0
모름/무응답	19	5.3	47.4	52.6	47.4	0.0	47.4	100.0

표28-4. 대북정책 도움 정도 - ㉕ 대북 제재

문)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9.8	44.4	54.2	40.8	5.0	45.8	100.0
성별								
남자	615	10.1	43.1	53.2	41.3	5.5	46.8	100.0
여자	585	9.4	45.8	55.2	40.3	4.4	44.8	100.0
연령별								
19~29세	221	7.7	46.2	53.8	42.5	3.6	46.2	100.0
30대	221	9.0	45.7	54.8	40.3	5.0	45.2	100.0
40대	252	10.3	45.6	56.0	40.9	3.2	44.0	100.0
50대	262	9.9	43.5	53.4	38.9	7.6	46.6	100.0
60대 이상	244	11.5	41.4	52.9	41.8	5.3	47.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42.7	51.3	45.3	3.4	48.7	100.0
고졸	485	10.5	47.2	57.7	37.3	4.9	42.3	100.0
대재 이상	594	9.4	42.1	51.5	43.1	5.4	48.5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50.0	7.1	57.1	100.0
자영업	294	7.5	42.9	50.3	43.2	6.5	49.7	100.0
블루 칼라	337	13.6	45.7	59.3	37.4	3.3	40.7	100.0
화이트 칼라	264	9.8	40.9	50.8	41.7	7.6	49.2	100.0
전업 주부	168	7.1	48.2	55.4	41.1	3.6	44.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1	48.0	56.1	41.5	2.4	43.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39.5	53.5	41.9	4.7	46.5	100.0
200~299 만원	186	5.9	47.8	53.8	40.3	5.9	46.2	100.0
300~399 만원	333	9.3	52.0	61.3	35.1	3.6	38.7	100.0
400만원 이상	595	10.6	39.8	50.4	44.0	5.5	49.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9.8	43.3	53.1	43.3	3.5	46.9	100.0
충청권	155	8.4	46.5	54.8	35.5	9.7	45.2	100.0
호남권	143	16.8	44.8	61.5	32.9	5.6	38.5	100.0
영남권	318	7.5	44.3	51.9	43.7	4.4	48.1	100.0
강원	44	4.5	45.5	50.0	43.2	6.8	50.0	100.0
제주	32	12.5	50.0	62.5	31.3	6.3	37.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4	42.8	52.2	41.9	5.9	47.8	100.0
중/소도시	561	10.3	44.6	54.9	41.2	3.9	45.1	100.0
읍/면	95	8.4	52.6	61.1	32.6	6.3	3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6	48.6	59.2	35.2	5.6	40.8	100.0
중도	588	8.8	41.7	50.5	45.6	3.9	49.5	100.0
보수적	217	10.6	44.2	54.8	38.2	6.9	45.2	100.0
종교								
불교	207	10.6	40.1	50.7	44.0	5.3	49.3	100.0
기독교	220	11.8	47.3	59.1	35.0	5.9	40.9	100.0
천주교	81	7.4	53.1	60.5	34.6	4.9	39.5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9.4	44.3	53.7	41.7	4.6	46.3	100.0
모름/무응답	19	0.0	31.6	31.6	63.2	5.3	68.4	100.0

표29.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4	49.5	55.9	34.9	9.2	44.1	100.0	
성별	남자	615	7.6	49.9	57.6	32.8	9.6	42.4	100.0
	여자	585	5.1	49.1	54.2	37.1	8.7	45.8	100.0
연령별	19~29세	221	6.3	51.6	57.9	35.3	6.8	42.1	100.0
	30대	221	4.5	51.6	56.1	35.7	8.1	43.9	100.0
	40대	252	6.7	50.0	56.7	36.5	6.7	43.3	100.0
	50대	262	5.7	51.5	57.3	32.4	10.3	42.7	100.0
	60대 이상	244	8.6	43.0	51.6	34.8	13.5	48.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43.6	52.1	35.0	12.8	47.9	100.0
	고졸	485	6.0	47.8	53.8	38.1	8.0	46.2	100.0
	대재 이상	594	6.4	51.9	58.2	32.5	9.3	41.8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0.0	25.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0.0	42.9	42.9	57.1	0.0	57.1	100.0
	자영업	294	5.4	44.2	49.7	39.1	11.2	50.3	100.0
	블루 칼라	337	5.6	51.3	57.0	35.0	8.0	43.0	100.0
	화이트 칼라	264	10.6	53.0	63.6	28.4	8.0	36.4	100.0
	전업 주부	168	3.6	50.6	54.2	35.1	10.7	45.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48.8	55.3	35.8	8.9	44.7	100.0
	200만원 미만	86	8.1	39.5	47.7	37.2	15.1	52.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7.5	48.4	55.9	34.9	9.1	44.1	100.0
	300~399 만원	333	6.3	49.5	55.9	37.5	6.6	44.1	100.0
	400만원 이상	595	5.9	51.3	57.1	33.1	9.7	42.9	100.0
	수도권	508	4.7	52.2	56.9	32.7	10.4	43.1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4.8	49.0	63.9	29.7	6.5	36.1	100.0
	호남권	143	12.6	67.8	80.4	18.2	1.4	19.6	100.0
	영남권	318	1.9	38.1	39.9	48.1	11.9	60.1	100.0
	강원	44	4.5	45.5	50.0	40.9	9.1	50.0	100.0
	제주	32	12.5	46.9	59.4	31.3	9.4	40.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5	46.0	49.4	39.3	11.2	50.6	100.0
	중/소도시	561	7.7	52.6	60.2	32.3	7.5	39.8	100.0
	읍/면	95	15.8	51.6	67.4	25.3	7.4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1.9	61.8	73.7	22.8	3.5	26.3	100.0
	중도	588	3.9	47.6	51.5	40.5	8.0	48.5	100.0
	보수적	217	3.2	32.3	35.5	41.9	22.6	64.5	100.0
종교	불교	207	6.8	38.6	45.4	39.6	15.0	54.6	100.0
	기독교	220	7.3	50.0	57.3	35.0	7.7	42.7	100.0
	천주교	81	2.5	58.0	60.5	29.6	9.9	39.5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6.7	51.6	58.3	34.3	7.5	41.7	100.0
	모름/무응답	19	0.0	47.4	47.4	31.6	21.1	52.6	100.0

표30-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㉞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0	36.2	56.2	27.9	11.0	4.9	15.9	100.0	
성별	남자	615	22.0	36.3	58.2	23.9	12.2	5.7	17.9	100.0
	여자	585	17.9	36.1	54.0	32.1	9.7	4.1	13.8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6	41.2	54.8	32.1	9.0	4.1	13.1	100.0
	30대	221	16.3	35.7	52.0	30.8	14.0	3.2	17.2	100.0
	40대	252	23.4	36.9	60.3	26.2	8.7	4.8	13.5	100.0
	50대	262	23.3	36.6	59.9	25.2	11.1	3.8	14.9	100.0
	60대 이상	244	22.1	30.7	52.9	26.2	12.3	8.6	2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9	33.3	51.3	29.1	12.8	6.8	19.7	100.0
	고졸	485	22.9	35.7	58.6	27.6	9.9	3.9	13.8	100.0
	대재 이상	594	18.2	36.7	54.9	28.1	11.6	5.4	17.0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8.6	28.6	57.1	28.6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17.7	37.4	55.1	24.8	14.3	5.8	20.1	100.0
	블루 칼라	337	22.3	34.7	57.0	31.2	7.7	4.2	11.9	100.0
	화이트 칼라	264	26.5	33.0	59.5	25.8	9.8	4.9	14.8	100.0
	전업 주부	168	13.1	38.7	51.8	28.6	13.7	6.0	19.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3.8	41.5	55.3	30.1	10.6	4.1	14.6	100.0
	200만원 미만	86	19.8	30.2	50.0	30.2	14.0	5.8	1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1.0	38.7	59.7	25.8	9.7	4.8	14.5	100.0
	300~399 만원	333	21.6	34.2	55.9	27.9	11.7	4.5	16.2	100.0
	400만원 이상	595	18.8	37.3	56.1	28.2	10.6	5.0	15.6	100.0
	수도권	508	15.4	39.8	55.1	29.3	9.8	5.7	15.6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7.7	44.5	72.3	21.3	4.5	1.9	6.5	100.0
	호남권	143	47.6	31.5	79.0	16.8	3.5	0.7	4.2	100.0
	영남권	318	10.4	28.6	39.0	33.3	20.8	6.9	27.7	100.0
	강원	44	22.7	43.2	65.9	20.5	9.1	4.5	13.6	100.0
	제주	32	25.0	25.0	50.0	43.8	0.0	6.3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3.8	34.7	48.5	29.6	14.2	7.7	21.9	100.0
	중/소도시	561	24.8	38.1	62.9	27.5	7.5	2.1	9.6	100.0
	읍/면	95	27.4	32.6	60.0	21.1	13.7	5.3	1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1.9	39.0	70.9	19.5	7.6	2.0	9.6	100.0
	중도	588	14.6	37.1	51.7	32.5	10.7	5.1	15.8	100.0
	보수적	217	12.9	28.6	41.5	30.9	18.0	9.7	27.6	100.0
종교	불교	207	16.9	37.7	54.6	24.6	12.1	8.7	20.8	100.0
	기독교	220	21.8	37.7	59.5	29.5	7.7	3.2	10.9	100.0
	천주교	81	22.2	34.6	56.8	22.2	17.3	3.7	21.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9.8	35.2	55.0	29.4	11.0	4.6	15.6	100.0
	모름/무응답	19	26.3	42.1	68.4	21.1	10.5	0.0	10.5	100.0

표30-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6.5	37.0	63.5	23.1	9.3	4.2	13.4	100.0	
성별	남자	615	26.7	36.7	63.4	21.5	10.1	5.0	15.1	100.0
	여자	585	26.3	37.3	63.6	24.8	8.4	3.2	11.6	100.0
연령별	19~29세	221	20.8	40.7	61.5	25.8	9.0	3.6	12.7	100.0
	30대	221	20.8	38.9	59.7	27.6	9.5	3.2	12.7	100.0
	40대	252	30.2	37.7	67.9	19.8	8.7	3.6	12.3	100.0
	50대	262	29.8	35.1	64.9	21.8	9.5	3.8	13.4	100.0
	60대 이상	244	29.5	33.2	62.7	21.3	9.4	6.6	1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9.1	33.3	62.4	23.9	8.5	5.1	13.7	100.0
	고졸	485	29.1	38.4	67.4	21.2	8.2	3.1	11.3	100.0
	대재 이상	594	23.9	36.4	60.3	24.6	10.3	4.9	15.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35.7	28.6	64.3	28.6	7.1	0.0	7.1	100.0
	자영업	294	25.5	34.0	59.5	24.1	11.6	4.8	16.3	100.0
	블루 칼라	337	24.6	41.8	66.5	22.6	7.4	3.6	11.0	100.0
	화이트 칼라	264	34.8	31.4	66.3	21.2	7.6	4.9	12.5	100.0
	전업 주부	168	22.6	39.9	62.5	22.6	10.7	4.2	14.9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23	20.3	39.8	60.2	26.0	10.6	3.3	13.8	100.0
	200만원 미만	86	30.2	33.7	64.0	18.6	12.8	4.7	17.4	100.0
	200~299 만원	186	26.9	37.6	64.5	24.7	6.5	4.3	10.8	100.0
	300~399 만원	333	26.4	39.0	65.5	20.4	10.5	3.6	14.1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595	25.9	36.1	62.0	24.7	8.9	4.4	13.3	100.0
	수도권	508	22.6	40.0	62.6	23.6	8.1	5.7	13.8	100.0
	충청권	155	38.1	39.4	77.4	18.7	3.2	0.6	3.9	100.0
	호남권	143	51.7	32.9	84.6	11.2	3.5	0.7	4.2	100.0
	영남권	318	15.4	31.1	46.5	30.2	17.9	5.3	23.3	100.0
	강원	44	29.5	45.5	75.0	20.5	2.3	2.3	4.5	100.0
	제주	32	25.0	43.8	68.8	21.9	6.3	3.1	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1.0	36.0	57.0	25.0	11.0	7.0	18.0	100.0
	중/소도시	561	30.1	38.5	68.6	21.9	7.8	1.6	9.4	100.0
	읍/면	95	36.8	33.7	70.5	18.9	7.4	3.2	1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9.0	39.0	78.0	16.5	4.6	1.0	5.6	100.0
	중도	588	20.6	38.4	59.0	26.7	9.5	4.8	14.3	100.0
	보수적	217	19.8	29.5	49.3	25.3	17.1	8.3	25.3	100.0
종교	불교	207	25.6	34.3	59.9	22.7	10.6	6.8	17.4	100.0
	기독교	220	28.6	37.3	65.9	23.2	7.7	3.2	10.9	100.0
	천주교	81	25.9	38.3	64.2	22.2	9.9	3.7	13.6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6.1	37.4	63.5	23.4	9.4	3.7	13.1	100.0
	모름/무응답	19	26.3	47.4	73.7	15.8	5.3	5.3	10.5	100.0

표30-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교류협력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6	27.6	37.2	33.1	23.5	6.3	29.8	100.0	
성별	남자	615	9.4	26.2	35.6	32.0	25.4	7.0	32.4	100.0
	여자	585	9.7	29.1	38.8	34.2	21.5	5.5	27.0	100.0
연령별	19~29세	221	6.8	27.6	34.4	37.6	24.0	4.1	28.1	100.0
	30대	221	11.8	26.7	38.5	34.8	21.7	5.0	26.7	100.0
	40대	252	11.5	21.0	32.5	35.3	25.8	6.3	32.1	100.0
	50대	262	8.8	32.4	41.2	29.0	21.8	8.0	29.8	100.0
	60대 이상	244	9.0	29.9	38.9	29.5	24.2	7.4	31.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32.5	41.0	32.5	21.4	5.1	26.5	100.0
	고졸	485	9.3	29.9	39.2	32.4	22.1	6.4	28.5	100.0
	대재 이상	594	10.1	24.6	34.7	33.7	25.3	6.4	31.6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14.3	21.4	28.6	42.9	7.1	50.0	100.0
	자영업	294	7.8	28.6	36.4	31.6	23.5	8.5	32.0	100.0
	블루 칼라	337	10.4	32.3	42.7	32.0	19.3	5.9	25.2	100.0
	화이트 칼라	264	11.7	19.7	31.4	35.2	26.1	7.2	33.3	100.0
	전업 주부	168	10.1	29.8	39.9	35.1	20.8	4.2	25.0	100.0
가구 소득 수준	학생/군인/무직	123	6.5	27.6	34.1	32.5	30.9	2.4	33.3	100.0
	200만원 미만	86	5.8	24.4	30.2	33.7	26.7	9.3	36.0	100.0
	200~299 만원	186	7.5	30.1	37.6	33.9	24.7	3.8	28.5	100.0
	300~399 만원	333	9.6	28.5	38.1	30.9	24.3	6.6	30.9	100.0
지역별	400만원 이상	595	10.8	26.7	37.5	33.9	22.2	6.4	28.6	100.0
	수도권	508	10.0	26.4	36.4	32.5	26.0	5.1	31.1	100.0
	충청권	155	9.7	23.9	33.5	34.8	21.9	9.7	31.6	100.0
	호남권	143	7.7	30.1	37.8	33.6	18.2	10.5	28.7	100.0
	영남권	318	8.5	34.3	42.8	34.0	20.8	2.5	23.3	100.0
	강원	44	9.1	6.8	15.9	27.3	43.2	13.6	56.8	100.0
	제주	32	21.9	15.6	37.5	31.3	15.6	15.6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0	26.7	35.7	34.9	23.0	6.4	29.4	100.0
	중/소도시	561	10.5	29.2	39.8	31.7	23.4	5.2	28.5	100.0
	읍/면	95	7.4	23.2	30.5	30.5	27.4	11.6	3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6	23.3	28.9	32.4	28.9	9.9	38.7	100.0
	중도	588	10.5	28.6	39.1	34.9	20.9	5.1	26.0	100.0
	보수적	217	14.3	32.7	47.0	29.5	20.7	2.8	23.5	100.0
종교	불교	207	17.4	22.2	39.6	32.4	20.3	7.7	28.0	100.0
	기독교	220	7.3	32.3	39.5	27.3	27.3	5.9	33.2	100.0
	천주교	81	11.1	28.4	39.5	33.3	19.8	7.4	27.2	100.0
	기타	2	0.0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7.9	27.6	35.5	35.2	23.7	5.7	29.4	100.0
	모름/무응답	19	5.3	31.6	36.8	36.8	15.8	10.5	26.3	100.0

표30-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㉔ 대북빠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0.0	37.3	57.3	29.1	9.8	3.8	13.6	100.0	
성별	남자	615	21.8	37.9	59.7	26.0	10.2	4.1	14.3	100.0
	여자	585	18.1	36.8	54.9	32.3	9.2	3.6	12.8	100.0
연령별	19~29세	221	16.3	38.9	55.2	33.9	7.7	3.2	10.9	100.0
	30대	221	19.0	36.2	55.2	34.8	7.7	2.3	10.0	100.0
	40대	252	20.2	36.9	57.1	28.2	10.7	4.0	14.7	100.0
	50대	262	22.9	37.0	59.9	23.3	11.8	5.0	16.8	100.0
	60대 이상	244	20.9	37.7	58.6	26.6	10.2	4.5	1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8.8	36.8	55.6	29.9	11.1	3.4	14.5	100.0
	고졸	485	20.0	39.4	59.4	28.5	9.9	2.3	12.2	100.0
	대재 이상	594	20.0	35.9	55.9	29.6	9.3	5.2	14.5	100.0
	모름/무응답	4	50.0	25.0	75.0	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21.4	50.0	14.3	28.6	7.1	35.7	100.0
	자영업	294	19.4	38.8	58.2	28.9	9.5	3.4	12.9	100.0
	블루 칼라	337	19.9	40.1	59.9	27.9	9.2	3.0	12.2	100.0
	화이트 칼라	264	23.9	35.6	59.5	28.4	8.3	3.8	12.1	100.0
	전업 주부	168	16.7	29.8	46.4	34.5	14.3	4.8	19.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7.1	42.3	59.3	28.5	6.5	5.7	12.2	100.0
	200만원 미만	86	22.1	30.2	52.3	26.7	14.0	7.0	20.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9.4	40.3	59.7	30.6	7.0	2.7	9.7	100.0
	300~399 만원	333	20.7	37.2	58.0	28.2	10.8	3.0	13.8	100.0
	400만원 이상	595	19.5	37.5	57.0	29.4	9.4	4.2	13.6	100.0
	수도권	508	20.9	36.4	57.3	28.5	9.1	5.1	14.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0.0	40.0	60.0	34.2	3.9	1.9	5.8	100.0
	호남권	143	25.2	37.1	62.2	25.2	9.8	2.8	12.6	100.0
	영남권	318	14.8	40.3	55.0	28.9	12.9	3.1	16.0	100.0
	강원	44	20.5	31.8	52.3	34.1	13.6	0.0	13.6	100.0
	제주	32	34.4	18.8	53.1	25.0	12.5	9.4	21.9	100.0
	대도시	544	16.9	39.3	56.3	27.9	11.0	4.8	15.8	100.0
	중/소도시	561	22.1	35.8	57.9	31.0	8.4	2.7	11.1	100.0
정치적 성향	음/면	95	25.3	34.7	60.0	24.2	10.5	5.3	15.8	100.0
	진보적	395	27.1	36.5	63.5	25.1	9.1	2.3	11.4	100.0
	중도 보수적	588	16.7	39.6	56.3	31.6	8.0	4.1	12.1	100.0
종교	불교	207	23.2	30.4	53.6	28.0	11.6	6.8	18.4	100.0
	기독교	220	18.6	40.0	58.6	29.1	8.6	3.6	12.3	100.0
	천주교	81	23.5	38.3	61.7	21.0	12.3	4.9	17.3	100.0
	기타	2	0.0	50.0	5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8.8	38.6	57.4	30.3	9.4	3.0	12.4	100.0
	모름/무응답	19	31.6	31.6	63.2	31.6	5.3	0.0	5.3	100.0

표30-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㉕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0	40.9	54.9	35.5	8.1	1.5	9.6	100.0	
성별	남자	615	15.3	39.8	55.1	33.8	9.3	1.8	11.1	100.0
	여자	585	12.6	42.1	54.7	37.3	6.8	1.2	8.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7	42.1	54.8	34.8	8.1	2.3	10.4	100.0
	30대	221	15.4	41.2	56.6	37.1	5.9	0.5	6.3	100.0
	40대	252	17.1	39.7	56.7	34.1	7.9	1.2	9.1	100.0
	50대	262	13.4	41.2	54.6	35.1	8.4	1.9	10.3	100.0
	60대 이상	244	11.5	40.6	52.0	36.5	9.8	1.6	11.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9.4	35.9	45.3	41.0	12.8	0.9	13.7	100.0
	고졸	485	14.2	43.5	57.7	35.1	6.6	0.6	7.2	100.0
	대재 이상	594	14.8	39.7	54.5	34.7	8.4	2.4	10.8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57.1	64.3	28.6	7.1	0.0	7.1	100.0
	자영업	294	12.6	43.9	56.5	33.3	7.8	2.4	10.2	100.0
	블루 칼라	337	13.6	40.9	54.6	39.8	5.0	0.6	5.6	100.0
	화이트 칼라	264	18.2	38.6	56.8	29.9	11.4	1.9	13.3	100.0
	전업 주부	168	10.1	40.5	50.6	39.3	8.9	1.2	10.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5.4	37.4	52.8	36.6	8.9	1.6	10.6	100.0
	200만원 미만	86	14.0	37.2	51.2	40.7	7.0	1.2	8.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3.4	46.8	60.2	26.9	10.8	2.2	12.9	100.0
	300~399 만원	333	11.4	40.8	52.3	39.3	7.5	0.9	8.4	100.0
	400만원 이상	595	15.6	39.7	55.3	35.3	7.7	1.7	9.4	100.0
	수도권	508	14.6	45.1	59.6	30.9	7.5	2.0	9.4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6.1	49.0	65.2	25.8	7.7	1.3	9.0	100.0
	호남권	143	18.2	30.8	49.0	37.8	12.6	0.7	13.3	100.0
	영남권	318	8.8	37.1	45.9	46.2	7.5	0.3	7.9	100.0
	강원	44	15.9	29.5	45.5	45.5	6.8	2.3	9.1	100.0
	제주	32	25.0	34.4	59.4	25.0	6.3	9.4	15.6	100.0
	대도시	544	14.2	41.9	56.1	36.0	6.3	1.7	7.9	100.0
	중/소도시	561	14.1	41.2	55.3	34.9	8.7	1.1	9.8	100.0
정치적 성향	음/면	95	12.6	33.7	46.3	35.8	14.7	3.2	17.9	100.0
	진보적	395	13.4	37.5	50.9	38.5	8.9	1.8	10.6	100.0
	중도 보수적	588	12.9	42.9	55.8	35.5	7.7	1.0	8.7	100.0
종교	불교	207	16.9	37.2	54.1	36.7	7.7	1.4	9.2	100.0
	기독교	220	17.7	40.0	57.7	31.4	9.5	1.4	10.9	100.0
	천주교	81	19.8	40.7	60.5	37.0	2.5	0.0	2.5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1.3	42.5	53.8	36.1	8.3	1.8	10.1	100.0
	모름/무응답	19	5.3	36.8	42.1	47.4	10.5	0.0	10.5	100.0

표30-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㉞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3.3	24.8	38.1	34.4	20.2	7.3	27.5	100.0	
성별	남자	615	14.6	24.4	39.0	33.8	19.7	7.5	27.2	100.0
	여자	585	11.8	25.3	37.1	35.0	20.7	7.2	27.9	100.0
연령별	19~29세	221	10.0	28.1	38.0	37.1	16.7	8.1	24.9	100.0
	30대	221	11.3	23.5	34.8	34.8	21.3	9.0	30.3	100.0
	40대	252	11.5	25.8	37.3	38.1	18.7	6.0	24.6	100.0
	50대	262	15.6	26.0	41.6	30.5	19.8	8.0	27.9	100.0
	60대 이상	244	17.2	20.9	38.1	32.0	24.2	5.7	29.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8	18.8	31.6	40.2	23.9	4.3	28.2	100.0
	고졸	485	13.4	26.0	39.4	33.4	20.8	6.4	27.2	100.0
	대재 이상	594	13.3	25.1	38.4	34.2	18.9	8.6	27.4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25.0	25.0	50.0	100.0
	농/수/축산업	14	28.6	21.4	50.0	21.4	14.3	14.3	28.6	100.0
	자영업	294	14.3	21.8	36.1	33.0	21.4	9.5	31.0	100.0
	블루 칼라	337	13.1	26.4	39.5	35.0	18.7	6.8	25.5	100.0
	화이트 칼라	264	15.9	25.4	41.3	34.1	18.9	5.7	24.6	100.0
	전업 주부	168	9.5	27.4	36.9	35.7	22.6	4.8	27.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23.6	32.5	36.6	21.1	9.8	30.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1.6	22.1	33.7	37.2	19.8	9.3	29.1	100.0
	200~299 만원	186	15.6	28.0	43.5	30.1	18.8	7.5	26.3	100.0
	300~399 만원	333	9.3	27.0	36.3	39.0	19.5	5.1	24.6	100.0
	400만원 이상	595	15.0	23.0	38.0	32.8	21.0	8.2	29.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2.0	26.8	38.8	33.5	22.6	5.1	27.8	100.0
	충청권	155	21.9	28.4	50.3	22.6	13.5	13.5	27.1	100.0
	호남권	143	13.3	15.4	28.7	43.4	21.7	6.3	28.0	100.0
	영남권	318	12.3	23.9	36.2	40.6	18.2	5.0	23.3	100.0
	강원	44	2.3	25.0	27.3	25.0	29.5	18.2	47.7	100.0
	제주	32	15.6	28.1	43.8	18.8	12.5	25.0	37.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5.1	21.7	36.8	33.8	23.2	6.3	29.4	100.0
	중/소도시	561	10.5	28.7	39.2	35.1	17.3	8.4	25.7	100.0
	읍/면	95	18.9	20.0	38.9	33.7	20.0	7.4	2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6	23.0	33.7	31.1	24.8	10.4	35.2	100.0
	중도	588	14.3	25.5	39.8	37.4	16.2	6.6	22.8	100.0
	보수적	217	15.2	26.3	41.5	32.3	22.6	3.7	26.3	100.0
종교	불교	207	18.8	26.1	44.9	29.0	17.4	8.7	26.1	100.0
	기독교	220	11.4	26.4	37.7	32.7	21.4	8.2	29.5	100.0
	천주교	81	12.3	29.6	42.0	29.6	22.2	6.2	28.4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2.1	23.7	35.8	37.1	20.1	7.0	27.1	100.0
	모름/무응답	19	10.5	15.8	26.3	42.1	31.6	0.0	31.6	100.0

표31. 정부의 대북정책 영향력 정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9	43.8	58.8	31.3	7.8	2.2	9.9	100.0	
성별	남자	615	16.4	44.1	60.5	28.9	8.0	2.6	10.6	100.0
	여자	585	13.3	43.6	56.9	33.8	7.5	1.7	9.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7	43.0	55.7	35.3	7.7	1.4	9.0	100.0
	30대	221	14.5	38.5	52.9	36.2	8.6	2.3	10.9	100.0
	40대	252	15.9	47.2	63.1	27.8	6.7	2.4	9.1	100.0
	50대	262	18.3	44.3	62.6	26.7	7.6	3.1	10.7	100.0
	60대 이상	244	12.7	45.5	58.2	32.0	8.2	1.6	9.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1.1	42.7	53.8	36.8	7.7	1.7	9.4	100.0
	고졸	485	12.8	47.8	60.6	31.1	7.0	1.2	8.2	100.0
	대재 이상	594	17.5	40.6	58.1	30.6	8.4	2.9	11.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0.0	0.0	25.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7.1	71.4	78.6	21.4	0.0	0.0	0.0	100.0
	자영업	294	16.3	43.2	59.5	28.6	8.8	3.1	11.9	100.0
	블루 칼라	337	13.4	47.2	60.5	31.8	6.2	1.5	7.7	100.0
	화이트 칼라	264	18.9	40.5	59.5	28.4	9.8	2.3	12.1	100.0
	전업 주부	168	12.5	44.6	57.1	33.9	6.5	2.4	8.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1.4	39.0	50.4	40.7	7.3	1.6	8.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44.2	58.1	33.7	5.8	2.3	8.1	100.0
	200~299 만원	186	13.4	49.5	62.9	29.0	7.0	1.1	8.1	100.0
	300~399 만원	333	15.0	45.6	60.7	32.1	6.0	1.2	7.2	100.0
	400만원 이상	595	15.5	41.0	56.5	31.3	9.2	3.0	12.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4.2	44.9	59.1	30.9	7.9	2.2	10.0	100.0
	충청권	155	24.5	32.3	56.8	34.8	7.1	1.3	8.4	100.0
	호남권	143	16.8	55.9	72.7	25.9	0.7	0.7	1.4	100.0
	영남권	318	10.4	42.5	52.8	33.6	10.1	3.5	13.5	100.0
	강원	44	11.4	43.2	54.5	31.8	11.4	2.3	13.6	100.0
	제주	32	21.9	43.8	65.6	21.9	12.5	0.0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5.3	40.8	56.1	30.0	10.8	3.1	14.0	100.0
	중/소도시	561	14.1	46.0	60.1	33.7	4.8	1.4	6.2	100.0
	읍/면	95	17.9	48.4	66.3	25.3	7.4	1.1	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6.3	45.3	71.6	22.8	4.3	1.3	5.6	100.0
	중도	588	10.0	45.1	55.1	36.1	8.0	0.9	8.8	100.0
	보수적	217	7.4	37.8	45.2	34.1	13.4	7.4	20.7	100.0
종교	불교	207	13.0	42.0	55.1	31.9	10.1	2.9	13.0	100.0
	기독교	220	18.2	50.0	68.2	23.2	6.8	1.8	8.6	100.0
	천주교	81	12.3	40.7	53.1	34.6	11.1	1.2	12.3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4.9	42.5	57.4	33.4	7.0	2.2	9.2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7.4	57.9	36.8	5.3	0.0	5.3	100.0

표32-1. 한반도 평화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정책방향(1순위)

문) ○○님은 향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정이 장기간 지속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한미공조 강화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와 협력	한국의 독자노선 수립	계	
		%	%	%	%	%		
전 체	1200	43.5	26.9	23.5	3.9	2.2	100.0	
성별	남자	615	42.8	27.3	23.9	3.4	2.6	100.0
	여자	585	44.3	26.5	23.1	4.4	1.7	100.0
연령별	19~29세	221	41.6	30.8	24.4	2.3	0.9	100.0
	30대	221	47.5	27.6	18.6	4.1	2.3	100.0
	40대	252	47.6	21.4	25.0	3.2	2.8	100.0
	50대	262	42.0	26.3	23.3	5.3	3.1	100.0
	60대 이상	244	38.9	29.1	25.8	4.5	1.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0.8	28.2	31.6	8.5	0.9	100.0
	고졸	485	45.4	27.4	20.4	3.9	2.9	100.0
	대재 이상	594	44.4	26.3	24.4	3.0	1.9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42.9	42.9	14.3	0.0	0.0	100.0
	자영업	294	46.6	25.9	22.8	3.4	1.4	100.0
	블루 칼라	337	42.1	27.0	22.3	5.3	3.3	100.0
	화이트 칼라	264	43.6	23.9	29.2	1.5	1.9	100.0
	전업 주부	168	42.9	33.3	15.5	5.4	3.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0.7	25.2	28.5	4.9	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8.4	27.9	22.1	11.6	0.0	100.0
	200~299 만원	186	41.4	26.3	24.2	5.9	2.2	100.0
	300~399 만원	333	45.9	21.6	24.9	4.5	3.0	100.0
	400만원 이상	595	43.5	29.9	22.7	1.8	2.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2.6	23.6	18.5	3.0	2.4	100.0
	충청권	155	40.0	30.3	27.1	1.9	0.6	100.0
	호남권	143	28.7	26.6	35.7	6.3	2.8	100.0
	영남권	318	40.3	33.0	21.1	3.1	2.5	100.0
	강원	44	25.0	15.9	43.2	13.6	2.3	100.0
	제주	32	40.6	18.8	28.1	12.5	0.0	100.0
	대도시	544	45.6	29.6	20.0	2.0	2.8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43.7	23.9	25.5	5.3	1.6	100.0
	읍/면	95	30.5	29.5	31.6	6.3	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1.5	25.1	29.4	2.8	1.3	100.0
	중도	588	48.8	23.8	21.3	3.7	2.4	100.0
	보수적	217	32.7	38.7	18.9	6.5	3.2	100.0
종교	불교	207	38.2	28.0	25.6	6.8	1.4	100.0
	기독교	220	42.7	25.0	27.3	2.7	2.3	100.0
	천주교	81	46.9	19.8	25.9	3.7	3.7	100.0
	기타	2	50.0	0.0	5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4.7	28.5	21.5	3.6	1.8	100.0
	모름/무응답	19	52.6	15.8	15.8	0.0	15.8	100.0

표32-2. 한반도 평화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정책방향(1+2순위)

문) ○○님 향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정이 장기간 지속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비핵-평화 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한미공조 강화	남북 교류 협력 확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 해소와 협력	한국의 독자노선 수립	
		%	%	%	%	%	
전 체	1200	61.6	56.0	53.4	22.4	5.6	
성별	남자	615	61.5	58.2	52.2	20.7	6.8
	여자	585	61.7	53.7	54.7	24.3	4.3
연령별	19~29세	221	59.7	59.7	49.8	24.0	4.5
	30대	221	62.4	56.1	52.5	23.1	5.0
	40대	252	69.0	47.6	56.0	19.8	7.1
	50대	262	58.8	59.2	52.7	21.8	6.1
	60대 이상	244	57.8	57.8	55.7	23.8	4.9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3.0	60.7	57.3	26.5	2.6
	고졸	485	60.4	55.3	54.2	21.9	7.6
	대재 이상	594	64.1	55.9	51.9	22.2	4.4
직업별	모름/무응답	4	75.0	25.0	75.0	0.0	25.0
	농/수/축산업	14	50.0	50.0	71.4	21.4	7.1
	자영업	294	65.0	56.1	52.7	21.4	4.1
	블루 칼라	337	60.5	59.1	52.5	20.8	6.2
	화이트 칼라	264	64.0	51.5	55.3	22.3	5.3
	전업 주부	168	56.5	58.9	51.2	24.4	7.7
	학생/군인/무직	123	59.3	53.7	54.5	26.8	4.9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54.7	53.5	55.8	33.7	2.3
	200~299 만원	186	60.8	54.8	53.8	22.0	7.0
	300~399 만원	333	65.2	52.6	55.9	18.6	6.6
	400만원 이상	595	60.8	58.7	51.6	23.0	5.0
지역별	수도권	508	69.9	59.1	50.0	15.9	4.9
	충청권	155	60.6	54.2	56.1	23.2	4.5
	호남권	143	46.9	47.6	66.4	28.0	9.1
	영남권	318	59.1	59.7	49.1	26.4	5.0
	강원	44	38.6	36.4	68.2	45.5	6.8
	제주	32	56.3	43.8	59.4	25.0	9.4
	대도시	544	63.2	60.5	48.9	21.9	5.5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61.0	51.7	56.7	23.0	5.5
	읍/면	95	55.8	55.8	60.0	22.1	6.3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1.8	50.1	63.5	18.7	4.8
	중도	588	64.1	56.0	51.7	21.4	5.6
	보수적	217	54.4	66.8	39.6	31.8	6.9
종교	불교	207	54.6	56.5	57.5	27.5	3.4
	기독교	220	66.4	52.7	54.1	20.9	4.5
	천주교	81	63.0	50.6	59.3	18.5	7.4
	기타	2	50.0	50.0	50.0	0.0	50.0
	종교 없음	671	62.0	57.5	52.0	21.6	5.8
	모름/무응답	19	63.2	57.9	26.3	31.6	21.1

표33-1. 한반도 평화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규정(1순위)

문) ○○님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협상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역할	북한, 미국과 함께 당사국으로서 협상하고 합의하는 역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주도의 안보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	중국, 일본과 같은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역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 수행	계	
		%	%	%	%	%		%
전 체	1200	30.8	33.5	23.6	5.4	6.8	100.0	
성별	남자	615	29.4	34.1	22.9	6.8	6.7	100.0
	여자	585	32.1	32.8	24.3	3.9	6.8	100.0
연령별	19~29세	221	29.0	30.3	26.2	6.3	8.1	100.0
	30대	221	29.9	31.7	24.9	4.1	9.5	100.0
	40대	252	29.4	31.7	27.0	4.8	7.1	100.0
	50대	262	29.0	37.8	19.1	7.3	6.9	100.0
	60대 이상	244	36.5	35.2	21.3	4.5	2.5	100.0
	중졸 이하	117	35.0	33.3	22.2	5.1	4.3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485	34.8	31.3	21.9	5.6	6.4	100.0
	대재 이상	594	26.6	35.2	25.4	5.2	7.6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21.4	21.4	7.1	21.4	100.0
	자영업	294	30.3	37.4	22.1	4.8	5.4	100.0
	블루 칼라	337	31.5	35.3	20.8	4.5	8.0	100.0
	화이트 칼라	264	31.8	29.9	25.8	4.9	7.6	100.0
	전업 주부	168	31.0	34.5	23.8	5.4	5.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7.6	26.8	30.1	10.6	4.9	100.0
	200만원 미만	86	31.4	31.4	30.2	4.7	2.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36.0	31.7	18.3	7.0	7.0	100.0
	300~399 만원	333	31.5	31.8	24.3	6.0	6.3	100.0
	400만원 이상	595	28.6	35.3	23.9	4.7	7.6	100.0
	수도권	508	35.8	34.3	20.3	3.9	5.7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5.8	35.5	27.1	4.5	7.1	100.0
	호남권	143	39.2	33.6	16.8	4.2	6.3	100.0
	영남권	318	23.6	33.3	26.1	9.7	7.2	100.0
	강원	44	13.6	20.5	50.0	0.0	15.9	100.0
	제주	32	31.3	31.3	28.1	3.1	6.3	100.0
	대도시	544	32.0	34.0	23.3	3.7	7.0	100.0
	중/소도시	561	29.4	33.2	24.4	6.1	7.0	100.0
정치적 성향	음/면	95	31.6	32.6	20.0	11.6	4.2	100.0
	진보적	395	24.8	37.2	23.5	5.6	8.9	100.0
	중도 보수적	588	35.7	31.3	22.3	5.4	5.3	100.0
종교	불교	207	27.1	33.3	24.6	7.2	7.7	100.0
	기독교	220	35.5	30.0	22.7	4.1	7.7	100.0
	천주교	81	32.1	45.7	14.8	3.7	3.7	100.0
	기타	2	0.0	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9.5	33.8	24.6	5.7	6.4	100.0
	모름/무응답	19	57.9	15.8	21.1	0.0	5.3	100.0

표33-2. 한반도 평화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규정(1+2순위)

문) ○○님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협상을 증대하거나 촉진하는 역할	북한, 미국과 함께 당사국으로서 협상하고 합의하는 역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주도의 안보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	중국, 일본과 같은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역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 수행	
		%	%	%	%		%
전 체	1200	47.7	60.4	51.5	17.4	22.8	
성별	남자	615	47.5	60.5	50.4	17.6	23.9
	여자	585	47.9	60.3	52.6	17.3	21.5
연령별	19~29세	221	46.6	59.3	50.7	17.2	26.2
	30대	221	48.0	60.6	49.3	17.6	24.4
	40대	252	45.2	56.3	52.8	17.9	27.0
	50대	262	45.4	60.7	54.6	16.4	22.5
	60대 이상	244	53.3	65.2	49.6	18.0	13.9
	중졸 이하	117	52.1	63.2	50.4	19.7	14.5
교육 수준별	고졸	485	49.3	59.4	51.5	18.6	21.0
	대재 이상	594	45.5	60.8	51.7	16.0	25.8
	모름/무응답	4	50.0	50.0	50.0	25.0	25.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35.7	71.4	28.6	28.6
	자영업	294	42.5	63.9	53.7	16.0	23.5
	블루 칼라	337	49.9	65.6	48.1	13.6	22.6
	화이트 칼라	264	52.7	56.1	47.7	18.6	24.6
	전업 주부	168	45.8	58.9	57.7	19.6	17.9
	학생/군인/무직	123	47.2	52.0	52.8	24.4	23.6
	200만원 미만	86	51.2	54.7	55.8	16.3	20.9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8.9	61.8	50.0	15.6	23.1
	300~399 만원	333	46.8	58.0	52.9	18.9	23.4
	400만원 이상	595	47.2	62.2	50.6	17.3	22.5
	수도권	508	52.2	62.8	48.6	13.2	23.0
지역별	충청권	155	49.0	60.0	51.6	15.5	23.9
	호남권	143	52.4	67.1	42.7	20.3	17.5
	영남권	318	40.3	56.9	56.0	24.8	21.7
	강원	44	27.3	47.7	70.5	11.4	40.9
	제주	32	50.0	46.9	65.6	15.6	21.9
	대도시	544	45.4	63.2	50.7	17.8	22.6
	중/소도시	561	50.1	57.9	52.4	16.4	23.0
정치적 성향	음/면	95	46.3	58.9	50.5	21.1	22.1
	진보적	395	44.6	60.3	50.9	18.0	26.1
	중도 보수적	588	51.7	61.7	50.7	16.3	19.4
종교	불교	207	43.0	59.9	53.1	21.3	22.2
	기독교	220	49.5	58.6	50.0	10.5	30.5
	천주교	81	48.1	66.7	58.0	14.8	12.3
	기타	2	0.0	50.0	100.0	0.0	50.0
	종교 없음	671	48.0	60.4	51.0	18.9	21.8
	모름/무응답	19	68.4	63.2	36.8	15.8	15.8

표34-1.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㉞ 탈북자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8	28.6	30.4	48.4	18.5	2.7	21.2	100.0
성별									
남자	615	1.8	28.0	29.8	49.8	17.4	3.1	20.5	100.0
여자	585	1.9	29.2	31.1	47.0	19.7	2.2	21.9	100.0
연령별									
19~29세	221	0.0	29.4	29.4	44.3	23.5	2.7	26.2	100.0
30대	221	2.3	20.8	23.1	54.8	19.0	3.2	22.2	100.0
40대	252	0.8	27.8	28.6	45.6	22.6	3.2	25.8	100.0
50대	262	2.3	34.0	36.3	48.1	13.7	1.9	15.6	100.0
60대 이상	244	3.7	29.9	33.6	49.6	14.3	2.5	16.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29.1	31.6	49.6	17.1	1.7	18.8	100.0
고졸	485	1.9	30.7	32.6	50.1	15.5	1.9	17.3	100.0
대재 이상	594	1.7	26.8	28.5	46.8	21.2	3.5	24.7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14.3	21.4	71.4	7.1	0.0	7.1	100.0
자영업	294	2.4	29.6	32.0	49.0	16.3	2.7	19.0	100.0
블루 칼라	337	1.2	27.0	28.2	49.6	19.3	3.0	22.3	100.0
화이트 칼라	264	1.5	28.4	29.9	47.3	19.7	3.0	22.7	100.0
전업 주부	168	3.0	29.2	32.1	46.4	19.0	2.4	21.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31.7	32.5	46.3	19.5	1.6	21.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23.3	26.7	58.1	14.0	1.2	15.1	100.0
200~299 만원	186	1.1	28.5	29.6	47.3	21.5	1.6	23.1	100.0
300~399 만원	333	1.5	30.9	32.4	51.4	14.1	2.1	16.2	100.0
400만원 이상	595	2.0	28.1	30.1	45.7	20.7	3.5	24.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6	28.1	30.7	50.4	15.6	3.3	18.9	100.0
충청권	155	1.3	37.4	38.7	43.9	15.5	1.9	17.4	100.0
호남권	143	1.4	35.0	36.4	46.2	17.5	0.0	17.5	100.0
영남권	318	0.9	21.4	22.3	47.8	26.4	3.5	29.9	100.0
강원	44	0.0	27.3	27.3	56.8	15.9	0.0	15.9	100.0
제주	32	6.3	37.5	43.8	43.8	9.4	3.1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8	26.7	28.5	47.8	18.8	5.0	23.7	100.0
중/소도시	561	1.8	29.8	31.6	52.6	15.2	0.7	15.9	100.0
읍/면	95	2.1	32.6	34.7	27.4	36.8	1.1	3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0	33.4	35.4	45.8	17.7	1.0	18.7	100.0
중도	588	1.4	26.5	27.9	49.5	18.5	4.1	22.6	100.0
보수적	217	2.8	25.3	28.1	50.2	19.8	1.8	21.7	100.0
종교									
불교	207	2.9	26.1	29.0	47.8	19.3	3.9	23.2	100.0
기독교	220	2.7	32.3	35.0	52.3	11.8	0.9	12.7	100.0
천주교	81	0.0	33.3	33.3	44.4	21.0	1.2	22.2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5	28.0	29.5	48.1	19.4	3.0	22.4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5	10.5	36.8	47.4	5.3	52.6	100.0

표34-2.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㉟ 조선족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2	18.0	19.2	42.4	30.2	8.3	38.4	100.0
성별									
남자	615	1.3	17.6	18.9	43.4	30.1	7.6	37.7	100.0
여자	585	1.0	18.5	19.5	41.4	30.3	8.9	39.1	100.0
연령별									
19~29세	221	0.9	14.9	15.8	38.5	35.3	10.4	45.7	100.0
30대	221	0.5	15.4	15.8	42.5	32.6	9.0	41.6	100.0
40대	252	1.2	18.7	19.8	41.7	29.0	9.5	38.5	100.0
50대	262	2.3	20.2	22.5	42.7	29.0	5.7	34.7	100.0
60대 이상	244	0.8	20.1	20.9	46.3	25.8	7.0	3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19.7	22.2	42.7	29.1	6.0	35.0	100.0
고졸	485	1.2	20.0	21.2	46.2	26.6	6.0	32.6	100.0
대재 이상	594	0.8	16.2	17.0	39.4	33.2	10.4	43.6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25.0	50.0	25.0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7.1	7.1	64.3	21.4	7.1	28.6	100.0
자영업	294	2.4	19.0	21.4	43.9	26.2	8.5	34.7	100.0
블루 칼라	337	0.3	18.7	19.0	43.0	30.9	7.1	38.0	100.0
화이트 칼라	264	1.1	15.5	16.7	39.0	33.7	10.6	44.3	100.0
전업 주부	168	0.0	20.2	20.2	44.0	30.4	5.4	35.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17.1	19.5	39.8	30.9	9.8	40.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3	18.6	20.9	50.0	20.9	8.1	29.1	100.0
200~299 만원	186	1.1	15.1	16.1	44.1	31.2	8.6	39.8	100.0
300~399 만원	333	0.9	20.1	21.0	46.5	27.3	5.1	32.4	100.0
400만원 이상	595	1.2	17.6	18.8	38.5	32.8	9.9	42.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6	20.3	21.9	40.4	29.9	7.9	37.8	100.0
충청권	155	1.3	7.7	9.0	50.3	28.4	12.3	40.6	100.0
호남권	143	2.1	22.4	24.5	49.7	25.9	0.0	25.9	100.0
영남권	318	0.0	17.0	17.0	36.2	35.5	11.3	46.9	100.0
강원	44	0.0	18.2	18.2	52.3	27.3	2.3	29.5	100.0
제주	32	3.1	21.9	25.0	53.1	12.5	9.4	2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4	18.4	18.8	39.9	31.4	9.9	41.4	100.0
중/소도시	561	1.8	18.2	20.0	45.1	28.5	6.4	34.9	100.0
읍/면	95	2.1	14.7	16.8	41.1	32.6	9.5	4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5	20.8	22.3	43.3	28.4	6.1	34.4	100.0
중도	588	0.7	17.5	18.2	42.9	29.8	9.2	38.9	100.0
보수적	217	1.8	14.3	16.1	39.6	34.6	9.7	44.2	100.0
종교									
불교	207	1.9	16.9	18.8	42.0	29.5	9.7	39.1	100.0
기독교	220	0.9	16.4	17.3	47.3	29.5	5.9	35.5	100.0
천주교	81	2.5	19.8	22.2	38.3	33.3	6.2	39.5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0.9	18.9	19.8	40.7	30.6	8.9	39.5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5	10.5	63.2	21.1	5.3	26.3	100.0

표34-3.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중국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7	12.1	12.8	39.4	36.0	11.8	47.8	100.0
성별									
남자	615	0.8	12.2	13.0	39.8	34.5	12.7	47.2	100.0
여자	585	0.5	12.0	12.5	39.0	37.6	10.9	48.5	100.0
연령별									
19~29세	221	0.0	10.4	10.4	40.7	32.1	16.7	48.9	100.0
30대	221	0.5	6.3	6.8	39.8	41.2	12.2	53.4	100.0
40대	252	0.4	12.7	13.1	36.5	38.5	11.9	50.4	100.0
50대	262	1.5	15.3	16.8	37.4	38.2	7.6	45.8	100.0
60대 이상	244	0.8	14.8	15.6	43.0	29.9	11.5	41.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14.5	15.4	41.9	35.9	6.8	42.7	100.0
고졸	485	0.8	13.8	14.6	42.1	34.2	9.1	43.3	100.0
대재 이상	594	0.5	10.3	10.8	36.7	37.4	15.2	52.5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7.1	7.1	64.3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1.0	13.3	14.3	37.4	36.4	11.9	48.3	100.0
블루 칼라	337	0.6	11.6	12.2	40.1	34.4	13.4	47.8	100.0
화이트 칼라	264	1.1	11.4	12.5	33.3	41.3	12.9	54.2	100.0
전업 주부	168	0.0	11.9	11.9	44.6	36.9	6.5	43.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0	13.0	13.0	45.5	27.6	13.8	41.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	8.1	9.3	46.5	34.9	9.3	44.2	100.0
200~299 만원	186	0.5	14.0	14.5	36.0	37.1	12.4	49.5	100.0
300~399 만원	333	1.2	13.2	14.4	41.1	33.6	10.8	44.4	100.0
400만원 이상	595	0.3	11.4	11.8	38.5	37.1	12.6	49.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0.8	8.5	9.3	37.6	38.2	15.0	53.1	100.0
충청권	155	0.6	11.0	11.6	38.7	38.7	11.0	49.7	100.0
호남권	143	0.7	22.4	23.1	47.6	28.0	1.4	29.4	100.0
영남권	318	0.3	12.3	12.6	35.8	38.4	13.2	51.6	100.0
강원	44	0.0	15.9	15.9	52.3	29.5	2.3	31.8	100.0
제주	32	3.1	21.9	25.0	53.1	9.4	12.5	2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4	12.3	12.7	37.9	34.7	14.7	49.4	100.0
중/소도시	561	0.9	12.3	13.2	41.5	36.0	9.3	45.3	100.0
읍/면	95	1.1	9.5	10.5	35.8	43.2	10.5	5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5	13.7	14.2	40.0	33.4	12.4	45.8	100.0
중도	588	0.9	10.5	11.4	41.2	37.2	10.2	47.4	100.0
보수적	217	0.5	13.4	13.8	33.6	37.3	15.2	52.5	100.0
종교									
불교	207	1.0	15.0	15.9	37.2	35.3	11.6	46.9	100.0
기독교	220	0.9	11.4	12.3	41.8	32.3	13.6	45.9	100.0
천주교	81	1.2	8.6	9.9	35.8	38.3	16.0	54.3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0.4	11.6	12.1	39.0	37.9	11.0	48.9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21.1	57.9	15.8	5.3	21.1	100.0

표34-4.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㉕ 미국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4.5	30.6	35.1	45.8	16.4	2.7	19.1	100.0
성별									
남자	615	4.9	29.9	34.8	48.0	15.1	2.1	17.2	100.0
여자	585	4.1	31.3	35.4	43.6	17.8	3.2	21.0	100.0
연령별									
19~29세	221	5.9	29.0	34.8	44.8	16.7	3.6	20.4	100.0
30대	221	2.7	33.9	36.7	42.5	18.1	2.7	20.8	100.0
40대	252	4.4	29.0	33.3	47.2	17.1	2.4	19.4	100.0
50대	262	2.7	30.9	33.6	49.2	14.1	3.1	17.2	100.0
60대 이상	244	7.0	30.3	37.3	44.7	16.4	1.6	1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3	31.6	35.9	45.3	17.1	1.7	18.8	100.0
고졸	485	3.3	28.0	31.3	48.7	17.3	2.7	20.0	100.0
대재 이상	594	5.6	32.3	37.9	43.6	15.7	2.9	18.5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28.6	35.7	42.9	14.3	7.1	21.4	100.0
자영업	294	3.7	29.3	33.0	48.6	16.0	2.4	18.4	100.0
블루 칼라	337	3.6	31.2	34.7	46.9	15.7	2.7	18.4	100.0
화이트 칼라	264	4.5	33.0	37.5	43.9	16.3	2.3	18.6	100.0
전업 주부	168	4.2	31.0	35.1	42.9	19.6	2.4	22.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26.8	35.8	44.7	15.4	4.1	19.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1	20.9	29.1	41.9	24.4	4.7	29.1	100.0
200~299 만원	186	3.2	28.5	31.7	40.3	23.7	4.3	28.0	100.0
300~399 만원	333	3.6	28.5	32.1	52.0	13.2	2.7	15.9	100.0
400만원 이상	595	4.9	33.8	38.7	44.7	14.8	1.8	16.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3	30.1	38.4	42.9	17.3	1.4	18.7	100.0
충청권	155	3.2	34.2	37.4	43.9	16.1	2.6	18.7	100.0
호남권	143	2.1	37.1	39.2	46.2	12.6	2.1	14.7	100.0
영남권	318	0.9	26.1	27.0	49.7	18.2	5.0	23.3	100.0
강원	44	0.0	36.4	36.4	52.3	9.1	2.3	11.4	100.0
제주	32	3.1	28.1	31.3	53.1	12.5	3.1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1	27.6	32.7	48.5	16.5	2.2	18.8	100.0
중/소도시	561	4.1	33.0	37.1	45.1	16.0	1.8	17.8	100.0
읍/면	95	3.2	33.7	36.8	34.7	17.9	10.5	2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8	31.4	34.2	48.1	14.2	3.5	17.7	100.0
중도	588	5.8	28.9	34.7	46.1	17.3	1.9	19.2	100.0
보수적	217	4.1	33.6	37.8	41.0	18.0	3.2	21.2	100.0
종교									
불교	207	3.4	30.4	33.8	43.5	20.3	2.4	22.7	100.0
기독교	220	4.1	28.6	32.7	50.0	15.0	2.3	17.3	100.0
천주교	81	7.4	30.9	38.3	48.1	12.3	1.2	13.6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6	31.3	35.9	44.6	16.5	3.0	19.5	100.0
모름/무응답	19	5.3	26.3	31.6	57.9	5.3	5.3	10.5	100.0

표34-5.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동남아시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1.4	17.3	18.8	44.2	30.8	6.3	37.1	100.0
성별									
남자	615	1.5	18.0	19.5	42.9	31.4	6.2	37.6	100.0
여자	585	1.4	16.6	17.9	45.5	30.1	6.5	36.6	100.0
연령별									
19~29세	221	0.0	10.9	10.9	50.2	31.7	7.2	38.9	100.0
30대	221	1.4	19.5	20.8	43.0	32.1	4.1	36.2	100.0
40대	252	2.8	18.3	21.0	38.9	31.3	8.7	40.1	100.0
50대	262	1.1	17.9	19.1	48.1	28.6	4.2	32.8	100.0
60대 이상	244	1.6	19.7	21.3	41.0	30.3	7.4	37.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19.7	21.4	41.9	29.9	6.8	36.8	100.0
고졸	485	1.4	18.6	20.0	41.4	33.2	5.4	38.6	100.0
대재 이상	594	1.3	15.8	17.2	47.0	29.0	6.9	35.9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14.3	21.4	42.9	35.7	0.0	35.7	100.0
자영업	294	1.0	17.0	18.0	41.2	33.0	7.8	40.8	100.0
블루 칼라	337	1.8	19.3	21.1	42.7	30.0	6.2	36.2	100.0
화이트 칼라	264	1.5	20.1	21.6	45.1	28.8	4.5	33.3	100.0
전업 주부	168	1.8	11.9	13.7	48.2	32.7	5.4	38.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0	14.6	14.6	48.0	28.5	8.9	37.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7	12.8	17.4	46.5	24.4	11.6	36.0	100.0
200~299 만원	186	1.6	21.5	23.1	34.9	32.3	9.7	41.9	100.0
300~399 만원	333	1.5	16.8	18.3	40.8	34.8	6.0	40.8	100.0
400만원 이상	595	0.8	17.0	17.8	48.6	28.9	4.7	33.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8	17.1	18.9	42.3	33.5	5.3	38.8	100.0
충청권	155	1.3	29.0	30.3	44.5	22.6	2.6	25.2	100.0
호남권	143	1.4	20.3	21.7	51.0	27.3	0.0	27.3	100.0
영남권	318	0.9	9.1	10.1	39.3	37.4	13.2	50.6	100.0
강원	44	2.3	22.7	25.0	70.5	2.3	2.3	4.5	100.0
제주	32	0.0	25.0	25.0	53.1	15.6	6.3	2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0	14.9	16.9	43.6	31.4	8.1	39.5	100.0
중/소도시	561	1.1	17.6	18.7	45.8	31.4	4.1	35.5	100.0
읍/면	95	0.0	29.5	29.5	37.9	23.2	9.5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3	20.8	22.0	43.5	30.4	4.1	34.4	100.0
중도	588	1.4	15.5	16.8	47.1	28.9	7.1	36.1	100.0
보수적	217	1.8	16.1	18.0	37.3	36.4	8.3	44.7	100.0
종교									
불교	207	2.9	18.4	21.3	38.2	32.4	8.2	40.6	100.0
기독교	220	0.0	18.6	18.6	48.6	30.0	2.7	32.7	100.0
천주교	81	0.0	17.3	17.3	39.5	35.8	7.4	43.2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6	16.8	18.5	44.6	30.1	6.9	37.0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5.3	63.2	26.3	5.3	31.6	100.0

표34-6.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㉔ 일본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6	11.9	12.5	39.3	33.3	14.9	48.3	100.0
성별									
남자	615	0.5	11.7	12.2	38.7	33.3	15.8	49.1	100.0
여자	585	0.7	12.1	12.8	39.8	33.3	14.0	47.4	100.0
연령별									
19~29세	221	0.9	14.5	15.4	41.6	30.3	12.7	43.0	100.0
30대	221	0.5	14.0	14.5	38.5	33.5	13.6	47.1	100.0
40대	252	0.8	11.5	12.3	38.1	32.1	17.5	49.6	100.0
50대	262	0.4	10.7	11.1	37.8	34.0	17.2	51.1	100.0
60대 이상	244	0.4	9.4	9.8	40.6	36.5	13.1	49.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12.0	12.8	46.2	30.8	10.3	41.0	100.0
고졸	485	0.4	11.3	11.8	37.7	33.8	16.7	50.5	100.0
대재 이상	594	0.7	12.1	12.8	39.4	33.5	14.3	47.8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8.6	28.6	42.9	21.4	7.1	28.6	100.0
자영업	294	0.7	13.6	14.3	34.4	36.4	15.0	51.4	100.0
블루 칼라	337	0.6	9.8	10.4	40.4	34.4	14.8	49.3	100.0
화이트 칼라	264	0.4	14.0	14.4	41.3	29.5	14.8	44.3	100.0
전업 주부	168	0.0	8.9	8.9	38.1	36.3	16.7	53.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	11.4	13.0	44.7	28.5	13.8	42.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	9.3	10.5	44.2	30.2	15.1	45.3	100.0
200~299 만원	186	1.1	10.2	11.3	43.5	29.6	15.6	45.2	100.0
300~399 만원	333	0.3	9.3	9.6	41.1	34.5	14.7	49.2	100.0
400만원 이상	595	0.5	14.3	14.8	36.1	34.3	14.8	49.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0.4	13.2	13.6	39.8	33.1	13.6	46.7	100.0
충청권	155	0.6	11.6	12.3	48.4	31.6	7.7	39.4	100.0
호남권	143	1.4	6.3	7.7	33.6	37.8	21.0	58.7	100.0
영남권	318	0.3	11.6	11.9	33.3	35.5	19.2	54.7	100.0
강원	44	0.0	13.6	13.6	52.3	25.0	9.1	34.1	100.0
제주	32	3.1	18.8	21.9	53.1	15.6	9.4	2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4	11.2	11.6	34.2	34.7	19.5	54.2	100.0
중/소도시	561	0.5	12.1	12.7	44.9	31.6	10.9	42.4	100.0
읍/면	95	2.1	14.7	16.8	34.7	35.8	12.6	4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8	12.2	12.9	35.7	36.7	14.7	51.4	100.0
중도	588	0.5	11.1	11.6	41.2	32.0	15.3	47.3	100.0
보수적	217	0.5	13.8	14.3	40.6	30.9	14.3	45.2	100.0
종교									
불교	207	1.4	10.1	11.6	40.6	31.9	15.9	47.8	100.0
기독교	220	0.0	10.9	10.9	39.5	36.4	13.2	49.5	100.0
천주교	81	0.0	12.3	12.3	37.0	32.1	18.5	50.6	100.0
기타	2	0.0	50.0	50.0	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0.6	12.4	13.0	39.0	33.1	14.9	48.0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21.1	42.1	26.3	10.5	36.8	100.0

표34-7. 한국 거주 이주자에 대한 친근감 - ④ 남아시아인

문)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	② 다소 친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친근하지 않음	⑤ 전혀 친근하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0.8	6.7	7.4	43.3	37.5	11.8	49.3	100.0
성별									
남자	615	0.8	7.0	7.8	42.9	37.7	11.5	49.3	100.0
여자	585	0.7	6.3	7.0	43.6	37.3	12.1	49.4	100.0
연령별									
19~29세	221	0.0	2.7	2.7	43.0	41.6	12.7	54.3	100.0
30대	221	0.5	7.2	7.7	41.2	39.8	11.3	51.1	100.0
40대	252	1.2	9.1	10.3	36.9	40.1	12.7	52.8	100.0
50대	262	1.1	6.9	8.0	46.6	36.6	8.8	45.4	100.0
60대 이상	244	0.8	7.0	7.8	48.4	29.9	13.9	43.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0	7.7	7.7	53.0	28.2	11.1	39.3	100.0
고졸	485	1.2	6.0	7.2	42.3	39.0	11.5	50.5	100.0
대재 이상	594	0.5	6.9	7.4	42.3	38.0	12.3	50.3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7.1	14.3	57.1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1.0	6.8	7.8	40.8	37.8	13.6	51.4	100.0
블루 칼라	337	0.9	5.3	6.2	45.4	35.9	12.5	48.4	100.0
화이트 칼라	264	0.4	7.6	8.0	42.0	39.4	10.6	50.0	100.0
전업 주부	168	0.6	7.7	8.3	44.0	37.5	10.1	47.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0	6.5	6.5	43.1	38.2	12.2	50.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7.0	10.5	46.5	31.4	11.6	43.0	100.0
200~299 만원	186	1.1	7.5	8.6	43.0	34.9	13.4	48.4	100.0
300~399 만원	333	0.6	7.8	8.4	43.5	34.5	13.5	48.0	100.0
400만원 이상	595	0.3	5.7	6.1	42.7	40.8	10.4	51.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0.8	6.3	7.1	42.7	35.4	14.8	50.2	100.0
충청권	155	0.6	7.1	7.7	54.8	32.9	4.5	37.4	100.0
호남권	143	0.7	9.1	9.8	42.0	43.4	4.9	48.3	100.0
영남권	318	0.9	4.1	5.0	35.5	44.3	15.1	59.4	100.0
강원	44	0.0	11.4	11.4	70.5	15.9	2.3	18.2	100.0
제주	32	0.0	18.8	18.8	40.6	28.1	12.5	40.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1	5.3	6.4	38.2	41.0	14.3	55.3	100.0
중/소도시	561	0.5	7.5	8.0	48.5	33.5	10.0	43.5	100.0
읍/면	95	0.0	9.5	9.5	41.1	41.1	8.4	4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3	8.4	8.6	42.5	36.2	12.7	48.9	100.0
중도	588	1.2	5.3	6.5	46.4	36.9	10.2	47.1	100.0
보수적	217	0.5	7.4	7.8	35.9	41.5	14.7	56.2	100.0
종교									
불교	207	1.9	6.8	8.7	40.1	37.7	13.5	51.2	100.0
기독교	220	0.0	10.0	10.0	40.0	37.7	12.3	50.0	100.0
천주교	81	0.0	4.9	4.9	46.9	34.6	13.6	48.1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0.7	6.0	6.7	44.4	37.9	11.0	48.9	100.0
모름/무응답	19	0.0	0.0	0.0	52.6	36.8	10.5	47.4	100.0

표35-1.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㉞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3	8.9	11.2	39.4	39.4	10.0	49.4	100.0
성별									
남자	615	2.4	7.5	9.9	38.7	40.7	10.7	51.4	100.0
여자	585	2.1	10.4	12.5	40.2	38.1	9.2	47.4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	12.2	14.0	42.1	35.3	8.6	43.9	100.0
30대	221	1.4	9.0	10.4	42.1	38.5	9.0	47.5	100.0
40대	252	2.8	7.1	9.9	38.5	39.7	11.9	51.6	100.0
50대	262	3.1	8.8	11.8	38.2	39.7	10.3	50.0	100.0
60대 이상	244	2.0	7.8	9.8	36.9	43.4	9.8	53.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10.3	13.7	43.6	36.8	6.0	42.7	100.0
고졸	485	1.4	6.8	8.2	39.6	40.6	11.5	52.2	100.0
대재 이상	594	2.7	10.4	13.1	38.0	39.2	9.6	48.8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0.0	0.0	57.1	42.9	0.0	42.9	100.0
자영업	294	2.4	8.5	10.9	37.8	39.5	11.9	51.4	100.0
블루 칼라	337	1.2	9.2	10.4	39.2	40.4	10.1	50.4	100.0
화이트 칼라	264	4.2	9.8	14.0	35.6	40.9	9.5	50.4	100.0
전업 주부	168	1.8	6.5	8.3	45.8	37.5	8.3	45.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	11.4	13.0	41.5	35.8	9.8	45.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8.1	11.6	46.5	34.9	7.0	41.9	100.0
200~299 만원	186	3.2	6.5	9.7	36.0	44.6	9.7	54.3	100.0
300~399 만원	333	1.8	10.2	12.0	36.9	39.9	11.1	51.1	100.0
400만원 이상	595	2.0	9.1	11.1	40.8	38.2	9.9	48.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8	10.2	13.0	38.4	35.0	13.6	48.6	100.0
충청권	155	0.6	13.5	14.2	33.5	45.8	6.5	52.3	100.0
호남권	143	2.8	4.9	7.7	42.7	42.0	7.7	49.7	100.0
영남권	318	2.2	7.9	10.1	43.1	40.3	6.6	46.9	100.0
강원	44	0.0	0.0	0.0	34.1	52.3	13.6	65.9	100.0
제주	32	3.1	6.3	9.4	40.6	40.6	9.4	5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2	8.6	10.8	41.7	37.9	9.6	47.4	100.0
중/소도시	561	2.0	8.9	10.9	38.1	39.6	11.4	51.0	100.0
읍/면	95	4.2	10.5	14.7	33.7	47.4	4.2	5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3	9.1	11.4	33.9	43.8	10.9	54.7	100.0
중도	588	2.0	9.2	11.2	45.1	35.2	8.5	43.7	100.0
보수적	217	2.8	7.8	10.6	34.1	42.9	12.4	55.3	100.0
종교									
불교	207	4.3	8.7	13.0	43.5	35.7	7.7	43.5	100.0
기독교	220	1.8	9.1	10.9	36.4	40.5	12.3	52.7	100.0
천주교	81	1.2	11.1	12.3	35.8	43.2	8.6	51.9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6	8.6	10.3	39.8	39.5	10.4	49.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10.5	21.1	31.6	47.4	0.0	47.4	100.0

표35-2.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㉑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2.4	12.4	14.8	36.7	40.0	8.5	48.5	100.0
성별									
남자	615	2.3	11.7	14.0	35.1	41.0	9.9	50.9	100.0
여자	585	2.6	13.2	15.7	38.3	39.0	7.0	46.0	100.0
연령별									
19~29세	221	2.7	14.9	17.6	39.4	36.2	6.8	43.0	100.0
30대	221	2.3	12.7	14.9	37.6	38.9	8.6	47.5	100.0
40대	252	2.4	13.5	15.9	35.7	37.7	10.7	48.4	100.0
50대	262	3.4	12.6	16.0	35.1	39.7	9.2	48.9	100.0
60대 이상	244	1.2	8.6	9.8	36.1	47.1	7.0	54.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11.1	14.5	40.2	41.9	3.4	45.3	100.0
고졸	485	1.9	10.5	12.4	35.5	41.9	10.3	52.2	100.0
대재 이상	594	2.7	14.1	16.8	36.9	38.2	8.1	46.3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0.0	0.0	71.4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2.4	12.2	14.6	33.0	41.8	10.5	52.4	100.0
블루 칼라	337	2.7	12.8	15.4	34.4	40.1	10.1	50.1	100.0
화이트 칼라	264	3.0	14.8	17.8	36.0	38.6	7.6	46.2	100.0
전업 주부	168	2.4	8.9	11.3	43.5	41.1	4.2	45.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13.0	13.8	39.8	38.2	8.1	46.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	10.5	11.6	45.3	40.7	2.3	43.0	100.0
200~299 만원	186	3.2	9.7	12.9	36.0	39.8	11.3	51.1	100.0
300~399 만원	333	2.7	14.1	16.8	30.3	43.8	9.0	52.9	100.0
400만원 이상	595	2.2	12.6	14.8	39.2	37.8	8.2	46.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3	12.6	15.9	36.6	36.4	11.0	47.4	100.0
충청권	155	0.0	16.1	16.1	29.0	49.7	5.2	54.8	100.0
호남권	143	2.8	6.3	9.1	39.9	42.0	9.1	51.0	100.0
영남권	318	2.2	15.1	17.3	39.9	37.7	5.0	42.8	100.0
강원	44	0.0	4.5	4.5	34.1	50.0	11.4	61.4	100.0
제주	32	3.1	3.1	6.3	31.3	50.0	12.5	6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	13.8	16.2	37.3	39.7	6.8	46.5	100.0
중/소도시	561	2.1	11.2	13.4	35.5	40.3	10.9	51.2	100.0
읍/면	95	4.2	11.6	15.8	40.0	40.0	4.2	4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3	11.1	12.4	34.7	43.5	9.4	52.9	100.0
중도	588	2.9	12.9	15.8	40.8	36.1	7.3	43.4	100.0
보수적	217	3.2	13.4	16.6	29.0	44.2	10.1	54.4	100.0
종교									
불교	207	3.4	15.5	18.8	35.3	37.2	8.7	45.9	100.0
기독교	220	0.9	12.7	13.6	34.1	40.0	12.3	52.3	100.0
천주교	81	1.2	12.3	13.6	40.7	40.7	4.9	45.7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5	11.6	14.2	37.0	41.0	7.9	48.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5.3	15.8	52.6	31.6	0.0	31.6	100.0

표35-3.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㉒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8.1	32.2	40.3	35.3	20.7	3.8	24.4	100.0
성별									
남자	615	7.2	31.9	39.0	35.4	20.7	4.9	25.5	100.0
여자	585	9.1	32.5	41.5	35.2	20.7	2.6	23.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0.4	33.5	43.9	34.4	19.0	2.7	21.7	100.0
30대	221	6.3	31.2	37.6	40.3	17.6	4.5	22.2	100.0
40대	252	7.5	29.4	36.9	39.7	19.0	4.4	23.4	100.0
50대	262	7.3	34.4	41.6	33.6	21.0	3.8	24.8	100.0
60대 이상	244	9.0	32.4	41.4	29.1	26.2	3.3	2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5.4	36.8	52.1	22.2	22.2	3.4	25.6	100.0
고졸	485	6.0	31.1	37.1	36.9	22.3	3.7	26.0	100.0
대재 이상	594	8.4	32.0	40.4	36.5	19.2	3.9	23.1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28.6	35.7	50.0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7.1	34.0	41.2	34.0	19.4	5.4	24.8	100.0
블루 칼라	337	7.1	32.6	39.8	35.0	22.3	3.0	25.2	100.0
화이트 칼라	264	8.7	30.7	39.4	36.4	19.7	4.5	24.2	100.0
전업 주부	168	10.1	30.4	40.5	34.5	23.8	1.2	25.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32.5	41.5	36.6	17.9	4.1	22.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1.6	30.2	41.9	29.1	26.7	2.3	29.1	100.0
200~299 만원	186	8.1	33.9	41.9	32.8	18.8	6.5	25.3	100.0
300~399 만원	333	8.4	27.9	36.3	38.7	20.1	4.8	24.9	100.0
400만원 이상	595	7.4	34.3	41.7	35.1	20.7	2.5	23.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5	37.8	46.3	30.7	17.9	5.1	23.0	100.0
충청권	155	3.9	18.7	22.6	45.2	29.7	2.6	32.3	100.0
호남권	143	8.4	31.5	39.9	34.3	23.8	2.1	25.9	100.0
영남권	318	9.1	31.8	40.9	38.1	18.6	2.5	21.1	100.0
강원	44	9.1	31.8	40.9	31.8	20.5	6.8	27.3	100.0
제주	32	9.4	15.6	25.0	43.8	28.1	3.1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7.4	36.8	44.1	32.9	20.8	2.2	23.0	100.0
중/소도시	561	8.6	28.0	36.5	37.1	20.9	5.5	26.4	100.0
읍/면	95	9.5	30.5	40.0	38.9	18.9	2.1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8	28.1	32.9	40.0	22.8	4.3	27.1	100.0
중도	588	8.7	34.2	42.9	35.2	19.2	2.7	21.9	100.0
보수적	217	12.4	34.1	46.5	27.2	20.7	5.5	26.3	100.0
종교									
불교	207	12.6	34.3	46.9	28.5	19.8	4.8	24.6	100.0
기독교	220	4.5	30.0	34.5	38.6	22.7	4.1	26.8	100.0
천주교	81	8.6	32.1	40.7	35.8	23.5	0.0	23.5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7.7	32.3	40.1	36.5	19.5	3.9	23.4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1.6	42.1	21.1	36.8	0.0	36.8	100.0

표35-4.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㉔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꺼림	다소 꺼림	%	반반/ 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전 체	1200	14.8	34.6	49.3	32.3	15.0	3.3	18.3	100.0
성별									
남자	615	11.7	33.5	45.2	33.8	16.3	4.7	21.0	100.0
여자	585	17.9	35.7	53.7	30.8	13.7	1.9	15.6	100.0
연령별									
19~29세	221	19.0	37.1	56.1	30.3	10.9	2.7	13.6	100.0
30대	221	16.3	33.9	50.2	30.3	15.8	3.6	19.5	100.0
40대	252	12.7	33.7	46.4	34.5	16.3	2.8	19.0	100.0
50대	262	13.0	36.3	49.2	32.4	14.5	3.8	18.3	100.0
60대 이상	244	13.5	32.0	45.5	33.6	17.2	3.7	2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5.4	35.0	50.4	29.1	16.2	4.3	20.5	100.0
고졸	485	12.0	34.0	46.0	34.6	15.7	3.7	19.4	100.0
대재 이상	594	17.0	34.7	51.7	31.3	14.1	2.9	17.0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42.9	7.1	7.1	14.3	100.0
자영업	294	15.0	36.7	51.7	31.3	13.9	3.1	17.0	100.0
블루 칼라	337	13.9	31.2	45.1	30.9	19.0	5.0	24.0	100.0
화이트 칼라	264	14.4	36.7	51.1	31.1	15.2	2.7	17.8	100.0
전업 주부	168	17.3	32.7	50.0	35.7	13.1	1.2	14.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4.6	36.6	51.2	35.8	9.8	3.3	1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31.4	45.3	34.9	12.8	7.0	19.8	100.0
200~299 만원	186	16.1	31.2	47.3	29.6	17.7	5.4	23.1	100.0
300~399 만원	333	11.4	32.7	44.1	37.5	15.0	3.3	18.3	100.0
400만원 이상	595	16.3	37.1	53.4	29.9	14.5	2.2	16.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3.6	39.0	52.6	31.1	13.0	3.3	16.3	100.0
충청권	155	7.1	26.5	33.5	34.2	29.0	3.2	32.3	100.0
호남권	143	16.8	28.0	44.8	32.2	18.2	4.9	23.1	100.0
영남권	318	19.8	36.2	56.0	32.7	9.1	2.2	11.3	100.0
강원	44	13.6	38.6	52.3	29.5	13.6	4.5	18.2	100.0
제주	32	12.5	12.5	25.0	43.8	25.0	6.3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7.8	36.9	54.8	30.5	12.9	1.8	14.7	100.0
중/소도시	561	11.1	33.5	44.6	33.5	16.9	5.0	21.9	100.0
읍/면	95	18.9	27.4	46.3	35.8	15.8	2.1	1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9	33.2	44.1	33.9	18.5	3.5	22.0	100.0
중도	588	13.9	37.2	51.2	32.3	13.8	2.7	16.5	100.0
보수적	217	24.0	30.0	53.9	29.5	12.0	4.6	16.6	100.0
종교									
불교	207	21.3	31.4	52.7	30.0	12.1	5.3	17.4	100.0
기독교	220	10.9	31.4	42.3	34.5	19.1	4.1	23.2	100.0
천주교	81	12.3	40.7	53.1	30.9	16.0	0.0	16.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4.0	36.1	50.1	32.9	14.2	2.8	17.0	100.0
모름/무응답	19	26.3	31.6	57.9	15.8	21.1	5.3	26.3	100.0

표36. 탈북자(북한이탈주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계
		%	%	%	
전 체	1200	34.0	54.0	12.0	100.0
성별					
남자	615	36.3	53.0	10.7	100.0
여자	585	31.6	55.0	13.3	100.0
연령별					
19~29세	221	27.1	59.3	13.6	100.0
30대	221	33.0	50.7	16.3	100.0
40대	252	32.1	57.9	9.9	100.0
50대	262	39.7	51.1	9.2	100.0
60대 이상	244	36.9	51.2	1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1.6	54.7	13.7	100.0
고졸	485	35.1	53.2	11.8	100.0
대재 이상	594	33.8	54.2	12.0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50.0	14.3	100.0
자영업	294	34.7	55.8	9.5	100.0
블루 칼라	337	30.9	57.3	11.9	100.0
화이트 칼라	264	39.4	47.7	12.9	100.0
전업 주부	168	31.0	57.1	11.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3	50.4	16.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8.4	51.2	10.5	100.0
200~299 만원	186	36.6	54.3	9.1	100.0
300~399 만원	333	37.5	53.2	9.3	100.0
400만원 이상	595	30.6	54.8	14.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3.1	53.0	14.0	100.0
충청권	155	38.7	55.5	5.8	100.0
호남권	143	32.9	56.6	10.5	100.0
영남권	318	32.7	53.8	13.5	100.0
강원	44	43.2	43.2	13.6	100.0
제주	32	31.3	68.8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7.4	58.8	13.8	100.0
중/소도시	561	40.5	48.1	11.4	100.0
읍/면	95	33.7	61.1	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1.0	51.9	7.1	100.0
중도	588	28.1	57.0	15.0	100.0
보수적	217	37.3	49.8	12.9	100.0
종교					
불교	207	39.1	51.2	9.7	100.0
기독교	220	39.1	52.7	8.2	100.0
천주교	81	37.0	50.6	12.3	100.0
기타	2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0.3	56.0	13.7	100.0
모름/무응답	19	31.6	47.4	21.1	100.0

표37-1.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6	60.3	65.8	31.3	2.9	34.2	100.0	
성별	남자	615	6.5	59.5	66.0	31.4	2.6	34.0	100.0
	여자	585	4.6	61.0	65.6	31.1	3.2	34.4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	60.2	63.8	33.0	3.2	36.2	100.0
	30대	221	3.2	57.0	60.2	35.7	4.1	39.8	100.0
	40대	252	7.1	59.5	66.7	31.0	2.4	33.3	100.0
	50대	262	6.9	61.5	68.3	28.2	3.4	31.7	100.0
	60대 이상	244	6.6	62.7	69.3	29.1	1.6	30.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67.5	70.1	28.2	1.7	29.9	100.0
	고졸	485	6.0	61.9	67.8	29.9	2.3	32.2	100.0
	대재 이상	594	5.9	57.6	63.5	32.8	3.7	36.5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64.3	71.4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5.8	62.9	68.7	28.9	2.4	31.3	100.0
	블루 칼라	337	6.2	59.6	65.9	30.3	3.9	34.1	100.0
	화이트 칼라	264	4.9	59.5	64.4	31.1	4.5	35.6	100.0
	전업 주부	168	6.0	56.5	62.5	36.3	1.2	37.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61.8	65.9	33.3	0.8	34.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0	65.1	72.1	26.7	1.2	27.9	100.0
	200~299 만원	186	4.8	65.6	70.4	28.5	1.1	29.6	100.0
	300~399 만원	333	5.7	59.5	65.2	32.4	2.4	34.8	100.0
	400만원 이상	595	5.5	58.3	63.9	32.1	4.0	36.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5	65.0	72.4	23.6	3.9	27.6	100.0
	충청권	155	7.1	64.5	71.6	27.7	0.6	28.4	100.0
	호남권	143	4.2	57.3	61.5	37.8	0.7	38.5	100.0
	영남권	318	2.5	53.1	55.7	41.2	3.1	44.3	100.0
	강원	44	4.5	50.0	54.5	38.6	6.8	45.5	100.0
	제주	32	6.3	62.5	68.8	31.3	0.0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4	59.9	64.3	31.3	4.4	35.7
	중/소도시	561	7.0	62.2	69.2	29.1	1.8	30.8	100.0
	읍/면	95	4.2	50.5	54.7	44.2	1.1	4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1	60.0	67.1	30.6	2.3	32.9	100.0
	중도	588	4.9	60.4	65.3	31.3	3.4	34.7	100.0
	보수적	217	4.6	60.4	65.0	32.3	2.8	35.0	100.0
종교	불교	207	5.8	52.7	58.5	37.2	4.3	41.5	100.0
	기독교	220	8.6	63.6	72.3	27.3	0.5	27.7	100.0
	천주교	81	7.4	56.8	64.2	32.1	3.7	35.8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5	62.4	66.9	30.1	3.0	33.1
	모름/무응답	19	0.0	36.8	36.8	52.6	10.5	63.2	100.0

표37-2.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㉕ 정부는 탈북자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3	32.5	37.8	50.8	11.4	62.3	100.0	
성별	남자	615	6.3	32.0	38.4	51.9	9.8	61.6	100.0
	여자	585	4.1	33.0	37.1	49.7	13.2	62.9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	30.3	33.9	54.3	11.8	66.1	100.0
	30대	221	4.1	31.2	35.3	51.1	13.6	64.7	100.0
	40대	252	5.2	33.7	38.9	52.8	8.3	61.1	100.0
	50대	262	5.3	34.4	39.7	47.7	12.6	60.3	100.0
	60대 이상	244	7.8	32.4	40.2	48.8	11.1	59.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31.6	38.5	49.6	12.0	61.5	100.0
	고졸	485	4.5	32.2	36.7	51.8	11.5	63.3	100.0
	대재 이상	594	5.6	32.7	38.2	50.5	11.3	61.8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35.7	50.0	42.9	7.1	50.0	100.0
	자영업	294	4.4	34.0	38.4	47.3	14.3	61.6	100.0
	블루 칼라	337	4.7	31.5	36.2	52.8	11.0	63.8	100.0
	화이트 칼라	264	6.8	33.7	40.5	48.9	10.6	59.5	100.0
	전업 주부	168	4.2	30.4	34.5	53.6	11.9	65.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7	31.7	37.4	55.3	7.3	62.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1	27.9	36.0	58.1	5.8	64.0	100.0
	200~299 만원	186	4.8	36.6	41.4	47.3	11.3	58.6	100.0
	300~399 만원	333	5.4	36.6	42.0	45.6	12.3	58.0	100.0
	400만원 이상	595	4.9	29.6	34.5	53.8	11.8	65.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5	27.6	33.1	53.9	13.0	66.9	100.0
	충청권	155	7.7	43.2	51.0	44.5	4.5	49.0	100.0
	호남권	143	2.8	40.6	43.4	50.3	6.3	56.6	100.0
	영남권	318	4.7	28.9	33.6	51.3	15.1	66.4	100.0
	강원	44	2.3	29.5	31.8	52.3	15.9	68.2	100.0
	제주	32	9.4	62.5	71.9	28.1	0.0	28.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	32.0	34.4	52.0	13.6	65.6
	중/소도시	561	7.8	32.6	40.5	49.6	10.0	59.5	100.0
	읍/면	95	6.3	34.7	41.1	51.6	7.4	5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8.4	37.0	45.3	48.4	6.3	54.7	100.0
	중도	588	3.7	30.4	34.2	53.2	12.6	65.8	100.0
	보수적	217	3.7	30.0	33.6	48.8	17.5	66.4	100.0
종교	불교	207	6.8	30.9	37.7	45.4	16.9	62.3	100.0
	기독교	220	7.7	39.5	47.3	41.8	10.9	52.7	100.0
	천주교	81	2.5	34.6	37.0	49.4	13.6	63.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5	30.7	35.2	55.3	9.5	64.8
	모름/무응답	19	0.0	15.8	15.8	68.4	15.8	84.2	100.0

표37-3.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 체	1200	4.8	23.6	28.3	55.1	16.6	71.7	100.0	
성별	남자	615	4.2	21.3	25.5	57.6	16.9	74.5	100.0
	여자	585	5.3	26.0	31.3	52.5	16.2	68.7	100.0
연령별	19~29세	221	5.4	21.7	27.1	57.0	15.8	72.9	100.0
	30대	221	5.4	22.2	27.6	51.6	20.8	72.4	100.0
	40대	252	4.4	21.8	26.2	56.7	17.1	73.8	100.0
	50대	262	5.0	25.2	30.2	55.0	14.9	69.8	100.0
	60대 이상	244	3.7	26.6	30.3	54.9	14.8	69.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35.0	37.6	48.7	13.7	62.4	100.0
	고졸	485	4.5	24.1	28.7	56.3	15.1	71.3	100.0
	대재 이상	594	5.4	20.9	26.3	55.2	18.5	73.7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75.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42.9	57.1	14.3	28.6	42.9	100.0
	자영업	294	2.7	24.8	27.6	55.8	16.7	72.4	100.0
	블루 칼라	337	3.3	24.3	27.6	54.0	18.4	72.4	100.0
	화이트 칼라	264	8.7	20.5	29.2	53.0	17.8	70.8	100.0
	전업 주부	168	4.8	27.4	32.1	54.8	13.1	67.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7.9	22.0	65.9	12.2	78.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1	29.1	37.2	47.7	15.1	62.8	100.0
	200~299 만원	186	4.8	23.1	28.0	59.1	12.9	72.0	100.0
	300~399 만원	333	4.5	22.8	27.3	58.9	13.8	72.7	100.0
	400만원 이상	595	4.4	23.4	27.7	52.8	19.5	72.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6.5	19.1	25.6	62.0	12.4	74.4	100.0
	충청권	155	1.9	33.5	35.5	44.5	20.0	64.5	100.0
	호남권	143	3.5	20.3	23.8	50.3	25.9	76.2	100.0
	영남권	318	4.1	28.3	32.4	52.5	15.1	67.6	100.0
	강원	44	2.3	15.9	18.2	45.5	36.4	81.8	100.0
	제주	32	6.3	25.0	31.3	56.3	12.5	68.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5	21.0	24.4	57.7	17.8	75.6	100.0
	중/소도시	561	6.6	25.7	32.3	53.1	14.6	67.7	100.0
	읍/면	95	1.1	26.3	27.4	51.6	21.1	7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5	23.8	27.3	54.9	17.7	72.7	100.0
	중도	588	5.1	24.8	29.9	54.1	16.0	70.1	100.0
	보수적	217	6.0	19.8	25.8	58.1	16.1	74.2	100.0
종교	불교	207	6.8	23.7	30.4	51.2	18.4	69.6	100.0
	기독교	220	3.6	20.0	23.6	59.5	16.8	76.4	100.0
	천주교	81	2.5	19.8	22.2	60.5	17.3	77.8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4.6	25.0	29.7	54.4	15.9	70.3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1.6	42.1	42.1	15.8	57.9	100.0	

표37-4. 한국 거주 탈북자(북한이탈주민) 관련 인식

- ㉔ 탈북자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동의함	다소 동의함	%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전 체	1200	11.6	62.6	74.2	24.1	1.8	25.8	100.0	
성별	남자	615	11.2	62.1	73.3	25.0	1.6	26.7	100.0
	여자	585	12.0	63.1	75.0	23.1	1.9	25.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0.0	59.3	69.2	29.4	1.4	30.8	100.0
	30대	221	16.3	57.9	74.2	24.0	1.8	25.8	100.0
	40대	252	9.9	67.9	77.8	20.6	1.6	22.2	100.0
	50대	262	11.5	64.5	76.0	21.8	2.3	24.0	100.0
	60대 이상	244	10.7	62.3	73.0	25.4	1.6	27.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3.7	64.1	77.8	18.8	3.4	22.2	100.0
	고졸	485	9.1	65.6	74.6	24.3	1.0	25.4	100.0
	대재 이상	594	13.1	59.9	73.1	24.9	2.0	26.9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7.1	71.4	78.6	7.1	14.3	21.4	100.0
	자영업	294	12.6	65.6	78.2	21.4	0.3	21.8	100.0
	블루 칼라	337	9.5	65.0	74.5	23.4	2.1	25.5	100.0
	화이트 칼라	264	17.0	59.8	76.9	20.8	2.3	23.1	100.0
	전업 주부	168	8.9	61.9	70.8	27.4	1.8	29.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7.3	54.5	61.8	36.6	1.6	38.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55.8	69.8	27.9	2.3	30.2	100.0
	200~299 만원	186	10.8	61.3	72.0	26.3	1.6	28.0	100.0
	300~399 만원	333	12.9	60.1	73.0	26.1	0.9	27.0	100.0
	400만원 이상	595	10.8	65.4	76.1	21.7	2.2	23.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1.2	63.4	74.6	23.2	2.2	25.4	100.0
	충청권	155	11.6	65.8	77.4	20.0	2.6	22.6	100.0
	호남권	143	14.0	57.3	71.3	25.9	2.8	28.7	100.0
	영남권	318	10.4	61.0	71.4	28.0	0.6	28.6	100.0
	강원	44	15.9	75.0	90.9	9.1	0.0	9.1	100.0
	제주	32	12.5	56.3	68.8	31.3	0.0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1.2	60.7	71.9	26.8	1.3	28.1	100.0
	중/소도시	561	12.5	65.1	77.5	20.1	2.3	22.5	100.0
	읍/면	95	8.4	58.9	67.4	31.6	1.1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2.7	60.8	73.4	23.5	3.0	26.6	100.0
	중도	588	10.7	63.3	74.0	25.0	1.0	26.0	100.0
	보수적	217	12.0	64.1	76.0	22.6	1.4	24.0	100.0
종교	불교	207	17.4	61.4	78.7	19.3	1.9	21.3	100.0
	기독교	220	10.5	64.1	74.5	24.5	0.9	25.5	100.0
	천주교	81	12.3	53.1	65.4	29.6	4.9	34.6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0.1	63.5	73.6	24.9	1.5	26.4	100.0
모름/무응답	19	10.5	63.2	73.7	21.1	5.3	26.3	100.0	

표38-1. 다문화 관련 인식 - ㉞ 다문화 포용성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9.7	42.3	51.9	36.8	9.6	1.8	11.3	100.0
성별									
남자	615	10.7	43.6	54.3	33.2	10.7	1.8	12.5	100.0
여자	585	8.5	40.9	49.4	40.5	8.4	1.7	10.1	100.0
연령별									
19~29세	221	5.9	46.2	52.0	38.0	8.6	1.4	10.0	100.0
30대	221	9.5	46.2	55.7	35.3	7.7	1.4	9.0	100.0
40대	252	11.9	41.3	53.2	34.5	10.3	2.0	12.3	100.0
50대	262	11.1	36.6	47.7	40.8	9.9	1.5	11.5	100.0
60대 이상	244	9.4	42.2	51.6	34.8	11.1	2.5	13.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37.6	45.3	39.3	13.7	1.7	15.4	100.0
고졸	485	7.4	44.5	52.0	37.1	9.5	1.4	10.9	100.0
대재 이상	594	12.0	41.2	53.2	36.0	8.8	2.0	10.8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42.9	64.3	35.7	0.0	0.0	0.0	100.0
자영업	294	8.5	40.5	49.0	38.4	11.2	1.4	12.6	100.0
블루 칼라	337	8.6	41.5	50.1	38.6	9.2	2.1	11.3	100.0
화이트 칼라	264	13.6	40.2	53.8	34.1	9.5	2.7	12.1	100.0
전업 주부	168	8.3	46.4	54.8	36.3	7.7	1.2	8.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7.3	47.2	54.5	34.1	10.6	0.8	11.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8	41.9	54.7	36.0	9.3	0.0	9.3	100.0
200~299 만원	186	10.2	46.2	56.5	30.6	11.8	1.1	12.9	100.0
300~399 만원	333	8.4	41.4	49.8	38.1	11.1	0.9	12.0	100.0
400만원 이상	595	9.7	41.5	51.3	38.0	8.1	2.7	10.8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3	42.9	51.2	36.2	9.6	3.0	12.6	100.0
충청권	155	16.1	40.6	56.8	34.2	7.7	1.3	9.0	100.0
호남권	143	10.5	53.1	63.6	33.6	2.1	0.7	2.8	100.0
영남권	318	6.3	36.2	42.5	43.7	13.5	0.3	13.8	100.0
강원	44	13.6	47.7	61.4	18.2	15.9	4.5	20.5	100.0
제주	32	25.0	43.8	68.8	28.1	3.1	0.0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7.4	40.3	47.6	38.1	11.6	2.8	14.3	100.0
중/소도시	561	11.2	43.9	55.1	36.5	7.5	0.9	8.4	100.0
읍/면	95	13.7	44.2	57.9	30.5	10.5	1.1	1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4.9	47.1	62.0	29.6	8.1	0.3	8.4	100.0
중도	588	7.7	41.0	48.6	40.0	9.0	2.4	11.4	100.0
보수적	217	5.5	36.9	42.4	41.0	13.8	2.8	16.6	100.0
종교									
불교	207	8.7	37.2	45.9	41.1	9.7	3.4	13.0	100.0
기독교	220	10.9	46.4	57.3	33.6	6.8	2.3	9.1	100.0
천주교	81	12.3	46.9	59.3	33.3	6.2	1.2	7.4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9.4	42.0	51.4	36.4	11.0	1.2	12.2	100.0
모름/무응답	19	0.0	36.8	36.8	57.9	5.3	0.0	5.3	100.0

표38-2. 다문화 관련 인식 - ㉟ 다문화 수용성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6.3	31.4	37.8	38.4	21.7	2.2	23.8	100.0
성별									
남자	615	6.7	30.1	36.7	37.1	22.6	3.6	26.2	100.0
여자	585	6.0	32.8	38.8	39.8	20.7	0.7	21.4	100.0
연령별									
19~29세	221	5.0	35.7	40.7	36.2	21.7	1.4	23.1	100.0
30대	221	5.9	28.1	33.9	40.7	22.6	2.7	25.3	100.0
40대	252	6.7	28.6	35.3	37.3	26.2	1.2	27.4	100.0
50대	262	7.6	36.3	43.9	35.9	16.8	3.4	20.2	100.0
60대 이상	244	6.1	28.3	34.4	42.2	21.3	2.0	23.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3	30.8	35.0	45.3	17.9	1.7	19.7	100.0
고졸	485	7.0	31.3	38.4	37.7	22.1	1.9	23.9	100.0
대재 이상	594	6.2	31.6	37.9	37.7	21.9	2.5	24.4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50.0	50.0	35.7	7.1	7.1	14.3	100.0
자영업	294	8.2	31.6	39.8	35.7	21.8	2.7	24.5	100.0
블루 칼라	337	5.9	30.3	36.2	39.8	21.4	2.7	24.0	100.0
화이트 칼라	264	6.4	32.6	39.0	36.0	23.1	1.9	25.0	100.0
전업 주부	168	4.8	28.6	33.3	46.4	19.6	0.6	20.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7	33.3	39.0	35.8	23.6	1.6	25.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31.4	34.9	40.7	20.9	3.5	24.4	100.0
200~299 만원	186	7.0	29.0	36.0	37.6	25.3	1.1	26.3	100.0
300~399 만원	333	8.7	27.3	36.0	38.4	23.1	2.4	25.5	100.0
400만원 이상	595	5.2	34.5	39.7	38.3	19.8	2.2	22.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0.2	33.3	43.5	34.8	19.5	2.2	21.7	100.0
충청권	155	5.2	31.6	36.8	43.2	17.4	2.6	20.0	100.0
호남권	143	4.9	35.0	39.9	39.9	18.9	1.4	20.3	100.0
영남권	318	1.9	29.9	31.8	41.5	25.5	1.3	26.7	100.0
강원	44	0.0	9.1	9.1	31.8	52.3	6.8	59.1	100.0
제주	32	9.4	31.3	40.6	43.8	9.4	6.3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7.4	32.7	40.1	37.7	20.6	1.7	22.2	100.0
중/소도시	561	6.1	30.3	36.4	40.3	21.0	2.3	23.4	100.0
읍/면	95	2.1	30.5	32.6	31.6	31.6	4.2	3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8	25.8	29.6	40.8	25.8	3.8	29.6	100.0
중도	588	6.6	35.5	42.2	39.1	17.7	1.0	18.7	100.0
보수적	217	10.1	30.4	40.6	32.3	24.9	2.3	27.2	100.0
종교									
불교	207	7.2	28.0	35.3	38.2	24.2	2.4	26.6	100.0
기독교	220	10.5	30.9	41.4	37.7	18.6	2.3	20.9	100.0
천주교	81	3.7	28.4	32.1	34.6	33.3	0.0	33.3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2	32.9	38.2	38.7	20.7	2.4	23.1	100.0
모름/무응답	19	0.0	36.8	36.8	47.4	15.8	0.0	15.8	100.0

표38-3. 다문화 관련 인식 - ㉔ 생활습관 변화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5.4	23.9	29.3	40.7	25.1	4.9	30.0	100.0	
성별	남자	615	5.4	24.2	29.6	39.7	25.7	5.0	30.7	100.0
	여자	585	5.5	23.6	29.1	41.7	24.4	4.8	29.2	100.0
연령별	19~29세	221	5.0	28.1	33.0	37.6	23.5	5.9	29.4	100.0
	30대	221	5.4	22.2	27.6	40.7	28.1	3.6	31.7	100.0
	40대	252	4.4	23.4	27.8	42.9	24.2	5.2	29.4	100.0
	50대	262	6.5	20.2	26.7	45.4	23.3	4.6	27.9	100.0
	60대 이상	244	5.7	26.2	32.0	36.1	26.6	5.3	3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3	28.2	32.5	35.9	26.5	5.1	31.6	100.0
	고졸	485	5.6	21.2	26.8	43.5	25.6	4.1	29.7	100.0
	대재 이상	594	5.6	25.1	30.6	39.6	24.2	5.6	29.8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1.4	35.7	21.4	28.6	14.3	42.9	100.0
	자영업	294	4.1	21.1	25.2	43.9	26.5	4.4	31.0	100.0
	블루 칼라	337	5.0	26.4	31.5	38.6	23.1	6.8	30.0	100.0
	화이트 칼라	264	10.2	22.0	32.2	39.0	26.1	2.7	28.8	100.0
	전업 주부	168	3.6	25.0	28.6	41.1	27.4	3.0	30.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26.8	27.6	43.9	21.1	7.3	28.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7.0	32.6	39.5	26.7	27.9	5.8	33.7	100.0
	200~299 만원	186	5.9	17.7	23.7	41.9	29.0	5.4	34.4	100.0
	300~399 만원	333	3.6	27.3	30.9	36.3	27.6	5.1	32.7	100.0
	400만원 이상	595	6.1	22.7	28.7	44.7	22.0	4.5	26.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7	24.2	31.9	40.9	20.7	6.5	27.2	100.0
	충청권	155	3.9	22.6	26.5	38.7	32.3	2.6	34.8	100.0
	호남권	143	7.7	28.0	35.7	37.1	21.7	5.6	27.3	100.0
	영남권	318	1.9	23.9	25.8	45.9	25.5	2.8	28.3	100.0
	강원	44	0.0	13.6	13.6	22.7	59.1	4.5	63.6	100.0
	제주	32	9.4	21.9	31.3	34.4	25.0	9.4	3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7	28.7	34.4	41.7	20.2	3.7	23.9	100.0
	중/소도시	561	5.3	20.7	26.0	40.5	27.5	6.1	33.5	100.0
	읍/면	95	4.2	15.8	20.0	35.8	38.9	5.3	4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3	25.6	29.9	31.6	31.4	7.1	38.5	100.0
	중도	588	6.6	22.4	29.1	44.7	22.6	3.6	26.2	100.0
	보수적	217	4.1	24.9	29.0	46.1	20.3	4.6	24.9	100.0
종교	불교	207	7.7	22.7	30.4	37.2	27.5	4.8	32.4	100.0
	기독교	220	5.5	27.3	32.7	35.0	25.0	7.3	32.3	100.0
	천주교	81	4.9	24.7	29.6	40.7	21.0	8.6	29.6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4.6	22.5	27.1	44.1	25.2	3.6	28.8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7.4	57.9	21.1	10.5	10.5	21.1	100.0

표38-4. 다문화 관련 인식 - ㉕ 동등한 대우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전 체	1200	8.8	42.5	51.3	36.9	11.0	0.8	11.8	100.0	
성별	남자	615	10.1	44.1	54.1	33.8	11.4	0.7	12.0	100.0
	여자	585	7.4	40.9	48.2	40.2	10.6	1.0	11.6	100.0
연령별	19~29세	221	8.1	42.1	50.2	38.9	9.5	1.4	10.9	100.0
	30대	221	7.2	40.3	47.5	41.6	10.0	0.9	10.9	100.0
	40대	252	8.7	42.9	51.6	35.3	12.3	0.8	13.1	100.0
	50대	262	9.2	40.8	50.0	34.7	14.9	0.4	15.3	100.0
	60대 이상	244	10.2	46.3	56.6	34.8	7.8	0.8	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9.4	36.8	46.2	46.2	7.7	0.0	7.7	100.0
	고졸	485	7.2	44.9	52.2	33.6	13.2	1.0	14.2	100.0
	대재 이상	594	9.9	41.8	51.7	37.7	9.8	0.8	10.6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5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42.9	64.3	28.6	7.1	0.0	7.1	100.0
	자영업	294	7.5	46.6	54.1	33.7	11.6	0.7	12.2	100.0
	블루 칼라	337	8.6	44.8	53.4	35.3	10.7	0.6	11.3	100.0
	화이트 칼라	264	11.4	38.6	50.0	39.0	9.8	1.1	11.0	100.0
	전업 주부	168	4.2	35.7	39.9	48.2	10.1	1.8	11.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1.4	43.9	55.3	30.1	14.6	0.0	1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5.1	33.7	48.8	41.9	9.3	0.0	9.3	100.0
	200~299 만원	186	9.1	41.4	50.5	36.0	12.9	0.5	13.4	100.0
	300~399 만원	333	9.0	45.0	54.1	33.0	12.0	0.9	12.9	100.0
	400만원 이상	595	7.6	42.7	50.3	38.7	10.1	1.0	11.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9	39.0	46.9	37.8	13.8	1.6	15.4	100.0
	충청권	155	9.7	49.7	59.4	34.8	5.8	0.0	5.8	100.0
	호남권	143	14.0	46.9	60.8	33.6	5.6	0.0	5.6	100.0
	영남권	318	5.7	41.8	47.5	39.3	12.9	0.3	13.2	100.0
	강원	44	9.1	56.8	65.9	31.8	2.3	0.0	2.3	100.0
	제주	32	25.0	31.3	56.3	31.3	9.4	3.1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8	42.6	47.4	36.4	14.7	1.5	16.2	100.0
	중/소도시	561	11.9	44.6	56.5	35.8	7.5	0.2	7.7	100.0
	읍/면	95	12.6	29.5	42.1	46.3	10.5	1.1	1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9	47.8	58.7	32.4	8.6	0.3	8.9	100.0
	중도	588	7.5	39.8	47.3	39.8	11.7	1.2	12.9	100.0
	보수적	217	8.3	40.1	48.4	37.3	13.4	0.9	14.3	100.0
종교	불교	207	10.6	42.5	53.1	33.3	12.6	1.0	13.5	100.0
	기독교	220	12.7	52.3	65.0	29.5	5.0	0.5	5.5	100.0
	천주교	81	3.7	40.7	44.4	40.7	13.6	1.2	14.8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7.7	39.6	47.4	39.6	12.2	0.7	13.0	100.0
	모름/무응답	19	0.0	36.8	36.8	47.4	10.5	5.3	15.8	100.0

표39. 탈북자 인식(같은 민족)

문)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	
전 체	1200	23.5	65.4	88.9	10.1	1.0	11.1	100.0	
성별	남자	615	26.2	64.6	90.7	8.6	0.7	9.3	100.0
	여자	585	20.7	66.3	87.0	11.6	1.4	13.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9.0	66.5	85.5	11.8	2.7	14.5	100.0
	30대	221	19.9	67.9	87.8	10.9	1.4	12.2	100.0
	40대	252	26.2	64.7	90.9	9.1	0.0	9.1	100.0
	50대	262	26.0	66.0	92.0	7.6	0.4	8.0	100.0
	60대 이상	244	25.4	62.3	87.7	11.5	0.8	12.3	100.0
	중졸 이하	117	23.9	62.4	86.3	12.0	1.7	13.7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485	22.3	69.1	91.3	8.2	0.4	8.7	100.0
	대재 이상	594	24.6	62.8	87.4	11.3	1.3	12.6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7.1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22.8	70.1	92.9	6.8	0.3	7.1	100.0
	블루 칼라	337	24.9	65.6	90.5	8.9	0.6	9.5	100.0
	화이트 칼라	264	26.5	61.7	88.3	10.2	1.5	11.7	100.0
	전업 주부	168	16.7	66.1	82.7	16.1	1.2	17.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4	61.8	86.2	11.4	2.4	13.8	100.0
	200만원 미만	86	29.1	59.3	88.4	10.5	1.2	11.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5.8	60.2	86.0	13.4	0.5	14.0	100.0
	300~399 만원	333	21.9	68.8	90.7	8.1	1.2	9.3	100.0
	400만원 이상	595	22.9	66.1	88.9	10.1	1.0	11.1	100.0
	수도권	508	22.2	67.1	89.4	8.7	2.0	10.6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36.1	59.4	95.5	3.9	0.6	4.5	100.0
	호남권	143	25.9	67.1	93.0	7.0	0.0	7.0	100.0
	영남권	318	15.4	67.3	82.7	17.3	0.0	17.3	100.0
	강원	44	29.5	61.4	90.9	6.8	2.3	9.1	100.0
	제주	32	43.8	46.9	90.6	9.4	0.0	9.4	100.0
	대도시	544	18.0	69.1	87.1	11.4	1.5	12.9	100.0
	중/소도시	561	27.5	63.5	90.9	8.4	0.7	9.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31.6	55.8	87.4	12.6	0.0	12.6	100.0
	진보적	395	28.6	65.6	94.2	5.3	0.5	5.8	100.0
	중도	588	20.7	66.8	87.6	11.2	1.2	12.4	100.0
종교	보수적	217	21.7	61.3	82.9	15.7	1.4	17.1	100.0
	불교	207	26.1	57.5	83.6	15.9	0.5	16.4	100.0
	기독교	220	27.7	65.9	93.6	5.5	0.9	6.4	100.0
	천주교	81	21.0	67.9	88.9	11.1	0.0	11.1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1.8	67.4	89.1	9.7	1.2	10.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73.7	84.2	10.5	5.3	15.8	100.0

표40. 탈북자 인식(대한민국 시민)

문)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시민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	
전 체	1200	20.4	62.4	82.8	15.3	1.9	17.2	100.0	
성별	남자	615	22.9	63.7	86.7	12.0	1.3	13.3	100.0
	여자	585	17.8	61.0	78.8	18.6	2.6	21.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5.8	62.9	78.7	17.2	4.1	21.3	100.0
	30대	221	19.9	60.2	80.1	19.0	0.9	19.9	100.0
	40대	252	21.0	67.1	88.1	11.1	0.8	11.9	100.0
	50대	262	24.8	60.3	85.1	13.7	1.1	14.9	100.0
	60대 이상	244	19.7	61.5	81.1	16.0	2.9	18.9	100.0
	중졸 이하	117	16.2	58.1	74.4	22.2	3.4	25.6	100.0
교육 수준별	고졸	485	20.0	64.7	84.7	13.6	1.6	15.3	100.0
	대재 이상	594	21.7	61.1	82.8	15.3	1.9	17.2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7.1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22.8	64.3	87.1	11.9	1.0	12.9	100.0
	블루 칼라	337	18.7	64.4	83.1	15.7	1.2	16.9	100.0
	화이트 칼라	264	23.9	62.1	86.0	11.0	3.0	14.0	100.0
	전업 주부	168	14.9	59.5	74.4	23.2	2.4	25.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9.5	57.7	77.2	19.5	3.3	22.8	100.0
	200만원 미만	86	18.6	60.5	79.1	19.8	1.2	20.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3.7	61.8	85.5	13.4	1.1	14.5	100.0
	300~399 만원	333	20.4	64.9	85.3	13.2	1.5	14.7	100.0
	400만원 이상	595	19.7	61.5	81.2	16.3	2.5	18.8	100.0
	수도권	508	16.3	63.2	79.5	16.9	3.5	20.5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32.9	63.9	96.8	3.2	0.0	3.2	100.0
	호남권	143	27.3	60.8	88.1	10.5	1.4	11.9	100.0
	영남권	318	14.5	62.9	77.4	22.0	0.6	22.6	100.0
	강원	44	29.5	59.1	88.6	9.1	2.3	11.4	100.0
	제주	32	40.6	50.0	90.6	9.4	0.0	9.4	100.0
	대도시	544	13.1	64.9	77.9	20.8	1.3	22.1	100.0
	중/소도시	561	25.5	61.0	86.5	11.1	2.5	13.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32.6	56.8	89.5	8.4	2.1	10.5	100.0
	진보적	395	24.6	63.5	88.1	10.4	1.5	11.9	100.0
	중도	588	18.9	62.1	81.0	17.5	1.5	19.0	100.0
종교	보수적	217	17.1	61.3	78.3	18.0	3.7	21.7	100.0
	불교	207	22.7	54.1	76.8	22.7	0.5	23.2	100.0
	기독교	220	26.4	62.7	89.1	8.2	2.7	10.9	100.0
	천주교	81	14.8	61.7	76.5	18.5	4.9	23.5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8.6	65.3	83.9	14.6	1.5	16.1	100.0
	모름/무응답	19	5.3	57.9	63.2	26.3	10.5	36.8	100.0

표41-1.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6.1	48.1	74.2	23.9	1.9	25.8	100.0	
성별	남자	615	26.2	48.5	74.6	23.6	1.8	25.4	100.0
	여자	585	26.0	47.7	73.7	24.3	2.1	26.3	100.0
연령별	19~29세	221	21.3	50.7	71.9	25.3	2.7	28.1	100.0
	30대	221	24.9	44.8	69.7	28.5	1.8	30.3	100.0
	40대	252	24.6	50.4	75.0	24.2	0.8	25.0	100.0
	50대	262	27.1	48.1	75.2	22.1	2.7	24.8	100.0
	60대 이상	244	32.0	46.3	78.3	20.1	1.6	21.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9.1	48.7	77.8	20.5	1.7	22.2	100.0
	고졸	485	25.4	50.5	75.9	22.1	2.1	24.1	100.0
	대재 이상	594	25.9	46.1	72.1	26.1	1.9	27.9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50.0	25.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57.1	42.9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25.9	47.3	73.1	26.2	0.7	26.9	100.0
	블루 칼라	337	24.9	51.3	76.3	22.0	1.8	23.7	100.0
	화이트 칼라	264	30.7	40.5	71.2	25.8	3.0	28.8	100.0
	전업 주부	168	21.4	54.2	75.6	23.2	1.2	24.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2.8	49.6	72.4	23.6	4.1	27.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5.6	55.8	81.4	16.3	2.3	18.6	100.0
	200~299 만원	186	30.6	45.2	75.8	22.6	1.6	24.2	100.0
	300~399 만원	333	28.5	45.9	74.5	24.0	1.5	25.5	100.0
	400만원 이상	595	23.4	49.1	72.4	25.4	2.2	27.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0.7	52.2	72.8	25.4	1.8	27.2	100.0
	충청권	155	24.5	43.9	68.4	26.5	5.2	31.6	100.0
	호남권	143	37.8	49.0	86.7	11.2	2.1	13.3	100.0
	영남권	318	28.9	45.9	74.8	24.5	0.6	25.2	100.0
	강원	44	20.5	40.9	61.4	36.4	2.3	38.6	100.0
	제주	32	46.9	31.3	78.1	21.9	0.0	2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6	52.6	77.2	22.1	0.7	22.8	100.0
	중/소도시	561	25.0	46.2	71.1	26.2	2.7	28.9	100.0
	읍/면	95	41.1	33.7	74.7	21.1	4.2	2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9.4	44.8	74.2	24.1	1.8	25.8	100.0
	중도	588	22.4	50.2	72.6	25.3	2.0	27.4	100.0
	보수적	217	30.0	48.4	78.3	19.8	1.8	21.7	100.0
종교	불교	207	30.0	45.4	75.4	23.2	1.4	24.6	100.0
	기독교	220	32.7	41.8	74.5	23.2	2.3	25.5	100.0
	천주교	81	18.5	56.8	75.3	24.7	0.0	24.7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3.4	49.8	73.2	24.6	2.2	26.8	100.0
	모름/무응답	19	36.8	47.4	84.2	15.8	0.0	15.8	100.0

표41-2.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5.4	45.4	90.8	8.4	0.8	9.2	100.0	
성별	남자	615	47.5	44.1	91.5	7.5	1.0	8.5	100.0
	여자	585	43.2	46.8	90.1	9.4	0.5	9.9	100.0
연령별	19~29세	221	44.3	45.7	90.0	9.5	0.5	10.0	100.0
	30대	221	42.5	46.6	89.1	10.4	0.5	10.9	100.0
	40대	252	43.7	48.8	92.5	5.6	2.0	7.5	100.0
	50대	262	47.3	42.7	90.1	9.5	0.4	9.9	100.0
	60대 이상	244	48.8	43.4	92.2	7.4	0.4	7.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6.2	44.4	90.6	9.4	0.0	9.4	100.0
	고졸	485	47.6	42.5	90.1	8.5	1.4	9.9	100.0
	대재 이상	594	43.6	48.0	91.6	8.1	0.3	8.4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57.1	42.9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47.6	44.2	91.8	8.2	0.0	8.2	100.0
	블루 칼라	337	44.5	44.2	88.7	9.5	1.8	11.3	100.0
	화이트 칼라	264	43.9	48.1	92.0	7.6	0.4	8.0	100.0
	전업 주부	168	44.0	45.8	89.9	8.9	1.2	10.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6.3	45.5	91.9	8.1	0.0	8.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50.0	39.5	89.5	9.3	1.2	10.5	100.0
	200~299 만원	186	53.8	36.0	89.8	9.7	0.5	10.2	100.0
	300~399 만원	333	39.3	49.5	88.9	9.3	1.8	11.1	100.0
	400만원 이상	595	45.5	46.9	92.4	7.4	0.2	7.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8.0	46.3	94.3	5.7	0.0	5.7	100.0
	충청권	155	41.9	45.8	87.7	11.0	1.3	12.3	100.0
	호남권	143	46.2	44.8	90.9	8.4	0.7	9.1	100.0
	영남권	318	40.3	46.2	86.5	11.6	1.9	13.5	100.0
	강원	44	54.5	38.6	93.2	6.8	0.0	6.8	100.0
	제주	32	56.3	34.4	90.6	9.4	0.0	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6.7	46.1	92.8	7.0	0.2	7.2	100.0
	중/소도시	561	42.6	46.7	89.3	9.3	1.4	10.7	100.0
	읍/면	95	54.7	33.7	88.4	11.6	0.0	1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7.1	43.3	90.4	8.9	0.8	9.6	100.0
	중도	588	42.2	48.3	90.5	8.7	0.9	9.5	100.0
	보수적	217	51.2	41.5	92.6	6.9	0.5	7.4	100.0
종교	불교	207	54.1	35.3	89.4	9.2	1.4	10.6	100.0
	기독교	220	47.3	47.7	95.0	5.0	0.0	5.0	100.0
	천주교	81	43.2	45.7	88.9	11.1	0.0	11.1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1.6	48.3	89.9	9.2	0.9	10.1	100.0
	모름/무응답	19	68.4	31.6	100.0	0.0	0.0	0.0	100.0

표41-3.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㉔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1.2	48.3	69.5	26.9	3.6	30.5	100.0	
성별	남자	615	22.0	48.0	69.9	26.2	3.9	30.1	100.0
	여자	585	20.3	48.7	69.1	27.7	3.2	30.9	100.0
연령별	19~29세	221	24.9	42.1	67.0	28.5	4.5	33.0	100.0
	30대	221	20.4	48.4	68.8	26.2	5.0	31.2	100.0
	40대	252	19.8	49.6	69.4	27.4	3.2	30.6	100.0
	50대	262	20.2	51.9	72.1	25.2	2.7	27.9	100.0
	60대 이상	244	20.9	48.8	69.7	27.5	2.9	30.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8.8	56.4	75.2	23.9	0.9	24.8	100.0
	고졸	485	20.6	50.9	71.5	24.9	3.5	28.5	100.0
	대재 이상	594	22.1	44.6	66.7	29.1	4.2	33.3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42.9	57.1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16.3	52.0	68.4	28.9	2.7	31.6	100.0
	블루 칼라	337	23.7	48.7	72.4	22.6	5.0	27.6	100.0
	화이트 칼라	264	26.1	42.0	68.2	26.9	4.9	31.8	100.0
	전업 주부	168	18.5	50.0	68.5	30.4	1.2	31.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3	48.8	65.0	32.5	2.4	35.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7.4	53.5	70.9	25.6	3.5	29.1	100.0
	200~299 만원	186	24.2	46.8	71.0	26.9	2.2	29.0	100.0
	300~399 만원	333	21.0	52.0	73.0	24.0	3.0	27.0	100.0
	400만원 이상	595	20.8	46.1	66.9	28.7	4.4	33.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0.3	50.0	70.3	25.0	4.7	29.7	100.0
	충청권	155	28.4	35.5	63.9	34.2	1.9	36.1	100.0
	호남권	143	16.8	56.6	73.4	25.9	0.7	26.6	100.0
	영남권	318	20.8	50.6	71.4	23.9	4.7	28.6	100.0
	강원	44	20.5	36.4	56.8	43.2	0.0	43.2	100.0
	제주	32	25.0	40.6	65.6	34.4	0.0	3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0.4	52.0	72.4	26.3	1.3	27.6	100.0
	중/소도시	561	21.6	45.6	67.2	26.9	5.9	32.8	100.0
	읍/면	95	23.2	43.2	66.3	30.5	3.2	3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3.8	43.3	67.1	29.4	3.5	32.9	100.0
	중도	588	19.4	49.8	69.2	26.9	3.9	30.8	100.0
	보수적	217	21.2	53.5	74.7	22.6	2.8	25.3	100.0
종교	불교	207	25.1	51.2	76.3	19.8	3.9	23.7	100.0
	기독교	220	20.5	48.6	69.1	26.8	4.1	30.9	100.0
	천주교	81	9.9	54.3	64.2	32.1	3.7	35.8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1.8	45.9	67.7	28.9	3.4	32.3	100.0
	모름/무응답	19	15.8	73.7	89.5	10.5	0.0	10.5	100.0

표41-4.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1.7	55.2	86.8	11.8	1.3	13.2	100.0	
성별	남자	615	34.5	53.3	87.8	10.7	1.5	12.2	100.0
	여자	585	28.7	57.1	85.8	13.0	1.2	14.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9.9	56.1	86.0	11.3	2.7	14.0	100.0
	30대	221	30.8	58.8	89.6	8.6	1.8	10.4	100.0
	40대	252	29.4	51.6	81.0	17.1	2.0	19.0	100.0
	50대	262	30.9	58.8	89.7	9.9	0.4	10.3	100.0
	60대 이상	244	37.3	50.8	88.1	11.9	0.0	11.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5.9	51.3	87.2	12.8	0.0	12.8	100.0
	고졸	485	30.1	58.8	88.9	9.5	1.6	11.1	100.0
	대재 이상	594	32.2	52.9	85.0	13.6	1.3	15.0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35.7	50.0	85.7	7.1	7.1	14.3	100.0
	자영업	294	31.0	58.2	89.1	10.9	0.0	10.9	100.0
	블루 칼라	337	31.8	57.6	89.3	8.6	2.1	10.7	100.0
	화이트 칼라	264	36.7	46.2	83.0	14.4	2.7	17.0	100.0
	전업 주부	168	25.0	61.9	86.9	13.1	0.0	13.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0.9	52.0	82.9	16.3	0.8	17.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2.6	50.0	82.6	17.4	0.0	17.4	100.0
	200~299 만원	186	39.2	48.4	87.6	10.8	1.6	12.4	100.0
	300~399 만원	333	26.7	61.6	88.3	9.9	1.8	11.7	100.0
	400만원 이상	595	31.9	54.5	86.4	12.4	1.2	13.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8.9	59.4	88.4	11.0	0.6	11.6	100.0
	충청권	155	43.9	40.6	84.5	13.5	1.9	15.5	100.0
	호남권	143	29.4	65.0	94.4	4.9	0.7	5.6	100.0
	영남권	318	29.9	53.8	83.6	13.5	2.8	16.4	100.0
	강원	44	34.1	47.7	81.8	18.2	0.0	18.2	100.0
	제주	32	40.6	37.5	78.1	21.9	0.0	21.9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9.4	59.4	88.8	10.5	0.7	11.2	100.0
	중/소도시	561	33.5	52.4	85.9	12.1	2.0	14.1	100.0
	읍/면	95	33.7	47.4	81.1	17.9	1.1	1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3.2	55.9	89.1	9.4	1.5	10.9	100.0
	중도	588	30.8	54.9	85.7	12.8	1.5	14.3	100.0
	보수적	217	31.3	54.4	85.7	13.8	0.5	14.3	100.0
종교	불교	207	40.6	46.4	87.0	11.6	1.4	13.0	100.0
	기독교	220	33.6	57.3	90.9	9.1	0.0	9.1	100.0
	천주교	81	22.2	63.0	85.2	14.8	0.0	14.8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8.5	56.8	85.2	12.8	1.9	14.8	100.0
	모름/무응답	19	57.9	42.1	100.0	0.0	0.0	0.0	100.0

표41-5.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㉞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1.5	49.9	81.4	18.1	0.5	18.6	100.0	
성별	남자	615	31.9	49.6	81.5	17.7	0.8	18.5	100.0
	여자	585	31.1	50.3	81.4	18.5	0.2	18.6	100.0
연령별	19~29세	221	30.3	49.8	80.1	19.5	0.5	19.9	100.0
	30대	221	28.5	50.7	79.2	20.8	0.0	20.8	100.0
	40대	252	32.1	49.6	81.7	17.5	0.8	18.3	100.0
	50대	262	33.2	45.8	79.0	19.8	1.1	21.0	100.0
	60대 이상	244	32.8	54.1	86.9	13.1	0.0	13.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8.2	54.7	82.9	17.1	0.0	17.1	100.0
	고졸	485	31.1	49.5	80.6	18.8	0.6	19.4	100.0
	대재 이상	594	32.7	49.2	81.8	17.7	0.5	18.2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57.1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32.0	50.0	82.0	18.0	0.0	18.0	100.0
	블루 칼라	337	30.6	48.7	79.2	19.9	0.9	20.8	100.0
	화이트 칼라	264	31.1	50.0	81.1	17.8	1.1	18.9	100.0
	전업 주부	168	29.8	54.8	84.5	15.5	0.0	15.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5.8	45.5	81.3	18.7	0.0	18.7	100.0
	200만원 미만	86	27.9	59.3	87.2	12.8	0.0	12.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36.0	47.3	83.3	16.1	0.5	16.7	100.0
	300~399 만원	333	30.9	48.9	79.9	19.2	0.9	20.1	100.0
	400만원 이상	595	30.9	49.9	80.8	18.8	0.3	19.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2.1	49.0	81.1	18.7	0.2	18.9	100.0
	충청권	155	33.5	44.5	78.1	21.3	0.6	21.9	100.0
	호남권	143	30.1	47.6	77.6	22.4	0.0	22.4	100.0
	영남권	318	27.0	57.2	84.3	14.5	1.3	15.7	100.0
	강원	44	45.5	38.6	84.1	15.9	0.0	15.9	100.0
	제주	32	43.8	43.8	87.5	12.5	0.0	12.5	100.0
	대도시	544	35.7	50.4	86.0	13.4	0.6	14.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26.6	50.3	76.8	22.6	0.5	23.2	100.0
	읍/면	95	36.8	45.3	82.1	17.9	0.0	1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1.6	52.2	83.8	15.7	0.5	16.2	100.0
	중도	588	29.9	47.6	77.6	21.9	0.5	22.4	100.0
	보수적	217	35.5	52.1	87.6	12.0	0.5	12.4	100.0
종교	불교	207	37.7	46.9	84.5	15.0	0.5	15.5	100.0
	기독교	220	31.4	53.6	85.0	14.5	0.5	15.0	100.0
	천주교	81	37.0	40.7	77.8	21.0	1.2	22.2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9.1	50.2	79.3	20.3	0.4	20.7	100.0
	모름/무응답	19	31.6	63.2	94.7	5.3	0.0	5.3	100.0

표41-6.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㉞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7.8	43.2	91.0	8.5	0.5	9.0	100.0	
성별	남자	615	47.6	42.8	90.4	9.1	0.5	9.6	100.0
	여자	585	48.0	43.6	91.6	7.9	0.5	8.4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7	44.8	90.5	9.5	0.0	9.5	100.0
	30대	221	43.0	48.0	91.0	9.0	0.0	9.0	100.0
	40대	252	47.6	41.3	88.9	9.5	1.6	11.1	100.0
	50대	262	49.6	42.4	92.0	7.3	0.8	8.0	100.0
	60대 이상	244	52.5	40.2	92.6	7.4	0.0	7.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6.2	44.4	90.6	9.4	0.0	9.4	100.0
	고졸	485	49.1	41.9	90.9	8.5	0.6	9.1	100.0
	대재 이상	594	47.1	44.1	91.2	8.2	0.5	8.8	100.0
	모름/무응답	4	50.0	2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0.0	42.9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50.3	42.5	92.9	6.5	0.7	7.1	100.0
	블루 칼라	337	48.1	40.7	88.7	10.7	0.6	11.3	100.0
	화이트 칼라	264	47.3	44.7	92.0	7.6	0.4	8.0	100.0
	전업 주부	168	46.4	44.6	91.1	8.3	0.6	8.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3.9	46.3	90.2	9.8	0.0	9.8	100.0
	200만원 미만	86	53.5	36.0	89.5	10.5	0.0	10.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50.5	42.5	93.0	6.5	0.5	7.0	100.0
	300~399 만원	333	42.9	47.7	90.7	9.0	0.3	9.3	100.0
	400만원 이상	595	48.9	41.8	90.8	8.6	0.7	9.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9.4	43.1	92.5	7.1	0.4	7.5	100.0
	충청권	155	49.0	41.3	90.3	9.7	0.0	9.7	100.0
	호남권	143	51.0	40.6	91.6	8.4	0.0	8.4	100.0
	영남권	318	38.7	49.7	88.4	10.4	1.3	11.6	100.0
	강원	44	63.6	27.3	90.9	9.1	0.0	9.1	100.0
	제주	32	71.9	21.9	93.8	6.3	0.0	6.3	100.0
	대도시	544	52.9	39.5	92.5	7.2	0.4	7.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41.5	47.4	88.9	10.3	0.7	11.1	100.0
	읍/면	95	55.8	38.9	94.7	5.3	0.0	5.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0.1	40.0	90.1	8.9	1.0	9.9	100.0
	중도	588	44.0	46.8	90.8	9.0	0.2	9.2	100.0
	보수적	217	53.9	39.2	93.1	6.5	0.5	6.9	100.0
종교	불교	207	55.6	36.2	91.8	7.2	1.0	8.2	100.0
	기독교	220	49.5	43.2	92.7	7.3	0.0	7.3	100.0
	천주교	81	45.7	44.4	90.1	6.2	3.7	9.9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5.3	44.9	90.2	9.7	0.1	9.8	100.0
	모름/무응답	19	42.1	52.6	94.7	5.3	0.0	5.3	100.0

표41-7.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㉔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9.2	49.9	89.1	10.3	0.5	10.8	0.1	100.0
성별									
남자	615	40.5	48.5	88.9	10.7	0.2	10.9	0.2	100.0
여자	585	37.8	51.5	89.2	9.9	0.9	10.8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38.0	51.6	89.6	9.5	0.9	10.4	0.0	100.0
30대	221	38.0	51.6	89.6	9.5	0.5	10.0	0.5	100.0
40대	252	39.7	48.4	88.1	11.1	0.8	11.9	0.0	100.0
50대	262	42.4	46.6	88.9	11.1	0.0	11.1	0.0	100.0
60대 이상	244	37.3	52.0	89.3	10.2	0.4	10.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3.3	54.7	88.0	12.0	0.0	12.0	0.0	100.0
고졸	485	40.4	48.9	89.3	10.1	0.6	10.7	0.0	100.0
대재 이상	594	39.6	49.5	89.1	10.3	0.5	10.8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7.1	35.7	92.9	7.1	0.0	7.1	0.0	100.0
자영업	294	40.5	51.4	91.8	8.2	0.0	8.2	0.0	100.0
블루 칼라	337	38.3	49.0	87.2	12.2	0.6	12.8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39.8	47.0	86.7	12.5	0.8	13.3	0.0	100.0
전업 주부	168	36.3	54.8	91.1	8.3	0.6	8.9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9.0	50.4	89.4	8.9	0.8	9.8	0.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55.8	33.7	89.5	10.5	0.0	10.5	0.0	100.0
200~299 만원	186	38.2	53.2	91.4	8.6	0.0	8.6	0.0	100.0
300~399 만원	333	34.8	52.3	87.1	12.0	0.6	12.6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39.5	49.9	89.4	9.9	0.7	10.6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0.2	51.8	91.9	7.7	0.2	7.9	0.2	100.0
충청권	155	48.4	40.0	88.4	11.0	0.6	11.6	0.0	100.0
호남권	143	36.4	47.6	83.9	16.1	0.0	16.1	0.0	100.0
영남권	318	27.7	58.2	85.8	12.9	1.3	14.2	0.0	100.0
강원	44	65.9	29.5	95.5	4.5	0.0	4.5	0.0	100.0
제주	32	68.8	25.0	93.8	6.3	0.0	6.3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2.1	51.3	93.4	6.4	0.2	6.6	0.0	100.0
중/소도시	561	35.1	50.4	85.6	13.4	0.9	14.3	0.2	100.0
읍/면	95	46.3	38.9	85.3	14.7	0.0	14.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1.3	45.8	87.1	11.6	1.0	12.7	0.3	100.0
중도	588	36.7	52.7	89.5	10.2	0.3	10.5	0.0	100.0
보수적	217	41.9	49.8	91.7	8.3	0.0	8.3	0.0	100.0
종교									
불교	207	45.9	43.0	88.9	9.7	1.4	11.1	0.0	100.0
기독교	220	41.8	51.4	93.2	6.8	0.0	6.8	0.0	100.0
천주교	81	29.6	54.3	84.0	16.0	0.0	16.0	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7.9	50.2	88.1	11.3	0.4	11.8	0.1	100.0
모름/무응답	19	21.1	78.9	100.0	0.0	0.0	0.0	0.0	100.0

표41-8.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㉕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사례수	① 매우 중요하다	② 다소 중요하다	①+②	③ 별로 중요하지 않다	④ 전혀 중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1.6	42.2	63.8	30.4	5.8	36.3	100.0
성별								
남자	615	21.1	41.5	62.6	30.9	6.5	37.4	100.0
여자	585	22.1	42.9	65.0	29.9	5.1	35.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7.2	43.4	60.6	33.9	5.4	39.4	100.0
30대	221	17.6	44.8	62.4	29.9	7.7	37.6	100.0
40대	252	24.6	39.3	63.9	32.5	3.6	36.1	100.0
50대	262	24.4	40.8	65.3	29.8	5.0	34.7	100.0
60대 이상	244	23.0	43.0	66.0	26.2	7.8	34.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1.4	44.4	65.8	28.2	6.0	34.2	100.0
고졸	485	22.7	42.7	65.4	30.1	4.5	34.6	100.0
대재 이상	594	20.5	41.4	62.0	31.1	6.9	38.0	100.0
모름/무응답	4	50.0	2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50.0	85.7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21.1	37.4	58.5	35.4	6.1	41.5	100.0
블루 칼라	337	22.0	44.5	66.5	28.8	4.7	33.5	100.0
화이트 칼라	264	20.5	47.0	67.4	24.2	8.3	32.6	100.0
전업 주부	168	27.4	38.1	65.5	32.1	2.4	34.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4.6	41.5	56.1	35.8	8.1	43.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9.8	43.0	62.8	24.4	12.8	37.2	100.0
200~299 만원	186	23.7	36.6	60.2	35.5	4.3	39.8	100.0
300~399 만원	333	24.0	36.6	60.7	34.5	4.8	39.3	100.0
400만원 이상	595	19.8	46.9	66.7	27.4	5.9	33.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8.7	39.8	58.5	34.4	7.1	41.5	100.0
충청권	155	21.3	49.0	70.3	20.6	9.0	29.7	100.0
호남권	143	30.8	35.7	66.4	27.3	6.3	33.6	100.0
영남권	318	21.4	50.3	71.7	25.2	3.1	28.3	100.0
강원	44	15.9	18.2	34.1	63.6	2.3	65.9	100.0
제주	32	37.5	28.1	65.6	34.4	0.0	3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7.0	48.7	75.7	20.8	3.5	24.3	100.0
중/소도시	561	15.5	37.3	52.8	38.9	8.4	47.2	100.0
읍/면	95	26.3	33.7	60.0	35.8	4.2	4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2.0	40.5	62.5	31.9	5.6	37.5	100.0
중도	588	20.7	43.0	63.8	30.1	6.1	36.2	100.0
보수적	217	23.0	42.9	65.9	28.6	5.5	34.1	100.0
종교								
불교	207	23.7	44.9	68.6	25.6	5.8	31.4	100.0
기독교	220	18.2	35.0	53.2	41.8	5.0	46.8	100.0
천주교	81	24.7	34.6	59.3	38.3	2.5	40.7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1.0	44.9	65.9	27.4	6.7	34.1	100.0
모름/무응답	19	47.4	31.6	78.9	21.1	0.0	21.1	100.0

표41-9. 국가 정체성 관련 중요도 - ㉔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	%	%	%	%	%	
전 체	1200	19.1	52.8	71.9	24.8	3.3	28.1	100.0	
성별	남자	615	20.5	51.9	72.4	23.6	4.1	27.6	100.0
	여자	585	17.6	53.8	71.5	26.0	2.6	28.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5.4	55.2	70.6	24.9	4.5	29.4	100.0
	30대	221	18.6	53.8	72.4	24.0	3.6	27.6	100.0
	40대	252	16.7	49.6	66.3	27.8	6.0	33.7	100.0
	50대	262	21.4	50.4	71.8	27.1	1.1	28.2	100.0
	60대 이상	244	23.0	55.7	78.7	19.7	1.6	21.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1.4	59.0	80.3	18.8	0.9	19.7	100.0
	고졸	485	18.6	52.4	70.9	26.0	3.1	29.1	100.0
	대재 이상	594	19.0	51.9	70.9	25.1	4.0	29.1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8.6	50.0	78.6	7.1	14.3	21.4	100.0
	자영업	294	18.4	51.0	69.4	28.6	2.0	30.6	100.0
	블루 칼라	337	20.5	53.7	74.2	22.6	3.3	25.8	100.0
	화이트 칼라	264	20.8	53.0	73.9	22.3	3.8	26.1	100.0
	전업 주부	168	16.1	55.4	71.4	25.0	3.6	28.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3	51.2	67.5	28.5	4.1	32.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0.9	55.8	76.7	19.8	3.5	23.3	100.0
	200~299 만원	186	22.0	57.5	79.6	17.2	3.2	20.4	100.0
	300~399 만원	333	20.7	52.6	73.3	23.4	3.3	26.7	100.0
	400만원 이상	595	17.0	51.1	68.1	28.6	3.4	31.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7.3	55.3	72.6	25.4	2.0	27.4	100.0
	충청권	155	26.5	49.0	75.5	20.6	3.9	24.5	100.0
	호남권	143	17.5	52.4	69.9	28.0	2.1	30.1	100.0
	영남권	318	17.6	54.1	71.7	22.0	6.3	28.3	100.0
	강원	44	15.9	47.7	63.6	34.1	2.3	36.4	100.0
	제주	32	37.5	28.1	65.6	34.4	0.0	34.4	100.0
	대도시	544	16.4	56.6	73.0	23.3	3.7	27.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20.5	50.8	71.3	25.3	3.4	28.7	100.0
	읍/면	95	26.3	43.2	69.5	29.5	1.1	3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0.5	51.1	71.6	25.6	2.8	28.4	100.0
	중도	588	17.0	52.9	69.9	26.4	3.7	30.1	100.0
	보수적	217	22.1	55.8	77.9	18.9	3.2	22.1	100.0
종교	불교	207	27.1	50.2	77.3	16.9	5.8	22.7	100.0
	기독교	220	20.5	49.5	70.0	27.7	2.3	30.0	100.0
	천주교	81	12.3	56.8	69.1	29.6	1.2	30.9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6.5	54.1	70.6	26.1	3.3	29.4	100.0
	모름/무응답	19	31.6	63.2	94.7	5.3	0.0	5.3	100.0

표42.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전 체	1200	71.1	5.4	19.8	3.5	0.2	100.0	
성별	남자	615	72.4	4.9	20.3	2.3	0.2	100.0
	여자	585	69.7	6.0	19.3	4.8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59.3	12.2	25.8	2.7	0.0	100.0
	30대	221	72.9	4.5	14.9	7.2	0.5	100.0
	40대	252	72.6	5.6	19.0	2.4	0.4	100.0
	50대	262	72.1	2.7	22.5	2.7	0.0	100.0
	60대 이상	244	77.5	2.9	16.8	2.9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6.9	3.4	14.5	5.1	0.0	100.0
	고졸	485	72.0	6.0	18.6	3.3	0.2	100.0
	대재 이상	594	69.4	5.2	21.9	3.4	0.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42.9	14.3	28.6	14.3	0.0	100.0
	자영업	294	74.8	4.4	17.0	3.4	0.3	100.0
	블루 칼라	337	69.7	6.5	19.6	4.2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71.2	2.7	22.3	3.8	0.0	100.0
	전업 주부	168	77.4	4.2	15.5	2.4	0.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0.2	11.4	26.8	1.6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65.1	10.5	17.4	7.0	0.0	100.0
	200~299 만원	186	79.0	4.3	15.6	1.1	0.0	100.0
	300~399 만원	333	71.8	3.9	19.5	4.2	0.6	100.0
	400만원 이상	595	69.1	5.9	21.7	3.4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73.0	6.3	18.1	2.6	0.0	100.0
	충청권	155	72.3	4.5	20.6	2.6	0.0	100.0
	호남권	143	66.4	1.4	24.5	7.0	0.7	100.0
	영남권	318	72.3	5.3	18.2	3.8	0.3	100.0
	강원	44	63.6	4.5	29.5	2.3	0.0	100.0
	제주	32	53.1	15.6	25.0	6.3	0.0	100.0
	대도시	544	73.0	6.8	17.3	2.9	0.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69.7	4.3	21.7	3.9	0.4	100.0
	읍/면	95	68.4	4.2	23.2	4.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4.6	4.6	26.1	4.6	0.3	100.0
	중도	588	71.9	7.0	18.2	2.7	0.2	100.0
	보수적	217	80.6	2.8	12.9	3.7	0.0	100.0
종교	불교	207	70.0	5.3	19.8	4.8	0.0	100.0
	기독교	220	66.8	5.0	25.5	2.7	0.0	100.0
	천주교	81	75.3	7.4	16.0	0.0	1.2	100.0
	기타	2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72.9	5.1	18.0	3.9	0.1	100.0
	모름/무응답	19	52.6	10.5	36.8	0.0	0.0	100.0

표43.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러시아	계	
		%	%	%	%	%	%	
전 체	1200	5.9	28.2	30.6	34.2	1.2	100.0	
성별	남자	615	4.2	28.9	31.7	34.3	0.8	100.0
	여자	585	7.7	27.4	29.4	34.0	1.5	100.0
연령별	19~29세	221	9.0	23.5	32.6	33.9	0.9	100.0
	30대	221	5.4	25.8	33.5	33.5	1.8	100.0
	40대	252	5.2	27.0	29.8	36.9	1.2	100.0
	50대	262	5.3	31.3	26.7	36.3	0.4	100.0
	60대 이상	244	4.9	32.4	31.1	29.9	1.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3	29.1	30.8	33.3	2.6	100.0
	고졸	485	5.2	29.3	30.9	34.0	0.6	100.0
	대재 이상	594	6.9	27.3	30.1	34.3	1.3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5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14.3	35.7	28.6	0.0	100.0
	자영업	294	4.4	28.6	28.6	38.1	0.3	100.0
	블루 칼라	337	7.4	29.7	29.1	32.6	1.2	100.0
	화이트 칼라	264	4.5	29.9	34.1	30.7	0.8	100.0
	전업 주부	168	4.2	26.2	31.5	35.7	2.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23.6	30.1	35.0	2.4	100.0
		200만원 미만	86	8.1	29.1	27.9	31.4	3.5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5.9	24.7	38.7	30.6	0.0	100.0
	300~399 만원	333	5.1	26.4	26.4	40.5	1.5	100.0
	400만원 이상	595	6.1	30.1	30.8	32.1	1.0	100.0
		수도권	508	3.7	28.0	31.1	36.8	0.4
지역별	충청권	155	9.7	27.1	34.2	27.1	1.9	100.0
	호남권	143	9.8	32.9	16.1	38.5	2.8	100.0
	영남권	318	6.0	26.4	36.8	29.6	1.3	100.0
	강원	44	2.3	36.4	13.6	47.7	0.0	100.0
	제주	32	9.4	21.9	31.3	34.4	3.1	100.0
		대도시	544	3.5	28.5	37.5	30.0	0.6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7.0	28.2	24.6	38.3	2.0	100.0
	읍/면	95	13.7	26.3	26.3	33.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8.9	34.4	25.3	30.4	1.0	100.0
	중도	588	5.1	25.9	29.9	37.9	1.2	100.0
	보수적	217	2.8	23.0	41.9	30.9	1.4	100.0
종교	불교	207	3.4	30.4	31.4	33.3	1.4	100.0
	기독교	220	7.7	30.9	29.1	31.8	0.5	100.0
	천주교	81	1.2	19.8	27.2	50.6	1.2	100.0
	기타	2	0.0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6.6	28.2	30.8	33.2	1.2	100.0
		모름/무응답	19	10.5	10.5	42.1	31.6	5.3

표44. 북·미 월드컵 경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 팀	미국 팀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기타	계	
		%	%	%	%	%	%	
전 체	1200	54.9	10.5	19.0	15.4	0.2	100.0	
성별	남자	615	56.7	11.5	18.2	13.3	0.2	100.0
	여자	585	53.0	9.4	19.8	17.6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47.5	12.2	17.6	22.2	0.5	100.0
	30대	221	51.6	14.5	16.7	17.2	0.0	100.0
	40대	252	56.7	9.5	19.0	14.7	0.0	100.0
	50대	262	59.2	5.0	21.4	14.5	0.0	100.0
	60대 이상	244	58.2	12.3	19.7	9.4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8.1	12.8	17.1	12.0	0.0	100.0
	고졸	485	54.8	9.1	21.2	14.8	0.0	100.0
	대재 이상	594	54.4	11.1	17.5	16.7	0.3	100.0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4	0.0	21.4	7.1	0.0	100.0
	자영업	294	60.9	8.2	19.0	11.9	0.0	100.0
	블루 칼라	337	54.9	11.6	19.0	14.2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53.4	12.1	19.3	15.2	0.0	100.0
	전업 주부	168	47.6	10.1	22.0	20.2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2.0	11.4	13.8	22.0	0.8	100.0
		200만원 미만	86	57.0	15.1	17.4	10.5	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53.2	14.5	18.8	13.4	0.0	100.0
	300~399 만원	333	55.0	10.2	19.2	15.3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55.1	8.7	19.2	16.8	0.2	100.0
		수도권	508	53.9	11.0	20.3	14.4	0.4
지역별	충청권	155	49.7	15.5	20.0	14.8	0.0	100.0
	호남권	143	71.3	4.2	8.4	16.1	0.0	100.0
	영남권	318	49.7	10.7	20.4	19.2	0.0	100.0
	강원	44	70.5	11.4	11.4	6.8	0.0	100.0
	제주	32	53.1	3.1	37.5	6.3	0.0	100.0
		대도시	544	47.6	9.9	21.9	20.4	0.2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61.7	11.1	15.5	11.6	0.2	100.0
	읍/면	95	56.8	10.5	23.2	9.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5.6	6.1	16.2	12.2	0.0	100.0
	중도	588	51.0	10.9	21.1	16.8	0.2	100.0
	보수적	217	46.1	17.5	18.4	17.5	0.5	100.0
종교	불교	207	57.0	10.6	18.4	13.5	0.5	100.0
	기독교	220	59.1	8.6	18.6	13.6	0.0	100.0
	천주교	81	58.0	9.9	16.0	16.0	0.0	100.0
	기타	2	0.0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2.6	11.0	19.8	16.4	0.1	100.0
		모름/무응답	19	57.9	15.8	5.3	21.1	0.0

표45-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㉔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82.3	10.0	6.9	0.8	100.0	
성별	남자	615	83.7	9.3	6.3	0.7	100.0
	여자	585	80.9	10.8	7.5	0.9	100.0
연령별	19~29세	221	83.7	7.7	7.2	1.4	100.0
	30대	221	86.0	9.5	4.5	0.0	100.0
	40대	252	76.6	11.5	10.3	1.6	100.0
	50대	262	81.7	12.2	6.1	0.0	100.0
	60대 이상	244	84.4	8.6	6.1	0.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2.1	10.3	6.0	1.7	100.0
	고졸	485	80.6	10.9	8.0	0.4	100.0
	대재 이상	594	83.7	9.3	6.2	0.8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64.3	21.4	14.3	0.0	100.0
	자영업	294	82.3	9.2	8.2	0.3	100.0
	블루 칼라	337	81.9	10.4	7.4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85.2	8.0	6.1	0.8	100.0
	전업 주부	168	79.2	13.7	5.4	1.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3.7	8.9	5.7	1.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2.6	7.0	8.1	2.3	100.0
	200~299 만원	186	84.4	10.8	4.8	0.0	100.0
	300~399 만원	333	82.6	11.4	5.1	0.9	100.0
	400만원 이상	595	81.5	9.4	8.4	0.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84.6	10.2	5.1	0.0	100.0
	충청권	155	81.3	5.8	11.6	1.3	100.0
	호남권	143	81.8	5.6	11.2	1.4	100.0
	영남권	318	78.3	13.8	6.3	1.6	100.0
	강원	44	84.1	11.4	4.5	0.0	100.0
	제주	32	90.6	6.3	3.1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83.5	9.2	7.2	0.2	100.0
	중/소도시	561	81.1	11.6	6.2	1.1	100.0
	읍/면	95	83.2	5.3	9.5	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8.5	10.6	10.4	0.5	100.0
	중도	588	83.2	10.0	6.0	0.9	100.0
	보수적	217	87.1	8.8	3.2	0.9	100.0
종교	불교	207	81.2	11.6	6.8	0.5	100.0
	기독교	220	82.3	10.9	6.4	0.5	100.0
	천주교	81	82.7	11.1	4.9	1.2	100.0
	기타	2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82.4	9.2	7.5	0.9	100.0
	모름/무응답	19	89.5	5.3	5.3	0.0	100.0

표45-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㉕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10.7	35.2	38.3	15.8	100.0	
성별	남자	615	12.7	34.5	38.0	14.8	100.0
	여자	585	8.5	35.9	38.6	16.9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1	36.7	32.6	17.6	100.0
	30대	221	14.0	32.1	38.0	15.8	100.0
	40대	252	7.9	37.7	38.9	15.5	100.0
	50대	262	12.6	29.4	45.4	12.6	100.0
	60대 이상	244	6.1	40.2	35.7	1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0	40.2	38.5	15.4	100.0
	고졸	485	9.7	37.3	38.4	14.6	100.0
	대재 이상	594	12.5	32.2	38.4	17.0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25.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35.7	35.7	7.1	100.0
	자영업	294	12.6	37.8	35.7	13.9	100.0
	블루 칼라	337	9.5	35.0	40.1	15.4	100.0
	화이트 칼라	264	9.8	31.1	42.0	17.0	100.0
	전업 주부	168	7.1	31.0	42.9	19.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4.6	43.9	26.0	15.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0.5	45.3	29.1	15.1	100.0
	200~299 만원	186	10.8	34.4	38.7	16.1	100.0
	300~399 만원	333	10.2	37.8	37.5	14.4	100.0
	400만원 이상	595	10.9	32.4	40.0	16.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6.9	41.5	35.6	15.9	100.0
	충청권	155	25.8	21.9	40.0	12.3	100.0
	호남권	143	2.1	31.5	47.6	18.9	100.0
	영남권	318	8.5	35.2	38.7	17.6	100.0
	강원	44	36.4	22.7	34.1	6.8	100.0
	제주	32	21.9	31.3	34.4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4	33.1	38.2	19.3	100.0
	중/소도시	561	10.5	39.8	37.3	12.5	100.0
	읍/면	95	18.9	20.0	45.3	1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3.4	26.8	43.3	16.5	100.0
	중도	588	8.5	37.1	38.3	16.2	100.0
	보수적	217	11.5	45.2	29.5	13.8	100.0
종교	불교	207	8.7	35.3	40.1	15.9	100.0
	기독교	220	11.8	33.6	37.7	16.8	100.0
	천주교	81	8.6	39.5	32.1	19.8	100.0
	기타	2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1.3	35.0	38.7	14.9	100.0
	모름/무응답	19	5.3	36.8	36.8	21.1	100.0

표45-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14.3	30.0	47.0	8.8	100.0	
성별	남자	615	14.8	30.9	44.9	9.4	100.0
	여자	585	13.7	29.1	49.2	8.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6	29.9	43.4	13.1	100.0
	30대	221	17.6	29.4	46.2	6.8	100.0
	40대	252	15.5	29.8	46.8	7.9	100.0
	50대	262	15.3	31.3	45.8	7.6	100.0
	60대 이상	244	9.4	29.5	52.5	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25.6	54.7	12.8	100.0
	고졸	485	14.6	32.8	45.8	6.8	100.0
	대재 이상	594	15.5	28.5	46.5	9.6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50.0	28.6	7.1	100.0
	자영업	294	15.3	28.2	49.3	7.1	100.0
	블루 칼라	337	15.7	32.9	41.8	9.5	100.0
	화이트 칼라	264	15.5	30.3	46.2	8.0	100.0
	전업 주부	168	10.1	23.8	57.7	8.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0.6	31.7	44.7	1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29.1	48.8	8.1	100.0
	200~299 만원	186	12.4	26.3	51.6	9.7	100.0
	300~399 만원	333	12.6	32.4	44.7	10.2	100.0
	400만원 이상	595	15.8	29.9	46.6	7.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9.6	30.3	51.4	8.7	100.0
	충청권	155	21.9	17.4	51.0	9.7	100.0
	호남권	143	20.3	30.1	46.9	2.8	100.0
	영남권	318	10.7	36.5	41.2	11.6	100.0
	강원	44	40.9	15.9	36.4	6.8	100.0
	제주	32	21.9	40.6	31.3	6.3	100.0
	대도시	544	12.7	30.0	48.9	8.5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15.5	30.8	44.7	8.9	100.0
	읍/면	95	15.8	25.3	49.5	9.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8.0	30.4	43.3	8.4	100.0
	중도	588	11.4	28.6	51.0	9.0	100.0
	보수적	217	15.2	33.2	42.9	8.8	100.0
종교	불교	207	14.5	28.0	46.4	11.1	100.0
	기독교	220	18.2	27.3	48.2	6.4	100.0
	천주교	81	11.1	28.4	51.9	8.6	100.0
	기타	2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3.6	31.0	46.8	8.6	100.0
	모름/무응답	19	5.3	52.6	26.3	15.8	100.0

표45-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계	
		%	%	%	%		
전 체	1200	16.3	31.0	47.3	5.4	100.0	
성별	남자	615	17.7	32.2	44.7	5.4	100.0
	여자	585	14.7	29.7	50.1	5.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7.6	29.0	47.1	6.3	100.0
	30대	221	16.3	35.7	43.0	5.0	100.0
	40대	252	19.0	29.4	47.6	4.0	100.0
	50대	262	15.3	33.6	45.0	6.1	100.0
	60대 이상	244	13.1	27.5	53.7	5.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0	25.6	54.7	7.7	100.0
	고졸	485	15.9	33.0	45.4	5.8	100.0
	대재 이상	594	17.5	30.1	47.6	4.7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25.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28.6	42.9	7.1	100.0
	자영업	294	16.0	29.9	51.4	2.7	100.0
	블루 칼라	337	17.2	35.6	39.5	7.7	100.0
	화이트 칼라	264	18.6	30.7	46.6	4.2	100.0
	전업 주부	168	12.5	25.0	56.0	6.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3.8	30.1	49.6	6.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5.1	30.2	48.8	5.8	100.0
	200~299 만원	186	15.6	26.9	51.6	5.9	100.0
	300~399 만원	333	15.9	32.1	46.8	5.1	100.0
	400만원 이상	595	16.8	31.8	46.1	5.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0.4	35.6	49.8	4.1	100.0
	충청권	155	23.2	18.7	51.0	7.1	100.0
	호남권	143	21.0	35.0	42.0	2.1	100.0
	영남권	318	14.8	30.5	45.9	8.8	100.0
	강원	44	45.5	15.9	38.6	0.0	100.0
	제주	32	28.1	25.0	40.6	6.3	100.0
	대도시	544	16.2	31.1	47.8	5.0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15.7	32.1	46.2	6.1	100.0
	읍/면	95	20.0	24.2	51.6	4.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9.5	30.6	46.3	3.5	100.0
	중도	588	14.6	31.3	48.1	6.0	100.0
	보수적	217	14.7	30.9	47.0	7.4	100.0
종교	불교	207	16.4	28.0	48.3	7.2	100.0
	기독교	220	20.9	29.1	46.4	3.6	100.0
	천주교	81	13.6	33.3	50.6	2.5	100.0
	기타	2	0.0	5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5.2	32.0	47.2	5.5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6.8	36.8	15.8	100.0

표46-1.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㉞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전 체	1200	71.3	2.8	24.1	1.8	0.1	100.0	
성별	남자	615	73.0	3.1	22.3	1.5	0.2	100.0
	여자	585	69.4	2.4	26.0	2.2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67.9	3.2	26.2	2.7	0.0	100.0
	30대	221	68.8	2.7	25.8	2.7	0.0	100.0
	40대	252	72.2	2.4	24.2	1.2	0.0	100.0
	50대	262	72.9	3.1	22.1	1.9	0.0	100.0
	60대 이상	244	73.8	2.5	22.5	0.8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5.8	6.0	26.5	1.7	0.0	100.0
	고졸	485	75.3	1.6	21.0	1.9	0.2	100.0
	대재 이상	594	69.0	3.0	26.1	1.9	0.0	100.0
	모름/무응답	4	75.0	0.0	25.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64.3	0.0	35.7	0.0	0.0	100.0
	자영업	294	71.4	2.7	24.8	1.0	0.0	100.0
	블루 칼라	337	71.8	2.1	24.0	1.8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68.2	3.8	26.1	1.9	0.0	100.0
	전업 주부	168	76.8	1.8	19.6	1.8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9.1	4.1	22.8	4.1	0.0	100.0
	200만원 미만	86	67.4	2.3	27.9	2.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68.3	2.7	25.8	2.7	0.5	100.0
	300~399 만원	333	76.9	3.0	19.2	0.9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69.6	2.7	25.7	2.0	0.0	100.0
	수도권	508	76.2	4.7	17.9	1.2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60.6	1.3	34.8	2.6	0.6	100.0
	호남권	143	72.7	1.4	23.8	2.1	0.0	100.0
	영남권	318	66.0	1.6	29.6	2.8	0.0	100.0
	강원	44	75.0	0.0	25.0	0.0	0.0	100.0
	제주	32	84.4	0.0	15.6	0.0	0.0	100.0
	대도시	544	75.7	0.9	21.1	2.2	0.0	100.0
	중/소도시	561	69.2	4.8	24.4	1.4	0.2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5	57.9	1.1	38.9	2.1	0.0	100.0
	진보적	395	67.6	2.8	28.1	1.5	0.0	100.0
	중도	588	72.6	2.6	22.6	2.0	0.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17	74.2	3.2	20.7	1.8	0.0	100.0
	불교	207	72.0	3.4	23.2	1.4	0.0	100.0
	기독교	220	73.2	1.8	20.9	4.1	0.0	100.0
종교	천주교	81	77.8	2.5	19.8	0.0	0.0	100.0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70.0	2.8	25.6	1.3	0.1	100.0
	모름/무응답	19	52.6	5.3	36.8	5.3	0.0	100.0

표46-2.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㉟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전 체	1200	7.9	8.0	76.5	7.5	0.1	100.0	
성별	남자	615	9.9	7.8	74.8	7.3	0.2	100.0
	여자	585	5.8	8.2	78.3	7.7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9.0	12.7	69.2	9.0	0.0	100.0
	30대	221	10.9	8.1	73.3	7.7	0.0	100.0
	40대	252	6.7	6.0	81.3	6.0	0.0	100.0
	50대	262	6.9	6.5	79.8	6.9	0.0	100.0
	60대 이상	244	6.6	7.4	77.5	8.2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9.4	70.9	12.0	0.0	100.0
	고졸	485	6.2	7.6	79.4	6.6	0.2	100.0
	대재 이상	594	9.1	8.1	75.4	7.4	0.0	100.0
	모름/무응답	4	50.0	0.0	5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7.1	64.3	14.3	0.0	100.0
	자영업	294	7.8	3.4	83.3	5.4	0.0	100.0
	블루 칼라	337	8.9	11.6	72.7	6.5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9.1	8.0	74.6	8.3	0.0	100.0
	전업 주부	168	4.8	6.5	82.7	6.0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11.4	67.5	14.6	0.0	100.0
	200만원 미만	86	8.1	9.3	72.1	10.5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1.3	7.5	71.5	9.1	0.5	100.0
	300~399 만원	333	8.1	8.4	76.6	6.9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6.7	7.7	78.7	6.9	0.0	100.0
	수도권	508	5.9	7.9	78.7	7.5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9.4	18.1	60.0	1.9	0.6	100.0
	호남권	143	5.6	8.4	77.6	8.4	0.0	100.0
	영남권	318	4.7	4.1	81.8	9.4	0.0	100.0
	강원	44	11.4	2.3	72.7	13.6	0.0	100.0
	제주	32	21.9	6.3	68.8	3.1	0.0	100.0
	대도시	544	7.2	4.2	80.1	8.5	0.0	100.0
	중/소도시	561	6.8	12.1	74.7	6.2	0.2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5	18.9	5.3	66.3	9.5	0.0	100.0
	진보적	395	9.4	8.9	76.7	5.1	0.0	100.0
	중도	588	6.8	8.7	76.2	8.2	0.2	100.0
정치적 성향	보수적	217	8.3	4.6	77.0	10.1	0.0	100.0
	불교	207	8.7	7.7	73.4	10.1	0.0	100.0
	기독교	220	5.9	8.2	80.5	5.5	0.0	100.0
종교	천주교	81	7.4	4.9	84.0	3.7	0.0	100.0
	기타	2	0.0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8.6	8.5	75.0	7.7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5.3	84.2	10.5	0.0	100.0

표46-3.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전 체	1200	1.8	50.0	41.3	6.9	0.1	100.0	
성별	남자	615	2.4	51.5	39.8	6.0	0.2	100.0
	여자	585	1.0	48.4	42.7	7.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2.3	53.4	38.5	5.9	0.0	100.0
	30대	221	2.3	47.5	41.6	8.6	0.0	100.0
	40대	252	2.4	46.4	44.4	6.7	0.0	100.0
	50대	262	1.5	52.7	38.9	6.9	0.0	100.0
	60대 이상	244	0.4	50.0	42.6	6.6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9	39.3	49.6	10.3	0.0	100.0
	고졸	485	1.2	52.4	39.0	7.2	0.2	100.0
	대재 이상	594	2.4	50.3	41.4	5.9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50.0	2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14.3	64.3	21.4	0.0	100.0
	자영업	294	1.0	51.7	40.5	6.8	0.0	100.0
	블루 칼라	337	2.1	50.7	39.2	7.7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2.7	45.5	45.8	6.1	0.0	100.0
	전업 주부	168	1.2	51.8	39.9	7.1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6	55.3	38.2	4.9	0.0	100.0
	200만원 미만	86	0.0	46.5	47.7	5.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6	51.6	36.6	9.7	0.5	100.0
	300~399 만원	333	0.9	51.7	39.9	7.5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5	49.1	42.5	5.9	0.0	100.0
	수도권	508	2.0	52.4	36.6	9.1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0.0	52.9	44.5	1.9	0.6	100.0
	호남권	143	2.1	47.6	45.5	4.9	0.0	100.0
	영남권	318	2.5	46.5	43.1	7.9	0.0	100.0
	강원	44	0.0	52.3	47.7	0.0	0.0	100.0
	제주	32	0.0	40.6	53.1	6.3	0.0	100.0
	대도시	544	1.7	55.3	35.3	7.7	0.0	100.0
	중/소도시	561	2.0	45.6	46.0	6.2	0.2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5	1.1	45.3	47.4	6.3	0.0	100.0
	진보적	395	2.5	47.8	41.5	8.1	0.0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88	1.0	50.2	42.5	6.1	0.2	100.0
	보수적	217	2.3	53.5	37.3	6.9	0.0	100.0
종교	불교	207	1.9	43.5	44.0	10.6	0.0	100.0
	기독교	220	1.4	58.6	36.4	3.6	0.0	100.0
	천주교	81	3.7	48.1	38.3	9.9	0.0	100.0
	기타	2	0.0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6	49.6	42.3	6.3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47.4	36.8	15.8	0.0	100.0

표46-4. 한반도 전쟁 시 주변 4국의 태도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국을	북한을	자국의	중립을	모름/	계	
		도울 것이다	도울 것이다	이익에 따른 것이다	지킬 것이다	무응답		
		%	%	%	%	%	%	
전 체	1200	2.2	23.8	57.8	16.2	0.1	100.0	
성별	남자	615	2.8	24.2	58.2	14.6	0.2	100.0
	여자	585	1.5	23.4	57.3	17.8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3.2	24.0	58.8	14.0	0.0	100.0
	30대	221	1.8	21.7	60.2	16.3	0.0	100.0
	40대	252	3.2	23.0	59.5	14.3	0.0	100.0
	50대	262	1.1	26.3	55.3	17.2	0.0	100.0
	60대 이상	244	1.6	23.8	55.3	18.9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17.9	59.8	19.7	0.0	100.0
	고졸	485	1.2	23.7	55.9	19.0	0.2	100.0
	대재 이상	594	2.9	25.1	58.8	13.3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75.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7.1	71.4	14.3	0.0	100.0
	자영업	294	0.3	21.4	58.2	20.1	0.0	100.0
	블루 칼라	337	1.5	25.2	56.1	16.9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3.8	24.6	58.0	13.6	0.0	100.0
	전업 주부	168	1.8	25.0	57.1	16.1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9	24.4	60.2	10.6	0.0	100.0
	200만원 미만	86	4.7	20.9	55.8	18.6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7	28.0	48.9	19.9	0.5	100.0
	300~399 만원	333	1.8	25.5	58.3	14.4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1.8	22.0	60.5	15.6	0.0	100.0
	수도권	508	1.8	26.2	54.7	17.3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0.6	29.7	61.9	7.1	0.6	100.0
	호남권	143	4.2	18.2	59.4	18.2	0.0	100.0
	영남권	318	1.6	22.0	58.5	17.9	0.0	100.0
	강원	44	9.1	11.4	61.4	18.2	0.0	100.0
	제주	32	3.1	18.8	65.6	12.5	0.0	100.0
	대도시	544	1.3	26.3	56.4	16.0	0.0	100.0
	중/소도시	561	3.0	21.2	58.3	17.3	0.2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5	2.1	25.3	62.1	10.5	0.0	100.0
	진보적	395	2.5	25.6	56.2	15.7	0.0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88	1.4	22.4	59.7	16.3	0.2	100.0
	보수적	217	3.7	24.4	55.3	16.6	0.0	100.0
종교	불교	207	3.4	20.8	54.6	21.3	0.0	100.0
	기독교	220	3.2	28.2	53.6	15.0	0.0	100.0
	천주교	81	1.2	21.0	64.2	13.6	0.0	100.0
	기타	2	0.0	0.0	10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6	23.8	59.5	14.9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47.4	31.6	0.0	100.0

표47-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㉞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6	43.7	52.3	39.9	7.8	47.8	100.0
성별								
남자	615	8.5	42.3	50.7	40.2	9.1	49.3	100.0
여자	585	8.7	45.1	53.8	39.7	6.5	46.2	100.0
연령별								
19~29세	221	8.6	40.3	48.9	44.3	6.8	51.1	100.0
30대	221	6.3	44.3	50.7	43.0	6.3	49.3	100.0
40대	252	7.5	44.0	51.6	39.7	8.7	48.4	100.0
50대	262	9.2	45.8	55.0	38.9	6.1	45.0	100.0
60대 이상	244	11.1	43.4	54.5	34.4	11.1	45.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3.7	38.5	52.1	38.5	9.4	47.9	100.0
고졸	485	8.2	46.0	54.2	39.0	6.8	45.8	100.0
대재 이상	594	7.9	42.8	50.7	41.1	8.2	49.3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28.6	42.9	50.0	7.1	57.1	100.0
자영업	294	6.5	45.2	51.7	40.5	7.8	48.3	100.0
블루 칼라	337	9.8	46.9	56.7	36.2	7.1	43.3	100.0
화이트 칼라	264	8.3	41.7	50.0	41.3	8.7	50.0	100.0
전업 주부	168	10.7	41.1	51.8	40.5	7.7	48.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7.3	40.7	48.0	43.9	8.1	52.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40.7	54.7	37.2	8.1	45.3	100.0
200~299 만원	186	10.2	43.0	53.2	38.2	8.6	46.8	100.0
300~399 만원	333	9.9	44.1	54.1	40.5	5.4	45.9	100.0
400만원 이상	595	6.6	44.0	50.6	40.5	8.9	49.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6.1	50.8	56.9	37.4	5.7	43.1	100.0
충청권	155	14.2	35.5	49.7	38.1	12.3	50.3	100.0
호남권	143	8.4	37.1	45.5	42.7	11.9	54.5	100.0
영남권	318	8.8	39.9	48.7	43.4	7.9	51.3	100.0
강원	44	6.8	36.4	43.2	52.3	4.5	56.8	100.0
제주	32	21.9	46.9	68.8	25.0	6.3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6	44.7	49.3	43.4	7.4	50.7	100.0
중/소도시	561	12.3	44.7	57.0	38.1	4.8	43.0	100.0
읍/면	95	9.5	31.6	41.1	30.5	28.4	58.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8.4	40.8	49.1	42.0	8.9	50.9	100.0
중도	588	8.2	43.9	52.0	40.3	7.7	48.0	100.0
보수적	217	10.1	48.4	58.5	35.0	6.5	41.5	100.0
종교								
불교	207	11.6	40.6	52.2	40.1	7.7	47.8	100.0
기독교	220	11.4	41.8	53.2	42.3	4.5	46.8	100.0
천주교	81	6.2	58.0	64.2	27.2	8.6	35.8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7.2	44.0	51.1	40.4	8.5	48.9	100.0
모름/무응답	19	5.3	31.6	36.8	47.4	15.8	63.2	100.0

표47-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㉟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3	8.8	10.0	57.3	32.7	90.0	100.0
성별								
남자	615	1.3	8.0	9.3	55.9	34.8	90.7	100.0
여자	585	1.2	9.6	10.8	58.8	30.4	89.2	100.0
연령별								
19~29세	221	0.5	14.0	14.5	58.4	27.1	85.5	100.0
30대	221	0.5	9.0	9.5	62.0	28.5	90.5	100.0
40대	252	2.4	6.7	9.1	55.2	35.7	90.9	100.0
50대	262	1.5	6.9	8.4	55.7	35.9	91.6	100.0
60대 이상	244	1.2	7.8	9.0	56.1	34.8	9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12.8	15.4	52.1	32.5	84.6	100.0
고졸	485	1.0	7.2	8.2	60.0	31.8	91.8	100.0
대재 이상	594	1.2	9.1	10.3	56.1	33.7	89.7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8.6	28.6	57.1	14.3	71.4	100.0
자영업	294	1.4	3.4	4.8	61.9	33.3	95.2	100.0
블루 칼라	337	0.9	11.6	12.5	55.8	31.8	87.5	100.0
화이트 칼라	264	1.1	7.6	8.7	51.9	39.4	91.3	100.0
전업 주부	168	2.4	10.7	13.1	53.0	33.9	86.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11.4	12.2	68.3	19.5	87.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0.0	9.3	9.3	62.8	27.9	90.7	100.0
200~299 만원	186	1.6	10.8	12.4	52.7	34.9	87.6	100.0
300~399 만원	333	1.5	9.9	11.4	60.7	27.9	88.6	100.0
400만원 이상	595	1.2	7.4	8.6	56.1	35.3	91.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8	7.5	9.3	56.5	34.3	90.7	100.0
충청권	155	1.3	17.4	18.7	52.9	28.4	81.3	100.0
호남권	143	0.7	7.0	7.7	55.9	36.4	92.3	100.0
영남권	318	0.6	6.0	6.6	61.6	31.8	93.4	100.0
강원	44	0.0	13.6	13.6	54.5	31.8	86.4	100.0
제주	32	3.1	15.6	18.8	59.4	21.9	8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9	4.6	5.5	54.0	40.4	94.5	100.0
중/소도시	561	1.4	12.7	14.1	63.3	22.6	85.9	100.0
읍/면	95	2.1	9.5	11.6	41.1	47.4	88.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8	10.1	10.9	53.9	35.2	89.1	100.0
중도	588	1.2	8.0	9.2	58.3	32.5	90.8	100.0
보수적	217	2.3	8.3	10.6	60.8	28.6	89.4	100.0
종교								
불교	207	1.9	11.1	13.0	53.6	33.3	87.0	100.0
기독교	220	1.4	6.4	7.7	58.6	33.6	92.3	100.0
천주교	81	1.2	14.8	16.0	49.4	34.6	84.0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1.0	8.0	9.1	59.0	31.9	90.9	100.0
모름/무응답	19	0.0	10.5	10.5	57.9	31.6	89.5	100.0

표47-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0.9	10.6	11.5	58.6	29.9	88.5	100.0
성별								
남자	615	0.8	10.9	11.7	57.4	30.9	88.3	100.0
여자	585	1.0	10.3	11.3	59.8	28.9	88.7	100.0
연령별								
19~29세	221	0.9	12.7	13.6	61.5	24.9	86.4	100.0
30대	221	0.5	10.4	10.9	60.6	28.5	89.1	100.0
40대	252	1.2	9.5	10.7	56.0	33.3	89.3	100.0
50대	262	0.4	13.0	13.4	56.1	30.5	86.6	100.0
60대 이상	244	1.6	7.4	9.0	59.4	31.6	91.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6.0	9.4	65.0	25.6	90.6	100.0
고졸	485	0.2	13.2	13.4	56.7	29.9	86.6	100.0
대재 이상	594	1.0	9.3	10.3	59.1	30.6	89.7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25.0	50.0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8.6	28.6	50.0	21.4	71.4	100.0
자영업	294	0.7	6.5	7.1	62.2	30.6	92.9	100.0
블루 칼라	337	0.6	16.3	16.9	54.9	28.2	83.1	100.0
화이트 칼라	264	0.8	7.6	8.3	58.3	33.3	91.7	100.0
전업 주부	168	1.2	10.1	11.3	56.5	32.1	88.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9.8	12.2	64.2	23.6	87.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	9.3	10.5	60.5	29.1	89.5	100.0
200~299 만원	186	2.7	11.3	14.0	58.1	28.0	86.0	100.0
300~399 만원	333	1.2	12.0	13.2	58.9	27.9	86.8	100.0
400만원 이상	595	0.2	9.7	9.9	58.3	31.8	90.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0	6.3	7.3	59.8	32.9	92.7	100.0
충청권	155	0.6	17.4	18.1	53.5	28.4	81.9	100.0
호남권	143	2.1	16.1	18.2	59.4	22.4	81.8	100.0
영남권	318	0.3	9.7	10.1	58.5	31.4	89.9	100.0
강원	44	0.0	15.9	15.9	59.1	25.0	84.1	100.0
제주	32	3.1	21.9	25.0	59.4	15.6	7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2	7.4	7.5	57.4	35.1	92.5	100.0
중/소도시	561	1.6	13.4	15.0	62.0	23.0	85.0	100.0
읍/면	95	1.1	12.6	13.7	45.3	41.1	8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8	14.7	15.4	59.2	25.3	84.6	100.0
중도	588	0.9	7.8	8.7	59.0	32.3	91.3	100.0
보수적	217	1.4	10.6	12.0	56.2	31.8	88.0	100.0
종교								
불교	207	2.9	11.1	14.0	54.6	31.4	86.0	100.0
기독교	220	0.5	8.6	9.1	62.7	28.2	90.9	100.0
천주교	81	0.0	9.9	9.9	58.0	32.1	90.1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0.6	11.0	11.6	58.4	30.0	88.4	100.0
모름/무응답	19	0.0	15.8	15.8	63.2	21.1	84.2	100.0

표47-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㉔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1	14.4	15.5	62.4	22.1	84.5	100.0
성별								
남자	615	1.1	13.8	15.0	62.6	22.4	85.0	100.0
여자	585	1.0	15.0	16.1	62.2	21.7	83.9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	16.7	18.6	62.4	19.0	81.4	100.0
30대	221	0.5	13.6	14.0	64.7	21.3	86.0	100.0
40대	252	1.2	14.3	15.5	59.9	24.6	84.5	100.0
50대	262	0.8	14.9	15.6	63.7	20.6	84.4	100.0
60대 이상	244	1.2	12.7	13.9	61.5	24.6	8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8.5	11.1	65.0	23.9	88.9	100.0
고졸	485	0.8	17.3	18.1	59.0	22.9	81.9	100.0
대재 이상	594	1.0	13.0	14.0	65.0	21.0	86.0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21.4	21.4	64.3	14.3	78.6	100.0
자영업	294	0.0	10.2	10.2	66.3	23.5	89.8	100.0
블루 칼라	337	1.2	20.2	21.4	58.8	19.9	78.6	100.0
화이트 칼라	264	1.1	12.5	13.6	62.9	23.5	86.4	100.0
전업 주부	168	0.6	13.7	14.3	60.1	25.6	85.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13.0	17.1	65.0	17.9	82.9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	16.3	17.4	57.0	25.6	82.6	100.0
200~299 만원	186	2.7	15.1	17.7	57.0	25.3	82.3	100.0
300~399 만원	333	0.9	15.6	16.5	62.2	21.3	83.5	100.0
400만원 이상	595	0.7	13.3	13.9	65.0	21.0	86.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0.8	11.0	11.8	66.7	21.5	88.2	100.0
충청권	155	0.6	17.4	18.1	54.8	27.1	81.9	100.0
호남권	143	3.5	22.4	25.9	51.7	22.4	74.1	100.0
영남권	318	0.9	13.2	14.2	63.8	22.0	85.8	100.0
강원	44	0.0	22.7	22.7	65.9	11.4	77.3	100.0
제주	32	0.0	18.8	18.8	59.4	21.9	8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6	12.9	13.4	62.7	23.9	86.6	100.0
중/소도시	561	1.8	15.5	17.3	64.2	18.5	82.7	100.0
읍/면	95	0.0	16.8	16.8	50.5	32.6	8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5	20.8	21.3	60.8	18.0	78.7	100.0
중도	588	1.2	10.9	12.1	64.1	23.8	87.9	100.0
보수적	217	1.8	12.4	14.3	60.8	24.9	85.7	100.0
종교								
불교	207	1.9	16.4	18.4	60.4	21.3	81.6	100.0
기독교	220	2.3	10.9	13.2	68.2	18.6	86.8	100.0
천주교	81	0.0	18.5	18.5	63.0	18.5	81.5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0.6	14.5	15.1	61.0	24.0	84.9	100.0
모름/무응답	19	0.0	15.8	15.8	68.4	15.8	84.2	100.0

표48-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5.7	41.1	96.8	3.1	0.2	3.3	100.0
성별								
남자	615	57.9	38.4	96.3	3.6	0.2	3.7	100.0
여자	585	53.3	43.9	97.3	2.6	0.2	2.7	100.0
연령별								
19~29세	221	57.5	38.0	95.5	3.6	0.9	4.5	100.0
30대	221	57.9	37.6	95.5	4.5	0.0	4.5	100.0
40대	252	53.6	43.3	96.8	3.2	0.0	3.2	100.0
50대	262	53.8	43.5	97.3	2.7	0.0	2.7	100.0
60대 이상	244	56.1	42.2	98.4	1.6	0.0	1.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3.8	45.3	99.1	0.9	0.0	0.9	100.0
고졸	485	53.4	43.1	96.5	3.5	0.0	3.5	100.0
대재 이상	594	58.1	38.4	96.5	3.2	0.3	3.5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50.0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56.1	41.2	97.3	2.7	0.0	2.7	100.0
블루 칼라	337	56.1	40.7	96.7	3.3	0.0	3.3	100.0
화이트 칼라	264	61.7	35.2	97.0	3.0	0.0	3.0	100.0
전업 주부	168	48.8	48.8	97.6	2.4	0.0	2.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1.2	43.1	94.3	4.1	1.6	5.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53.5	43.0	96.5	3.5	0.0	3.5	100.0
200~299 만원	186	53.2	44.1	97.3	2.7	0.0	2.7	100.0
300~399 만원	333	54.7	40.8	95.5	4.5	0.0	4.5	100.0
400만원 이상	595	57.3	40.0	97.3	2.4	0.3	2.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65.4	32.7	98.0	1.8	0.2	2.0	100.0
충청권	155	58.1	39.4	97.4	1.9	0.6	2.6	100.0
호남권	143	54.5	42.0	96.5	3.5	0.0	3.5	100.0
영남권	318	40.3	54.7	95.0	5.0	0.0	5.0	100.0
강원	44	45.5	52.3	97.7	2.3	0.0	2.3	100.0
제주	32	62.5	28.1	90.6	9.4	0.0	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62.3	35.1	97.4	2.4	0.2	2.6	100.0
중/소도시	561	50.1	46.5	96.6	3.2	0.2	3.4	100.0
읍/면	95	50.5	43.2	93.7	6.3	0.0	6.3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5.7	40.0	95.7	4.1	0.3	4.3	100.0
중도	588	57.0	39.6	96.6	3.2	0.2	3.4	100.0
보수적	217	52.1	47.0	99.1	0.9	0.0	0.9	100.0
종교								
불교	207	47.8	47.8	95.7	4.3	0.0	4.3	100.0
기독교	220	60.5	37.3	97.7	2.3	0.0	2.3	100.0
천주교	81	56.8	39.5	96.3	3.7	0.0	3.7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7.1	39.6	96.7	3.0	0.3	3.3	100.0
모름/무응답	19	31.6	68.4	100.0	0.0	0.0	0.0	100.0

표48-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1	44.6	52.7	37.7	9.7	47.3	100.0
성별								
남자	615	7.8	44.6	52.4	36.9	10.7	47.6	100.0
여자	585	8.4	44.6	53.0	38.5	8.5	47.0	100.0
연령별								
19~29세	221	7.7	46.6	54.3	38.5	7.2	45.7	100.0
30대	221	7.2	43.4	50.7	37.6	11.8	49.3	100.0
40대	252	9.1	44.8	54.0	36.5	9.5	46.0	100.0
50대	262	8.8	44.7	53.4	37.0	9.5	46.6	100.0
60대 이상	244	7.4	43.4	50.8	38.9	10.2	49.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49.6	58.1	34.2	7.7	41.9	100.0
고졸	485	7.2	42.7	49.9	41.4	8.7	50.1	100.0
대재 이상	594	8.8	45.1	53.9	35.2	10.9	46.1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7.1	78.6	14.3	7.1	21.4	100.0
자영업	294	8.8	48.0	56.8	34.7	8.5	43.2	100.0
블루 칼라	337	7.7	41.2	49.0	41.8	9.2	51.0	100.0
화이트 칼라	264	9.5	40.5	50.0	37.5	12.5	50.0	100.0
전업 주부	168	3.6	46.4	50.0	40.5	9.5	5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50.4	59.3	32.5	8.1	40.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0.5	45.3	55.8	34.9	9.3	44.2	100.0
200~299 만원	186	7.0	48.4	55.4	35.5	9.1	44.6	100.0
300~399 만원	333	10.5	40.8	51.4	40.2	8.4	48.6	100.0
400만원 이상	595	6.7	45.4	52.1	37.3	10.6	47.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9.3	43.1	52.4	36.8	10.8	47.6	100.0
충청권	155	8.4	50.3	58.7	34.8	6.5	41.3	100.0
호남권	143	4.9	40.6	45.5	41.3	13.3	54.5	100.0
영남권	318	5.7	43.1	48.7	42.5	8.8	51.3	100.0
강원	44	13.6	61.4	75.0	15.9	9.1	25.0	100.0
제주	32	18.8	50.0	68.8	31.3	0.0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7.5	43.4	50.9	36.4	12.7	49.1	100.0
중/소도시	561	8.6	44.6	53.1	40.5	6.4	46.9	100.0
읍/면	95	8.4	51.6	60.0	28.4	11.6	4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7.3	40.5	47.8	40.5	11.6	52.2	100.0
중도	588	8.2	45.7	53.9	37.2	8.8	46.1	100.0
보수적	217	9.2	48.8	58.1	33.6	8.3	41.9	100.0
종교								
불교	207	10.1	44.4	54.6	34.8	10.6	45.4	100.0
기독교	220	7.3	45.9	53.2	37.3	9.5	46.8	100.0
천주교	81	11.1	49.4	60.5	28.4	11.1	39.5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7.3	44.3	51.6	39.5	8.9	48.4	100.0
모름/무응답	19	10.5	21.1	31.6	47.4	21.1	68.4	100.0

표48-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㉔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5.8	55.7	81.5	14.0	4.5	18.5	100.0
성별								
남자	615	27.2	53.8	81.0	15.0	4.1	19.0	100.0
여자	585	24.4	57.6	82.1	13.0	5.0	17.9	100.0
연령별								
19~29세	221	22.6	57.0	79.6	15.4	5.0	20.4	100.0
30대	221	23.5	58.4	81.9	12.7	5.4	18.1	100.0
40대	252	28.2	56.3	84.5	11.9	3.6	15.5	100.0
50대	262	28.6	53.4	82.1	13.4	4.6	17.9	100.0
60대 이상	244	25.4	53.7	79.1	16.8	4.1	20.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3.1	53.0	76.1	14.5	9.4	23.9	100.0
고졸	485	26.4	55.7	82.1	14.8	3.1	17.9	100.0
대재 이상	594	26.1	55.9	82.0	13.3	4.7	18.0	100.0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57.1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30.6	54.4	85.0	12.2	2.7	15.0	100.0
블루 칼라	337	24.0	56.4	80.4	14.2	5.3	19.6	100.0
화이트 칼라	264	26.9	54.2	81.1	15.9	3.0	18.9	100.0
전업 주부	168	21.4	59.5	81.0	13.1	6.0	19.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3.6	54.5	78.0	13.8	8.1	22.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0.9	60.5	81.4	14.0	4.7	18.6	100.0
200~299 만원	186	28.0	53.8	81.7	13.4	4.8	18.3	100.0
300~399 만원	333	26.4	51.7	78.1	17.1	4.8	21.9	100.0
400만원 이상	595	25.5	57.8	83.4	12.4	4.2	16.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5.8	57.3	83.1	12.8	4.1	16.9	100.0
충청권	155	32.9	45.2	78.1	14.8	7.1	21.9	100.0
호남권	143	24.5	55.9	80.4	16.1	3.5	19.6	100.0
영남권	318	21.4	57.5	78.9	16.0	5.0	21.1	100.0
강원	44	34.1	59.1	93.2	4.5	2.3	6.8	100.0
제주	32	31.3	56.3	87.5	12.5	0.0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9.0	56.4	85.5	12.5	2.0	14.5	100.0
중/소도시	561	21.0	56.5	77.5	15.3	7.1	22.5	100.0
읍/면	95	35.8	46.3	82.1	14.7	3.2	1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3.8	62.5	86.3	10.6	3.0	13.7	100.0
중도	588	25.9	52.4	78.2	16.7	5.1	21.8	100.0
보수적	217	29.5	52.1	81.6	12.9	5.5	18.4	100.0
종교								
불교	207	28.5	52.7	81.2	14.0	4.8	18.8	100.0
기독교	220	25.5	58.2	83.6	11.4	5.0	16.4	100.0
천주교	81	24.7	59.3	84.0	13.6	2.5	16.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5.6	55.3	80.9	14.6	4.5	19.1	100.0
모름/무응답	19	15.8	52.6	68.4	26.3	5.3	31.6	100.0

표48-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㉕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8.9	57.0	65.9	29.8	4.3	34.1	100.0
성별								
남자	615	9.6	56.7	66.3	29.8	3.9	33.7	100.0
여자	585	8.2	57.3	65.5	29.9	4.6	34.5	100.0
연령별								
19~29세	221	6.3	57.0	63.3	29.4	7.2	36.7	100.0
30대	221	7.2	60.6	67.9	28.1	4.1	32.1	100.0
40대	252	10.7	57.5	68.3	29.8	2.0	31.7	100.0
50대	262	10.3	54.6	64.9	29.8	5.3	35.1	100.0
60대 이상	244	9.4	55.7	65.2	32.0	2.9	3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0	56.4	62.4	31.6	6.0	37.6	100.0
고졸	485	8.7	56.5	65.2	30.7	4.1	34.8	100.0
대재 이상	594	9.8	57.4	67.2	28.8	4.0	32.8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42.9	57.1	42.9	0.0	42.9	100.0
자영업	294	10.9	57.8	68.7	28.2	3.1	31.3	100.0
블루 칼라	337	7.7	57.9	65.6	28.8	5.6	34.4	100.0
화이트 칼라	264	10.2	58.0	68.2	29.2	2.7	31.8	100.0
전업 주부	168	4.8	58.3	63.1	32.7	4.2	36.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9.8	50.4	60.2	32.5	7.3	3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1	54.7	62.8	31.4	5.8	37.2	100.0
200~299 만원	186	8.6	57.0	65.6	30.6	3.8	34.4	100.0
300~399 만원	333	12.6	52.6	65.2	30.3	4.5	34.8	100.0
400만원 이상	595	7.1	59.8	66.9	29.1	4.0	33.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9.3	56.1	65.4	31.9	2.8	34.6	100.0
충청권	155	10.3	58.7	69.0	21.3	9.7	31.0	100.0
호남권	143	6.3	65.0	71.3	25.9	2.8	28.7	100.0
영남권	318	6.6	54.1	60.7	34.3	5.0	39.3	100.0
강원	44	20.5	63.6	84.1	11.4	4.5	15.9	100.0
제주	32	15.6	46.9	62.5	37.5	0.0	37.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8.5	59.9	68.4	28.3	3.3	31.6	100.0
중/소도시	561	9.4	53.8	63.3	31.4	5.3	36.7	100.0
읍/면	95	8.4	58.9	67.4	29.5	3.2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8	66.1	72.9	23.8	3.3	27.1	100.0
중도	588	9.2	52.2	61.4	34.5	4.1	38.6	100.0
보수적	217	12.0	53.5	65.4	28.1	6.5	34.6	100.0
종교								
불교	207	10.6	58.0	68.6	28.0	3.4	31.4	100.0
기독교	220	8.2	62.7	70.9	25.9	3.2	29.1	100.0
천주교	81	7.4	61.7	69.1	29.6	1.2	30.9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8.8	54.8	63.6	31.4	4.9	36.4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6.8	47.4	36.8	15.8	52.6	100.0

표49.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 간 협력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중요하다	계
		%	%	%	%	%
전 체	1200	28.8	34.5	2.0	34.7	100.0
성별						
남자	615	30.6	34.8	1.8	32.8	100.0
여자	585	27.0	34.2	2.2	36.6	100.0
연령별						
19~29세	221	26.2	32.1	3.2	38.5	100.0
30대	221	29.9	33.5	1.8	34.8	100.0
40대	252	33.7	34.5	2.0	29.8	100.0
50대	262	25.6	34.4	1.5	38.5	100.0
60대 이상	244	28.7	37.7	1.6	3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4.8	35.9	1.7	37.6	100.0
고졸	485	26.0	36.1	1.9	36.1	100.0
대재 이상	594	31.6	33.0	2.2	33.2	100.0
모름/무응답	4	75.0	25.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35.7	7.1	21.4	100.0
자영업	294	29.9	35.7	1.0	33.3	100.0
블루 칼라	337	25.8	35.0	2.4	36.8	100.0
화이트 칼라	264	34.1	31.4	1.9	32.6	100.0
전업 주부	168	23.2	38.7	1.8	36.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0.1	30.9	3.3	35.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5.6	41.9	2.3	30.2	100.0
200~299 만원	186	25.8	39.8	1.6	32.8	100.0
300~399 만원	333	26.1	31.5	3.3	39.0	100.0
400만원 이상	595	31.8	33.4	1.3	33.4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2.2	43.3	1.4	33.1	100.0
충청권	155	32.3	27.7	1.3	38.7	100.0
호남권	143	43.4	27.3	1.4	28.0	100.0
영남권	318	28.6	29.9	3.8	37.7	100.0
강원	44	34.1	22.7	2.3	40.9	100.0
제주	32	46.9	21.9	0.0	31.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3.3	33.8	1.8	41.0	100.0
중/소도시	561	33.0	33.7	1.8	31.6	100.0
읍/면	95	35.8	43.2	4.2	1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3.9	29.6	1.5	34.9	100.0
중도	588	27.2	35.9	2.6	34.4	100.0
보수적	217	24.0	39.6	1.4	35.0	100.0
종교						
불교	207	21.7	37.7	2.9	37.7	100.0
기독교	220	33.6	30.5	1.4	34.5	100.0
천주교	81	27.2	39.5	2.5	30.9	100.0
기타	2	50.0	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30.0	34.6	1.9	33.5	100.0
모름/무응답	19	15.8	26.3	0.0	57.9	100.0

표50. 북한비핵화를 위한 한미와 한중협력

문) ○○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모두 강화해야 한다	계
		%	%	%	%
전 체	1200	45.8	6.7	47.6	100.0
성별					
남자	615	48.3	6.2	45.5	100.0
여자	585	43.1	7.2	49.7	100.0
연령별					
19~29세	221	47.5	6.8	45.7	100.0
30대	221	43.4	7.7	48.9	100.0
40대	252	44.0	6.7	49.2	100.0
50대	262	45.8	7.6	46.6	100.0
60대 이상	244	48.0	4.5	47.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7.0	6.8	46.2	100.0
고졸	485	43.5	6.6	49.9	100.0
대재 이상	594	47.3	6.6	46.1	100.0
모름/무응답	4	50.0	25.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21.4	50.0	100.0
자영업	294	47.6	5.4	46.9	100.0
블루 칼라	337	41.2	7.7	51.0	100.0
화이트 칼라	264	48.1	6.4	45.5	100.0
전업 주부	168	44.6	7.1	48.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2.0	4.9	43.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51.2	4.7	44.2	100.0
200~299 만원	186	54.8	5.4	39.8	100.0
300~399 만원	333	40.8	7.2	52.0	100.0
400만원 이상	595	44.9	7.1	48.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2.2	5.3	42.5	100.0
충청권	155	43.2	5.8	51.0	100.0
호남권	143	37.8	9.1	53.1	100.0
영남권	318	41.8	7.9	50.3	100.0
강원	44	34.1	6.8	59.1	100.0
제주	32	46.9	9.4	43.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3.2	5.7	51.1	100.0
중/소도시	561	46.5	6.8	46.7	100.0
읍/면	95	55.8	11.6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1.3	10.4	48.4	100.0
중도	588	46.3	4.6	49.1	100.0
보수적	217	52.5	5.5	41.9	100.0
종교					
불교	207	44.4	7.2	48.3	100.0
기독교	220	50.5	3.2	46.4	100.0
천주교	81	42.0	11.1	46.9	100.0
기타	2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45.9	7.3	46.8	100.0
모름/무응답	19	15.8	0.0	84.2	100.0

표5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 평화

문) ○○님은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②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③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이다	④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⑤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④+⑤	계		
		%	%	%	%	%	%	%		
전 체	1200	3.1	26.8	29.8	34.3	28.1	7.8	35.9	100.0	
성별	남자	615	2.9	26.0	28.9	35.4	27.0	8.6	35.6	100.0
	여자	585	3.2	27.5	30.8	33.0	29.2	7.0	36.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	27.6	29.4	34.8	27.6	8.1	35.7	100.0
	30대	221	2.7	26.2	29.0	38.0	25.3	7.7	33.0	100.0
	40대	252	4.4	25.4	29.8	34.1	28.6	7.5	36.1	100.0
	50대	262	4.2	26.7	30.9	32.4	29.4	7.3	36.6	100.0
	60대 이상	244	2.0	27.9	29.9	32.4	29.1	8.6	37.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25.6	29.1	37.6	29.9	3.4	33.3	100.0
	고졸	485	3.1	29.1	32.2	35.1	26.8	6.0	32.8	100.0
	대재 이상	594	3.0	24.9	27.9	32.8	29.0	10.3	39.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7.1	28.6	35.7	57.1	0.0	7.1	7.1	100.0
	자영업	294	4.1	18.0	22.1	34.0	35.7	8.2	43.9	100.0
	블루 칼라	337	3.6	30.3	33.8	32.9	26.1	7.1	33.2	100.0
	화이트 칼라	264	2.7	29.5	32.2	30.3	28.8	8.7	37.5	100.0
	전업 주부	168	2.4	30.4	32.7	35.7	21.4	10.1	31.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26.8	27.6	42.3	26.0	4.1	30.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5.8	26.7	32.6	30.2	26.7	10.5	37.2	100.0
	200~299 만원	186	3.2	24.2	27.4	42.5	23.7	6.5	30.1	100.0
	300~399 만원	333	2.4	25.8	28.2	33.3	30.3	8.1	38.4	100.0
	400만원 이상	595	3.0	28.1	31.1	32.8	28.4	7.7	36.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6	26.8	29.3	34.6	27.0	9.1	36.0	100.0
	충청권	155	1.9	27.1	29.0	30.3	32.3	8.4	40.6	100.0
	호남권	143	4.9	43.4	48.3	28.0	22.4	1.4	23.8	100.0
	영남권	318	3.5	21.7	25.2	35.5	30.5	8.8	39.3	100.0
	강원	44	4.5	15.9	20.5	40.9	31.8	6.8	38.6	100.0
	제주	32	3.1	15.6	18.8	53.1	21.9	6.3	28.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	28.9	31.3	26.8	30.3	11.6	41.9	100.0
	중/소도시	561	2.9	26.2	29.1	40.3	26.0	4.6	30.7	100.0
	읍/면	95	8.4	17.9	26.3	41.1	27.4	5.3	3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3	31.6	37.0	28.1	29.9	5.1	34.9	100.0
	중도	588	2.0	27.4	29.4	35.7	26.4	8.5	34.9	100.0
	보수적	217	1.8	16.1	18.0	41.5	29.5	11.1	40.6	100.0
종교	불교	207	5.3	25.6	30.9	32.4	29.0	7.7	36.7	100.0
	기독교	220	1.4	27.3	28.6	27.7	33.6	10.0	43.6	100.0
	천주교	81	2.5	30.9	33.3	29.6	24.7	12.3	37.0	100.0
	기타	2	0.0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3.1	26.7	29.8	37.4	26.1	6.7	32.8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21.1	42.1	36.8	0.0	36.8	100.0

표52. 미중 갈등 시 한국의 입장

문) ○○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립을 지켜야 한다	모름/무응답	계	
		%	%	%	%	%	
전 체	1200	41.8	6.7	51.4	0.1	100.0	
성별	남자	615	41.8	5.0	53.0	0.2	100.0
	여자	585	41.9	8.4	49.7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2	5.0	49.8	0.0	100.0
	30대	221	41.6	8.1	50.2	0.0	100.0
	40대	252	36.5	7.5	55.6	0.4	100.0
	50대	262	41.6	6.5	51.9	0.0	100.0
	60대 이상	244	44.7	6.1	49.2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3	6.0	42.7	0.0	100.0
	고졸	485	39.2	6.8	54.0	0.0	100.0
	대재 이상	594	42.1	6.4	51.3	0.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50.0	5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35.7	14.3	50.0	0.0	100.0
	자영업	294	43.9	5.8	50.3	0.0	100.0
	블루 칼라	337	38.3	7.1	54.6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39.8	7.6	52.3	0.4	100.0
	전업 주부	168	46.4	6.5	47.0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5.5	4.9	49.6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6.5	7.0	46.5	0.0	100.0
	200~299 만원	186	47.3	4.8	47.8	0.0	100.0
	300~399 만원	333	38.1	9.6	52.3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41.5	5.5	52.8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9.2	5.7	45.1	0.0	100.0
	충청권	155	42.6	7.1	49.7	0.6	100.0
	호남권	143	41.3	4.2	54.5	0.0	100.0
	영남권	318	33.6	9.1	57.2	0.0	100.0
	강원	44	25.0	2.3	72.7	0.0	100.0
	제주	32	28.1	12.5	59.4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9.2	4.2	56.6	0.0	100.0
	중/소도시	561	43.0	8.7	48.1	0.2	100.0
	읍/면	95	50.5	8.4	41.1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7.2	8.4	54.4	0.0	100.0
	중도	588	41.2	6.3	52.4	0.2	100.0
	보수적	217	52.1	4.6	43.3	0.0	100.0
종교	불교	207	38.2	8.2	53.6	0.0	100.0
	기독교	220	49.1	3.2	47.7	0.0	100.0
	천주교	81	35.8	14.8	49.4	0.0	100.0
	기타	2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1.7	6.6	51.6	0.1	100.0
	모름/무응답	19	26.3	0.0	73.7	0.0	100.0

표53-1.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㉞ 빈부격차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9.6	46.6	96.2	3.6	0.3	3.8	100.0
성별								
남자	615	49.6	47.0	96.6	3.4	0.0	3.4	100.0
여자	585	49.6	46.2	95.7	3.8	0.5	4.3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2	50.2	95.5	4.1	0.5	4.5	100.0
30대	221	52.5	43.0	95.5	4.5	0.0	4.5	100.0
40대	252	50.0	47.6	97.6	2.4	0.0	2.4	100.0
50대	262	51.5	44.7	96.2	3.4	0.4	3.8	100.0
60대 이상	244	48.4	47.5	95.9	3.7	0.4	4.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8.5	56.4	94.9	5.1	0.0	5.1	100.0
고졸	485	50.7	46.0	96.7	2.7	0.6	3.3	100.0
대재 이상	594	51.0	44.9	96.0	4.0	0.0	4.0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0.0	35.7	85.7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53.4	42.9	96.3	3.7	0.0	3.7	100.0
블루 칼라	337	49.3	47.8	97.0	2.7	0.3	3.0	100.0
화이트 칼라	264	50.8	45.8	96.6	3.4	0.0	3.4	100.0
전업 주부	168	45.2	48.8	94.0	4.8	1.2	6.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4.7	52.0	96.7	3.3	0.0	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3.0	48.8	91.9	7.0	1.2	8.1	100.0
200~299 만원	186	54.8	41.4	96.2	3.8	0.0	3.8	100.0
300~399 만원	333	47.1	49.8	97.0	3.0	0.0	3.0	100.0
400만원 이상	595	50.3	46.1	96.3	3.4	0.3	3.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3.5	42.9	96.5	3.1	0.4	3.5	100.0
충청권	155	49.0	49.0	98.1	1.9	0.0	1.9	100.0
호남권	143	42.7	53.1	95.8	4.2	0.0	4.2	100.0
영남권	318	45.6	48.7	94.3	5.3	0.3	5.7	100.0
강원	44	43.2	54.5	97.7	2.3	0.0	2.3	100.0
제주	32	68.8	31.3	100.0	0.0	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0.0	46.5	96.5	3.5	0.0	3.5	100.0
중/소도시	561	46.2	49.6	95.7	3.7	0.5	4.3	100.0
읍/면	95	67.4	29.5	96.8	3.2	0.0	3.2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3.2	43.8	97.0	3.0	0.0	3.0	100.0
중도	588	46.4	49.1	95.6	4.3	0.2	4.4	100.0
보수적	217	51.6	44.7	96.3	2.8	0.9	3.7	100.0
종교								
불교	207	47.8	48.3	96.1	3.9	0.0	3.9	100.0
기독교	220	52.7	45.0	97.7	1.8	0.5	2.3	100.0
천주교	81	45.7	48.1	93.8	4.9	1.2	6.2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0.1	46.3	96.4	3.4	0.1	3.6	100.0
모름/무응답	19	31.6	47.4	78.9	21.1	0.0	21.1	100.0

표53-2.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㉟ 부동산투기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45.4	42.1	87.5	11.8	0.7	12.5	100.0
성별								
남자	615	45.4	43.1	88.5	10.9	0.7	11.5	100.0
여자	585	45.5	41.0	86.5	12.8	0.7	13.5	100.0
연령별								
19~29세	221	41.2	47.5	88.7	10.4	0.9	11.3	100.0
30대	221	52.0	37.6	89.6	9.5	0.9	10.4	100.0
40대	252	47.2	41.3	88.5	11.1	0.4	11.5	100.0
50대	262	44.7	42.4	87.0	12.6	0.4	13.0	100.0
60대 이상	244	42.2	41.8	84.0	15.2	0.8	16.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0.2	44.4	84.6	13.7	1.7	15.4	100.0
고졸	485	43.9	42.3	86.2	13.6	0.2	13.8	100.0
대재 이상	594	47.8	41.2	89.1	10.1	0.8	10.9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7.1	42.9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44.9	44.6	89.5	9.9	0.7	10.5	100.0
블루 칼라	337	40.9	45.7	86.6	12.8	0.6	13.4	100.0
화이트 칼라	264	57.6	29.9	87.5	11.4	1.1	12.5	100.0
전업 주부	168	41.7	42.9	84.5	14.9	0.6	15.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6.6	51.2	87.8	12.2	0.0	12.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4.2	41.9	86.0	14.0	0.0	14.0	100.0
200~299 만원	186	39.8	46.2	86.0	12.4	1.6	14.0	100.0
300~399 만원	333	48.3	39.0	87.4	12.3	0.3	12.6	100.0
400만원 이상	595	45.7	42.5	88.2	11.1	0.7	11.8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2.6	35.0	87.6	11.4	1.0	12.4	100.0
충청권	155	41.9	45.2	87.1	12.9	0.0	12.9	100.0
호남권	143	40.6	45.5	86.0	12.6	1.4	14.0	100.0
영남권	318	40.3	47.5	87.7	11.9	0.3	12.3	100.0
강원	44	20.5	63.6	84.1	15.9	0.0	15.9	100.0
제주	32	56.3	40.6	96.9	3.1	0.0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9.4	38.8	88.2	11.0	0.7	11.8	100.0
중/소도시	561	40.8	45.1	85.9	13.5	0.5	14.1	100.0
읍/면	95	49.5	43.2	92.6	6.3	1.1	7.4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0.1	40.8	90.9	8.6	0.5	9.1	100.0
중도	588	43.5	43.0	86.6	12.9	0.5	13.4	100.0
보수적	217	41.9	41.9	83.9	14.7	1.4	16.1	100.0
종교								
불교	207	42.0	44.0	86.0	13.0	1.0	14.0	100.0
기독교	220	49.5	42.7	92.3	7.3	0.5	7.7	100.0
천주교	81	43.2	39.5	82.7	17.3	0.0	17.3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5.8	41.7	87.5	11.8	0.7	12.5	100.0
모름/무응답	19	26.3	42.1	68.4	31.6	0.0	31.6	100.0

표53-3.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실업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59.3	34.9	94.2	5.4	0.4	5.8	100.0
성별								
남자	615	59.2	35.8	95.0	4.4	0.7	5.0	100.0
여자	585	59.3	34.0	93.3	6.5	0.2	6.7	100.0
연령별								
19~29세	221	60.2	31.7	91.9	7.2	0.9	8.1	100.0
30대	221	60.2	33.5	93.7	5.9	0.5	6.3	100.0
40대	252	59.1	36.1	95.2	4.8	0.0	4.8	100.0
50대	262	57.3	38.5	95.8	3.8	0.4	4.2	100.0
60대 이상	244	59.8	34.0	93.9	5.7	0.4	6.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3.0	42.7	95.7	3.4	0.9	4.3	100.0
고졸	485	59.0	35.7	94.6	5.2	0.2	5.4	100.0
대재 이상	594	60.9	32.5	93.4	6.1	0.5	6.6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64.3	35.7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62.2	31.6	93.9	5.4	0.7	6.1	100.0
블루 칼라	337	59.1	36.5	95.5	4.2	0.3	4.5	100.0
화이트 칼라	264	62.9	29.9	92.8	6.8	0.4	7.2	100.0
전업 주부	168	46.4	48.2	94.6	4.8	0.6	5.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1.8	30.9	92.7	7.3	0.0	7.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61.6	32.6	94.2	5.8	0.0	5.8	100.0
200~299 만원	186	57.5	34.9	92.5	7.0	0.5	7.5	100.0
300~399 만원	333	60.7	33.9	94.6	5.1	0.3	5.4	100.0
400만원 이상	595	58.7	35.8	94.5	5.0	0.5	5.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2.0	40.9	92.9	6.5	0.6	7.1	100.0
충청권	155	71.0	24.5	95.5	4.5	0.0	4.5	100.0
호남권	143	55.9	39.2	95.1	4.2	0.7	4.9	100.0
영남권	318	64.8	30.5	95.3	4.4	0.3	4.7	100.0
강원	44	65.9	29.5	95.5	4.5	0.0	4.5	100.0
제주	32	68.8	21.9	90.6	9.4	0.0	9.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9.6	36.0	95.6	3.9	0.6	4.4	100.0
중/소도시	561	59.0	34.6	93.6	6.1	0.4	6.4	100.0
읍/면	95	58.9	30.5	89.5	10.5	0.0	10.5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4.4	37.0	91.4	7.8	0.8	8.6	100.0
중도	588	59.5	35.7	95.2	4.6	0.2	4.8	100.0
보수적	217	67.3	29.0	96.3	3.2	0.5	3.7	100.0
종교								
불교	207	63.3	29.5	92.8	6.8	0.5	7.2	100.0
기독교	220	58.6	37.3	95.9	3.6	0.5	4.1	100.0
천주교	81	50.6	43.2	93.8	6.2	0.0	6.2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9.2	34.9	94.0	5.5	0.4	6.0	100.0
모름/무응답	19	57.9	36.8	94.7	5.3	0.0	5.3	100.0

표53-4.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범죄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28.8	53.7	82.4	16.6	1.0	17.6	100.0
성별								
남자	615	26.3	54.0	80.3	18.2	1.5	19.7	100.0
여자	585	31.3	53.3	84.6	14.9	0.5	15.4	100.0
연령별								
19~29세	221	30.3	52.9	83.3	14.5	2.3	16.7	100.0
30대	221	29.9	55.2	85.1	13.6	1.4	14.9	100.0
40대	252	27.8	53.6	81.3	17.5	1.2	18.7	100.0
50대	262	28.6	52.3	80.9	19.1	0.0	19.1	100.0
60대 이상	244	27.5	54.5	82.0	17.6	0.4	1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5.6	58.1	83.8	15.4	0.9	16.2	100.0
고졸	485	28.2	54.2	82.5	17.5	0.0	17.5	100.0
대재 이상	594	30.0	52.2	82.2	16.0	1.9	17.8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35.7	57.1	9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29.6	50.0	79.6	18.7	1.7	20.4	100.0
블루 칼라	337	24.3	56.1	80.4	18.7	0.9	19.6	100.0
화이트 칼라	264	31.8	48.9	80.7	18.2	1.1	19.3	100.0
전업 주부	168	26.2	61.3	87.5	11.9	0.6	12.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5.0	55.3	90.2	9.8	0.0	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0.2	48.8	79.1	20.9	0.0	20.9	100.0
200~299 만원	186	26.3	55.4	81.7	17.7	0.5	18.3	100.0
300~399 만원	333	25.5	55.6	81.1	18.9	0.0	18.9	100.0
400만원 이상	595	31.1	52.8	83.9	14.3	1.8	16.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1.7	53.9	85.6	13.6	0.8	14.4	100.0
충청권	155	21.3	60.0	81.3	17.4	1.3	18.7	100.0
호남권	143	30.1	53.8	83.9	15.4	0.7	16.1	100.0
영남권	318	26.4	53.8	80.2	18.2	1.6	19.8	100.0
강원	44	13.6	45.5	59.1	40.9	0.0	40.9	100.0
제주	32	56.3	28.1	84.4	15.6	0.0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8.1	57.9	86.0	12.7	1.3	14.0	100.0
중/소도시	561	29.4	50.1	79.5	19.6	0.9	20.5	100.0
읍/면	95	28.4	50.5	78.9	21.1	0.0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3.5	55.7	79.2	18.7	2.0	20.8	100.0
중도	588	32.8	50.9	83.7	16.0	0.3	16.3	100.0
보수적	217	27.2	57.6	84.8	14.3	0.9	15.2	100.0
종교								
불교	207	30.9	48.3	79.2	19.8	1.0	20.8	100.0
기독교	220	29.1	54.5	83.6	16.4	0.0	16.4	100.0
천주교	81	30.9	54.3	85.2	14.8	0.0	14.8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28.3	54.8	83.2	15.4	1.5	16.8	100.0
모름/무응답	19	10.5	57.9	68.4	31.6	0.0	31.6	100.0

표53-5.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지역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전 체	1200	18.7	46.7	65.3	32.8	1.8	34.7	100.0	
성별	남자	615	19.5	46.3	65.9	32.4	1.8	34.1	100.0
	여자	585	17.8	47.0	64.8	33.3	1.9	35.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6	48.9	62.4	34.8	2.7	37.6	100.0
	30대	221	20.8	46.2	67.0	31.2	1.8	33.0	100.0
	40대	252	21.8	47.6	69.4	29.0	1.6	30.6	100.0
	50대	262	16.4	48.1	64.5	34.4	1.1	35.5	100.0
	60대 이상	244	20.5	42.6	63.1	34.8	2.0	36.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5.4	48.7	64.1	35.0	0.9	35.9	100.0
	고졸	485	16.9	45.8	62.7	35.1	2.3	37.3	100.0
	대재 이상	594	20.9	47.0	67.8	30.5	1.7	32.2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0.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35.7	57.1	42.9	0.0	42.9	100.0
	자영업	294	23.8	42.9	66.7	31.0	2.4	33.3	100.0
	블루 칼라	337	14.8	45.1	59.9	38.3	1.8	40.1	100.0
	화이트 칼라	264	22.7	48.5	71.2	26.9	1.9	28.8	100.0
	전업 주부	168	13.7	47.0	60.7	37.5	1.8	39.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4.6	56.9	71.5	27.6	0.8	28.5	100.0
	200만원 미만	86	22.1	34.9	57.0	41.9	1.2	4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2.0	44.1	66.1	32.8	1.1	33.9	100.0
	300~399 만원	333	20.4	46.8	67.3	30.6	2.1	32.7	100.0
	400만원 이상	595	16.1	49.1	65.2	32.8	2.0	34.8	100.0
	수도권	508	20.5	49.2	69.7	29.3	1.0	30.3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4.8	54.8	69.7	30.3	0.0	30.3	100.0
	호남권	143	21.7	41.3	62.9	33.6	3.5	37.1	100.0
	영남권	318	15.1	43.4	58.5	38.4	3.1	41.5	100.0
	강원	44	11.4	36.4	47.7	47.7	4.5	52.3	100.0
	제주	32	40.6	37.5	78.1	21.9	0.0	21.9	100.0
	대도시	544	16.9	46.0	62.9	34.2	2.9	37.1	100.0
	중/소도시	561	20.0	47.2	67.2	31.9	0.9	32.8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21.1	47.4	68.4	30.5	1.1	31.6	100.0
	진보적	395	17.7	45.1	62.8	34.9	2.3	37.2	100.0
	중도 보수적	588	18.5	48.6	67.2	31.5	1.4	32.8	100.0
종교	보수적	217	20.7	44.2	65.0	32.7	2.3	35.0	100.0
	불교	207	19.3	41.5	60.9	37.2	1.9	39.1	100.0
	기독교	220	23.6	45.0	68.6	30.0	1.4	31.4	100.0
	천주교	81	17.3	40.7	58.0	39.5	2.5	42.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7.1	49.9	67.1	31.0	1.9	32.9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1.6	42.1	57.9	0.0	57.9	100.0

표53-6.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이념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무응답	계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			
전 체	1200	23.8	43.3	67.2	29.1	3.7	32.8	0.1	100.0	
성별	남자	615	24.9	42.0	66.8	29.6	3.6	33.2	0.0	100.0
	여자	585	22.7	44.8	67.5	28.5	3.8	32.3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21.7	39.4	61.1	33.9	5.0	38.9	0.0	100.0
	30대	221	21.3	44.8	66.1	31.7	2.3	33.9	0.0	100.0
	40대	252	25.4	45.6	71.0	25.0	4.0	29.0	0.0	100.0
	50대	262	25.2	42.7	67.9	29.4	2.7	32.1	0.0	100.0
	60대 이상	244	25.0	43.9	68.9	26.2	4.5	30.7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9.7	48.7	68.4	29.9	1.7	31.6	0.0	100.0
	고졸	485	25.2	42.7	67.8	27.2	4.9	32.2	0.0	100.0
	대재 이상	594	23.6	43.1	66.7	30.1	3.0	33.2	0.2	100.0
	모름/무응답	4	25.0	0.0	25.0	75.0	0.0	7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8.6	57.1	85.7	7.1	7.1	14.3	0.0	100.0
	자영업	294	25.2	42.5	67.7	29.3	3.1	32.3	0.0	100.0
	블루 칼라	337	20.8	43.9	64.7	30.9	4.5	35.3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25.4	45.1	70.5	25.4	4.2	29.5	0.0	100.0
	전업 주부	168	22.0	39.9	61.9	33.9	4.2	38.1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7.6	43.1	70.7	27.6	0.8	28.5	0.8	100.0
	200만원 미만	86	25.6	44.2	69.8	27.9	1.2	29.1	1.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4.2	46.2	70.4	25.8	3.8	29.6	0.0	100.0
	300~399 만원	333	24.6	44.1	68.8	27.9	3.3	31.2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23.0	41.8	64.9	30.9	4.2	35.1	0.0	100.0
	수도권	508	25.2	44.5	69.7	29.3	1.0	30.3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0.0	47.1	67.1	30.3	2.6	32.9	0.0	100.0
	호남권	143	23.1	39.2	62.2	28.7	9.1	37.8	0.0	100.0
	영남권	318	25.8	42.5	68.2	27.0	4.7	31.8	0.0	100.0
	강원	44	2.3	38.6	40.9	45.5	13.6	59.1	0.0	100.0
	제주	32	34.4	40.6	75.0	18.8	3.1	21.9	3.1	100.0
	대도시	544	23.5	43.8	67.3	27.6	5.1	32.7	0.0	100.0
	중/소도시	561	23.2	43.9	67.0	30.7	2.1	32.8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29.5	37.9	67.4	28.4	4.2	32.6	0.0	100.0
	진보적	395	23.0	45.3	68.4	26.8	4.6	31.4	0.3	100.0
	중도 보수적	588	22.4	43.0	65.5	32.3	2.2	34.5	0.0	100.0
종교	보수적	217	29.0	40.6	69.6	24.4	6.0	30.4	0.0	100.0
	불교	207	21.3	51.2	72.5	24.2	2.9	27.1	0.5	100.0
	기독교	220	29.5	40.9	70.5	28.6	0.9	29.5	0.0	100.0
	천주교	81	17.3	53.1	70.4	25.9	3.7	29.6	0.0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3.8	40.7	64.5	30.6	4.9	35.5	0.0	100.0
	모름/무응답	19	15.8	36.8	52.6	47.4	0.0	47.4	0.0	100.0

표53-7.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환경문제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9.7	49.4	79.1	19.5	1.4	20.9	100.0	
성별	남자	615	29.1	49.8	78.9	19.0	2.1	21.1	100.0
	여자	585	30.3	49.1	79.3	20.0	0.7	20.7	100.0
연령별	19~29세	221	27.6	50.7	78.3	19.9	1.8	21.7	100.0
	30대	221	31.2	47.1	78.3	20.8	0.9	21.7	100.0
	40대	252	31.3	48.4	79.8	18.7	1.6	20.2	100.0
	50대	262	27.5	53.4	80.9	18.7	0.4	19.1	100.0
	60대 이상	244	30.7	47.1	77.9	19.7	2.5	22.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5.6	49.6	75.2	22.2	2.6	24.8	100.0
	고졸	485	27.8	50.9	78.8	20.6	0.6	21.2	100.0
	대재 이상	594	32.2	48.1	80.3	17.8	1.9	19.7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50.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64.3	85.7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31.0	49.0	79.9	18.0	2.0	20.1	100.0
	블루 칼라	337	24.9	53.1	78.0	20.5	1.5	22.0	100.0
	화이트 칼라	264	36.7	44.7	81.4	17.8	0.8	18.6	100.0
	전업 주부	168	25.0	51.2	76.2	22.6	1.2	23.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1.7	46.3	78.0	20.3	1.6	22.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5.6	53.5	79.1	18.6	2.3	20.9	100.0
	200~299 만원	186	25.8	53.2	79.0	19.4	1.6	21.0	100.0
	300~399 만원	333	30.0	50.2	80.2	19.2	0.6	19.8	100.0
	400만원 이상	595	31.3	47.2	78.5	19.8	1.7	21.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4.8	51.6	76.4	21.9	1.8	23.6	100.0
	충청권	155	31.0	52.9	83.9	15.5	0.6	16.1	100.0
	호남권	143	41.3	35.0	76.2	22.4	1.4	23.8	100.0
	영남권	318	28.3	53.1	81.4	17.0	1.6	18.6	100.0
	강원	44	40.9	38.6	79.5	20.5	0.0	20.5	100.0
	제주	32	46.9	40.6	87.5	12.5	0.0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9.0	47.6	76.7	22.1	1.3	23.3	100.0
	중/소도시	561	28.7	52.0	80.7	17.5	1.8	19.3	100.0
	읍/면	95	38.9	44.2	83.2	16.8	0.0	1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0.9	49.6	80.5	18.0	1.5	19.5	100.0
	중도	588	29.8	49.7	79.4	19.9	0.7	20.6	100.0
	보수적	217	27.2	48.4	75.6	21.2	3.2	24.4	100.0
종교	불교	207	31.4	49.8	81.2	17.4	1.4	18.8	100.0
	기독교	220	30.5	51.8	82.3	16.4	1.4	17.7	100.0
	천주교	81	29.6	46.9	76.5	22.2	1.2	23.5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9.2	48.1	77.3	21.2	1.5	22.7	100.0
	모름/무응답	19	21.1	68.4	89.5	10.5	0.0	10.5	100.0

표53-8.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㉕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0.8	35.8	46.5	47.2	6.3	53.5	100.0	
성별	남자	615	10.7	32.7	43.4	50.4	6.2	56.6	100.0
	여자	585	10.8	39.0	49.7	43.8	6.5	50.3	100.0
연령별	19~29세	221	10.4	35.3	45.7	49.3	5.0	54.3	100.0
	30대	221	12.2	29.4	41.6	50.2	8.1	58.4	100.0
	40대	252	9.5	38.5	48.0	47.2	4.8	52.0	100.0
	50대	262	14.1	33.6	47.7	46.6	5.7	52.3	100.0
	60대 이상	244	7.4	41.4	48.8	43.0	8.2	51.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9.4	45.3	54.7	41.9	3.4	45.3	100.0
	고졸	485	10.9	33.8	44.7	48.9	6.4	55.3	100.0
	대재 이상	594	10.8	35.4	46.1	47.0	6.9	53.9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14.3	35.7	50.0	35.7	14.3	50.0	100.0
	자영업	294	9.2	31.0	40.1	54.1	5.8	59.9	100.0
	블루 칼라	337	8.3	39.8	48.1	47.2	4.7	51.9	100.0
	화이트 칼라	264	13.3	31.8	45.1	46.2	8.7	54.9	100.0
	전업 주부	168	11.9	41.1	53.0	38.7	8.3	47.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3.8	37.4	51.2	45.5	3.3	4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9.3	39.5	48.8	45.3	5.8	51.2	100.0
	200~299 만원	186	9.7	35.5	45.2	48.9	5.9	54.8	100.0
	300~399 만원	333	12.9	37.2	50.2	45.9	3.9	49.8	100.0
	400만원 이상	595	10.1	34.5	44.5	47.6	7.9	55.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2.0	35.6	47.6	47.8	4.5	52.4	100.0
	충청권	155	11.6	41.9	53.5	41.3	5.2	46.5	100.0
	호남권	143	9.8	23.1	32.9	59.4	7.7	67.1	100.0
	영남권	318	8.5	41.5	50.0	41.5	8.5	50.0	100.0
	강원	44	4.5	15.9	20.5	68.2	11.4	79.5	100.0
	제주	32	21.9	34.4	56.3	37.5	6.3	43.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0	39.5	48.5	42.8	8.6	51.5	100.0
	중/소도시	561	12.5	33.3	45.8	50.8	3.4	54.2	100.0
	읍/면	95	10.5	28.4	38.9	50.5	10.5	6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8.6	33.4	42.0	49.1	8.9	58.0	100.0
	중도	588	11.6	36.7	48.3	47.4	4.3	51.7	100.0
	보수적	217	12.4	37.3	49.8	42.9	7.4	50.2	100.0
종교	불교	207	14.0	35.7	49.8	43.5	6.8	50.2	100.0
	기독교	220	7.3	34.1	41.4	50.5	8.2	58.6	100.0
	천주교	81	9.9	33.3	43.2	48.1	8.6	56.8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11.2	37.1	48.3	46.3	5.4	51.7	100.0
	모름/무응답	19	5.3	21.1	26.3	68.4	5.3	73.7	100.0

표53-9.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저출산/고령화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52.9	38.1	91.0	8.5	0.5	9.0	100.0	
성별	남자	615	53.7	37.6	91.2	8.3	0.5	8.8	100.0
	여자	585	52.1	38.6	90.8	8.7	0.5	9.2	100.0
연령별	19~29세	221	51.1	38.5	89.6	10.0	0.5	10.4	100.0
	30대	221	52.5	39.4	91.9	7.7	0.5	8.1	100.0
	40대	252	48.8	43.7	92.5	7.1	0.4	7.5	100.0
	50대	262	59.2	30.5	89.7	9.5	0.8	10.3	100.0
	60대 이상	244	52.5	38.9	91.4	8.2	0.4	8.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41.9	44.4	86.3	12.8	0.9	13.7	100.0
	고졸	485	53.2	37.9	91.1	8.5	0.4	8.9	100.0
	대재 이상	594	55.1	36.7	91.8	7.7	0.5	8.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50.0	35.7	85.7	14.3	0.0	14.3	100.0
	자영업	294	57.8	34.7	92.5	6.5	1.0	7.5	100.0
	블루 칼라	337	51.0	41.5	92.6	7.4	0.0	7.4	100.0
	화이트 칼라	264	52.7	37.9	90.5	9.1	0.4	9.5	100.0
	전업 주부	168	46.4	44.0	90.5	8.3	1.2	9.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56.1	29.3	85.4	14.6	0.0	1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47.7	41.9	89.5	10.5	0.0	10.5	100.0
	200~299 만원	186	55.9	32.3	88.2	10.8	1.1	11.8	100.0
	300~399 만원	333	50.2	40.8	91.0	8.7	0.3	9.0	100.0
	400만원 이상	595	54.3	37.8	92.1	7.4	0.5	7.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50.4	39.4	89.8	10.2	0.0	10.2	100.0
	충청권	155	61.9	32.9	94.8	4.5	0.6	5.2	100.0
	호남권	143	42.7	46.9	89.5	9.8	0.7	10.5	100.0
	영남권	318	53.8	37.4	91.2	7.9	0.9	8.8	100.0
	강원	44	70.5	27.3	97.7	2.3	0.0	2.3	100.0
	제주	32	62.5	25.0	87.5	9.4	3.1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6.1	36.6	92.6	7.0	0.4	7.4	100.0
	중/소도시	561	48.7	41.5	90.2	9.4	0.4	9.8	100.0
	읍/면	95	60.0	26.3	86.3	11.6	2.1	1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8.1	43.0	91.1	7.8	1.0	8.9	100.0
	중도	588	55.1	36.6	91.7	8.2	0.2	8.3	100.0
	보수적	217	55.8	33.2	88.9	10.6	0.5	11.1	100.0
종교	불교	207	55.6	34.8	90.3	8.7	1.0	9.7	100.0
	기독교	220	56.8	35.0	91.8	8.2	0.0	8.2	100.0
	천주교	81	44.4	48.1	92.6	7.4	0.0	7.4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51.6	39.3	90.9	8.6	0.4	9.1	100.0
	모름/무응답	19	57.9	26.3	84.2	10.5	5.3	15.8	100.0

표53-10. 사회문제의 심각성 평가 - ㉔ 세대갈등

문)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심각하다	② 약간 심각하다	①+②	③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④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3.5	55.3	68.8	29.8	1.5	31.3	100.0	
성별	남자	615	13.3	54.0	67.3	30.7	2.0	32.7	100.0
	여자	585	13.7	56.6	70.3	28.7	1.0	29.7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5	51.1	65.6	32.6	1.8	34.4	100.0
	30대	221	11.8	55.7	67.4	31.2	1.4	32.6	100.0
	40대	252	13.9	56.0	69.8	29.0	1.2	30.2	100.0
	50대	262	14.1	56.1	70.2	27.9	1.9	29.8	100.0
	60대 이상	244	13.1	57.0	70.1	28.7	1.2	29.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8	54.7	67.5	31.6	0.9	32.5	100.0
	고졸	485	12.8	57.5	70.3	28.5	1.2	29.7	100.0
	대재 이상	594	14.3	53.2	67.5	30.6	1.9	32.5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100.0	10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42.9	64.3	28.6	7.1	35.7	100.0
	자영업	294	11.2	55.8	67.0	30.6	2.4	33.0	100.0
	블루 칼라	337	12.5	59.3	71.8	27.3	0.9	28.2	100.0
	화이트 칼라	264	18.2	48.9	67.0	31.8	1.1	33.0	100.0
	전업 주부	168	10.1	60.1	70.2	28.6	1.2	29.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5.4	51.2	66.7	31.7	1.6	3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4.0	45.3	59.3	37.2	3.5	40.7	100.0
	200~299 만원	186	13.4	54.8	68.3	30.1	1.6	31.7	100.0
	300~399 만원	333	14.1	58.9	73.0	26.4	0.6	27.0	100.0
	400만원 이상	595	13.1	54.8	67.9	30.4	1.7	32.1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3.4	57.7	71.1	28.3	0.6	28.9	100.0
	충청권	155	14.8	61.3	76.1	23.2	0.6	23.9	100.0
	호남권	143	13.3	53.8	67.1	30.8	2.1	32.9	100.0
	영남권	318	11.6	53.5	65.1	33.3	1.6	34.9	100.0
	강원	44	6.8	29.5	36.4	52.3	11.4	63.6	100.0
	제주	32	37.5	46.9	84.4	12.5	3.1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1.8	53.7	65.4	33.1	1.5	34.6	100.0
	중/소도시	561	14.6	58.5	73.1	25.8	1.1	26.9	100.0
	읍/면	95	16.8	45.3	62.1	33.7	4.2	37.9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3.4	54.4	67.8	30.4	1.8	32.2	100.0
	중도	588	12.9	56.3	69.2	30.1	0.7	30.8	100.0
	보수적	217	15.2	53.9	69.1	27.6	3.2	30.9	100.0
종교	불교	207	17.9	50.2	68.1	30.4	1.4	31.9	100.0
	기독교	220	13.6	59.5	73.2	26.4	0.5	26.8	100.0
	천주교	81	14.8	56.8	71.6	28.4	0.0	28.4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2.2	55.1	67.4	30.6	2.1	32.6	100.0
	모름/무응답	19	5.3	52.6	57.9	42.1	0.0	42.1	100.0

표54. 한국의 경제 상황 만족도

문)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	%		
전 체	1200	1.5	26.7	28.2	49.4	22.3	71.8	0.1	100.0	
성별	남자	615	1.3	26.2	27.5	50.6	21.8	72.4	0.2	100.0
	여자	585	1.7	27.2	28.9	48.2	22.9	71.1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	28.5	30.3	51.6	18.1	69.7	0.0	100.0
	30대	221	1.4	22.2	23.5	54.8	21.3	76.0	0.5	100.0
	40대	252	1.6	27.8	29.4	50.8	19.8	70.6	0.0	100.0
	50대	262	2.3	26.7	29.0	47.3	23.7	71.0	0.0	100.0
	60대 이상	244	0.4	27.9	28.3	43.4	28.3	71.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28.2	29.9	42.7	27.4	70.1	0.0	100.0
	고졸	485	1.9	25.6	27.4	50.7	21.6	72.4	0.2	100.0
	대재 이상	594	1.2	27.1	28.3	49.8	21.9	71.7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42.9	42.9	35.7	21.4	57.1	0.0	100.0
	자영업	294	1.4	18.7	20.1	49.7	30.3	79.9	0.0	100.0
	블루 칼라	337	1.8	27.0	28.8	51.9	19.3	71.2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2.3	28.8	31.1	49.2	19.3	68.6	0.4	100.0
	전업 주부	168	1.2	33.9	35.1	44.0	20.8	64.9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0	28.5	28.5	51.2	20.3	71.5	0.0	100.0
	200만원 미만	86	2.3	31.4	33.7	40.7	25.6	66.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6	28.0	29.6	45.7	24.2	69.9	0.5	100.0
	300~399 만원	333	1.5	27.9	29.4	46.5	24.0	70.6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1.3	24.9	26.2	53.4	20.3	73.8	0.0	100.0
	수도권	508	1.0	23.8	24.8	49.6	25.4	75.0	0.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9	34.8	36.8	51.6	11.6	63.2	0.0	100.0
	호남권	143	5.6	46.9	52.4	42.0	5.6	47.6	0.0	100.0
	영남권	318	0.6	18.2	18.9	50.0	31.1	81.1	0.0	100.0
	강원	44	0.0	9.1	9.1	70.5	20.5	90.9	0.0	100.0
	제주	32	0.0	50.0	50.0	34.4	15.6	50.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4	21.1	21.5	54.2	24.3	78.5	0.0	100.0
	중/소도시	561	1.8	29.2	31.0	46.9	21.9	68.8	0.2	100.0
	읍/면	95	6.3	43.2	49.5	36.8	13.7	50.5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5	34.4	38.0	46.6	15.4	62.0	0.0	100.0
	중도	588	0.7	26.0	26.7	53.9	19.2	73.1	0.2	100.0
	보수적	217	0.0	14.3	14.3	42.4	43.3	85.7	0.0	100.0
종교	불교	207	1.9	24.2	26.1	44.0	30.0	73.9	0.0	100.0
	기독교	220	0.5	27.7	28.2	52.7	19.1	71.8	0.0	100.0
	천주교	81	2.5	32.1	34.6	44.4	21.0	65.4	0.0	100.0
	기타	2	0.0	50.0	50.0	0.0	0.0	5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5	27.0	28.5	50.4	21.0	71.4	0.1	100.0
	모름/무응답	19	5.3	5.3	10.5	57.9	31.6	89.5	0.0	100.0

표55.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 정도

문)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		
전 체	1200	19.4	60.6	80.0	19.3	0.8	20.0	100.0	
성별	남자	615	21.0	61.1	82.1	17.2	0.7	17.9	100.0
	여자	585	17.8	60.0	77.8	21.4	0.9	22.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7	63.8	76.5	22.6	0.9	23.5	100.0
	30대	221	17.6	54.3	71.9	26.7	1.4	28.1	100.0
	40대	252	19.0	61.5	80.6	18.7	0.8	19.4	100.0
	50대	262	21.8	61.8	83.6	16.0	0.4	16.4	100.0
	60대 이상	244	25.0	61.1	86.1	13.5	0.4	13.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5	64.1	90.6	9.4	0.0	9.4	100.0
	고졸	485	19.6	60.6	80.2	19.0	0.8	19.8	100.0
	대재 이상	594	17.8	59.9	77.8	21.4	0.8	22.2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57.1	100.0	0.0	0.0	0.0	100.0
	자영업	294	19.7	62.9	82.7	16.7	0.7	17.3	100.0
	블루 칼라	337	19.0	58.8	77.7	21.4	0.9	22.3	100.0
	화이트 칼라	264	21.2	56.8	78.0	21.2	0.8	22.0	100.0
	전업 주부	168	17.9	64.9	82.7	16.7	0.6	17.3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5.4	62.6	78.0	21.1	0.8	22.0	100.0
	200만원 미만	86	31.4	53.5	84.9	15.1	0.0	15.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3.7	53.8	77.4	22.6	0.0	22.6	100.0
	300~399 만원	333	17.7	63.4	81.1	17.4	1.5	18.9	100.0
	400만원 이상	595	17.3	62.2	79.5	19.8	0.7	20.5	100.0
	수도권	508	16.5	60.4	77.0	22.4	0.6	23.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8.4	54.8	83.2	16.8	0.0	16.8	100.0
	호남권	143	22.4	72.7	95.1	4.2	0.7	4.9	100.0
	영남권	318	12.6	61.3	73.9	24.5	1.6	26.1	100.0
	강원	44	45.5	47.7	93.2	6.8	0.0	6.8	100.0
	제주	32	40.6	46.9	87.5	12.5	0.0	12.5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3.6	65.3	78.9	20.6	0.6	21.1	100.0
	중/소도시	561	21.7	57.9	79.7	19.3	1.1	20.3	100.0
	읍/면	95	38.9	49.5	88.4	11.6	0.0	11.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24.1	61.3	85.3	13.2	1.5	14.7	100.0
	중도	588	15.3	62.2	77.6	21.9	0.5	22.4	100.0
	보수적	217	22.1	54.8	77.0	23.0	0.0	23.0	100.0
종교	불교	207	23.7	52.2	75.8	23.2	1.0	24.2	100.0
	기독교	220	23.2	59.5	82.7	16.4	0.9	17.3	100.0
	천주교	81	11.1	65.4	76.5	22.2	1.2	23.5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7.4	62.9	80.3	19.1	0.6	19.7	100.0
	모름/무응답	19	26.3	68.4	94.7	5.3	0.0	5.3	100.0

표58-1. ㉗ 나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문) 다음의 주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전 체	1200	9.5	41.4	50.9	31.8	14.8	2.4	17.3	100.0	
성별	남자	615	10.2	36.4	46.7	32.8	18.5	2.0	20.5	100.0
	여자	585	8.7	46.7	55.4	30.8	10.9	2.9	13.8	100.0
연령별	19~29세	221	7.7	41.6	49.3	35.7	12.7	2.3	14.9	100.0
	30대	221	12.2	44.8	57.0	29.4	11.8	1.8	13.6	100.0
	40대	252	9.9	43.7	53.6	27.4	17.1	2.0	19.0	100.0
	50대	262	9.2	40.1	49.2	32.8	15.6	2.3	17.9	100.0
	60대 이상	244	8.6	37.3	45.9	34.0	16.4	3.7	20.1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41.0	48.7	32.5	16.2	2.6	18.8	100.0
	고졸	485	10.9	43.3	54.2	29.3	14.0	2.5	16.5	100.0
	대재 이상	594	8.8	39.7	48.5	33.8	15.3	2.4	17.7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28.6	35.7	35.7	21.4	7.1	28.6	100.0
	자영업	294	10.9	41.5	52.4	29.9	15.0	2.7	17.7	100.0
	블루 칼라	337	9.5	43.9	53.4	29.4	15.1	2.1	17.2	100.0
	화이트 칼라	264	11.4	38.6	50.0	30.7	17.0	2.3	19.3	100.0
	전업 주부	168	6.5	44.0	50.6	36.3	10.7	2.4	13.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38.2	44.7	39.0	13.8	2.4	16.3	100.0
	200만원 미만	86	7.0	40.7	47.7	33.7	14.0	4.7	18.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8.6	44.1	52.7	34.4	10.2	2.7	12.9	100.0
	300~399 만원	333	10.5	42.3	52.9	29.4	15.3	2.4	17.7	100.0
	400만원 이상	595	9.6	40.2	49.7	32.1	16.1	2.0	18.2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3.0	49.2	62.2	25.4	11.4	1.0	12.4	100.0
	충청권	155	5.8	38.1	43.9	43.9	9.7	2.6	12.3	100.0
	호남권	143	7.7	26.6	34.3	35.0	25.2	5.6	30.8	100.0
	영남권	318	6.0	41.5	47.5	33.6	17.0	1.9	18.9	100.0
	강원	44	9.1	18.2	27.3	34.1	25.0	13.6	38.6	100.0
	제주	32	15.6	31.3	46.9	40.6	12.5	0.0	12.5	100.0
	대도시	544	12.5	42.8	55.3	27.4	14.9	2.4	17.3	100.0
	중/소도시	561	7.0	40.8	47.8	35.1	15.0	2.1	17.1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5	7.4	36.8	44.2	37.9	13.7	4.2	17.9	100.0
	진보적	395	9.1	35.9	45.1	28.6	22.0	4.3	26.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88	9.7	44.4	54.1	33.5	11.1	1.4	12.4	100.0
	보수적	217	9.7	43.3	53.0	33.2	12.0	1.8	13.8	100.0
종교	불교	207	11.6	37.2	48.8	32.9	13.5	4.8	18.4	100.0
	기독교	220	7.7	42.3	50.0	31.8	15.0	3.2	18.2	100.0
	천주교	81	8.6	40.7	49.4	34.6	13.6	2.5	16.0	100.0
	기타	2	50.0	0.0	50.0	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9.2	42.8	52.0	31.1	15.4	1.5	16.8	100.0
	모름/무응답	19	15.8	36.8	52.6	36.8	10.5	0.0	10.5	100.0

표58-2. ㉘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문) 다음의 주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전 체	1200	12.5	38.2	50.7	32.8	13.8	2.8	16.6	100.0	
성별	남자	615	12.2	33.7	45.9	35.1	15.8	3.3	19.0	100.0
	여자	585	12.8	42.9	55.7	30.3	11.8	2.2	14.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5.4	35.7	51.1	37.1	9.0	2.7	11.8	100.0
	30대	221	14.5	38.0	52.5	34.4	10.9	2.3	13.1	100.0
	40대	252	12.7	42.5	55.2	28.6	14.7	1.6	16.3	100.0
	50대	262	10.7	35.1	45.8	32.8	17.9	3.4	21.4	100.0
	60대 이상	244	9.8	39.3	49.2	31.6	15.6	3.7	1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41.0	48.7	35.0	12.8	3.4	16.2	100.0
	고졸	485	13.2	40.4	53.6	28.2	15.9	2.3	18.1	100.0
	대재 이상	594	13.0	35.5	48.5	36.0	12.5	3.0	15.5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57.1	0.0	0.0	0.0	100.0
	자영업	294	12.9	34.4	47.3	32.3	16.0	4.4	20.4	100.0
	블루 칼라	337	10.4	43.9	54.3	28.2	16.0	1.5	17.5	100.0
	화이트 칼라	264	14.4	36.7	51.1	34.5	11.0	3.4	14.4	100.0
	전업 주부	168	9.5	41.1	50.6	33.3	14.3	1.8	16.1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7.9	30.9	48.8	39.0	9.8	2.4	12.2	100.0
	200만원 미만	86	9.3	37.2	46.5	38.4	10.5	4.7	15.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8.6	43.0	51.6	30.1	14.5	3.8	18.3	100.0
	300~399 만원	333	13.5	40.5	54.1	28.2	16.2	1.5	17.7	100.0
	400만원 이상	595	13.6	35.5	49.1	35.3	12.8	2.9	15.6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9.3	40.7	60.0	29.9	7.5	2.6	10.0	100.0
	충청권	155	7.7	45.2	52.9	32.9	11.0	3.2	14.2	100.0
	호남권	143	6.3	31.5	37.8	37.1	21.0	4.2	25.2	100.0
	영남권	318	7.5	36.8	44.3	32.7	21.1	1.9	23.0	100.0
	강원	44	4.5	20.5	25.0	45.5	27.3	2.3	29.5	100.0
	제주	32	15.6	31.3	46.9	40.6	6.3	6.3	12.5	100.0
	대도시	544	17.6	39.5	57.2	24.6	15.3	2.9	18.2	100.0
	중/소도시	561	8.4	37.1	45.5	40.1	11.8	2.7	14.4	100.0
지역 크기별	읍/면	95	7.4	36.8	44.2	35.8	17.9	2.1	20.0	100.0
	진보적	395	11.4	34.7	46.1	32.7	16.7	4.6	21.3	100.0
정치적 성향	중도	588	14.5	38.1	52.6	34.4	11.2	1.9	13.1	100.0
	보수적	217	9.2	44.7	53.9	28.6	15.7	1.8	17.5	100.0
종교	불교	207	15.0	34.3	49.3	31.9	15.0	3.9	18.8	100.0
	기독교	220	12.3	36.4	48.6	38.6	11.4	1.4	12.7	100.0
	천주교	81	14.8	42.0	56.8	27.2	13.6	2.5	16.0	100.0
	기타	2	50.0	0.0	50.0	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1.6	38.7	50.4	32.3	14.3	3.0	17.3	100.0
	모름/무응답	19	5.3	68.4	73.7	15.8	10.5	0.0	10.5	100.0

표58-3. ㉔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문) 다음의 주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	%	
전 체	1200	4.3	27.6	31.8	49.1	17.9	1.2	19.1	100.0	
성별	남자	615	5.2	33.8	39.0	44.9	15.4	0.7	16.1	100.0
	여자	585	3.2	21.0	24.3	53.5	20.5	1.7	22.2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	21.7	23.1	50.2	24.9	1.8	26.7	100.0
	30대	221	3.2	23.1	26.2	54.8	17.6	1.4	19.0	100.0
	40대	252	3.2	31.3	34.5	47.6	17.1	0.8	17.9	100.0
	50대	262	6.9	30.2	37.0	47.3	14.9	0.8	15.6	100.0
	60대 이상	244	6.1	30.3	36.5	46.3	16.0	1.2	17.2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	28.2	31.6	47.0	18.8	2.6	21.4	100.0
	고졸	485	5.2	26.2	31.3	51.3	16.3	1.0	17.3	100.0
	대재 이상	594	3.7	28.3	32.0	48.0	19.0	1.0	20.0	100.0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0.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42.9	50.0	42.9	7.1	0.0	7.1	100.0
	자영업	294	5.1	34.4	39.5	42.2	17.3	1.0	18.4	100.0
	블루 칼라	337	4.2	20.8	24.9	53.7	20.8	0.6	21.4	100.0
	화이트 칼라	264	4.9	32.2	37.1	48.1	13.6	1.1	14.8	100.0
	전업 주부	168	1.2	25.0	26.2	55.4	16.1	2.4	18.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9	22.0	26.8	47.2	24.4	1.6	26.0	100.0
	200만원 미만	86	11.6	22.1	33.7	46.5	18.6	1.2	19.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8	24.7	29.6	47.8	19.4	3.2	22.6	100.0
	300~399 만원	333	3.9	28.2	32.1	49.2	17.4	1.2	18.6	100.0
	400만원 이상	595	3.2	28.9	32.1	49.7	17.6	0.5	18.2	100.0
	모름/무응답									
지역별	수도권	508	4.7	27.8	32.5	46.7	20.1	0.8	20.9	100.0
	충청권	155	3.2	25.2	28.4	57.4	12.9	1.3	14.2	100.0
	호남권	143	5.6	23.1	28.7	54.5	16.1	0.7	16.8	100.0
	영남권	318	2.8	29.6	32.4	48.1	17.9	1.6	19.5	100.0
	강원	44	2.3	29.5	31.8	45.5	20.5	2.3	22.7	100.0
	제주	32	12.5	34.4	46.9	37.5	12.5	3.1	15.6	100.0
	대도시	544	3.5	30.1	33.6	43.9	20.8	1.7	22.4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4.5	24.8	29.2	54.4	15.7	0.7	16.4	100.0
	읍/면	95	7.4	29.5	36.8	47.4	14.7	1.1	15.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1	33.2	39.2	46.3	13.4	1.0	14.4	100.0
	중도	588	2.9	21.8	24.7	53.7	20.4	1.2	21.6	100.0
	보수적	217	4.6	33.2	37.8	41.5	19.4	1.4	20.7	100.0
종교	불교	207	6.3	27.1	33.3	45.9	19.3	1.4	20.8	100.0
	기독교	220	3.2	28.2	31.4	45.0	21.8	1.8	23.6	100.0
	천주교	81	6.2	32.1	38.3	46.9	14.8	0.0	14.8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7	27.1	30.8	51.4	16.7	1.0	17.7	100.0
	모름/무응답	19	5.3	15.8	21.1	63.2	15.8	0.0	15.8	100.0

표58-4. ㉕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문) 다음의 주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		
		%	%	%	%	%	%	%	%	
전 체	1200	2.6	29.4	32.0	52.4	14.3	1.3	15.6	100.0	
성별	남자	615	2.3	24.4	26.7	54.1	17.6	1.6	19.2	100.0
	여자	585	2.9	34.7	37.6	50.6	10.8	1.0	11.8	100.0
연령별	19~29세	221	1.4	32.6	33.9	51.1	13.6	1.4	14.9	100.0
	30대	221	3.6	29.4	33.0	51.1	14.5	1.4	15.8	100.0
	40대	252	4.0	28.6	32.5	52.0	13.9	1.6	15.5	100.0
	50대	262	1.5	27.9	29.4	53.8	14.9	1.9	16.8	100.0
	60대 이상	244	2.5	29.1	31.6	53.7	14.3	0.4	14.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2.6	30.8	33.3	53.8	12.8	0.0	12.8	100.0
	고졸	485	2.7	30.9	33.6	52.8	12.4	1.2	13.6	100.0
	대재 이상	594	2.4	27.8	30.1	52.0	16.2	1.7	17.8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57.1	57.1	42.9	0.0	0.0	0.0	100.0
	자영업	294	2.0	25.9	27.9	54.8	15.0	2.4	17.3	100.0
	블루 칼라	337	3.6	26.7	30.3	56.7	11.9	1.2	13.1	100.0
	화이트 칼라	264	3.0	29.9	33.0	43.9	22.7	0.4	23.1	100.0
	전업 주부	168	2.4	35.1	37.5	53.6	7.7	1.2	8.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8	33.3	34.1	52.8	11.4	1.6	13.0	100.0
	200만원 미만	86	0.0	34.9	34.9	50.0	10.5	4.7	15.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3.8	29.0	32.8	52.7	14.5	0.0	14.5	100.0
	300~399 만원	333	2.7	31.8	34.5	52.6	9.9	3.0	12.9	100.0
	400만원 이상	595	2.5	27.4	29.9	52.6	17.1	0.3	17.5	100.0
	모름/무응답									
지역별	수도권	508	2.8	35.8	38.6	44.5	15.6	1.4	16.9	100.0
	충청권	155	0.6	13.5	14.2	65.8	18.7	1.3	20.0	100.0
	호남권	143	2.8	25.2	28.0	62.2	8.4	1.4	9.8	100.0
	영남권	318	2.5	29.9	32.4	53.8	13.2	0.6	13.8	100.0
	강원	44	4.5	18.2	22.7	61.4	13.6	2.3	15.9	100.0
	제주	32	6.3	34.4	40.6	43.8	9.4	6.3	15.6	100.0
	대도시	544	2.8	32.7	35.5	49.4	14.3	0.7	15.1	100.0
지역 크기별	중/소도시	561	2.1	27.5	29.6	54.0	14.4	2.0	16.4	100.0
	읍/면	95	4.2	22.1	26.3	60.0	12.6	1.1	1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8	29.6	31.4	49.6	18.0	1.0	19.0	100.0
	중도	588	2.2	30.6	32.8	52.4	12.9	1.9	14.8	100.0
	보수적	217	5.1	25.8	30.9	57.6	11.1	0.5	11.5	100.0
종교	불교	207	4.8	35.3	40.1	49.3	9.7	1.0	10.6	100.0
	기독교	220	2.7	29.5	32.3	50.9	15.0	1.8	16.8	100.0
	천주교	81	2.5	29.6	32.1	54.3	13.6	0.0	13.6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6	27.1	28.8	53.9	15.8	1.5	17.3	100.0
	모름/무응답	19	10.5	42.1	52.6	42.1	5.3	0.0	5.3	100.0

표59-1. 정책에 대한 의견 - ㉞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모름/ 무응답	계	
		매우 찬성	비교적 찬성	%	비교적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	%	
전 체	1200	12.8	68.2	80.9	17.3	1.8	19.0	0.1	100.0	
성별	남자	615	13.5	68.1	81.6	16.6	1.6	18.2	0.2	100.0
	여자	585	12.0	68.2	80.2	17.9	1.9	19.8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7.2	68.3	85.5	14.0	0.5	14.5	0.0	100.0
	30대	221	15.4	68.8	84.2	14.0	1.8	15.8	0.0	100.0
	40대	252	13.9	66.7	80.6	18.3	1.2	19.4	0.0	100.0
	50대	262	9.2	69.8	79.0	18.3	2.7	21.0	0.0	100.0
	60대 이상	244	9.0	67.2	76.2	20.9	2.5	23.4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0.3	70.9	81.2	15.4	3.4	18.8	0.0	100.0
	고졸	485	9.3	68.7	77.9	20.2	1.6	21.9	0.2	100.0
	대재 이상	594	16.2	67.3	83.5	15.0	1.5	16.5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64.3	78.6	14.3	7.1	21.4	0.0	100.0
	자영업	294	11.6	71.8	83.3	15.6	0.7	16.3	0.3	100.0
	블루 칼라	337	11.9	65.3	77.2	21.4	1.5	22.8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18.2	62.9	81.1	15.5	3.4	18.9	0.0	100.0
	전업 주부	168	8.9	75.6	84.5	13.7	1.8	15.5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1.4	69.1	80.5	18.7	0.8	19.5	0.0	100.0
	200만원 미만	86	11.6	66.3	77.9	17.4	4.7	22.1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2.4	66.1	78.5	18.8	2.2	21.0	0.5	100.0
	300~399 만원	333	11.4	70.3	81.7	18.0	0.3	18.3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13.8	67.9	81.7	16.3	2.0	18.3	0.0	100.0
	수도권	508	12.2	71.7	83.9	13.4	2.6	15.9	0.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1.3	58.7	80.0	18.7	1.3	20.0	0.0	100.0
	호남권	143	10.5	69.9	80.4	18.2	1.4	19.6	0.0	100.0
	영남권	318	11.0	64.8	75.8	23.6	0.6	24.2	0.0	100.0
	강원	44	11.4	72.7	84.1	13.6	2.3	15.9	0.0	100.0
	제주	32	9.4	78.1	87.5	9.4	3.1	12.5	0.0	100.0
	대도시	544	12.5	65.4	77.9	19.3	2.6	21.9	0.2	100.0
	중/소도시	561	13.0	71.5	84.5	14.6	0.9	15.5	0.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12.6	64.2	76.8	21.1	2.1	23.2	0.0	100.0
	진보적	395	18.0	68.6	86.6	12.7	0.8	13.4	0.0	100.0
	중도 보수적	588	10.2	69.4	79.6	18.0	2.4	20.4	0.0	100.0
종교	불교	217	10.1	64.1	74.2	23.5	1.8	25.3	0.5	100.0
	기독교	220	12.1	63.8	75.8	20.3	3.9	24.2	0.0	100.0
	천주교	81	8.6	75.5	84.1	13.6	1.8	15.5	0.5	100.0
	천주교	81	17.3	67.9	85.2	13.6	1.2	14.8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4.0	67.2	81.2	17.6	1.2	18.8	0.0	100.0
	모름/무응답	19	5.3	63.2	68.4	31.6	0.0	31.6	0.0	100.0

표59-2. 정책에 대한 의견 - ㉟ 국가보안법 폐지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계	
		매우 찬성	비교적 찬성	%	비교적 반대	매우 반대	%		
		%	%	%	%	%	%	%	
전 체	1200	10.3	42.9	53.2	37.9	8.9	46.8	100.0	
성별	남자	615	11.1	41.8	52.8	37.7	9.4	47.2	100.0
	여자	585	9.4	44.1	53.5	38.1	8.4	46.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0.0	44.3	54.3	42.5	3.2	45.7	100.0
	30대	221	8.1	47.1	55.2	37.1	7.7	44.8	100.0
	40대	252	10.7	47.6	58.3	33.7	7.9	41.7	100.0
	50대	262	10.7	43.9	54.6	35.9	9.5	45.4	100.0
	60대 이상	244	11.5	32.0	43.4	41.0	15.6	56.6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8.5	36.8	45.3	42.7	12.0	54.7	100.0
	고졸	485	9.3	43.9	53.2	38.1	8.7	46.8	100.0
	대재 이상	594	11.4	43.3	54.7	36.9	8.4	45.3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28.6	28.6	57.1	100.0
	자영업	294	10.5	43.2	53.7	34.7	11.6	46.3	100.0
	블루 칼라	337	10.4	40.9	51.3	40.7	8.0	48.7	100.0
	화이트 칼라	264	11.0	47.0	58.0	34.1	8.0	42.0	100.0
	전업 주부	168	11.3	39.3	50.6	39.9	9.5	49.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44.7	51.2	44.7	4.1	48.8	100.0
	200만원 미만	86	8.1	32.6	40.7	44.2	15.1	59.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9.7	43.5	53.2	36.6	10.2	46.8	100.0
	300~399 만원	333	7.8	44.4	52.3	39.3	8.4	47.7	100.0
	400만원 이상	595	12.1	43.4	55.5	36.6	7.9	44.5	100.0
	수도권	508	7.9	47.4	55.3	35.4	9.3	44.7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4.8	25.2	40.0	51.0	9.0	60.0	100.0
	호남권	143	21.7	52.4	74.1	18.9	7.0	25.9	100.0
	영남권	318	6.6	41.8	48.4	43.1	8.5	51.6	100.0
	강원	44	9.1	31.8	40.9	45.5	13.6	59.1	100.0
	제주	32	12.5	40.6	53.1	37.5	9.4	46.9	100.0
	대도시	544	8.3	41.0	49.3	39.7	11.0	50.7	100.0
	중/소도시	561	11.1	46.3	57.4	37.3	5.3	42.6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16.8	33.7	50.5	31.6	17.9	49.5	100.0
	진보적	395	15.7	46.3	62.0	34.2	3.8	38.0	100.0
	중도 보수적	588	8.2	44.0	52.2	39.5	8.3	47.8	100.0
종교	불교	217	6.0	33.6	39.6	40.6	19.8	60.4	100.0
	기독교	220	6.8	38.2	44.9	40.6	14.5	55.1	100.0
	천주교	81	12.3	44.5	56.8	33.6	9.5	43.2	100.0
	천주교	81	12.3	53.1	65.4	24.7	9.9	34.6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0.4	42.8	53.2	39.6	7.2	46.8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6.8	47.4	52.6	0.0	52.6	100.0

표59-3. 정책에 대한 의견 - ㉔ 경제성장보다는 복지 중심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11.2	36.1	47.3	42.3	10.2	52.5	0.3	100.0
성별									
남자	615	11.9	35.0	46.8	41.6	11.1	52.7	0.5	100.0
여자	585	10.4	37.3	47.7	43.1	9.2	52.3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1.3	36.7	48.0	44.8	7.2	52.0	0.0	100.0
30대	221	10.0	35.7	45.7	44.8	8.6	53.4	0.9	100.0
40대	252	9.9	42.9	52.8	38.1	9.1	47.2	0.0	100.0
50대	262	11.5	32.4	43.9	45.4	10.7	56.1	0.0	100.0
60대 이상	244	13.1	32.8	45.9	38.9	14.8	53.7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8	35.0	47.9	39.3	12.8	52.1	0.0	100.0
고졸	485	9.9	37.5	47.4	43.1	9.5	52.6	0.0	100.0
대재 이상	594	12.0	35.2	47.1	42.1	10.3	52.4	0.5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7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57.1	71.4	14.3	14.3	28.6	0.0	100.0
자영업	294	9.9	28.2	38.1	48.0	13.3	61.2	0.7	100.0
블루 칼라	337	10.7	39.8	50.4	40.1	9.2	49.3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13.3	36.4	49.6	40.9	9.5	50.4	0.0	100.0
전업 주부	168	8.3	39.9	48.2	41.7	10.1	51.8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4.6	36.6	51.2	42.3	6.5	48.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1.6	48.8	60.5	31.4	8.1	39.5	0.0	100.0
200~299 만원	186	11.3	34.9	46.2	44.1	9.1	53.2	0.5	100.0
300~399 만원	333	13.8	36.0	49.8	41.7	8.1	49.8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9.6	34.6	44.2	43.7	11.9	55.6	0.2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2.6	31.9	44.5	43.1	12.4	55.5	0.0	100.0
충청권	155	10.3	34.8	45.2	48.4	5.8	54.2	0.6	100.0
호남권	143	16.8	46.9	63.6	32.9	3.5	36.4	0.0	100.0
영남권	318	7.2	36.5	43.7	43.7	12.6	56.3	0.0	100.0
강원	44	2.3	38.6	40.9	50.0	9.1	59.1	0.0	100.0
제주	32	18.8	53.1	71.9	18.8	3.1	21.9	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9.0	32.4	41.4	44.7	13.8	58.5	0.2	100.0
중/소도시	561	12.8	38.5	51.3	41.4	7.0	48.3	0.4	100.0
읍/면	95	13.7	43.2	56.8	34.7	8.4	43.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6.5	39.0	55.4	37.7	6.8	44.6	0.0	100.0
중도	588	9.0	37.6	46.6	43.7	9.5	53.2	0.2	100.0
보수적	217	7.4	26.7	34.1	47.0	18.0	65.0	0.9	100.0
종교									
불교	207	13.0	36.2	49.3	35.3	15.5	50.7	0.0	100.0
기독교	220	16.4	39.5	55.9	35.0	8.2	43.2	0.9	100.0
천주교	81	7.4	37.0	44.4	44.4	11.1	55.6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9.4	34.7	44.1	46.6	9.1	55.7	0.1	100.0
모름/무응답	19	10.5	31.6	42.1	47.4	10.5	57.9	0.0	100.0

표59-4. 정책에 대한 의견 - ㉔ 고소득자에게 현재보다 세금 더 부과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36.9	45.5	82.4	14.8	2.8	17.6	100.0
성별								
남자	615	38.4	45.2	83.6	13.3	3.1	16.4	100.0
여자	585	35.4	45.8	81.2	16.4	2.4	18.8	100.0
연령별								
19~29세	221	36.7	46.2	82.8	13.1	4.1	17.2	100.0
30대	221	33.9	48.9	82.8	15.8	1.4	17.2	100.0
40대	252	37.3	46.8	84.1	13.5	2.4	15.9	100.0
50대	262	37.0	43.5	80.5	16.8	2.7	19.5	100.0
60대 이상	244	39.3	42.6	82.0	14.8	3.3	18.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4.2	45.3	79.5	17.9	2.6	20.5	100.0
고졸	485	40.0	43.5	83.5	14.2	2.3	16.5	100.0
대재 이상	594	35.0	47.1	82.2	14.6	3.2	17.8	100.0
모름/무응답	4	25.0	50.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50.0	35.7	85.7	0.0	14.3	14.3	100.0
자영업	294	35.0	50.0	85.0	13.3	1.7	15.0	100.0
블루 칼라	337	39.2	41.8	81.0	16.0	3.0	19.0	100.0
화이트 칼라	264	43.9	41.3	85.2	11.0	3.8	14.8	100.0
전업 주부	168	26.2	50.6	76.8	22.0	1.2	23.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33.3	48.0	81.3	15.4	3.3	18.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2.6	50.0	82.6	15.1	2.3	17.4	100.0
200~299 만원	186	38.7	43.0	81.7	15.1	3.2	18.3	100.0
300~399 만원	333	39.3	41.4	80.8	16.8	2.4	19.2	100.0
400만원 이상	595	35.6	47.9	83.5	13.6	2.9	16.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4.1	47.8	81.9	14.2	3.9	18.1	100.0
충청권	155	45.2	35.5	80.6	18.1	1.3	19.4	100.0
호남권	143	48.3	39.2	87.4	11.9	0.7	12.6	100.0
영남권	318	31.8	49.7	81.4	15.7	2.8	18.6	100.0
강원	44	38.6	45.5	84.1	15.9	0.0	15.9	100.0
제주	32	40.6	43.8	84.4	12.5	3.1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2.0	50.6	82.5	13.4	4.0	17.5	100.0
중/소도시	561	40.8	42.2	83.1	15.9	1.1	16.9	100.0
읍/면	95	42.1	35.8	77.9	16.8	5.3	22.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44.3	41.5	85.8	12.9	1.3	14.2	100.0
중도	588	32.8	48.8	81.6	14.8	3.6	18.4	100.0
보수적	217	34.6	43.8	78.3	18.4	3.2	21.7	100.0
종교								
불교	207	34.8	45.4	80.2	14.0	5.8	19.8	100.0
기독교	220	45.5	40.5	85.9	11.8	2.3	14.1	100.0
천주교	81	38.3	38.3	76.5	19.8	3.7	23.5	100.0
기타	2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4.6	48.3	82.9	15.2	1.9	17.1	100.0
모름/무응답	19	31.6	42.1	73.7	26.3	0.0	26.3	100.0

표59-5. 정책에 대한 의견 - ㉞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추진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2	38.8	44.9	36.7	18.4	55.1	100.0	
성별	남자	615	6.3	38.0	44.4	37.6	18.0	55.6	100.0
	여자	585	6.0	39.5	45.5	35.7	18.8	54.5	100.0
연령별	19~29세	221	6.3	39.8	46.2	37.6	16.3	53.8	100.0
	30대	221	3.6	39.8	43.4	39.8	16.7	56.6	100.0
	40대	252	6.3	34.5	40.9	39.3	19.8	59.1	100.0
	50대	262	8.0	40.8	48.9	33.2	17.9	51.1	100.0
	60대 이상	244	6.1	38.9	45.1	34.0	20.9	54.9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43.6	51.3	34.2	14.5	48.7	100.0
	고졸	485	4.5	41.2	45.8	36.7	17.5	54.2	100.0
	대재 이상	594	7.2	35.7	42.9	37.2	19.9	57.1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5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57.1	71.4	7.1	21.4	28.6	100.0
	자영업	294	4.1	41.5	45.6	36.1	18.4	54.4	100.0
	블루 칼라	337	4.2	37.7	41.8	39.8	18.4	58.2	100.0
	화이트 칼라	264	9.5	32.2	41.7	34.5	23.9	58.3	100.0
	전업 주부	168	6.0	40.5	46.4	35.7	17.9	53.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44.7	53.7	39.0	7.3	46.3	100.0
	200만원 미만	86	8.1	48.8	57.0	25.6	17.4	43.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3	40.9	45.2	38.7	16.1	54.8	100.0
	300~399 만원	333	6.6	37.8	44.4	37.8	17.7	55.6	100.0
	400만원 이상	595	6.2	37.1	43.4	37.0	19.7	56.6	100.0
	수도권	508	5.7	41.1	46.9	36.6	16.5	53.1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5.8	31.6	37.4	33.5	29.0	62.6	100.0
	호남권	143	9.8	41.3	51.0	29.4	19.6	49.0	100.0
	영남권	318	5.7	34.6	40.3	42.5	17.3	59.7	100.0
	강원	44	4.5	52.3	56.8	27.3	15.9	43.2	100.0
	제주	32	6.3	46.9	53.1	40.6	6.3	46.9	100.0
	대도시	544	3.5	38.4	41.9	35.1	23.0	58.1	100.0
	중/소도시	561	8.6	40.8	49.4	39.0	11.6	50.6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7.4	28.4	35.8	31.6	32.6	64.2	100.0
	진보적	395	6.1	36.7	42.8	36.5	20.8	57.2	100.0
	중도 보수적	588	6.8	41.2	48.0	34.5	17.5	52.0	100.0
종교	보수적	217	4.6	35.9	40.6	42.9	16.6	59.4	100.0
	불교	207	6.3	40.6	46.9	30.9	22.2	53.1	100.0
	기독교	220	5.5	41.4	46.8	40.0	13.2	53.2	100.0
	천주교	81	6.2	34.6	40.7	33.3	25.9	59.3	100.0
	기타	2	0.0	0.0	0.0	50.0	50.0	100.0	100.0
	종교 없음	671	6.4	37.6	44.0	37.7	18.3	56.0	100.0
	모름/무응답	19	5.3	52.6	57.9	36.8	5.3	42.1	100.0

표59-6. 정책에 대한 의견 - ㉞ 학교에서 체벌 허용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5.3	40.6	45.9	41.8	12.2	54.0	0.1	100.0	
성별	남자	615	6.3	41.0	47.3	41.0	11.5	52.5	0.2	100.0
	여자	585	4.3	40.2	44.4	42.7	12.8	55.6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4.1	37.1	41.2	44.8	14.0	58.8	0.0	100.0
	30대	221	6.8	38.0	44.8	45.7	9.0	54.8	0.5	100.0
	40대	252	5.6	36.9	42.5	44.0	13.5	57.5	0.0	100.0
	50대	262	4.2	41.2	45.4	41.6	13.0	54.6	0.0	100.0
	60대 이상	244	6.1	49.2	55.3	33.6	11.1	44.7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	48.7	53.8	34.2	12.0	46.2	0.0	100.0
	고졸	485	4.9	41.4	46.4	42.5	11.1	53.6	0.0	100.0
	대재 이상	594	5.7	38.2	43.9	42.8	13.1	55.9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42.9	57.1	35.7	7.1	42.9	0.0	100.0
	자영업	294	7.5	40.8	48.3	40.5	10.9	51.4	0.3	100.0
	블루 칼라	337	4.5	41.5	46.0	40.7	13.4	54.0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6.4	41.7	48.1	40.2	11.7	51.9	0.0	100.0
	전업 주부	168	1.8	41.1	42.9	45.2	11.9	57.1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34.1	38.2	48.0	13.8	61.8	0.0	100.0
	200만원 미만	86	7.0	40.7	47.7	43.0	9.3	52.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5.4	50.5	55.9	36.6	7.5	44.1	0.0	100.0
	300~399 만원	333	5.1	40.5	45.6	41.1	13.2	54.4	0.0	100.0
	400만원 이상	595	5.2	37.5	42.7	43.7	13.4	57.1	0.2	100.0
	수도권	508	5.3	40.9	46.3	43.9	9.8	53.7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4.5	44.5	49.0	35.5	15.5	51.0	0.0	100.0
	호남권	143	4.2	37.8	42.0	42.7	15.4	58.0	0.0	100.0
	영남권	318	6.0	43.1	49.1	40.6	10.4	50.9	0.0	100.0
	강원	44	2.3	27.3	29.5	43.2	27.3	70.5	0.0	100.0
	제주	32	12.5	21.9	34.4	46.9	15.6	62.5	3.1	100.0
	대도시	544	3.3	37.7	41.0	48.2	10.8	59.0	0.0	100.0
	중/소도시	561	7.0	43.0	49.9	37.3	12.7	49.9	0.2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7.4	43.2	50.5	32.6	16.8	49.5	0.0	100.0
	진보적	395	4.6	39.7	44.3	39.2	16.5	55.7	0.0	100.0
	중도 보수적	588	5.3	37.6	42.9	45.9	11.1	57.0	0.2	100.0
종교	보수적	217	6.9	50.2	57.1	35.5	7.4	42.9	0.0	100.0
	불교	207	10.1	41.5	51.7	36.7	11.6	48.3	0.0	100.0
	기독교	220	4.1	40.5	44.5	40.5	14.5	55.0	0.5	100.0
	천주교	81	3.7	39.5	43.2	44.4	12.3	56.8	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5	41.0	45.5	42.9	11.6	54.5	0.0	100.0
	모름/무응답	19	0.0	21.1	21.1	68.4	10.5	78.9	0.0	100.0

표59-7. 정책에 대한 의견 - ㉔ 종교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허용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3.8	34.3	38.1	44.3	17.6	61.8	0.1	100.0	
성별	남자	615	4.7	33.8	38.5	42.3	19.2	61.5	0.0	100.0
	여자	585	2.9	34.7	37.6	46.3	15.9	62.2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4.5	38.0	42.5	43.4	14.0	57.5	0.0	100.0
	30대	221	3.6	31.7	35.3	43.0	21.7	64.7	0.0	100.0
	40대	252	4.0	35.7	39.7	45.2	14.7	59.9	0.4	100.0
	50대	262	4.6	34.0	38.5	45.0	16.4	61.5	0.0	100.0
	60대 이상	244	2.5	32.0	34.4	44.3	21.3	65.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5.1	35.9	41.0	41.0	17.9	59.0	0.0	100.0
	고졸	485	2.5	33.0	35.5	48.2	16.3	64.5	0.0	100.0
	대재 이상	594	4.7	34.8	39.6	41.6	18.7	60.3	0.2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50.0	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28.6	28.6	57.1	0.0	100.0
	자영업	294	2.7	37.4	40.1	41.2	18.7	59.9	0.0	100.0
	블루 칼라	337	4.7	32.9	37.7	46.9	15.4	62.3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4.9	30.3	35.2	44.7	19.7	64.4	0.4	100.0
	전업 주부	168	1.8	33.9	35.7	48.8	15.5	64.3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1	39.0	43.1	39.0	17.9	56.9	0.0	100.0
	200만원 미만	86	5.8	33.7	39.5	34.9	25.6	60.5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7	28.5	31.2	51.1	17.7	68.8	0.0	100.0
	300~399 만원	333	4.2	39.6	43.8	42.6	13.2	55.9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3.7	33.1	36.8	44.4	18.8	63.2	0.0	100.0
	수도권	508	3.7	37.4	41.1	40.9	17.9	58.9	0.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4.5	32.3	36.8	42.6	20.0	62.6	0.6	100.0
	호남권	143	3.5	21.0	24.5	55.2	20.3	75.5	0.0	100.0
	영남권	318	3.5	39.0	42.5	44.0	13.5	57.5	0.0	100.0
	강원	44	2.3	11.4	13.6	56.8	29.5	86.4	0.0	100.0
	제주	32	9.4	37.5	46.9	40.6	12.5	53.1	0.0	100.0
	대도시	544	1.8	33.1	34.9	47.8	17.3	65.1	0.0	100.0
	중/소도시	561	5.7	36.5	42.2	40.8	16.9	57.8	0.0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4.2	27.4	31.6	44.2	23.2	67.4	1.1	100.0
	진보적	395	4.1	36.7	40.8	44.6	14.7	59.2	0.0	100.0
	중도 보수적	588	4.3	33.3	37.6	44.4	17.9	62.2	0.2	100.0
종교	보수적	217	2.3	32.3	34.6	43.3	22.1	65.4	0.0	100.0
	불교	207	4.3	36.2	40.6	40.6	18.8	59.4	0.0	100.0
	기독교	220	2.7	30.0	32.7	49.1	18.2	67.3	0.0	100.0
	천주교	81	6.2	29.6	35.8	50.6	13.6	64.2	0.0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9	36.2	40.1	42.0	17.7	59.8	0.1	100.0
	모름/무응답	19	0.0	15.8	15.8	73.7	10.5	84.2	0.0	100.0

표59-8. 정책에 대한 의견 - ㉕ 사형제 폐지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6.5	25.8	32.3	40.7	27.1	67.8	100.0	
성별	남자	615	7.3	24.4	31.7	41.6	26.7	68.3	100.0
	여자	585	5.6	27.2	32.8	39.7	27.5	67.2	100.0
연령별	19~29세	221	5.9	29.4	35.3	39.8	24.9	64.7	100.0
	30대	221	5.4	26.7	32.1	40.7	27.1	67.9	100.0
	40대	252	6.3	23.0	29.4	42.1	28.6	70.6	100.0
	50대	262	9.2	24.8	34.0	40.8	25.2	66.0	100.0
	60대 이상	244	5.3	25.4	30.7	39.8	29.5	69.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31.6	38.5	35.9	25.6	61.5	100.0
	고졸	485	6.8	23.5	30.3	43.3	26.4	69.7	100.0
	대재 이상	594	6.2	26.4	32.7	39.2	28.1	67.3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28.6	50.0	14.3	35.7	50.0	100.0
	자영업	294	7.8	21.8	29.6	45.9	24.5	70.4	100.0
	블루 칼라	337	5.9	26.7	32.6	40.7	26.7	67.4	100.0
	화이트 칼라	264	4.9	28.4	33.3	33.3	33.3	66.7	100.0
	전업 주부	168	6.5	28.0	34.5	37.5	28.0	65.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6.5	23.6	30.1	51.2	18.7	69.9	100.0
	200만원 미만	86	8.1	26.7	34.9	37.2	27.9	65.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5.9	24.2	30.1	42.5	27.4	69.9	100.0
	300~399 만원	333	7.2	27.0	34.2	42.3	23.4	65.8	100.0
	400만원 이상	595	6.1	25.4	31.4	39.7	28.9	68.6	100.0
	수도권	508	4.9	28.1	33.1	39.6	27.4	66.9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8.4	21.9	30.3	47.1	22.6	69.7	100.0
	호남권	143	5.6	23.8	29.4	41.3	29.4	70.6	100.0
	영남권	318	8.2	26.1	34.3	39.0	26.7	65.7	100.0
	강원	44	6.8	13.6	20.5	43.2	36.4	79.5	100.0
	제주	32	9.4	28.1	37.5	37.5	25.0	62.5	100.0
	대도시	544	6.1	27.4	33.5	36.0	30.5	66.5	100.0
	중/소도시	561	7.0	24.8	31.7	43.7	24.6	68.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6.3	22.1	28.4	49.5	22.1	71.6	100.0
	진보적	395	8.1	31.9	40.0	37.7	22.3	60.0	100.0
	중도 보수적	588	5.3	22.6	27.9	42.7	29.4	72.1	100.0
종교	보수적	217	6.9	23.0	30.0	40.6	29.5	70.0	100.0
	불교	207	7.7	27.5	35.3	34.3	30.4	64.7	100.0
	기독교	220	6.4	22.3	28.6	43.2	28.2	71.4	100.0
	천주교	81	8.6	32.1	40.7	35.8	23.5	59.3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6.1	25.0	31.1	42.2	26.7	68.9	100.0
	모름/무응답	19	0.0	42.1	42.1	47.4	10.5	57.9	100.0

표59-9. 정책에 대한 의견 - ㉔ 이주 노동자 및 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5.1	53.2	68.3	28.1	3.7	31.8	100.0	
성별	남자	615	15.9	51.9	67.8	27.6	4.6	32.2	100.0
	여자	585	14.2	54.5	68.7	28.5	2.7	31.3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6	52.0	65.6	32.1	2.3	34.4	100.0
	30대	221	14.0	53.4	67.4	29.0	3.6	32.6	100.0
	40대	252	18.7	51.2	69.8	25.8	4.4	30.2	100.0
	50대	262	14.5	53.1	67.6	27.9	4.6	32.4	100.0
	60대 이상	244	14.3	56.1	70.5	26.2	3.3	29.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0.3	59.8	70.1	29.9	0.0	29.9	100.0
	고졸	485	14.6	52.4	67.0	28.7	4.3	33.0	100.0
	대재 이상	594	16.3	52.4	68.7	27.4	3.9	31.3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35.7	57.1	28.6	14.3	42.9	100.0
	자영업	294	12.9	62.6	75.5	21.8	2.7	24.5	100.0
	블루 칼라	337	14.2	50.1	64.4	30.9	4.7	35.6	100.0
	화이트 칼라	264	19.7	47.0	66.7	28.0	5.3	33.3	100.0
	전업 주부	168	12.5	57.1	69.6	28.0	2.4	30.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5.4	48.8	64.2	35.8	0.0	35.8	100.0
	200만원 미만	86	12.8	50.0	62.8	29.1	8.1	37.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4.0	53.2	67.2	30.6	2.2	32.8	100.0
	300~399 만원	333	14.7	57.4	72.1	24.3	3.6	27.9	100.0
	400만원 이상	595	16.0	51.3	67.2	29.2	3.5	32.8	100.0
	수도권	508	17.7	50.4	68.1	28.7	3.1	31.9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6.1	51.6	67.7	26.5	5.8	32.3	100.0
	호남권	143	8.4	59.4	67.8	29.4	2.8	32.2	100.0
	영남권	318	11.6	56.6	68.2	27.7	4.1	31.8	100.0
	강원	44	27.3	36.4	63.6	36.4	0.0	36.4	100.0
	제주	32	15.6	65.6	81.3	12.5	6.3	18.8	100.0
	대도시	544	15.6	54.6	70.2	25.9	3.9	29.8	100.0
	중/소도시	561	13.4	53.8	67.2	29.9	2.9	32.8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22.1	41.1	63.2	29.5	7.4	36.8	100.0
	진보적	395	13.2	52.2	65.3	29.1	5.6	34.7	100.0
	중도 보수적	588	14.1	53.4	67.5	29.1	3.4	32.5	100.0
종교	보수적	217	21.2	54.4	75.6	23.5	0.9	24.4	100.0
	불교	207	15.5	53.6	69.1	26.6	4.3	30.9	100.0
	기독교	220	14.1	57.3	71.4	23.6	5.0	28.6	100.0
	천주교	81	17.3	54.3	71.6	28.4	0.0	28.4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5.2	51.6	66.8	29.7	3.6	33.2	100.0
	모름/무응답	19	10.5	52.6	63.2	36.8	0.0	36.8	100.0

표59-10. 정책에 대한 의견 - ㉕ 성평등 정책 확대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1.3	54.4	65.7	30.8	3.5	34.3	100.0	
성별	남자	615	8.6	50.6	59.2	35.9	4.9	40.8	100.0
	여자	585	14.0	58.5	72.5	25.5	2.1	27.5	100.0
연령별	19~29세	221	12.7	53.8	66.5	31.2	2.3	33.5	100.0
	30대	221	10.4	54.3	64.7	29.9	5.4	35.3	100.0
	40대	252	11.5	57.9	69.4	27.4	3.2	30.6	100.0
	50대	262	10.3	50.4	60.7	36.3	3.1	39.3	100.0
	60대 이상	244	11.5	55.7	67.2	29.1	3.7	3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2.8	53.8	66.7	29.9	3.4	33.3	100.0
	고졸	485	9.5	56.7	66.2	30.9	2.9	33.8	100.0
	대재 이상	594	12.3	52.5	64.8	31.1	4.0	35.2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78.6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9.5	51.0	60.5	32.3	7.1	39.5	100.0
	블루 칼라	337	11.0	56.7	67.7	30.3	2.1	32.3	100.0
	화이트 칼라	264	14.0	47.3	61.4	36.4	2.3	38.6	100.0
	전업 주부	168	11.3	61.9	73.2	23.8	3.0	26.8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1.4	58.5	69.9	27.6	2.4	30.1	100.0
	200만원 미만	86	14.0	46.5	60.5	34.9	4.7	39.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9.7	57.0	66.7	30.6	2.7	33.3	100.0
	300~399 만원	333	9.9	56.8	66.7	30.3	3.0	33.3	100.0
	400만원 이상	595	12.1	53.4	65.5	30.6	3.9	34.5	100.0
	수도권	508	9.6	56.1	65.7	31.1	3.1	34.3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4.2	44.5	58.7	34.8	6.5	41.3	100.0
	호남권	143	14.0	62.9	76.9	23.1	0.0	23.1	100.0
	영남권	318	10.1	52.8	62.9	32.7	4.4	37.1	100.0
	강원	44	13.6	50.0	63.6	36.4	0.0	36.4	100.0
	제주	32	18.8	59.4	78.1	15.6	6.3	21.9	100.0
	대도시	544	8.6	57.5	66.2	30.5	3.3	33.8	100.0
	중/소도시	561	12.8	51.9	64.7	31.6	3.7	35.3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16.8	51.6	68.4	28.4	3.2	31.6	100.0
	진보적	395	13.2	52.2	65.3	31.9	2.8	34.7	100.0
	중도 보수적	588	10.7	55.4	66.2	30.1	3.7	33.8	100.0
종교	보수적	217	9.2	55.8	65.0	30.9	4.1	35.0	100.0
	불교	207	11.1	50.7	61.8	34.3	3.9	38.2	100.0
	기독교	220	10.0	60.9	70.9	25.0	4.1	29.1	100.0
	천주교	81	8.6	63.0	71.6	27.2	1.2	28.4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1.8	52.2	63.9	32.5	3.6	36.1	100.0
	모름/무응답	19	15.8	68.4	84.2	15.8	0.0	15.8	100.0

표59-11. 정책에 대한 의견 - ㉞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지금보다 더 필요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인 찬성	①+②	③ 비교적인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11.6	49.4	61.0	34.6	4.4	39.0	100.0	
성별	남자	615	9.9	48.0	57.9	37.7	4.4	42.1	100.0
	여자	585	13.3	50.9	64.3	31.3	4.4	35.7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1	48.0	61.1	35.7	3.2	38.9	100.0
	30대	221	11.3	50.2	61.5	33.9	4.5	38.5	100.0
	40대	252	11.5	48.4	59.9	35.3	4.8	40.1	100.0
	50대	262	10.3	51.9	62.2	32.4	5.3	37.8	100.0
	60대 이상	244	11.9	48.4	60.2	35.7	4.1	39.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1	49.6	66.7	30.8	2.6	33.3	100.0
	고졸	485	10.7	50.5	61.2	34.2	4.5	38.8	100.0
	대재 이상	594	11.1	48.7	59.8	35.5	4.7	40.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25.0	50.0	50.0	0.0	50.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57.1	78.6	21.4	0.0	21.4	100.0
	자영업	294	9.2	51.0	60.2	35.7	4.1	39.8	100.0
	블루 칼라	337	14.8	48.7	63.5	32.0	4.5	36.5	100.0
	화이트 칼라	264	12.9	48.1	61.0	33.3	5.7	39.0	100.0
	전업 주부	168	8.3	50.0	58.3	35.7	6.0	41.7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9	48.8	57.7	41.5	0.8	42.3	100.0
	200만원 미만	86	7.0	55.8	62.8	33.7	3.5	37.2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13.4	40.9	54.3	43.0	2.7	45.7	100.0
	300~399 만원	333	11.4	52.3	63.7	32.7	3.6	36.3	100.0
	400만원 이상	595	11.8	49.6	61.3	33.1	5.5	38.7	100.0
	수도권	508	8.9	54.1	63.0	31.9	5.1	37.0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11.6	47.7	59.4	35.5	5.2	40.6	100.0
	호남권	143	20.3	60.8	81.1	18.2	0.7	18.9	100.0
	영남권	318	11.3	39.0	50.3	45.3	4.4	49.7	100.0
	강원	44	9.1	43.2	52.3	40.9	6.8	47.7	100.0
	제주	32	21.9	43.8	65.6	31.3	3.1	34.4	100.0
	대도시	544	10.3	45.6	55.9	36.8	7.4	44.1	100.0
	중/소도시	561	12.7	52.2	64.9	33.2	2.0	35.1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12.6	54.7	67.4	30.5	2.1	32.6	100.0
	진보적	395	12.2	54.9	67.1	30.1	2.8	32.9	100.0
	중도 보수적	588	11.9	48.8	60.7	33.7	5.6	39.3	100.0
종교	불교	217	9.7	41.0	50.7	45.2	4.1	49.3	100.0
	기독교	220	12.6	47.8	60.4	32.4	7.2	39.6	100.0
	기독교	220	14.1	56.8	70.9	25.9	3.2	29.1	100.0
	천주교	81	6.2	58.0	64.2	34.6	1.2	35.8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1.0	46.1	57.1	38.5	4.5	42.9	100.0
	모름/무응답	19	15.8	57.9	73.7	26.3	0.0	26.3	100.0

표59-12. 정책에 대한 의견 - ㉟ 재벌규제 지금보다 더 강화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인 찬성	①+②	③ 비교적인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	
전 체	1200	20.9	46.1	67.0	28.7	4.3	33.0	100.0	
성별	남자	615	22.3	42.9	65.2	30.6	4.2	34.8	100.0
	여자	585	19.5	49.4	68.9	26.7	4.4	31.1	100.0
연령별	19~29세	221	19.5	41.2	60.6	35.7	3.6	39.4	100.0
	30대	221	20.4	51.1	71.5	25.8	2.7	28.5	100.0
	40대	252	23.8	50.8	74.6	22.6	2.8	25.4	100.0
	50대	262	18.3	46.9	65.3	29.4	5.3	34.7	100.0
	60대 이상	244	22.5	40.2	62.7	30.3	7.0	37.3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9.7	42.7	62.4	34.2	3.4	37.6	100.0
	고졸	485	20.8	48.5	69.3	26.4	4.3	30.7	100.0
	대재 이상	594	21.4	44.6	66.0	29.5	4.5	34.0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75.0	75.0	25.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21.4	50.0	71.4	28.6	0.0	28.6	100.0
	자영업	294	18.7	52.7	71.4	24.8	3.7	28.6	100.0
	블루 칼라	337	24.0	46.3	70.3	26.4	3.3	29.7	100.0
	화이트 칼라	264	23.9	42.4	66.3	28.4	5.3	33.7	100.0
	전업 주부	168	14.9	45.2	60.1	33.3	6.5	39.9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9.5	38.2	57.7	38.2	4.1	42.3	100.0
	200만원 미만	86	18.6	32.6	51.2	44.2	4.7	48.8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24.2	41.9	66.1	29.0	4.8	33.9	100.0
	300~399 만원	333	21.6	48.9	70.6	25.8	3.6	29.4	100.0
	400만원 이상	595	19.8	47.7	67.6	27.9	4.5	32.4	100.0
	수도권	508	18.1	48.0	66.1	28.0	5.9	33.9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5.2	43.9	69.0	27.7	3.2	31.0	100.0
	호남권	143	28.7	51.0	79.7	19.6	0.7	20.3	100.0
	영남권	318	17.9	40.3	58.2	37.4	4.4	41.8	100.0
	강원	44	27.3	61.4	88.6	11.4	0.0	11.4	100.0
	제주	32	31.3	40.6	71.9	21.9	6.3	28.1	100.0
	대도시	544	17.8	41.7	59.6	33.5	7.0	40.4	100.0
	중/소도시	561	23.5	49.0	72.5	25.5	2.0	27.5	100.0
정치적 성향	읍/면	95	23.2	53.7	76.8	20.0	3.2	23.2	100.0
	진보적	395	27.1	49.1	76.2	21.5	2.3	23.8	100.0
	중도 보수적	588	18.5	46.8	65.3	30.6	4.1	34.7	100.0
종교	불교	217	16.1	38.7	54.8	36.4	8.8	45.2	100.0
	기독교	220	24.6	38.6	63.3	30.4	6.3	36.7	100.0
	기독교	220	29.1	43.2	72.3	24.1	3.6	27.7	100.0
	천주교	81	17.3	48.1	65.4	28.4	6.2	34.6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7.7	48.7	66.5	29.7	3.9	33.5	100.0
	모름/무응답	19	10.5	63.2	73.7	26.3	0.0	26.3	100.0

표59-13. 정책에 대한 의견 - ㉔ 경제성장을 위해 지금보다 노조활동 규제

문)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비교적 찬성	①+②	③ 비교적 반대	④ 매우 반대	③+④	계	
		%	%	%	%	%	%		
전 체	1200	10.6	47.9	58.5	36.8	4.8	41.5	100.0	
성별	남자	615	12.2	45.5	57.7	37.1	5.2	42.3	100.0
	여자	585	8.9	50.4	59.3	36.4	4.3	40.7	100.0
연령별	19~29세	221	7.2	47.5	54.8	40.3	5.0	45.2	100.0
	30대	221	5.9	52.9	58.8	37.1	4.1	41.2	100.0
	40대	252	13.1	48.0	61.1	33.7	5.2	38.9	100.0
	50대	262	13.7	45.4	59.2	35.9	5.0	40.8	100.0
	60대 이상	244	11.9	46.3	58.2	37.3	4.5	41.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9.4	55.6	65.0	31.6	3.4	35.0	100.0
	고졸	485	10.3	47.0	57.3	38.6	4.1	42.7	100.0
	대재 이상	594	11.1	47.3	58.4	36.0	5.6	41.6	100.0
	모름/무응답	4	0.0	25.0	25.0	75.0	0.0	7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50.0	7.1	57.1	100.0
	자영업	294	12.2	50.0	62.2	34.4	3.4	37.8	100.0
	블루 칼라	337	10.1	49.6	59.6	35.0	5.3	40.4	100.0
	화이트 칼라	264	9.5	45.5	54.9	37.9	7.2	45.1	100.0
	전업 주부	168	10.7	45.8	56.5	39.9	3.6	43.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0.6	48.0	58.5	39.0	2.4	41.5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5.1	41.9	57.0	39.5	3.5	43.0	100.0
	200~299 만원	186	6.5	47.3	53.8	39.2	7.0	46.2	100.0
	300~399 만원	333	9.9	50.5	60.4	35.4	4.2	39.6	100.0
	400만원 이상	595	11.6	47.6	59.2	36.3	4.5	40.8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0.0	51.2	61.2	36.4	2.4	38.8	100.0
	충청권	155	8.4	40.0	48.4	43.9	7.7	51.6	100.0
	호남권	143	10.5	50.3	60.8	31.5	7.7	39.2	100.0
	영남권	318	14.5	45.3	59.7	35.2	5.0	40.3	100.0
	강원	44	0.0	56.8	56.8	40.9	2.3	43.2	100.0
	제주	32	6.3	37.5	43.8	40.6	15.6	56.3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4.9	45.2	60.1	36.6	3.3	39.9	100.0
	중/소도시	561	6.4	52.6	59.0	35.8	5.2	41.0	100.0
	읍/면	95	10.5	35.8	46.3	43.2	10.5	5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8.9	46.1	54.9	37.5	7.6	45.1	100.0
	중도	588	9.0	51.9	60.9	36.1	3.1	39.1	100.0
	보수적	217	18.0	40.6	58.5	37.3	4.1	41.5	100.0
종교	불교	207	12.1	52.7	64.7	30.4	4.8	35.3	100.0
	기독교	220	10.9	48.6	59.5	34.5	5.9	40.5	100.0
	천주교	81	7.4	46.9	54.3	38.3	7.4	45.7	100.0
	기타	2	50.0	0.0	50.0	50.0	0.0	50.0	100.0
	종교 없음	671	10.6	46.3	56.9	38.9	4.2	43.1	100.0
	모름/무응답	19	0.0	52.6	52.6	47.4	0.0	47.4	100.0

표60. 정치적 성향

문)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진보적	② 약간 진보적	①+②	③ 중도	④ 약간 보수적	⑤ 매우 보수적	④+⑤	계	
		%	%	%	%	%	%	%		
전 체	1200	3.3	29.6	32.9	49.0	16.7	1.4	18.1	100.0	
성별	남자	615	4.1	30.7	34.8	47.0	16.9	1.3	18.2	100.0
	여자	585	2.6	28.4	30.9	51.1	16.4	1.5	17.9	100.0
연령별	19~29세	221	3.2	38.9	42.1	52.5	5.4	0.0	5.4	100.0
	30대	221	1.4	36.2	37.6	53.8	8.1	0.5	8.6	100.0
	40대	252	2.0	28.2	30.2	54.4	15.1	0.4	15.5	100.0
	50대	262	5.3	26.0	31.3	46.6	21.0	1.1	22.1	100.0
	60대 이상	244	4.5	20.5	25.0	38.5	31.6	4.9	36.5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16.2	17.9	42.7	33.3	6.0	39.3	100.0
	고졸	485	3.7	27.2	30.9	49.5	18.4	1.2	19.6	100.0
	대재 이상	594	3.4	34.0	37.4	50.0	12.0	0.7	12.6	100.0
	모름/무응답	4	0.0	50.0	50.0	2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7.1	35.7	42.9	35.7	14.3	7.1	21.4	100.0
	자영업	294	3.7	25.9	29.6	44.6	24.5	1.4	25.9	100.0
	블루 칼라	337	2.7	29.1	31.8	52.5	13.9	1.8	15.7	100.0
	화이트 칼라	264	4.5	36.4	40.9	49.2	9.8	0.0	9.8	100.0
	전업 주부	168	0.6	25.0	25.6	50.0	22.0	2.4	24.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4.9	30.9	35.8	49.6	13.0	1.6	14.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5	12.8	16.3	50.0	27.9	5.8	33.7	100.0
	200~299 만원	186	2.2	25.8	28.0	43.0	25.8	3.2	29.0	100.0
	300~399 만원	333	3.3	32.1	35.4	49.8	14.7	0.0	14.7	100.0
	400만원 이상	595	3.7	31.8	35.5	50.3	13.3	1.0	14.3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5	27.2	30.7	54.7	13.4	1.2	14.6	100.0
	충청권	155	1.9	36.1	38.1	47.7	13.5	0.6	14.2	100.0
	호남권	143	4.9	38.5	43.4	46.9	9.8	0.0	9.8	100.0
	영남권	318	3.5	23.6	27.0	44.0	26.1	2.8	28.9	100.0
	강원	44	2.3	40.9	43.2	36.4	18.2	2.3	20.5	100.0
	제주	32	0.0	40.6	40.6	40.6	18.8	0.0	18.8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3.1	27.6	30.7	50.6	17.8	0.9	18.8	100.0
	중/소도시	561	3.2	30.5	33.7	49.4	15.5	1.4	16.9	100.0
	읍/면	95	5.3	35.8	41.1	37.9	16.8	4.2	2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0.1	89.9	100.0	0.0	0.0	0.0	0.0	100.0
	중도	588	0.0	0.0	0.0	100.0	0.0	0.0	0.0	100.0
	보수적	217	0.0	0.0	0.0	0.0	92.2	7.8	100.0	100.0
종교	불교	207	1.4	23.7	25.1	46.4	24.6	3.9	28.5	100.0
	기독교	220	4.5	29.5	34.1	43.6	20.9	1.4	22.3	100.0
	천주교	81	3.7	35.8	39.5	48.1	11.1	1.2	12.3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3.6	30.7	34.3	51.4	13.6	0.7	14.3	100.0
모름/무응답	19	0.0	26.3	26.3	57.9	15.8	0.0	15.8	100.0	

표61. 지지정당

문)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사례수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기타 정당	지지 정당 없음	계	
		%	%	%	%	%	%	%		
전 체	1200	29.6	12.3	2.8	1.1	3.1	0.8	50.3	100.0	
성별	남자	615	30.2	12.2	3.6	0.3	3.7	0.8	49.1	100.0
	여자	585	28.9	12.5	2.1	1.9	2.4	0.9	51.5	100.0
연령별	19~29세	221	28.5	3.6	3.2	2.3	1.8	1.4	59.3	100.0
	30대	221	31.2	4.1	4.1	0.9	3.2	0.9	55.7	100.0
	40대	252	33.3	7.9	2.8	0.8	2.8	0.4	52.0	100.0
	50대	262	29.0	15.3	3.1	0.4	5.3	0.8	46.2	100.0
	60대 이상	244	25.8	29.1	1.2	1.2	2.0	0.8	39.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9.7	29.1	0.0	1.7	1.7	0.0	47.9	100.0
	고졸	485	31.5	13.2	2.7	0.8	3.1	0.4	48.2	100.0
	대재 이상	594	30.0	8.2	3.4	1.2	3.4	1.3	52.5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25.0	25.0	25.0	0.0	0.0	0.0	25.0	100.0
	농/수/축산업	14	35.7	28.6	7.1	7.1	7.1	0.0	14.3	100.0
	자영업	294	23.1	18.0	3.4	0.3	1.7	0.7	52.7	100.0
	블루 칼라	337	33.5	9.5	2.4	1.2	2.4	1.2	49.9	100.0
	화이트 칼라	264	36.7	6.8	1.9	1.9	6.1	1.5	45.1	100.0
	전업 주부	168	27.4	13.7	1.8	0.6	3.0	0.0	53.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1.1	14.6	5.7	0.8	1.6	0.0	56.1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7.9	23.3	4.7	3.5	1.2	0.0	39.5	100.0
	200~299 만원	186	27.4	18.3	2.2	0.5	1.1	1.1	49.5	100.0
	300~399 만원	333	31.5	11.4	3.3	0.6	1.8	0.3	51.1	100.0
	400만원 이상	595	29.4	9.4	2.5	1.2	4.7	1.2	51.6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4.0	12.0	3.5	0.4	2.6	0.8	56.7	100.0
	충청권	155	33.5	7.7	1.9	1.3	5.8	1.3	48.4	100.0
	호남권	143	66.4	0.7	0.7	5.6	2.1	0.0	24.5	100.0
	영남권	318	18.6	19.2	2.8	0.0	3.5	0.9	55.0	100.0
	강원	44	31.8	18.2	2.3	2.3	2.3	0.0	43.2	100.0
	제주	32	40.6	15.6	6.3	0.0	0.0	3.1	3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4	12.9	3.5	0.9	2.9	0.4	55.0	100.0
	중/소도시	561	32.4	11.2	2.5	1.4	3.0	1.4	48.0	100.0
	읍/면	95	42.1	15.8	1.1	0.0	4.2	0.0	36.8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51.6	5.1	2.3	0.5	6.1	1.0	33.4	100.0
	중도	588	20.9	6.8	3.6	1.9	2.0	0.7	64.1	100.0
	보수적	217	12.9	40.6	1.8	0.0	0.5	0.9	43.3	100.0
종교	불교	207	26.6	22.2	2.4	1.4	2.9	1.4	43.0	100.0
	기독교	220	35.0	11.8	1.8	1.4	2.7	0.0	47.3	100.0
	천주교	81	32.1	7.4	9.9	0.0	4.9	0.0	45.7	100.0
	기타	2	50.0	0.0	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8.5	10.1	2.4	0.9	3.1	1.0	53.9	100.0
	모름/무응답	19	26.3	10.5	5.3	0.0	0.0	0.0	57.9	100.0

표62. 2017년 대통령 선거 투표

문) ○○님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셨습니다?

	사례수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기타 후보자	투표 하지 않았다	계	
		%	%	%	%	%	%	%		
전 체	1200	47.9	14.2	6.5	2.8	2.0	1.7	21.0	100.0	
성별	남자	615	49.9	13.8	7.3	2.3	2.0	1.8	19.3	100.0
	여자	585	45.8	14.5	5.6	3.2	2.1	1.5	22.7	100.0
연령별	19~29세	221	39.8	3.2	6.8	2.3	2.7	1.8	41.2	100.0
	30대	221	57.9	5.4	6.8	2.7	2.3	1.4	19.5	100.0
	40대	252	55.6	8.7	7.1	4.0	2.0	2.0	15.9	100.0
	50대	262	47.3	16.8	7.3	1.5	1.9	1.5	17.9	100.0
	60대 이상	244	38.9	34.8	4.5	3.3	1.2	1.6	12.7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35.0	38.5	6.0	3.4	0.9	0.0	14.5	100.0
	고졸	485	49.3	15.9	6.6	2.9	1.6	0.8	18.1	100.0
	대재 이상	594	49.2	7.9	6.6	2.5	2.5	2.7	24.7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75.0	25.0	0.0	0.0	0.0	0.0	0.0	100.0
	농/수/축산업	14	64.3	7.1	14.3	7.1	0.0	0.0	7.1	100.0
	자영업	294	42.2	23.5	9.2	1.7	1.0	2.0	15.6	100.0
	블루 칼라	337	52.8	12.2	5.6	2.7	2.1	1.5	20.2	100.0
	화이트 칼라	264	56.8	6.8	5.7	3.0	3.0	2.3	16.7	100.0
	전업 주부	168	47.0	18.5	5.4	3.0	1.8	1.2	18.5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8.5	8.1	4.9	4.1	2.4	0.8	50.4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36.0	30.2	4.7	5.8	1.2	2.3	17.4	100.0
	200~299 만원	186	44.1	23.1	5.4	2.2	1.1	1.1	18.8	100.0
	300~399 만원	333	49.5	12.6	7.2	2.7	1.8	1.8	21.9	100.0
	400만원 이상	595	49.9	9.9	6.7	2.5	2.5	1.7	21.7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39.8	12.4	8.7	3.1	2.2	1.6	26.2	100.0
	충청권	155	56.8	10.3	5.2	2.6	2.6	1.3	15.5	100.0
	호남권	143	81.8	0.7	2.8	0.7	2.8	0.7	9.1	100.0
	영남권	318	39.0	25.5	6.0	3.5	1.6	2.8	20.8	100.0
	강원	44	61.4	15.9	0.0	0.0	0.0	0.0	18.2	100.0
	제주	32	53.1	6.3	9.4	3.1	0.0	0.0	25.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44.9	16.5	8.1	2.6	2.4	1.5	20.6	100.0
	중/소도시	561	49.0	11.8	5.9	2.9	1.6	1.6	22.6	100.0
	읍/면	95	58.9	14.7	1.1	3.2	2.1	3.2	1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66.3	4.1	5.1	1.8	2.8	0.8	16.7	100.0
	중도	588	43.7	10.2	7.8	3.1	2.2	2.0	25.9	100.0
	보수적	217	25.8	43.3	5.5	3.7	0.0	2.3	15.7	100.0
종교	불교	207	42.5	25.1	6.3	2.4	1.0	1.0	18.8	100.0
	기독교	220	50.0	12.7	5.9	1.8	2.7	1.4	18.6	100.0
	천주교	81	50.6	7.4	11.1	6.2	4.9	0.0	14.8	100.0
	기타	2	100.0	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8.9	12.1	6.1	2.7	1.8	2.2	23.0	100.0
	모름/무응답	19	31.6	15.8	10.5	5.3	0.0	0.0	31.6	100.0

표63. 현 대통령 직무 평가

문)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하고 있다	①+②	③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④ 매우 잘못하고 있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 체	1200	6.9	39.0	45.9	41.4	12.6	54.0	0.1	100.0
성별									
남자	615	7.8	40.0	47.8	38.9	13.3	52.2	0.0	100.0
여자	585	6.0	37.9	43.9	44.1	11.8	55.9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6.3	45.2	51.6	41.2	7.2	48.4	0.0	100.0
30대	221	5.0	39.8	44.8	47.5	7.7	55.2	0.0	100.0
40대	252	6.3	40.9	47.2	40.9	11.5	52.4	0.4	100.0
50대	262	8.0	37.0	45.0	39.3	15.6	55.0	0.0	100.0
60대 이상	244	8.6	32.8	41.4	38.9	19.7	58.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0.3	30.8	41.0	36.8	22.2	59.0	0.0	100.0
고졸	485	5.6	35.1	40.6	47.4	11.8	59.2	0.2	100.0
대재 이상	594	7.2	44.1	51.3	37.4	11.3	48.7	0.0	100.0
모름/무응답	4	25.0	0.0	25.0	50.0	25.0	75.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35.7	57.1	28.6	14.3	42.9	0.0	100.0
자영업	294	7.5	32.0	39.5	39.1	21.1	60.2	0.3	100.0
블루 칼라	337	5.0	40.4	45.4	46.6	8.0	54.6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9.5	48.5	58.0	33.7	8.3	42.0	0.0	100.0
전업 주부	168	3.6	34.5	38.1	48.8	13.1	61.9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8.1	38.2	46.3	40.7	13.0	53.7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8.1	32.6	40.7	44.2	15.1	59.3	0.0	100.0
200~299 만원	186	7.0	39.2	46.2	39.2	14.5	53.8	0.0	100.0
300~399 만원	333	8.1	37.8	45.9	40.2	13.5	53.8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6.1	40.5	46.6	42.4	11.1	53.4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4.7	34.6	39.4	50.0	10.4	60.4	0.2	100.0
충청권	155	9.0	49.7	58.7	34.8	6.5	41.3	0.0	100.0
호남권	143	17.5	67.1	84.6	13.3	2.1	15.4	0.0	100.0
영남권	318	4.1	24.8	28.9	46.9	24.2	71.1	0.0	100.0
강원	44	2.3	54.5	56.8	29.5	13.6	43.2	0.0	100.0
제주	32	18.8	50.0	68.8	25.0	6.3	31.3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5.5	34.4	39.9	45.4	14.7	60.1	0.0	100.0
중/소도시	561	6.8	41.7	48.5	40.5	10.9	51.3	0.2	100.0
읍/면	95	15.8	49.5	65.3	24.2	10.5	34.7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4.7	51.9	66.6	28.4	4.8	33.2	0.3	100.0
중도	588	3.2	36.7	40.0	49.8	10.2	60.0	0.0	100.0
보수적	217	2.8	21.7	24.4	42.4	33.2	75.6	0.0	100.0
종교									
불교	207	7.7	33.3	41.1	37.2	21.7	58.9	0.0	100.0
기독교	220	9.5	39.5	49.1	37.3	13.6	50.9	0.0	100.0
천주교	81	2.5	54.3	56.8	30.9	12.3	43.2	0.0	100.0
기타	2	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6.4	39.2	45.6	45.0	9.2	54.2	0.1	100.0
모름/무응답	19	5.3	15.8	21.1	57.9	21.1	78.9	0.0	100.0

표64. 결혼 여부

문) ○○님은 결혼하셨습니다가?

	사례수	미혼	기혼	이혼/별거	사별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 체	1200	25.1	71.1	2.0	1.8	0.1	100.0
성별							
남자	615	29.4	65.7	3.3	1.6	0.0	100.0
여자	585	20.5	76.8	0.7	1.9	0.2	100.0
연령별							
19~29세	221	89.6	9.0	0.9	0.5	0.0	100.0
30대	221	33.5	63.8	1.8	0.9	0.0	100.0
40대	252	7.9	89.7	1.2	0.8	0.4	100.0
50대	262	2.3	94.3	3.4	0.0	0.0	100.0
60대 이상	244	1.2	89.8	2.5	6.6	0.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83.8	4.3	10.3	0.0	100.0
고졸	485	10.9	85.8	2.3	0.8	0.2	100.0
대재 이상	594	41.4	57.1	1.0	0.5	0.0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50.0	5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21.4	71.4	0.0	7.1	0.0	100.0
자영업	294	5.8	91.5	2.0	0.7	0.0	100.0
블루 칼라	337	30.0	64.7	3.0	2.1	0.3	100.0
화이트 칼라	264	32.6	65.9	1.1	0.4	0.0	100.0
전업 주부	168	1.8	94.0	0.6	3.6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74.0	19.5	3.3	3.3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6.3	64.0	8.1	11.6	0.0	100.0
200~299 만원	186	21.0	75.3	1.6	2.2	0.0	100.0
300~399 만원	333	18.3	78.1	2.4	0.9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31.4	66.9	1.0	0.7	0.0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26.6	71.1	1.4	1.0	0.0	100.0
충청권	155	29.0	69.0	0.0	1.9	0.0	100.0
호남권	143	21.0	73.4	3.5	2.1	0.0	100.0
영남권	318	22.3	73.0	1.9	2.5	0.3	100.0
강원	44	25.0	65.9	6.8	2.3	0.0	100.0
제주	32	28.1	59.4	9.4	3.1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8	72.8	1.5	0.9	0.0	100.0
중/소도시	561	26.2	69.2	2.1	2.3	0.2	100.0
읍/면	95	20.0	72.6	4.2	3.2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1.1	66.1	2.0	0.8	0.0	100.0
중도	588	27.0	69.0	1.7	2.0	0.2	100.0
보수적	217	8.8	85.7	2.8	2.8	0.0	100.0
종교							
불교	207	13.0	80.2	2.9	3.9	0.0	100.0
기독교	220	22.7	74.5	1.4	1.4	0.0	100.0
천주교	81	18.5	76.5	2.5	2.5	0.0	100.0
기타	2	10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29.4	67.5	1.9	1.0	0.1	100.0
모름/무응답	19	52.6	42.1	0.0	5.3	0.0	100.0

표65. 가구 소득 계층

문)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⑤	④+⑤	계
		중간보다 훨씬 높다	중간보다 약간 높다		중간과 비슷하다	중간보다 약간 낮다	중간보다 훨씬 낮다		
		%	%	%	%	%	%	%	%
전 체	1200	0.7	7.3	7.9	49.1	35.8	7.2	43.0	100.0
성별									
남자	615	0.8	7.5	8.3	48.0	36.1	7.6	43.7	100.0
여자	585	0.5	7.0	7.5	50.3	35.6	6.7	42.2	100.0
연령별									
19~29세	221	0.5	7.7	8.1	55.2	31.2	5.4	36.7	100.0
30대	221	0.0	8.6	8.6	52.9	33.9	4.5	38.5	100.0
40대	252	0.0	7.1	7.1	47.2	40.5	5.2	45.6	100.0
50대	262	1.1	7.6	8.8	50.0	35.1	6.1	41.2	100.0
60대 이상	244	1.6	5.3	7.0	41.0	37.7	14.3	52.0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7	5.1	6.8	33.3	43.6	16.2	59.8	100.0
고졸	485	0.4	4.7	5.2	45.4	40.6	8.9	49.5	100.0
대재 이상	594	0.7	9.8	10.4	55.1	30.5	4.0	34.5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75.0	25.0	0.0	25.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7.1	7.1	64.3	21.4	7.1	28.6	100.0
자영업	294	0.3	7.5	7.8	48.3	36.7	7.1	43.9	100.0
블루 칼라	337	0.6	3.3	3.9	44.5	43.0	8.6	51.6	100.0
화이트 칼라	264	0.8	11.7	12.5	60.6	24.6	2.3	26.9	100.0
전업 주부	168	0.0	6.5	6.5	44.0	40.5	8.9	49.4	100.0
학생/군인/무직	123	2.4	8.9	11.4	43.9	33.3	11.4	44.7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2	4.7	5.8	26.7	38.4	29.1	67.4	100.0
200~299 만원	186	1.1	1.1	2.2	33.3	51.1	13.4	64.5	100.0
300~399 만원	333	0.3	3.6	3.9	42.6	45.0	8.4	53.5	100.0
400만원 이상	595	0.7	11.6	12.3	60.8	25.5	1.3	26.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0.2	8.7	8.9	45.1	39.6	6.5	46.1	100.0
충청권	155	0.6	3.2	3.9	67.7	25.2	3.2	28.4	100.0
호남권	143	0.7	9.8	10.5	44.8	37.1	7.7	44.8	100.0
영남권	318	1.6	4.7	6.3	48.4	35.2	10.1	45.3	100.0
강원	44	0.0	11.4	11.4	45.5	38.6	4.5	43.2	100.0
제주	32	0.0	12.5	12.5	53.1	25.0	9.4	34.4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4	7.0	7.4	47.6	37.7	7.4	45.0	100.0
중/소도시	561	0.9	7.3	8.2	49.2	35.3	7.3	42.6	100.0
읍/면	95	1.1	8.4	9.5	56.8	28.4	5.3	33.7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8	11.6	12.4	46.3	35.4	5.8	41.3	100.0
중도	588	0.3	5.1	5.4	52.9	35.9	5.8	41.7	100.0
보수적	217	1.4	5.1	6.5	43.8	36.4	13.4	49.8	100.0
종교									
불교	207	1.0	7.2	8.2	41.5	40.6	9.7	50.2	100.0
기독교	220	0.5	12.7	13.2	41.4	35.5	10.0	45.5	100.0
천주교	81	0.0	6.2	6.2	60.5	29.6	3.7	33.3	100.0
기타	2	0.0	50.0	50.0	5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0.7	5.7	6.4	52.6	35.2	5.8	41.0	100.0
모름/무응답	19	0.0	0.0	0.0	47.4	42.1	10.5	52.6	100.0

표66. 사회 계층

문) ○○님은 자신이 한국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⑤	⑥	⑤+⑥	계
		상의 상	상의 하		중의 상	중의 하		하의 상	하의 하		
		%	%	%	%	%	%	%	%	%	%
전 체	1200	0.2	1.5	1.7	25.7	50.5	76.2	19.5	2.7	22.2	100.0
성별											
남자	615	0.3	1.6	2.0	23.3	51.1	74.3	21.0	2.8	23.7	100.0
여자	585	0.0	1.4	1.4	28.2	49.9	78.1	17.9	2.6	20.5	100.0
연령별											
19~29세	221	0.0	1.4	1.4	31.7	48.4	80.1	17.6	0.9	18.6	100.0
30대	221	0.0	1.8	1.8	24.0	52.5	76.5	19.0	2.7	21.7	100.0
40대	252	0.4	1.6	2.0	24.2	53.6	77.8	18.3	2.0	20.2	100.0
50대	262	0.4	0.8	1.1	29.0	52.3	81.3	15.3	2.3	17.6	100.0
60대 이상	244	0.0	2.0	2.0	19.7	45.5	65.2	27.5	5.3	32.8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0.0	2.6	2.6	13.7	42.7	56.4	35.0	6.0	41.0	100.0
고졸	485	0.0	0.6	0.6	20.8	51.5	72.4	23.9	3.1	27.0	100.0
대재 이상	594	0.3	2.0	2.4	31.6	51.3	83.0	13.0	1.7	14.6	100.0
모름/무응답	4	0.0	0.0	0.0	75.0	25.0	10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0.0	7.1	7.1	28.6	42.9	71.4	14.3	7.1	21.4	100.0
자영업	294	0.3	1.0	1.4	25.5	51.7	77.2	19.0	2.4	21.4	100.0
블루 칼라	337	0.3	0.6	0.9	18.4	50.7	69.1	26.4	3.6	30.0	100.0
화이트 칼라	264	0.0	3.0	3.0	32.2	54.9	87.1	9.1	0.8	9.8	100.0
전업 주부	168	0.0	1.2	1.2	26.2	46.4	72.6	22.0	4.2	26.2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0	1.6	1.6	30.9	43.9	74.8	21.1	2.4	23.6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0.0	1.2	1.2	12.8	31.4	44.2	38.4	16.3	54.7	100.0
200~299 만원	186	0.0	0.0	0.0	12.4	51.1	63.4	33.3	3.2	36.6	100.0
300~399 만원	333	0.0	1.2	1.2	17.4	53.8	71.2	24.9	2.7	27.6	100.0
400만원 이상	595	0.3	2.2	2.5	36.3	51.3	87.6	9.4	0.5	9.9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0.2	1.4	1.6	28.3	49.4	77.8	19.5	1.2	20.7	100.0
충청권	155	0.0	1.3	1.3	25.2	57.4	82.6	13.5	2.6	16.1	100.0
호남권	143	0.0	2.1	2.1	28.0	50.3	78.3	18.2	1.4	19.6	100.0
영남권	318	0.3	1.6	1.9	18.9	49.4	68.2	24.2	5.7	29.9	100.0
강원	44	0.0	2.3	2.3	22.7	56.8	79.5	15.9	2.3	18.2	100.0
제주	32	0.0	0.0	0.0	46.9	37.5	84.4	12.5	3.1	15.6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0.2	0.7	0.9	24.4	52.0	76.5	19.5	3.1	22.6	100.0
중/소도시	561	0.2	2.0	2.1	25.1	49.4	74.5	21.0	2.3	23.4	100.0
읍/면	95	0.0	3.2	3.2	35.8	48.4	84.2	10.5	2.1	12.6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0.0	3.3	3.3	28.6	47.3	75.9	19.2	1.5	20.8	100.0
중도	588	0.3	0.7	1.0	26.4	53.1	79.4	17.2	2.4	19.6	100.0
보수적	217	0.0	0.5	0.5	18.4	49.3	67.7	26.3	5.5	31.8	100.0
종교											
불교	207	0.5	1.4	1.9	21.3	43.0	64.3	27.5	6.3	33.8	100.0
기독교	220	0.5	1.8	2.3	30.5	46.4	76.8	19.1	1.8	20.9	100.0
천주교	81	0.0	1.2	1.2	32.1	53.1	85.2	12.3	1.2	13.6	100.0
기타	2	0.0	0.0	0.0	100.0	0.0	10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0.0	1.5	1.5	24.6	53.9	78.5	18.2	1.8	20.0	100.0
모름/무응답	19	0.0	0.0	0.0	21.1	52.6	73.7	15.8	10.5	26.3	100.0

표67. 생활 수준 개선도

문)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훨씬 좋아졌다	② 약간 좋아졌다	①+②	③ 차이가 거의 없다	④ 약간 나빠졌다	⑤ 훨씬 나빠졌다	④+⑤	잘 모르겠다	계
		%	%	%	%	%	%	%	%	%
전 체	1200	17.9	46.1	64.0	26.0	6.5	2.4	8.9	1.1	100.0
성별										
남자	615	19.5	45.0	64.6	24.1	7.2	2.9	10.1	1.3	100.0
여자	585	16.2	47.2	63.4	28.0	5.8	1.9	7.7	0.9	100.0
연령별										
19~29세	221	13.6	48.0	61.5	28.5	5.9	1.8	7.7	2.3	100.0
30대	221	11.8	49.8	61.5	27.1	6.8	3.2	10.0	1.4	100.0
40대	252	19.8	45.2	65.1	22.6	7.5	3.6	11.1	1.2	100.0
50대	262	21.4	43.5	64.9	26.0	6.9	1.9	8.8	0.4	100.0
60대 이상	244	21.7	44.7	66.4	26.2	5.3	1.6	7.0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19.7	45.3	65.0	32.5	1.7	0.9	2.6	0.0	100.0
고졸	485	15.5	47.0	62.5	28.0	7.4	1.4	8.9	0.6	100.0
대재 이상	594	19.5	45.3	64.8	23.2	6.7	3.5	10.3	1.7	100.0
모름/무응답	4	25.0	75.0	100.0	0.0	0.0	0.0	0.0	0.0	10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42.9	21.4	64.3	21.4	14.3	0.0	14.3	0.0	100.0
자영업	294	22.8	47.3	70.1	22.4	3.7	3.1	6.8	0.7	100.0
블루 칼라	337	13.4	45.4	58.8	28.8	8.9	2.7	11.6	0.9	100.0
화이트 칼라	264	21.6	46.2	67.8	23.9	4.9	2.3	7.2	1.1	100.0
전업 주부	168	14.9	48.2	63.1	28.6	6.5	1.2	7.7	0.6	100.0
학생/군인/무직	123	12.2	44.7	56.9	28.5	8.9	2.4	11.4	3.3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23.3	37.2	60.5	27.9	4.7	5.8	10.5	1.2	100.0
200~299 만원	186	16.7	40.9	57.5	27.4	11.3	3.8	15.1	0.0	100.0
300~399 만원	333	14.4	45.6	60.1	30.9	5.1	3.0	8.1	0.9	100.0
400만원 이상	595	19.5	49.2	68.7	22.5	6.1	1.2	7.2	1.5	100.0
지역별										
수도권	508	14.4	47.8	62.2	25.4	8.7	2.4	11.0	1.4	100.0
충청권	155	20.6	46.5	67.1	26.5	3.9	1.9	5.8	0.6	100.0
호남권	143	23.1	51.7	74.8	20.3	3.5	0.7	4.2	0.7	100.0
영남권	318	18.9	42.8	61.6	29.6	5.3	2.5	7.9	0.9	100.0
강원	44	15.9	34.1	50.0	29.5	11.4	9.1	20.5	0.0	100.0
제주	32	31.3	40.6	71.9	18.8	3.1	3.1	6.3	3.1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18.2	48.9	67.1	21.3	8.3	2.6	10.8	0.7	100.0
중/소도시	561	15.3	44.7	60.1	31.2	5.5	1.8	7.3	1.4	100.0
읍/면	95	31.6	37.9	69.5	22.1	2.1	5.3	7.4	1.1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7.5	50.4	67.8	22.0	6.8	2.0	8.9	1.3	100.0
중도	588	16.5	45.2	61.7	28.1	7.0	2.0	9.0	1.2	100.0
보수적	217	22.6	40.6	63.1	27.6	4.6	4.1	8.8	0.5	100.0
종교										
불교	207	23.2	40.6	63.8	28.0	2.9	4.3	7.2	1.0	100.0
기독교	220	23.6	51.8	75.5	16.8	5.9	1.4	7.3	0.5	100.0
천주교	81	13.6	44.4	58.0	32.1	8.6	1.2	9.9	0.0	100.0
기타	2	50.0	5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14.9	46.2	61.1	27.9	7.5	2.1	9.5	1.5	100.0
모름/무응답	19	15.8	42.1	57.9	21.1	10.5	10.5	21.1	0.0	100.0

표68. 15세 이전 최장기 거주 지역

문) ○○님께서 만15세까지 가장 오래 산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례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도	강원도
		%	%	%	%	%	%	%	%	%
전 체	1200	13.8	6.8	4.5	4.3	2.3	3.4	3.0	14.6	4.9
성별										
남자	615	13.7	6.7	4.4	4.4	2.3	3.7	3.6	13.5	5.0
여자	585	14.0	6.8	4.6	4.1	2.2	3.1	2.4	15.7	4.8
연령별										
19~29세	221	18.1	6.8	5.9	5.9	2.7	5.9	3.2	18.6	5.0
30대	221	15.4	7.7	5.0	5.4	3.2	3.6	3.2	19.9	3.6
40대	252	16.3	7.1	4.0	3.6	2.0	3.2	3.6	13.9	4.0
50대	262	9.2	6.1	3.4	3.4	1.9	3.1	2.3	10.7	6.5
60대 이상	244	11.1	6.1	4.5	3.3	1.6	1.6	2.9	11.1	5.3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7.7	7.7	2.6	3.4	0.9	1.7	1.7	11.1	6.0
고졸	485	10.5	5.8	3.1	4.3	2.7	3.1	2.5	16.5	5.6
대재 이상	594	17.8	7.4	6.1	4.4	2.2	4.0	3.7	13.8	4.2
모름/무응답	4	0.0	0.0	0.0	0.0	0.0	0.0	0.0	0.0	0.0
직업별										
농/수/축산업	14	14.3	0.0	7.1	0.0	0.0	0.0	7.1	7.1	0.0
자영업	294	8.8	7.5	3.7	3.7	1.0	5.1	1.7	13.9	5.4
블루 칼라	337	11.3	7.7	4.5	3.6	2.4	3.0	4.2	15.7	6.2
화이트 칼라	264	18.6	5.7	5.3	4.9	4.2	3.0	1.9	11.0	3.0
전업 주부	168	12.5	8.9	5.4	4.2	2.4	2.4	3.6	18.5	3.0
학생/군인/무직	123	24.4	2.4	3.3	6.5	0.8	3.3	4.1	16.3	7.3
가구 소득 수준										
200만원 미만	86	16.3	5.8	3.5	4.7	1.2	2.3	4.7	8.1	9.3
200~299 만원	186	7.5	7.0	5.9	3.8	1.1	2.7	0.5	21.0	7.0
300~399 만원	333	10.8	6.0	2.4	6.3	0.9	2.4	3.9	14.7	5.4
400만원 이상	595	17.1	7.2	5.4	3.2	3.5	4.4	3.0	13.4	3.4
지역별										
수도권	508	30.1	1.8	1.4	9.6	0.6	1.4	1.0	31.7	2.6
충청권	155	1.3	1.3	0.6	0.6	0.0	21.9	0.6	1.9	2.6
호남권	143	2.8	0.0	0.0	0.7	16.8	0.0	0.0	4.9	0.0
영남권	318	0.6	21.4	14.2	0.0	0.0	0.0	9.4	0.3	0.9
강원	44	6.8	0.0	0.0	0.0	0.0	0.0	0.0	4.5	86.4
제주	32	6.3	6.3	3.1	0.0	0.0	0.0	0.0	3.1	3.1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1.9	12.5	9.0	8.1	4.4	5.3	6.1	5.9	1.1
중/소도시	561	7.5	1.8	0.9	1.2	0.5	2.1	0.5	24.8	7.7
읍/면	95	5.3	3.2	0.0	0.0	0.0	0.0	0.0	4.2	10.5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15.2	6.6	2.5	4.8	2.5	3.5	2.5	15.2	6.3
중도	588	14.6	6.5	4.4	4.4	2.9	3.6	3.9	15.6	3.7
보수적	217	9.2	7.8	8.3	2.8	0.0	2.8	1.4	10.6	5.5
종교										
불교	207	4.8	11.6	6.8	1.9	0.0	2.9	4.8	12.1	5.8
기독교	220	15.0	3.6	4.5	3.6	4.1	4.5	2.3	19.5	6.8
천주교	81	25.9	1.2	2.5	9.9	3.7	2.5	2.5	11.1	3.7
기타	2	0.0	0.0	0.0	0.0	0.0	0.0	0.0	0.0	0.0
종교 없음	671	14.6	6.9	4.2	4.6	2.2	3.4	2.5	14.5	4.3
모름/무응답	19	21.1	10.5	0.0	0.0	0.0	0.0	10.5	5.3	0.0

	사례수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북한	외국	계
		%	%	%	%	%	%	%	%	%	%
전 체	1200	4.4	7.2	5.8	7.4	7.8	7.8	2.0	0.1	0.1	100.0
성별	남자	615	3.4	8.3	5.9	7.3	7.8	7.8	2.1	0.2	100.0
	여자	585	5.5	6.0	5.6	7.5	7.7	7.9	1.9	0.0	100.0
연령별	19~29세	221	1.8	5.9	3.6	4.5	4.5	5.4	2.3	0.0	100.0
	30대	221	3.6	7.2	3.6	5.4	5.4	5.9	1.8	0.0	100.0
	40대	252	5.2	7.9	5.6	6.3	8.3	7.1	2.0	0.0	100.0
	50대	262	3.8	8.0	8.0	10.3	9.9	10.7	2.3	0.0	100.0
	60대 이상	244	7.4	6.6	7.4	9.8	9.8	9.4	1.6	0.4	100.0
교육 수준별	중졸 이하	117	6.8	5.1	12.8	10.3	10.3	12.0	0.0	0.0	100.0
	고졸	485	4.3	8.2	5.2	9.7	8.0	8.5	1.9	0.0	100.0
	대재 이상	594	4.0	6.7	4.9	5.1	7.1	6.1	2.4	0.2	100.0
직업별	모름/무응답	4	0.0	0.0	0.0	0.0	0.0	75.0	25.0	0.0	100.0
	농/수/축산업	14	0.0	0.0	0.0	14.3	14.3	7.1	28.6	0.0	100.0
	자영업	294	3.4	4.4	6.8	7.8	10.5	13.3	2.7	0.0	100.0
	블루 칼라	337	4.7	10.7	5.6	8.0	6.5	5.3	0.3	0.0	100.0
	화이트 칼라	264	7.6	10.6	4.5	6.4	6.8	5.3	1.1	0.0	100.0
	전업 주부	168	4.2	2.4	6.5	10.1	7.7	7.1	1.2	0.0	100.0
	학생/군인/무직	123	0.0	4.1	5.7	2.4	5.7	8.1	4.9	0.8	100.0
	200만원 미만	86	3.5	3.5	8.1	7.0	5.8	10.5	5.8	0.0	100.0
가구 소득 수준	200~299 만원	186	4.3	9.7	4.8	7.5	6.5	8.1	2.2	0.0	100.0
	300~399 만원	333	2.4	7.8	4.5	10.8	10.2	9.3	1.8	0.3	100.0
	400만원 이상	595	5.7	6.6	6.4	5.5	7.1	6.6	1.5	0.0	100.0
	수도권	508	3.5	3.1	3.3	4.9	2.6	2.2	0.0	0.2	100.0
지역별	충청권	155	22.6	42.6	1.3	1.3	0.0	0.6	0.0	0.6	100.0
	호남권	143	0.0	1.4	32.9	39.2	0.7	0.7	0.0	0.0	100.0
	영남권	318	0.0	0.6	0.9	1.3	24.8	25.5	0.0	0.0	100.0
	강원	44	0.0	0.0	0.0	2.3	0.0	0.0	0.0	0.0	100.0
	제주	32	0.0	0.0	0.0	3.1	0.0	0.0	75.0	0.0	100.0
지역 크기별	대도시	544	2.4	3.3	3.1	7.0	5.5	4.2	0.0	0.2	100.0
	중/소도시	561	5.9	10.5	7.3	5.5	9.6	11.1	2.9	0.0	100.0
	읍/면	95	7.4	9.5	11.6	21.1	9.5	9.5	8.4	0.0	100.0
정치적 성향	진보적	395	3.8	7.3	6.6	9.1	5.8	5.6	2.3	0.0	100.0
	중도	588	5.3	7.1	6.0	6.6	7.0	6.6	1.7	0.0	100.0
	보수적	217	3.2	6.9	3.7	6.5	13.4	15.2	2.3	0.5	100.0
종교	불교	207	4.3	5.3	5.3	2.9	14.5	12.6	4.3	0.0	100.0
	기독교	220	4.1	3.6	8.6	7.7	4.5	3.6	3.2	0.5	100.0
	천주교	81	4.9	3.7	3.7	12.3	6.2	6.2	0.0	0.0	100.0
	기타	2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671	4.6	9.5	4.6	8.2	7.2	7.3	1.2	0.0	100.0
	모름/무응답	19	0.0	0.0	15.8	5.3	0.0	31.6	0.0	0.0	100.0



설문지

IRB No. 1905/002-014



유효기간: 2020년 5월 12일

110-054 서울시 중로구 사직동 208 전화 [02] 3702-2100, 팩스 [02] 3702-2121, 한국갤럽홈페이지 www.gallup.co.kr, 갤럽패널홈 panel.gallup.co.kr
한국갤럽 GALLUP KOREA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2019 통일외식조사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조사로,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사는 7월 한 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 약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설문조사를 마치는데 약 20분 내외의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귀하께서 본 설문에 참여하실 경우 소정의 답례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본 설문조사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우리 국민의 통일외식을 더 잘 이해하고 통일정책을 수립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설문조사를 참여하는 도중에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귀하께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에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언제든지 설문을 중단할 수 있으며 설문지는 즉시 폐기됩니다.

이 연구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임경훈 교수이며, 이 자료는 사회과학자료원에 기탁될 예정입니다. 단, 이 조사결과가 공개될 때 귀하의 이름은 물론 식별 가능한 다른 어떤 개인 정보도 제공되거나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이 조사결과를 통해 얻은 모든 개인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자료처리 후 폐기 처리됩니다.

이 연구에 대해 질문이 있거나 설문 중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김학재 교수(02-880-2208)에게, 참여자의 권리를 문의할 시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02-880-5153)에 문의해 주십시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장 임경훈

동의함 (이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을 듣고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안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동의함 (또한 귀하가 응답하신 설문자료가 사회과학자료원에 제공되는 것에 동의하신다면 안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연구 주관 기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9년 7월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회장 박재형
담당연구원 박지원
(☎ 02-3702-2692)
실사연구원 임문정
(☎ 02-3702-2684)
주소 서울시 중로구 사직동 208

☐ 지역: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세종)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 지역코기: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별: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만 _____ 세 → 만 19세 미만, 만 75세 이상 조사 중단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보기카드 1 제시)

○○님은 통일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
2. 남북 간 경제협력에 심화되는 것
3.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
4. 가치, 문화, 교육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
5. 기타(적을 것 : _____)

문 2)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가능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3.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좋다.
4. 현재대로가 좋다
5.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4)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5년 이내 | 2. 10년 이내 |
| 3. 20년 이내 | 4. 30년 이내 |
| 5. 30년 이상 | 6. 불가능하다 |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기적 남북회담'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 북한 비핵화	1	2	3	4
㉧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남북한 사회문화교류	1	2	3	4
㉩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 중전선언과 평화협정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 간에 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7) (보기카드 4 제시)

만약 통일이 되지 않아야 한다면 ○○님은 그 이유로 가장 큰 것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북 간 정치체제의 차이
2. 남북 간 사회문화적 차이
3.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4. 통일 이후 생겨날 사회적 문제
5. 통일로 인한 주변국 정세의 불안정
6. 기타(적을 것 : _____)

문 8)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10)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 빈부격차	1	2	3	4	5
㉡ 부동산투기	1	2	3	4	5
㉢ 실업문제	1	2	3	4	5
㉣ 범죄문제	1	2	3	4	5
㉤ 지역갈등	1	2	3	4	5
㉥ 이념갈등	1	2	3	4	5
㉦ 환경문제	1	2	3	4	5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5
㉨ 저출산·고령화	1	2	3	4	5
㉩ 세대갈등	1	2	3	4	5

문 11) (보기카드 5 제시)

○○님은 통일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문 12) ○○님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운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기억에 얼마나 남아있었습니까?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배운 적 있고/있으나 기억에-)				배운 적 없다
	매우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남아 있다	조금 남아 있다	거의 남아 있지 않다	
㉠ 갈등해결교육	1	2	3	4	5
㉡ 평화교육	1	2	3	4	5
㉢ 통일 비용과 이익 교육	1	2	3	4	5
㉣ 한민족 정체성 교육	1	2	3	4	5
㉤ 국가 안보교육	1	2	3	4	5
㉥ 북한 이해교육	1	2	3	4	5

문 13) ○○님은 통일을 생각 할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런 편이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화가 난다	1	2	3	4	5
㉡ 불안하다	1	2	3	4	5
㉢ 슬프다	1	2	3	4	5
㉣ 시큰둥하다	1	2	3	4	5
㉤ 희망적이다	1	2	3	4	5
㉥ 기쁘다	1	2	3	4	5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 14)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5)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7) ○○님은 "현재의 북한 정권은 앞으로 안정될 것이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 '그저 그렇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동의한다
2. 대체로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18)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많이 변하고 있다
- 2. 약간 변하고 있다
-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9)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많이 있다
- 2. 약간 있다
- 3. 별로 없다
- 4. 전혀 없다

문 20)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 선군정치	1	2	3	4
㉡ 주체사상	1	2	3	4
㉢ 천리마운동	1	2	3	4
㉣ 고난의 행군	1	2	3	4
㉤ 정미당	1	2	3	4
㉥ 모란봉 악단	1	2	3	4

문 21)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또는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경험	1	2
㉡ 탈북자(북한이탈주민)와 만나 본 경험	1	2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 본 경험	1	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경험	1	2

문 22)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거방식'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 선거방식	1	2	3	4
㉡ 사회복지	1	2	3	4
㉢ 언어사용	1	2	3	4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 가족에 대한 중시	1	2	3	4
㉥ 돈에 대한 중시	1	2	3	4

문 23)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4)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동의한다
- 2. 다소 동의한다
-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문 25) ○○님은 "북한도 하나의 국가다"라는 의견에 찬성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찬성한다', '다소 찬성한다',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찬성한다
- 2. 다소 찬성한다
- 3. 반반 / 그저그렇다
- 4. 다소 반대한다
- 5. 매우 반대한다

문 26)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다소 심각하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심각하다
- 2. 다소 심각하다
- 3. 보통이다
- 4. 별로 심각하지 않다
- 5. 전혀 심각하지 않다

문 27) ○○님은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인도적 대북지원
- 2.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
- 3. 대북 제재
- 4. 북한의 민주화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8) ○○님은 북한의 개혁개방에 다음의 대북정책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 남북 사회문화교류	1	2	3	4
㉢ 남북 경제협력	1	2	3	4
㉣ 대북 제재	1	2	3	4

문 29)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만족
- 2. 다소 만족
- 3. 다소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문 30)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개성공단은 재가동되어야 한다	1	2	3	4	5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남북 교류협력은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대북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1	2	3	4	5

문 31) ○○님은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크다', '조금 크다', '그저 그렇다',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크다
- 2. 조금 크다
- 3. 그저 그렇다
- 4. 별로 크지 않다
- 5. 거의 없다

문 32)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향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정 이 장기간 지속되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정책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비핵-평화프로세스의 지속 추진
2. 한미공조 강화
3. 남북 교류 협력 확대
4.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갈등해소와 협력
5. 한국의 독자노선 수립

문 33)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에서 한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2순위

1. 북한과 미국사이에서 협상을 중재하거나 촉진하는 역할
2. 북한, 미국과 함께 당사국으로서 협상하고 합의하는 역할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국주도의 안보적 균형을 맞추는 역할
4. 중국, 일본과 같은 위치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협력하는 역할
5. 상황에 따라 위에 제시된 두 가지 이상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4) ○○님은 평소 한국에 거주하는 아래의 이주자에 대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친근	다소 친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친근하지 않음	전혀 친근하지 않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	1	2	3	4	5
㉡ 조선족(중국동포)	1	2	3	4	5
㉢ 중국인(한족)	1	2	3	4	5
㉣ 미국인	1	2	3	4	5
㉤ 동남아시아인(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1	2	3	4	5
㉥ 일본인	1	2	3	4	5
㉦ 남아시아인(네팔, 스리랑카, 인도 등)	1	2	3	4	5

문 35) ○○님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 동네 이웃	1	2	3	4	5
㉡ 직장 동료	1	2	3	4	5
㉢ 사업 동업자	1	2	3	4	5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6) (보기카드 9 제시)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7)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먼저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 정부는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	1	2	3	4
㉣ 탈북자(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문 38)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 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 어느 국가든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	1	2	3	4	5
㉡ 여러 민족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면 국가의 결속력을 해치게 된다	1	2	3	4	5
㉢ 외국인인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한국과 다른 자신들의 전통이나 생활습관을 버려야 한다	1	2	3	4	5
㉣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는 학교나 직장생활 등에서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1	2	3	4	5

문 39)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같은 민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 40) ○○님은 현재 남한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을 대한민국 시민이라 생각하십니까?

-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한다
-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문 41) 진정한 한국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님은 이 사항들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중요하다	다소 중요하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 한국에서 태어나는 것	1	2	3	4
㉡ 한국 국적을 갖는 것	1	2	3	4
㉢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사는 것	1	2	3	4
㉣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것	1	2	3	4
㉤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따르는 것	1	2	3	4
㉥ 한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존중하는 것	1	2	3	4
㉦ 한국인임을 느끼는 것	1	2	3	4
㉧ 한국인 조상을 가지고 있는 것	1	2	3	4
㉨ 한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42)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 | | |
|--------|-------|
| 1. 미국 | 2. 일본 |
| 3. 북한 | 4. 중국 |
| 5. 러시아 | |

문 43)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미국 | 2. 일본 |
| 3. 북한 | 4. 중국 |
| 5. 러시아 | |

문 44)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북한 팀
- 미국 팀
-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 기타(적을 것 : _____)

문 45)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6)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 다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7)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 미국	1	2	3	4
㉡ 일본	1	2	3	4
㉢ 중국	1	2	3	4
㉣ 러시아	1	2	3	4

문 48)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㉞ 미국	1	2	3	4
㉟ 일본	1	2	3	4
㊱ 중국	1	2	3	4
㊲ 러시아	1	2	3	4

문 49) (보기카드 10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현재 '남북 간 협력'과 '한미 간 협력',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남북 간 협력
- 2. 한미 간 협력
- 3. 한중 간 협력
- 4. 모두 중요하다

문 50)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현재 '한미 간 협력'과 '한중 간 협력' 가운데 어느 것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한미 간 협력
- 2. 한중 간 협력
- 3. 모두 강화해야 한다

문 51) ○○님은 중국의 부상(강대국화 및 주변국 영향력 확대)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 2. 다소 도움이 될 것이다
- 3. 도움이 되지도 안 되지도 않을 것이다
- 4.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 5.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문 52) (보기카드 12 제시)

○○님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 1.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2.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3. 중립을 지켜야 한다

지금부터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53)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아래 ㉞부터 ㉟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㉞ 빈부격차	1	2	3	4
㉟ 부동산투기	1	2	3	4
㊱ 실업문제	1	2	3	4
㊲ 범죄문제	1	2	3	4
㊳ 지역갈등	1	2	3	4
㊴ 이념갈등	1	2	3	4
㊵ 환경파괴	1	2	3	4
㊶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㊷ 저출산·고령화	1	2	3	4
㊸ 세대갈등	1	2	3	4

문 54)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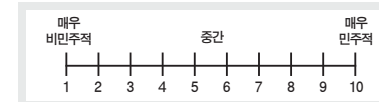
- 1. 매우 만족
- 2. 다소 만족
- 3. 다소 불만족
- 4. 매우 불만족

문 55)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자랑스럽다
- 2. 다소 자랑스럽다
-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56) (보기카드 13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문 57)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 1. 매우 관심이 있다
- 2. 다소 관심이 있다
- 3. 별로 관심이 없다
-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8) 다음의 주장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아래 ㉞부터 ㉟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보통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㉞ 나 같은 사람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영향도 주기 어렵다	1	2	3	4	5
㉟ 정부는 나 같은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다	1	2	3	4	5
㊱ 나는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정치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㊲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정치나 행정에 대해 나보다 잘 알고 있다	1	2	3	4	5

문 59) (보기카드 14 제시)

○○님은 다음 각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매우 찬성', '비교적 찬성', '비교적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㉞부터 ㉟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비교적 찬성	비교적 반대	매우 반대
㉞ 집회 및 시위 자유 보장	1	2	3	4
㉟ 국가보안법 폐지	1	2	3	4
㊱ 경제성장보다는 복지 중심	1	2	3	4
㊲ 고소득자에게 현재보다 세금 더 부과	1	2	3	4
㊳ 철도 등 공기업 민영화 추진	1	2	3	4
㊴ 학교에서 체벌 허용	1	2	3	4

㉔ 종교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대체복무제 허용	1	2	3	4
㉕ 사형제 폐지	1	2	3	4
㉖ 이주 노동자 및 난민에 대한 엄격한 규제 필요	1	2	3	4
㉗ 성평등 정책 확대 ex) 여성할당제	1	2	3	4
㉘ 경제발전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지금보다 더 필요	1	2	3	4
㉙ 재벌규제 지금보다 더 강화	1	2	3	4
㉚ 경제성장을 위해 지금보다 노조활동 규제	1	2	3	4

문 60)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61) ○○님은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 | | |
|------------|----------|
| 1. 더불어민주당 | 2. 자유한국당 |
| 3. 바른미래당 | 4. 민주평화당 |
| 5. 정의당 | 6. 기타 정당 |
| 7. 지지정당 없음 | |

(※ 이 문항에 불편함을 느끼시면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 62) ○○님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하셨습니까?

- | | |
|-------------|-----------|
| 1. 문재인 | 2. 홍준표 |
| 3. 안철수 | 4. 유승민 |
| 5. 심상정 | 6. 기타 후보자 |
| 7. 투표하지 않았다 | |

문 63) ○○님은 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자)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자, 전자/가전제품 A/S 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직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직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적을 것 : 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 | | |
|----------|-------|
| 1. 미혼 | 2. 기혼 |
| 3. 이혼/별거 | 4. 사별 |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되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
|---------------|--------------|
|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 2. 중학교 졸업 |
| 3. 고등학교 졸업 | 4. 대학재학/대학졸업 |
| 5. 대학원재학 이상 | |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적을 것 : 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 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 | | |
|-----------------|-----------------|
| 1. 월 49만원 이하 | 2. 월 50~99만원 |
| 3. 월 100~149만원 | 4. 월 150~199만원 |
| 5. 월 200~249만원 | 6. 월 250~299만원 |
| 7. 월 300~349만원 | 8. 월 350~399만원 |
| 9. 월 400~499만원 | 10. 월 500~599만원 |
| 11. 월 600~699만원 | 12. 월 700만원 이상 |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 | | |
|---------------|---------------|
|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
| 3. 중간과 비슷하다 |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
|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 |

D 7) (보카카드 15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상의 상 2. 상의 하
- 3. 중의 상 4. 중의 하
- 5. 하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 1. 서울 2. 부산
- 3. 대구 4. 인천
- 5. 광주 6. 대전
- 7. 울산 8. 경기도
- 9. 강원도 10. 충청북도
-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 17. 북한 18. 외국

면 접 후 기 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 연락처	1. 일반전화 ()-()-() 2. 휴대폰 ()-()-()
조 사 일 시	___ 월 ___ 일 ___ 시 ___ 분 부터 ___ 시 ___ 분까지 (___ 분간) (* 반드시 적어 주세요)
협 조 정 도	1. 상 2. 중 3. 하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에 디 팅 (editing) 기 록 표

조사원	성명				
	ID				
실사 감독원	1차(현장) 에디팅	1. 완료 2. 미완료	(서명)		
	2차 에디팅	1. 완료 2. 미완료	(서명)		
자료 검증원	성명				
	ID				
	검증여부	1. 완료 2. 미완료	(서명)		

답 레 품 인 수 확 인 서

품목	상품권 1매
수령일	2019년 7월 ()일
인수자 성명	
답례품 확인	답례품을 잘 받았습니다. (서명)
비고	

조사자점명	조사원 이름	설문지 ID

연 구 주 관



실 사 기 관



오랜 시간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